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2013. 2.



제 출 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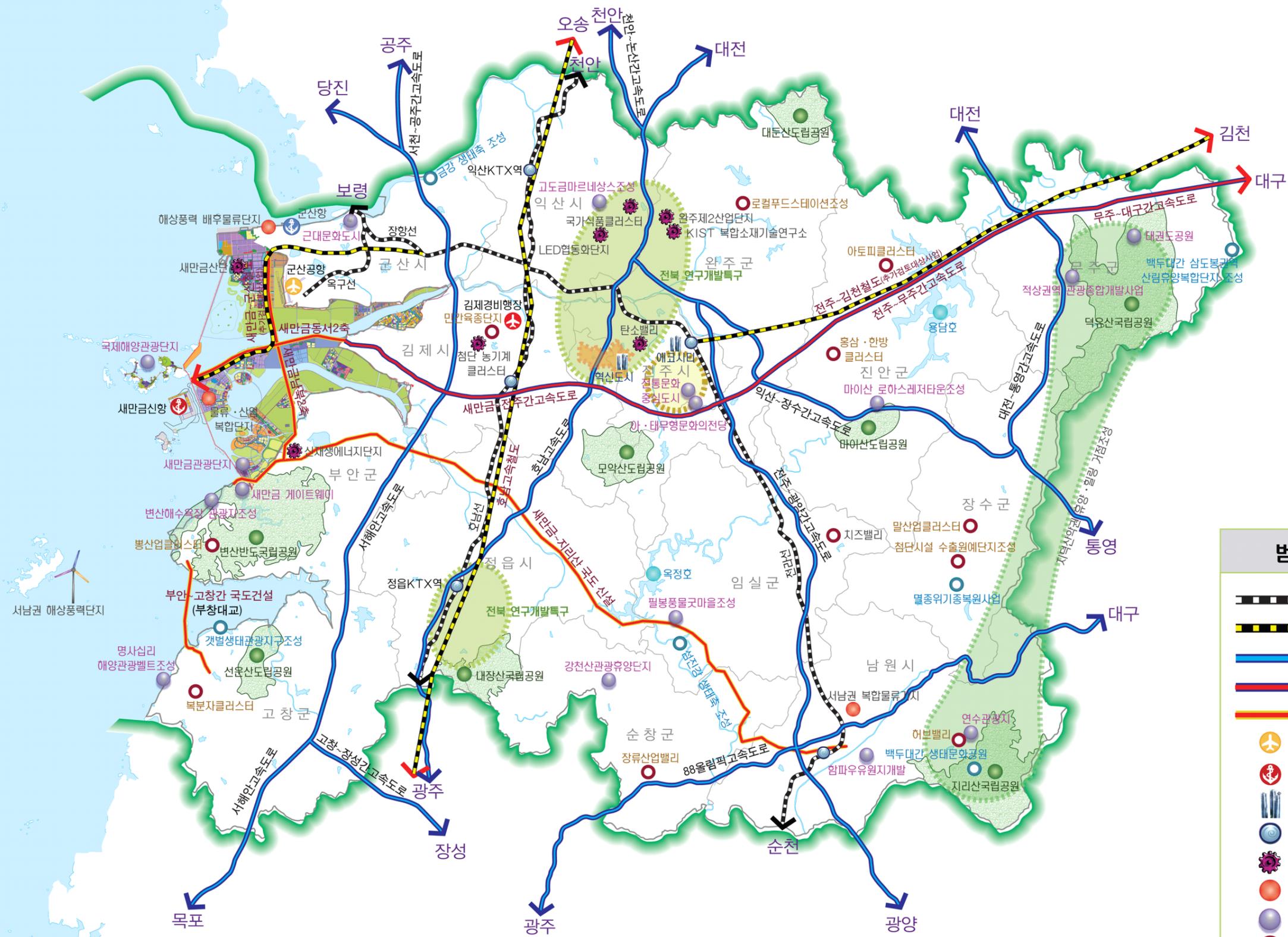
전라북도지사 귀하

본 보고서를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연구용역
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3년 2월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김 경 섭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범례	
	철도(기정)
	철도(계획)
	고속도로(기정)
	고속도로(계획)
	국도(계획)
	공항
	항만
	신도시, 주거단지
	철도역사
	산업단지
	물류유통단지
	문화관광사업
	농업관련사업
	환경관련사업

목 차

I. 계획의 개요	1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3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	3
1. 계획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3
2. 계획수립의 목적	4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5
1. 계획의 성격	5
2. 계획의 역할	6
제3절 계획의 범위와 수립절차	7
1. 계획의 범위	7
2. 계획 수립절차	10
제2장 전라북도 현황 및 기존계획 검토	11
제1절 전라북도의 현황 및 특성	11
1. 입지여건	11
2. 자연 환경	13
3. 인문사회 환경	16
4.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24
5. 지역경제	25
6. 사회간접자본시설	29
7. 문화·관광자원	29
제2절 관련계획의 검토	31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31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33
3.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34
4.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37
5. 호남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39
6. 전주광역권 도시계획	41
7.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44

8. 전주-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	47
9. 제5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49
10.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51
제3절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평가	53
제3장 여건변화 전망 및 계획과제	56
제1절 여건변화 전망	56
1. 중국의 부상과 서해안시대 성숙	56
2. KTX 개통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증대	58
3. 새만금 개발의 본격 추진	60
4. 사회양극화 심화와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	62
5. 새만금의 국제관광거점 부상과 전북관광의 경쟁력 강화	65
6. FTA의 진전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67
제2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70
1. 조사개요	70
2. 분석결과	72
제3절 전라북도의 현안문제 및 계획과제	83
1. SWOT 분석	83
2. 계획과제	84
II. 계획의 기본방향	87
제1장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89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89
1. 계획의 비전	89
2. 계획의 목표	90
제2절 계획지표의 설정	92
1. 인구지표 전망	92
2. 지역경제지표 전망	94
3. 주요 사회지표 전망	96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99
제1절 발전축 구상	99
1. 발전축 설정의 기본 방향	99

2. 발전축 설정	100
3. 각 발전축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 추진	102
제2절 지역생활권 설정	106
1. 지역생활권 설정의 기본 방향	106
2. 지역중심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생활권 설정	107
III. 부문별 추진계획	109
제1장 새만금 조기개발	111
제1절 새만금 조기개발로 미래성장 기반 구축	111
1. 현황 및 문제점	111
2. 여건변화와 전망	115
3. 계획의 기본방향	118
4. 세부 추진과제	120
제2장 중추도시권 육성과 지역간 상생발전	122
제1절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육성	122
1. 현황 및 문제점	122
2. 여건변화와 전망	125
3. 계획의 기본방향	126
4. 세부 추진과제	128
제2절 특화발전과 연계체계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131
1. 현황 및 문제점	131
2. 여건변화와 전망	133
3. 계획의 기본방향	135
4. 세부 추진과제	136
제3장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140
제1절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140
1. 현황 및 문제점	140
2. 여건변화와 전망	149
3. 계획의 기본방향	153
4. 세부 추진과제	154
제2절 지역주도 수요대응형 서비스업 육성	156

1. 현황 및 문제점	156
2. 여건변화와 전망	160
3. 계획의 기본방향	162
4. 세부 추진과제	163
제4장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관광 창조지역 육성	164
제1절 관광산업 선진화를 통한 창조관광거점 조성	164
1. 현황 및 문제점	164
2. 여건변화와 전망	170
3. 계획의 기본방향	171
4. 세부 추진과제	172
제2절 문화향유 확대 및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174
1. 현황 및 문제점	174
2. 여건변화와 전망	179
3. 계획의 기본방향	180
4. 세부 추진과제	181
제5장 FTA에 대응한 강한 농업, 활력 농촌 실현	183
제1절 고부가가치 신성장 농림수산업의 창출과 확대	183
1. 현황 및 문제점	183
2. 여건변화와 전망	187
3. 계획의 기본방향	191
4. 세부 추진과제	196
제2절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농산어촌의 활력화 기반 구축	199
1. 현황 및 문제점	199
2. 여건변화와 전망	203
3. 계획의 기본방향	205
4. 세부 추진과제	208
제6장 국제교통물류망 확충과 토지연안이용 효율화	211
제1절 광역교통망 강화와 첨단교통환경체계 구축	211
1. 현황과 문제점	211
2. 여건변화와 전망	221

3. 계획의 기본방향	222
4. 세부 추진과제	223
제2절 스마트 정보인프라 구축	227
1. 현황 및 문제점	227
2. 여건변화와 전망	227
3. 계획의 기본방향	229
4. 세부 추진과제	231
제3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과 관리	236
1. 현황 및 문제점	236
2. 여건변화와 전망	242
3. 계획의 기본방향	243
4. 세부 추진과제	244
제4절 효율적인 연안이용과 관리체계 정착	247
1. 현황 및 문제점	247
2. 여건변화와 전망	250
3. 계획의 기본방향	252
4. 세부 추진과제	253

제7장 생활복지와 농촌복지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 256

제1절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농촌복지 인프라 확충	256
1. 현황 및 문제점	256
2. 여건변화와 전망	262
3. 계획의 기본방향	264
4. 세부 추진과제	265
제2절 체육시설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도민여가 수준 제고	267
1. 현황 및 문제점	267
2. 여건변화와 전망	268
3. 계획의 기본방향	269
4. 세부 추진과제	270
제3절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미래 융합형 인재양성	273
1. 현황 및 문제점	273
2. 여건변화와 전망	279
3. 계획의 기본방향	281
4. 세부 추진과제	281

제8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녹색 안전도시 조성	285
제1절 주거선진화 및 주거안정확보	285
1. 현황 및 문제점	285
2. 여건변화와 전망	288
3. 계획의 기본방향	289
4. 세부 추진과제	290
제2절 효율적이고 안전한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291
1. 현황 및 문제점	291
2. 여건변화와 전망	296
3. 계획의 기본방향	297
4. 세부 추진과제	298
제3절 녹색성장에 대응한 지역 자원의 개발과 관리	299
1. 현황 및 문제점	299
2. 여건변화와 전망	305
3. 계획의 기본방향	306
4. 세부 추진과제	306
제4절 실효성 있는 환경자산의 보전과 활용	308
1. 현황 및 문제점	308
2. 여건변화와 전망	315
3. 계획의 기본방향	315
4. 세부 추진과제	316
제5절 자연환경과 역사, 생활이 조화된 전북경관 창조	318
1. 현황 및 문제점	318
2. 여건변화와 전망	322
3. 계획의 기본방향	322
4. 세부 추진과제	323
제6절 선제적·입체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325
1. 현황 및 문제점	325
2. 여건변화와 전망	329
3. 계획의 기본 방향	331
4. 세부 추진과제	333

IV. 계획의 집행과 관리	337
제1장 행·재정계획	339
1. 행정계획	339
2. 재정계획	348
제2장 재정투자계획	357
1. 재정투자의 방향	357
2. 재정투자 계획	360
3. 자원조달 계획	365
V. 시·군 발전방향	369
제1장 전라북도 시지역	371
제1절 전주시	371
제2절 군산시	375
제3절 익산시	381
제4절 정읍시	387
제5절 남원시	391
제6절 김제시	396
제2장 전라북도 군지역	401
제1절 완주군	401
제2절 진안군	405
제3절 무주군	408
제4절 장수군	412
제5절 임실군	415
제6절 순창군	419
제7절 고창군	422
제8절 부안군	426
부록 : 투자사업목록	429

표 목 차

<표 1-1> 전라북도의 경·위도상 위치	12
<표 1-2> 행정구역별 면적 및 행정단위	12
<표 1-3> 기상 현황	15
<표 1-4> 해안선 및 도서현황	15
<표 1-5> 시·군별 인구변화 추이	18
<표 1-6> 도시인구 변화추이	19
<표 1-7>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20
<표 1-8> 시·군별 노령인구 비율	21
<표 1-9> 전북지역 인구이동패턴(지역별 추이)	22
<표 1-10> 시·군별 순인구 이동(2001-2010년)	23
<표 1-11> 전국과 전북의 토지이용현황	24
<표 1-12> 도시계획 지정현황	25
<표 1-13>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추이	25
<표 1-14> 전국 산업별 종사자수 변화추이	28
<표 1-15> 도민 생활지표 현황(전국대비)	30
<표 1-16> 호남권 광역 연계·협력의 주요 유형 및 방법	40
<표 1-17> 광역권별 주요 개발방향	48
<표 1-18> 관광소권 설정기준	49
<표 1-19> 소권별 거점 및 개발방향	50
<표 1-20>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08~2020년)의 추진성과」	55
<표 1-21> 전라북도의 국가별 수출입 구조(2011년 기준)	57
<표 1-22> 호남고속철도 주요 구간별 소요시간	59
<표 1-23> 복지재정의 장기전망	64
<표 1-24> 세계 지역별 국제관광객수와 성장률	65
<표 1-25>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입 추이	68
<표 1-26>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응답자 기본정보	71
<표 2-1> 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인구추정	93
<표 2-2> 전라북도의 2020년 인구 추정 결과	94
<표 2-3> 전라북도 2020년 계획인구	94
<표 2-4> 전국 국내총생산 전망(2005년 기준가격)	95
<표 2-5> 전국 1인당국내총생산 전망(경상가격)	95

<표 2-6>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전망	95
<표 2-7> 2020년 주요계획지표 전망	98
<표 3-1> 새만금 단계별 개발규모	113
<표 3-2> 새만금 용지별 소관부처	114
<표 3-3>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새만금 사업 예산 투입 현황	115
<표 3-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115
<표 3-5> 서해안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118
<표 3-6> 서해안신산업벨트 구상	118
<표 3-7> 전주광역도시권의 인구	122
<표 3-8> 전주광역도시권의 중심기능 지수	123
<표 3-9> 전라북도 농촌지역 시·군의 인구 및 노령인구 추이	131
<표 3-10> 전라북도 농촌지역 시·군의 중심기능 지수	133
<표 3-11> 동부권 권역별 특화·발전전략 기본구상	137
<표 3-12>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141
<표 3-13> 전라북도 산업구조(생산액 기준)	141
<표 3-14> 전라북도 제조업 현황	142
<표 3-15> 제조업 업종별 구성	143
<표 3-16> 전북 산업단지 현황	147
<표 3-17> 전북 수출입 현황	147
<표 3-18> 전라북도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2011년)	148
<표 3-19> 전라북도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2011년)	148
<표 3-20>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149
<표 3-21> 2단계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2012~2014년)	152
<표 3-22> 서비스업 업종별 구성(2009년)	156
<표 3-23> 전라북도 서비스산업의 업종구조 변화 추이(1999~2008년)	157
<표 3-24> 전라북도 전통시장 현황	159
<표 3-25> 전라북도 금융기관 현황	160
<표 3-26> 전북권 관광객 증가 추이	164
<표 3-27> 시·군별 관광객 추이	165
<표 3-28> 방문지역 만족도	166
<표 3-29> 국내여행 이동총량	167
<표 3-30> 전북권 관광(단지) 개발 현황	168
<표 3-31> 관광 사업체 현황	169
<표 3-32> 인구 100만당 명 문화시설 개수	174
<표 3-33> 광역도별(특별, 광역시 제외) 문화기반시설 현황	175

<표 3-34> 문화기반시설 과부족 현황	175
<표 3-35> 연도별 신설 문화재단	176
<표 3-36> 시설별 월 평균 급여액	177
<표 3-37> 전라북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변화	183
<표 3-38> 전라북도 농림업 취업자 전망	183
<표 3-39> 전라북도 농산물 부류별 생산자 조직화 현황	184
<표 3-40> 전라북도 주요 품목 부류별 생산 및 유통 현황	184
<표 3-41> 전라북도 지역농협이 취급하는 농산물 비중	185
<표 3-42> 전라북도 농가소득 추이	185
<표 3-43> 전라북도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185
<표 3-44> 전라북도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현황	186
<표 3-45> 전라북도 어업별 수산물 생산실적	187
<표 3-46>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전망 (인증단계별)	190
<표 3-47> 농산업 부문의 상호 연계성에 의한 가치창출과 원천	192
<표 3-48> 농촌인구 장기 전망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	199
<표 3-49> 농가소득 구성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추이	200
<표 3-50> 농촌-도시지역의 빈곤층 실태	201
<표 3-51> 농촌-도시지역의 초등학교 수 변화 추이	201
<표 3-52> 농어촌-도시의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활성화 실태 비교	201
<표 3-53> 농어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비교	202
<표 3-54> 광역경제권 지역내 총생산 및 지역 총소득 현황 (2010년)	202
<표 3-55> 광역경제권 GRDP 대비 지역 외 수취소득비 추이	203
<표 3-56> 농어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205
<표 3-57> 일터, 쉼터, 삶터로서의 농산어촌 공간 구축	206
<표 3-58> 광역 도로망 현황	212
<표 3-59> 주요 광역도로 교통량 현황	212
<표 3-60> 전라북도 도로연장 증가추이	213
<표 3-61> 전라북도 도로현황(2010년)	214
<표 3-62> 도시별 도시종류별 현황(2009년)	214
<표 3-63> 주요국도 서비스수준(2010년)	215
<표 3-64> 전라북도 철도시설 현황(2010년)	216
<표 3-65> 철도수송 현황	216
<표 3-66> 군산항만 시설현황	217
<표 3-67> 군산항 부두 현황	218
<표 3-68> 군산항 물동량 처리실적	218

<표 3-69> 군산항 수송실적	219
<표 3-70> 군산항 선박 입·출항 현황	219
<표 3-71> 군산공항 시설현황(2009년)	220
<표 3-72> 군산공항 항공운항 현황	220
<표 3-73> 군산공항 수송현황	221
<표 3-74> 도시계획 지정현황(2010년)	236
<표 3-75> 도시계획 지정현황(2010년)	237
<표 3-76> 지목별 토지이용현황(2010년)	238
<표 3-77> 전국과 전북의 토지이용현황(2010년)	239
<표 3-78>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239
<표 3-79> 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	240
<표 3-80>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	241
<표 3-81> 시도별 갯벌 현황	247
<표 3-82> 시도별 자연해안 현황	248
<표 3-83> 전북연안 오염우심해역 현황	249
<표 3-84> 지역별 복지수요 및 1인당 복지예산	256
<표 3-85> 지역별 재원별 복지예산 현황	257
<표 3-86> 지역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257
<표 3-87> 지역별 소득계층별 현황	258
<표 3-8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현황	259
<표 3-89>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현황(인구천명 기준)	260
<표 3-90> 지역별 의료기관 병상수	261
<표 3-91> 전북 사회복지시설지원 예산	262
<표 3-92>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263
<표 3-93> 전북의 행정구역별 고용현황	273
<표 3-94> 전북의 고용현황	274
<표 3-95> 전문대이상 학력별 신규인력수급차 전망(전연령층)	274
<표 3-96> 전북의 지역실업 정도	275
<표 3-97> 전북의 전공과 직업 일치도	275
<표 3-98> 전북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인원	276
<표 3-99> 교육시설 현황	276
<표 3-100> 평생학습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	278
<표 3-101> 교육기간별 프로그램 현황	278
<표 3-102> 전국과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 추이	285
<표 3-103> 시 · 군별 주택보급 및 주택유형 실태	286

<표 3-104> 시 · 군별 노후주택 비율(15년 이상 주택)	287
<표 3-105> 전라북도 연령별 1~2인 가구 현황	288
<표 3-106> 시·군별 상수도 보급현황	291
<표 3-107>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292
<표 3-108> 수도관 년도별 설치현황	293
<표 3-109> 시·군별 하수관거 설치현황	293
<표 3-110> 전라북도 수도운영 관리현황	294
<표 3-111> 전라북도 업종별 급수사용 현황	295
<표 3-112> 전라북도 광역상수도 시설현황	296
<표 3-113> 전라북도 행정구역별 수자원 부족량	299
<표 3-114> 전라북도 수계별 수자원 부족량	300
<표 3-115> 권역별 용수이용 현황(2008년)	300
<표 3-116> 행정구역별 용수이용 현황(2008년)	301
<표 3-117> 물수요량 전망	301
<표 3-118> 물수급 전망	302
<표 3-119> 분야별·원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	303
<표 3-120>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304
<표 3-121> 전라북도 광산물 생산현황	304
<표 3-122>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 · 지구 지정현황	308
<표 3-123> 전라북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309
<표 3-124> 대기질 현황	310
<표 3-12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310
<표 3-126> 주요하천의 수질현황	311
<표 3-127>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대책 세부과제	312
<표 3-128>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314
<표 3-129> 백두대간보호지역	318
<표 3-130> 자연공원	318
<표 3-131> 야생동식물보호구역	319
<표 3-132> 수계	319
<표 3-133> 해안선 및 도서	319
<표 3-134> 전라북도 역사·문화 경관자원	320
<표 3-135> 도로경관자원	320
<표 3-136> CCTV설치 및 범죄발생현황	327
<표 3-137> 최근 3년간 인적재난 발생현황	328
<표 4-1> 전라북도 행정조직 구성	339

<표 4-2> 직종별 지방행정 공무원수	340
<표 4-3> 시·도별 공무원수 현황 비교	340
<표 4-4> 시·군별 행정인력 현황	341
<표 4-5> 지방행정관서 분포현황	342
<표 4-6> 새만금 개발에 관련된 부처별 주요 기능과 업무	345
<표 4-7> 시·도별 예산규모(2011년도 기준)	348
<표 4-8> 전라북도 시·군 단체별 예산규모(2011년 기준)	349
<표 4-9> 전라북도 본청 세입·세출 예산구성	350
<표 4-10> 전라북도 단체별 재정자립도 추이	351
<표 4-11> 지역별 자주재원 및 가용재원 대비 복지재정 비율	354
<표 4-12> 분야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354
<표 4-13> 세제개편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현황	355
<표 4-14> 국가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358
<표 4-15> 2012~2016년 국내경제 전망	359
<표 4-16> 재정중점투자 분야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360
<표 4-17> 전라북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증감율	361
<표 4-18> 전라북도의 2011~2015년 세입전망	361
<표 4-19> 전라북도의 2016~2020년 세입전망	362
<표 4-20> 2011~2020년 세입전망	362
<표 4-21>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연도별 총 재정투자계획	363
<표 4-22>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부문별/연도별 재정투자계획	363
<표 4-23>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부문별/재원별 재정투자계획	364
<표 4-24>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국비규모별/연도별 재정계획	365
<표 4-25>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국비규모별/재원별 재정계획	365

그림 목 차

<그림 1-1>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체계	5
<그림 1-2> 계획대상지역	7
<그림 1-3> 수립절차 과정	10
<그림 1-4> 국토공간상의 전라북도의 위치	11
<그림 1-5> 표고분석도	13
<그림 1-6> 경사분석도	14
<그림 1-7> 하천 및 수계도	16
<그림 1-8>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	17
<그림 1-9> 시·군별 연평균 인구성장율(1995~2010년)	18
<그림 1-10> 시·군별 도시화율	19
<그림 1-11> 인구구조(1995년)	20
<그림 1-12> 인구구조(2010년)	20
<그림 1-13> 시·군별 노령화율(2010년)	21
<그림 1-14> 전라북도 인구가동(유출)비중	22
<그림 1-15> 전라북도 내 시·군별 순인구 이동패턴(2001-2010년)	23
<그림 1-16> 시·도별 1인당 GRDP(2010년)	26
<그림 1-17> 지역총생산 및 1인당 GRDP 변화추이	26
<그림 1-18> 전국과 전북의 산업구조(생산액 기준, 2010년)	27
<그림 1-19>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27
<그림 1-20> 전북의 취업구조 변화추이	28
<그림 1-21>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년)	34
<그림 1-22> 추진전략별 발전방향	36
<그림 1-23> 서해안광역관광개발계획 종합 구상도	38
<그림 1-24>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구상도	41
<그림 1-25> 전주권의 미래상	42
<그림 1-26>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구상(안)	43
<그림 1-27>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44
<그림 1-28>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	46
<그림 1-29> 10대 광역권 개발	48
<그림 1-30>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종합계획도	51

<그림 1-31>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서해안권	56
<그림 1-32> 對중국 교역 증가 추이	57
<그림 1-33> 호남고속철도 노선	58
<그림 1-34> KTX 개통에 따른 도시체계 변화	60
<그림 1-35> 새만금 개발구상	61
<그림 1-36>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추계	63
<그림 1-37> 가구원수별 절대빈곤율 추계	63
<그림 1-38> 전라북도 복지여건변화와 전망	64
<그림 1-39> 전라북도 장기발전 전략 수립시 가장 중요한 가치	72
<그림 1-40> 지역발전 정도	73
<그림 1-41> 발전 장애요인	73
<그림 1-42>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	74
<그림 1-43> 산업육성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75
<그림 1-44> 농촌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의 개발방향	75
<그림 1-45>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76
<그림 1-46> 교통·물류·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77
<그림 1-47>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77
<그림 1-48> 지역개발 사업 추진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78
<그림 1-49> 연안관리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79
<그림 1-50>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79
<그림 1-51> 재해재난 방재대책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80
<그림 1-52> 생활여건 만족도	81
<그림 1-53> 생활여건 만족분야	82
<그림 1-54>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82
<그림 2-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89
<그림 2-2> 공간구조 발전축 설정	101
<그림 2-3> 공간구조 권역 설정	106
<그림 3-1>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112
<그림 3-2> 중국의 국토개발 및 환황해권 전략	117
<그림 3-3> 새만금 경제권 발전전략	121
<그림 3-4> 전라북도의 통근·통학권	124
<그림 3-5>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육성방향	127
<그림 3-6> 동부권 권역별 특화·발전전략 구상(안)	138
<그림 3-7> 전북의 경제성장률 추이	140
<그림 3-8> 전북의 4대 전략산업과 11대 산업클러스터 연계성	144

<그림 3-9>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145
<그림 3-10> 전북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146
<그림 3-11>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전국대비 비중	158
<그림 3-12> 전북 관광수요 구조(좌), 방한중국관광객의 방문비율(우)	166
<그림 3-13> 농산물 유통단계 및 부가가치 확장단계	186
<그림 3-14>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매시 선택 요인	188
<그림 3-15> 농업분야 주요 기상재해 발생의 연대기	189
<그림 3-16> 농업 6차 산업화를 위한 공급사슬 단계의 혁신과정	190
<그림 3-17> 농업의 스펙트럼 확장	191
<그림 3-18> 농업부문(농산물)의 가치사슬 구조	191
<그림 3-19> 규모화와 조직화의 관계	192
<그림 3-20>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전략	193
<그림 3-21> 자원순환 고려 부산물과 폐기물의 이용체계	193
<그림 3-22> 농업과 의학의 융합에 의한 애그로 메디컬 산업의 출현	194
<그림 3-23> 농산업 부문의 가치사슬 구조	195
<그림 3-24>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심으로 한 산업간 연계 체계	195
<그림 3-25> 농촌 및 농가인구 비 변화 전망	199
<그림 3-26> 농어촌 인구변화 추세와 농촌산업 육성의 관계	200
<그림 3-27> 농어촌 정주생활권 공간구조 변화	204
<그림 3-28> 효율적인 농산어촌 지역의 서비스 전달체계	206
<그림 3-29> 지역역량을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 실천전략	207
<그림 3-30> 지역 브랜드에 의한 지역농업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구조	207
<그림 3-31>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에 기반한 지역순환경제 구상	208
<그림 3-32> 시도별 이용·개발건수	249
<그림 3-33> 시도별 이용·개발건수/	249
<그림 3-34> 지역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추정치	258
<그림 3-35> 전라북도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구성	259
<그림 3-36> 전북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264
<그림 3-37>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	277
<그림 3-38> 사회변화와 교육복지 요구	277
<그림 3-39> 전라북도 에너지 부분별 온실가스 배출량(2007년)	309
<그림 3-40> 전라북도 산업단지 분포도	321
<그림 3-41> 전라북도의 기온 및 강수량 변화	325
<그림 3-42> 전국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326
<그림 3-43> 광역지자체별 산사태 피해현황	326

<그림 3-44> 광역지자체별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현황	328
<그림 4-1> 시·군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341
<그림 4-2> 전라북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344
<그림 4-3> 인근지역의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요구안	346
<그림 4-4> 전라북도 단체별 재정자립도 추이	351
<그림 4-5> 민선시기별 지방재정 추이	352
<그림 4-6> 지방세 비율 추이	353
<그림 4-7>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분야별 재정 투자 비중	364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계 획 의 개 요

1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제2장 전라북도 현황 및 기존계획 검토

제3장 여건변화 전망 및 계획과제



제1장 계획수립의 배경 및 목적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

1. 계획수립의 배경과 필요성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과 연계

- 국토해양부가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을 확정하여 고시(2011년 1월) 함에 따라 그와 연계하여 하위계획인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
- 동 계획의 국토전략 및 정책방향을 이어받으면서 「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2008~2020)」 의 수립 이후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여, 전라북도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장기적인 발전전략 및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수립이 필요

■ 국토발전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

- FTA 체결 확대 등 글로벌 경쟁체제의 심화에 대응한 개방적 국토기반 형성전략의 추진, 기후변화 및 에너지·식량 등 자원문제 심화에 따른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부상, 저출산·고령화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전라북도의 능동적 대응방안이 요구됨

■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건설 등 신성장거점 형성에 대응

-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 추진, 혁신도시 및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신성장거점의 형성과 호남고속철도,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 등 국가간선교통망의 건설에 따라 지역발전구도가 크게 변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응한 전라북도의 새로운 발전전략 설정이 필요

■ 삶의 질 요구 증대 등 도민의 가치변화에 부응

- 경제발전과 함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증대되고 있는 문화적·질적인 생활환경의 추구에 부응하여 지속적인 지역경제발전과 함께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발전전략 수립이 필요

■ 민선 5기의 도정이념과 운용방향의 수용

- 새만금연담권을 동북아 경제중심지역으로, 동부연담권을 세계적인 관광휴양지역으로 발전시켜 지역발전을 촉진하고,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전라북도의 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민선 5기 도정운영의 기본방향을 수용하여 전라북도의 발전을 도모하는 전략 수립이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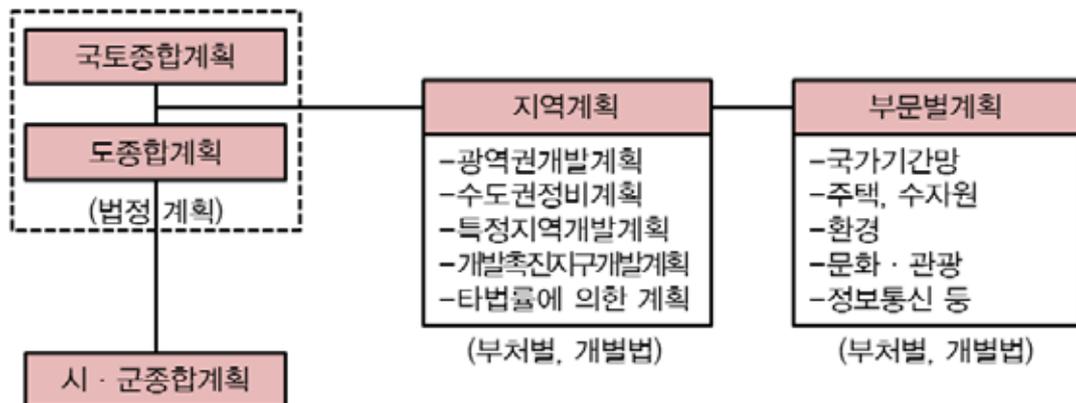
2. 계획수립의 목적

-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며, 전라북도가 보유한 유·무형의 인적·물적 자원과 자산을 효과적으로 이용·개발·보존하기 위한 장단기 정책방향과 지침을 설정·추진함으로써 지역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의 기초와 정책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구체화하여 전라북도 발전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발전 체계를 구축하고 전라북도 발전의 새로운 미래상 제시

제2절 계획의 성격과 역할

1. 계획의 성격

- 도 단위의 최상위 법정계획
 - 「국토기본법」 제13조 ①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수립·시행되는 도 단위 최상위 법정계획
- 상위계획을 구체화한 도 차원의 종합계획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등 상위계획의 기초와 정책을 전라북도 차원에서 구체화한 계획
- 전라북도의 미래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장기종합계획
 - 전라북도의 중장기적인 정책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장기계획
 - 전라북도의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부문을 총괄하는 종합계획
- 하위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는 지침계획
 - 전라북도 내 시·군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계획



〈그림 1-1〉 「국토기본법」 상 국토계획체계

2. 계획의 역할

■ 지역발전의 미래상 제시

- 도민에게 지역발전에 대한 구체적인 미래상과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도민들에게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

■ 도 및 시·군의 부문별 정책 방향 제시

- 도 단위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및 전략을 제시하여 시·군의 지역발전정책 수립 및 추진시의 기본방향 제시

■ 국가 정책과의 연계 강화

- 국가정책의 지역적 실현방안을 구체화하고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적 요구와 수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중앙정부의 지원과 상호협력 강화

■ 민간부문 및 기업에 대한 투자 정보 제시

- 민간부문이 합리적인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지역개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지역발전 유도

제3절 계획의 범위와 수립절차

1. 계획의 범위

■ 시간적 범위

- 계획기간 : 2011~2020년
- 기준년도 : 2010년
- 목표연도 : 2020년

■ 공간적 범위

- 계획구역 : 전라북도 전역(14개 시·군, 총면적 8,067km²)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6개 시)
 - 완주,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고창, 부안(8개 군)



〈그림 1-2〉 계획대상지역

■ 내용적 범위

- 국토해양부(2011. 3)의 ‘도 종합계획 수립지침’ 을 준용
 - 지역여건과 발전 잠재력 분석, 계획의 목표와 추진전략, 전략별 추진계획, 시·군별 발전방향, 계획의 집행과 관리를 포함

<도 종합계획의 내용>

① 「국토기본법」 제13조 제1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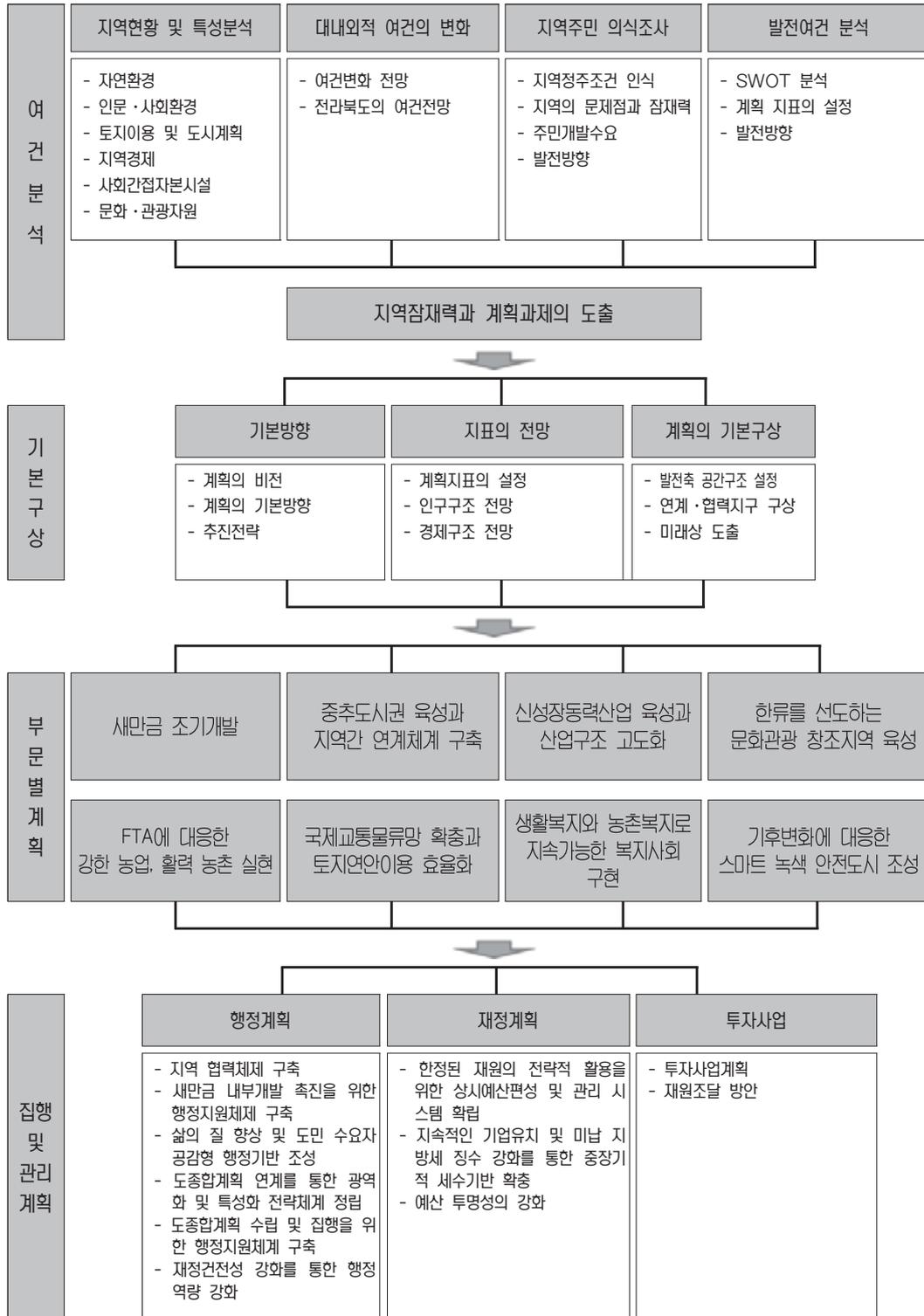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도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 현황·특성의 분석 및 대내외적 여건 변화의 전망에 관한 사항
2. 지역발전의 목표와 전략에 관한 사항
3. 지역 공간구조의 정비 및 지역 내 기능 분담 방향에 관한 사항
4. 교통, 물류, 정보통신망 등 기반시설의 구축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자원 및 환경 개발과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6. 토지의 용도별 이용 및 계획적 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토기본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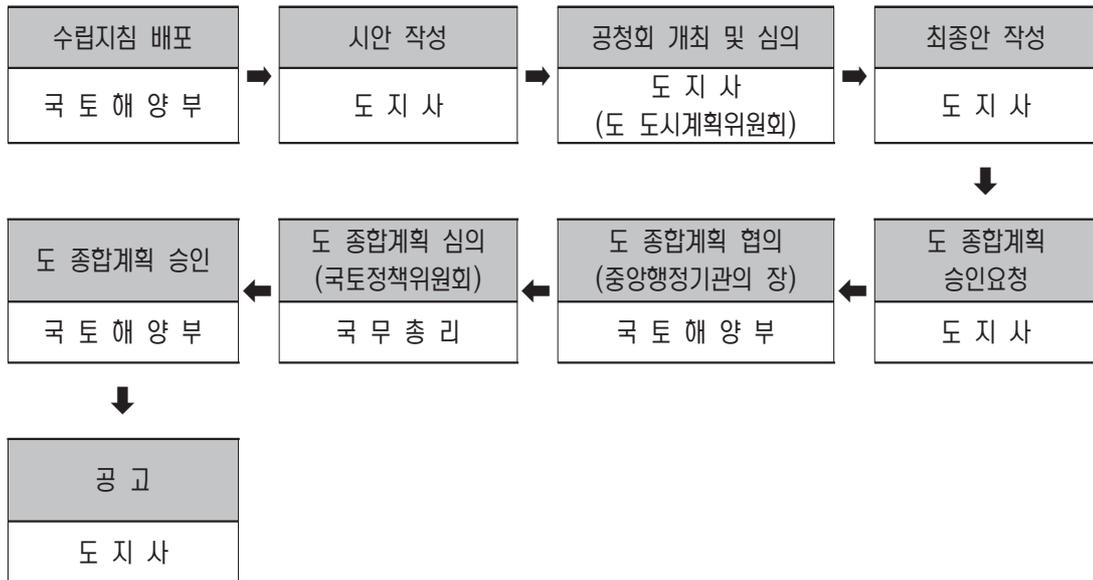
1. 주택·상하수도·공원·노약자 편의시설 등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 문화·관광기반의 조성에 관한 사항
3. 재해의 방지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3의2. 범죄예방에 관한 사항
4.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에 관한 사항
5. 재원조달방안 등 계획의 집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주요과업 내용



2. 계획 수립절차

- 도 종합계획은 ①도 종합계획 수립지침 작성·배포(국토해양부장관) → ②도 종합계획 수립(도지사) → ③공청회 개최(도지사) → ④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⑤국토부장관 승인 요청(도지사) → ⑥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국토해양부장관) → ⑦국토정책위원회 심의(국무총리) → ⑧도 종합계획 승인(국토해양부장관)의 절차를 거쳐 확정됨



〈그림 1-3〉 수립절차 과정

제2장 전라북도 현황 및 기존계획 검토

제1절 전라북도의 현황 및 특성

1. 입지여건

■ 위치 및 면적

- 국토의 서남부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소백산맥을 경계로 경상남·북도과 접하고, 남쪽은 전라남도, 북쪽은 충청남도와 경계를 이루며, 서쪽은 서해에 면함
 - 동부는 경남의 산청군, 거창군과 경북의 김천시, 남부는 전남의 영광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에 연접해 있으며, 북부는 충남의 금산군, 논산시, 부여시, 서천군 및 충북의 영동군과 접해 있음
-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이점을 지니고 있음
 - 중국의 서해연안 경제거점인 대련, 연태, 청도, 상해 등 주요 도시가 400해리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당진~군산~무안~대불을 잇는 서해안산업벨트의 중앙부에 위치



전라북도 위치도

중국 서해연안 주요항만과의 관계

〈그림 1-4〉 국토공간상의 전라북도의 위치

- 경·위도상 위치를 보면, 경도상으로는 동경 125° 58' 05" ~127° 54' 50" , 위도상으로는 북위 35° 17' 45" ~36° 09' 15" 사이에 위치함

- 극동에는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극서에는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극남에는 순창군 풍산면 삼촌리, 극북에는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가 위치함

〈표 1-1〉 전라북도의 경·위도상 위치

구분	지명	극점	연장거리
극 동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동경 127° 54' 50" 북위 35° 56' 50"	동↔서거리 약 175.5km
극 서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리	동경 125° 58' 05" 북위 36° 07' 25"	
극 남	순창군 풍산면 삼촌리	동경 127° 06' 25" 북위 35° 17' 45"	남↔북거리 약 95.0km
극 북	익산시 용안면 용두리	동경 126° 58' 00" 북위 36° 09' 15"	

- 전북의 총면적은 현재 8,066.76km²로 국토 전체면적의 8.0%를 차지하고, 행정구역상 6시 8군으로 구성되어 있음
 - 지역내 시·군당 평균면적은 576.2km²로 이 가운데 완주군이 820.56km²(10.2%)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전주시가 206.01km²(2.6%)로 가장 작은 관할구역을 보유함
- 전주시 행정구역은 완주군 행정구역 대부분에 둘러싸여져 있으며, 특히 완주군 이서면은 전주시에 의해 분리되어 있음

〈표 1-2〉 행정구역별 면적 및 행정단위

(자료 : km²,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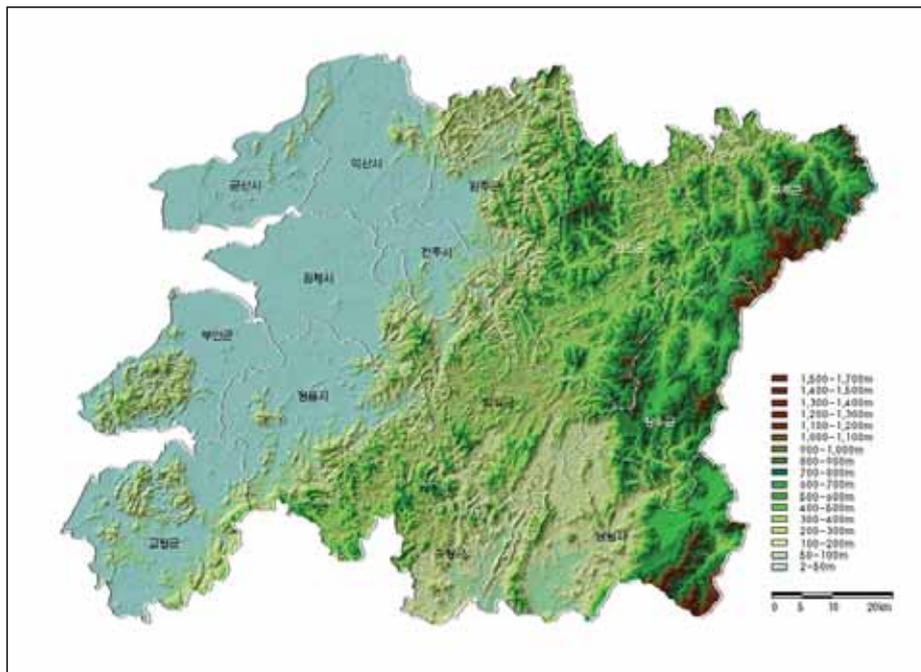
구분	면적		시, 구			군			
	면적	비중	시	구	동	군	읍	면	리
전라북도	8,066.76	100.0	6	2	82	8	14	145	5,101
전주시	206.01	2.6	1	2	33	-	-	-	-
군산시	394.94	4.9	1	-	16	-	1	10	336
익산시	506.62	6.3	1	-	14	-	1	14	573
정읍시	692.66	8.6	1	-	8	-	1	14	555
남원시	752.69	9.3	1	-	7	-	1	15	334
김제시	544.90	6.8	1	-	4	-	1	14	542
완주군	820.56	10.2	-	-	-	1	2	11	486
진안군	789.16	9.8	-	-	-	1	1	10	295
무주군	631.87	7.8	-	-	-	1	1	5	150
장수군	533.51	6.6	-	-	-	1	1	6	199
임실군	597.21	7.4	-	-	-	1	1	11	256
순창군	495.86	6.1	-	-	-	1	1	10	304
고창군	607.74	7.5	-	-	-	1	1	13	563
부안군	493.03	6.1	-	-	-	1	1	12	508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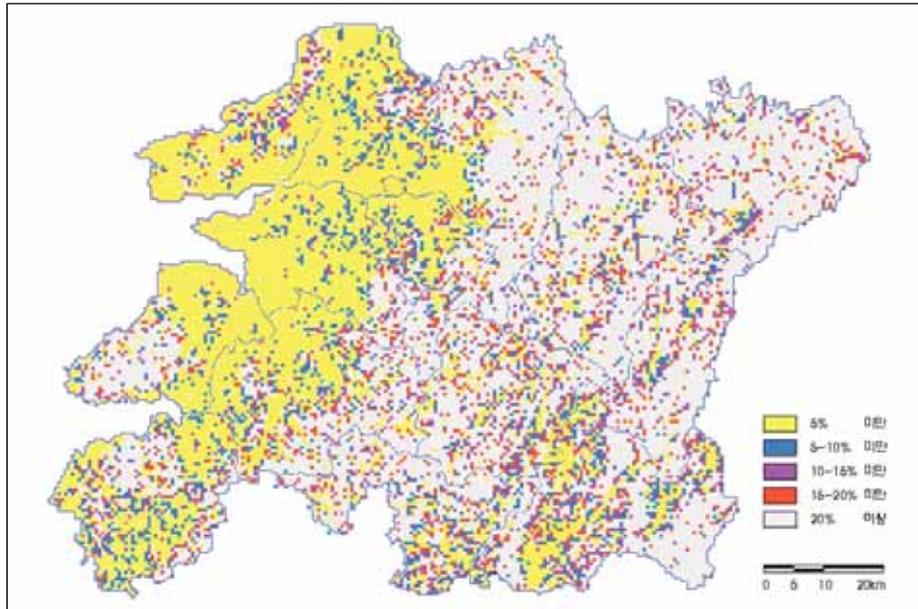
2. 자연 환경

■ 지형·지세

- 전북은 해안~평야~산맥으로 이어지는 동고서저의 계단식 지형으로 서부에는 군산반도, 진봉반도, 변산반도 등 연안지역이 199.8km의 긴 해안선을 보유하고 있음. 전북 지역 전체면적의 51%는 표고 100m이하의 평지로 넓은 평야를 보유하고 있으며, 100~500m까지 산지가 33%, 500~1,000m가 13%, 1,000m이상의 고지대가 2.5%로 각각 구성됨
- 주로 고지대에 해당되는 동부지역에는 소백산맥, 노령산맥과 진안분지가, 중부지역에는 김제평야, 만경평야 등 국내를 대표하는 넓은 평야가 펼쳐져 있음
- 지역내 평야는 북쪽으로 충청도와의 경계인 용안면에서 남쪽으로 노령산맥까지 78km, 동서로는 완주군 고산부근의 산맥에서 서해안까지 48km에 이름
- 경사는 5%미만 또는 5~10%미만의 평지 및 완경사지는 서부지역에 분포하고, 20%이상의 구릉지는 서부 해안일부지역 및 동부지역 전역에서 고른 분포를 보임



〈그림 1-5〉 표고분석도



〈그림 1-6〉 경사분석도

■ 기후

- 전북은 지형적 영향으로 서부지역은 연간 기온차가 적고 강수량이 적은 반면, 동부 산지는 기온차가 크고 강수량도 많은 편이어서 동서지역 간 기후차가 상대적으로 큼
 - 온난성 기후대로 하계에 고온다습하고 동계에 한랭건조하며, 지형적 영향으로 남북간 보다는 동서간의 기후차이가 크며, 평균기온은 13.5℃임. 지역중심지라 할 수 있는 전주시의 1월 평균기온은 영하 0.4℃이고, 8월의 평균기온은 25.7℃로 우리나라에서 기온차가 가장 심한 대구와 동해안의 강릉, 충남 서산과 비슷한 상황임
 - 연평균 강수량은 1,462.3mm로 다우지역에 해당되며 절반이 하기인 6~9월에 집중되어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이 곤란한 실정임. 특히 섬진강 지역일대는 전국 3대 다우지역에 속함
 - 평균풍속은 2m/s로 우리나라 전역에 퍼지는 기압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계절에 따라 1~6월은 서풍, 7~8월은 남풍, 9~12월은 북서풍이 주풍향임

〈표 1-3〉 기상 현황

구분	기온(℃)			강수량 (mm)	상대습도 (%)	일조시간
	평균	최고	최저			
1995년	12.8	35.0	-10.8	891.1	71.9	2,350.2
1996년	12.7	36.3	-11.2	1,216.8	74.4	2,177.3
1997년	13.5	35.3	-13.8	1,551.0	73.5	2,161.8
1998년	14.6	34.6	-12.2	1,573.0	72.0	1,881.0
1999년	13.8	34.6	-12.2	1,365.5	71.0	2,196.6
2000년	13.6	34.9	-11.0	1,636.7	66.7	2,039.0
2001년	13.9	36.0	-12.5	1,019.4	66.0	2,125.1
2002년	13.7	36.2	-9.7	1,130.1	67.0	1,888.3
2003년	13.4	33.7	-15.1	1,860.3	69.0	1,731.3
2004년	14.2	31.8	-1.8	1,457.9	63.4	2,110.5
2005년	13.3	35.8	-15.0	1,390.0	64.0	2,021.8
2006년	14.1	36.4	-9.2	1,187.5	68.8	1,920.3
2007년	14.0	34.8	-7.2	1,471.7	69.8	1,895.0
2008년	13.9	35.3	-10.8	1,000.0	65.1	1,993.2
2009년	13.7	34.4	-12.9	1,163.9	63.8	2,037.4
2010년	13.5	35.7	-10.9	1,462.3	66.0	1,872.1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 각연도

■ 해안 및 하천

- 군산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등 4개 시·군에 걸쳐있는 해안선은 199.8km에 이르며, 서해안을 따라 해수욕장 및 103개의 도서들이 산재해 있고, 도서는 행정구역상 군산시와 부안군에 주로 속함. 이 가운데 가장 큰 섬은 부안군 위도이고, 고군산군도와 금강하구에 산재해 있는 여러 섬과 어청도 등이 위치함. 서해안은 리아스식 해안으로 조수간만의 차이가 심하여 천해간석지로 수산양식은 물론 간척자원이 풍부하나 금강하류에서 유출되는 토사로 인해 선박의 입·출항이 어려운 실정임
- 4개 시·군별 도서지역 상주인구는 부안군의 2.3%, 군산시의 1.6%인구가 도서지역에서 생활하며, 전라북도 전체인구의 0.32%에 해당됨

〈표 1-4〉 해안선 및 도서현황

(단위 : km, 개소, 명)

구분	해안선(도서포함)	도서현황			
		계	유인도	무인도	인구
군산시	214.7	63	16	47	4,472
고창군	76.5	5	2	3	58
부안군	149.6	35	7	28	1,363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 2011

- 전북은 금강, 섬진강 등 큰 강들의 발원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금강은 장수 뜰샘, 섬진강은 진안 백운면 데미샘골 등 동부 산지에서 발원하여 동서·남북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며, 만경강, 동진강 등은 동서방향으로 흐름. 금강과 섬진강은 물줄기가 여러 갈래로 발달하여 물흐름 방향이 다양하며, 서부 지역을 흐르는 금강과 동진강, 고창군의 하천은 비교적 단순한 편이고 강의 길이에 비해 수량이 많으나 평탄한 지역을 흐르기 때문에 흐름이 완만한 탁류이며 갈수기와 홍수기의 수량차가 큰 편임
- 지역내 하천은 총472개소, 총연장 3,260.9km에서 국가하천 352km, 지방하천이 2,908.9km 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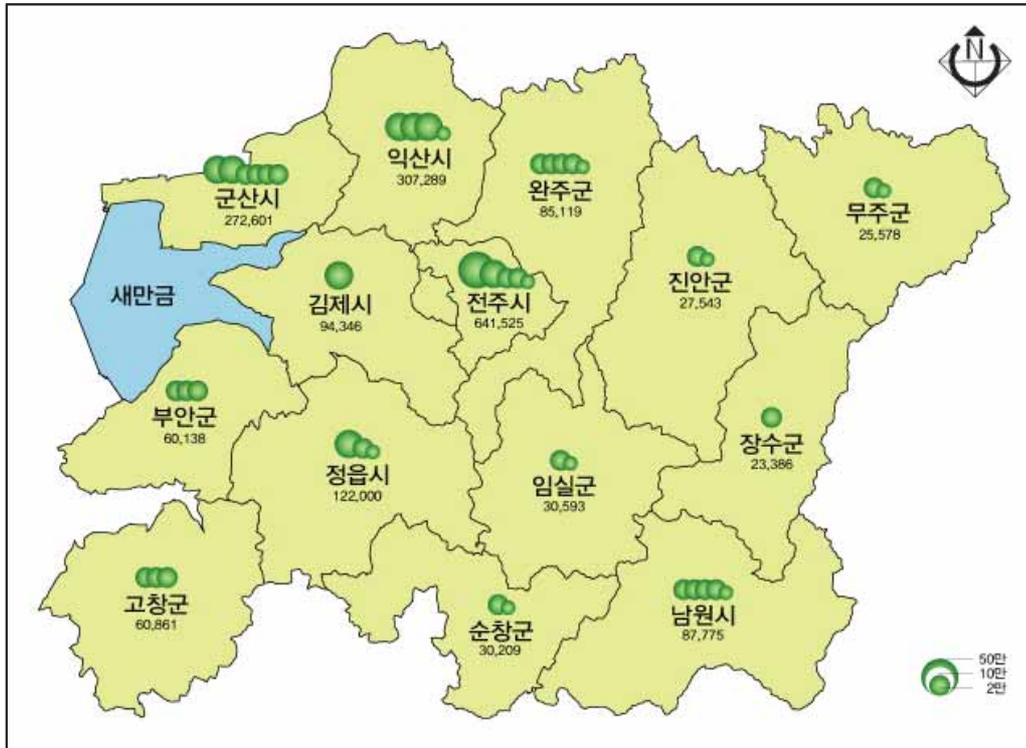
〈그림 1-7〉 하천 및 수계도

3. 인문사회 환경

■ 인구규모 및 시·군별 분포

- 전북의 총인구는 2010년 현재 1,868,963명이며 전국의 3.7% 비중으로 면적대비 기준(8.1%)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을 나타냄. 지역별 인구분포를 보면, 전주시가 642천명(34.3%)으로 지역 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익산시 307천명(16.4%), 군산시 273천명(14.6%) 순으로 나타남. 가장 인구비중이 낮은 무주군 및 장수군 지역은 전북 전체인구의 각각 1.4%, 1.3%에 불과한 수준임

- 전북의 시·군별 인구분포는 전주시로의 집중도가 높아지는 등 시 지역으로의 집중현상이 강해지는 추세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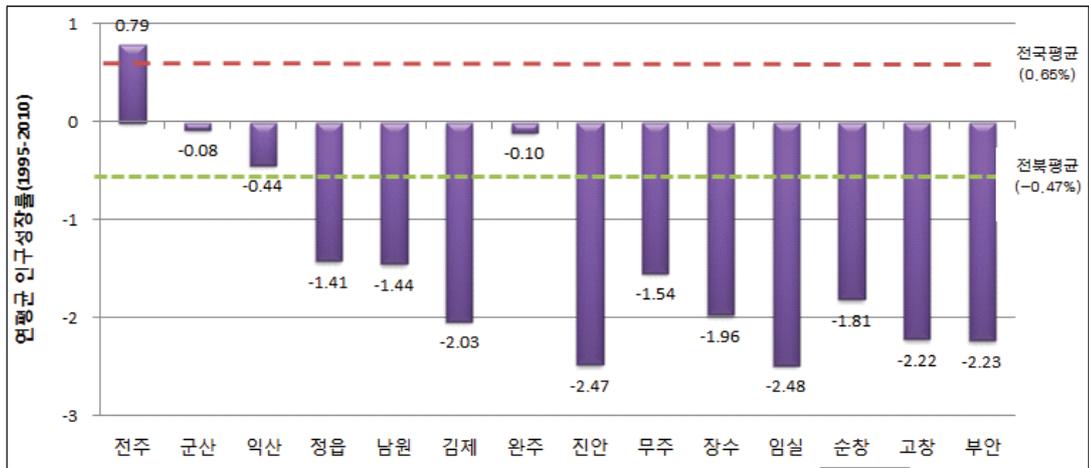


〈그림 1-8〉 시·군별 인구분포 현황

■ 인구변화추이

- 전북의 인구는 1995~2010년 기간 동안 연평균 0.47%p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1990년대 후반 IMF 경기침체 이후 대도시 인구의 일시적 지방회귀 현상으로 감소추세가 둔화된 경우도 있었으나, 현재까지 전국평균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음
- 시·군별로는 1995년 이후 2010년 현재까지 전주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지역에서 급격한 인구감소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전주시의 경우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약 0.79%p를 상회하여 2010년 인구가 1995년 대비 1.1배 증가한 반면, 진안·임실군 등은 해마다 약 2.5%p수준에서 인구가 감소하여 1995년 대비 인구규모가 70~80% 수준에 머무르는 감소현상을 경험하고 있음
- 이와 같은 경향이 시지역인 김제시와 남원시, 정읍시에서도 유사한 경향에 있음. 전체적으로 군지역의 인구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북 중추도시 인접지에 입지해 있는 완주군은 전주시·군산시를 제외한 시지역보다 오히려 양호한 인구증감

추세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됨



〈그림 1-9〉 시·군별 연평균 인구성장률(1995~2010년)

〈표 1-5〉 시·군별 인구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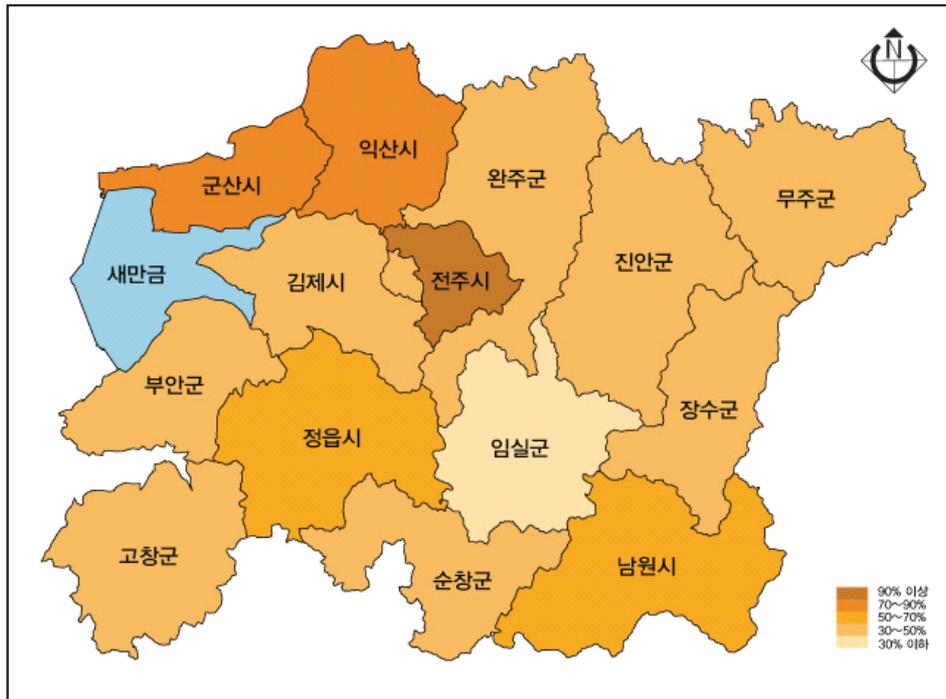
(단위 : 명,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1995~2010)
전국	45,858,029	47,732,558	48,782,274	50,515,666	0.65
전라북도	2,006,602	1,999,255	1,885,335	1,868,963	-0.47
전주시	569,804	620,521	621,749	641,525	0.79
군산시	275,819	277,491	263,120	272,601	-0.08
익산시	328,152	334,324	318,506	307,289	-0.44
정읍시	151,039	152,022	129,050	122,000	-1.41
남원시	109,185	103,571	93,670	87,775	-1.44
김제시	128,415	115,865	102,720	94,346	-2.03
완주군	86,461	84,009	83,651	85,119	-0.10
진안군	40,086	31,273	29,021	27,543	-2.47
무주군	32,293	29,207	25,876	25,578	-1.54
장수군	31,485	30,051	24,755	23,386	-1.96
임실군	44,612	37,514	32,511	30,593	-2.48
순창군	39,728	34,587	32,012	30,209	-1.81
고창군	85,173	74,104	63,676	60,861	-2.22
부안군	84,350	74,716	65,018	60,138	-2.2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도시인구

- 전북의 도시인구는 2010년 현재 1,427천명으로 2000년 이후 약 1.1만명이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0.08%p 정도의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 도시화율은 2000년 72.0%에서 2010년 76.4%로 증가하였으나 전국평균 도시화율(89.8%)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에 있고 최근에 오면서 그 격차가 줄어들고 있음
- 14개 시·군의 동지역은 지난 10년간 0.01%p의 인구감소를 보인 반면, 읍지역의 인구감소는 0.59%p, 면지역의 인구감소는 2.36%p로 매우 심각한 수준임



〈그림 1-10〉 시·군별 도시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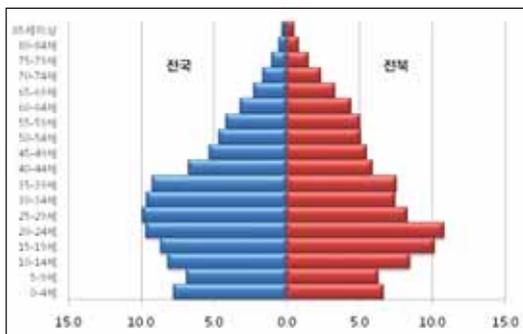
〈표 1-6〉 도시인구 변화추이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2000-2010)
전 체 인 구	1,999,255	1,885,335	1,868,963	-0.67
도 시 인 구	1,438,666	1,401,882	1,427,441	-0.08
洞 部	1,276,224	1,253,847	1,274,319	-0.01
邑 部	162,442	148,035	153,122	-0.59
농촌인구(면부)	560,589	483,453	441,522	-2.36
전북도시화율(%)	72.0	74.4	76.4	-
전국도시화율(%)	87.2	89.1	89.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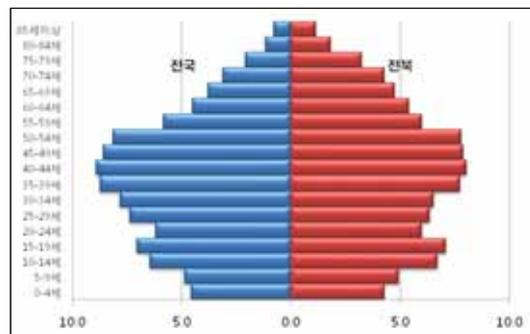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인구구조

- 전북의 인구구조를 보면, 15세미만 인구가 15.9%로 전국의 15.9%와 유사한 수준인 반면, 경제활동가능인구인 15~64세인구는 68.9%로 전국의 73.2%보다 낮은 수준에 있음. 이와 같은 경향은 1990년에는 전국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최근에 오면서 5%p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전북의 낮은 인구 활력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지표임
- 가장 활발한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연령층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은 인적 구성상 지역의 성장동력이 되는 젊은 층이 외부로 다수 유출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며, 고용창출 등의 인구 안정화정책이 필요함을 의미함



〈그림 1-11〉 인구구조(1995년)



〈그림 1-12〉 인구구조(2010년)

〈표 1-7〉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단위 :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전국	전라북도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5세미만	22.8	21.4	20.9	20.0	19.0	18.6	15.9	15.9
15-64세	71.3	70.1	72.1	69.7	72.2	68.4	73.2	68.9
65세이상	5.8	8.5	7.0	10.3	8.9	12.9	10.9	15.2

자료 : 통계청, 동읍면 5세별 주민등록인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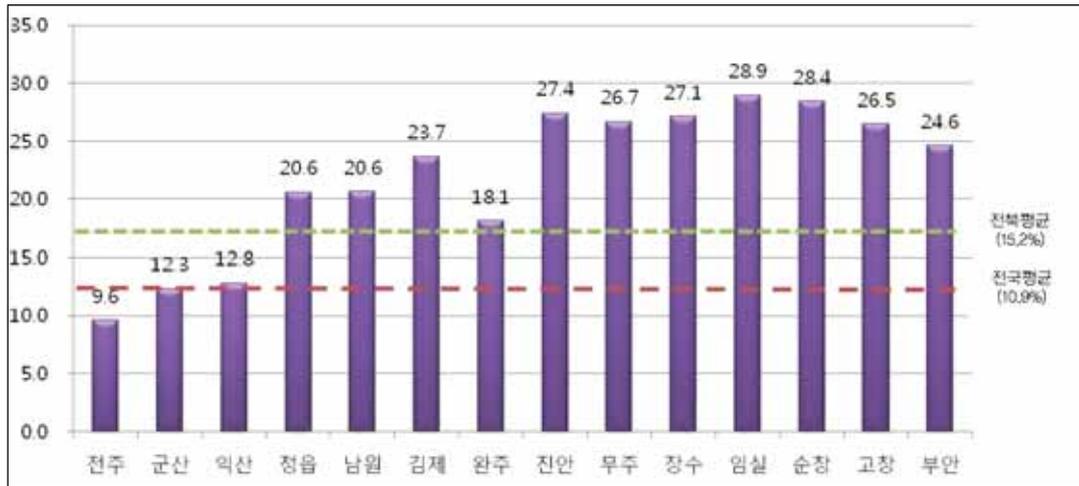
- 2010년 현재 전북의 노령화율은 전국보다 약 5%p정도를 상회하는 15.2%이며, 전국이 매 5년 단위로 노령화율이 1%p씩 증가하는 추세인 반면 전북은 전국의 두 배 이상인 2~3%p씩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표 1-8〉 시·군별 노령인구 비율

(단위 : 명,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총인구	노령인구	노령 인구 비율									
전라북도	2,006,602	170,027	8.5	1,999,255	205,807	10.3	1,885,335	243,721	12.9	1,868,963	284,373	15.2
전주시	569,804	30,114	5.3	620,521	38,392	6.2	621,749	48,595	7.8	641,525	61,560	9.6
군산시	275,819	18,455	6.7	277,491	22,413	8.1	263,120	27,177	10.3	272,601	33,555	12.3
익산시	328,152	23,209	7.1	334,324	28,604	8.6	318,506	33,616	10.6	307,289	39,268	12.8
정읍시	151,039	16,443	10.9	152,022	20,118	13.2	129,050	22,461	17.4	122,000	25,096	20.6
남원시	109,185	11,793	10.8	103,571	14,056	13.6	93,670	16,266	17.4	87,775	18,100	20.6
김제시	128,415	14,921	11.6	115,865	17,668	15.2	102,720	20,055	19.5	94,346	22,332	23.7
완주군	86,461	9,181	10.6	84,009	11,029	13.1	83,651	13,237	15.8	85,119	15,414	18.1
진안군	40,086	5,421	13.5	31,273	5,687	18.2	29,021	6,764	23.3	27,543	7,547	27.4
무주군	32,293	4,157	12.9	29,207	5,052	17.3	25,876	5,990	23.1	25,578	6,825	26.7
장수군	31,485	4,120	13.1	30,051	5,049	16.8	24,755	5,822	23.5	23,386	6,338	27.1
임실군	44,612	6,112	13.7	37,514	6,986	18.6	32,511	8,146	25.1	30,593	8,854	28.9
순창군	39,728	5,755	14.5	34,587	6,622	19.1	32,012	7,769	24.3	30,209	8,579	28.4
고창군	85,173	10,432	12.2	74,104	12,356	16.7	63,676	14,352	22.5	60,861	16,117	26.5
부안군	84,350	9,914	11.8	74,716	11,775	15.8	65,018	13,471	20.7	60,138	14,788	24.6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그림 1-13〉 시·군별 노령화율(2010년)

■ 인구가동

- 1990~2010년 사이에 전북지역 인구의 사회적 이동 경향을 전국과 비교하면 전북은 20년간 433.7천명이 외부로 순수 유출된 것으로 나타남. 매년 21.7천명의 전북인구가 유출되어왔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가운데 85.8%가 수도권으로 인구가 유출되고 있어 특정지역 집중현상이 뚜렷한 실정임. 이와 같은 경향은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수도권으로의 인구이동 가운데 전북이 가장 높은 절대적 기여를 하는 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결과를 낳음

- 지역 간 인구이동 추이에 의하면 전북에서의 전출보다 전북으로의 전입이 상대적으로 적어 지난 20년간 인구가 감소한 주요 요인에 해당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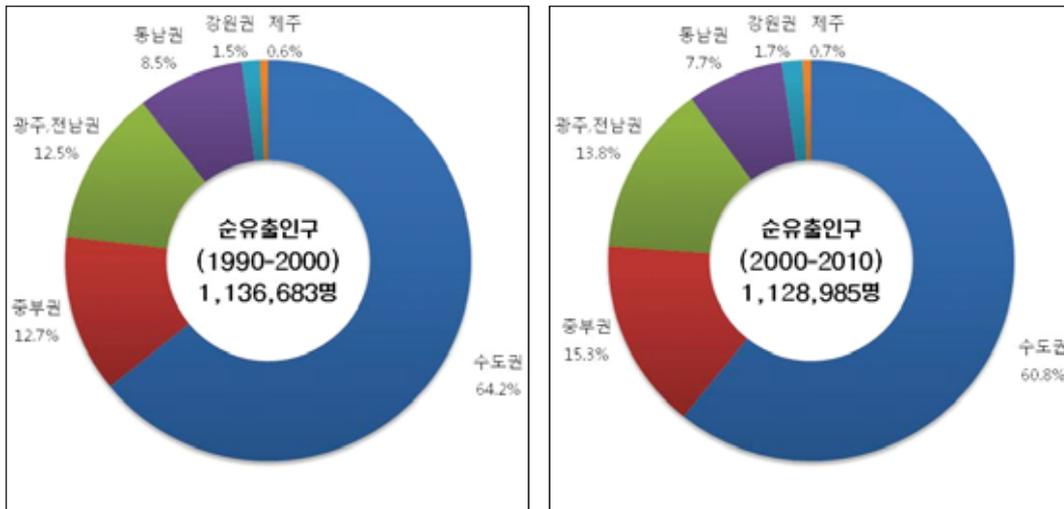
〈표 1-9〉 전북지역 인구이동패턴(지역별 추이)

(단위 : 명)

구분	1990-2000년			2000-2010년			1990-2010년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입	전출	순이동
전북	887,974	1,136,683	-248,709	922,424	1,128,985	-206,561	1,727,824	2,161,504	-433,680
수도권	508,074	729,810	-221,736	517,287	686,882	-169,595	979,459	1,351,768	-372,309
중부권	117,694	144,193	-26,499	144,585	172,606	-28,021	250,183	302,392	-52,209
광주,전남권	137,487	141,750	-4,263	149,957	155,758	-5,801	272,855	283,048	-10,193
동남권	101,637	97,017	4,620	86,107	87,222	-1,115	180,118	176,270	3,848
강원권	16,431	16,664	-233	16,974	18,789	-1,815	31,787	33,813	-2,026
제주	6,651	7,249	-598	7,514	7,728	-214	13,422	14,213	-791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 수도권이외 지역으로의 인구유출 실태는 최근 10년간 동남권과 강원권으로의 인구유출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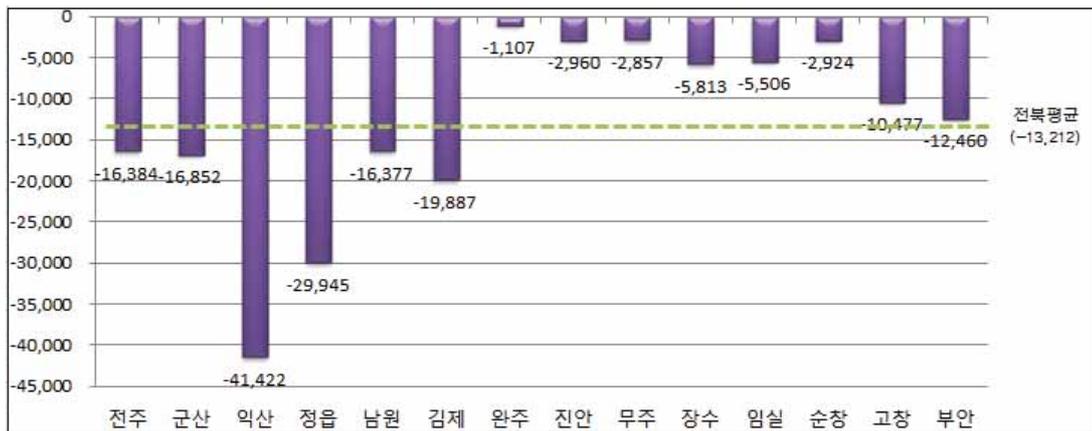


〈그림 1-14〉 전라북도 인구이동(유출)비중

- 전북지역 내 시·군별 순수 인구규모를 감안하지 않더라도 인구이동으로 인한 순

증가 경향을 보유하고 있는 지역은 전무하고 인구 유출이 가장 큰 시·군은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군산시, 전주시, 남원시 순이며 부안군과 고창군과 지역도 매우 높아 지역의 정주기반 강화가 특별히 필요한 지역임

- 완주군은 전북도내 14개 시·군 가운데 가장 안정적 순이동 경향을 보유한 지역으로 인구의 안전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자치단체임



〈그림 1-15〉 전라북도 내 시·군별 순이동 인구 이동패턴(2001-2010년)

〈표 1-10〉 시·군별 순이동 인구 이동(2001-2010년)

(단위 : 명)

구분	전입	전출	순이동
계	3,350,859	3,535,830	-184,971
전주시	1,268,129	1,284,513	-16,384
군산시	495,270	512,122	-16,852
익산시	534,625	576,047	-41,422
정읍시	225,984	255,929	-29,945
남원시	145,989	162,366	-16,377
김제시	149,962	169,849	-19,887
완주군	146,043	147,150	-1,107
진안군	59,847	62,807	-2,960
무주군	34,168	37,025	-2,857
장수군	45,036	50,849	-5,813
임실군	42,770	48,276	-5,506
순창군	45,498	48,422	-2,924
고창군	76,294	86,771	-10,477
부안군	81,244	93,704	-12,460

자료 : 통계청, 인구이동통계

4. 토지이용 및 도시계획

■ 토지이용

- 전북지역의 2010년 현재 지목별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임야가 전체면적의 56.2%, 농업용 토지 27.9%, 기타 9.1%, 도시용 토지 6.8%의 순으로 나타남. 이들 토지이용실태를 전국과 비교하면 농업용 토지의 면적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임야의 비중은 낮게 나타나 농업부문에서 높은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도시용 토지는 과거보다는 높아졌으나 행정구역 면적 대비 비중은 전국과 비슷한 수준임
- 전북의 전체면적은 국토 면적의 8.1%에 해당되는데 비하여 농업용 토지는 전국의 10.8%, 도시용 토지는 8.1%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는 반면, 임야는 전국의 7.0%에 불과함

〈표 1-11〉 전국과 전북의 토지이용현황

(단위 : km², %)

구분	계	농업용 토지	임야	도시용 토지	기타
전국	100,033.08 (100.0)	20,744.61 (20.7)	64,504.38 (64.5)	6,750.48 (6.8)	8,033.61 (8.0)
전북	8,066.76 (100.0)	2,252.00 (27.9)	4,534.03 (56.2)	547.37 (6.8)	733.36 (9.1)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2011), 행정구역별, 지목별 국토이용현황

■ 도시계획

- 전북지역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총 889.42km²로 전북 전체면적의 11.1%에 해당되어 전국의 17.4%에 비하여 낮은 편임. 전북의 도시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분포를 보면, 녹지지역이 604.66km²(68.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120.70km²(13.6%), 공업지역 55.39km²(6.2%), 미지정 92.58km²(10.4%)의 순을 보임. 과거보다 녹지지역은 잠식 내지 용도지역이 적극적 토지 이용으로 변경되고 있어 주거지역의 비중이 다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전국의 경향과 비교할 때 도시계획구역 면적대비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면적비율이 다소 높은 반면, 주거지역, 녹지지역은 다소 낮은 수준임

〈표 1-12〉 도시계획 지정현황

(단위 : km², %)

구분	도시계획 구역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전국	17,420.23 (100.0)	2,402.37 (13.8)	299.47 (1.7)	963.94 (5.5)	12,621.06 (72.5)	1,133.38 (6.5)
전북	899.42 (100.0)	120.70 (13.6)	16.08 (1.8)	55.39 (6.2)	604.66 (68.0)	92.58 (10.4)

자료 : 전라북도 통계연보,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11

5. 지역경제

■ 지역총생산

- 전북지역의 지역총생산액은 2010년 현재 34조 5,469억원(경상가격 기준)으로 전국의 2.9%를 차지하고 있으며, 1인당 GRDP는 18,287천원으로 전국 시·도 1인당 평균 GRDP의 80.0%에 머물러 여타 시·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제기반이 취약한 상황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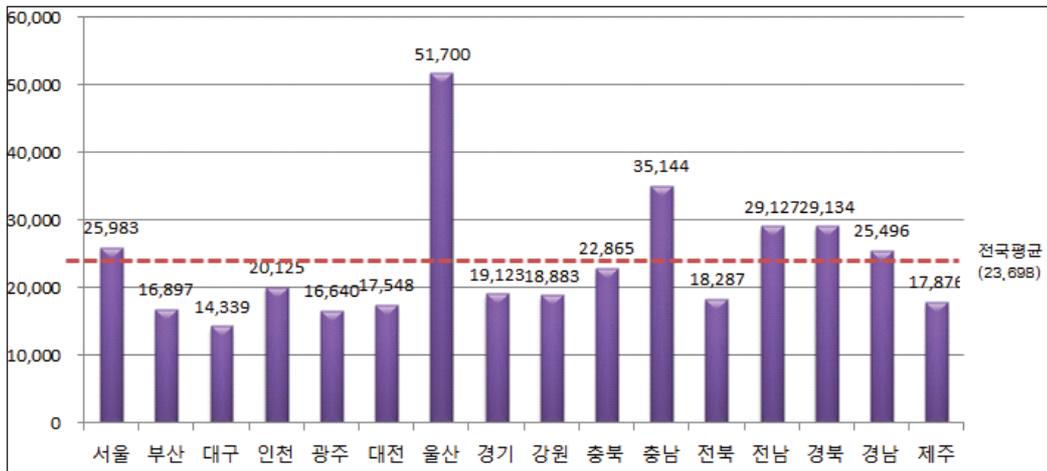
〈표 1-13〉 지역내 총생산 및 1인당 지역내 총생산 추이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국	시도합계 (백만원)	420,686,307	603,733,111	869,304,594	1,175,201,201
	1인당GRDP (천원)	9,149.0	12,583.9	17,644.5	22,848.5
전북	지역내총생산 (백만원)	14,222,680 (3.4)	19,298,616 (3.2)	25,221,161 (2.9)	34,546,940 (2.9)
	1인당GRDP (천원)	7,077.2 (77.4)	9,618.0 (76.4)	13,305.8 (75.4)	18,287.4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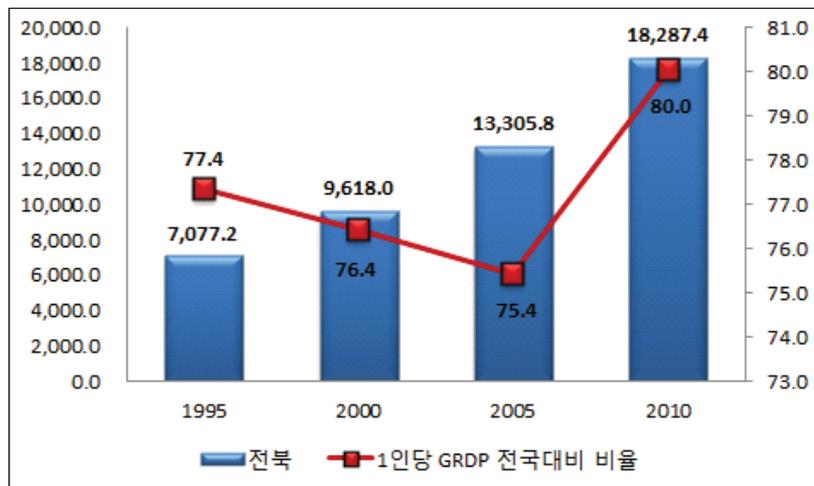
주 : 당해년가격 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주민등록인구, 외국인등록인구

- 특히 지역의 총생산액 비중은 1995년 3.4%에서 2000년 3.2%, 2005년 2.9%, 2010년 2.9%로 과거에 비해 현재에 오면서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지역경제 성장 전망이 양호하지 못함
 - 도내 1인당 평균 GRDP는 2005년 전국대비 75.4%에서 2010년 80.0%로 증가추이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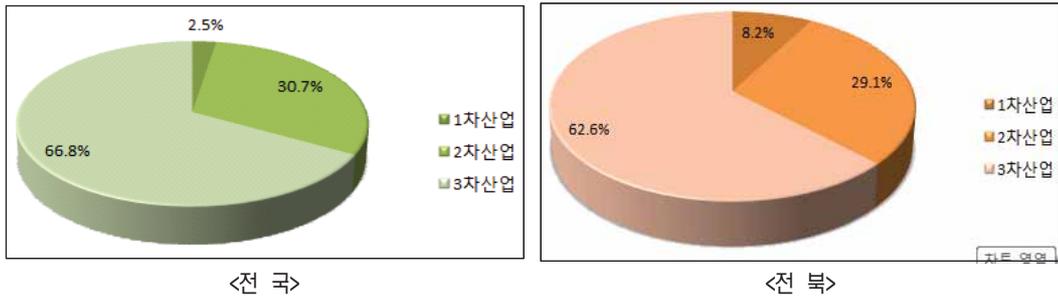
〈그림 1-16〉 시·도별 1인당 GRDP(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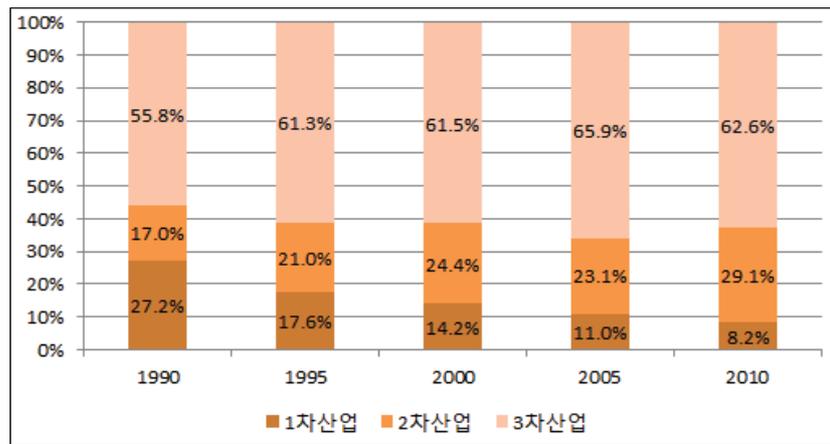
〈그림 1-17〉 지역총생산 및 1인당 GRDP 변화추이

■ 산업구조

- 전북의 산업별 구성비를 보면, 1990년에는 1차 산업이 27.2%, 2차 산업이 17.0%, 3차 산업이 55.8%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990년 이후에는 산업별 변화추이가 분명한 구조를 갖고 변화됨. 1990년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5년 단위로 산업별 비중을 보면, 1차 산업은 27.2%, 17.6%, 14.2%, 11.0%, 8.2%로 비중이 크게 낮아지고 있는 반면, 2차 산업은 17.0%, 21.0%, 24.4%, 23.1%, 29.1%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상태이며, 3차 산업은 55.8%, 61.3%, 61.5%, 65.9%, 62.6%로 점차 비중이 높아져 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고 있음을 시사함



〈그림 1-18〉 전국과 전북의 산업구조(생산액 기준, 20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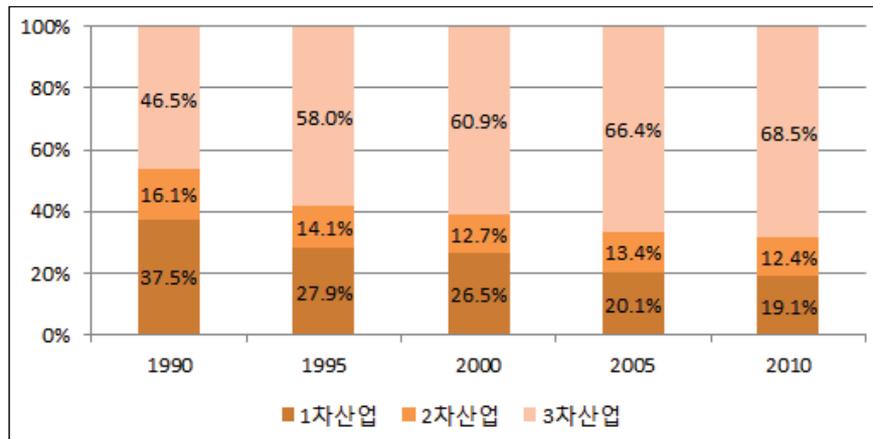


〈그림 1-19〉 전북의 산업구조 변화추이

■ 취업구조

- 전북의 취업구조는 2010년 현재 1차 산업 종사자가 156천명으로 전체 산업종사자의 19.1%를 차지하여 전국평균 6.6%의 약 3배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나타냄. 그러나 2차 산업은 101천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2.4% 비중을 보여 전국평균 17.0%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3차 산업 취업자비율도 68.5%로 전국평균 76.4%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해당됨
- 산업별 취업구조 변화추이를 보면, 1차 산업 비중이 1990년 37.5%에서 1995년 27.9%, 2000년 26.5%, 2005년 20.1%, 2010년 19.1%로 점차 낮아지고, 2차 산업 비중도 적은 폭의 수준에서 감소추세를 보이며, 3차 산업은 동 기간 동안 각각 46.5%, 58.0%, 60.9%, 66.4%, 68.5%로 점차 비중이 높아지는 구조를 보임
- 이러한 전북의 취업구조형태는 전북의 향토 및 지연산업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기 때문에 비롯된 결과이기는 하나, 지역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취약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도내 시·군의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에 의한

효과, 신규 산업(농공)단지의 높은 분양률 등을 고려할 경우 제조업 비중은 점차 증가되어 생산적 산업구조로 변화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20〉 전북의 취업구조 변화추이

〈표 1-14〉 전국 산업별 종사자수 변화추이

(단위 : 천명)

구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 간접지분 및 기타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 간접지분 및 기타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 간접지분 및 기타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 간접지분 및 기타	계	농림 어업	광공업	사회 간접지분 및 기타
계	18,085	3,237	4,990	9,858	20,414	2,403	4,844	13,168	21,156	2,243	4,311	14,602	22,856	1,815	4,251	16,789	23,829	1,566	4,049	18,214
서울	4,424	21	1,325	3,078	4,823	21	1,115	3,687	4,668	10	894	3,764	4,890	5	792	4,093	4,936	6	533	4,397
부산	1,525	33	588	904	1,709	54	454	1,201	1,632	39	388	1,205	1,624	25	298	1,301	1,574	12	270	1,292
대구	854	18	301	535	1,090	14	326	750	1,092	27	286	780	1,181	28	253	900	1,169	23	237	909
인천	742	13	316	413	1,034	10	360	663	1,100	16	346	738	1,200	12	333	855	1,320	20	311	989
광주	403	42	83	278	522	28	78	416	553	30	70	453	619	26	84	509	664	15	97	552
대전	400	28	93	279	528	11	83	434	579	15	80	484	646	11	81	554	702	7	84	610
울산	-	-	-	-	-	-	-	-	437	19	167	251	493	19	184	290	534	10	157	366
경기	2,598	259	1,000	1,339	3,469	177	1,115	2,177	4,058	207	1,017	2,834	5,045	186	1,100	3,759	5,673	169	1,135	4,370
강원	642	212	107	323	640	148	80	412	668	133	67	469	671	110	52	508	668	83	45	539
충북	585	208	107	269	645	172	117	356	665	149	136	380	682	93	125	465	737	98	150	489
충남	854	435	111	308	863	341	121	401	891	285	135	470	931	220	148	563	974	164	185	625
전북	802	301	129	373	857	239	121	497	843	223	107	513	827	166	111	549	817	156	101	560
전남	1,152	591	112	450	1,007	416	135	456	981	363	84	534	931	284	85	562	885	261	83	541
경북	1,301	583	234	484	1,272	462	231	579	1,367	411	226	730	1,364	326	261	777	1,361	302	243	816
경남	1,565	395	475	695	1,707	240	494	973	1,360	246	298	815	1,471	238	332	901	1,533	186	407	939
제주	239	99	10	130	247	70	13	164	261	70	10	181	284	67	12	205	283	56	10	21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6. 사회간접자본시설

- 전북지역의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연장은 2010년 현재 전국 105,565km의 7.5%인 7,970km이며, 도로포장률은 72.7%수준으로 전국평균(79.8%)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음. 지역의 국제적인 직·교류 기반인 공항과 항만의 실태를 보면, 공항은 현재 민항기가 취항하고 있는 군산공항을 보유하고 있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향후 증가가 예상되는 항공수요의 능동적인 대처에 한계가 있음. 당초 전북지역의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김제공항을 건설하고자 부지매입을 완료하는 등 일련의 공항건설 사업이 진행되어 오다가 항공수요 확보 등의 요인으로 다소 주춤한 상태에 있음
- 전북의 주택 및 상·하수도 등 생활환경수준을 보면, 주택보급률(일반가구 기준)은 107.5%로 전국의 101.9%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상·하수도의 보급률은 각각 96.9% 및 79.3%로 전국 평균인 97.7%와 89.4%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 전북의 생활환경 및 지역경제 여건을 나타내는 지역내 총생산, 취업자비율, 도시화율, 도로수준 지표는 전국평균에 비해 다소 낮거나 낮은 수준에 있는 반면, 의료 및 사회복지, 도시공원, 대학생 수 등의 사회복지여건은 전국평균과 유사하거나 상회하는 수준을 나타냄

7. 문화·관광자원

- 전북에는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4개의 국립공원과 대둔산, 마이산, 선운산, 모악산 등 4개의 도립공원, 장안산, 강천산 등 2개의 군립공원이 분포되어 있음. 전북은 백제문화권, 마한백제문화권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186개의 국가지정문화재와 545개의 시도지정문화재 등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과 전통가옥 등 조선조문화를 나타내는 독특한 전통문화자원을 보유하고 있음
- 전북에 24개소의 관광지가 14,821천㎡에 걸쳐 지정되어 있으며, 49개의 축제가 전북에서 해마다 개최되고 있고 특히, 김제 지평선 축제는 문화관광부에서 선정한 최우수 축제로 평가받고 있음

〈표 1-15〉 도민 생활지표 현황(전국대비)

구분			전국	전북	전국대비
면적	총면적	km ²	99,897.41	8,066.80	8.1
인구	총인구	천명	50,516	1,869	3.7
	0-14세 이하 인구	%	15.9	15.9	-
	15-64세 인구	%	73.2	68.9	-
	65세 이상 인구	%	10.9	15.2	-
도시화	도시화율	%	89.8	76.4	85.1
소득 생산	지역총생산액(경상)	십억원	1,175,201	34,547	2.9
	1차산업	%	2.5	8.2	-
	2차산업	%	30.7	29.1	-
	3차산업	%	66.8	62.6	-
	1인당 GRDP(경상)	천원	22,849	18,287	80.0
주택	가구수(일반가구)	천가구	17,339.4	659.9	3.8
	주택수	천호	17,672.1	709.1	4.3
	주택보급률	%	101.9	107.5	-
의료	병원수	개소	56,244	2,074	3.7
	병상수	개소	523,357	27,788	5.3
	의사수	명	101,443	2,740	2.7
	의사1인당 지원인구	명	497.97	682.12	137.0
도시 공원	도시공원수	개소	19,077	675	3.5
	도시공원 면적	천m ²	1,089,023	20,429	1.9
	1인당 도시공원면적	m ²	21.56	10.93	50.7
도로	도로연장	km	105,565.1	7,970.1	7.5
	도로포장률	%	79.8	72.7	-
	1인당 도로연장	m	2.09	4.26	-
상수도	상수도보급률	%	97.7	96.9	-
	시설용량	천m ³ /일	30,936	361	1.2
	급수량	천m ³ /일	16,104	748	4.6
	1일 1인당 급수량	ℓ	333	435	-
하수도	공공하수처리인구	천명	45,264	1,486	3.3
	하수도 보급률	%	89.4	79.3	-
사회 복지 문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	명	878,799	60,353	6.9
	사회복지시설수	개소	4,934	268	5.4
	지역문화시설수	개소	-	151	-
교육	대학수	개소	179	9	5.0
	학생수	명	2,028,841	98,732	4.9
	교수수	명	55,972	2,656	4.7

자료 : 한국통계연감(2011), 전라북도 통계연보(2011)

제2절 관련계획의 검토

1.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

가. 비전과 목표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글로벌 녹색 국토”」의 실현을 비전으로 「경쟁력있는 통합국토」, 「지속가능한 친환경국토」, 「품격있는 매력국토」, 「세계로 향한 열린국토」의 조성을 목표로 하며 이와 같은 목표하에 호남권은 ‘동북아의 신산업, 문화, 관광, 물류 거점’ 으로서의 궁극적 전략달성을 위한 개발목표는 다음과 같이 제시됨
 - 녹색기술과 융합된 미래 성장산업과 전통산업 육성
 - 동북아 문화·관광 거점 육성
 - 선진형 물류·교통·정보망 확충
 - 인재육성 및 지식창출 기반 강화
 - 거점도시 경쟁력 강화와 매력있는 정주환경 조성

나. 추진전략

-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는 국토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역특화 및 광역적 협력 강화, 자연친화적이고 안전한 국토공간 조성, 쾌적하고 문화적인 도시·주거 환경 조성, 녹색교통·국토정보 통합네트워크 구축, 세계로 열린 신성장 해양국토 기반 구축, 초국경적 국토경영 기반 구축을 6대 추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 전북의 구체적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음
 -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 미래 녹색성장 산업, 전통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선진형 교통, 정보, 물류망 확충
 -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다. 발전방향별 주요 사업

■ 지역별 특성화를 통한 성장거점 육성 및 균형발전 촉진

- 전주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호남북부의 거점도시 기능을 강화하고, 전통문화중

심, 교육 및 과학기술, 첨단부품소재 융합도시로 육성하고 새만금권은 국제업무·산업·관광·레저용지 조성 및 새만금 신항 건설 등을 통한 對중국 게이트웨이로서 글로벌 경쟁거점으로 육성

- 향토 식품산업 및 국제적인 휴양형 산악관광과 문화를 융합한 녹색성장거점으로 육성
- 서해안 벨트의 신산업벨트로 육성, 내륙 청정휴양레저벨트의 관광벨트로 육성, 수변생태관광벨트의 생태관광벨트로 육성
- 광주~전주 축을 지식·첨단산업축으로 육성, 전주~익산~군산~새만금 축은 녹색산업축으로 육성
- 농산어촌의 기술과 문화와 관광이 융·복합된 고부가가치 특화산업으로 육성

■ 미래 녹색성장 산업, 전통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 신재생에너지산업과 광융합기반산업, 친환경부품소재산업, 인쇄전자산업, 차세대(복합체)항공산업을 육성
- 친환경생명복합 및 헬스케어산업 육성
- 농산어촌 지역의 향토산업 육성
- 문화관광·교류 중심지로 육성, 해양관광벨트 조성, 동북아 해양관광허브 육성, 고급 해양레저관광기반 구축 및 항만 종합개발, 에코테인먼트 거점 육성, 농업테마공원, 생태마을 조성, 생태관광센터 설립, 국제 문화관광상품 개발, 신개념 휴양시설 확충, 문화관광중심지의 연계 개발 및 추진체계 구축

■ 선진형 교통, 정보, 물류망 확충

- 군산(새만금)~포항간 동서교통망 확충, 새만금·서남권·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및 기업도시, 혁신도시 등 거점간 연계 강화, 호남고속철도 조기 완공, 군산공항 확장 검토, 서남해안일주도로 건설(국도 77호선), 군산항 및 새만금 신항 건설
- 지역정보 인프라 구축 및 유비쿼터스 정보통신망 구축

■ 경쟁력 있는 거점도시 육성 및 매력적인 정주환경 조성

- 산·학·연 컨소시엄 및 기반 구축, 과학기술 진흥 및 교육·인재양성 육성, 경제자유구역을 연계한 지식창출기능 강화
- 광주, 전주~익산~군산, 목포, 순천~여수~광양을 정주거점으로 육성, 광역도시권 형성

- 거점도시의 도시재생과 도시디자인, 도시기능 및 매력도 향상
- 중소도시의 환경친화적 녹색도시 건설과 정주환경 조성
- 도·농 연계형 녹색공동체 형성과 청정자연환경 보전·관리, 농산어촌 개발

■ **광역적 협력과 거버넌스 구축**

- 호남광역권 관광진흥추진기구 구성을 통한 도시·해양·산악·농어촌 관광 연계사업
- 관광·축제·광역시설 확충, 광역적 협력사업 발굴 및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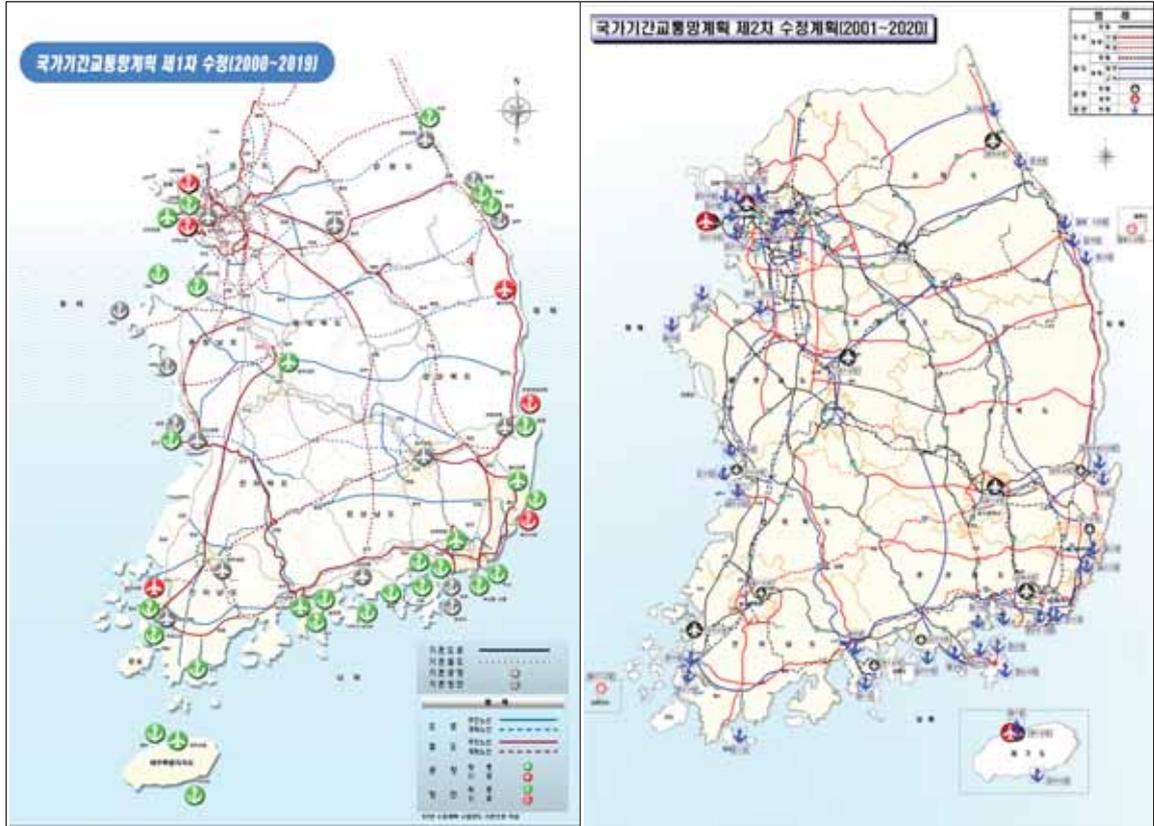
2.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

가. 계획의 목표와 기초

-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에서는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도약을 위한 세계 일류수준의 도로·철도·공항·항만 등 교통기반시설 확충, 육상·해양·항공교통의 통합 네트워크 구축, 교통물류활동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의 감축, 미래사회 대비 지속가능한 녹색성장을 계획 목표로 설정함

나. 추진 전략

- 계획의 하반기(2011~2020)는 첫째, 부문간 효율적 스톡조정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둘째, 교통연계성 강화를 위한 인터모달리즘을 구현하고 셋째,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21세기 글로벌 교통물류 강국을 실현하고 넷째, 저탄소 녹색성장형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다섯째, 교통기본권 확보를 위한 선진국 수준의 교통서비스를 제공함



〈그림 1-21〉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1~2020년)

다. 주요 지역개발사업

- 호남고속철도, 전라선(익산~순천)복선전철화, 장항선(익산~대야)복선전철화, 장항선(신창~대야)복선전철화, 강화~인천~군산~목포간 서해안고속도로, 논산~전주간 고속도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무주~대구~영천~포항간 고속도로 등이 주요사업으로 제시되어 있음

3.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

가. 비전과 목표

■ 비전

- 환황해 경제권을 주도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 **목표**

- 지식과 기술이 융합된 첨단산업의 거점
- 글로벌 경제의 관문이자 환황해권의 네트워크 허브

나. 추진전략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에서는 국제비즈니스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을 4대 추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다. 추진전략별 발전방향

■ **국제비즈니스의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국제공항·항만 등 높은 대외적 접근성·인프라를 활용하여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국제비즈니스 거점 구축
- 한중간, 서해안권 지자체간 상호협력체계를 마련하여 실효성 있는 환황해권 연계 네트워크 구축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 반도체·자동차 등 주력산업간 융복합화와 신산업 육성을 통해 글로벌 전략산업 벨트 구축
- 풍부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서해안을 녹색성장의 거점화하는 신재생에너지벨트 조성
- 고유의 해양자원과 특산물을 활용, 고부가가치화하는 식품산업벨트 구축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 지역별 고유한 자연특성을 토대로 차별화된 권역별 관광거점 조성
- 서해안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 구축
- 갯벌·철새 등 세계적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생태관광자원으로 활용

■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 권역별 주요 거점간, 해안과 내륙간 연계·교류확대를 위해 남북간·동서간 연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

- 중국 등 환황해권 지역의 교류·물류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환황해권 거점항만을 확충하고 거점간 연계시스템을 구축



〈그림 1-22〉 추진전략별 발전방향

라. 추진전략별 주요 사업

■ 국제비즈니스의 거점 및 환황해 협력체계 조성

- 새만금 국제업무타운 조성, 새만금 배후 복합물류단지 조성
- 환황해권 시·도지사 협의회 구성 및 운영, Sea & Land 페스티벌 개최, 서해안권 지역자원 콘텐츠 발굴 및 공동 브랜드 개발, 서해안권 투자유치 설명회

■ 초일류 첨단산업벨트 구축

- 친환경 자동차산업 인프라 구축, 지능형 수처리 클러스터 및 실증단지 조성, 새만금 항공 산업기반 조성, 조선 산업클러스터 및 레저용 요트산업 육성, 첨단농기계 클러스터 조성
- 서해안권 신재생에너지 테크노벨리 조성, 새만금 국산품력 클러스터 조성, 스마트그리드 녹색마을 조성
-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친환경 농축산바이오단지 조성, 종합식품가공단지 조성, 곡물상품거래소 설립, SEED VALLEY 검토, 수출원계 클러스터 조성

■ 글로벌 해양 생태·문화 관광벨트 조성

- 새만금 헬스케어타운 조성, 세계 간척사 종합센터 건립, 에코테인먼트거점 조성, 라이스 팜(Rice Farm) 조성, 능제관광휴양지 조성사업, 중국~서해안~남해안~일본을 연계하는 해상크루즈체계 구축, 해상크루즈와 연안크루즈 연계환승지점 조성 및 시스템체계 구축
- 해양·농경 역사문화권 정비, 금강하구 문화지구 조성, 세계프리미엄 갯벌 생태관광지구 조성, 서해안 생태역사문화 탐방벨트 조성, 기후변화 연구센터 설립 및 UN 기후변화 관련 기구 유치

■ 역내·외 연계 인프라 구축

- 새만금~군산간 철도 건설, 국도 77호선 확충(부안~고창), 서해안고속국도 확장 검토, 항만물류산업의 고도화

4.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계획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 21세기 웰빙시대를 위한 한반도 해양관광 중심축 형성

- 다양한 자연자원 및 생태, 역사·문화자원의 우수성에 기반한 자연·문화중심지역
- 관광·여가활동의 생활화로 웰빙시대에 부합하는 국민휴양 관광지대
- 서해안의 입지적 장점을 살린 동북아 관광거점 지역

나. 개발 전략

- 서해안권 광역관광의 인문·자연특성을 감안한 권역별 관광개발 구상
- 집객력이 있는 해양 관광거점 조성 and 연계 관광지 개발
- 해양, 섬, 음식 등 지역성이 부각되는 관광상품 개발
-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친환경적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추진
- 관광활성화를 위한 지원체계 강화와 관광기반 조성 등



〈그림 1-23〉 서해안광역관광개발계획 종합 구상도

다. 주요사업

- **중심거점개발(전북권 : JB Sunset리조트)**
 - 대규모 중심시설을 집중·배치하여 주요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새만금지구(약 300만평, 2017년이후 검토사업), 해양경관의 조망 등 정적인 활동의 고군산군도지구(약 26만평, 1단계사업), 산악자원과 해양자원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변산지구(약 16만평, 1단계사업)등으로 기능을 분담
- **연계관광지 개발**
 - 정비·보완사업으로 금강호지구(전북 군산연안, 금강하구둑 등 685천m²)는 생태

자원과 기존시설을 연계하여 전국 최대의 생태관광지로 정비시키기 위해 휴양시설(생태숲, 산책로, 관찰데크, 갯벌체험/환경학습원, 꽃길조성)·운동오락시설(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자전거도로 등) 및 공공시설 도입

- 고창읍성 8주변에 상업시설(먹거리장터, 지역특산물판매장 등), 휴양시설(야외공연장, 야생화원 등), 체험시설(음성생활체험관, 전래놀이마당) 등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도입하여 문화체험거리 조성

5. 호남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

가. 비전과 목표

■ 비전

- 환황해권 녹색산업과 문화관광의 창조지역

■ 목표

- 생명산업의 고도화
- 주력제조업의 녹색화
- 친환경 녹색산업의 지식기반 형성
- 창조적인 문화관광산업 육성
- 환황해권 신발전거점과 통합 인프라 구축

나. 추진전략

- 광역경제권 장기발전구상에서는 생명산업의 고부가가치화 및 광역적 클러스터화, 주력제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광역적 연계화, 녹색산업의 융·복합 및 연구거점화, 녹색산업의 연계·협력 및 광역클러스터 구축, 문화관광상품 개발 및 국제관광마케팅, 관광지 및 관광연계 인프라 확충, 도시권 연계 및 신발전거점 육성, 통합·연계형 종합인프라 확충을 추진전략으로 채택하고 있음

다. 호남권 광역연계·협력

■ 광역연계·협력의 유형 및 방법

〈표 1-16〉 호남권 광역 연계·협력의 주요 유형 및 방법

목적	주요 대상	주요 방법	육성산업공간조성
산업의 녹색화	주역제조업	융·복합, 연계화	친환경소재, 신소재
전후방 연관효과	생명산업	융·복합, 연계화	1차산업과 식품·생물산업
	녹색화산업		친환경 부품소재
공동연구	녹색산업 생명산업	거점조성	R&D 특구
공동마케팅	문화관광	벨트화	하천, 산악, 해안벨트
공동이용	도시권	광역화	광주대도시권, 전주광역도시권

■ 산업간 연계·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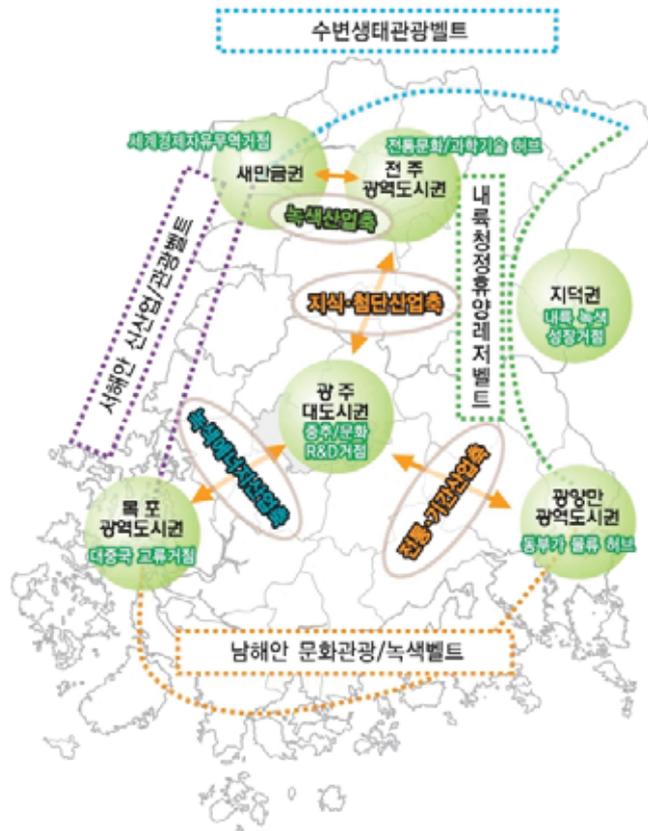
- 유사 선도·전략산업을 도출하고 산업간 연계클러스터 구성
- 호남권 산업연계의 중심축에 해당하는 광주대도시권과 전주광역도시권의 연계는 R&D와 문화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전주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새만금권과 녹색산업을 연계되도록 함
- 자연생태계를 바탕으로 하는 관광벨트는 남해안과 서해안, 금강과 섬진강, 지리산과 덕유산에 따라 형성

■ 초광역개발권의 연계·협력

-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연계·협력 : 무안의 한중국제산업단지와 새만금의 對중국 경제특구 등이 연계된 ‘對중국 경제교류거점 네트워크사업’ 추진

■ 국제교류를 위한 연계·협력

- 호남권의 국제교류기본계획을 마련하여 공동사업, 인재·문화 등 영역별 교류, 생태보전·환경보전 등에 대한 체계적 교류전략 마련
- 對중국 경제교류 관련 연구기구를 호남권 공동으로 설치 운영



〈그림 1-24〉 호남광역경제권 발전구상도

6. 전주광역권 도시계획

가. 계획의 목표와 전략

■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통한 지역혁신의 유도

- 전주시 일원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통한 지역혁신의 유도
 - 혁신도시 건설과 고속철도건설 등 다양한 국책사업들이 예정되어 있어 기타 지역개발사업들과 광역적 차원에서의 상호연계를 강화함으로써 지역 통합성을 증진

■ 기능의 분담과 상호연계를 통한 적절한 성장관리 도모

- 환황해경제권,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배후권, 남북내륙축의 서해안중심 등 전주권이 보유하고 있는 입지적 특성을 지역경쟁력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권역내 시·군간 물적·비 물적 네트워크를 강화

■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중복투자의 방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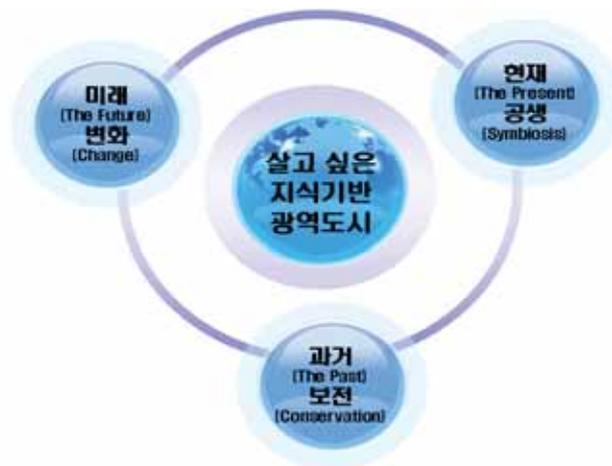
- 광역시설은 다수의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나 시설의 성격에 따라 배치에 많은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합리적인 광역시설의 배치기준을 마련, 투자 효율성을 극대화

■ 산업클러스터의 혁신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경쟁력 확보

- 집적된 산업클러스터의 발전 잠재력을 통해 혁신주체들 간의 상호협력과 상호학습을 유도, 유형별 특성을 고려하여 혁신역량을 보다 강화

■ 쾌적한 정주환경 확보 및 문화적 삶의 질 제고

- 환경자원의 훼손 저감을 위해 개별 시·군의 환경관리방안 등 녹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주민의 사회적 참여와 여가선용을 지원할 수 있는 문화·예술 활동 기반 구축



〈그림 1-25〉 전주권의 미래상

나. 개발 전략

■ 공간구조,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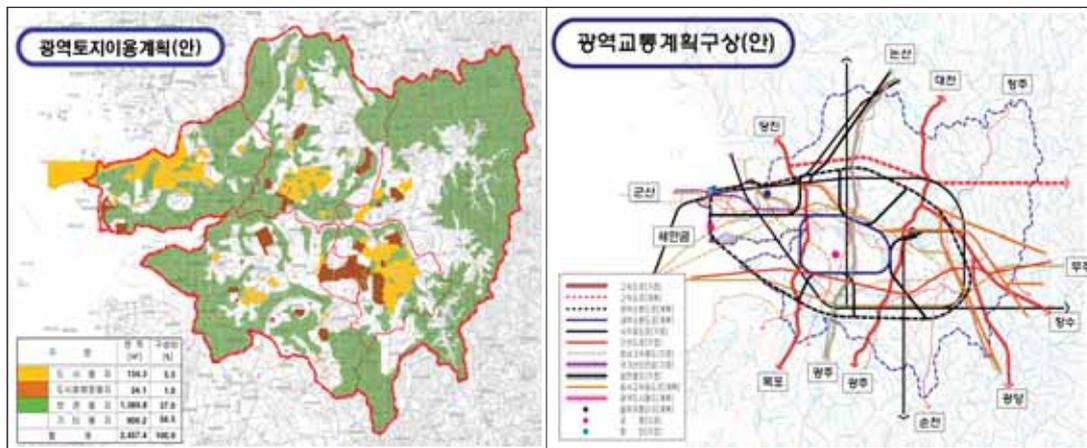
- 지역통합성을 증진하는 공간구조의 구축과 지역균형발전을 유도하는 공간체계의 형성
- 시·군별 기능분담 및 연계를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혁신 클러스터의 육성, 공간수요의 합리적인 배분과 균형적인 토지이용, 무분별한 시가지확산 및 연담화 방지

■ 광역교통 및 광역공급·이용시설

-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위한 광역교통체계 구축, 생활권 교류 확대에 따른 간선교통체계 정비
-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투자효용성 증대, 님비와 핼피시설의 적정배치를 통한 지역화

■ 여가공간·녹지관리 및 환경보전·재해방지

- 시가지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및 녹지네트워크 구축, 환경자원 및 문화자원을 활용한 종합적인 여가·문화공간 마련
- 생태계 및 환경보전을 위한 생태네트워크 구축, 공동의 방재대책수립을 통한 광역적 종합재해방지대책 마련



〈그림 1-26〉 전주권 광역도시계획 구상(안)

다. 주요 지역개발사업

- 동서횡단철도 및 국제물류센터 등 국제교류 물류시설, 군산~익산간 고속도로 및 국도·지방도 등 지역간 연결교통, 외곽순환도로 및 내부순환도로건설과 첨단교통정보시스템 구축, 광역상수도확충계획, 하수도·축산폐수처리시설 확충 및 광역소각시설 신설, 지역통합생태네트워크 구축, 통합관광루트의 개발과 권역별 관광자원 확충, 역사문화자원의 유지·복원 및 문화이벤트 활성화 등

7. 새만금종합개발계획(MP)

가. 계획의 목표와 전략

-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미래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Ariul)'을 비전으로 선정
 -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서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국가 성장엔진 담당
 -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조성
 -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거점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메카기능 담당
-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Ariul)' 비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글로벌 경제중심지(Global), 녹색성장 선도(Green), 물의 도시(Water), 문화·관광 메카(Culture), 인간중심의 도시(Human)를 목표로 설정



〈그림 1-27〉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나. 개발 전략

- **환황해경제권의 산업, 업무, 유통기능의 융·복합기지 조성**
 - 연구, 시험, 생산기능이 집적된 신산업 요람지 조성
 - 국제적 인력, 자본, 기술의 집적지
 - 육·해·공로가 연계되는 교통허브 구축
- **녹색계획과 기술에 바탕을 둔 창조적 녹색도시 구현**
 - 토지이용, 교통계획 등에 녹색도시개발기법 도입
 - 신재생에너지 생산, 자원순환기술 등 녹색기술 적용
 - 첨단 유기농 기법 도입 등을 통한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조성
- **수변을 활용한 명품이미지 ‘아리울’ 구축**
 - 새만금의 특성인 물과 대규모 평지를 이용한 특색 있는 이미지 창출
 - 워터프론트, 수로, 생태습지, 수변 경관숲 등을 이용한 다양한 친수활동 유치
 - 체계적 호소관리로 깨끗한 물 확보
- **세계인이 모여서 소통하는 교류의 장 조성**
 - 지역 고유의 역사, 문화, 관광자원이 부각되는 한국적 공간 창출
 - 세계인이 열광하는 매력적인 콘텐츠, 시설 등의 도입
 - 환경, 산업, 농업 등이 연계된 미래지향형 그린 투어리즘 실현
- **인간이 중심이 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유**
 -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으로 활력 넘치는 교류공간 조성
 - 바다, 호수, 강, 녹지대가 연계되는 생태 녹지축 구축
 - 글로벌 기준에 입각한 생활환경 조성



〈그림 1-28〉 새만금의 토지이용계획

다. 주요사업

■ 용지별 개발계획

- 명품복합도시
 - 직주근접 기능혼합형 공간배치, 수상택시·버스 등 수상교통 활성화, 복합도시 남·북 연결순환망에 신교통체계 도입 등
- 신재생에너지 메카
 - 세계 최대 규모 신재생에너지용지(20km)를 중심으로 생산·제조·실증·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허브 구축
- 생태환경용지
 - 자연과 인간이 함께 어우러지는 청정생태공간을 구현하여 새만금생태계를 건강하게 하고, 새만금 가치를 향상
- 첨단 고품질 수출농업 육성
 - 85.7km²의 광활한 농업용지를 원예단지, 대규모 농어업회사 등 고품질 수출농업클러스터로 조성
- 과학연구용지
 - 항공교통, 항공MRO, 에너지원, 해양환경 등 Big & Green Science Park 조성

-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 숙박·레저·오락·휴양 등 복합 해양레저단지 조성, 국제적 관광명소로 개발
- 주요 기반시설 계획
 - 항만
 - 2020년까지 1단계로 4선석 규모, 인공섬 방식의 신항만 건설
 - 공항
 - 군산공항 국제선취항 추진 및 수요에 맞춰 공항 확장 검토
 - 도로·철도
 - 주간선 도로망 체계 및 철도 체계 보완
 - 순환링
 - 기존 순환링 구조를 유지하되, 순환링의 반경 축소
 - 기타
 - 용수공급, 하수처리 및 지능형 물 관리체계를 이용한 재활용, MBT방식 침단폐기물처리, 에너지공급계획 등 수립

8. 전주-군장광역권 종합개발계획

가. 개발방향과 전략

- 환황해경제권의 국제적인 생산·교역 거점 구축지원을 위한 지역중심기반을 형성 하고자 첫째, 국제기능의 유치 및 지원을 위한 업무·지원서비스 기반 구축 둘째, 첨단산업 육성을 통한 첨단복합산업벨트 구축 및 지역혁신체계 구축 셋째, 지역문화·관광자원간 종합적인 네트워크와 관광거점시설 구축 넷째, 생태자원의 보전과 친환경적 개발을 위해 광역생태네트워크 구축을 추진전략으로 설정하였음

나. 주요 지역개발사업

- 신도시 및 신시가지개발(전주 서부신시가지 외), 지역혁신클러스터 및 첨단복합산업벨트 구축사업(첨단문화산업단지조성 외), 국제 교류 및 거점시설(김제신공항 외), 간선교통체계구축사업(동서횡단철도 외), 신교통수단 및 교통여건 개선(관광도로 개설 외), 역사문화자원개발(영화거리조성 외), 관광지 및 복합위락시설 조성

(월드컵경기장 주변 복합개발 외), 지역특화박물관 조성(젓갈박물관 건립 외), 공원·유원지개발(바둑공원 조성 외), 온천 등 지역특화관광자원개발, 생태네트워크 구축 및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하수처리장 확충 외), 지역대학 특성화 사업 등



〈그림 1-29〉 10대 광역권 개발

〈표 1-17〉 광역권별 주요 개발방향

광역명	주요 개발방향
부산-경남 광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 동남부의 중심기능강화, 동북아항만 및 물류 국제교역 중추도시 육성 · 기존 산업의 지식기반화와 고도화를 통한 재활성화
대구-포항 광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경제권의 국제교류거점 강화 · 섬유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지식기반산업 육성
광주-목포 광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 및 동남아경제권과의 국제교류거점 육성 · 광소자, 레이저, 광통신 등 첨단광산업 및 지식산업 유치
대전-청주 광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행정중추기능 분담 및 내륙국제교역거점 기능 ·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이 특화된 지역으로 육성
아산만 광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중국 교류증대에 대비한 물류기능 분담 거점으로 육성 · 수도권과의 산업분산과 서해안개발의 교두보 확보
전주-군장 광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동해경제권의 국제적 생산거점 형성 · 복합산업지대 조성과 영상산업의 육성
광양만-진주 광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중추항만도시 및 항공산업도시로 육성 · 영호남 협력개발의 시범지역으로 발전
강원동해안 광역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적 휴양 및 관광거점으로 육성 · 통일에 대비한 대북 경제, 문화교류거점 기반 구축
중부내륙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문화자원을 활용한 내륙낙후지역의 새로운 활로개척 · 내륙물류기반 구축 및 친환경적 첨단지식산업 발전거점으로 육성
제주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자유도시 기반조성으로 아태지역 관광, 물류, 금융, 교역중심화 · 친환경적 농축산업 및 첨단생명공학산업 육성

9. 제5차 전북권 관광개발계획

가. 계획의 목표와 전략

비전	21세기 동북아 시대를 위한 한국형 관광수도, 전북			
목표	지역주민 1인당 관광객수 (명)	'10 25.9	⇒ '16 34.8 年 5.0% ↑	⇒ '20 42.5 年 5.1% ↑
	지역주민 1인당 관광수입 (천원)	480	⇒ 758 年 7.9% ↑	⇒ 1,000 年 7.2% ↑
	지역주민 관광일자리 (천명)	30	⇒ 38 年 4.0% ↑	⇒ 45 年 4.3% ↑
	GRDP 기여도 (%)	2.6	⇒ 5.3 現부동산업수준	⇒ 6.0 現도·소매업수준
전략	복·융합관광을 통한 관광시장 확대	고부가 관광을 위한 핵심역량 강화	친시장관광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광시설 및 관광자원의 수준향상과 특화된 복용합 관광 개발	전라북도 관광 브랜드화를 통한 핵심 관광산업의 집중 육성	관광인프라의 획기적 개 선을 통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 증대	전북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 공공투자 확대
	기본 방향			

나. 기본방향

■ 관광소권의 설정

-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토대로 관광자원의 유사성 및 차별성, 교통 및 관광객 이동 동선,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집행 및 투자효율성 등을 소권 설정기준으로 설정함

〈표 1-18〉 관광소권 설정기준

기준	주요 내용
관광자원의 유사성 및 차별성	- 핵심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인접지역간 종·횡적 연계체계를 형성하고 지역의 관광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차별성 강화
교통 및 관광객 이동 동선	- 관광자원의 이용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선적이용을 강화하고 시장성 접근성을 활용하여 관광수요시장 확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 상위계획을 구체화하면서 관련 계획간의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사업집행 및 투자효율성	- 지역 관광개발체계 구축을 통하여 관광사업의 집행과 투자효율성 제고

다. 소권별 개발방향

- 관광소권이 관광(단)지와 관광자원의 분포, 관광자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성, 관광형태별 수용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설정되었음
- 관광소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하여 정주환경과 지역간의 연계화 및 특성화를 감안하여 관광거점 기능을 확대하고, 관광매력 제고를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부거점을 선정함
- 역사문화도시권은 전주를 거점으로 하고 익산과 완주를 부거점으로 하여 역사교육 및 전원휴양의 기능으로 특화함
- 새만금권은 군산, 고창 두 개의 권역을 거점으로 부안, 김제, 정읍, 고창을 부거점으로 하여 해양레포츠 및 레저클러스터로 특화시킴
- 동부산악권은 남원과 무주를 거점으로, 진안, 장수, 임실, 순창은 부거점으로 하여 산악·수변을 이용하여 휴양·레저·장수 건강기능으로 특화된 관광벨트로 육성함

〈표 1-19〉 소권별 거점 및 개발방향

관광권역	거점	부거점	기능배분	개발방향
역사문화도시권	전주	익산	역사교육	· 풍부한 역사문화·예술자원을 바탕으로 전통문화자원을 글로벌화하고, KTX 등 교통접근성과 도시권의 관광수요를 바탕으로 한 전원휴양형으로 개발
		완주	전원휴양	
새만금권	군산	부안	해양레포츠	· 새만금을 중심으로 부존자원의 관광자원화를 통해 국제해양관광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신규관광시장 창출에 주력
		김제	신재생·종교	
	고창	정읍	레저클러스터	· 해양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자연친화적인 해양레저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해양교육관광의 중심으로 개발
		고창	해양교육	
동부산악권	남원	임실	생태·교육	· 청정 자연자원과 풍부한 생활문화자원을 바탕으로, 생활친화형 관광개발을 통해 일상의 관광화, 관광의 일상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발
		순창	체험·식품	
	무주	진안	의료·건강	·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고원형 레저스포츠 자원을 바탕으로 경관 및 생태 체험과 리조트를 중심으로 한 휴양형 관광자원 개발
		장수	고원레포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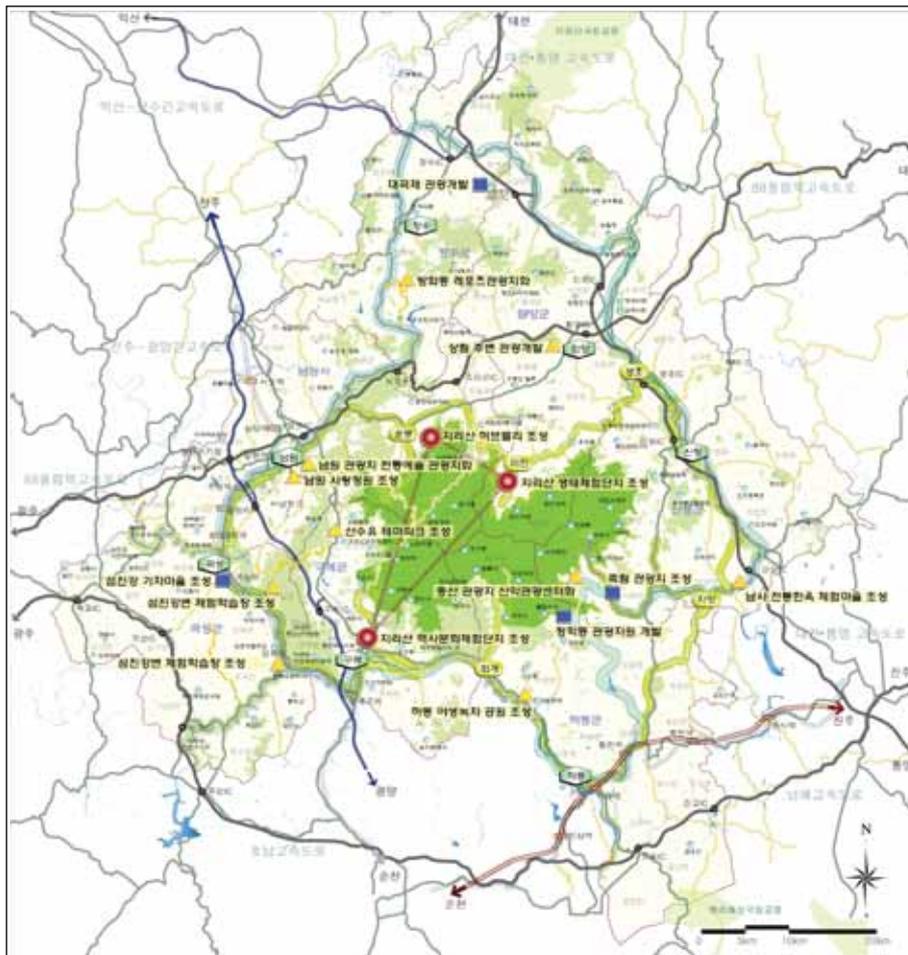
10.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가. 계획의 비전과 목표

■ 지식사회 기반형 신(新) 국민관광 모델지대

- 국민관광 향유요구에 부응하는 자연친화적 국민 휴양 관광지역 조성
- 농산촌의 지역산업과 관광개발이 순환하는 복합 관광지역 형성
- 경쟁력 있는 지역 문화자원을 활용한 특화 관광지역 구축
- 지역별 자원의 연계와 협력을 중시하는 통합 관광지대 형성

나. 개발전략



〈그림 1-30〉 지리산권 관광개발계획 종합계획도

■ 지역밀착형 관광자원 특화개발

- 자연생태 친화형 관광자원 개발
- 테마형 문화관광자원 개발
- 도농 교류형 농촌체험 관광자원 개발

■ 지식창출형 관광기반 통합 촉진

- 관광객 유치촉진체계 강화
- 관광인프라체계 정비
- 지속가능한 환경보전·관리체계 구축
- 자립형 관광개발 기본계획

■ 협력형 관광집행 기반 확립

- 다각적 관광개발 자원 확보
- 체계적 계획집행 기반 구축

다. 주요 사업

- 웰빙을 추구하는 관광행태변화를 반영하여 지역산업 복·융합형 건강·휴양관광 거점으로서 허브밸리를 조성하고, 지역소득 및 관광수요 창출을 극대화하고자 남원시(운봉읍 바래봉 일원 92,842m²)에 지리산허브밸리를 조성
- 대곡제의 수변경관과 산악경관이 조화된 체류형 자연휴양 관광지를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하고 관광객의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장수군 장계면 일원(107,991m²)에 소재한 대곡제 관광개발을 추진
- 우리나라 대표적인 사랑이야기인 춘향전의 고장 남원시 일원(33,000m²)에 광한루원, 춘향테마파크와 연계하는 도심 속 특화 테마공원인 남원 사랑정원을 조성하며, 전통예술의 고장인 남원 관광지의 경관 개선을 위해 관광지에 문화의 거리를 조성하는 남원 관광지 전통예술 관광지화 실현
- 장수군 방화가족휴가촌에 청소년수련기능을 보강하여 가족단위의 방화동 레포츠 관광지화 추진

제3절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 수정계획(2008~2020)의 평가

■ 인구 및 도시지표

- 전라북도의 인구는 2005년 1,885천명에서 2010년 1,869천명으로 16천명이 감소함. 이는 기존계획에서 2010년 목표치로 제시한 1,778천명에 비해 91천명이 많은 수준임
- 도시인구는 2005년 1,402천명에서 2010년 1,427천명으로 26천명이 증가하였고, 도시화율은 2005년 74.4%에서 2010년 76.4%로 2.0%p 높아짐. 이는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도시인구 1,442천명, 도시화율 81.1%보다 낮은 수준임

■ 지역경제지표

-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2005년 25조 2,212억원에서 2010년 34조 5,469억원으로 9조 3,257억원이 증가하여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30,199억원보다 크게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2005년 대비 2010년 지역내총생산 증가율은 전국 증가율(35.2%) 보다 높은 37.0%로 최근 전라북도의 지역경제 성장이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빠르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줌
- 산업구조는 2010년 1차 산업 8.8%, 2차 산업 25.6%, 3차 산업 65.6%로 2005년에 비해 2차 산업의 비중이 높아지고 1차 산업과 3차 산업의 비중이 낮아졌음. 이는 기존계획의 예측치와 비교하여 2차 산업의 비중이 크게 높아진 반면, 3차 산업의 비중이 낮은 수준임
-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010년 18,287천원으로 예측치인 16,985천원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토지이용지표

- 전라북도의 도시용토지는 2005년 481km²에서 2010년 547km²로 66km² 증가하였으며, 기존계획의 목표치인 521km²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농업용토지는 2005년 2,310km²에서 2010년 2,252km²로 58km² 감소하였으며,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2,299km²보다도 훨씬 낮은 수준임

■ 사회간접시설지표

- 전라북도의 자동차 보유대수는 2005년 307.1천대에서 2010년 711천대로 약 404천대 증가하였으며,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623천대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도로포장율은 2005년 국도 95.6%, 지방도 78.7%에서 2010년 국도 97.4%, 지방도 79.7%로 증가하였으며.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목표치와 비교할 때 국도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나, 지방도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철도의 영업거리는 2005년 210.9km에서 2010년 220.1km로 9.2km 증가하였으며,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255.3km보다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공항의 2005년 여객수송량 170천인, 화물물동량은 2,373천톤에서 2010년 여객수송량 175천인, 화물물동량은 1,610천톤으로 여객수송은 소폭 증가하였으나, 화물물동량은 높은 감소율을 보였으며, 기존계획의 예측치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용수환경지표

- 전라북도의 상수도 보급률을 2005년 81.9%에서 2010년 96.9%로 15.0%p 증가하였고, 하수관거보급률은 52.5%에서 79.3%로 25.8%p 증가하였으며, 기존계획에서 예측한 상수도 보급률 87.7%, 하수관거보급률 61.6%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1-20〉 「제3차 전라북도 종합발전계획(2008~2020년)의 추진성과」

구분		2005년 (현황)	2010년 (예측치)	2010년 (실적치)		
인구	총인구 ¹⁾	천명	1,885	1,778	1,869	
	65세 이상 인구	%	12.9	16.4	15.2	
도시화	도시인구	천인	1,402	1,442.0	1,427	
	도시화율	%	74.4	81.1	76.4	
소득 생산	지역총생산액(경상)	십억원	25,221	30,199	34,547	
	1차산업	%	11.0	8.8	8.2	
	2차산업	%	23.1	25.6	29.1	
	3차산업	%	65.9	65.6	62.6	
	1인당 GRDP(경상)	천원	13,306	16,985	18,287	
토지 이용	총면적	km ²	8,053	8,053	8,067	
	도시용토지	km ²	481	521	547	
	농업용지	km ²	2,310	2,299	2,252	
	임야	km ²	4,579	4,565	4,534	
	기타	km ²	682	668	733	
사회 간접 시설	자동차 대수		천대	307.1	623	711
	연장	고속도로	km ²	279.9	355.5	413
		국도	km ²	1,414	1,428.5	1,421
	포장률	국도	%	95.6	97.0	97.4
		지방도	%	78.7	80.7	79.7
	철도	영업거리	km	210.9	255.3	220.1
	공항	여객	천인/년	170	478	175
화물		천톤/년	2,373	7,171	1,610	
상수도	상수도보급률	%	81.9	87.7	96.9	
	1일 1인당 급수량	ℓ	405	382.5	435	
하수도	하수도 보급률	%	52.5	61.6	7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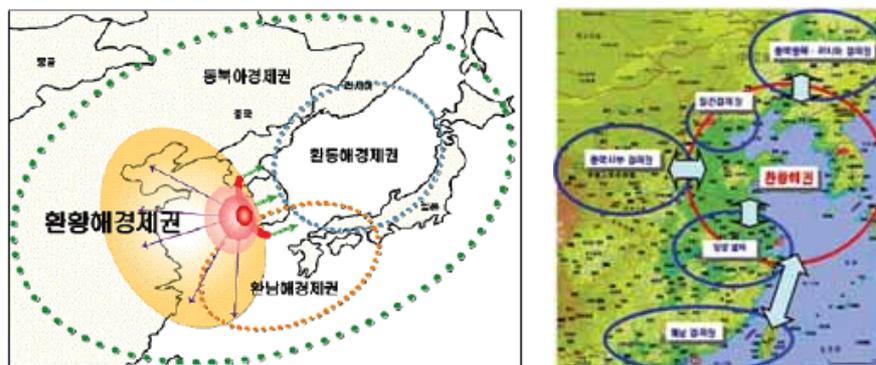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제3장 여건변화 전망 및 계획과제

제1절 여건변화 전망

1. 중국의 부상과 서해안시대 성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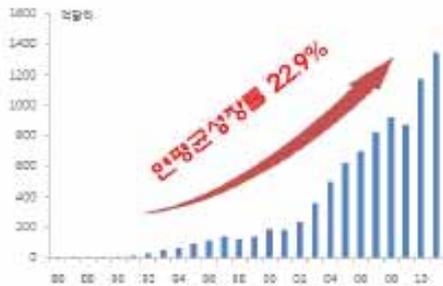
-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함께 서해안권은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부상
 - 중국은 산업화와 경제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1978년 이후 30년 이상 연평균 10%의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세계 제2위의 경제대국으로 성장
 - Global Insight는 중국이 고성장을 지속하면서 2017년에는 세계 최대 수입국, 2019년에는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
 -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우리나라와 일본이 속한 동북아 경제권은 EU, NAFTA와 함께 세계 3대 경제권으로 부상하였으며, 환황해경제권도 세계경제의 핵심으로 부각
 - 환황해경제권에 속한 중국 동부연안지역은 중국경제의 중심축으로 동북아 경제권의 핵심지역
 - 환황해권은 일본, 중국 등 세계 인구의 6.3%인 약 4억 명에 이르는 거대한 배후시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4%, 한·중·일 총 GDP의 29.4%를 차지
 - 서해안지역은 환황해경제권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접근성이 우수한 이점을 바탕으로 환황해경제권의 중심지로서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
 -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시작으로 황해,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이어지는 우리나라의 서해안 지역은 對중국 교역 및 생산의 거점으로 국가경제발전의 중심축으로 성장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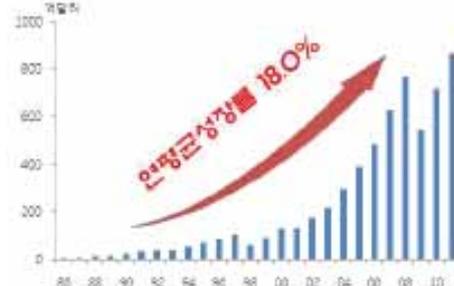
〈그림 1-31〉 환황해 경제권의 중심에 위치한 서해안권

■ 전라북도 교역 대상국으로서 중국의 중요성 증대

-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2011년까지 한중 교역액은 64억 달러에서 2,206억 달러로 연평균 20.5%p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2004년 이후 중국은 우리나라 최대의 교역 파트너로 부상



<對중국 수출액 증가 추이>



<對중국 수입액 증가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www.kotra.net)

<그림 1-32> 對중국 교역 증가 추이

- 향후 한중 FTA 체결과 함께 한중 교역이 더욱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서 중국의 중요성은 더욱 증대될 전망
- 전라북도의 대외 교역에 있어서도 중국은 수출과 수입에서 모두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핵심 교역국으로 對중국 교역 비중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확대되면서 전라북도 경제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표 1-21> 전라북도의 국가별 수출입 구조(2011년 기준)

(단위: 천달러, %)

순위	수출				수입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국가	금액	증가율	비중
1	중국	1,688,617	27.4	13.2	중국	1,043,313	36.7	20.0
2	러시아	1,101,505	76.4	8.6	미국	1,034,051	36.7	19.8
3	대만	781,695	54.4	6.1	일본	752,989	13.4	14.4
4	미국	627,010	44.0	4.9	독일	272,551	-35.3	5.2
5	일본	619,616	35.7	4.8	캐나다	163,370	143.9	3.1
-	총수출	12,818,350	22.0	100.0	총수입	5,222,387	26.3	100.0

자료 : 무역통계포털(<http://www.kita.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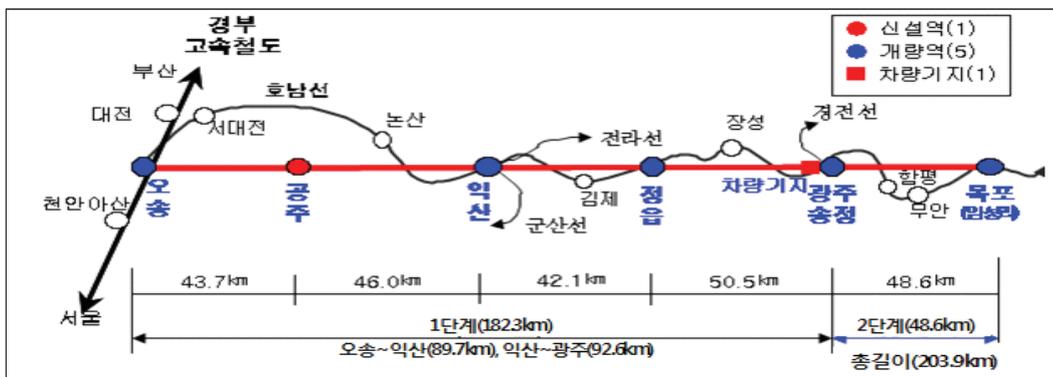
■ 서해안시대의 성숙과 함께 對중국 교류의 폭이 크게 확대될 전망

- 환황해경제권의 성장과 함께 한중 교류협력은 교역과 투자 등 경제교류를 넘어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 등 다양한 영역에서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
 - 1992년 수교 이후 방한 중국인 수는 1992년의 9만 명에서 2011년에는 222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우리나라의 중국 방문객 수는 2011년 419만 명으로 증가
 - 2011년 우리나라의 중국 유학생 수는 6만 5천명으로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73.8%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국 내 한국 유학생 수는 6만 2천명으로 중국의 전체 외국인 유학생의 21.0%를 차지하여 양국에서 각각 가장 높은 비율을 점유
 - 한중 양국 간 청소년·지도자 교류도 2004년의 양국 정상 간의 청소년·지도자 특별교류에 대한 합의 이후 점차 증가하여 매년 400~800명이 상대국가를 방문
-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중국과의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가 증가하는 추세로 전라북도의 對중국 교류 역할이 확대될 전망
 - 전라북도는 중국과의 경제교류 확대와 함께 중국인 유학생, 관광객 등 인적교류가 큰 폭으로 증대되면서 환황해경제권에서 對중국 교류의 역할이 확대될 전망

2. KTX 개통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증대

■ KTX 개통으로 수도권이 만나질 생활권으로 축소

- 호남고속철도 전라북도 구간이 2014년에 완공될 예정
 - 호남고속철도는 오송~목포 간 231km 구간으로 1단계 구간인 오송~광주 간 182km가 2014년, 2단계 구간인 광주~목포 간 49km 구간이 2017년에 완공될 예정
 - 전라북도 구간(78.4km)은 1단계 구간에 속하여 2014년에 완공될 예정



〈그림 1-33〉 호남고속철도 노선

- 호남고속철도 완공 후 전라북도와 서울 간 소요시간이 1시간 내외로 단축되어 수도권권이 반나절 생활권으로 포함됨
 - 호남고속철도의 전라북도 정차역은 익산, 김제, 정읍으로 서울(용산역)까지의 소요시간이 현재의 98~129분에서 67~79분으로 단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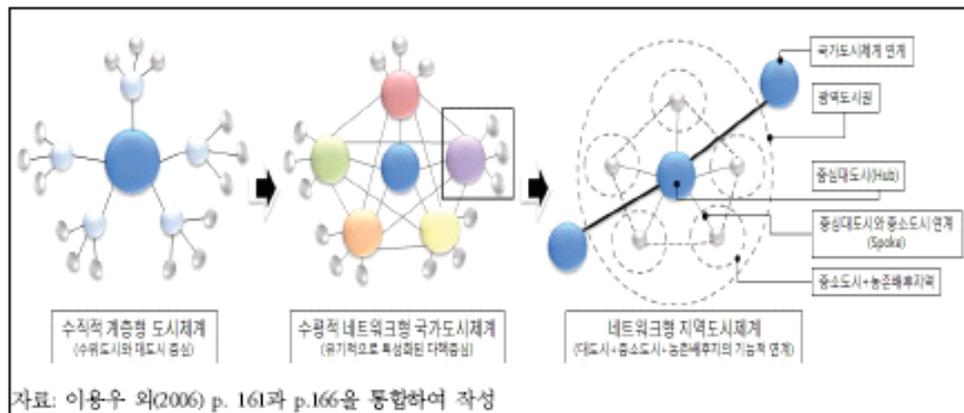
〈표 1-22〉 호남고속철도 주요 구간별 소요시간

구 분	용산~오송	오송~익산	익산~정읍	오송~광주	광주~목포	비 고	
연 장	121.8km	89.5km (211.3km)	42.2km (253.5km)	182.3km (304.1km)	48.6km (352.7km)	오송~목포 230.9km	
소요 시간	현재	39분	59분(98분)	31분(129분)	120분(159분)	26분(185분)	격역 정차 (오송, 익산)
	신선	39분	28분(67분)	12분(79분)	54분(93분)	13분(106분)	
	단축	-	△31분(△31분)	△19분(△50분)	△66분(△66분)	△13분(△79분)	

() : 용산기점 누계

■ KTX 네트워크 형성으로 전라북도 발전의 새로운 기회를 제공

- 호남고속철도와 경부고속철도 등 KTX 개통으로 수도권권을 포함한 전국이 KTX 네트워크를 형성함에 따라 이에 기반한 지역발전의 새로운 기회가 발생
 - KTX는 지역간 접근성을 제고하여 광역적인 인구이동, 자본흐름은 물론 정보·기술혁신의 빠른 확산에 기여하여 새로운 경제기회를 제공
- KTX 개통으로 정차도시의 접근성이 제고되면 주변지역과 정차도시간 기능의 상호연계가 강화되면서 다양한 방향의 상호작용이 발생
 - KTX 개통 및 정차역 중심의 도시개발이 성공적으로 접목되는 경우 기존의 수직적·계층적 도시체계가 네트워크형 지역도시체계로 진화가 가능
 - KTX 네트워크는 공간적 제약을 속도로 극복함으로써 전국을 하나의 도시(Mega City)처럼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시설이 될 수 있어 네트워크 도시(Network City) 개념에 입각한 도시(지역) 간 협력 및 역할 분담으로 새로운 지역발전의 기회를 제공



자료: KTX역세권 중심 지역 특성화 발전전략(국토해양부, 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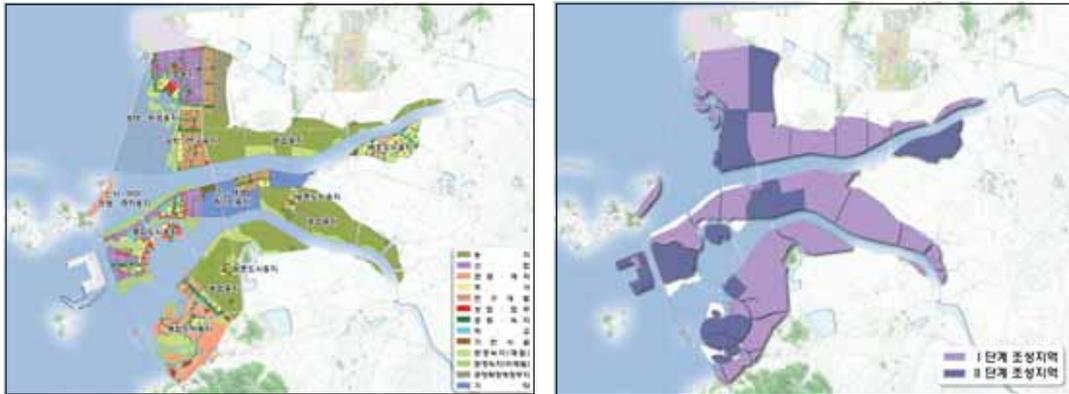
〈그림 1-34〉 KTX 개통에 따른 도시체계 변화

- KTX 네트워크 형성은 이를 활용하는 새로운 KTX 경제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
 -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발생하며 경제활동이 활발히 전개됨
 - KTX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새로운 형태의 경제·사회 활동이 등장
 - KTX 회의실, 컨벤션, 호텔, 금융 등의 서비스 산업이 부각

3. 새만금 개발의 본격 추진

■ 2020년까지 새만금 총 개발용지의 73% 개발 완료로 발전기반 구축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이 수립(2011)되고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 중으로 2020년까지 새만금 총 개발면적 283km²의 73%인 206km²의 개발이 완료됨
 - 새만금 개발사업은 2단계로 추진되며, 1단계는 2020년까지, 2단계는 2020년 이후에 추진
- 1단계 사업으로 2020년까지 새만금 개발을 위한 주요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구축이 완료됨
 - 산업용지(18.7km²), 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2.0km²), 농업용지(85.7km²), 농촌도시용지(4.6km²) 개발 완료
 - 복합도시용지 67.3km² 중 36.9km²(55%), 신재생에너지 용지 20.3km² 중 8.8km²(43.3%), 생태·환경용지 42.2km² 중 40.25km²(95%) 개발 완료
 - 신항만 4선석 및 배후단지 건설,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내부간선도 중 동서 2축 및 3축, 남북 1축 건설 완료, 남북2축 26.7km 중 20.7km(77.6%) 건설



〈새만금 토지이용 구상〉

〈단계별 용지조성계획〉

자료: 새만금종합개발계획(국무총리실, 2011)

〈그림 1-35〉 새만금 개발구상

- 새만금 주요 용지가 조성되고 기반시설이 구축됨에 따라 새만금 개발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
 - 새만금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 일부 용지는 이미 조성이 완료되어 투자 유치에 진행 중으로 기반시설 구축과 함께 새만금 개발이 본격화 될 것임
-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중심도시로서 미래성장엔진으로 발전할 전망
 - 새만금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미래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Ariul)'을 비전으로 설정
 - 새만금은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지적 역할을 담당할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환황해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
 - 새만금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서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국가 성장엔진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개발될 계획
 - 새만금은 환황해경제권의 산업, 업무, 관광·레저, 유통기능의 융·복합기지로 조성될 계획
 - 새만금 지역내에는 첨단농업, 산업, 관광·레저, 물류유통, 국제업무, 과학연구, 신재생에너지, 주거기능 등 8대 핵심기능을 도입하고, 산업, 국제업무, 관광·레저, 주거기능이 융·복합된 복합도시를 개발
 - 새만금 내부개발과 이와 연계한 주변지역 특화·발전으로 새만금 경제권이 육성됨으로써 새만금은 전라북도 전역의 지역발전을 견인할 전망
 -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과 주변지역간 연계를 통해 토지이용과 공간구조의 연속성을 확보함으

로써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주변지역의 선도적 역할을 분담시킬 계획

- 새만금과 주변지역과의 연계·발전으로 새만금은 전라북도 발전을 견인하는 미래성장엔진으로 역할을 수행할 전망
- 새만금 인접지역의 경우, 군산은 새만금 연계 생산기지로서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제조업, 김제는 고부가가치 농축산업 및 농공산업 클러스터 중심지로서 미곡, 원예, 농업기계 등 농업, 부안은 새만금 관광·레저·신재생에너지 허브로서 산악 및 해안 관광·레저산업 등으로 특화·발전시켜 새만금 경제권 육성
- 새만금 인접지역 이외에 익산과 정읍은 KTX 역세권 개발을 활용한 내륙수송 물류배후기지로 역할 제고, 익산~군산~김제로 연결되는 식품클러스터, 농축산, 농기계, 제조업 연계발전망 구축, 부안~정읍~고창으로 연결되는 청정·신재생에너지 연계·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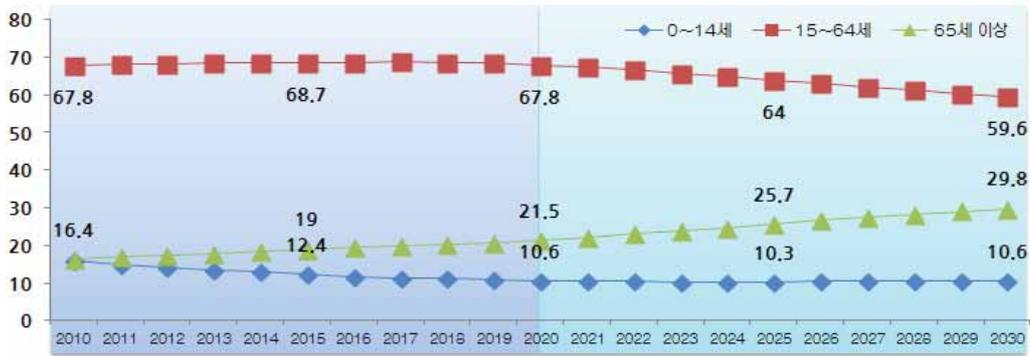
■ 새만금 개발의 본격화에 따라 전주·새만금 대도시권 형성 가시화

- 새만금 개발로 첨단산업, 과학연구, 첨단농업, 관광·레저, 유통 및 국제업무금융 등 성장동력이 형성되면서 새만금권은 새로운 도시권을 형성
 - 새만금은 군산, 김제, 부안 등 새만금권 도시와 함께 독자적인 새만금 도시권을 형성
- 새만금은 내륙의 연담도시권과 연계하여 전주·새만금 대도시권으로 발전하여 우리나라의 새로운 발전지역으로 부상할 전망
 - 새만금은 내부개발을 통해 유치된 성장동력을 바탕으로 전라북도 연담도시권(전주~익산~군산)이 보유한 성장 잠재력과 강점을 상호 융·복합 지원함으로써 대도시권으로 안정적인 성장을 구가할 것으로 전망
 - 전주·새만금 대도시권은 2030년에는 260만 명(새만금개발사업 유발인구 73만명, 전주권 190만명)을 상회하는 대도시권을 형성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도시권과 기능적 보완성과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될 전망

4. 사회양극화 심화와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

■ 저출산·고령화의 심화와 노인부양부담 확대

-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노년부양비는 2010년 24.2%에서 2020년 31.7%로 7.5%p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저출산과 고령화의 심화로 인해 노인1명을 부양해야 할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0년 4.14명에서 2020년 3.15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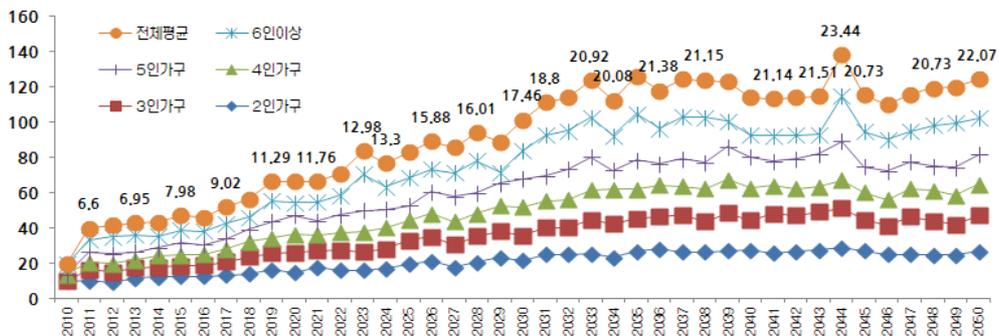


자료 : 통계청(2010)

〈그림 1-36〉 전라북도 연령별 인구추계

■ 사회양극화의 확대와 보편적 복지욕구 증대

- 사회양극화의 심화로 인해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이 2010년 5.71%에서 2020년 11.76%로 약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의 절대빈곤율 추정치(한국노동패널)가 전국 평균 절대빈곤율 추정치보다도 약 5.1%p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2020년 전북의 절대빈곤가구의 비율은 16.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자료 : 성명재(2005), 조세연구원

〈그림 1-37〉 가구원수별 절대빈곤율 추계

- 전북은 높은 빈곤율로 인해 소득상위 20%가 전라북도 소득의 38.02%를 점유하고 있어 소득불균형이 심각한 것으로 추정됨
- 빈곤인구의 증가는 복지수요계층의 확대를 유인함으로써 보편적 복지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복지재정의 확대와 지방재정 어려움 심화

- 복지수요의 증가에 대응한 복지사업의 확대에 의해 복지재정은 2010년 약 86.5조에서 2020년 236.8조로 173.7%p 증가할 것으로 추정됨
- 전라북도의 복지재정비율은 2004년 전체 총 세출예산의 17.75%에서 2010년 24.27%로 6.52%p 증가하였고, 최근 보편적 복지로 인한 복지대상자의 확대를 감안할 경우 전라북도의 복지재정규모는 2020년 현 재정규모의 3배인 약 3.6조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표 1-23〉 복지재정의 장기전망

(단위: 십억원)

구 분	보건복지부 소관 공공사회복지비 (A)	고용보험+ 산재보험 (B)	공적지역 연금급여 (C)	공공사회복지 지출 D=A+B+C	GDP(E)	GDP대비 비중(%)
2011년	66,823	7,579	12,080	86,482	1,172,803	7.37
2015년	116,907	17,018	18,579	152,504	1,590,977	9.59
2020년	187,558	19,824	29,416	236,798	2,179,777	10.86
2025년	276,519	21,991	44,103	342,613	2,755,615	12.43
2030년	386,743	24,109	63,921	474,773	3,483,573	13.63
2035년	506,737	25,950	86,129	618,816	4,177,521	14.81
2040년	661,932	27,835	111,001	800,768	5,009,708	15.98
2045년	826,916	30,318	134,725	991,959	5,864,229	16.92
2050년	1,010,420	33,134	160,161	1,203,715	6,864,508	17.54

자료 : 원종욱(20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Issue & Focus 102.

- 복지사업의 확대와 지방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향후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정책은 보편적 복지의 실현을 가치로 구현하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복지사업과 재정계획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임



〈그림 1-38〉 전라북도 복지여건변화와 전망

5. 새만금의 국제관광거점 부상과 전북관광의 경쟁력 강화

■ 국제관광시장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증가

- 세계적으로 국제관광객 수는 다소 감소하였으나 아시아태평양의 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 국제관광 시장에서 비중이 증가함
 - 세계관광시장에서 유럽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성장률은 중동, 아프리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속적으로 성장
- 세계관광기구(WTO)는 국제관광시장이 2020년까지 연평균 4.1% 성장률을 보이면서 연간 관광객 수가 16억명을 넘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
- 동북아시아 국가의 관광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해 왔으며, 성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2008년 중국, 마카오 등의 관광시장 성장률이 하락한 것은 신종플루, SARS 등의 질병 등의 재해로 인한 일시적인 하락으로 분석

〈표 1-24〉 세계 지역별 국제관광객수와 성장률

(단위: 백만명, %)

구 분	국제 관광객 수						구성비율 2009년	성장률			
	2000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06/05	07/06	08/07	09/08
세계	683	801	853	904	919	880	100	6.5	6.0	1.7	-4.2
유럽	392.2	439.9	468.4	487.9	486.3	459.3	52.2	6.5	4.2	-0.3	-5.6
아시아 태평양	110.1	153.6	166.0	182.0	184.1	181.2	20.6	8.1	9.6	1.2	-1.6
아메리카	128.9	134.1	135.8	142.9	147.8	140.6	16.0	1.3	5.2	3.4	-4.9
아프리카	26.5	35.4	41.5	45.0	44.5	46.0	5.2	17.2	8.4	-1.1	3.4
중동	24.9	37.8	40.9	46.6	55.9	53.0	6.0	8.2	14	20.0	-5.2

자료: UNWTO(2000), World Tourism Barometer, Vol.8No.3October

■ 관광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와 소프트웨어(문화) 중요성의 확대

- 환경의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기반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관광개발(Sustainable Tourism Development)의 중요성이 확산되고 국가적·국제적 차원의 노력이 증대되어 관광활동에 대한 국민 의식수준이 제고되고 있음
- 관광활동이 지역의 환경을 유지하고 관광으로 창출되는 경제적·사회문화적 이익이

지역사회에 환원되어야 한다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

- 변화하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서 획일적인 관광개발 사업추진 관행을 극복하고 창조적 성장모델에 대한 개발 패러다임이 확산됨
- 대규모의 개발보다 지역의 문화와 현지인들의 열정적인 삶의 모습, 특색 있는 문화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증가하고 있음

■ **新한류의 확산에 따른 한국문화산업의 부흥**

- 1990년대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한류문화가 동아시아, 유럽까지 확산되어 전 세계인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이 개발되고 있음
- 2008년도 한류의 생산유발 효과는 4조 9,336억원으로 나타나 전년에 비해 1조 543억원이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유발효과는 전년대비 2,318억원 상승한 1조 7,139억원으로 추정됨
- 문화적 다양성을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흐름과 문화적 전통성을 중심으로 한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 **한류관광 중심지로서의 전라북도의 중요성 부각**

- 1990년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되기 시작한 한류문화가 동아시아, 유럽까지 확산되어 전 세계인의 공감대 형성과 함께 다양한 관광상품이 출시되고 있음
- 전라북도는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스타일’ 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관광자원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여 전북관광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에 위한 최적지
 - 전라북도는 전통적 생활양식, 현대도시에서 변형된 도시경관, 전통예술의 생활화, 전통음식, 각종 이벤트 등 개발 자원이 풍부

■ **새만금을 중심으로 한 중국관광교류의 중추지역 부상**

-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함께 내부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면서 관광잠재력은 비약적으로 증가함
- 현재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 신시·야미도간 관광·레저용지 등이 가시화되면 서해안권의 새로운 관광거점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됨
- 중국과 인접한 새만금의 이점을 토대로, 천혜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 및 중국과의 교류 중추지역으로 육성

■ 휴양·산악생태를 활용한 저탄소 녹색관광의 중요성 부상

- 전라북도 동부권은 인접 5개 도(道)와 인접한 높은 접근성으로 향후 우리나라의 생태·휴양 거점의 일번지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
 - 전북 동부산악권은 백두대간의 주요 축선을 구성하고 있어 덕유산·지리산 국립공원을 비롯하여, 마이산, 강천산, 섬진강, 용담댐, 옥정호 등 휴양·생태관광의 중심지임
 - 홍삼, 와인, 장류식품, 한우, 사과 등 지역의 농림 특산품과의 연계가 가능하며, 인삼, 약초, 치유 등 지역내 웰빙관광 상품의 개발을 통해 건강 도시로서의 이미지 메이킹 할 수 있는 잠재 자원이 풍부

■ 새만금 개발과 '2012 전북방문의 해' 를 계기로 관광선진화 도약

- 새만금 방조제 개통, 2012 전북방문의 해 개최 등을 계기로 관광객들을 위한 관광수용태세가 글로벌 수준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됨
- 그 동안 관광산업 발전의 장애요인으로 꼽혀왔던 숙박시설 등의 관광인프라의 신설 및 개선과 함께 군산국제공항과 항만을 중심으로 한 국제관광 인프라 추진을 통해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FTA의 진전과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 지난 10년간 45개국과 8개의 FTA 체결, 향후 지속 확대될 전망

- 지난 2002년 칠레와 FTA 협상을 타결한 이래 총 45개국과 8개의 FTA를 체결
 - 칠레(2002.7), 싱가포르(2004.11),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4개국(2005.7), 아세안 10개국(2006.4), 인도(2008.9), 미국(2007.4 / 2010. 12), EU 27개국(2009. 10), 페루(2010. 8)
-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12개국이며, 협상개시를 선언하거나 공동연구를 완료하는 등의 국가는 9개국에 달함
 - 협상 진행 중 : 캐나다, 멕시코, 콜롬비아, 호주, 뉴질랜드, 터키, 걸프협력회의의 6개국 등
 - 현장 준비 중 : 중국, 일본, 남미공동시장 4개국,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 FTA의 지속적 확대는 외국 농산물 수입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우리나라 전체 농산물 수입(170억 달러, 2010년)에서 FTA 협정이 타결된 미국, EU, 아세안, 칠레 등이 차지하는 비중은 53%에 달함
 - 현재 공동연구와 협상개시를 준비 중인 국가와의 FTA가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수입 농산물의 90% 이상이 FTA 체결국으로부터 들어오게 될 전망

〈표 1-25〉 주요 국가별 농산물 수입 추이

(단위: 백만달러,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 체	수입액	11,248	13,732	17,553	14,166	17,034
미 국	수입액	2,638	3,342	5,980	3,939	5,222
	(비중)	23	24	34	28	31
중 국	수입액	1,819	2,667	2,173	1,819	2,127
	(비중)	16	19	12	13	12
호 주 뉴질랜드	수입액	1,930	1,970	2,150	1,820	2,396
	(비중)	17	14	12	13	14
E U	수입액	1,410	1,656	1,678	1,403	1,663
	(비중)	13	12	10	10	10
아 세 안	수입액	941	1,170	1,845	1,443	1,715
	(비중)	8	9	11	10	10
캐 나 다	수입액	337	341	422	325	468
	(비중)	3	2	2	2	3
일 본	수입액	212	259	296	297	341
	(비중)	2	2	2	2	2
칠 레	수입액	194	259	238	269	295
	(비중)	2	2	1	2	2

자료: 무역협회

주 : HS 03류를 제외한 01류~24류의 합계

■ 중국과의 FTA 추진은 양국 간 농업의 보완구조를 형성할 수 없는 압도적인 일방무역 (one-way trade)으로 국내 농업의 매우 큰 피해가 예상

- 중국 농업은 생산성, 생산요소의 대체관계, 생산구조 변화 방향이 시차를 두고 우리와 일치하지만 자원여건, 성장 단계상의 차이로 경쟁력의 격차가 매우 큰 실정
- 가공농산품의 일부만 보완구조를 형성하고 있을 뿐 식량작물, 채소류, 과실류, 축산물의 경우 보완구조 형성이 어려움

- 식량작물의 교역액 비중이 감소하고 있으나 채소류와 가공농산품의 교역액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들 품목구조가 더욱 고착화될 전망
 - 중국산 농산물에 대한 관세인하 및 철폐가 이뤄질 경우, 고품질 농산물의 국내시장 진입이 예상되어 중국 농산물의 수입량은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음
- **FTA에 대응한 국내 농업분야의 종합적 지원대책과 함께 농업계의 자구노력이 필요**
- 기 체결되어 지원하고 있는 지원대책의 효과와 효율성 등을 평가하여 전체 대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안전식품·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자 선호에 대응하고 외국 농산물과 차별화된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여 균일한 출하를 위한 조직화·계열화 및 농업 경영비 절감 대책 등의 노력이 필요

제2절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1. 조사개요

가. 조사 목적

- 본 조사는 전북도민의 생활 실태와 만족도 조사를 통해 바람직한 전라북도 발전 방향과 전략을 찾기 위해 실시함
- 이는 전북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전라북도 차원의 각종 정책과 개발계획의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나. 조사 설계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전라북도 14개 시·군 도민 전체
표본수	1200, 14개 시·군 지역별 인구비중으로 할당
조사방법	자기 기입식 조사
조사 실시기간	2012년 2월

다. 조사 내용

- 지역발전정도, 발전장애요인
-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
- 산업육성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 농촌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의 개발방향
- 문화·관광·체육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 교통·물류·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 복지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 연안 관리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 행정서비스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 재해재난 방재대책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 만족도 및 도민 가치관

라. 응답자 기본 정보

-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전라북도 도민을 대상으로 표본을 선정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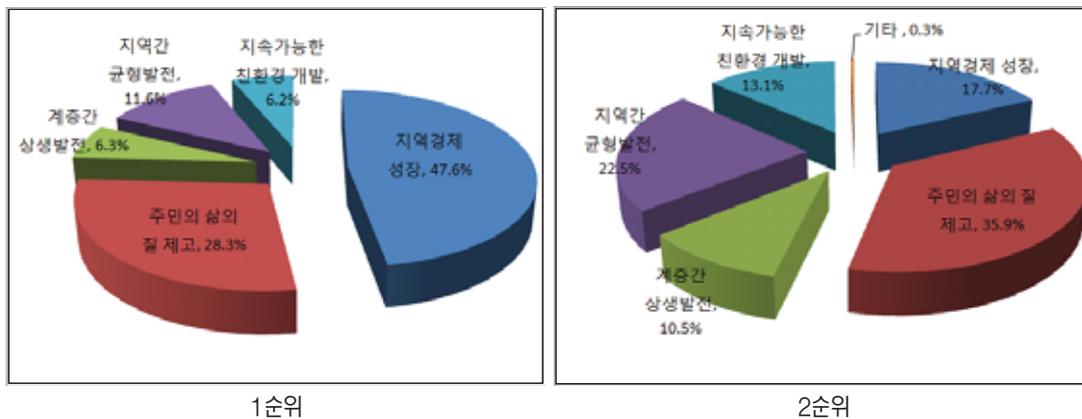
〈표 1-26〉 주민의식 및 수요조사 응답자 기본정보

구분		빈도(N)	비중(%)	구분		빈도(N)	비중(%)
성별	남자	685	61.4	학력	초등학교	13	1.2
	여자	428	38.4		중학교	40	3.6
	무응답	2	0.2		고등학교	285	25.6
연령	20~30세 미만	125	11.2		대학교이상	757	67.9
	30~40세 미만	327	29.3		기타	7	0.6
	40~50세 미만	367	32.9		무응답	13	1.2
	50~60세 미만	244	21.9		거주지	전주	290
	60~70세 미만	43	3.9	군산		128	11.5
	70세 이상	4	0.4	익산		104	9.3
	무응답	5	0.4	정읍		60	5.4
직업	농림수산업	133	11.9	남원		68	6.1
	제조업·건설업	35	3.1	김제		64	5.7
	공무원	312	28.0	완주		42	3.8
	판매업	37	3.3	진안		50	4.5
	서비스업	81	7.3	무주		42	3.8
	전문직	48	4.3	장수		46	4.1
	회사원	222	19.9	임실		44	3.9
	주부	103	9.2	순창		38	3.4
	학생	31	2.8	고창		83	7.4
	무직	24	2.2	부안	56	5.0	
	기타	83	7.4	평균가족수입	506만원		
	무응답	24	2.2	평균가족수	3.5명		
	총응답자	1,115명					

2. 분석결과

가. 전라북도 장기발전 전략 수립시 가장 중요한 가치

- 전라북도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시 가장 중요한 가치에 대한 분석 결과 1순위로 는 ‘지역경제성장’ (47.6%)과 ‘주민의 삶의 질 제고’ (28.3%)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고, 2순위로는 ‘주민의 삶의 질 제고’ (35.9%), ‘지역간 균형발전’ (22.5%)의 순으로 높게 나타남
- 전라북도의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시 주민의 삶의 질 제고, 지역경제의 성장, 지역간 균형 발전 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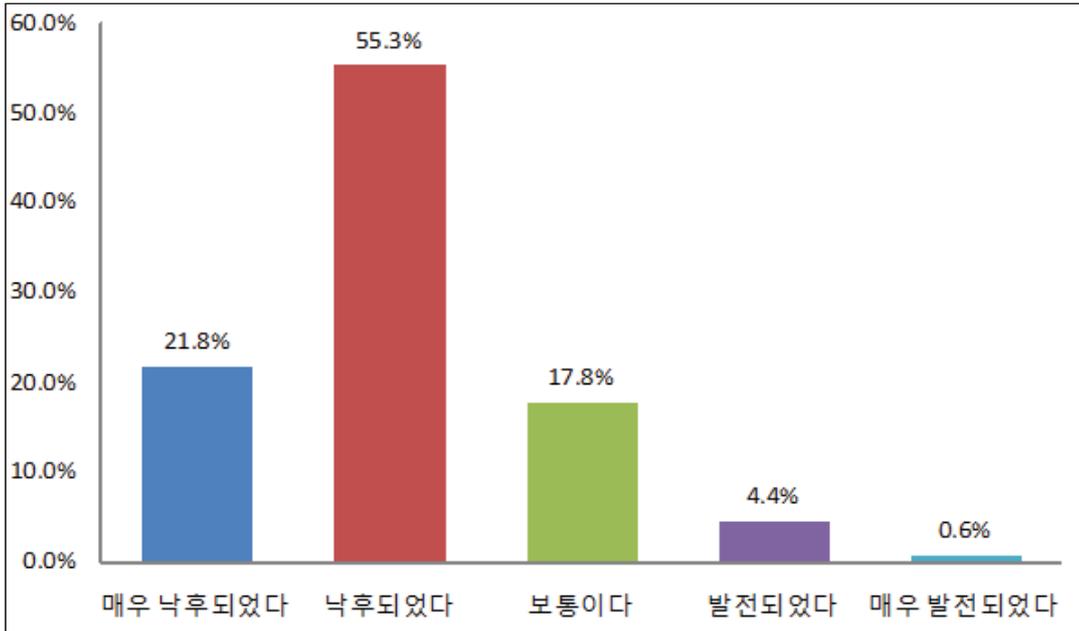


〈그림 1-39〉 전라북도 장기발전 전략 수립시 가장 중요한 가치

나. 지역발전정도 및 발전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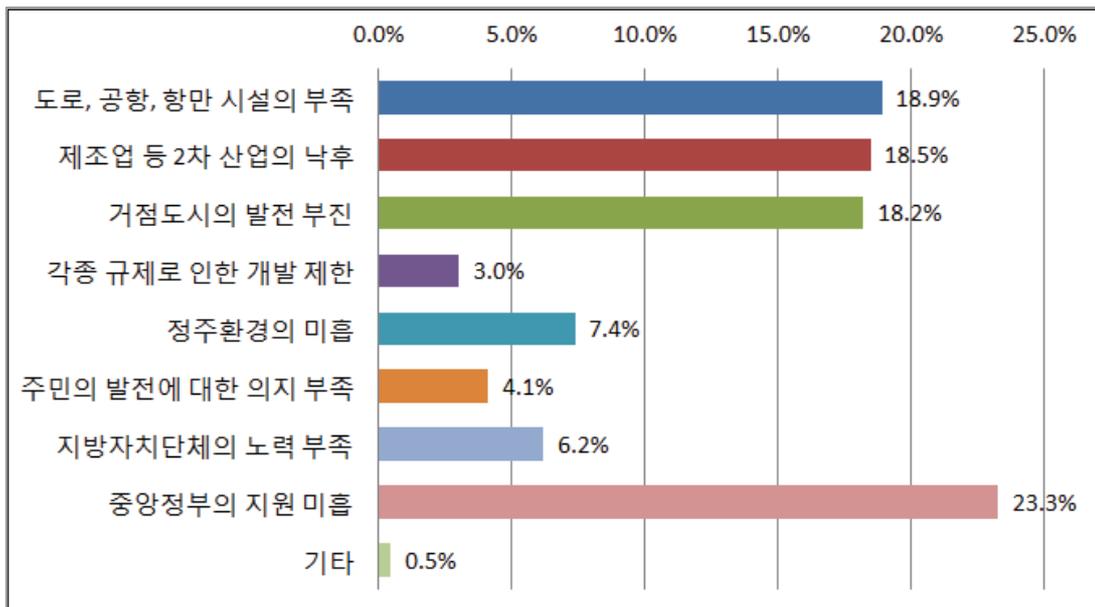
■ 지역발전정도

- 전라북도 발전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 ‘낙후되었다’ 가 55.3%, ‘매우낙후되었다’ 가 21.8%로 나타나 도민이 77.1%가 전라북도의 발전정도가 낙후되었다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는 ‘낙후되었다’ 가 42.3%, 30대 59.8%, 40대 54.0%, 50대 59.0%, 60대 45.2% 등으로 나타남



■ 발전 장애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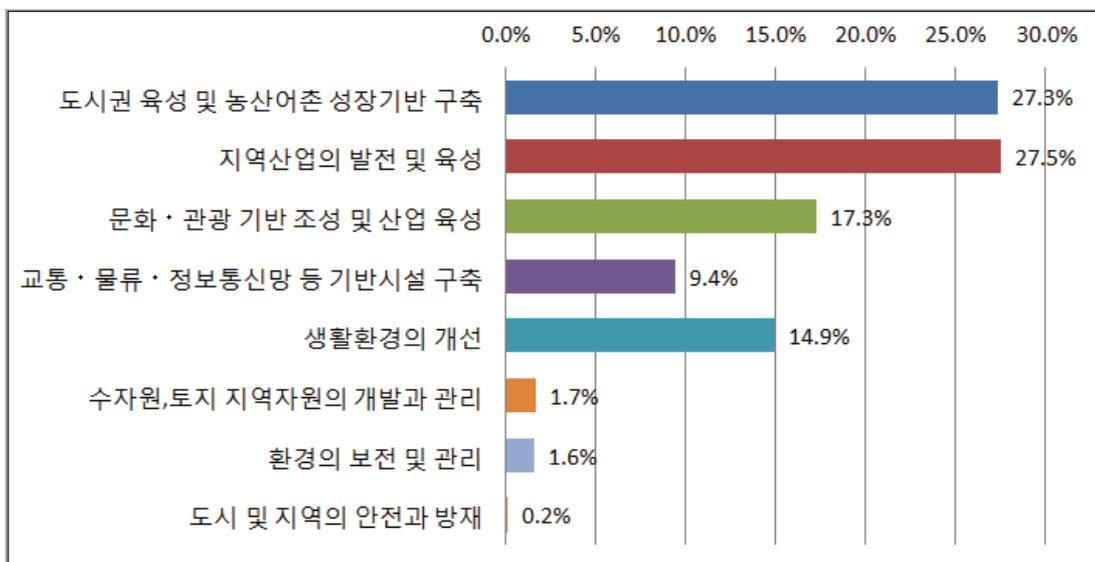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중앙정부의 지원 미흡’ 이 23.3%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도로, 공항, 항만 시설의 부족’ (18.9%), ‘제조업 등 2차 산업의 낙후’ (18.5%), ‘거점도시의 발전 부진’ (18.2%)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0〉 발전 장애요인

다.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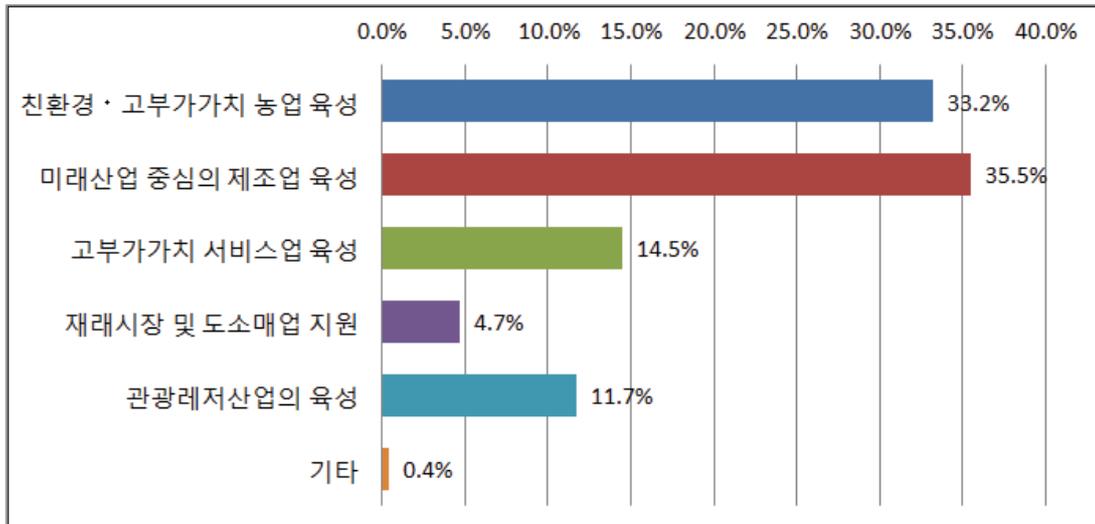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 (27.5%), ‘도시권 육성 및 농산어촌 성장기반 구축’ (27.3), ‘문화관광 기반 조성 및 산업 육성’ (17.3%)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에서는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 , 30대에서는 ‘도시권 육성 및 농산어촌 성장기반 구축’ 40대, 50대에서는 ‘지역산업의 발전 및 육성’ , 60대에서는 ‘도시권 육성 및 농산어촌 성장기반 구축’ 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한다고 응답함



〈그림 1-41〉 장기발전 전략을 수립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사항

라. 산업경제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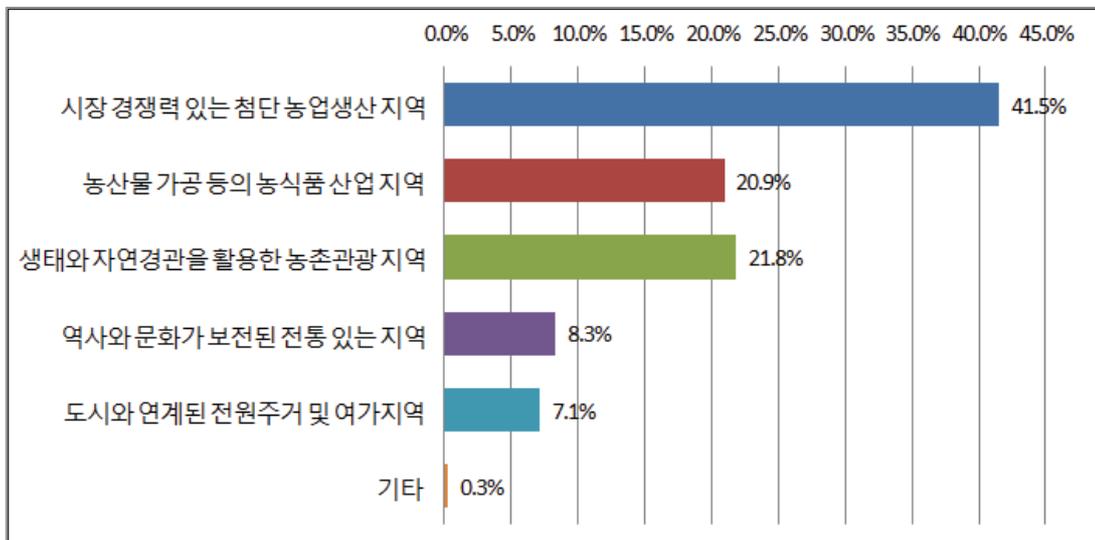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하는 산업육성에 대한 분석 결과 ‘미래산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 (35.5%), ‘친환경·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33.2%)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와 30대, 60대에서는 ‘친환경·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 40대와 50대에서는 ‘미래산업 중심의 제조업 육성’ 을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2〉 산업육성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마. 농촌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의 개발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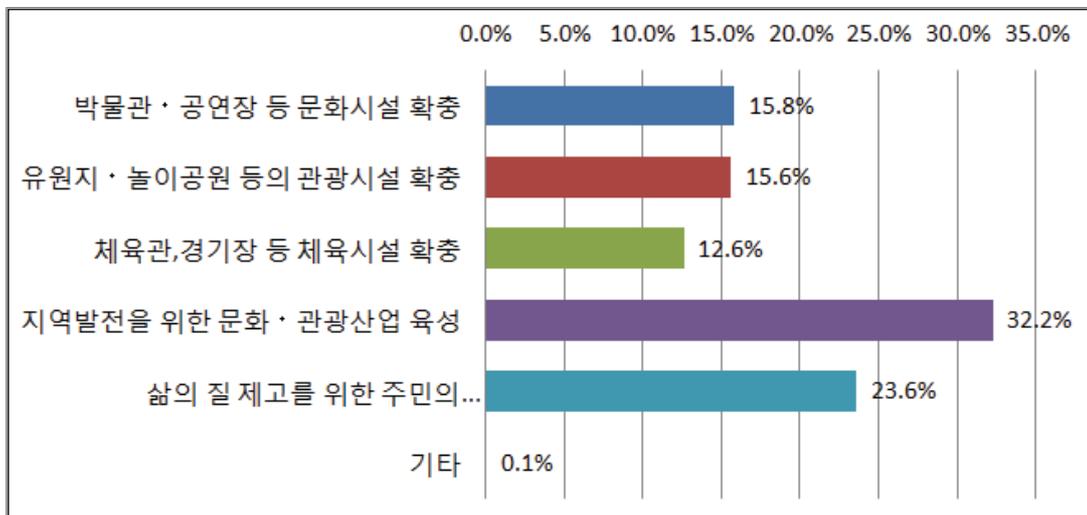
-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의 개발방향에 대한 분석 결과 ‘시장 경쟁력 있는 첨단 농업생산 지역’ 이 41.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생태와 자연경관을 활용한 농촌관광 지역’ (21.8%), ‘농산물 가공 등의 농식품 산업 지역’ (20.9%)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3〉 농촌지역의 바람직한 미래의 개발방향

바.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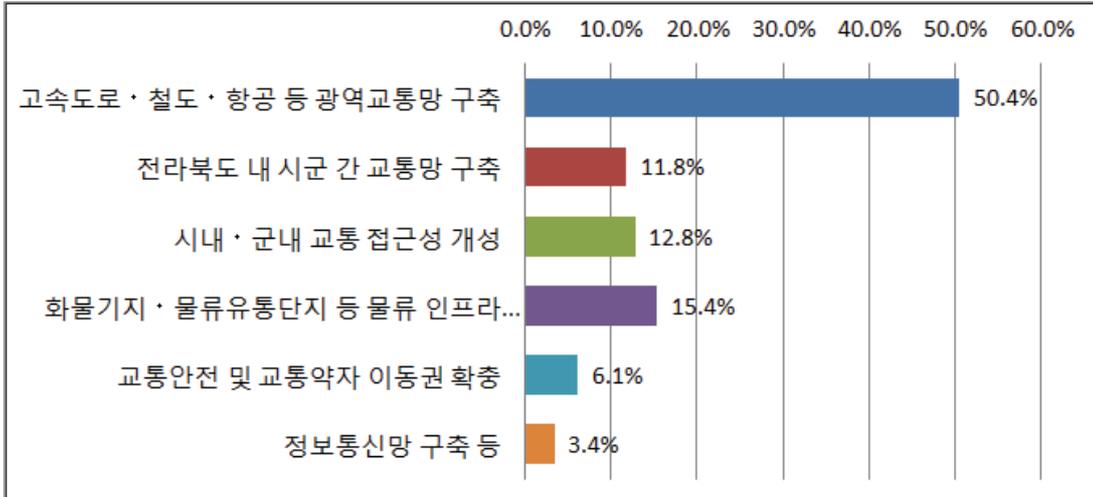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장기발전을 위하여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이 32.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주민의 문화·관광·체육 향유기회 확대’ (23.6%),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확충’ (15.8%), ‘유원지, 놀이공원 등의 관광시설 확충’ (15.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에서는 ‘박물관, 공연장 등 문화시설 확충’ , 30대, 40대, 50대, 60대에서는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관광산업 육성’ 이 높게 나타나 전라북도 젊은층의 문화시설에 대한 욕구가 높음을 알 수 있음



〈그림 1-44〉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사. 교통·물류·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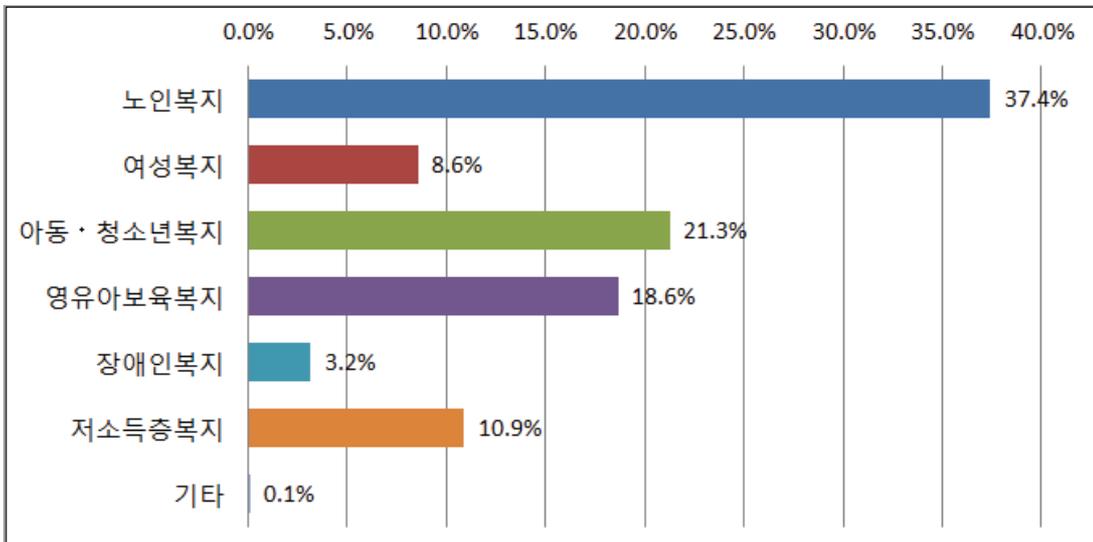
- 교통·물류·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시급히 추진해야할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이 50.4%로 가장 높게 났고, ‘화물기지, 물류유통단지 등 물류 인프라 조성(15.4%)’ , ‘시내·군내 교통 접근성 개선’ (1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모든 연령대에서 ‘고속도로, 철도, 항공 등 광역교통망 구축’ 에 가장 많이 응답하여, 전라북도의 광역교통망 구축이 가장 시급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45〉 교통·물류·정보통신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아.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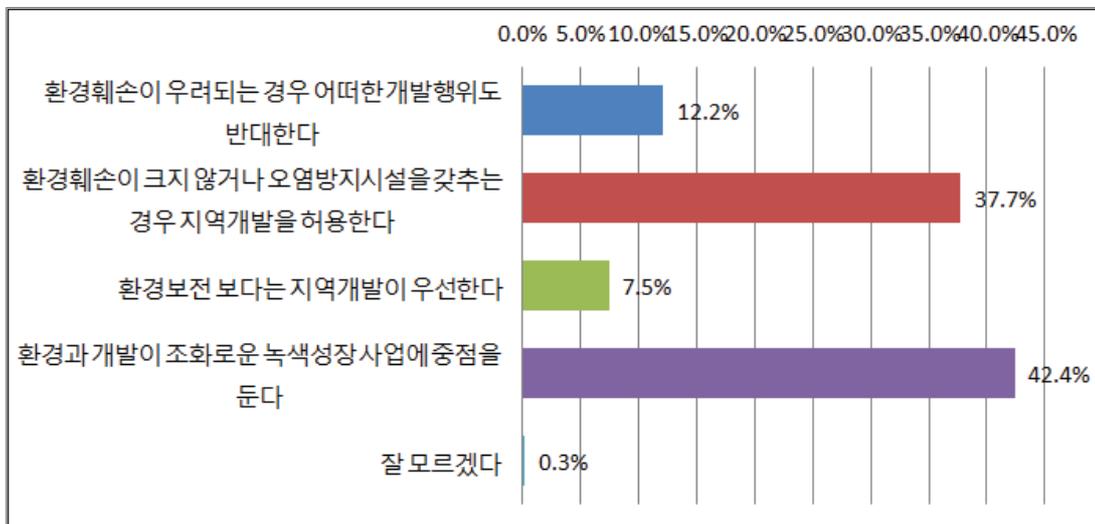
- 전라북도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회복지 부문에 대한 분석 결과 '노인복지 (37.4%)', '아동·청소년복지 (21.3%)', '영·유아복지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1-46〉 복지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자. 지역개발 사업 추진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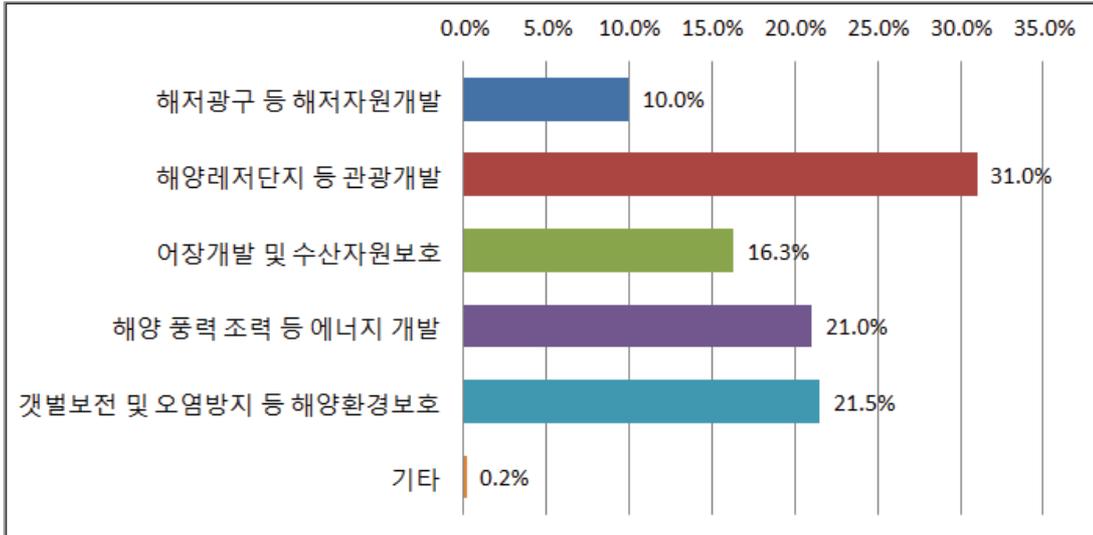
- 지역개발사업 추진시, 지역발전과 환경보전 가운데 어느 측면에 더 중점을 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 ‘환경과 개발이 조화로운 녹색성장 사업에 중점을 둔다’ (42.4%), ‘환경훼손이 크지 않거나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지역개발을 허용한다’ (37.7%) 등의 순으로 나타나 지역개발과 환경보존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 30대, 40대에서는 ‘환경과 개발이 조화로운 녹색성장 사업에 중점을 둔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50대, 60대에서는 ‘환경훼손이 크지 않거나 오염방지시설을 갖추는 경우 지역개발을 허용한다’ 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47〉 지역개발 사업 추진시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차. 연안관리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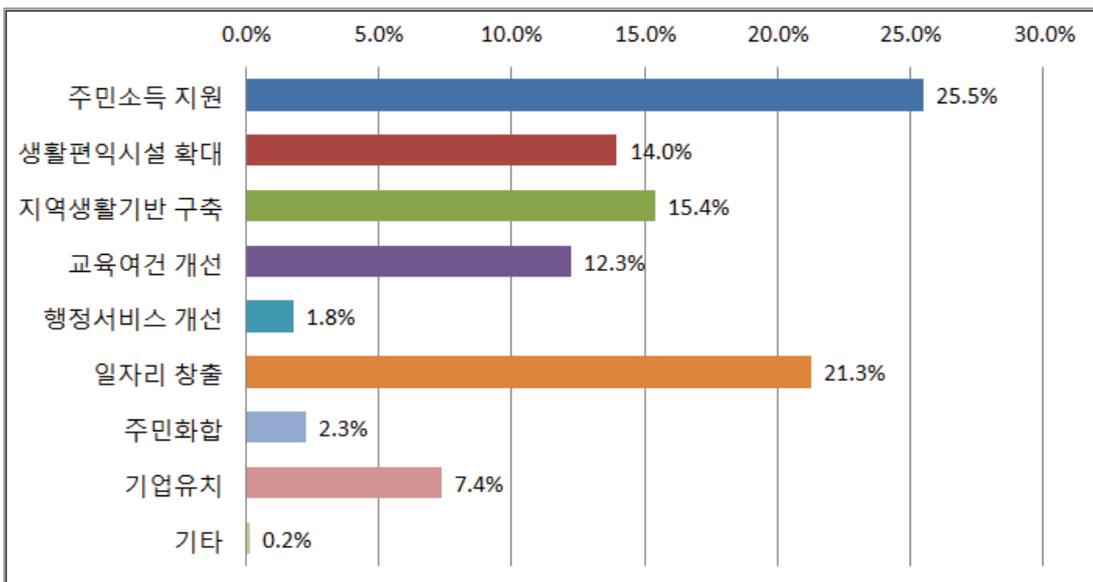
- 전라북도 연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정책적으로 역점을 두어야 하는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해양·레저단지 등 관광개발’ 이 31.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갯벌보전 및 오염방지 등 해양환경보호’ (24.5%), ‘해양, 풍력, 조력 등 에너지 개발’ (21.0%)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와 60대에서는 ‘갯벌보전 및 오염방지 등 해양환경보호’ 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40대, 50대 에서는 ‘해양·레저단지 등 관광개발’ 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48〉 연안관리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카.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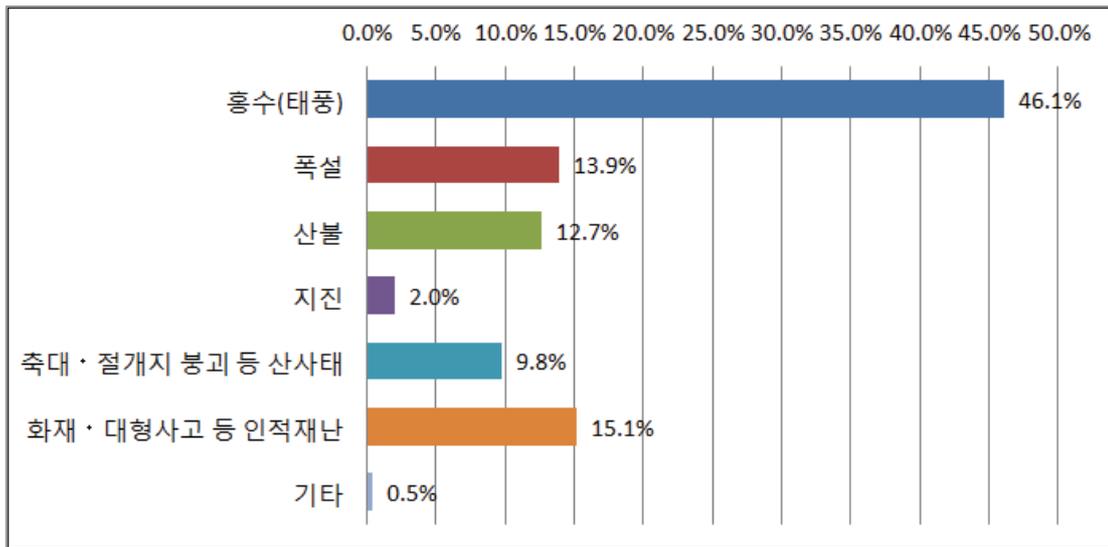
- 지역발전을 위하여 시·군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행정업무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주민소득 지원’ (25.5%), ‘일자리창출’ (21.3%), ‘지역생활기반 구축’ (15.4%)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에서는 ‘일자리창출’ 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30대 이상에서는 ‘주민소득 지원’ 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49〉 행정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타. 재해재난 방재대책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 재해재난에 대한 방재대책 수립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홍수(태풍)이 46.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화재, 대형사고 등 인적재난’ (15.1%), 폭설(13.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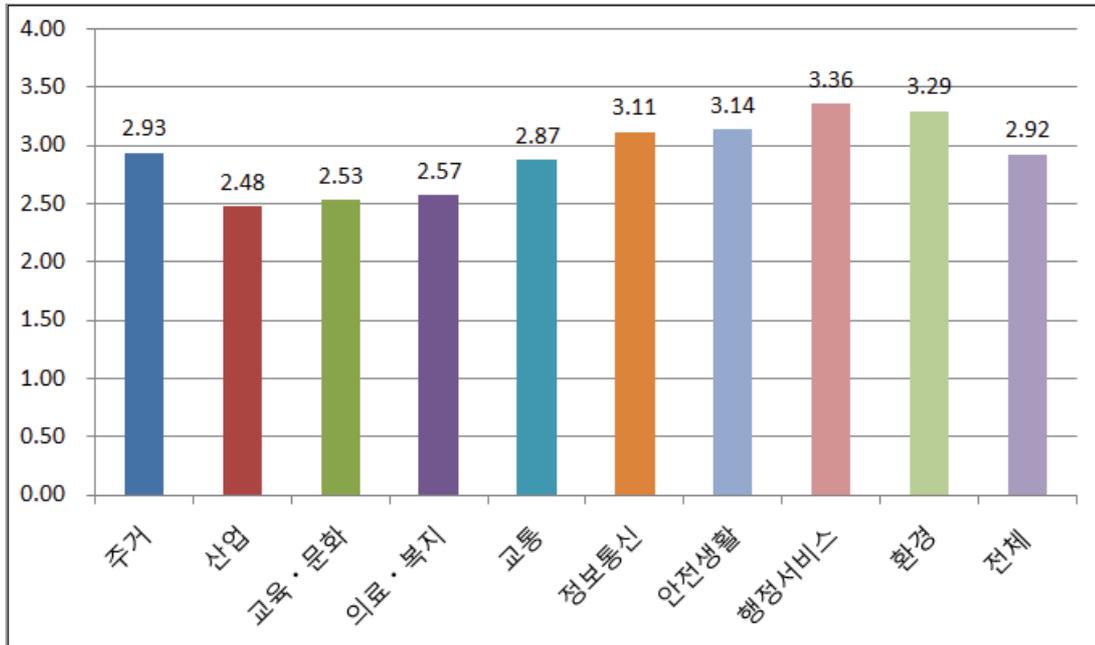
〈그림 1-50〉 재해재난 방재대책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다뤄야 할 부문

파. 생활여건 만족도 및 가치관

■ 생활여건 만족도

- 전라북도의 생활여건들에 대한 만족도 분석 결과 만족도가 높은 분야로는 ‘행정서비스(3.36점)’, ‘환경(3.2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만족도가 낮은 분야로는 ‘산업(2.48점)’, ‘교육·문화(2.53점)’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지역별로 전주시의 만족도가 3.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무주군의 만족도가 2.6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등의 시지역에서는 행정서비스가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안, 무주, 고창 등의 군지역에서는 환경이 가장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부분의 시·군에서 ‘산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군산, 익산, 임실은 ‘교육·문화’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무주, 장수는 ‘의료·복지’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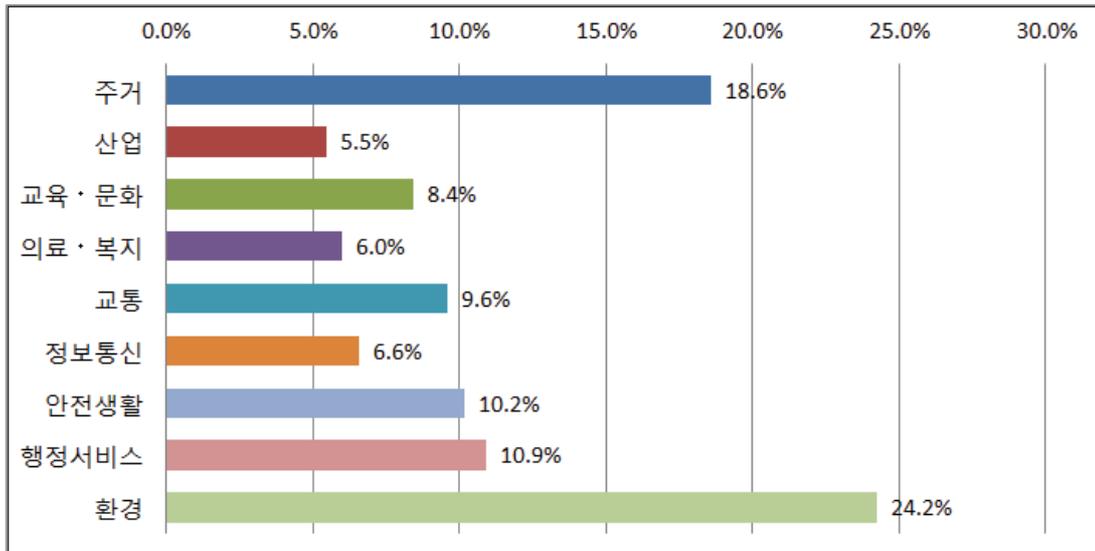
- 연령별로 20대에서 2.98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에서 2.81점으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 20대에서는 환경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행정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 20대와 30대에서는 ‘교육·문화’의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고, 40대 이상의 모든 연령대에서는 ‘산업’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낮게 나타남



〈그림 1-51〉 생활여건 만족도

■ 생활여건 만족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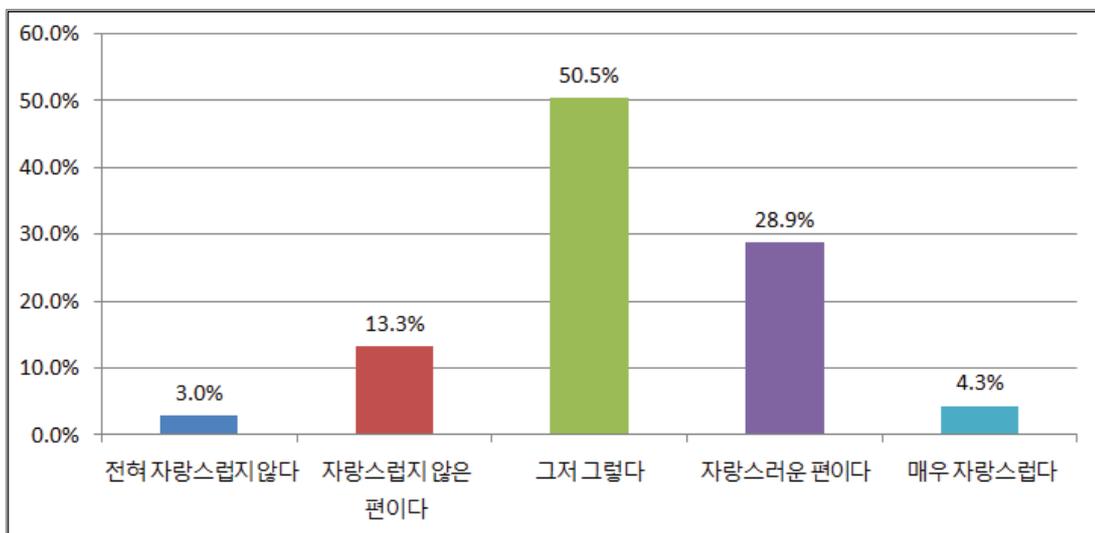
- 전라북도의 생활여건들 중에서 가장 만족하는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환경’ (24.2%), ‘주거’ (18.6%)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20대~50대에서는 ‘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에서는 ‘주거’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별로 대부분의 시·군지역에서 ‘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군산은 ‘주거’, 익산은 ‘교통’, 완주는 ‘산업’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업별로 농림수산업, 판매업, 서비스업에서는 ‘주거’, 제조업·건설업에서는 ‘교육·문화’, 전문직, 공무원, 회사원 등에서는 ‘환경’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1-52〉 생활여건 만족분야

2)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 전라북도에 사는 것에 대한 분석 결과 ‘그저 그렇다’ 는 응답이 50.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자랑스럽다’ 가 28.9%로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다른 연령대에 비하여 20대와 50대에서 긍정적인 응답이 높게 나타남



〈그림 1-53〉 도민으로서의 자긍심

제3절 전라북도의 현안문제 및 계획과제

1. SWOT 분석

- 전라북도는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고 서해안개발권과 내륙첨단산업권 등 초광역개발이 추진되면서 동북아의 신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음
- 전라북도는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기반으로 한 문화관광산업과 함께 첨단부품소재산업,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 녹색첨단산업의 발전기반이 형성되면서 새로운 고부가가치 신산업지대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 국제생산·교역의 중심인 새만금과 내륙거점인 전주시를 중심으로 한 전주·새만금 대도시권이 형성되고, 호남고속철도 개통 및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가 건설되면서 전주·새만금 대도시권은 수도권 및 영호남권을 연계하여 국토발전을 견인하는 새로운 발전거점으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전망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對중국 교역에 유리한 위치 ○ 비교우위의 전통문화 및 녹색자원 보유 ○ 새만금 등 개발가능 토지자원 풍부 ○ 신재생에너지, 식품 등 신성장동력산업 발전기반 구축 ○ 지자체의 강한 지역발전 정책의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발전기반 미흡 ○ 거점도시의 중심기능 미흡 ○ 인구감소·고령화에 따른 지역발전 잠재력 약화 ○ 재정력 취약으로 발전자원 조달 애로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황해경제권의 급속한 성장 ○ 새만금 내부개발의 본격 추진 ○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산업 발전 기회 확대 ○ KTX개통 등 전국적 접근성 증대 ○ 대규모 국가사업 추진으로 신성장거점 발전 기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제개방화에 따른 경쟁 심화 ○ 광역권 내 전북 중심도시 기능 약화 ○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수도권 집중 심화 가능성 ○ 복지지출 증대에 따른 지방재정 약화

2. 계획과제

가.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

- 새만금 내부개발의 조기 추진 및 국제교역 및 내륙광역 연계 촉진을 위한 교통·물류 기반시설 구축
- 새만금 투자유치 및 관광 활성화
- 새만금권과 주변지역 연계개발로 전라북도 지역발전 촉진

나. 서해안 시대의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 녹색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 융·복합화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산업용지 적기 공급
- 클러스터 구축 및 구조개선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와 R&D 인프라 확충
-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인적자원 개발체계 구축
- 수출기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외자유치 확대 지원 강화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서비스업 육성 및 생계형 서비스업 지원

다. 지역 중심도시의 거점기능 강화 및 균형발전

-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를 중심으로 하는 전주 광역도시권 육성을 통해 전라북도의 발전을 견인
- 전주중추도시권-새만금도시권간 광역도시권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발전 기반 조성
-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과 시·군간 기능적 연계·협력을 통해 중소도시 상생발전 및 지역 내 균형발전 도모

라. 녹색성장 발전기반 구축

- 신재생에너지산업 및 문화관광산업 등 녹색성장산업 육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물 산업 등 녹색 신성장동력 발굴
- 실용적인 녹색자원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한 친환경 개발

마. 광역적 연계·협력을 통한 지역발전

- 국제교류 기반 조성 및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 기반시설 확충
- 서해안개발권, 내륙첨단산업권, 백두대간권 등 개방과 협력을 통한 초광역개발권 육성

바.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주기반 및 복지기반 강화

- 다양한 주거 욕구에 부응하는 주거환경 제공 등 주거 선진화 및 주거안정 확보
- 문화향유 수준 제고를 위한 문화기반 조성
- 자연환경, 문화와 역사, 생활이 조화된 전북경관 조성
- 계층간·지역간 복지수요에 대응한 선순환 복지체계 구축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계획의 기본방향

2

제1장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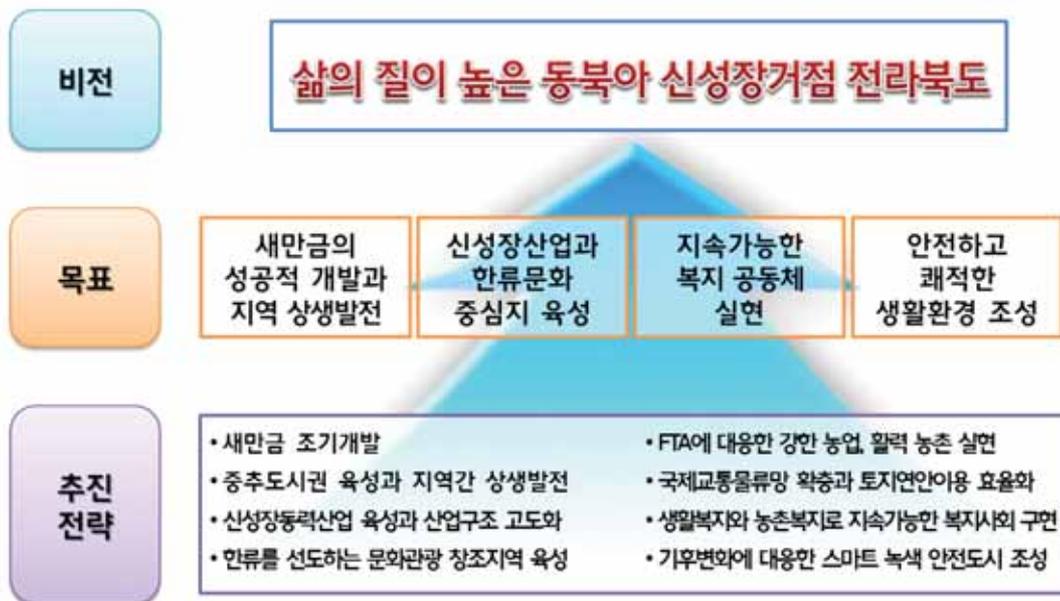
제1장 지역발전의 비전과 목표

제1절 계획의 비전과 목표

1. 계획의 비전

삶의 질이 높은 동북아 신성장거점 전라북도

- 중국의 부상 및 서해안시대의 성숙과 함께 서해안의 중심부에 위치하여 환황해 경제권의 생산 및 교역의 중심지로서 발전 잠재력이 큰 전라북도는 새만금 개발 사업의 본격적 추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고 있음
-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미래성장엔진으로 도약’ 을 비전으로 개발 중인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으로 전라북도는 국가의 새로운 성장거점으로 도약할 것임
- 전라북도는 경제발전과 함께 친환경 공간개발 및 정주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를 실현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높은 살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할 것임



〈그림 2-1〉 계획의 비전 및 목표

2. 계획의 목표

가.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과 지역 상생발전

- 새만금 내부개발을 조기 추진하여 환황해경제권의 산업, 업무, 관광·레저, 유통 및 국제업무 기능의 융·복합기지로 조성함으로써 환황해경제권 교역 및 생산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하는 경제중심지로 육성
-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을 환황해권의 신산업 및 교역의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하여 국토의 미래성장엔진으로서 전라북도와 국가발전 선도
- 권역별 특화·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성장거점과의 연계·협력 활성화를 통한 지역 간 상생발전으로 균형발전 추진

나. 신성장산업과 한류문화 중심지 육성

- 고부가가치 신성장 농산업 및 첨단제조업, 융·복합 관광산업 등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고부가가치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로 미래산업의 신발전 거점으로 육성
- 지역 전략산업과 권역별 특화지역산업 육성을 통해 전 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산업발전기반 구축
- 전라북도가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한류’ 문화자원의 보전·전승 및 발전을 통해 전라북도를 대표적인 한류 문화관광의 거점으로 육성

다. 지속가능한 복지 공동체 실현

- 복지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 빈곤가구의 최저안전망을 구축하고 농어촌 복지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보편적 복지체계 구현
- 체육관련 인적·물적 인프라의 확충과 체육문화 공간의 활용도 제고를 통해 여가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생활체육을 활성화하여 도민의 건강한 삶의 질 보장
- 교육소외계층을 위한 통합적 교육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동등한 학습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맞춤형 교육지원체계 수립을 통해 평생학습 기반 마련과 글로벌 융합형 인재 육성

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수준 높은 주거환경 조성 및 주거안정 확보, 상·하수도 및 환경오염 방지 등 생활 기반시설 구축 및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공간 조성
-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재해를 예방하고 관리하는 입체적이고 선제적인 재난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주거, 의료, 방범, 상·하수도, 환경 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구축
- 생태환경을 보전하고 자연과 역사, 문화, 생활이 조화된 경관관리를 통해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누리는 품격 있고 매력 있는 지역공간 조성

제2절 계획지표의 설정

1. 인구지표 전망

■ 인구지표 설정의 전제

- 인구지표는 다른 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준으로 계획의 방향과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설정이 요구됨
- 지역 인구의 성장은 인구의 자연 성장과 사회 성장으로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인구의 추정은 과거의 인구 자료에 기초한 추정치에 지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대내외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인구 변화 요인을 고려하여 이루어짐
- 전라북도의 인구는 그동안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여 왔으며, 전국적으로는 인구증가율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전라북도의 인구가 향후에도 감소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 그러나 최근 전라북도의 지역경제가 상대적으로 빠른 성장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본 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 이전에 새만금 내부개발(1단계), 혁신도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등 대규모 국가사업이 완료되면서 이에 따른 고용증대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됨
- 따라서 전라북도의 인구지표는 과거의 인구 자료에 기초한 인구 추정치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유발되는 외부 유입인구 추정치를 고려하여 설정함

■ 인구추정 방법

- 전라북도의 2020년 계획인구는 모형에 의한 인구추정치에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해 발생하는 사회적 인구 증가분을 반영하여 추정함
- 모형에 의한 인구추정은 linear curve model, exponential curve model, geometric curve model, least square method, logistic curve model, regression analysis 등 6개 모델을 사용하고, 추정인구는 6개 모델의 평균값으로 함
-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사회적 인구 증가분은 산업단지 개발,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조성,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따른 유발인구를 토대로 한 외부 유입인구로 추정함

■ 장래인구 추정 결과

- 6개 모형에 의한 추정결과 전라북도의 2020년 인구는 최소 1,744,883명에서 최대 1,800,927명으로 추정되며, 6개 모형의 평균값은 1,789,926명으로 나타남

〈표 2-1〉 모형에 의한 전라북도 인구추정

(단위 : 명)

구분	추정인구 (평균)	linear curve model	exponential curve model	geometric curve model	least square method	logistic curve model	regression analysis
2011년	1,867,900	1,860,846	1,860,531	1,860,531	1,937,956	1,844,403	1,843,131
2012년	1,859,148	1,852,730	1,852,136	1,852,138	1,931,619	1,834,050	1,832,215
2013년	1,850,418	1,844,613	1,843,780	1,843,782	1,925,283	1,823,754	1,821,298
2014년	1,841,711	1,836,496	1,835,461	1,835,464	1,918,946	1,813,516	1,810,382
2015년	1,833,025	1,828,379	1,827,179	1,827,184	1,912,609	1,803,335	1,799,465
2016년	1,824,362	1,820,263	1,818,935	1,818,940	1,906,273	1,793,212	1,788,549
2017년	1,815,720	1,812,146	1,810,729	1,810,735	1,899,936	1,783,145	1,777,632
2018년	1,807,101	1,804,029	1,802,559	1,802,566	1,893,600	1,773,135	1,766,716
2019년	1,798,503	1,795,912	1,794,426	1,794,434	1,887,263	1,763,181	1,755,799
2020년	1,789,926	1,787,796	1,786,330	1,786,338	1,880,927	1,753,283	1,744,883

-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전라북도 외부 유입인구는 2020년까지 185,688명으로 추정됨
 - 새만금 개발사업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는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의 총 유발인구 758,700명에 1단계 사업(2020년 종료)에 의한 개발 비율(72.7%)을 적용한 485,880명의 20%인 97,176명으로 추정¹⁾
 - 산업단지 개발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는 2020년까지 신규 산업단지 공급면적인 16.71km²에 종사자 원단위 0.004413명/m²를 적용한 종사자수 73,741명의 30%를 외부 유입종사자로 가정하고 종사자당 가족원수를 2.6778명으로 적용하여 59,239명으로 추정²⁾
 - 혁신도시 조성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는 계획인구 29,000명의 40%를 외부 유입인구로 가정한 11,600명으로 추정
 - 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는 1단계 사업(2015년 종료)에 의해 유발되는 종사자수 22,000명 중 30%를 외부 유입종사자로 가정하고 종사자당 가족원수를 2.6778명으로 적용하여 17,673명으로 추정

1) 새만금 1단계 개발에 의한 유발인구 485,880명 중 20%가 2020년까지 유발되고, 나머지 80%인 388,704명은 2020년 이후에 유발될 것으로 가정하여 산출함.

2) 산업단지 공급면적(16.71km²)은 국토해양부(2012)의 산업단지 연평균수요에서 제시한 전라북도 산업단지 수요 면적임.

- 전라북도의 2020년 인구는 1,975,614명으로 추정됨

〈표 2-2〉 전라북도의 2020년 인구 추정 결과

(단위 : 명)

구 분	2020년
모형에 의한 추정인구	1,789,926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	185,688
2020년 추정인구	1,975,614

■ 계획인구 설정

- 전라북도의 계획인구는 모형에 의한 추정인구와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를 합하여 2015년 1,888,732명, 2020년 1,975,614명으로 설정함
 -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외부 유입인구는 개발사업의 추진 시기를 고려하여 총 외부 유입인구의 30%는 2015년까지 유입되며, 나머지 70%는 2016년부터 2020년 기간 동안 유입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설정함

〈표 2-3〉 전라북도 2020년 계획인구

(단위 : 명, %)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전국인구		50,515,666 ¹⁾	50,617,045 ²⁾	51,435,495 ²⁾
전북	목표인구	1,868,963 ¹⁾	1,888,732	1,975,614
	전국비중	3.70	3.73	3.84

주: 1) 주민등록인구

2) 통계청(2010) 장래인구추계

2. 지역경제지표 전망

■ 지역내총생산 전망

-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은 비교적 안정적 변화추세를 보이는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비중을 추정하고 이를 인구지표에 적용하여 산출함
- 전국의 지역내 총생산은 2020년 1,444조 9,069억원으로 추정되며, 1인당 국내총생산은 28,092천원으로 추정됨(2005년 기준가격)
 - 전국의 2020년 국내총생산액은 과거추세치에 의한 추정모형인 Holt모형, Brown모형, 기하평균모형의 3개 모형에 의해 산출한 추정액과 산업연구원(2005)에서 제시한 2011~2020년간 잠재경제성장률 4.0%를 적용하여 산출한 추정액의 평균값으로 추정함

〈표 2-4〉 전국 국내총생산 전망(2005년 기준가격)

구 분		2015년	2020년
국내총생산 (십억원)	Holt 모형	1,127,009	1,303,991
	Brown 모형	1,119,301	1,285,202
	기하평균 모형	1,302,313	1,768,173
	잠재성장률(4.0%) 적용 ¹⁾	1,168,995	1,422,261
	평균	1,179,404	1,444,907
1인당 국내총생산(천원)		23,301	28,092

주: 「한국산업의 발전비전 2020(산업연구원, 2005)」에서 제시한 잠재성장률임.

- 전라북도의 지역내총생산(경상가격)은 2020년 66조 4,458억원으로 전망됨
 - 전라북도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이 2015년까지 전국평균의 85%, 2020년까지 90%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하여 1인당 지역내총생산을 2015년 24,151천원, 2020년 33,633천원으로 추정

〈표 2-5〉 전국 1인당국내총생산 전망(경상가격)

구 분		2015년	2020년
GDP 디플레이터 추정값(05년 기준) ¹⁾		121.9	133.0
전국 1인당 GDP(천원)	'05년 기준가격	23,301	28,092
	경상가격	28,413	37,370
전북 1인당 GRDP(천원)	경상가격	24,151	33,633
	전국대비 비중(%)	85	90
전북 GRDP(십억원)		45,615	66,446

주: 2002년~2011년 간의 GDP디플레이터(한국은행)의 선형추세를 이용하여 산출함

■ 지역산업구조

- 생산액 기준 전라북도의 산업구조는 2020년 1차 산업 4.1%, 2차 산업 30.6%, 3차 산업 65.3%로 전망됨
 - 1차 산업은 2010년 8.2%에서 4.1%p 하락, 2차 산업은 29.1%에서 1.5%p 증가, 3차 산업은 62.6%에서 2.7%p 증가한 것으로, 전라북도의 지역경제가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할 것임을 가리킴

〈표 2-6〉 전라북도의 산업구조 전망

(단위 : %)

구 분	2010년	2015년	2020년
1차 산업	8.2	5.7	4.1
2차 산업	29.1	30.0	30.6
3차 산업	62.6	64.3	65.3

3. 주요 사회지표 전망

■ 사회간접자본

- 자동차 보유대수는 연평균 4.1%p씩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 711만대에서 2020년엔 1,004천대로 증가할 것임
- 고속도로 연장은 전주-광양간 고속국도가 완공되어 2015년 479.0km이고, 목표연도까지 새만금-전주간 고속국도가 완공된다면 2020년에 533.0km로 확대 될 것으로 예상됨
 - 국도 포장률은 2010년 97.4%에서 2020년 99.0%로 증가할 것임
 - 지방도 포장연장은 2010년 1,517km에서 2020년 1,563km로 증가하여 포장률은 79.7%에서 83.5%로 증가할 것임
 - 시·군도 포장연장은 2010년 2,481km에서 2020년 3,672km로 증가하여 포장률은 58.6%에서 70.6%로 증가할 것임
- 철도를 이용하는 승객은 2010년 8,074천명에서 8,945천명으로 증가할 것임
-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은 2010년 175천명에서 2020년엔 297천명으로 증가할 것이고, 화물량은 2010년 1,610천톤에서 2020년엔 1,691천톤으로 증가할 것임
- 항만의 물동량은 2010년 19,261톤에서 2020년엔 26,054톤으로 증가할 것임

■ 정주환경

- 2020년의 주택보급률은 110.0%로 2010년의 107.4%와 대비하여 2.6%p 증가할 것임
- 상수도 보급률은 2010년 96.9%에서 2020년 98.5%로 향상되나, 1인당 단위 급수량은 2010년 435ℓ에서 2020년 410ℓ로 감소할 것임
- 하수도 보급률은 2010년 79.3%에서 2020년 88.8%로 9.5%p 증가할 것임

■ 복지

- 삶의 질 향상
 -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향유율³⁾은 2010년 66.1%에서 2020년 85.0%로 증가할 것임

- 전라북도 도민의 생활체육참여율⁴⁾은 30.0%에서 60.0%로 증가할 것임

- 의료

- 인구 천명당 의료인력수는 2010년 2.4명에서 2020년 3.0명으로 증가할 것임

- 농촌지역 의료기관의 인구천명당 병상수는 2010년 9.1개에서 2020년 20.0개로 증가할 것임

- 무상접종률은 83.0%에서 95.0%로 증가할 것임

- 무상 급식 및 보육시설 증가

- 친환경 무상급식률은 89.6%에서 100.0%로 증가할 것임

- 국공립보육시설은 49개소에서 100개소로 증가할 것임

- 보육시설 인증률은 77.5%에서 90.0%로 증가할 것임

- 노인·여성 취업률 증가

- 노인취업률은 34.5%에서 55.0%로 증가할 것임

- 여성고용률은 41.2%에서 55.0%로 증가할 것임

- 합계출산율은 1.37명에서 1.74명으로 증가할 것임

- 종합사회복지관은 8개소에서 14개소로 증가할 것임

- 자활사업 탈수급률은 6.9%에서 15.0%로 증가할 것임

- 총예산대비 복지예산 비율은 2010년 34.0%에서 2020년 38.0%로 4.0%p 증가할 것임

- 환경보전

- 연간 CO₂ 배출량은 2010년 21,396천톤에서 2020년 22,214천톤으로 증가할 것임

- 1인당 1일 생활폐기물은 2009년 0.878kg에서 2020년 0.871kg으로 감소할 것임

3) 문화예술향유율은 연간 1회 이상 문화예술을 관람한 비율을 나타냄

4) 생활체육참여율은 일주일에 3회, 30분 이상 운동하는 비율을 나타냄

〈표 2-7〉 2020년 주요계획지표 전망

구 분		단 위	전 북				
			2010년	2015년	2020년		
인 구	총 인 구 ¹⁾	천 인	1,869	1,889	1,976		
	노령화율	%	15.2	19.0	21.5		
지 역 경 제	지역총생산액(경상)	십억원	34,547	45,615	66,446		
	· 1차산업	%	8.2	5.7	4.1		
	· 2차산업	%	29.1	30.0	30.6		
	· 3차산업	%	62.6	64.3	65.3		
	1인당 GRDP(경상)	천 원	18,287	24,151	33,633		
사 회 간 접 자 본	자동차 대수	천대	711	845	1,004		
	도로	고속국도	km	413	479	533	
		일반국도	km	1,421	1,465	1,465	
		국도	포장률	%	97.4	99.0	99.0
			지방도	포장연장	km	1,517	1,540
		시·군도	포장률	%	79.7	81.8	83.5
			포장연장	km	2,481	3,018	3,672
		포장률	%	58.6	64.6	70.6	
	철도	여객	천인	8,074	8,498	8,945	
	공항	여객	천인	175	227	297	
		화물	천톤	1,610	1,650	1,691	
	항만	물동량	천톤	19,261	22,573	26,054	
	정 주 환 경	주택 보급률(일반가구)	%	107.4	108.7	110.0	
상수도 보급률		%	96.9	97.9	98.5		
1인당 단위급수량		ℓ	435	425	410		
하수도 보급률		%	79.3	84.8	88.8		
복 지	삶의 질	문화예술향유율	%	66.1	78.0	85.0	
		생활체육참여율	%	30.0	44.0	60.0	
	의료	의료인력(의사)수	명/천명	2.4	2.8	3.0	
		농촌의료기관수	병상수/천명	9.1	15.1	20.0	
		무상접종률	%	83.0	90.0	95.0	
	교육	친환경 무상급식률	%	89.6	95.0	100.0	
		국공립보육시설	개소	49	70	100	
		보육시설 인증률	%	77.5	85.0	90.0	
	취업	노인취업률	%	34.5	45.0	55.0	
		여성고용률	%	41.2	48.0	55.0	
		합계출산율	명	1.37	1.51	1.74	
		종합사회복지관	개소	8	10	14	
		자활사업 탈수급률	%	6.9	10.0	15.0	
		복지예산비율	총예산대비	34.0	36.0	38.0	
환 경 보 전	CO ₂ 배출량	천톤CO ₂ eq/년	21,396(추정)	23,217	22,214		
	생활폐기물 발생량	kg/인·일	0.878 (2009년)	0.911	0.871		

주 1) 주민등록인구 기준임

제2장 공간구조의 설정

제1절 발전축 구상

1. 발전축 설정의 기본 방향

- 환황해경제권 경쟁거점 형성을 위한 대외개방형 발전 지향
 - 경제 개방화가 급진전되고 있으며 환황해경제권이 세계경제의 핵심 경제권으로 부상하는 글로벌 경제환경의 변화에 부응하여 대외개방형 지역발전전략 추구
 - 우리나라 서해안의 중앙부에 위치하여 물자의 생산과 유통의 중심지로서 환황해 경제권 교역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지정학적 이점을 극대화하는 대외 개방형 발전축 형성
- 국토발전전략과 연계를 통한 발전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정부의 3차원 지역발전전략의 발전적 수용을 통해 지역의 성장잠재력 강화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는 지역발전전략 추구
 - 서해안초광역벨트, 내륙초광역벨트 등 초광역개발권과 연계하고 국가 행정수도인 세종 시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발전전략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발전축 형성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공간구조 변화의 수용
 - 새만금,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태권도공원 등 전라북도에서 추진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공간구조의 변화를 수용하는 지역발전전략 추구
 - 대규모 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지원하고 지역발전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한 발전축 형성
- 지역발전 자원의 이용 극대화
 - 산업기반, 인적자원, 과학기술기반, 향토자원, 문화·역사·관광자원, 도로 및 철도 등 전라북도 내 지역별 발전자원을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을 촉진시키는 지역발전전략 추구
 - 지역발전 자원을 강화하고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발전축 형성

■ 지역의 상생발전 도모

- 전라북도 지역 간 불균형 발전을 개선하여 지역 간 상생·발전할 수 있는 지역발전전략 추구
- 지역별 특화·발전과 발전거점간 연계·협력을 촉진하여 지역 간 상생·발전하는 발전축 형성

2. 발전축 설정

가. 새만금신성장축

- 서해안초광역벨트와 연계하여 환황해경제권 생산·교역의 중심지로서 대외지향적 발전을 지향하는 전라북도의 신발전축으로 육성
- 특화·발전을 통해 새만금을 對중국 진출거점의 교두보로 육성하고, 환황해경제자유구역,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서해안초광역벨트의 주요 발전거점과 연계·협력하여 국가발전의 시너지 효과 제고
- 세종시의 대외관문으로서 새만금과 세종시 간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상생발전 도모

나. 지식·첨단산업축

- 전주(완주)-익산-군산-김제-정읍 등 전라북도 핵심 발전거점을 연결하는 발전축으로 전라북도 지식·첨단산업 발전 견인
- 과학기술 및 인재양성 등 지식의 창출과 확산의 거점으로 첨단부품소재, 신재생에너지, 고부가가치 식품 등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의 거점
- 새만금신성장축과 연결을 통해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을 형성하며, 내륙첨단산업권과 연계하여 초광역적 발전의 시너지 효과 창출

다. 동부권특화발전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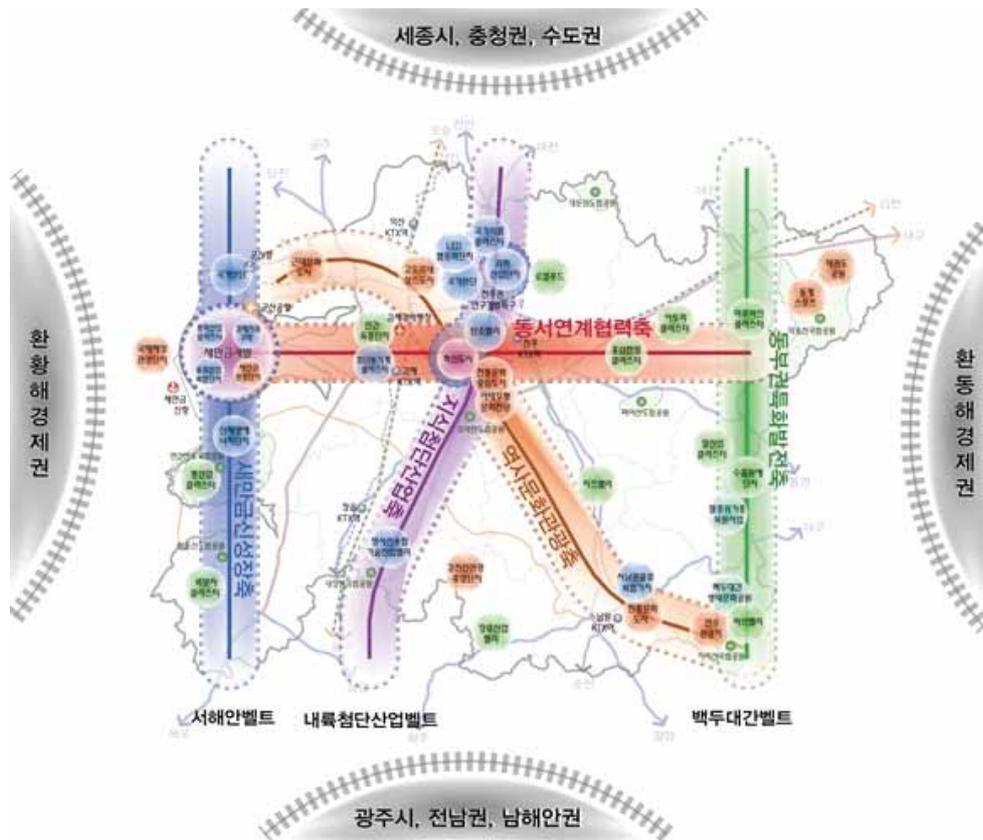
- 내륙초광역개발권인 백두대간벨트와 연계하여 전라북도 동부산악지역의 청정자연과 향토자원을 활용한 특화발전축 형성
- 덕유산권과 지리산권을 연계하면서 지역 특성을 활용한 발전방안 마련을 통해 발전에서 소외되었던 동부권 지역의 발전 촉진

라. 역사문화관광축

- 군산(근대문화유산), 익산(마한백제문화), 전주 및 남원(전통문화) 등에 소재한 풍부한 전통문화 및 역사문화자원을 보전하고 현대화하며, 이를 관광자원화하여 국내의 대표적인 역사문화관광벨트로 발전시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발전축 형성
- 역사문화관광축을 중심으로 동부권의 생태휴양레저관광과 서부권의 농경역사문화관광 및 해양레저관광을 연계하여 전라북도 관광산업 육성의 시너지 효과 창출

마. 동서연계협력축

- 새만금에서 출발하여 전주를 거쳐 전라북도 동부권으로 연결하는 발전축 형성
- 새만금신성장축 및 지식·첨단산업축 등 서부권 발전효과의 동부권 파급을 촉진하여 전라북도의 균형발전 도모
- 장기적으로는 새만금·포항간고속도로, 새만금·김천간 동서횡단철도 등 동서간 연계를 촉진하는 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대경권 및 동남권지역과의 초광역 연계·협력 강화



〈그림 2-2〉 공간구조 발전축 설정

3. 각 발전축을 견인하는 핵심 사업 추진

가. 국토연계 벨트 조성

1) 서해안 신산업벨트

-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지식·첨단산업의 융·복합벨트 조성
- 3개의 경제자유구역(인천, 황해, 새만금)을 활성화하고 이와 연계된 국제비즈니스 핵심거점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디스플레이 산업의 허브를 구축하고 수도권~충남~전북을 잇는 주력산업과 IT산업 간의 융·복합 클러스터도 조성
-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신재생 에너지산업과 식품산업벨트도 함께 조성
- 서해갯벌 등 생태 및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하는 글로벌 관광거점 조성, 새만금권에는 명품 해양레저도시 조성

2) 내륙첨단산업벨트

- 의료·바이오 분야 등 첨단 R&D, IT·BT·녹색산업 육성과 중원·백제문화권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내륙문화 관광지대 육성
-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구간을 포괄하는 과학기술·신성장 산업거점과 관광지대로 육성
 - 전라북도 4개 시·군 : 전주시, 완주군, 익산시, 정읍시
- 지역별 특화된 첨단산업을 기반으로 광역경제권간 연계·협력을 활성화하여 과학기술·신성장산업의 중심축으로 육성
 - BT·IT·GT 세계적 클러스터 조성
 - 내륙첨단산업벨트내 광역경제권 및 시·군 기초생활권을 통합한 초광역적 내륙특화 경제공동체 구성으로 공동 발전 기반 마련
 -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혁신도시(원주, 진천·음성, 전주·완주) 등을 연계하여 지역별 특화과학기술·산업 육성

3) 백두대간벨트

- 천혜의 자연조건과 역사문화자원을 매개로 한 백두대간 녹색성장 프로젝트의 거점지대 육성

- 백두대간 주변지역은 자원산업 및 농림업의 쇠퇴로 인해 주력산업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하는 지역으로 복합산업 프로젝트 거점지대로 구축
-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완충지대, 해안과 접경지대를 축으로 하는 사각형 초광역벨트의 중심지대로 국토의 균형발전, 상생발전을 위한 중심축으로 성장
 - 중심축 : 설악산~오대산~태백산~소백산~월악산~속리산~덕유산~지리산
 - 주요 거점도시 : 6대 광역도, 28개 기초 시·군

나. 거점핵심사업

1) 새만금사업

- 새만금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미래성장엔진으로 육성
 - 환황해경제권의 산업, 업무, 유통기능의 융·복합기지 조성
 - 녹색계획과 기술에 바탕을 둔 창조적 녹색도시 구현
 - 수변을 활용한 명품이미지 ‘아리울’ 구축
 - 세계인이 모여서 소통하는 교류의 장 조성
 - 인간중심의 도시환경으로 활력 넘치는 교류공간 조성

2) 특정지역개발계획

■ 해양농경역사문화권 특정지역

- 역사문화자원을 보존하고 다양한 테마를 가진 관광휴양공간을 조성해 친환경적인 해양·내륙형 복합관광지대 조성
- 서해안지역의 풍부한 해양자원과 고대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선사·농경역사 문화자원, 그리고 산과 바다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사업 추진
 - 전라북도 4개 시·군 : 김제, 정읍, 부안, 고창
- 역사문화자원정비, 관광·레저개발, 기반시설 확충 등

3)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 신발전지역의 실질적인 내생적 성장 및 민간투자 촉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의 자원과 지리적 여건, 기 추진 중인 연계사업, 발전 잠재력 등을 토대로 전라북도 동부권 신발전지역종합발전구역 설정

- 지정구역 : 진안, 무주, 장수, 남원, 일실, 순창
- 민간투자를 기반으로 백두대간 휴양·레저·체험형 관광도시 조성
- 동부권 자연산업의 신성장 녹색산업화를 통한 기업유치 활성화

4) 식품산업클러스터

- 동북아 식품시장의 허브 구축을 위해 식품산업의 모든 연관산업이 광역적으로 집적화된 지식집약형 식품산업 집적지 조성
 - 환경친화적인 식품전문 국가산업단지 조성
 - 세계적 수준의 R&D 기반 구축 및 연구개발 지원
 - 글로벌 앵커기업을 유치하여 세계적인 식품클러스터로 육성

5) 태권도공원

- 태권도의 지속적 발전·확산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내·외 태권도인들의 순례(성지)와 수련의 장 조성을 통한 태권도 발전 및 종주국의 위상 제고
-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 및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3명(명소, 명인, 명품)을 발굴하여 세계적 문화관광명소로서 개발
- 태권도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스포츠·연수·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도입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하고 국민 여가의 공간 확충과 질적 개선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6) 전통문화중심도시

- 전주를 세계의 전통문화도시들과 겨룰만한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전통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세계와 소통하는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주실현'
- 전주가 지닌 전통문화자원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전통문화도시로서의 전주이미지 부각
- 전통문화자원 기반시설 확충
 - 전통문화자원의 보존 및 전승, 연구 및 기술개발, 산업화
- 전통문화 교육 및 인적 체계 구축
- 전통문화자원과 전통문화도시 홍보 및 관광산업 활성화

다. 연계·협력기반 강화사업

1)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 새만금에서 출발하여 전주를 거쳐 전라북도 동부권 및 대경권, 동남권지역으로 연결하는 발전축 형성으로 동서간의 부족한 연계·협력 강화
- 새만금 지역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주변 도시와의 간선도로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광역도로망 계획 구축
- 對중국 교두보인 새만금 신항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 구축
- 동서화합 및 영·호남간 활발한 인적·물류교류 역할

2) 군산(국제) 공항

- 새만금의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필수 인프라로 국제공항 승격을 국토해양부와 협의하여 추진
- 새만금 산업단지의 분양과 관광객 증가로 인한 국내 및 국제 항공수요 증가에 따라 편리제공 및 시간비용 절감, 투자여건 개선
 - 군산공항의 국내 항공수요는 2020년 22.2만명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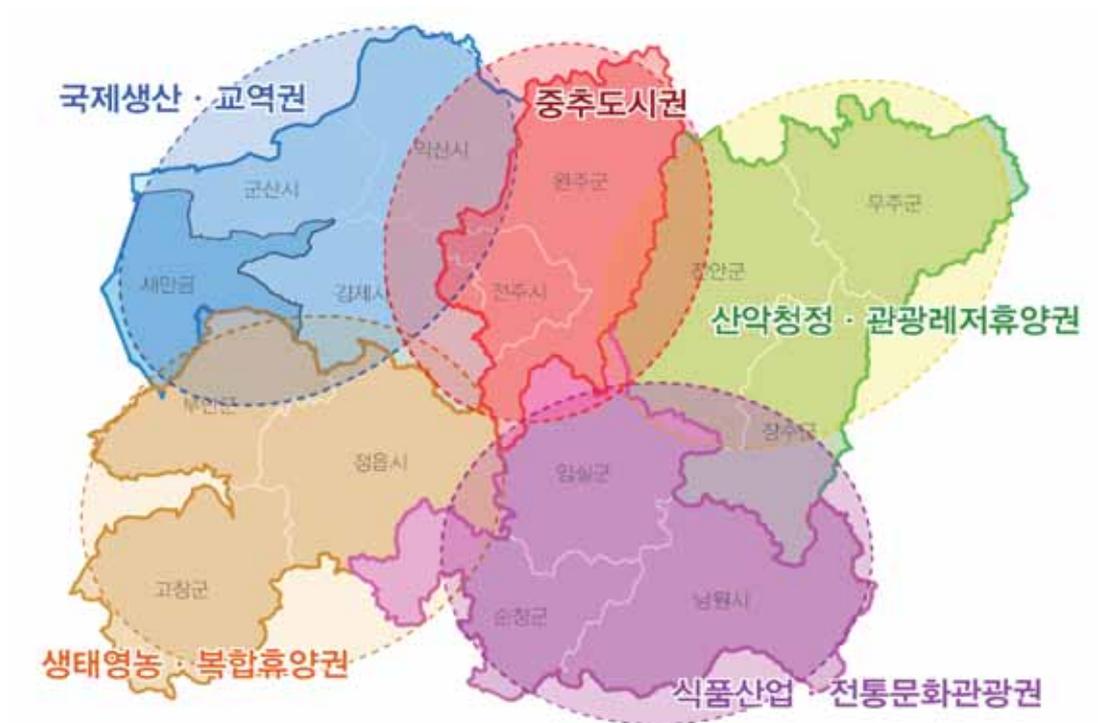
3) 호남선(전라선) KTX

- 호남선(전라선) KTX개통에 따른 전국 반일 생활권의 형성
- 여객·화물수송능력의 증대와 물류비 절감으로 인한 비용 절감 및 접근성 향상
 - 호남선 KTX역 : 익산역~김제역~정읍역~장성역~광주(송정)역~목표역
 - 전라선 KTX역 : 익산역~전주역~남원역~곡성역~구례역~순천역~여수엑스포

제2절 지역생활권 설정

1. 지역생활권 설정의 기본 방향

- 주민의 생활편의를 고려한 자족적 생활권 육성
 - 지역의 인구·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주민의 일상적 삶의 편의를 지원하는 자족적 정주기반 형성
- 지역발전 잠재력을 극대화하는 특화·발전 도모
 - 지역고유의 잠재력과 자원활용을 극대화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할 수 있는 특성화 발전 도모
- 중첩형 공간개발구상으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의 통합성 증진 도모
 - 전라북도의 중심도시권인 전주권을 중심으로 생활권 간 공간적 범역을 상호 중첩함으로써 지역자원의 연계·공유를 통한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지역의 통합성 증진 도모



〈그림 2-3〉 공간구조 권역 설정

2. 지역중심성과 통합성을 강화하는 생활권 설정

가. 중추도시권

- 전주시와 완주군을 중심으로 한 전북의 핵심거점으로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 농업·식품·생명산업 연구개발 및 첨단부품·소재산업 등 첨단산업의 중심지, 관광·전문서비스 등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하며 전북지역이 환황해경제권의 경제거점으로 활약하기 위한 중심거점으로 육성함
 - 지역내 행정 및 중추관리기능을 담당하는 지역전체의 중심거점으로 육성
 - 혁신도시와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한 농업·식품·생명산업 연구개발의 거점으로 육성하는 한편, MT·NT·IT를 융합한 첨단부품·소재산업의 거점으로 육성
 - 도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음식·숙박, 전통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중심의 관광배후도시 기능 담당
 - 지역중심거점으로서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의료·문화·교육 및 금융·보험·컨설팅 등 서비스산업 육성
 - 중추도시권과 기타 권역간 연결성 제고를 위한 광역연계교통체계 구축

나. 국제생산·교역권

- 새만금,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일부), 정읍시(일부)를 중심으로 환황해경제권의 첨단산업거점, 국제교역 및 물류기능의 거점으로 對중국 및 세계화 전진기지로써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
 - 국제교류의 거점 및 생산기반을 중점 조성
 - 새만금권과 전주권의 기능적 통합을 통해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형성을 촉진할 수 있는 광역도시교통체계 및 광역도시기반시설 구축
 - 권역내 새만금지역을 신재생에너지산업과 첨단산업단지, 해양레저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개발 추진

다. 생태영농복합휴양권

-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새만금을 중심으로 고부가가치형 첨단생태농업 및 생명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권역 내 서해안을 중심으로 해양생태자원개발을 통해 해양생태관광 거점으로 개발
 - 권역내 다양한 역사문화 및 경관자원과 농업자원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형의 생태영농 및 관광·휴양기능 수행

- 전북 생태영농복합휴양권의 중심도시로 호남고속철도 역사가 들어서는 정읍시를 생명산업 및 방사선융합기술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함과 동시에 권역 내 중심도시 기능을 수행하여 중추도시권과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정읍시의 자족적 생활기반 및 서비스체계 구축

라. 산악청정·관광레저휴양권

-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을 포괄하는 동부산악지역을 휴양·레저·장수를 중심으로 한 내륙청정·휴양·레저의 거점으로 육성하고 고랭지의 청정자연환경을 활용한 지역농업특산물 생산지역으로 육성
 - 수도권 및 중부·영남권과의 높은 접근성과 세계태권도공원, 기존의 무주덕유산리조트 등 휴양 및 레저산업 기반을 중심으로 동부산악권의 청정경관, 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휴양·레저 및 체험형 생태관광휴양지대로 조성
 - 고랭지기후를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고랭지특화작물 중심의 농산업클러스터 구축
 - 산악청정·관광·레저휴양권은 권역 내 자족적인 중심거점 기반이 취약하므로 권역 내 거점 지역 상호간의 네트워크화를 추진하여 집적기반을 갖춘 서비스시설 확충

마. 식품산업·전통문화관광권

- 임실군, 남원시, 순창군으로 이어지는 동남부지역을 식품산업 및 전통문화관광권으로 개발하여 지연산업, 전통문화 및 예술 관광지역으로 육성
- 전통문화 및 예술관광지역 육성 및 지역식품산업 특화클러스터 구축
 - 권역 내 전통 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하여 전통문화 전수 및 문화체험 관광 등을 특화 육성하고, 지리산을 중심으로 인접 시·군과의 협력과 제휴를 통한 통합 문화권 및 관광권 형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및 혁신도시 등 농식품 관련 연구개발 기능 및 산업과 연계하여 장류, 치즈, 허브 등 지역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 남원시를 중심으로 자족적 생활기반 및 서비스체계 구축
 - 전북 식품산업·전통문화관광권의 중심도시인 남원시가 권역 내 중심도시의 기능을 수행하여 중추도시권과의 통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남원시의 자족적 생활기반 및 서비스체계 구축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부문별 추진계획

3

제1장 새만금 조기개발

제2장 중추도시권 육성과 지역간 상생발전

제3장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제4장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관광 창조지역 육성

제5장 FTA에 대응한 강한 농업, 활력 농촌 실현

제6장 국제교통물류망 확충과 토지연안이용 효율화

제7장 생활복지와 농촌복지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

제8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녹색 안전도시 조성



제1장 새만금 조기개발

제1절 새만금 조기개발로 미래성장 기반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새만금은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개발하는 국가사업
 - 새만금사업은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하여 개발을 추진하는 국가사업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은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조성되는 새만금사업지역을 농업·산업·관광·환경 및 물류 중심의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제1조)’으로 제정
 - 새만금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국무총리실 소속으로 새만금위원회와 이를 지원하는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을 설치하여 사업을 추진 중
 -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 수립으로 본격적인 개발여건 마련
 - 2011년에 「새만금 종합개발계획(MP)」을 수립하여 새만금의 개발비전 및 전략목표의 설정, 토지이용방향의 제시 등 장기적·종합적인 새만금 개발방향을 설정
 - 동 계획에서는 용도별 구체적인 토지이용계획, 인프라계획, 추진일정, 소요자원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에 기초하여 새만금 개발을 추진 중
- 새만금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국가 미래성장엔진으로 도약을 목적으로 개발
 - 새만금은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서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국가 성장엔진을 담당하는 거점으로 개발될 계획
 - 새만금은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 미래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하여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 새만금(Ariul)’을 비전으로 선정
 -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서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국가 성장엔진을 담당
 -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조성
 -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거점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메카기능 담당
 - 새만금의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5대 목표를 설정
 - 5대 목표는 글로벌 경제중심지(Global), 녹색성장 선도(Green), 물의 도시(Water), 문화관광 메카(Culture), 인간중심의 도시(Human)임



〈그림 3-1〉 새만금의 비전 및 목표

- 1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2020년에는 새만금의 발전기반 구축이 완료 및 투자사업 본격화 전망
 - 새만금 개발은 2단계로 추진할 계획임
 - 1단계 개발은 2020년까지, 2단계 개발은 2021년 이후로 계획
 - 단계별 개발의 기본방향은 용지의 개발은 토지의 수요가 원칙적으로 발생하고 새만금 전체 공간구조 형성에 핵심이 되는 지역 및 사업추진이 용이한 지역부터 우선개발하고, 기반시설은 용지개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시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여 점진적으로 확대
 - 1단계 개발에서 주요 용지조성 및 기반시설이 구축되어 발전기반이 조성될 예정
 - 1단계에서 총 개발면적의 72.7%인 205.8km²를 개발하고 2단계에서 77.1km²를 개발
 - 용지의 경우 1단계에서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새만금산업단지, 새만금관광단지, 신시~야미구간 관광·레저용지, 고군산 관광·레저용지, 신재생에너지용지 등을 우선 개발하여 투자유치 추진
 - 기반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 주요 내부간선도로(동서 2축 및 3축, 남북 1축 및 2축 일부)와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신항만(1단계 4선석) 등 주요 기반시설을 건설
 -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용지조성이 완료됨에 따라 기업투자가 시작되어 개발효과가 가시화될 전망
 -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새만금 산업단지는 1공구 조성이 2012년 완료됨에 따라 투자유치 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으며, 2공구가 2013년 조성완료 계획으로 투자유치가 진행 중에 있음

- 삼성은 2단계에 걸쳐 조성되는 신재생에너지용지 전체에 대한 투자계획을 2011년에 발표
- 용지조성이 단계별로 추진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속한 산업단지, 관광단지 등을 중심으로 투자가 시작되고 있어 2020년까지는 투자성과가 가시화될 전망

〈표 3-1〉 새만금 단계별 개발규모

구분		계	1단계(%)	2단계(%)
용지 등	계	282.9	205.8(72.7)	77.1(27.3)
	복합도시용지	67.3	36.9(54.8)	30.4(45.2)
	농업용지	85.7	85.7(100.0)	-
	산업용지(FEZ)	18.7	18.7(100.0)	-
	과학·연구용지	23.0	-	23.0(100.0)
	신·재생에너지용지	20.3	8.8(43.3)	11.5(56.7)
	농촌도시용지	4.6	4.6(100.0)	-
	배후도시용지	10.0	-	10.0(100.0)
	신시·야미 관광레저용지	2.0	2.0(100.0)	-
	생태·환경용지	42.4	40.2(94.8)	2.2(5.2)
	방수시설물 등	8.9	8.9(100.0)	-
기반시설	신항만 및 배후단지	18선석 (488만㎡)	4선석 (52.4만㎡)	14선석 (435.6만㎡)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54.3km (4차선)	54.3km	-
	새만금-군산(대야) 복선전철	45km	-	45km
	동서 1축 도로	23.0km (6→10차로)	-	23.0km (6→10차로)
	동서 2축 도로	19.8km (6차선)	19.8km(4차선)	19.8km (2차선)
	동서 3축 도로	공사중	-	-
	남북 1축 도로	완공	-	-
	남북 2축 도로	26.7km(6~8차선)	20.7km(6~8차선)	6.0km (6차선)
	남북 3축 도로	27.2km	-	27.2km
	순환링 교량	6.5km	-	6.5km
용수공급시설	51.9만㎡/일 송수로 등	51.9만㎡/일 송수로 등		

자료: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국무총리실, 2011)

주 1) 동서1축 도로의 총 연장은 26.5km이며, 이 중 3.5km는 국도 21호선을 활용하고, 확장은 23.0km

2) 동서2축 도로는 새만금-서김제 15.1km를 제외한 수면부의 연장

■ 추진주체 분산으로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에 한계

- 새만금사업은 6개 부처로 분산되어 추진되고 있어 전체적인 관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한계
 - 현재 내부용도별 토지이용과 각종 기반시설 설치 등이 소관 중앙행정기관 등이 개별적으로 시행하는 체계

- 새만금사업 관련부처는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 6개 부처
- 6개 부처에서 각각 개발함에 따라 용지별 개발계획간 연계성 취약으로 중복·상충 개발이 우려되고, 전체적인 조정에도 한계

〈표 3-2〉 새만금 용지별 소관부처

구분	면적(km)	비율(%)	소관기관
계	282.9	100.0	
복합도시용지 (산업/국제업무/관광레저/생태환경)	67.3	23.8	국토부, 문화부, 지경부, 환경부, 전북도 ※협조 : 산림청
농업용지	85.7	30.3	농식품부 ※협조 : 산림청
산업용지(FEZ)	18.7	6.6	지경부, 전북도
과학연구용지	23.0	8.1	교과부, 지경부, 국토부
신재생에너지용지	20.3	7.2	지경부, 농식품부
도시용지	14.6	5.1	국토부, 농식품부
신시~야미 다기능부지(관광레저용지)	2.0	0.7	농식품부
생태환경용지	42.4	15.0	환경부, 농식품부
방수시설물 등	8.9	3.2	농식품부

자료: 새만금 종합개발계획(국무총리실, 2011)

- 부처간 분산 추진으로 사업 지연 및 투자유치 애로
 - 부처간 이견 발생시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부처별로 예산확보가 이루어짐에 따라 필요한 예산 확보에도 한계
 - 용지별로 개발 주관부처가 다름으로 인하여 투자창구가 다원화됨에 따라 투자자들의 혼란 야기

■ 새만금사업 예산의 과소투입으로 사업지연 우려

- 새만금사업은 2020년까지 13조 2천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계획기간 내 완공을 위해서는 매년 1조원 정도의 국비 투입이 필요
- 그러나 사업 예산이 부처별로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추진됨에 따라 예산이 과소투입됨으로써 사업지연이 우려되고 있음
 - 새만금 사업예산은 사업이 착공된 1991년부터 2011년까지 20년간 총 3.6조원 투입에 그침
 - 반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은 2005년도에 사업이 시작된 이후 2011년까지 7.22조원의 예산을 투입

〈표 3-3〉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새만금 사업 예산 투입 현황

사업	사업기간	총사업비 (조원)	2011년까지 투입예산(조원)	최근 3년간 투입 예산(억원)			
				2009년	2010년	2011년	계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	2005~2030	22.5	7.22	5,771	6,908	8,049	20,728
새만금 사업	1991~2030	22.2	3.6	3,306	3,381	3,832	10,519

2. 여건변화와 전망

■ 중국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새만금의 중국 해외직접투자 증가

- 중국경제가 지속적인 고성장을 구가하면서 2020년 경에는 중국이 세계 최대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중국경제의 성장과 함께 중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중국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 들어 급증세를 보이면서 해외직접투자액은 2010년 688억달러로 세계 5위의 투자국으로 부상

〈표 3-4〉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추이

단위: 억 달러

연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투자액	27.0	28.5	55.0	122.6	211.7	265.1	559.1	565.3	688.1
누계	303.5	332.0	448.0	572.6	906.3	1,179.1	1,839.7	2,487.5	3,172.1

자료: 中國對外直接投資統計公報, 각년호

-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 규모는 양국 간 무역관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나, 양국 간 지리적 근접성과 경제구조의 상호보완성을 고려할 때 새만금 지역에 대한 중국의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 2010년 누계 기준으로 중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직접투자는 8억 5천만 달러에 불과하여 중국의 총 해외직접투자액의 0.2%에 불과
 - 우리나라에 대한 중국의 직접투자는 제조업이 58.7%, 서비스업이 40.7%이며 건당 투자규모는 각각 246만 달러와 19만 달러로 평균투자규모는 43만 3천만 달러에 불과
 - 중국은 한국의 양호한 투자환경과 혁신능력, 중국의 성장 역량과 규모경쟁력을 결합, 그리고 한중간 상호보완적인 산업구조를 고려할 경우 상생효과를 누릴 수 있으므로 향후 중국의 새만금에 대한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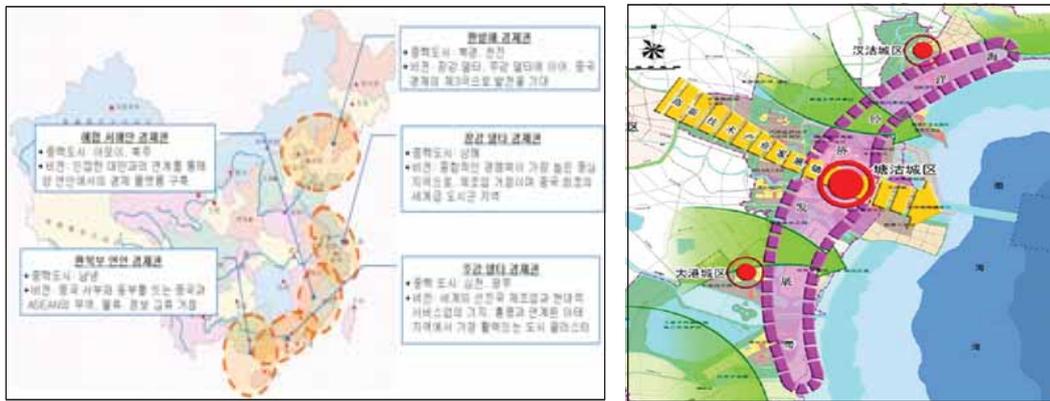
■ **한중 교류 확대에 따른 새만금 관광산업의 발전 전망**

- 한중 교류의 성격이 경제교류뿐만 아니라 인적교류 및 문화교류가 확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방한 중국인 수는 2011년 419만 명으로 1992년에 비해 4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0년에 비해서도 2배 가까이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방문객 수의 증가는 지속될 것으로 전망
- 새만금 관광단지 개발과 함께 중국인 관광객의 증가 전망
 - 새만금 관광단지는 2019년까지 조성되는 9.9km²에 이르는 대규모 단지로 골프장, 테마파크, 숙박시설, 공연·문화시설 등이 건설될 계획
 - 새만금 관광단지는 단지 자체가 갖는 규모 및 시설의 경쟁력과 함께 중국과의 우수한 접근성과 변산반도국립공원, 전주전통문화중심도시 등 인근의 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음

■ **한·중·일 FTA 체결과 3국 간 산업역학구조의 다양한 변화 예상**

- 한·중·일 FTA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이는 한·중·일 3국간 교역, 투자, 인적교류를 더욱 촉진시킬 것으로 전망
 - 3국 간 FTA 체결시, 3국의 대외지향적 성장전략과 중국의 급속한 소비 및 생산시장 증대 등에 따라 2018년 총교역량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 FTA 체결로 한·중·일 간 산업적 역할분담이 강화되고, 3국 간 상호 의존성 증대 및 상호 경쟁이 심화되는 등 산업역학구조의 다양한 변화가 예상
 - 한·중·일 3국 간 산업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경쟁과 동시에 상호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 창출도 발생될 것으로 전망
 - 제조업뿐만 아니라 3국 간의서비스 무역 확대도 예측
 - 3국 간 산업역학구조의 변화에 따라 새만금 지역의 산업발전 가속화
 - FTA 체결에 따른 산업역학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새만금지역의 산업이 중국 및 일본과 경쟁과 동시에 상호보완적인 발전경로를 취함에 따라 한·중·일 FTA 체결이 새만금지역의 산업발전 기회로 작용
- 중국 황해연안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새만금과 경쟁관계 형성
- 중국의 환황해 지역은 중국 경제의 중심축으로 황해연안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이 계속되고 있음

- 중국의 개방 및 경제발전 전략은 1980년대 주강경제권(선진, 광주 중심)개발, 1990년대 장강경제권(상해, 소주, 항주중심)개발에 이어 2000년대에는 발해경제권(천진, 위해, 대련중심) 개발로 확대
- 중국의 환황해경제권의 대규모 개발사업은 중장기적으로 새만금과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발해경제권 개발은 진징지개발(북경, 화북, 천진)이 포함되며, 천진시를 배경으로 하는 빈하이신구의 전략적 육성은 동북아지역의 산업, 물류의 주도권 장악을 위한 포석
 - 2006년 경제개발신구로 지정된 빈하이신구 개발은 새만금의 5.5배에 달하는 2,270km²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선진화된 제조업, 일류의 서비스 수준, 창업환경이 특화된 북방경제 중심지 개발전략을 통한 동북아 중심지를 지향



〈그림 3-2〉 중국의 국토개발 및 환황해권 전략

■ 서해안지역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심화 예상

- 서해안 지역은 인천, 황해,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 등 3개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어 있음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2003년, 황해경제자유구역과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은 2008년에 지정되었으며, 사업목표연도는 모두 2020년임
 - 인천경제자유구역이 170km²,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이 50km², 황해경제자유구역이 16km²규모이며, 사업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90조 원으로 가장 많으며,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과 황해경제자유구역은 5조원 내외로 비슷한 규모임

〈표 3-5〉 서해안지역 경제자유구역 지정 현황

구역	위치	사업기간	면적	계획인구(명)	총 사업비(조 원)
인천경제자유구역	인천시	'03 - '20	170km ²	63.9	90.0
황해경제자유구역	충청남도	'08 - '20	16km ²	7.0	4.7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	전라북도	'08 - '20	50km ²	3.2	5.2

- 서해안지역의 3개 경제자유구역은 사업내용에 차이가 있으나, 발전전략이 상호 중복성이 있어서 상호 경쟁관계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
 - 「서해안권 발전종합계획(2010)」에서 서해안권의 3개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경제권역의 특성화된 개발을 통한 시너지효과 제고 전략을 제시하고 있으나, 육성기능, 투자유치업종 등에서 상호 중복성이 존재
 - 중국을 중심으로 한 투자유치의 추진에 있어서 3개 경제자유구역 간 경쟁관계가 형성될 전망

〈표 3-6〉 서해안산업벨트 구상

경제권	개발방향
수퍼경기만권	국제비즈니스-물류-첨단산업이 복합된 동북아 경제거점
충남서해안권	국제관광-휴양산업과 기간산업이 어우러진 융·복합 산업거점
새만금권	신재생에너지 등 저탄소 녹색산업이 발달된 글로벌 녹색성장거점



3. 계획의 기본방향

■ 새만금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 새만금사업은 6개 부처가 관련되는 범부처 사업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추진체계를 재정립
 - 다부처에서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업지연이 발생하는 상황으로,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체계 재정립이 필요

- 새만금 관련 모든 업무를 총괄하여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중앙행정기관 형태의 개발전담기구 설치 방안 마련이 필요

■ 새만금 내부개발의 조기 완료

- 중국경제의 급성장과 함께 성숙되고 있는 서해안시대의 경제중심지로 미래성장엔진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조기에 완료하는 것이 필요
 - 새만금과 경쟁관계에 있는 중국 황해연안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과 경쟁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조속히 완료하여 경쟁기반을 선구축하는 것이 중요
 - 새만금 산업단지, 관광단지, 명품복합도시 등의 용지조성 시기를 단축
-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위해서는 국가예산의 차질 없는 지원이 필요하므로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
 - 현재 새만금 관련 6개 부처에서 부처별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예산의 과소투자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현재의 6개 부처로 분산된 예산을 통합·관리하고 지속적인 재정지원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구축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및 연계·발전 추진

- 새만금지역 투자유치 및 국제교류 활성화를 통한 내부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국제교류기반 구축
 -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서는 군산국제공항, 새만금 신항만 등 공항, 항만 등 국제교통·물류 기반시설의 조속한 구축이 필요
- 새만금 개발사업의 지역 및 국가경제 파급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광역적 교통체계 구축
 - 새만금 개발사업의 파급효과를 내륙으로 전파하여 전라북도 및 국가 전역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고속도로, 철도 등 광역고속교통체계 구축
- 새만금 내부개발과 함께 주변지역의 연계·개발을 통해 새만금개발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전라북도의 발전을 도모
 - 새만금 주변지역의 특성화 개발 및 상호연계개발 등 주변지역 연계개발사업 추진

■ 산업, 관광 등 새만금 투자유치 및 국내·외 방문객 유치 활성화

- 새만금 산업단지, 관광단지, 명품복합도시 등 새만금의 주요 용지가 2020년 이

전에 개발이 완료될 계획으로 이들 용지에 대한 투자유치 및 국내·외 관광객 등 방문객 유치 활성화가 필요

- 새만금지역의 對중국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치 촉진을 위한 관세장벽 완화, 입국 제한 완화, 자본이동제약 완화, 조세감면, 토지용 규제 완화 등 제도적 기반 구축

4. 세부 추진과제

■ 새만금 조기개발을 위한 추진체계 정립 및 예산지원 제도화

- 새만금사업을 총괄하여 전담하는 개발전담기구 설치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새만금사업의 효율적·통합적 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전담기구 설치 근거를 마련
- 새만금사업 추진을 위한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 「새만금사업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새만금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마련

■ 새만금 개발 촉진을 위한 기반시설 구축

- 군산공항 확장, 신항만 건설 등 국제교통·물류기반시설의 건설
 - 군산국제공항 승격 및 관련 시설 설치
 - 새만금 신항만 및 신항만배후 물류산업 복합단지 조성
- 내륙광역교통체계 구축
 -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새만금~김천간 동서횡단철도, 서해안철도 건설
 -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 건설

■ 새만금 투자유치 및 관광객 유치 활성화

- 새만금 산업단지, 관광단지 및 관광·레저용지 조성시기 단축, 마리나조성 및 해양레저스포츠단지 조성, 한중국제교육클러스터 조성, 새만금간척사박물관 건립, 새만금 생태숲 조성 등 기반 구축
- 무비자입국 및 투자자 영주권 부여, 자본송금 자유화 등 투자유치 활성화 제도 개선,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등 소프트웨어 구축

■ 새만금 주변지역 연계개발

- 새만금 내부 토지이용과의 연계를 통해 새만금 경제권 연계·발전 추진
 - 군산은 자동차, 기계, 조선 등 제조업, 김제는 미곡, 원예, 농업기계 등 농업, 부안은 산악

및 해안 관광·레저산업 등으로 특화·발전시켜 새만금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분담하는 개발전략 추진

- 새만금~지리산간 국도, 새만금~고창간 국도 건설 등 새만금과 주변지역간 연계 교통체계 구축



<새만금의 3대 발전축 구상>

자료: 새만금종합개발계획(국무총리실, 2011)



<새만금 경제권 연계·발전전략>

<그림 3-3> 새만금 경제권 발전전략

제2장 중추도시권 육성과 지역간 상생발전

제1절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전주·새만금권은 전라북도의 핵심 발전지역

-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전주광역도시권에 속한 지역에 전라북도의 인구, 산업, 지식, 문화 및 생활기반시설 등 주요 발전자원이 집중
 - 5개 시·군의 인구는 140만 명으로 전라북도 인구의 75.0%를 점유하고 있음. 전주광역도시권과 함께 새만금권에 속하는 정읍시, 부안군을 포함할 경우 158만 명으로 전라북도 인구의 84.7%를 점유
 - 5개 시·군은 전라북도 중심기능의 71.1%를 점유하고 있음. 전주광역도시권과 함께 새만금권에 속하는 정읍시, 부안군을 포함할 경우 79.4%를 점유

〈표 3-7〉 전주광역도시권의 인구

(단위 : 명,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전북	2,006,602	1,999,255	1,885,335	1,868,963
전주·새만금권	1,624,040	1,658,948	1,583,814	1,583,018
전주광역도시권	1,388,651	1,432,210	1,389,746	1,400,880
전주시	569,804	620,521	621,749	641,525
군산시	275,819	277,491	263,120	272,601
익산시	328,152	334,324	318,506	307,289
김제시	128,415	115,865	102,720	94,346
완주군	86,461	84,009	83,651	85,119
정읍시	151,039	152,022	129,050	122,000
부안군	84,350	74,716	65,018	60,138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3-8〉 전주광역도시권의 중심기능 지수

(단위 : %)

구분	공공 기능	상업 기능	금융 기능	의료 서비스 기능	정보 통신 기능	교육 기능	문화 체육 기능	복지 기능	공원 기능	계
전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전주·새만금권	67.9	92.6	84.6	83.2	62.6	93.9	61.7	83.8	84.5	79.4
전주광역도시권	54.8	91.2	76.1	70.1	49.2	88	49.3	78.8	82.2	71.1
전주시	20.2	47.4	40.7	31.9	15.9	34.1	18.3	22.2	29.5	28.9
군산시	15.2	13.2	14.1	11.1	7.9	18.5	8.1	20.6	13.1	13.5
익산시	8.2	22.2	17.5	15.2	12.4	23.3	10.5	22.5	6.4	15.4
김제시	6.6	7.9	3.1	7.2	7.2	3.6	7.9	4.2	26.3	8.2
완주군	4.6	0.5	0.7	4.7	5.8	8.5	4.5	9.3	6.9	5.1
정읍시	7.3	0.9	5.8	8.9	7.4	5.0	8.7	5.0	1.5	5.6
부안군	5.8	0.5	2.7	4.2	6.0	0.9	3.7	0.0	0.8	2.7

■ 전주광역도시권은 도시간 기능적 상호보완성을 지닌 연담도시권을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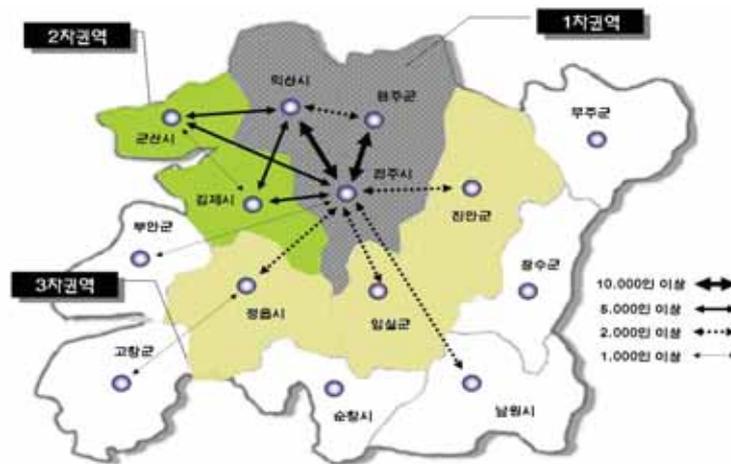
- 전주광역도시권에 속한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은 지리적으로 인접한 연담도시권을 형성
 - 시간거리로 30분 이내에 속하는 지역으로 전주시를 중심으로 일상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음
- 전주광역도시권에 속한 5개 시·군은 도시별로 기능적·산업적 특화가 형성되어 상호 보완과 협력이 필요한 요소들을 보유
 - 전주시는 중추관리기능, 첨단산업, R&D, 교육·문화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음. 권역 중심산업인 자동차 부품·소재, 식품,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주력산업과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육성 중인 탄소, 인쇄전자, LED 산업 등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능을 제공하고 있음. 전주·완주 혁신도시 조성과 함께 농진청 및 산하 연구기관, 한국식품연구원 등 연구기관과 지방행정연수원이 입주함에 따라 전주시의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
 - 군산시는 생산 및 교역 기능으로 특화되어 있음. 항만, 공항 등 권역의 대외교역 중심기능 제공. 군산국가산단과 새만금산단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산업지역에 자동차, 조선, 신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산업의 중심지를 형성하고 있으며, 새만금개발과 함께 새만금신항만, 군산 국제공항이 건설되면서 대외교역 거점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
 - 익산시는 생산 및 교통 기능을 중심으로 특화되어 있음. 호남선과 전라선의 교차점으로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내륙 광역교통 중심기능이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익산국가산단 및 익산지방산단을 중심으로 자동차부품, 농기계, LED, 식품 산업의 생산 거점을 형성하고 있음. 익산국가식품클러스터 조성 및 함께 식품산업 연구개발 및 생산의 국가적 거점으로 성장할 전망
 - 김제시는 전주, 익산, 군산의 배후도시지역으로 전원휴양 및 산업생산 지원기능을 제공하는 배후생

산·휴양기능으로 특화되어 있음. 농기계부품, 뿌리산업, 식품산업 등이 특화 육성되고 있음

- 완주군은 전주시의 근교지역의 성격을 지닌 배후생산·휴양기능으로 특화됨. 자동차, 탄소소재,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 전주시의 배후생산지역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주시와의 행정통합이 전망되고 있음

■ 지역발전을 선도할 중심도시 발전 미흡

- 전북의 수위도시인 전주시는 인구규모가 64만여 명으로 전북 인구의 3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역 내 차하위 도시인 익산시, 군산시에 비해 두 배 이상의 인구규모를 지니고 있어서 전북 내 중심도시로서 위상이 매우 높음
 - 전주광역도시권에 속한 5개 시·군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전라북도 시·군별 통근통학권은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완주군이 1차 권역을, 군산시, 김제시가 2차권역을 형성하고 있어서 전주광역도시권이 전주시를 중심으로 기능적으로 밀접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 줌
- 그러나 경제개방화가 가속화되는 글로벌 경쟁체제에서 지역의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중심도시로 기능하기에는 전주시의 인구규모가 충분하지 못한 수준



〈그림 3-4〉 전라북도의 통근통학권

■ 도시공간의 평면적 확대에 따른 도심 쇠퇴의 장기화와 도시공간구조 왜곡

- 전북의 주요 도시는 인구가 정체된 상태에서 택지개발을 중심으로 외곽지역에 신시가지가 개발되면서 도시공간의 평면적 확대가 진행되고 있음
- 도시공간의 평면적 확대와 함께 주요 공공기관 및 상업기능이 도심지역에서 신개

발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도심의 인구공동화 및 침체가 장기화됨

- 또한 도시공간의 평면적 확대는 업무 및 상업기능 등 도심 주요기능의 분산을 야기하면서 이들 기능이 집적된 새로운 도심공간 형성이 제한되고 있음
- 도시활동의 구심역할을 수행하는 도심지역의 쇠퇴는 전반적인 도시활력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 도시의 문화·역사적 자산 등 고유자원과 연계한 도심공간의 재활성화와 함께 중장기적인 계획적 도시개발을 통한 균형 있는 도시공간구조 형성이 필요

2. 여건변화와 전망

■ 새만금 개발에 따른 지역내 도시권 체계 변화

- 새만금 종합발전계획이 확정되고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1단계 사업이 완료되는 2020년에는 새만금이 새로운 발전거점으로 역할을 하게 될 것임
 - 9.8km²에 달하는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의 산업용지는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조성이 완료될 계획으로 현재 투자유치가 시작되고 있으며, 명품복합도시의 개발도 진행 중으로 새만금 개발이 완료되면 총 76만여 명의 유발인구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새만금 개발의 영향으로 전주광역도시권의 발전과 함께 군산시의 위상이 높아지는 도시체계상의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
 - 군산시의 발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이와 함께 김제시, 부안군 등 새만금지역의 시·군도 발전이 크게 촉진될 것으로 전망
 - 또한 배후도시인 전주시와 익산시의 동반성장이 이루어지며 특히, 내륙의 배후거점도시인 전주시의 중심도시기능이 강화되면서 새만금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

■ 전주광역도시권의 지속적인 성장과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형성

- 전주시를 중심으로 익산시, 군산시, 김제시, 완주군으로 구성된 전주광역도시권은 인구, 산업, 교육, 문화 등 전북의 발전자원 대부분이 집중된 지역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새만금과 함께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북의 발전을 견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대규모 개발사업이 전주광역도시권을 중심으로 집중되어 전주광역도시권의 발전을 촉진할 것임

- 전주광역도시권 내 각 시·군은 기능적으로 특화·발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가운데 전주시의 중추거점도시 역할이 더욱 강화되면서 전주광역도시권의 발전을 선도하는 지식거점으로 기능할 것으로 전망됨
- 새만금 개발이 본격 추진되면서 새만금권은 국제교류 및 물류, 신산업을 중심으로 특화·발전되어, 전주광역도시권과 기능적으로 통합되면서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여가시간이 증대됨에 따라 건강, 환경, 문화향유 등을 중시하는 삶의 양식의 변화가 진전될 것으로 전망됨
- 이에 따라 도시정책도 양적 성장위주의 발전정책에서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도시정책으로 방향전환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도시정책의 방향전환에 따라 생태적이고 문화적인 도시공간의 조성이 중시되면서 도시의 역사문화자산, 생태환경 등이 새로운 도시발전 자원으로 부각될 것으로 전망됨

3. 계획의 기본방향

■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육성 기반 구축

- 전북발전의 핵심지역인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 김제시, 완주군 등 전주광역도시권과 새로운 발전거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새만금을 포괄하는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을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국가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발전기반 구축
- 전주광역도시권을 네트워크 도시권으로 육성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대도시 경제권으로 육성이 필요
 - 전주광역도시권의 중심도시인 전주시가 대도시 중심기능을 지원할 수 있는 중추도시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육성
 - 연담도시권을 형성하고 있는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 김제시를 포함한 전주광역도시권의 인구규모는 140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광역도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규모임

- 특히, 전주광역도시권은 공간적으로 연접해 있으며 도시별 기능적 보완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전주광역도시권 내 도시별 특성화 발전과 이들 도시간의 기능적 연계성을 강화하여 전주광역도시권을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중추도시권으로 육성하는 것이 필요
- 전주권을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의 첨단산업 및 지식의 내륙거점으로 육성하여 전북지역의 발전을 견인하고, 새만금권은 환황해권의 대외지향적인 생산·교역의 신거점으로 육성
- 도시 간 기능적 특화·발전 및 네트워크 구축으로 전주·새만금 광역중추도시권 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새만금 메가시티 발전의 기반을 조성



〈그림 3-5〉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육성방향

■ 지역발전 혁신거점 육성

- 새만금,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 내 지역발전을 선도하는 새로운 혁신거점을 육성하고 기존 도시와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개발효과를 극대화
- 혁신거점과 권역내 주요 발전기반 간 연계교통망 구축으로 접근성을 제고하여 혁신거점 발전효과 확산을 촉진하여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 제고

■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으로 상생발전 도모

-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의 중심거점도시인 전주시와 권역 내 도시간 기능적 연계·협력을 통해 중층적으로 연결되는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도시 간 등 중층적인 네트워크 도시체계를 구축하여 규모의 경제와 범위의 경제 창출

-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으로 거점도시의 중심기능을 강화하고, 동시에 혁신역량이 부족한 도시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도시 간 생생발전 도모

■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형 도시·지역 개발체계 구축

- 거버넌스형 개발체계 구축으로 지역 내 갈등을 최소화하고,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주민의 삶의 질이 중시되는 도시공간 조성
- 지역발전계획의 수립 및 추진과정에 주민 및 전문가들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거버넌스형 도시·지역 개발체계 구축
 - 도시계획과정에 주민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

4. 세부 추진과제

■ 광역중추도시권 관리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 도시체계 구축

- 전주·새만금 광역중추도시권 발전위원회 구성·운영
 - 지자체간 협약을 통해 전주·새만금 광역중추도시권 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광역중추도시권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 광역중추도시권 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역중추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연계·협력사업 발굴, 중복사업의 조정, 주민참여형 거버넌스 구축 등 추진
 - 광역중추도시권의 초광역적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도시네트워크 구축
 - 도시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상생발전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도시권 내 중심도시와 주변 도시·지역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주체와의 다양한 형태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추도시권과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 특정 지역발전 거점지대 및 기타 중소도시권, 농촌 도시권 등과의 산업연계·협력, 관광문화루트, 생태·환경, 하천 등 자원 공동관리 등 다양한 형태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중추도시권과 해외대도시권, 수도권 및 기타 지방중추도시권과의 연계·협력 네트워크 강화

■ 성장거점 개발 및 연계 인프라 구축

-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중심지로서 국가의 미래성장엔진으로 육성
 - 세계적으로 자랑할 수 있는 명품도시로서 사람과 자본, 기술을 끌어오는 국가 성장엔진 담당
 - 국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동북아에서 가장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조성
 - 새로운 문명을 창조하는 거점 개발을 통하여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는 메카기능 담당
 - 새만금 신항만의 국제물류기능을 활용하여 국제생산 및 교역의 성장거점으로 새만금 신항만 배후 물류·산업 복합단지 조성
- 혁신도시,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건설이 진행 중인 성장거점의 개발과 함께 전주시의 지식거점기능을 보완하기 위한 전북권 연구개발특구 조성
 -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기능과 연계하여 농생명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 국가식품클러스터, 민간연구육종단지 등 농식품 혁신거점과 지역 내 중소기업 농식품클러스터를 연계·발전
 - 전북권 연구개발특구를 지역산업발전의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식창조형 농생명·식품 및 친환경 부품소재산업 등 지역 전략산업 연구개발의 허브로 육성
- 익산시와 정읍시의 KTX 정차역을 중심으로 역세권을 개발하여 광역연계를 통한 신성장거점으로 육성하고 역세권과 인근 시·군과의 광역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개발의 파급효과를 지역으로 확산
- 성장거점 개발의 시너지효과를 제고하기 위한 연계 인프라 구축
 - 광역중추도시권의 글로벌 네트워크 기반시설로 군산국제공항 건설
 - 새만금과 영남권을 연결하는 새만금·김천간 동서횡단철도를 건설하여 동·서해안 초광역벨트 개발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새만금 개발의 파급효과 극대화
 - 전주·새만금 광역중추도시권 순환전철망을 건설하여 권역 내 연결성 제고

■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 활성화

- 도시의 규모, 역사성, 문화·환경·경관, 산업 등 특성을 살려 활기찬 경제기반을 마련하고, 개성 있는 도시문화와 경관 창출 등 삶의 질을 제고하는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특화·발전을 통한 도시 활성화 추진
- 역사문화자산과 연계한 도시 활성화

- 전주 전통문화, 군산 근대문화, 익산 마한·백제문화, 정읍 선비문화, 남원 전통문화예술관광, 김제 농경문화 등 역사문화자산과 연계하여 개성 있는 도시를 창출하여 어메니티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 도시의 경쟁력 강화
- 도심재정비 촉진과 중심시가지 활성화
 - 도심과 신시가지의 균형발전과 도시의 정비 및 활성화를 위해 도시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정비 촉진계획을 수립하고 도시재정비 가이드라인 작성, 건축규제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 개발
 - 주변지역과 연계한 재래시장 개발, 도시환경 정비 등 종합적인 도심활성화 정책 추진
 - 도심 활성화 과정에 주민, 상인,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려하여 지역 상권과 문화를 활성화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제2절 특화발전과 연계체계 구축으로 지역 균형발전 추진

1. 현황 및 문제점

■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심화로 발전잠재력 약화

- 전라북도 농촌지역 시·군의 인구감소율이 매우 높은 수준임
 - 농촌지역을 이루고 있는 전주광역도시권을 제외한 기타 시·군은 높은 인구감소와 고령화와 함께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음
 - 전주시 근교에 속하는 완주군을 제외한 모든 군지역의 인구감소율이 전라북도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임
 - 농촌중심도시인 정읍시, 남원시, 김제시의 경우에도 인구감소율이 전라북도 평균에 비해 크게 높음
- 전라북도 농촌지역 시·군의 대부분은 초고령사회에 진입
 - 전라북도 시·군 중 전주시를 제외한 모든 시·군의 노령화율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 특히 전주광역도시권과 진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이 초고령사회에 진입
 - 동부권에 속한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 등은 노령화율이 26.5% 내지 28.9%로 25.0%를 크게 상회하는 수준임
-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고령화와 저출산 심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인해 발전잠재력이 크게 약화됨

〈표 3-9〉 전라북도 농촌지역 시·군의 인구 및 노령인구 추이

(단위 : 명, %)

구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1995~2010)
	총인구	노령화율	총인구	노령화율	총인구	노령화율	총인구	노령화율	
전북	2,006,602	8.5	1,999,255	10.3	1,885,335	12.9	1,868,963	15.2	-0.47
정읍시	151,039	10.9	152,022	13.2	129,050	17.4	122,000	20.6	-1.41
남원시	109,185	10.8	103,571	13.6	93,670	17.4	87,775	20.6	-1.44
김제시	128,415	11.6	115,865	15.2	102,720	19.5	94,346	23.7	-2.03
진안군	40,086	10.6	31,273	13.1	29,021	15.8	27,543	18.1	-2.47
무주군	32,293	13.5	29,207	18.2	25,876	23.3	25,578	27.4	-1.54
장수군	31,485	12.9	30,051	17.3	24,755	23.1	23,386	26.7	-1.96
임실군	44,612	13.1	37,514	16.8	32,511	23.5	30,593	27.1	-2.48
순창군	39,728	13.7	34,587	18.6	32,012	25.1	30,209	28.9	-1.81
고창군	85,173	14.5	74,104	19.1	63,676	24.3	60,861	28.4	-2.22
부안군	84,350	12.2	74,716	16.7	65,018	22.5	60,138	26.5	-2.23

자료 : 통계청, 주민등록인구통계

■ **청정자연환경과 문화역사자원 풍부**

- 전라북도는 청정한 자연환경을 잘 보전하고 있음
 - 전라북도 동부권은 백두대간의 주능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덕유산과 지리산 등 1천m 이상의 산지가 이어지는 지형적 특성으로 인해 각종 개발사업으로부터 소외됨으로써 훼손되지 않은 청정한 자연환경 유지
 - 전라북도 서남부권은 호남정맥의 주능선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내장산, 선운산, 모악산, 강천산 등 산지와 함께 고인돌유적 등 선사시대 유적과 전통문화자산이 풍부하게 소재
 - 해안지역에 속한 부안군에는 산지와 해안이 결합된 변산반도 국립공원이 소재하고 있으며, 빼어난 자연환경과 함께 후백제 및 조선 등 역사문화자원이 풍부하게 소재
- 전라북도는 전통문화자산이 잘 보전된 지역
 - 전라북도 동부권 및 서남부권 등 농촌지역은 개발이 부진한 지역으로 상대적으로 마을공동체 문화 등 전통생활문화가 잘 보전되어 있음
- 전라북도는 청정자연환경과 전통문화역사자원을 중심으로 한 녹색관광의 높은 잠재력 보유
 - 전라북도에 소재한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등 4개의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한 산간 지역의 청정한 자연환경과 산림자원, 농촌지역에 잘 보전된 전통생활문화유산과 선사시대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는 역사문화자원 등이 풍부

■ **농촌중심도시의 침체와 도시기반시설 부족**

- 전주광역도시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에 따른 인구과소화로 중심도시의 침체가 지속되고 있음
 - 동부권의 경우 남원시를 제외한 진안군, 장수군, 무주군, 임실군, 순창군 등 군지역의 인구규모가 3만 명 이하 수준으로 절대규모가 크게 작은 실정
- 농촌지역 중심도시의 침체로 의료·복지·문화 등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배후지역에 대한 중심기능 제공에 한계
 - 대부분의 농촌중심도시가 배후 농촌지역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및 기초생활 서비스 제공 등 중심기능을 충실히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
 - 일부 농촌 소도시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도시기능을 상실하여 배후지역에 대한 중심기능 제공이 매우 제한적임

〈표 3-10〉 전라북도 농촌지역 시군의 중심기능 지수

(단위 : %)

구분	공공 기능	상업 기능	금융 기능	의료 서비스 기능	정보 통신 기능	교육 기능	문화 체육 기능	복지 기능	공원 기능	계
전북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정읍시	7.3	0.9	5.8	8.9	7.4	5.0	8.7	5.0	1.5	50.5
남원시	7.2	2.9	4.1	7.9	7.4	2.8	7.1	5.3	7.6	52.3
김제시	6.6	7.9	3.1	7.2	7.2	3.6	7.9	4.2	26.3	74.0
진안군	4.8	0.8	1.4	3.2	5.1	0.2	6.6	0.0	4.2	26.3
무주군	4.2	0.5	2.3	0.3	4.3	0.3	5.3	0.0	0.0	17.2
장수군	4.9	0.8	1.0	0.2	4.3	0.5	2.2	1.0	1.2	16.1
임실군	3.2	0.8	2.0	0.4	5.4	0.5	5.1	1.2	0.2	18.8
순창군	2.9	0.7	2.3	0.7	5.1	0.4	6.4	1.1	0.0	19.6
고창군	4.9	0.9	2.3	4.1	5.8	1.4	5.6	7.6	2.3	34.9
부안군	5.8	0.5	2.7	4.2	6.0	0.9	3.7	0.0	0.8	24.6

■ 농업중심의 산업구조로 특화자연산업 발달

- 전주광역도시권을 제외한 전라북도 농촌 시군은 제조업 및 서비스업이 매우 부진
 - 농축산업 중심의 지역경제구조로 제조업, 관광산업 등 농업을 제외한 성장동력산업의 발전이 취약
- 농촌지역 시군별 특화자연산업이 발달하였으나, 산업발전수준은 미약
 - 남원시 허브산업 및 목기산업, 순창군 장류산업, 고창군 복분자산업, 임실군 치즈산업, 진안군 홍삼한방산업, 장수군 사과 및 한우산업, 부안군 오디가공산업 등 대부분의 농촌지역 시군은 특화자연산업이 발달
 - 일부 시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 특화자연산업의 발전이 미약한 수준

2. 여건변화와 전망

■ FTA체결 확대에 따른 농축산업 경쟁 심화

- 칠레, EU, 미국 등 8개의 FTA가 기체결되었고 향후 중국, 일본 등 세계 주요국과의 FTA 체결이 확대될 전망으로 농축산업 부문에 큰 피해가 예상
 - 현재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12개국으로 FTA 확대는 외국 농산물의 수입 급증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특히 농축산업에 있어서 보완구조를 형성할 수 없는 중국과의 FTA 체결은 식량작물, 채소류, 과일류, 축산물 등 중국 농산물 수입의 급증을 초래할 전망

- FTA 확대에 따라 농축산업의 비중이 큰 전라북도 농촌 시군의 적극적 대응이 필요
 - 전라북도 농축산업의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에 따른 지원대책의 효과적 활용 필요
 - 전라북도 농축산업의 특화 육성을 통해 농촌지역 경제 안정화 도모가 필요

■ 노령인구 증가와 인구과소화 지속

- 기대수명 증가에 따른 노령인구의 지속적인 증가와 함께 출산율 저하 및 청장년층 이출로 인해 대부분의 농촌지역이 인구 과소지역 및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
 - 농촌지역의 인구과소화와 초고령사회 진입은 경제활력을 크게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인구과소화와 함께 농촌중심도시의 중심기능의 침체가 지속될 것임
 - 농촌지역 주민들의 기초생활서비스 제공을 담당하는 농촌 소도읍의 침체가 지속될 전망
 -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촌복지지원 기반 구축이 필요

■ 청정안전 식품 및 건강에 대한 선호와 소비 증가

- 생활수준 및 의식 수준 향상으로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조화를 통해 삶의 질을 높 이려는 사회적 변화와 함께 청정안전 식품 및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행태의 진전 이 확산될 전망
- 안전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행태의 변화에 따라 전라북도 농촌지역의 청정자연 환경은 지역발전의 새로운 자원으로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친환경 농업과 휴양체험관광을 중심으로 한 농촌지역의 친환경 녹색산업의 발전이 전망됨
 - 농촌지역 시군의 특화자연산업의 특화·발전이 강화될 전망

■ 교통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접근성 증대

- 전라북도 동부권 및 서남부권의 기 개통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익산-장수간 고속도로, 전주-순천간 고속도로, 고창-담양간 고속도로와 함께 88고속도로 확 장 등에 따라 광역적 고속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전망
- 고속도로의 확충에 따른 접근성 증대로 수도권 및 중부권뿐만 아니라 영남권 및 전남권과의 교류가 증대되면서 전라북도 동부권 및 서남부권의 지역개발 수요가 증대될 전망
 - 동부권의 지리산 및 덕유산 등 산간휴양관광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동부권과 변산반도 및 새 만금 등 서부권의 관광자원 간 연계관광이 활성화될 전망

- 농촌지역 시·군의 광역적 접근성 증대와 함께 산업입지 여건이 개선되면서 소규모 산업단지의 발전이 촉진될 전망

3. 계획의 기본방향

■ 고유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 전라북도 주변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청정자연환경 및 전통문화역사 유물 및 유적, 전통생활문화 등 고유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변산반도 국립공원과 산지 및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악 생태·휴양레저산업, 금강, 섬진강, 만경강 등 하천과 연계한 수변생태·체험관광산업 활성화
- 남원시 전통문화역사자원, 임실군 필봉농악 등 무형문화유산, 정읍시 및 부안군 선비문화, 고창군 선사유적 등을 활용한 문화역사체험관광 활성화
- 동부권 고원지역의 기후특성을 활용한 친환경 고랭지 특화농업 활성화 및 지역의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 농촌지역 정주여건 개선

- 농촌지역은 인구감소 및 과소화로 인하여 기초생활편익이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농촌지역 주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 의료, 문화, 체육 등 농촌지역 소도읍의 중심기능 확충
 - 노인,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복지 개선
- 도로, 통신 등 기반시설의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개선과 농촌지역의 인구분포 변화를 고려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농촌지역 소도읍 개발전략 추진

■ 연계체계 구축으로 지역 상생발전 도모

-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지역발전 추진
 - 인구와 자원이 집중된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과 연계체계를 강화하여 도시민의 유치, 도시권의 과학기술 이전 등을 활성화하여 주변지역의 발전 촉진
- 도농연계·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 및 민간 간 다양한 협력체계 구축

- 지자체간 공통자원 또는 상호보완적 자원을 활용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계·협력 발전전략의 공동추진
- 민간협력협약 등을 통한 도시민과 주변지역 마을 간 교류 활성화

4. 세부 추진과제

■ 특화지연산업 육성

- 전라북도 동부권 및 서남부권 등 주변지역의 시·군별 특화지연산업 육성 지원
 - 1시군1프로젝트사업,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육성사업,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 등 주변지역 시·군별 특화지연산업 육성 지원
 - 농식품 6차 산업화를 통해 특화지연산업의 복합산업화
- 특화지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활성화 지원
 - 순창 장류연구소, 임실 치즈과학연구소, 진안 홍삼연구소 등 지역연구소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기관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 지원
 - 시·군 특화지연산업과 관련 연구기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원

■ 고부가가치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FTA 대응 농축산업 육성
 -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하여 지역 농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역단위 특화 작목 육성
 -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기술 구축 및 농업 경영능력 제고, 후계농업인력 확보, 산지유통 활성화 등 지원기반 구축
-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지구 지정 확대 및 친환경 농자재 등 친환경 자원순환농업 영농기반 구축 지원
 - 친환경로컬푸드단지 육성, 로컬푸드 빌리지 조성, 로컬푸드 스테이션 조성 및 사업체 육성 등 친환경 농축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기후변화에 대응한 고소득 농축산물 개발 및 보급, 영농기술개발 및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 강화

■ 소도읍 육성과 정주기반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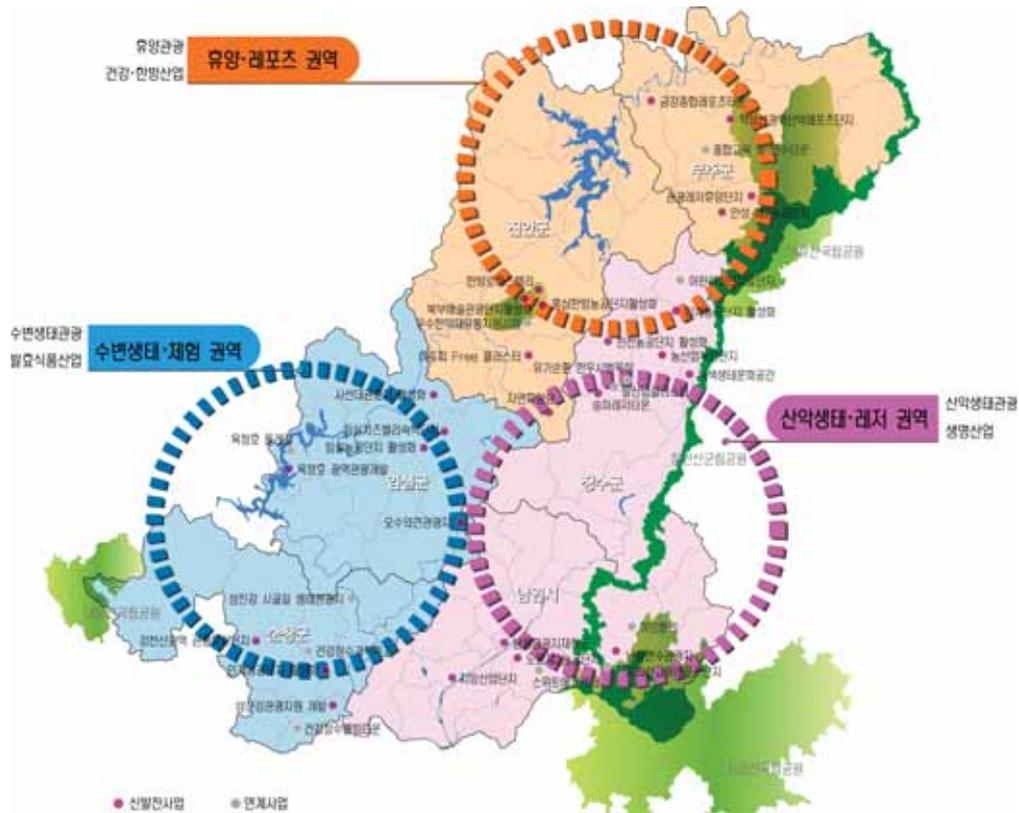
- 인구과소화에 따라 쇠퇴하고 있는 농촌지역 소도읍의 기초생활편익기능 확충
 - 읍면종합정비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거점면 중심마을 개발사업 등 추진으로 농촌지역 소도시 육성
- 마을단위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개선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촌생활활력화사업, 슬로시티구축사업, 마을만들기통합축제 등 추진

■ 동부권 특화·발전 지원

- 상대적으로 낙후된 남원,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등 동부권을 계획적으로 개발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라북도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동부권 발전사업 지원
- 동부권 시군의 공간적 연속성 및 장소성, 부존자원을 특화·발전시켜 지역발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권역별 특화·발전전략 추진
 - 남원시와 장수군 중심의 산악생태-레저권역, 진안군과 무주군 중심의 휴양레저권역, 임실군과 순창군 중심의 수변생태-체험권역으로 구분
 - 각 권역은 크게 자원 기반의 관광과 지역연고 자원을 중심으로 한 산업화 전략을 추진

〈표 3-11〉 동부권 권역별 특화·발전전략 기본구상

권역	시군	기본구상		자원
		관광	산업	
산악생태-레저권역	남원·장수	산악생태관광	생명산업	지리산, 덕유산, 금강 농업 LED, 유전자뱅크
휴양-레포츠권역	진안·무주	휴양관광	건강·한방산업	금강, 용담호 홍삼·한방, 천마, 머루
수변생태-체험권역	임실·순창	수변생태관광	발효식품산업	섬진강, 옥정호 치즈, 장류



〈그림 3-6〉 동부권 권역별 특화·발전전략 구성(안)

- 시·군별 특화산업 육성으로 동부권 발전을 선도
 - 남원 연수관광지, 무주 태권도공원, 진안 홍삼·한방클러스터, 장수 말산업 클러스터, 임실 치즈밸리 클러스터, 순창 장류밸리 클러스터 등 지역의 특화
- 동부권과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과의 연계성 강화
 -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 새만금~김천간 철도 등 광역적 교통인프라 구축
 - 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의 시설개량 및 확포장, 선형개량 등 지역 내 간선교통체계 및 생활권 도로 재정비
- 연계체계 구축을 통한 지역발전 시너지 창출
 - 광역클러스터사업 등 전라북도 및 14개 시·군 지자체 간 지역발전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을 추진
 - 녹색농촌체험마을조성, 산촌생태마을조성 등 도시민 유치를 통한 주변지역 활성화 사업 지원을 위한 공공 및 민간 부문의 기관, 기업 등과 농촌지역 마을간 상생발전협약 체결 지원

- 특화지연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 주변지역 사·군의 특화지연산업 육성을 위해 설립된 순창장류연구소, 진안홍삼연구소, 임실치즈과학연구소 등 지역연구소와 전주새만금 중추도시권의 주요 연구기관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 주변지역과 전북혁신도시 내 농촌진흥청 및 한국식품연구소 등 관련 연구기관간 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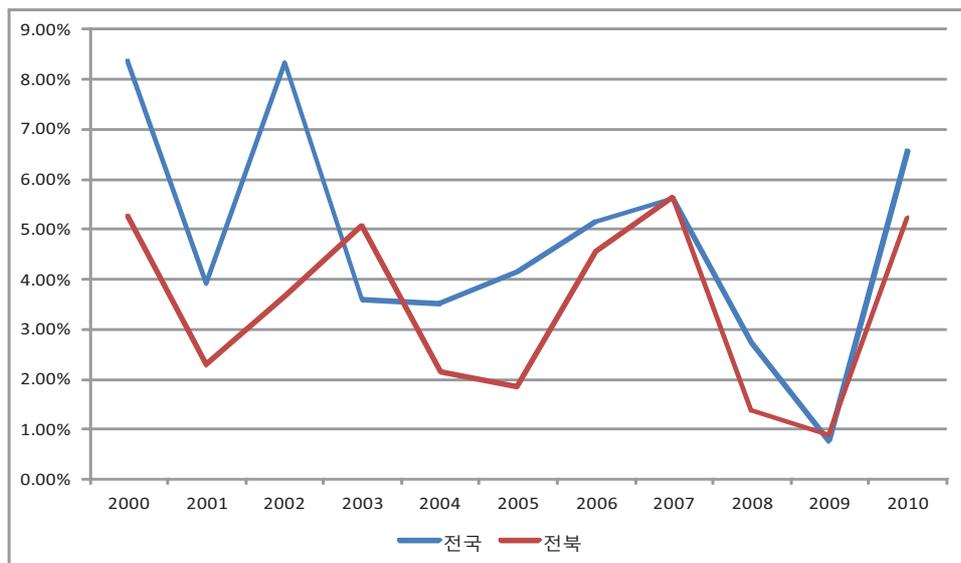
제3장 신성장동력산업 육성과 산업구조 고도화

제1절 지역경제를 선도하는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2000년대 중반 이후 제조업 성장세 지속

- 전북의 경제성장은 전국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진
 - 2010년 기준 전북의 지역내총생산(GRDP)은 약 35.1조원(경상가격 기준) 규모이며, 경제성장률은 전년대비 5.23%p로 성장함
 - 2000년부터 2010년까지 전북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3.44%로 제시됨(전국은 4.79%)
 - 2000년 이후 전북의 경제성장률은 전국 평균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음



자료: 통계청, KOSIS

〈그림 3-7〉 전북의 경제성장률 추이

- 지역의 경제성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최근 제조업은 성장 추세
 - 2010년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에서 제조업은 회복세, 농림어업과 건설업은 하향세
 - 2010년 제조업의 지역내총생산은 전년대비 22.24%p 성장하였으며, 특히 제조업과 함께 기타 산업의 성장세가 두드러짐. 이는 전년도의 하락세로 인해 상대적으로 성장세가 높게 나타난 이유도 있겠으나, 투자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따른 효과로 분석할 수 있음

제 3 편 부문별 추진계획

- 특히 제조업은 글로벌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2008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최근 군산과 전주지역의 대규모 투자로 인해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고 있음
- 반면에 농림어업은 9.43%, 건설업은 8.12%의 마이너스 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남

〈표 3-12〉 전라북도 지역내총생산 및 경제성장률

(단위: 십억원,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지역내총생산(명목)	24,548	25,221	26,488	28,586	29,471	31,855	34,547
경제성장률(실질)	2.14	1.84	4.54	5.63	1.35	0.86	5.23
농림어업	13.10	-5.15	3.49	3.34	7.85	14.78	-9.43
제조업	8.76	3.77	5.68	6.76	0.52	-4.65	22.24
건설업	-10.83	10.30	13.11	-0.38	4.42	0.77	-8.12
서비스업	0.61	1.97	3.03	4.80	2.76	1.41	3.87
기타 ¹⁾	-0.89	2.85	0.84	-4.41	1.04	-9.08	9.72

1) 기타: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등
 자료: 통계청, KOSIS

-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의 특징으로 2차 산업 비중이 높아지고 있음
 - 2010년 전북의 산업구조는 서비스업(건설업 제외)이 53.2%, 제조업이 28.9%, 농림어업이 8.2%로 분석됨
 - 전체적으로 서비스업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며, 농림어업의 비중은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으나 여전히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 2006년 이후부터는 제조업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특히 2010년도에는 전체 산업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년도보다 약 3.3%p가 증가하였음

〈표 3-13〉 전라북도 산업구조(생산액 기준)

(단위: %)

구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
농림어업	12.9	11.0	10.5	10.1	9.1	9.8	8.2
제조업	22.4	22.8	22.5	23.0	23.4	25.6	28.9
건설업	8.5	9.2	10.0	9.7	9.8	9.3	8.1
서비스업	54.1	54.9	55.0	55.3	56.1	53.8	53.2
기타 ¹⁾	2.1	2.1	2.0	1.9	1.5	1.5	1.7
총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기타: 광업, 전기가스수도업 등
 자료: 통계청, KOSIS

■ 전체 제조업 중 노동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은 반면 노동생산성은 부족

- 2009년 전북의 제조업체는 총 1,593개소의 사업체에 73,721명이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전북의 제조업은 고용측면에서는 전국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출하액과 부가가치는 낮은 것으로 분석됨
 - 따라서 전북의 제조업은 노동집약형이면서 노동생산성이 낮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생산기반이 취약
 - 지역별로는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 완주군에 전북 제조업체의 69%가 입지하고 있으며, 종사자수는 78%, 출하액은 85%, 그리고 부가가치의 86%가 집중

(표 3-14) 전라북도 제조업 현황

(단위: 개소, 명, 십억원, %)

구분	사업체	종사자수	출하액	부가가치	업체당		
					종업원	출하액	부가가치
전국	57,996	2,452,880	1,122,987	374,501	100.0	100.0	100.0
전라북도	1,593	73,721	30,144	10,173	109.4	97.7	98.9
전주시	214	7,393	2,986	941	81.7	72.1	68.1
군산시	408	21,460	11,004	3,696	124.4	139.3	140.3
익산시	336	16,178	5,783	1,920	113.8	88.9	88.5
정읍시	121	4,618	1,457	414	90.2	62.2	53.0
남원시	57	2,037	402	125	84.5	36.4	34.1
김제시	163	5,284	1,751	504	76.6	55.5	47.8
완주군	149	12,724	5,705	2,211	201.9	197.7	229.8
진안군	15	411	61	22	64.8	20.9	23.0
무주군	5	131	25	8	61.9	25.5	24.7
장수군	13	438	60	31	79.7	23.8	36.6
임실군	17	728	211	84	101.3	64.1	76.7
순창군	21	492	162	39	55.4	39.9	28.4
고창군	34	884	308	110	61.5	46.8	49.9
부안군	40	943	229	68	55.7	29.6	26.5

자료: 통계청, KOSIS(10인 이상 사업장 기준)

■ 현재 전라북도 제조업의 주요 핵심산업은 음식료와 자동차 산업

- 전북은 음식료품, 목재 및 나무제품,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비금속 광물제품,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이 타 업종에 비해 전국대비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북은 전체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으며, 주요 핵심산업으로 식품산업과 자동차산업 등이 있음

제 3 편 부문별 추진계획

- 전북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식료품(15.6%), 자동차 및 트레일러(11.7%) 그리고 금속가공제품(10.7%)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종사자수 기준으로 자동차 및 트레일러(21.0%), 식료품(15.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9.1%)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15〉 제조업 업종별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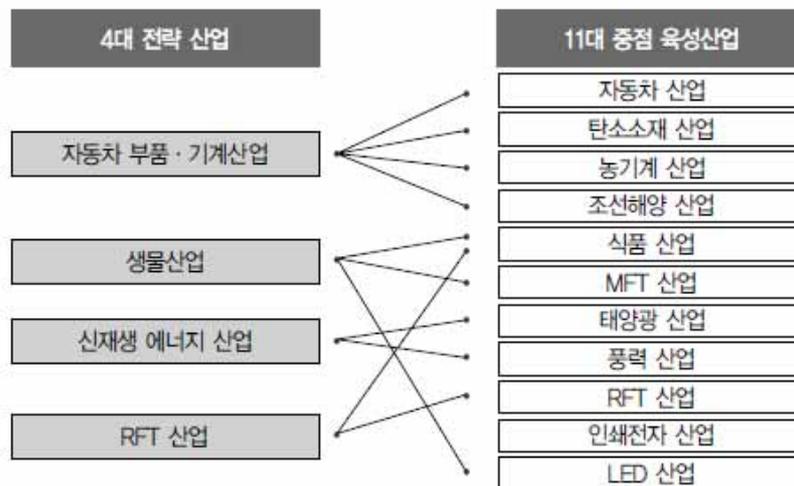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국				전북				전북/전국	
	사업체		종업원		사업체		종업원			
	개소	비중	명	비중	개소	비중	명	비중	사업체	종업원
제조업계	57,996	100.0	2,452,880	100.0	1,593	100.0	73,721	100.0	2.7	3.0
식료품	3,916	6.8	153,429	6.3	248	15.6	11,377	15.4	63	74
음료	253	0.4	13,109	0.5	25	1.6	1,288	1.7	99	98
담배	10	0.0	2,736	0.1	0	0.0	0	0.0	0.0	0.0
섬유제품	3,050	5.3	88,963	3.6	53	3.3	2,362	3.2	17	27
의복 의류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2,801	4.8	79,340	3.2	134	8.4	3,066	4.2	4.8	3.9
가족 가방 및 신발	726	1.3	19,106	0.8	2	0.1	0.3	...
목재 및 나무제품(가구제외)	777	1.3	16,998	0.7	50	3.1	992	1.3	64	58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1,472	2.5	48,198	2.0	47	3.0	2,462	3.3	3.2	5.1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1,354	2.3	30,927	1.3	12	0.8	208	0.3	0.9	0.7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130	0.2	10,487	0.4	4	0.3	53	0.1	3.1	0.5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의약품 제외)	2,305	4.0	99,219	4.0	102	6.4	6,672	9.1	4.4	6.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416	0.7	29,128	1.2	12	0.8	754	1.0	2.9	2.6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4,888	8.4	171,176	7.0	88	5.5	2,780	3.8	1.8	1.6
비금속 광물제품	2,311	4.0	78,694	3.2	147	9.2	4,612	6.3	6.4	5.9
1차 금속	2,344	4.0	119,974	4.9	56	3.5	3,901	5.3	2.4	3.3
금속가공제품(기계 및 가구 제외)	7,985	13.7	223,511	9.1	171	10.7	5,199	7.1	2.2	2.3
전자제품 컴퓨터 영상 음향및통신장비	3,652	6.3	360,166	14.7	28	1.8	3,600	4.9	0.8	1.0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1,727	3.0	56,601	2.3	9	0.6	201	0.3	0.5	0.4
전자장비	3,571	6.2	143,989	5.9	46	2.9	1,652	2.2	1.3	1.1
기타 기계 및 장비	7,852	13.5	253,546	10.3	115	7.2	4,210	5.7	1.5	1.7
자동차 및 트레일러	3,019	5.2	250,089	10.2	187	11.7	15,497	21.0	6.2	6.2
기타 운송장비	1,315	2.3	148,216	6.0	18	1.1	1,590	2.2	1.4	1.1
가구	1,256	2.2	33,274	1.4	21	1.3	672	0.9	1.7	2.0
기타 제품	916	1.6	22,044	0.9	18	1.1	489	0.7	2.0	2.2

... : 사업체수가 2개 이하인 업종의 종업원수는 업체의 정보보호를 위하여 미공개
 자료: 통계청, KOSIS

■ 전략산업이 제조업 발전을 주도

- 정부의 산업정책 동향, 대기업의 전북투자, 새만금 개발계획 등과 연계하여 전북은 4대 전략산업과 11개 산업클러스터를 선정하여 집중 육성
 - 4대 전략산업은 자동차부품·기계산업, 생물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방사선융합기술(RFT)산업
 - 11개 산업 클러스터는 4대 전략산업의 세부분야 또는 연관산업으로 자동차산업, 탄소소재산업, 농기계산업, 조선해양 산업, 식품산업, 발효미생물(MFT)산업, 태양광산업, 풍력산업, 방사선융합기술(RFT)산업, 인쇄전자산업, LED산업 등임
- 전라북도는 11개 산업클러스터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고도화 전략을 추진 중
 - 이들 11개 중점육성산업에 대하여 핵심기업 유치 및 R&D 기관 유치를 통해 산업별 클러스터 구축 및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3-8〉 전북의 4대 전략산업과 11대 산업클러스터 연계성

- 전북의 전략산업 종사자수 증가 및 산업 집중도 상승
 - 제조업 중 전략산업의 종사자는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평균 3.4% 증가하였으나, 비전략산업의 경우 연평균 4.1% 감소하였음
 - 전북 전체 제조업 중에서 전략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45.6%에서 2008년 60.5%로 증가하였음

■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육성과 추진성과

- 5+2 광역경제권 체제하에서 전북은 호남광역경제권에 포함되어 1단계 광역선도사업(2009~2011년)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와 친환경부품소재를 선도산업으로 육성하였음
 - 세부 프로젝트로 태양광, 풍력, 광융합, 자동차를 집중 육성하였음

- 지정부에 따르면 1단계 광역선도사업으로 고용 및 매출액 등에서의 성과가 제시되고 있음
 - 호남권의 경우 R&D 석박사인력 및 20~30대 청년 인력 고용 창출 효과로 2,897명(11년 9월 기준), 그린카 핵심 부품, 해양플랜트 등에서 1조 5,344억원의 매출과 9.77억불의 수출 성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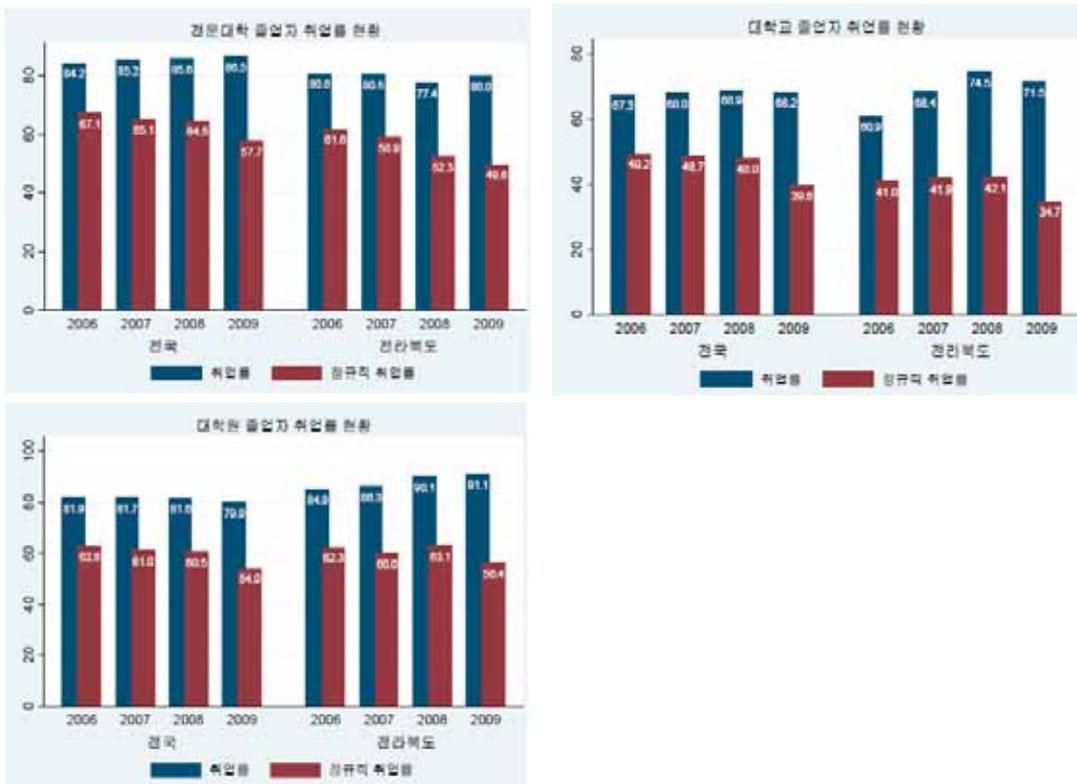


자료: 호남광역경제권선도산업지원단 홈페이지

〈그림 3-9〉 호남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및 프로젝트

■ 일자리 미스매치 등 노동수급 불균형 발생

- 전북은 노동집약형 산업의 비중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미스매치 등의 노동수급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 전북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취업 상태를 비교해 볼 때 비정규직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전국에 비해 낮은 수준인 전라북도 전문대 졸업자의 정규직 취업을 비중은 시간이 지날수록 급속히 감소하고 있음
 - 대학교 졸업자의 경우 취업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정규직 취업률과 비교해 볼 때 전라북도 대학교 졸업자의 비정규직 취업률이 증가
 - 전라북도의 대학원 졸업자 역시 2006년 22.6%였던 비정규직 취업률이 2009년 44.7%로 증가하여 대학교 졸업자와 마찬가지로 비정규직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그림 3-10〉 전북의 전문대 이상 졸업자의 취업률 현황

■ 투자 활성화에 따른 용지 및 산업기반시설 공급 부족

- 2011년 현재 전북 산업단지의 산업시설 부지 면적은 53.1km²이며, 이 중 미분양 면적은 1.6km²임
 - 전북지역에는 국가산단 3개소, 일반산단 20개소, 도시첨단산단 1개소, 농공산단 51개소 등 총 75개소의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음
 - 산업단지의 분양률은 95.9%로 전국(97%)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이는 최근 추가 조성된 일반산단의 분양률이 낮기 때문임
 - 그러나 최근 기초성된 일반산단의 경우도 분양률이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어, 전북지역 내 산업용지에 대한 수요규모가 크을 알 수 있음
- 단기적으로 볼 때 산업부문에 대한 투자 유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산업용지의 추가 공급이 필요
 - 장기적인 수요는 새만금 개발 등을 통해 산업용지 공급이 계획되어 있으나, 새만금 사업이 완료되기 이전인 3~5년내 산업용지 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

〈표 3-16〉 전북 산업단지 현황

(단위: 개소, 천㎡, %)

구분	유형	단지수	지정면적	관리면적	산업시설구역				
					전체면적	분양대상	분양	미분양	분양률
전국	국가	40	802,778	555,021	281,269	251,471	250,211	1,260	99.5
	일반	461	474,752	470,770	284,327	154,116	143,575	10,541	93.2
	도시첨단	7	1,877	1,877	925	151	81	70	53.6
	농공	429	68,742	68,233	52,906	46,925	45,313	1,612	96.6
	합계	937	1,348,149	1,095,901	619,427	452,663	439,180	13,483	97.0
전북	국가	3	65,587	22,831	16,278	16,278	16,271	7	100.0
	일반	20	49,012	49,009	29,809	16,306	14,971	1,335	91.8
	도시첨단	1	110	110	39	39	39	-	100.0
	농공	51	8,903	8,880	7,019	6,071	5,837	234	96.2
	합계	75	123,612	80,830	53,145	38,694	37,118	1,576	95.9

자료: 지식경제부,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11년 3분기.

■ 중국, 러시아 등 일부 특정국가에 대한 수출편중 지속

- 2005년 이후 전라북도의 수출과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단 2009년도에는 전세계적인 금융위기 등으로 수출입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2010년 수출이 크게 증가하여 전라북도의 무역수지는 최대의 흑자를 기록

〈표 3-17〉 전북 수출입 현황

(단위: 백만불, %)

구분	수출		수입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2005년	4,851	14.8	2,456	-2.6
2006년	5,471	12.8	2,548	3.7
2007년	6,354	16.1	3,063	20.2
2008년	6,842	7.7	4,104	34.0
2009년	6,032	-11.8	3,194	-22.2
2010년	10,505	74.1	4,134	29.4

자료: 한국무역협회

- 전북의 최대수출국은 중국이며, 대부분의 수출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동아시아권의 주변국가에 집중
 - 수출규모를 볼 때, 2011년 현재 중국, 러시아, 대만, 일본 등 주변지역에 대한 수출이 높게 나타남
 - 전년대비 증가율로는 러시아, 대만, 베트남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높았으며, 미국과 브라질 등 비아시아권의 일부국가에 대한 증가율이 소폭 증가되고 있음

〈표 3-18〉 전라북도 주요 국가별 수출실적 (2011년)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1	중 국	1,688,617	27.4
2	러시아	1,101,505	76.4
3	대 만	781,695	54.4
4	미 국	627,010	44.0
5	일 본	619,616	35.7
6	독 일	550,920	-7.3
7	인 도	352,871	4.3
8	베트남	347,680	40.0
9	브라질	333,305	344.4
10	호 주	314,351	-30.0

자료: 무역통계포털(<http://www.kita.net>)

〈표 3-19〉 전라북도 주요 품목별 수출실적 (2011년)

(단위 : 천달러, %)

순위	품목명	금액	전년대비 증가율
1	자동차	3,765,182	18.8
2	정밀화학원료	1,686,626	46.2
3	자동차부품	1,558,196	25.7
4	반도체	836,084	-2.6
5	합성수지	783,624	15.2
6	선박해양구조물 및 부품	581,833	-27.5
7	종이제품	351,833	15.7
8	건설광산기계	321,684	222.1
9	인조섬유	285,657	24.0
10	선재봉강및철근	285,087	74.4

주: MTI 3단위 기준

자료: 무역통계포털(<http://www.kita.net>)

- 주요수출품으로 자동차, 자동차부품, 정밀화학원료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전북의 주요 수출품 중 자동차와 자동차부품 등 자동차 관련 품목의 비중이 높아 해외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따라 전북의 무역수지는 크게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전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태양광 산업분야에서의 수출 확대로 정밀화학원료의 수출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타 지역에 비해 외자유치 규모 열세

- 전라북도의 2010년 외자유치 실적은 2009년 대비 1.13%p 증가한 총 25건, 약 28만달러로 나타남
 - 2010년 전북의 외자유치 실적은 16개 시도 가운데 건수로는 12위, 금액으로는 11위에 해당하여 광역지자체 중에서도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3-20〉 지자체별 외국인 투자유치 실적(신고기준)

(단위 : 천달러, %)

구분	2009년		2010년		증감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전체	3,131	11,484	3,108	13,072	1.14
수도권	2,223	6,640	2,134	4,856	0.73
서울특별시	1,305	4,397	1,313	2,678	0.61
경기도	610	1,323	573	1,664	1.26
인천광역시	308	920	248	514	0.56
비수도권	591	3,949	616	5,707	1.45
부산광역시	117	156	118	253	1.62
대구광역시	70	42	83	71	1.69
광주광역시	24	7	33	75	10.71
대전광역시	32	204	21	359	1.76
울산광역시	19	447	23	243	0.54
강원도	16	24	21	50	2.08
충청북도	48	853	39	200	0.23
충청남도	66	209	70	667	3.19
전라북도	17	244	25	276	1.13
전라남도	37	499	36	219	0.44
경상북도	36	446	54	2,706	6.07
경상남도	98	296	79	197	0.67
제주도	11	421	14	390	0.93
미정	317	895	358	2,509	2.80

자료: 지식경제부, 외국인직접투자 동향

2. 여건변화와 전망

■ FTA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지역내 산업구조 변화

- FTA의 가속화: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무역패러다임의 변화
 - 한EU, 한미 FTA 발효와 세계적인 경기침체 등 글로벌 환경변화는 전북의 경제 및 산업구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
 - FTA 등 교역환경의 변화로 전북은 농업분야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FTA 수

해산업에 대한 기반도 부족한 실정으로 FTA로 인해 지역경제 전반에 걸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

- 따라서 이와 같은 글로벌 환경변화는 전북의 산업구조를 변화시키는 큰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며, 전라북도 주력산업 및 특화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는 지역경제와 직결되어 중요성이 높아질 것임

■ IT·BT 등 신기술 활성화 및 산업간 융·복합의 가속화

- 세계경제의 흐름은 기존 IT 산업과 함께 BT 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IT 산업의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BT 등 신기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기술간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창출의 확대에 의해 산업간의 융·복합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융·복합산업 중에서도 향후 시장 전망이 매우 우수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업종을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칭하고 이를 적극 육성하려고 하고 있음

3대분야	17대 신성장동력
녹색기술산업(6)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에너지, 고도 물처리, LED 응용, 그린수송시스템, 첨단 그린도시
첨단융합산업(6)	방송통신융합산업, IT융합시스템, 로봇 응용, 신소재·나노 융합, 바이오제약(자원)·의료기기, 고부가 식품산업
고부가서비스산업(5)	글로벌 헬스케어, 글로벌 교육서비스, 녹색금융, 콘텐츠·소프트웨어, MICE·관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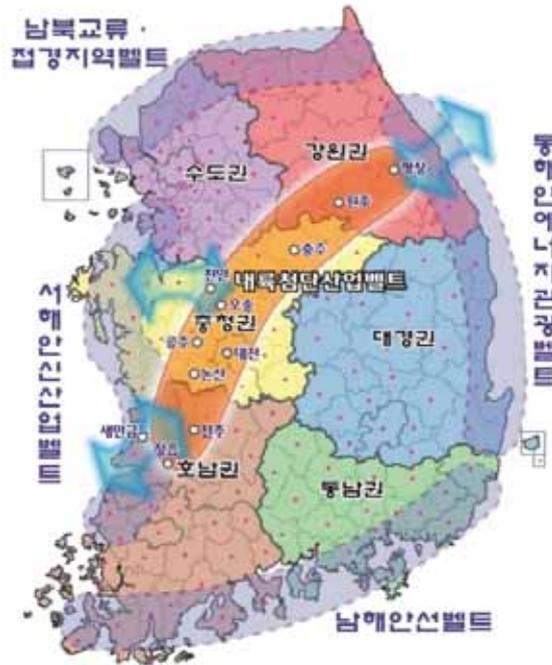
■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및 노동수급 불균형 발생

- 저출산 고령화에 따라 기능성 식품, 헬스케어 등 새로운 산업이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경제활동인구의 감소는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우리나라는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인구의 7%를 넘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함. 앞으로 2026년에는 노인인구의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도달할 전망이 나오고 있음
 - 노년층의 비대화로 경제활동인구의 규모와 비중 감소로 경제활력 저하, 환경변화에 대한 적응력 및 노동생산성 저하로 경제성장을 둔화시킬 것임

■ 새만금 중심의 해안산업벨트와 내륙지역의 첨단산업벨트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초광역 산업벨트 형성

- 전북은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서해안 신산업벨트의 중심지로서 그리고 녹색기반 첨단산업 중심의 내륙첨단산업벨트의 추진으로 초광역 산업벨트를 형성하게 됨

- 지난 2008년 12월부터 본격 추진된 내륙첨단산업벨트 발전계획은 기존 5+2광역경제권의 한계인 지역 간 폐쇄성을 극복하고 광역자치단체 간 연계된 특화사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 내륙첨단산업벨트는 원주-충주-오송-세종-대덕-전주 구간을 포괄하여 과학기술, 신성장산업 거점과 관광지대로 육성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KTX 고속화, 새만금 신항 및 국제공항 등으로 광역 접근성 향상

- 호남, 전라 KTX의 고속화에 따라 전라북도의 광역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새만금 신항 및 국제공항 건설을 통해 국제적인 물류, 여객 인프라가 확충될 예정임
 - 호남 고속철도는 2014년 완공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고속화가 진행될 예정임
 - 또한 새로운 물류거점으로서 새만금 신항만이 2020년 1단계 사업이 완료되어 4선석 부두와 3.1km의 방파제가 건설될 예정이며,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이와 같은 접근성의 향상은 지역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빨대효과에 대한 우려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 중국 경제성장에 따른 세계 경제의 주도권 변화

- 중국은 미국과 함께 G2로 성장할 만큼 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하였음
 - 중국의 성장과 함께 미국과 유럽을 중심의 기존 세계경제 구조가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있음
- 세계경제에서 신흥국의 성장과 함께 G20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음

- G7의 인구는 약 7.3억명이며, GDP는 30.8조달러의 규모이나, G20으로 확대할 경우 인구는 44.3억명, GDP는 50.8조달러에 이릅니다
- 따라서 기존 선진국 중심의 세계경제 흐름에 있어 신흥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첨단지식산업의 성장으로 인한 차별화된 입지여건 조성 요구**

- 기술의 융·복합과 첨단 고부가가치산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기업이 고려하는 입지여건도 변화되고 있음
 - 기존 중화학 및 중공업 중심의 산업수요에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가 전환됨에 따라 기업 및 산업 입지를 결정하는데 있어 주요 요인에 대한 우선순위가 변화될 것임
 - 특히 R&D기관과 교육시설과의 연계와 같은 지식네트워크의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며, '삶의 질' 측면에서 노동환경의 질적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게 될 것임

■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추진에 따른 전북 산업의 역량 및 경쟁력 강화 필요**

- 2단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2012~2014년)으로 호남 광역경제권은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수송기계 등 4개의 미래성장동력산업을 선정하였음
 - 세부적으로 태양광 소재, 풍력시스템·모듈,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바이오식품, 바이오합성소재, 친환경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선박 등 8개 프로젝트를 선정함

(표 3-21) 2단계 호남광역경제권 선도사업(2012~2014년)

선도산업	신재생에너지		라이프케어		광융복합		친환경 수송기계	
	태양광(소재)	풍력시스템·모듈	바이오식품	바이오활성소재	광부품 및 시스템	신광원조명	친환경 차량 및 부품	그린·레저선박
프로젝트								

■ **노후화된 산업단지의 개선 필요성 증가**

- 70~80년대 조성되어 시설이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개선이 필요함
 - 전라북도 내의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의 대부분이 조성된지 20~30년이 넘어 산단 및 주변환경의 노후화로 인해 기업활동 및 고용에 있어서도 장애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있음
 - 노후화된 산단에 대한 환경개선의 필요성은 인력수급 및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와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

강점	약점
제조업 비중의 증가 녹색산업 기반 확충	노동생산성 부족 첨단제조업 생산기반 취약 노동수급 불균형 특정품목에 대한 수출편중 및 외자유치 열세
기회	위협
산업간 융·복합 가속화 내륙첨단산업벨트 등 새로운 초광역산업벨트 해외 및 광역 접근성 향상 중국 경제성장 새로운 입지 여건 충족 가능성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경제구조 변화 산업용지 공급부족 노후화된 산업단지

3. 계획의 기본방향

- **지역 신성장동력으로서 첨단산업 육성**
 -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첨단산업 육성을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 중심의 산업구조 개편 및 경쟁력 강화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경제 선도
- **클러스터 중심의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생산기반 및 R&D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 협력체계가 공간적으로 집적된 클러스터 구축
-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을 통한 산업구조의 고도화 및 일자리 창출**
 - 산업구조 및 일자리 수급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산업인력 양성
 - 산업인력의 재교육을 위한 인프라 확대를 통해 노동의 질과 생산성 향상 도모
- **기업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산업단지 확보 및 QWL 향상을 위한 산업단지 환경개선**
 - 탄소밸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의 조기 완공 및 지역 내 산업용지 수요에 대응하여 원활한 용지 공급을 통해 지역 내 투자유치 확대
 - 지역 내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개선을 통해 생산환경 및 노동자의 근로 여건 개선 도모
- **산업육성을 위한 정보, 기술개발, 인력 중심의 지원체계 강화**
 - 지역 내 산학연관 연계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 기술개발

그리고 인력양성 등에 있어 상호 협력 확대

- 기업 및 산업지원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 구축

4. 세부 추진과제

■ 녹색산업과 첨단산업 중심의 지역 전략산업 융·복합화

-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산업기술 개발 및 저영향 시설 구축을 위한 지원
- 건설기계와 농기계, 상용차, 선박 등 전라북도 선도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시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그린기술 도입
- 전주와 완주를 중심으로 탄소밸리 구축을 위한 인프라 조성과 탄소섬유 기반의 초고강도 섬유복합재, 해양스포츠 레저 장비, 경항공기 등 개발
-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위한 지원 항만 및 배후단지와 에너지저장시스템 기술을 개발하고, 해상 및 준해상풍력 클러스터와의 연계 추진
- IT와 BT 등 타 산업과의 연관관계가 높고 융·복합이 용이한 첨단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활용하여 바이오화학, 터치 융·복합, 인쇄전자 등 새로운 성장동력산업 발굴
- LED 산업 기술개발 지원 및 산업간 융·복합을 통해 식물공장 등 첨단산업과 농생명 분야 융합기술개발 지원 및 에너지절약 및 효율극대화를 위한 응용기술 개발

■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산업용지 적기 공급 추진

- 신성장동력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지역경제 선도기업의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와 기반시설의 적기 공급 추진
- 전문생산기업 집중적인 육성, 부품·소재 업체 및 뿌리산업 관련 전문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공급기반 확대
- 표준공장 도입으로 저렴한 공장 임대료와 공장 신축기간 단축하여 외국자본 투자 및 수출 전문기업의 조기 투자 촉진
- 군산-새만금산학융합지구 조성 등 기존 노후 산업단지의 QWL 향상을 위한 사업 추진 및 비즈니스 지원

■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맞춤형 인력양성

- 기존 전략산업 중심의 산학관 커플링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적용 분야와 규모를 확대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적극 활용
- 청년층에게 기능인으로서의 직업선택 기회를 넓혀주고, 지역경제 성장에 필요한 산업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교육지원 강화

■ 클러스터 구축 및 구조개선을 통한 지역 전략산업 활성화와 R&D 인프라 확충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 시험 분석과 성능검사, 신뢰성 검증 및 실증테스트 설비 집적
- RFT, MFT, 플라즈마 등 시장선점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 연구개발 지원 및 설비 확충을 통해 관련 기업 입지 유도
- 공동연구개발, 기술인력의 교육·훈련, 산업기술정보교류, 신기술보육 및 창업, 시험생산, 지원 등 기업·대학·연구소의 인적·물적 자원을 집적하여 기술개발 및 사업화 촉진
- 관련 업체 상호간 교류, 학계와 업체간 교류 등을 통한 기술정보 공유 활성화와 산·학 공동 연구를 통한 기술의 기반구축 활성화와 기업의 기술 수준 향상

■ 수출기업에 대한 글로벌 마케팅 지원 확대 및 외자유치 확대 지원 강화

- 한국무역협회, KOTRA 등과의 협력을 통해 도내 수출입 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 제공 및 컨설팅을 통한 마케팅 지원
- FTA에 대응하기 위한 수출입 국가별 관세 및 원산지 표기 등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잠재 외투기업의 실질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적극적 홍보 체계 구축 및 지속적 관리 노력
- 지역 내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사후관리 및 지속적인 지원을 통한 신규 투자확대 유도 및 지역 기업화 방안 검토

제2절 지역주도 수요대응형 서비스업 육성

1. 현황 및 문제점

■ 서비스업 비중의 정체로 인해 선진형 산업구조로의 변화 어려움

- 전라북도는 인구정체와 서비스업 기반 부족 등으로 인해 서비스업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
 - 전북은 2004년 이후 전체 산업 중 서비스업(건설업 제외)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55% 수준으로 나타남
 - 연도별로는 2008년 서비스업 비중이 56.1%로 가장 높았으나, 도내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기업유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상대적으로 제조업의 비중이 증가하여 2010년도에는 53.2%로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낮아졌음

■ 소규모 영세사업체 중심의 서비스산업 구조

(표 3-22) 서비스업 업종별 구성(2009년)

(단위: 개소, 명, %)

구분	전국				전북				전북/전국	
	사업체		종업원		사업체		종업원		업체	종업원
	개소	비중	명	비중	개소	비중	명	비중		
서비스업계	2,969,042	100.0	13,502,167	100.0	112,936	100.0	448,412	100.0	3.8	3.3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	1,474	0.0	67,661	0.5	125	0.1	3,337	0.7	8.5	4.9
하수·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5,038	0.2	65,576	0.5	235	0.2	2,868	0.6	4.7	4.4
건설업	94,716	3.2	894,504	6.6	3,578	3.2	30,445	6.8	3.8	3.4
도매 및 소매	861,736	29.0	2,626,339	19.5	34,099	30.2	85,019	19.0	4.0	3.2
운수	344,071	11.6	972,831	7.2	12,156	10.8	29,008	6.5	3.5	3.0
숙박 및 음식점	628,078	21.2	1,757,715	13.0	22,029	19.5	58,303	13.0	3.5	3.3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24,178	0.8	429,109	3.2	596	0.5	7,222	1.6	2.5	1.7
금융 및 보험	38,341	1.3	682,428	5.1	1,529	1.4	23,339	5.2	4.0	3.4
부동산업 및 임대	125,804	4.2	444,185	3.3	3,159	2.8	10,194	2.3	2.5	2.3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	67,558	2.3	728,398	5.4	1,812	1.6	9,947	2.2	2.7	1.4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	32,812	1.1	694,417	5.1	1,038	0.9	14,769	3.3	3.2	2.1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1,768	0.4	659,265	4.9	889	0.8	31,382	7.0	7.6	4.8
교육 서비스업	162,454	5.5	1,358,311	10.1	6,983	6.2	55,319	12.3	4.3	4.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	98,976	3.3	972,196	7.2	4,409	3.9	45,129	10.1	4.5	4.6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	102,697	3.5	323,404	2.4	3,433	3.0	10,433	2.3	3.3	3.2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	369,341	12.4	825,828	6.1	16,866	14.9	31,698	7.1	4.6	3.8

자료: 통계청, KOSIS.

제 3 편 부문별 추진계획

- 2009년 전북의 서비스업 사업체는 112,936개소, 종사자는 448,412명으로 각각 전국의 3.8%, 3.3%로 나타남
 - 전북은 사업체수 기준으로 도매 및 소매(30.2%), 숙박 및 음식점(19.5%) 그리고 협회및단체 수리 및 기타개인서비스(14.9%)의 순으로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종사자수 기준으로도 도매 및 소매(19.0%), 숙박 및 음식점(13.0%), 교육 서비스업(12.3%)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전북의 서비스업은 상대적으로 영세하고 산업간 연계가 상대적으로 낮은 도소매와 숙박 및 음식점을 중심으로 하고 있음

〈표 3-23〉 전라북도 서비스산업의 업종구조 변화 추이(1999~2008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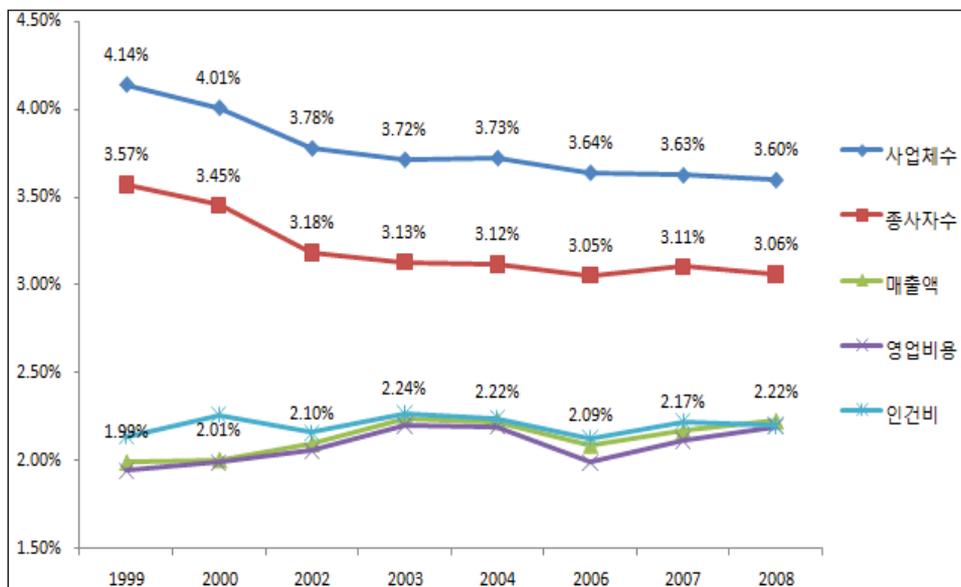
구 분	1999년	2000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체수	도매 및 소매업	51.2	51.0	50.7	50.1	46.9	47.4	46.2	45.4
	숙박업	2.2	2.3	2.3	2.4	2.3	2.4	2.4	2.4
	음식 및 주점업	29.9	29.6	30.2	30.4	28.8	27.0	26.8	26.8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0.3	0.3	0.3	0.3	0.3	0.3	0.4	0.4
	부동산 및 임대	4.2	3.9	3.6	3.7	3.6	3.9	3.9	4.1
	전문·과학·기술	2.1	2.1	2.2	2.2	2.1	2.2	2.3	2.3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0.5	0.5	0.6	0.7	0.7	0.8	1.1	1.1
	교육	-	-	-	-	5.4	5.8	7.2	7.5
	보건 및 사회복지	3.6	3.9	3.9	4.1	4.0	4.7	5.2	5.6
	예술, 스포츠 및 여가	6.1	6.4	6.2	6.2	6.0	5.6	4.5	4.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종사자수	도매 및 소매업	45.0	44.5	43.4	42.4	38.8	38.0	36.0	34.6
	숙박업(관광숙박시설 운영업)	2.5	2.7	2.9	2.6	2.4	2.3	2.3	2.3
	음식 및 주점업	27.5	26.8	26.9	26.9	25.0	22.2	21.8	21.4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0.7	0.9	0.7	0.7	0.7	0.8	1.4	1.3
	부동산 및 임대	4.7	4.5	4.3	4.7	4.3	4.4	4.7	4.7
	전문·과학·기술	3.1	3.1	3.0	2.9	2.9	3.2	3.1	3.2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1.5	1.7	2.7	3.0	3.0	4.1	4.0	4.1
	교육	-	-	-	-	6.1	6.3	6.7	6.8
	보건 및 사회복지	10.1	10.7	11.2	11.8	11.7	14.1	16.1	17.4
	예술, 스포츠 및 여가	5.0	5.3	4.9	5.0	5.1	4.7	4.1	4.2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매출액	도매 및 소매업	65.3	65.5	71.8	71.1	68.5	67.1	67.1	66.5
	숙박업(관광숙박시설 운영업)	1.3	1.3	1.3	1.1	1.1	1.1	0.8	0.9
	음식 및 주점업	12.6	11.2	8.9	8.8	8.9	9.2	7.8	7.6
	출판영상방송통신 등	0.8	0.8	0.9	0.9	1.0	1.1	1.6	1.5
	부동산 및 임대	5.8	7.4	4.1	4.3	4.0	3.9	4.6	4.6
	전문·과학·기술	1.7	1.3	1.6	1.4	1.5	1.8	1.9	1.8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0.6	0.8	1.2	1.2	1.3	1.7	1.6	1.6
	교육	-	-	-	-	2.3	2.3	2.3	2.2
	보건 및 사회복지	9.4	9.4	8.4	8.6	8.8	9.5	10.4	11.2
	예술, 스포츠 및 여가	2.6	2.5	1.9	2.6	2.6	2.3	2.1	2.0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 기업·생산지원 및 사회서비스업 분야 취약

- 전라북도의 경우 2008년을 기준으로 전체 서비스업에서 도매 및 소매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사업체수에서 45.36%, 종사자수는 34.64%, 매출액으로는 66.51%를 차지하는 등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그 다음으로는 음식 및 주점업(사업체수 : 26.8%, 종사자수 : 21.4%, 매출액 : 7.6%), 교육 서비스업(사업체수 : 7.5%, 종사자수 : 6.8%, 매출액 : 2.8%),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사업체수 : 5.6%, 종사자수 : 17.4%, 매출액 : 11.2%)
- 전북의 생산자서비스(부동산 및 임대, 전문·과학·기술,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의 경우 사업체와 종사자수 비중은 증가하고 있지만, 매출액 비중은 정체되고 있음
 - 사업체수 비중(2000년: 6.6% → 2004년: 6.5% → 2008년: 7.5%)
 - 종사자수 비중(2000년: 9.3% → 2004년: 10.2% → 2008년: 12.0%)
 - 매출액 비중(2000년: 9.5% → 2004년: 6.9% → 2008년: 8.1%)

■ 지역 내 서비스업의 자립기반 부족

- 전북의 서비스업은 매출액 기준으로 지난 1999년 9.0조원(전국대비 1.99%)에서 2008년 22.5조원(2.22%)으로 양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음
 - 전라북도 서비스산업은 사업체수와 종사자수는 약간 상승하였으나, 전국대비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매출액 기준 전국대비 비중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그림 3-11〉 전라북도 서비스산업 전국대비 비중

■ 대규모 유통업체에 의한 지역 내 소규모 상권 잠식

- 전북에는 2011년 현재 총 64개소의 전통시장이 입지하고 있음
 - 전북의 전통시장은 시·군별로 군산시와 익산시에 가장 많은 개소가 있으며, 군지역 면단위 5일장은 지역인구 감소와 교통여건 향상 등에 따라 자연감소하고 있음
 - 특히 등록시장의 경우 2004년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상대적으로 인정시장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4〉 전라북도 전통시장 현황

(단위: 개소, %)

구분	계	비중	등록시장	인정시장	기타시장
전라북도	64	100.0	49	14	1
전주시	5	7.8	4	1	
군산시	8	12.5	5	3	
익산시	11	17.2	8	3	
정읍시	3	4.7	3		
남원시	4	6.3	1	2	1
김제시	4	6.3	1	3	
완주군	3	4.7	3		
진안군	1	1.6		1	
무주군	4	6.3	4		
장수군	4	6.3	4		
임실군	5	7.8	5		
순창군	3	4.7	3		
고창군	7	10.9	6	1	
부안군	2	3.1	2		

자료: 도정통계(2011.12.31 기준)

〈표 3-25〉 전라북도 금융기관 현황

(단위: 개소)

구분	합 계	한국은행	시중은행	지방은행	특수은행
전라북도	217	1	67	82	67
전주시	95	1	27	43	24
군산시	38		14	13	11
익산시	36		15	12	9
정읍시	9		3	2	4
남원시	7		3	1	3
김제시	5		2	1	2
완주군	5		2	3	
진안군	3			1	2
무주군	3			1	2
장수군	3			1	2
임실군	3			1	2
순창군	3			1	2
고창군	3			1	2
부안군	4		1	1	2

지방은행: 전북은행

특수은행: 기업은행, 농협, 수협, 산업은행 등

자료: 한국은행 전북본부(2011.5월말 기준)

■ 일부 지역으로의 인구집중에 따른 서비스업 수요의 양극화 발생

- 도시지역에 대한 인구집중으로 전라북도 내 시·군단위에서의 서비스업 수요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
- 2011년 현재 전북에는 217개소의 은행이 입지하고 있음
 - 전북의 금융기관은 대부분 전주시, 군산시, 익산시에 집중되어 있음
 - 전북은행과 같은 지방은행이 2004년도에 비해 개소를 증설하여 각 시·군별로 모두 입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 여건변화와 전망

■ 국경을 초월한 서비스업의 무한경쟁으로 지역 서비스업의 구조개선 압력 상승

- FTA와 대기업의 영역확대 등 서비스업 분야는 국내·외의 다양한 환경변화에 직면할 것임
 - 우리나라와 주요국간의 FTA 체결로 인해 서비스업 시장에도 외국기업의 국내 진출이 자유로

워졌으며, SSM으로 대변되는 대기업의 사업영역 확대로 인해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한 지역의 서비스업은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이 강조될 것임

- 이와 같은 환경변화로 인해 전북지역 내 서비스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되어, 그에 따른 서비스업 구조 및 체질 개선이 중요한 의제로 나타날 것임

■ **일자리 정책에 있어 서비스업의 중요성 증대**

- 일자리 정책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있음
 - 2009년 기준 고용유발계수는 제조업 5.8%, 도소매업 14.3%, 교육 및 보건 15.4%, 의료서비스업 13.2%, 음식점 및 숙박업 14.4%로 나타남

■ **KTX 개통 및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향상**

- KTX의 고속화 개통에 따른 광역접근성 향상으로 전북의 서비스업 분야는 타 지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임
 - 각종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향상은 관광산업과 같은 일부 서비스업에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지역 내 서비스업이 위축될 가능성이 높음
 - 특히 광역접근성 향상으로 의료, 문화, 쇼핑 등의 경우 타 지역으로의 수요 유출로 인해 피해가 예상됨

■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산단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가능성 확대**

- 전라북도는 새만금과 같은 대규모 국책사업과 함께 탄소밸리,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각종 산업단지와 함께 혁신도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음
 - 전북 내 대규모 사업은 지역 내 인구유입과 직결되어 지역 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

강점	약점
전통 및 문화기반 풍부 쾌적한 자연환경	상대적으로 낮은 서비스업 비중 소규모 영세사업체 중심의 산업구조 지역 내 서비스업 수요 양극화
기회	위협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인구유입 가능성 확대 서비스업 중심의 일자리창출 정책	서비스업 관련 국내·외 환경변화 대규모 유통업체의 지역 상권 잠식 교통인프라 확충에 따른 발대효과

3. 계획의 기본방향

■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부가가치 증대

- 제조업의 기술력 향상과 수출 증대에 치중되어 상대적으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였으며, 그에 따른 부가가치 창출에 있어 한계를 보임
- 전북의 서비스업은 생산성이 낮은 도소매업 등 유통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서비스업 육성 및 체질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함

■ 지역 혁신을 창출하기 위하여 노동집약적이며 지식집약적인 생산자서비스 육성

- 제조업 분야의 기업 유치 및 생산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생산자서비스를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음
- 생산자서비스는 기업의 생산 활동과 연관되는 서비스업으로 산업간 융·복합이라는 21세기 트렌드를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산업이라 할 수 있음
- 생산자서비스는 지식의 전환과 확산을 가속화하여 혁신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지역경제 성장에 공헌하게 될 것임

■ 새로운 일자리 정책으로의 지역 서비스업 육성

- 고용승수가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서비스업을 육성하여 지역 내 일자리 창출에 기여토록 함
- 서비스업 분야의 창업지원 등 청년실업 해소, 고령자의 재취업 등 일자리의 양과 질을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함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창업지원 확대

- 전북 서비스업의 근간이 되고 있는 소규모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자립기반 향상에 기초하여 경쟁력을 확보토록 지원함
- 1인 창조기업 등 아이디어 기반의 폭넓은 분야에 대한 창업지원을 통해 지역 내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

■ 지역 밀착형 유통·물류업 지원 확대

- 전통시장은 지역 문화자원으로서 교육과 공연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복합을 통해 활성화 방안 모색
- 지역중심의 중소유통산업을 육성하여 지역 내 도소매업의 서비스 품질 향상 및 물류비 저감 등을 통해 연관산업에 대한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도록 함

4. 세부 추진과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서비스업 육성

- 지역경제와 연관성이 높은 생산자서비스업에 대하여 업종별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단계별 로드맵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접근 추진
- 지식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아이템 사업 지원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사업 참여 확대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 지원

■ 서비스업 관련 창업 및 취업 유도

- 전북형 서비스업 발굴 및 특화시키고, 청년창업 사후관리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전담센터 설치 운영
- 1인 창조기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내 서비스업의 다양성을 확보하도록 함
-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기업 발굴과 함께 지역의 내생적 발전을 선도하는 전북형 사회적 기업으로의 체질개선을 통해 일자리 확대
- 베이비붐 세대 은퇴, 귀농·귀촌 증가, 여성 및 장애인 등 지역 내 일자리를 원하는 다양한 계층에게 최적화된 직업교육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층적 맞춤형 일자리 확보

■ 생계형 서비스업 지원

- 생계형서비스업의 경우 경영컨설팅, 생계형 창업자에 대한 전문교육 및 자금·정보지원 제공 인프라 구축, 자영업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 자생 및 공생 발전 기반을 마련 지원
- 햇살론 등의 지원 확대를 통해 소규모 영세상인의 경쟁력 확보

■ 전통시장 및 중소유통산업 육성

-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 진입, 홈쇼핑 등 유통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전통시장 환경개선 등 매출액 증대를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 시행함으로써 서민경제 및 지역경제의 발전 도모
- 지역 내 소상공인의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확대 및 지원

제4장 한류를 선도하는 문화관광 창조지역 육성

제1절 관광산업 선진화를 통한 창조관광거점 조성

1. 현황 및 문제점

■ 전라북도 방문 국내·외 관광객 증가 추세

- 2010년 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를 보면 전북권 관광객은 63,357천명으로 지난 5년간(2005~2010년) 연평균 7.6%의 증가율을 보이며 성장하고 있음
 - 전국 관광객의 연평균 증가율이 3.6%임을 감안할 때 전북권은 관광객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 외국인 관광객 수는 연평균 6.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국의 연평균 증가율(8.3%)에 비해 낮고, 외국인 관광객의 절대규모가 적은 편임

〈표 3-26〉 전북권 관광객 증가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2005-2009)
전국	668,616,520	679,277,185	686,830,601	721,398,763	734,107,320	796,173,696	3.55
내국인	650,602,809	660,161,667	667,459,214	701,692,851	710,166,469	769,282,361	3.41
외국인	18,013,711	19,115,518	19,371,387	19,705,912	23,940,851	26,891,335	8.34
전북	43,917,452	35,087,407	39,055,279	47,457,677	51,909,034	63,357,765	7.61
내국인	43,555,961	34,837,865	38,851,869	47,137,632	51,497,470	62,859,789	7.61
외국인	361,491	249,542	203,410	320,045	411,564	497,976	6.62

자료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지식정보시스템, 방문객보고통계(<http://stat.tour.go.kr>)

주 : 1) 위 자료는 관광지방문객 보고통계의 유료관광지 및 숙박시설의 내외국인 구성 비율을 이용하여 추정된 자료임
2) 2004년 조사기준 변경 및 일부 시·군 자료의 누락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의 파악이 어려움

• 시·군별 관광객 추이

- 전라북도 관광객은 2006년 35,087천명 이후 2010년 63,357천명까지 연평균 15.9%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가해왔음
- 관광객의 절대적 규모는 2010년 부안군이 11,402천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수가 774천명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부안군은 새만금 방조제 개통의 영향으로 90% 이상 증가하였고 군산시 역시 70% 이상 증가

제 3 편 부문별 추진계획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을 보면 부안군 46.3%, 정읍시 39.2%, 군산시 33.0%로 높은 증가율을 보인 반면 남원시는 2009년까지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다 2010년 증가하였으나 동 기간동안 전체적으로 연평균 1.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7〉 시·군별 관광객 추이

(단위: 명, %)

구분	2006년	전년대비 증가율	2007년	전년대비 증가율	2008년	전년대비 증가율	2009년	전년대비 증가율	2010년	전년대비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전주시	3,845,877	17.5	3,187,383	-17.1	3,119,554	-2.1	4,818,995	54.5	5,330,049	10.6	8.5
군산시	3,038,847	19.1	2,638,504	-13.2	5,314,855	101.4	5,303,767	-0.2	9,516,161	79.4	33.0
익산시	1,348,666	-19.6	1,900,262	40.9	2,484,097	30.7	3,144,642	26.6	2,899,811	-7.8	21.1
정읍시	1,104,091	-14.3	1,890,700	71.2	4,256,861	125.1	4,185,997	-1.7	4,139,498	-1.1	39.2
남원시	4,518,123	-5.4	4,388,324	-2.9	4,187,775	-4.6	3,958,970	-5.5	4,273,838	8.0	-1.4
김제시	3,294,119	-1.9	2,754,632	-16.4	3,311,379	20.2	3,435,284	3.7	3,278,124	-4.6	-0.1
완주군	3,401,115	-4.8	3,220,122	-5.3	3,469,843	7.8	3,537,279	1.9	3,895,924	10.1	3.5
진안군	901,730	-1.3	1,206,431	33.8	1,011,125	-16.2	1,009,987	-0.1	1,090,031	7.9	4.9
무주군	4,241,817	-9.3	6,897,852	62.6	7,441,038	7.9	7,127,219	-4.2	7,468,293	4.8	15.2
장수군	467,609	-3.8	447,934	-4.2	553,559	23.6	743,026	34.2	774,578	4.2	13.4
임실군	1,358,407	-6.9	1,642,561	20.9	1,636,768	-0.4	1,473,425	-10.0	1,465,574	-0.5	1.9
순창군	1,199,465	-76.5	1,644,519	37.1	2,172,367	32.1	1,912,666	-12.0	2,284,012	19.4	17.5
고창군	3,879,004	-55.2	4,384,359	13.0	5,191,159	18.4	5,291,206	1.9	5,539,542	4.7	9.3
부안군	2,488,537	17.0	2,851,696	14.6	3,307,297	16.0	5,966,571	80.4	11,402,330	91.1	46.3
전라북도	35,087,407	-20.1	39,055,279	11.3	47,457,677	21.5	51,909,034	9.4	63,357,765	22.1	15.9

자료: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 전북 유입 관광객의 인접지역 편중

- 전남, 충남 등 전북관광 수요의 62.9%는 인접지역으로 국한됨
 - '09년 전북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의 거주지역을 살펴보면 전북(18.6%), 충남(14.4%), 서울(12.8%), 경기(11.8%), 대전(11.5%), 광주(10.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북 유입 관광객 중 수도권, 부산 등 주요 대도시의 비중은 3.0%에 불과함
 - '09년 기준 국내 최대 관광객 송출 시장인 수도권 국민들이 전북을 관광목적지로 선택한 비율은 서울 3.8%, 인천 1.0%, 경기 3.2%이며 부산은 1.2%에 불과함
 - 전북(34.4%)과 인접 시·군인 대전(14.4%), 충남(12.6%), 전남(10.6%) 등 전북 주변 시·도 거주 주민들이 전북을 관광목적지로 선택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급성장하고 있는 중국관광객의 전북 관광시장 점유율은 2.4% 수준임
 -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방한 중국관광객들의 전라도지역 방문비율은 '08년 4.2%, '09년 4.1%이며 전북방문 비율은 약 2.4% 수준임

- 외래관광객은 방문여행지 중 서울 명동(62.5%), 경기 민속촌(29.8%), 강원 춘천남이섬(45.6%) 등 쇼핑·문화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선호함



자료: 『관광지 방문 보고통계』, 『2009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전북관광 수요 총량은 2010년 추정수치임
 〈그림 3-12〉 전북 관광수요 구조(좌), 방한중국관광객의 방문비율(우)

■ 전라북도 방문 후 관광만족도 상승

- 전북권 관광객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만족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음

〈표 3-28〉 방문지역 만족도

구분	2009년	2008년	2007년
전국	3.96	3.83	3.79
서울	4.28	3.70	3.70
부산	3.88	3.79	3.70
대구	4.18	3.75	3.61
인천	3.77	3.73	3.74
광주	3.66	3.84	3.77
대전	3.58	3.64	3.68
울산	3.57	3.72	3.52
경기	3.92	3.76	3.78
강원	4.07	3.99	3.94
충북	3.97	3.77	3.77
충남	3.94	3.78	3.80
전북	4.05	3.84	3.81
전남	3.92	3.85	3.90
경북	4.03	3.87	3.81
경남	3.78	3.79	3.66
제주	4.13	4.06	3.94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2009

주 1) 2009년: 관광여행 대상, 2007·2008년: 관광여행과 기타여행 포함 결과임

2) 5점만점 기준임(①매우 불만족, ③보통이다, ⑤매우 만족한다)

■ 숙박여행 관광객 비중 증가 추세

- 전라북도 관광객 중 숙박여행 관광객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숙박여행 비중은 2005년 60.2%에서 2009년 71.3%로 증가
 - 당일여행 비중은 2005년 39.8%에서 2009년 28.7%로 감소
- 숙박여행 관광객의 증가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북의 숙박시설 확충은 상대적으로 미흡

〈표 3-29〉 국내여행 이동총량

(단위: 천일, %)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연평균 증가율
	이동총량	구성비									
전국	388,837	100.0	416,982	100.0	477,372	100.0	408,026	100.0	375,341	100.0	-0.70
숙박 여행	240,187	61.8	248,608	59.6	294,339	61.7	267,009	65.4	268,648	71.6	2.26
당일 여행	148,650	38.2	168,374	40.4	183,033	38.3	141,017	34.6	106,693	28.4	-6.42
전북	-	-	23,873	100.0	28,004	100.0	22,167	100.0	21,294	100.0	-2.82
숙박 여행	-	-	14,367	60.2	17,086	61.0	14,368	64.8	15,181	71.3	1.39
당일 여행	-	-	9,506	39.8	10,918	39.0	7,799	35.2	6,113	28.7	-10.45

자료 : 한국관광공사, 국민여행실태조사, 각 년도

- 주 : 1) 2009년 국민여행실태조사의 조사방법이 변경(관광여행과 기타여행의 구분)되어 해석에 주의를 요함
 2) 2009년 조사자료의 경우 기타여행이 포함되지 않아 전년도에 비해 적게 조사 됨
 3) 2004년 조사기준 변경 및 일부 시·군 자료의 누락으로 전년대비 증감률의 파악이 어려움

■ 관광(단지) 개발 현황

- 전라북도 관광(단지) 개발사업으로 관광지 24개소(전국대비 10% 점유)와 관광특구 2개소(전국대비 8% 점유)가 조성중이며, 대규모 관광단지는 지정되어 있지 않음
- 관광지
 - 전북권에는 2010년 기준 24개소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으며, 전체면적은 14.152km²로 전국 관광지면적(145.262km²)의 약 9%를 차지하고 있음
 - 시·군별로 보면 전주와 무주에는 지정관광지가 없으며, 익산이 4개의 관광지가 지정되어 있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관광특구
 - 정읍 내장산, 무주구천동 등 2개소가 관광특구로 지정되어 있으며 전국 27개소 대비 2%를 차지하고 있고 총 11,110m²임

- 내장산 관광특구는 자연자원과 백제가요인 정읍사, 동학농민혁명 등 인문관광자원을 바탕으로 전북권 서부지역의 거점관광지로 추진하고 있음
-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는 덕유산국립공원의 무주구천동 계곡의 33경의 자연자원과 삼국시대 신라와 백제의 경계관문이었던 라제통문 등과 같은 인문자원, 무주리조트 등과 같은 레저스포츠 중심지로 개발 중임

〈표 3-30〉 전북권 관광(단지) 개발 현황

구분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전국	232	-	21	118,925,000	27	3,583,920,000
전라북도	24	14,151,902	-	-	2	11,110,000
전주시	-	-	-	-	-	-
군산시	2	2,354,868	-	-	-	-
익산시	4	2,942,787	-	-	-	-
정읍시	2	1,769,266	-	-	1	3,500,000
남원시	2	1,114,064	-	-	-	-
김제시	2	714,353	-	-	-	-
완주군	1	149,665	-	-	-	-
진안군	3	1,648,043	-	-	-	-
무주군	-	-	-	-	1	7,610,000
장수군	1	250,000	-	-	-	-
임실군	2	376,000	-	-	-	-
순창군	1	621,630	-	-	-	-
고창군	1	1,456,723	-	-	-	-
부안군	3	754,503	-	-	-	-

자료: 전라북도 관광산업과 내부자료, 2011년 6월 기준

■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시설 부족

- 전라북도에는 관광진흥법에 의해 규정된 총 506개소의 관광사업체가 운영 중에 있으며, 전국(16,060개소) 대비 약 3.2%를 점유하고 있음
 - 사업유형별로는 여행업이 가장 많은 비중(76.4%, 387개소)을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은 전국대비 매우 낮은 수준임
- 관광객 수용을 위한 관광이용시설 및 편의시설 부족
 - 관광숙박업은 업체수 총 25개소, 객실수 총 3,861실로 전국대비 각각 약 2.2%에 불과하며, 특히 관광호텔업은 전국의 2.2%에 불과함
 - 관광객 이용시설업 총 4개소, 관광편의시설업은 총 78개소로 전국대비 매우 열악한 수준이며, 국제회의업과 카지노업은 전무한 실정임

〈표 3-31〉 관광 사업체 현황

(단위: 개소, 실)

구분		전국	전북
총 계	업체수	16,060	506
여행업	국외 여행업	4,547	181
	국내 여행업	6,418	184
	일반여행업	1,003	22
	소계	11,968	387
관광 숙박업	관광 호텔업	업체수	630
		객실수	68,583
	휴양콘도미니엄	업체수	174
		객실수	37,251
	가족 호텔업	업체수	55
		객실수	6,140
	전통 호텔업	업체수	2
		객실수	42
	소계	업체수	861
		객실수	112,016
관광객 이용 시설업	전문휴양업	38	1
	종합휴양업	20	-
	자동차야영장업	3	-
	관광유람선업	25	3
	관광공연장업	2	-
	외국인전용관광기념품판매업	121	-
	소계	209	4
국제회의업	308	-	
유원시설업	235	12	
관광편의시설업	2,462	78	
카지노업	17	-	

자료: 1. 여행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유원시설업, 관광편의시설업, 카지노업: 문화체육관광부, 2009 관광 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2. 관광숙박업 :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숙박시설 현황, 2010년 12월 기준

3. 국제회의이용업 : 문화체육관광부, 2009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축제 및 이벤트의 양적 확대에서 질적 변화 모색

- 전북 내 각 시·군별 지역축제는 총 59개로 전국(702개소)대비 약 8.4%를 차지함
 - 문화예술형, 역사문화형 등 다양한 테마로 개최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특산물과 연계된 축제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 개최 시기별로 보면 상반기 29개, 하반기 30개가 개최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4월과 5월, 하반기는 10월에 집중되어 있음
 - 현재, 겨울 축제가 전무한 상태이므로 겨울 축제 및 이벤트 개발이 필요
- 전라북도 지원금을 받고 있는 축제들은 행사내용에 걸맞지 않게 지자체의 선심성 행사라는 부정적 여론이 팽배했음. 또 시·군 자체 평가 시 관광객 수 및 경제적 효과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있어 축제의 대외신뢰도를 약화시키는 문제점도 지적됨
- 전라북도는 우수축제를 집중육성하고 유사한 지역축제들을 통폐합하기 위해

2010년도에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

- 2011년 도 지정축제는 14개의 축제로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근거하여 800백만원의 도비가 차등지원 되고 있음. 등급에 따라 대표 축제 1개(12백만원), 최우수 축제 3개(각 90백만원), 우수 축제 7개(각 50백만원), 유망 축제 3개(각 20백만원)가 지원되고 있음
- 그 결과, 2011년에는 군산시, 임실군, 무주군, 고창군 등을 중심으로 축제가 일부 통·폐합되어 나름대로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만들어졌음

2. 여건변화와 전망

■ 관광 및 여가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관광수요 다양화

- “관광의 일상화” 를 통하여 여가시장의 절대적인 규모가 증가하고 있고, 국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관광 및 여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국민들의 국내·외 관광경험이 증가함에 따라 여행의 형태와 관광수요가 점점 다양화·전문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자연경관 위주에서 체험과 경험을 중시하는 관광패러다임의 변화와 함께 자연경관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의료 등 다양한 영역이 결합된 새로운 형태의 융·복합 관광시장이 확대될 전망
 - 레저관광, 생태관광, 문화관광, 의료관광 등 관광목적의 다양화와 함께 경유형 관광과 함께 체류형 관광이 증가

■ 새만금 방조제 개통으로 인한 전라북도 관광의 지형변화

- 단군 이래 최대의 건설공사인 새만금 방조제의 개통과 더불어 전라북도 관광시장의 규모 및 구조면에서 지형적 변화가 예상되고 있음
 - 새만금 방조제는 ‘10년 개통 후 8개월 만에 700만 명을 돌파함에 따라 전라북도 관광시장에 대한 새로운 기회요인으로 작용
 - 새만금 국제관광단지 개발 등에 따라 국내 관광객뿐만 아니라 중국을 비롯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급증할 전망

■ 국제적 위상 제고와 함께 한류 관광상품 수요 확대

-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문화에 대한 해외의 관심이 증대되고 한류 관광상품의 수요가 확대될 전망
 - K-POP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제적으로 확산되면서 한국문화자산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부상할 전망

- 특히, 여행, 여가활동을 포함한 문화소비가 가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의 문화관광에 대한 관심이 증가
- 전라북도는 한 스타일을 중심으로 하는 전통문화의 중심지로 새로운 문화관광의 중심지로 부상할 전망
 - 전라북도는 농경문화를 바탕으로 유·무형의 전통문화에 대한 물적·인적자원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통의 생활문화를 잘 보유하고 있는 지역
 - 또한 생활 속에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간직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한국문화의 원형을 가장 잘 보유하고 있는 지역

3. 계획의 기본방향

■ 문화관광자원의 융·복합을 통한 신규 관광자원 확충

- 연관산업과 융·복합된 관광상품 개발을 통해 관광시장의 양적 확대 모색
- 1차 산업, 2차 산업을 3차 산업과 연계시켜 신규관광자원 개발

■ 고부가 관광상품개발을 위한 육성 및 지원체계 강화

- 산업적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고부가 관광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지원
- 전라북도 관광자원의 잠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관광산업화와 핵심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 친시장 관광을 위한 공공선도 개발사업 추진

- 전라북도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권역별, 테마별로 공공에서 선도적으로 관광자원개발 전략적 육성·지원
 - 새만금권, 역사문화도시권, 동부산악권 등 권역별 공공선도형 관광자원 개발
 - 역사·교육, 해양레포츠, 생태·교육, 체험·식품, 건강·의료 등의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 한류관광객 유치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 및 프로모션 확대

- 핵심테마로는 ‘맛’ , ‘멋’ , ‘소리’ 를 매개로 하는 음식, 농촌, 문학, 공연 등의 연계관광상품 개발
- 보완테마로는 향후 전라북도에서 지속적으로 이끌고 나갈 수 있는 테마로 야간체험, 도보여행, 크루즈, 중국시장 타깃 관광상품 개발 필요

- 기존 잠재자원들을 활용한 대규모 축제 및 이벤트 개최·유치를 통해 지역 관광 활성화 주도
- 전북관광 안내정보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재편하여 관광객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즐길 수 있도록 관광환경을 스마트 환경변화여건으로 개선

4. 세부 추진과제

■ 관광시장 확대를 위한 융·복합 관광상품 확충

- 산업적 차원에서 관광산업의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파급력을 확대시킬 수 있도록 고부가 관광산업 전략적 육성·지원
- 전라북도 관광자원의 잠재성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의 산업화와 핵심역량 강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 문화예술콘텐츠 관광자원화 사업: 풍물문화기반 조성, 한옥경관기반 공연콘텐츠 개발, 천년한지 문화권 개발 등
 - 문학관광 으뜸명소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 소설아리랑기행벨트, 가사문학 벨리, 임피간 지역 및 채만식 문학기행벨트 조성 등
 - 창조형 녹색관광 명소화 사업: 라이스 팜 성, 임실 치즈팜랜드 조성, 농촌체험 명소마을 조성 등

■ 관광브랜드화를 통한 고부가 관광자원 육성

- 양적·질적으로 고급화되는 관광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문화·생태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부가가치 창출능력을 확대함
- 관광자원뿐만 아니라 관광시설 측면에서도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 핵심역량을 강화하여 관광산업의 체질적인 개선을 도모함
- 3-Ware(Hard Ware, Soft Ware, Human Ware)를 중심으로 관광핵심역량을 강화함
- 생활문화를 중심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된 문화자원 개발을 통하여 지역밀착형 관광개발을 통해 지역사회의 관광산업 운영능력 배가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진
 - 말산업의 관광자원화 사업: 승마장 조성, 장수 말 산업클러스터 조성
 - MICE산업 육성 및 컨벤션 관광복합단지 조성: 컨벤션 관광복합단지 조성, MICE 유치·개최
 - 레저스포츠 거점 조성: 요트관광 확충, 골프 클러스터 조성, 해수욕장 명소화 사업 등
 - 한류 공연관광 육성: 브랜드공연 제작 및 공연관광 거점
 - 뷰티·쇼핑관광: 보석테마 뷰티·쇼핑투어 관광거점, 복합쇼핑관광 거점

■ **전북 관광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선도적 공공투자 확대**

- 관광소비구조를 지원하기 위한 기반구축사업을 중심으로 전북관광의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위한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개발사업 추진
- 광역적인 관점에서 각각의 관광매력을 집합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관광자원의 연계화 추진
- 지역관광개발 및 관광사업의 투자는 민간부문이 주도하고 공공부문은 부가적 역할을 중심으로 계획하되, 민간과 공공부문에서 수평적·수직적 파트너십과 협력체계 구축
 - 새만금 관광자원 개발: 새만금 배수갑문 Sea-Walk 조성, 새만금 모발일 관광정보시스템 등
 - 산악권 휴양건강벨트 조성: 한방로하스 벨리,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공동 개발
 - 관광지 재창조 사업: 도심관광지 재창조, 관광특구 리모델링 사업
 - 관광숙박시설 확충 사업: 한옥체험단지 조성, 이색(異色)숙박시설 조성 사업

■ **글로벌 관광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수용태세 선진화**

- 관광 숙박시설 공급 체계 구축 및 관광서비스 품질 제고
 - 관광숙박시설 개선 사업: 관광숙박시설 개선, 중저가 숙박 공동브랜드 개발
- 관광안내정보의 통합운영·관리를 통한 수요자 중심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 관광안내정보 선진화 사업: U-SMART 디지털 관광콘텐츠 구축, U-Mobile 관광정보서비스 구축, 관광정보 모바일 영상콜센터 등
- 관광업무의 내실화와 전문화를 통해 관광지원체계 개선
 - 관광지원체계 개선: 투자유치 조직 개편, 관광지 마케팅 조직 설립, 투자 및 운영인센티브 계획

■ **한류관광 선도를 위한 소프트웨어 경쟁력 및 홍보 마케팅 강화**

- 세계적인 관광추세는 하드웨어 측면보다는 환경과 지속가능한 관광에 역점을 둔 개발방식으로 전환
- 도내 관광자원간 복합적인 기능을 상호 보완적으로 연계하여 전북만의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 개발
- 특히, 중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프로모션 강화 및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
 - 관광상품 및 코스: 농촌관광상품, 도보관광상품, 산업관광상품, 문학관광상품, 연계관광코스
 - 관광축제 및 이벤트: 새만금 아리올 축제, 세계태권도 선수권 대회 유치, 국제 식품 엑스포 개최 등
 - 관광홍보 및 마케팅: 수도권 관광홍보 마케팅 강화, 타깃별 팸투어 실시, 중국시장 관광 마케팅 강화, 일본시장 마케팅 강화, 관광서비스 4대 실천 캠페인 전개 등

제2절 문화향유 확대 및 전통문화산업의 경쟁력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문화기반시설 현황

-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공공도서관, 문예회관, 공연장, 박물관, 미술관, 문화의 집 등) 수는 전국 평균보다 높음. 다만 미술관의 경우 인구 100만 명당 개수가 2.1개로 전국 평균 2.9개보다 낮음
- 공간별 이용객 수도 도서관을 제외하면 전국 평균을 넘음. 즉 전라북도 문화기반 시설 확충과 활용은 전국 평균을 상회하고 있음

〈표 3-32〉 인구 100만당 명 문화시설 개수

구분	전국		전북			100만 명당 이용객 수	
	시설개수	인구100만명당 개수	시설개수	인구100만명당 개수	점유율(순위)	전국	전북
문예회관	192	3.8	17	9.1	8.8(3)	495,649	822,083
공연장	300	5.9	25	13.4	8.3(6)	-	-
도서관	765	15.1	51	27.3	6.7(5)	5,113,573	4,481,188
박물관	655	13.0	30	16.1	4.6(10)	1,667,985	1,993,566
미술관	146	2.9	4	2.1	2.7(12)	237,066	355,737
문화의집	147	3.0	12	6.5	8.2(5)	64,286	284,766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1) 참조

- 하지만 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할 경우에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그렇게 높다고 말할 수 없음
- 공공도서관은 전국 평균과 유사한 수준이며, 박물관은 광역도 전체에서 최하위 수준임. 특히 미술관은 전국에서 가장 적은 숫자를 보이고 있음. 이에 반해 문화의 집은 다른 타 지자체에 비해 많음
- 즉 지역 특성을 감안할 경우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확충의 평가는 특별·광역시를 제외한 광역단체를 대상으로 비교되어야 하며,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은 여전히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문화기반시설 이용률) 확장할 필요가 있음

〈표 3-33〉 광역도별(특별, 광역시 제외) 문화기반시설 현황

(단위: 개수)

구분	합계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문화원	문화의집
전북	119	43	30	3	17	14	12
강원	163	50	60	10	14	18	11
충북	105	30	37	6	12	12	8
충남	136	50	39	5	15	17	10
전남	144	52	34	12	14	22	10
경북	174	55	60	6	20	23	10
경남	162	50	50	5	17	20	20

자료 : 전라북도 내부자료(2011) 참조

- 이와 관련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2004)에서 연구한 인구대비 문화기반시설 기준치를 토대로 전라북도 문화기반시설 현황을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음
 -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문예회관은 1개, 문화의 집이 25개가 부족한 것으로 조사됨. 이에 비해 도서관은 16개가 초과됐으며, 박물관 미술관도 8개 초과
 - 다만,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현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초과됐다고 하더라도 일부 시·군에서 부족한 현상이 발생. 시·군별 재조정이 필요

〈표 3-34〉 문화기반시설 과부족 현황

구분	문예회관			공공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화의 집		
	최소 기준	건립수	과부족	최소 기준	시(군)/교육, 사립	과부족	최소 기준	박물관(미술관)	과부족	최소 기준	건립수	과부족
전북	20	17(2)	-1	36	46(6)	+16	24	27(5)	+8	42	17	-25
전주시	5	5		13	7(1)/1,2	-2	7	9	+2	13	5	-8
군산시	2	1(1)		5	2/2	-1	3	1(1)	-1	6		-6
익산시	2	1(1)		6	2(2)/2		3	5(1)	+3	7		-7
정읍시	1	1		2	3/1,1	+3	1	(1)		3	1	-2
남원시	1	1		1	1(1)/2	+3	1	1		2		-2
김제시	2	2		1	3/1	+3	1	2/1	+3	2	4	+2
완주군	1	1		1	2(1)/1	+3	1	1/1	+1	2	1	-1
진안군	1	1		1	/1		1	1		1	1	
무주군	1	1		1	1/1	+1	1	1(1)	+1	1	1	
장수군	1	1		1	1/1	+1	1		-1	1	1	
임실군	1		-1	1	1/1	+1	1		-1	1	2	+1
순창군	1	1		1	/1		1	1		1	1	
고창군	1	1		1	2/1	+2	1	1		1		-1
부안군	1	1		1	1(1)/1	+2	1	1(1)	+2	1		-1

자료 : 이원태(2004) 참조

■ 문화인력 및 조직 체계 현황

- 예술지원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지역문화예술 지원역량이 강화되면서 지역 분권 및 협력형 사업모델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임
- 특히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이 중요한 화두로 등장함.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정책의 중심으로 부상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
-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문화예술계의 여건, 공모사업 신청건수 확대에 따른 지역현장의 고유한 특성 반영 취약함, 그리고 지역의 문화재단 설립 증가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간의 기능 중복 등도 지역분권 및 협력형 사업의 확대를 가져온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 하지만 문화재단은 재원의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독립성 결여, 문화사업 대행자로 전락해 당초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는 한계를 노출.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문화재단 체제보다 민간단체를 주요 사업별로 활용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

〈표 3-35〉 연도별 신설 문화재단

(단위 : 개소)

연도	1997년	1998년	1999년	2000년	2001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계
수요	1	1	1	1	2	2	4	2	3	1	6	9	3	36
지역 (광역)	경기		강원	제주			서울, 인천 광주					부산, 대구 대전, 전남	경남, 충북 전북	13
지역 (기초)		강릉			부천 청주	고양 거제	성남	서울(중구) 김해	부평 하남 전주	의정부 (예술의 전당)	마포, 강남 화성, 아산 화성, 창원	대구(중구) 인양, 춘천 인제, 익산		23

자료 : 전북발전연구원(2011) 참조

- 또한 문화정책을 추진하는데 도민과 문화예술프로그램을 매개하는 인력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으나 전라북도의 문화예술 매개 인력의 조건은 열악한 상황
- 2011년 예술인복지법이 통과됐지만 예술인복지법의 대상은 예술인에 국한되어 있고, 문화매개인력(또는 예술경영인력)은 해당되지 않음. 즉 문화정책을 도민에게 매개하는 문화인력에 대한 처우는 개선될 소지가 적음

〈표 3-36〉 시설별 월 평균 급여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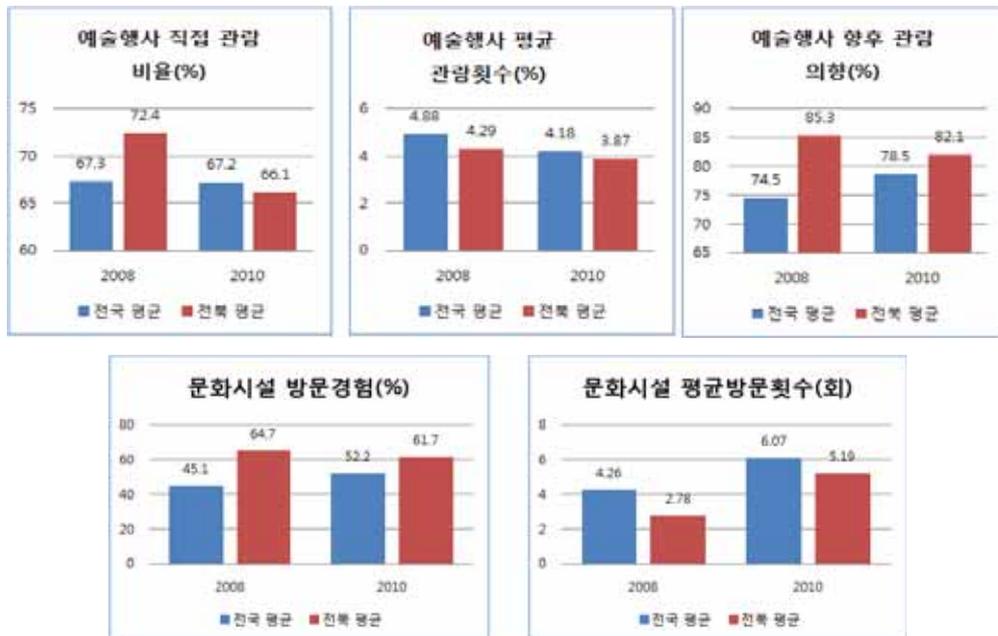
(단위: 원, 명)

운영방식	급여총액	기본급	통상수당	기타수당	초과급여
문화의집	1,135,256.7(18)	1,191,250.0(8)	-	600,000.0(1)	35,000.0(4)
청소년 문화의 집	1,516,601.7(36)	1,024,000.0(20)	401,861.8(17)	203,295.8(12)	46,934.6(13)
기타 위탁시설	1,466,006.3(63)	942,166.7(15)	92,142.8(7)	234,000.0(8)	236,000.0(5)
관직영시설	1,611,779.5(21)	1,522,501.3 (8)	130,000.0(3)	136,666.7(6)	189,120.0 (3)
민간시설	1,100,000.0(14)	675,000.0 (4)	200,000.0(1)		
전체	1,425,250.3(152)	1,073,136.5(55)	288,094.6(28)	212,279.6 (27)	99,900.4 (25)

자료 : 전북대학교BK21사업단(2007)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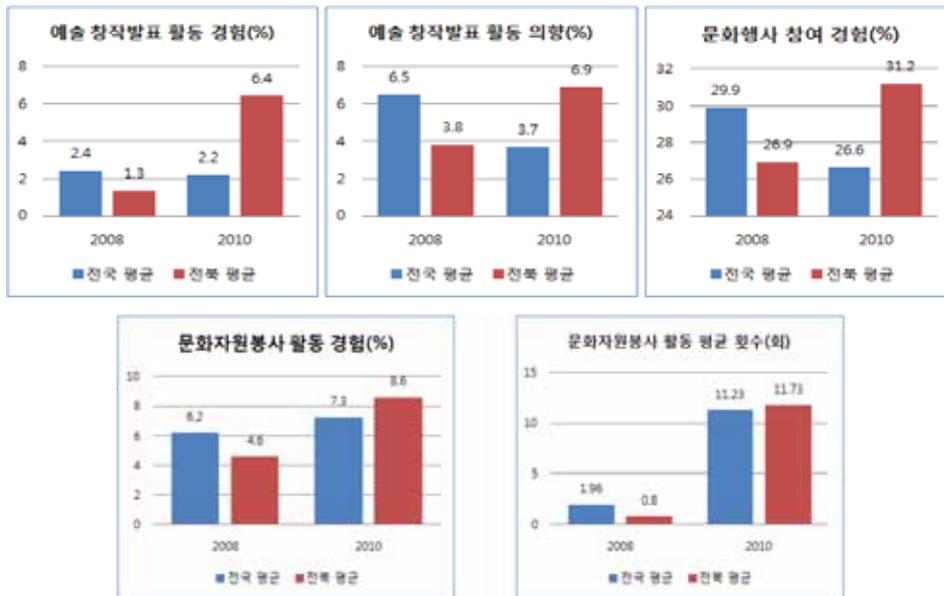
■ 예술행사 및 문화시설 실태

- 예술행사 직접관람 비율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를 보임. 관람비율은 대체로 높지만 문제는 평균 관람횟수임. 2008년의 경우 전국 평균 이하를 보임
- 이에 반해 향후 예술행사 관람의향 비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음. 또한 예술행사 참여에 대한 욕구가 상대적으로 높음과 동시에, 한편으로 참여의향에 비해 실천으로 옮기는 비율은 낮다는 것을 의미함
- 문화기반시설 방문 현황은 대체로 전국 평균을 상회함. 하지만 평균 방문횟수는 전국대비 상대적으로 낮음. 2008년에 비해 증가추세지만 문화향유형태가 대체로 일회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10) 참조

- 예술관람비율보다 직접 창작 및 발표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이 전국 대비 상대적으로 높으며, 활동의향은 전국 대비 두 배 이상 높음
- 그렇다고 예술창작활동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전국 대비 두 배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겨우 6%에 불과하기 때문임
- 문화자원봉사는 문화취약계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제공과 자원봉사자의 창조적 문화활동 효과 측면에서 중요성 부각됨
- 전라북도 문화자원봉사 참여율은 갈수록 증가 되고 있음. 문화향유 현황과 달리 평균 횟수도 전국 대비 높음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10) 참조

- 문화예술 직접 참여와 관련해 중요해지고 있는 문화동호회 활동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문화향수실태조사에 따르면, 동호회 경험 비율이 2008년 1.3%에서 2010년 6.5%로 수직 상승했음
- 동호회에 참여할 의향은 2008년 9%에서 2010년 18.7%로 두 배 이상 증가



자료 : 문화체육관광부(2008, 2010) 참조

■ 문화콘텐츠산업의 현황 및 잠재력

- 전라북도는 문화콘텐츠와 관련된 도내사업, 전통문화와 결합된 풍부한 관광자원, 문화기술에 특화된 R&D 기반, 한국적인 맛과 미가 담긴 전통문화 자산 등 문화콘텐츠 산업을 성공적으로 성장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잠재성을 보유하고 있음
- 문화기술(CT, Culture Technology)의 향연이 될 도내 사업
 - 전통문화특구조성 및 전통한옥마을 보존사업, 새만금 상설 공연 등 문화관광콘텐츠 수요 급증 예상, 무주 태권도공원 조성
- 문화기술에 특화된 R&D 기반
 - 전국 최초로 제정된 영상산업육성조례 및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조례 제정(2011)
 - 문화기술 공동연구센터의 유치를 통한 연구 및 인력양성 기반 확보(2011)
- 한국적인 맛과 미가 담긴 전통 문화 자산
 - 예술분야에 뛰어난 인간문화재 및 놀이, 기술 등을 보유
 - 문화체육관광부의 한(韓)스타일 육성 종합계획에 따른 지속발전 가능성

2. 여건변화와 전망

■ 문화향유 욕구의 증대

- 도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되면서 보편적 문화복지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생활밀착형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생활현장에서의 문화예술 경험을 촉진할 수 있는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구축 필요성이 높아질 전망

■ 문화복지 및 문화격차 해소 정책 계속 추진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 계층간 문화격차 해소를 통해 국민의 문화복지를 향상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 저소득층에 대한 문화향유 기회 제고 및 문화예술교육 확대 등 관련 정부 정책의 추진이 강화되고 있음

■ 문화콘텐츠산업의 新비즈니스 환경 변화

- 스마트디바이스, 소셜네트워크 등 문화콘텐츠의 새로운 비즈니스영역 생성될 것이며, 디지털콘텐츠경제의 특성상 거대자본, 대기업에게만 가능하던 대규모 경제가

소규모, 개인기업 중심으로 변화될 것임

- 소셜커머스와 같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가능성 대두됨. 우리도 강점산업을 중심으로 한 핵심콘텐츠 집중 육성으로 리더산업 유도 필요
- 향후, 신시장 선점 및 문화콘텐츠산업 패러다임 변화에 맞는 정책 및 제도가 마련되면,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콘텐츠분야와 급성장하고 있는 신시장 (3D영상물, 스마트폰 앱 시장)선점 등 환경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재정립 필요

3. 계획의 기본방향

■ 문화소외층 해소 및 보편적 문화향유권 확대

- 경제적 취약계층 및 농산어촌 주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문화바우처)
- 생활 속 문화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일반인, 동호회, 교육 등)
- 문화자원 봉사 확대를 위한 체계 및 프로그램 개발

■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

- 전북 도내 읍면동 중심의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을 확충하며, 도민이 쉽게 문화시설을 이용하기 위한 접근성 제고
- 기존 문화시설 이용을 통한 활용도 제고 방안 강구

■ 문화복지전달체계 구축 및 인력양성 선진화

-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문화복지 전달체계 선진화
- 문화매개 인력 양성 및 문화복지 인력 현장 배치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 제고
- 예술인들을 위한 복지 향상 및 창작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제고 강구

■ 문화콘텐츠 산업의 기반구축 및 육성

- 문화 및 영상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 기반 마련
- 문화콘텐츠 산업이 스스로 자생할 수 있는 창조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스마트콘텐츠 산업 육성

■ 문화유산 보존 및 정비 강화

- 문화재 보존·관리의 고도화 및 체계적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조성 필요

- 전북 도내 문화재의 예방적 문화재 관리 및 방재체계 구축을 통해 전북 문화유산의 품격 제고 및 고품격화 실현

4. 세부 추진과제

■ 문화예술지원 및 문화향유 확대

- 지역예술인의 창작여건 제고
 - 전북도민의 문화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역예술인의 복지가 해결되어야 함
 - 예술인의 창작공간 및 창작활동 지원을 비롯한 지역예술의 선순환구조 구축, 지역차원의 예술인복지정책 추진, 예술경영인(문화시설 종사자 등)의 근로조건 개선 등 추진
- 생활 속 문화향유 기회 확대
 - 정책목표 및 기준을 우선 설정하고, 문화복지 실태를 통한 지역별·계층별 우선순위 정해 추진
 - 문화향유권 확대사업의 대상을 취약계층에서 중산층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 전라북도 읍면동 유형별 문화복지 기준 설정, 문화예술 관람 및 참여 등 예술향유지수 제고
- 취약계층 문화향유 기획 확대
 - 저소득층, 농촌지역주민, 장애인의 문화향유를 중산층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정책 추진
 - 문화바우처 활성화,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의 컨트롤타워 구축 및 체계적 지원,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 편의 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활성화, 찾아가는 서비스와 모셔오는 서비스 병행 등
- 문화동호회 활성화
 - 문화적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직접 문화예술 창작활동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
 -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확대를 위한 체계적 지원(공간, 강사, 인력, 프로그램), 동호회 페스티벌, 동호회의 자생적 네트워크 구축·지원 등
- 수도권과 문화격차 해소
 - 수도권에서 누릴 수 있는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정책적 뒷받침 필요
 - 농촌 개봉영화관 조성, 수준 높은 공연·전시프로그램 유치, 예술교육 프로그램 수준 제고 등
- 문화창조공동체 조성
 - 주민의 자발적 문화향유 및 문화를 위한 커뮤니티 형성하는 전북형 엘시스테마(el SISTEMA)
 - 연극마을, 합창마을, 풍물마을 등 마을별 특화 문화예술단 운영, 지역문화자원의 브랜드화

■ 생활밀착형 문화기반시설 확충 및 활성화

-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
 - 문화복지 실태조사를 통한 전북도민의 문화시설 접근시간 분석
 - 읍면동별 문화시설 접근시간 목표 설정 및 시설 확충 추진
- 읍면동 중심의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 신축시 소규모 복합형 건물 유도. 집과 직장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소규모의 생활밀착형 시설을 확충하되, 단순 관람이 아닌 체험·참여가 가능한 공간을 우선 추진
 - 새로운 유형의 문화공간 확대: 작은영화관, 작은도서관, 문화의집, 주민예술촌 등
- 기존 시설 활용도 제고
 - 기존 문화기반시설의 복합문화공간화
 -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주민자치센터, 작은도서관 등)의 기획인력(문화코디네이터, 문화복지 매개인력, 문화기획자 등) 배치 통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활성화

■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기반 구축

- 창조적 생태계 조성, 선순환 지원체계 구축
 - 전북 문화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문화콘텐츠산업 육성 펀드 조성, 산학연관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 지원 등
 - 콘텐츠 창작개발센터 및 문화콘텐츠 유통지원센터 운영, 영상기반지원체계 구축
-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R&D
 - 스마트공간 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사업, 감성 및 UX 문화기술연구원 운영
-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글로벌 역량강화 사업
 - 문화콘텐츠 기술아카데미, 수직연계형 창의문화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기업인턴 지원사업, 문화콘텐츠산업 취업박람회, 창업인큐베이션 지원, 길러콘텐츠 제작지원, 글로벌마케팅 지원, 콘텐츠 강소기업 육성, 아시아영화촬영 유치기반 조성 등
- 권역별 콘텐츠 개발사업
 - 전북 스마트투어센터 구축, 권역별 특화콘텐츠 개발사업, 전북 전시/공연 문화시설 통합 가이드 어플리케이션 구축, 전통예술체험아카데미 등

■ 전북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활용

- 문화유산 전승 지원 및 역사적 문화환경을 효율적 보존과 정비 강화를 통해 전북 문화유산의 고품격화 실현
 - 문화제 보수정비 및 전통사찰 보수 정비사업, 고도 익산 르네상스 사업 등

제5장 FTA에 대응한 강한 농업, 활력 농촌 실현

제1절 고부가가치 신성장 농림수산업의 창출과 확대

1. 현황 및 문제점

■ 농업경영을 지속할 농업인력의 부족

- 농업경영주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60세 이상의 농업 경영주는 전체 농업 경영주의 63.7%(2010년)를 차지하며, 70세 이상은 32.3%에 달함
- 2005년부터는 65~69세의 농업경영주 수가 줄어드는 반면 70세 이상의 농업경영주 수는 계속 크게 늘어나 고령화 속도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음

〈표 3-37〉 전라북도 경영주 연령별 농가 변화

(단위 : 호, %)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00-2010년 연평균 변화율
30세미만	666 (0.5)	242 (0.2)	197 (0.2)	-18.56
30~39세	7,398 (5.4)	3,543 (2.9)	2,923 (2.7)	-11.84
40~49세	20,851 (15.2)	15,750 (12.9)	12,131 (11.1)	-4.59
50~59세	34,927 (25.4)	28,487 (23.4)	24,494 (22.4)	-3.00
60~69세	49,496 (36.0)	42,188 (34.7)	34,296 (31.3)	-2.78
70세 이상	24,079 (17.5)	31,539 (25.9)	35,392 (32.3)	2.86
합계	137,417 (100.0)	121,749 (100.0)	109,433 (100.0)	-1.80

*주 : ()는 비율, 자료: 통계청 자료

- 농림업 취업자 또한 지속적으로 줄어 2020년에는 2009년에 비해 28.9%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3-38〉 전라북도 농림업 취업자 전망

(단위 : 천명)

구분	2009년	2012년	2014년	2016년	2018년	2020년
전라북도 농림업 취업자	159	145	135	126	119	113

* 주: 연도별 전북의 전망은 '08년도 농림업 취업자 비중을 이용하여 도출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FTA 대비 전라북도 농업·농촌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2010

- 지속적 농업경영을 담당할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업생산자조직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생산자 조직의 결속력이 약해 생산자 조직 운영의 규모 및 전문성이 열악한 수준으로 평가

〈표 3-39〉 전라북도 농산물 부류별 생산자 조직화 현황

(단위 : 개소, 호)

구분	품 목	영농조합법인·작목반	농가수
과수분야	사과, 배, 복숭아, 포도	19	3,773
채소분야	양파, 고추, 무, 배추, 토마토, 딸기, 파프리카	43	3,761
화훼류	백합	3	17
특작류	인삼, 버섯(느타리, 새송이)	5	4,323
기타	천마	9	35
합계	-	79	11,909

자료: 전라북도 농산유통과, 내부자료, 2009를 바탕으로 재구성

■ 생산된 농산물의 산지유통 체계 구축의 미비

- 생산된 농산물을 판매할 산지유통 시설 규모 및 이용률은 생산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수준에 그치고 있음
- 산지유통시설의 부족은 생산된 원료 농산물의 선별, 세척, 포장, 가공 등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는 물론이고, 전국시장에 대응한 상품화 수준에 뒤쳐지고 있음을 의미
- 전라북도의 미곡 생산량은 1,783천톤으로 전국의 9.7%를 차지하지만 전국시장 대비 유통비율은 품목별로 차이가 있음. 특히 원예 농산물의 경우 6.8%의 낮은 유통비율을 보이고 있음
- 특히 대표적인 산지유통 주체인 지역농협이 농산물 유통액 중 취급하는 비중은 양곡은 35.5%, 축산은 생산액 대비 12.7%, 원예는 생산량 대비 처리기준으로 10.1%에 그치고 있음

〈표 3-40〉 전라북도 주요 품목 부류별 생산 및 유통 현황

(단위 : 천톤, 천두, 억원, %)

구분	경종		원예	채소					과실	버섯	서류	축산
	합계	미곡		합계	채소	엽채류	과채류	근채류				
생산량	1,783	798	985	796	272	225	190	109	88	4	97	19,873
유통액	16,849 (9.7)	8,501 (16.2)	8,348 (6.8)	5,724 (7.4)	1,315 (10.1)	2,264 (6.5)	476 (13.0)	1,669 (6.6)	1,469 (4.4)	133 (3.5)	1,021 (13.4)	21,861 (12.1)

주 : 축산업의 생산량은 생산액 기준, ()는 전국 유통액 중 전북 농산물이 차지하는 비중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림업생산통계, 2009, 농협중앙회 농협취급액 실적 데이터, 2009.

〈표 3-41〉 전라북도 지역농협이 취급하는 농산물 비중

구 분	생산액(a)	농협 취급액(b)	농협 취급비중(b/a)
미 곡	8,501억원	3,019억원	35.5%
축 산	1조 9,873억원	2,526억원	12.7%
원 예	922,272톤	92,346톤	10.1%

주 : 미곡은 유통액, 축산과 원예는 생산액, 2009년 말 기준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한국협동조합연구소, 농업경제사업의 미래비전과 활성화 방안, 2011.

■ 농가소득의 정체와 농민층의 양극화

- 전라북도의 농가소득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전국의 96.8%(2010년) 수준에 그치고 있음
- 농업소득의 증가율은 농산물의 가격하락 등으로 인해 그 증가폭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나, 농업경영비는 2000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

〈표 3-42〉 전라북도 농가소득 추이

(단위 : 천원)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농가소득	20,087	28,238	31,105
농업소득	10,646	12,718	13,292
조 수 익	18,098	23,972	29,976
경 영 비	7,452	11,253	16,684
농외소득	5,378	6,794	9,275
겸업소득	1,134	1,633	2,559
이전소득	4,062	4,172	6,127
농가부채	16,797	21,841	26,040

* 주 : ()은 2000년을 기준(100)으로 했을 때의 비율, 이전수입=이전소득+비경상소득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각년도

- 경지가 있는 농가(110,115호) 중 1ha 미만 농가는 57.6%를 차지하며, 1ha 미만 농가의 소득은 5ha이상 농가의 32.6% 수준에 그쳐 농가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

〈표 3-43〉 전라북도 경지규모별 농가분포

(단위 : 호, %)

전체농가	0.5ha 미만	0.5~1.0ha	1~2ha	2~5ha	5~10ha	10ha이상
110,115 (100.0)	37,378 (33.9)	26,061 (23.7)	24,320 (22.1)	16,846 (15.3)	4,232 (3.8)	1,278 (1.2)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2011.

〈표 3-44〉 전라북도 경지규모별 농가소득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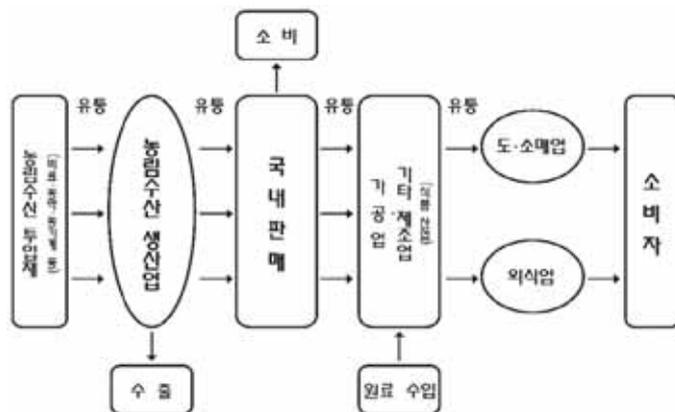
(단위 : 천원)

구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사업외소득	이전소득	비경상소득	자산
0.5ha미만	28,194	2,531	17,384	13,221	5,431	2,847	281,626
0.5~1ha	30,691	8,215	13,454	10,315	5,445	3,576	324,790
1~1.5ha	28,864	9,689	11,520	8,439	4,766	2,888	328,648
1.5~2ha	28,362	9,728	10,139	6,358	5,488	3,007	365,390
2~3ha	31,632	11,936	10,466	6,922	5,694	3,537	428,796
3~5ha	41,946	20,049	11,140	7,650	6,549	4,209	517,876
5~7ha만	39,196	20,265	8,175	7,656	6,181	4,575	679,977
7~10ha	64,054	37,435	10,921	6,821	8,438	7,260	714,704
10ha이상	77,355	42,964	12,228	9,200	11,135	11,028	856,082

자료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결과, 2011.

■ 농산물의 부가가치 창출의 한계

- 도매시장 등을 통한 전통적 방식의 농산물 판매는 농산물 유통의 복잡한 구조와 단계로 인해 농가수취 가격에 일정한 한계가 있음



〈그림 3-13〉 농산물 유통단계 및 부가가치 확장단계

- 농산물의 원물 판매보다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여러 정책지원과 현장 실천 사례가 늘고 있으나, 절대적 규모의 영세성과 시장창출의 한계가 상존

■ 수산자원의 현황과 수산업의 실태

- 어가 및 어가인구는 10년간('01년 대비 '10년) 34.6%p와 44.0%p 감소하여 전국 평균 감소율(14.8%, 26.5%)을 크게 상회하였는데, 해면어업의 큰 폭 감소가 주요 원인임

- 천해어장 개발 가능지(15,000ha)는 전국의 7.7% 수준으로 기 개발된 면적은 가능지의 72.3% 수준이며, 내수면 어업권은 전국의 20.7%(1,071ha)를 차지
- 반면 수산물 생산량은 전국의 2.7%(69,936톤), 생산액은 3.7%(242,240백만원) 수준에 그침
- 어업 공동체인 어촌계는 64개로 전국의 3.2% 수준이며, 어항은 42개로 전국의 1.9% 수준이나 어선은 전국의 4.6%를 차지
- 전체 수산물의 생산액은 9년간('03년/'11년) 42.8% 증가하였으나, 어류(171.0%)와 갑각류(31.2%), 해조류(12.1%)를 제외하고 패류(-17.5%), 연체동물(-19.3%), 기타(-73.4%)는 감소

〈표 3-45〉 전라북도 어업별 수산물 생산실적

(단위 : 톤, %)

구 분	2003년	2005년	2007년	2009년	2011년
전 체	89,870 (4.6)	61,072 (2.8)	80,522 (3.1)	87,117 (3.4)	69,936 (2.7)
일반해면	60,827 (5.5)	30,352 (2.7)	35,215 (3.1)	35,059 (2.9)	30,374 (2.5)
천해양식	26,183 (3.2)	25,880 (2.4)	40,676 (2.9)	46,746 (3.6)	33,749 (2.6)
내수면어업	2,860 (14.5)	4,840 (20.3)	4,631 (17.3)	5,312 (17.7)	5,813 (18.2)

자료 : 통계청, 어업생산동향, 각 년도

2. 여건변화와 전망

■ FTA의 진전 등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

- 2002년 칠레와의 FTA가 타결된 이후 현재까지 45개국과의 8개 FTA가 체결(싱가포르, EFTA 4개국, 아세안 10개국, 인도, 미국, 유럽연합 27개국, 페루 등)
- FTA 협정이 타결된 미국, EU, 아세안, 칠레 등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산물의 비중이 53%에 달하는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우리 농업에의 부정적 영향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음
- 농업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요 농산물에 대한 양허제의 또는 부분적 개방이 진행되었으나, 축산업 등의 피해가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현재의 국제통상 여건은 중국과 일본, 한·중·일, 미국 심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의 문제와 맞물려 FTA의 진전에 따른 농산물 시장개방의 확대와 부정적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

■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적 수요 확대

-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선호가 늘어나면서 유기 농식품 시장이 2002년 200억달러에서 2011년 700억 달러 규모로 매년 20% 이상 성장하는 추세
- 소비자는 가격보다 안전성과 품질·맛을 농축산물 구매시 요한 선택요인으로 꼽고 있음
- 최근에는 생활 습관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질병치료의 관점을 넘어서 농식품을 통한 건강관리 및 치유의 단계로 확장되고 있음 (웰니스 산업, 의학과 농업의 융합 등)
- 안전에 대한 요구는 농업자원(치유농장, 동식물 매개치유 등)을 활용하여 치유하려는 연구와 실천으로 확대되고 있음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조사결과, 2011

〈그림 3-14〉 소비자의 농축산물 구매시 선택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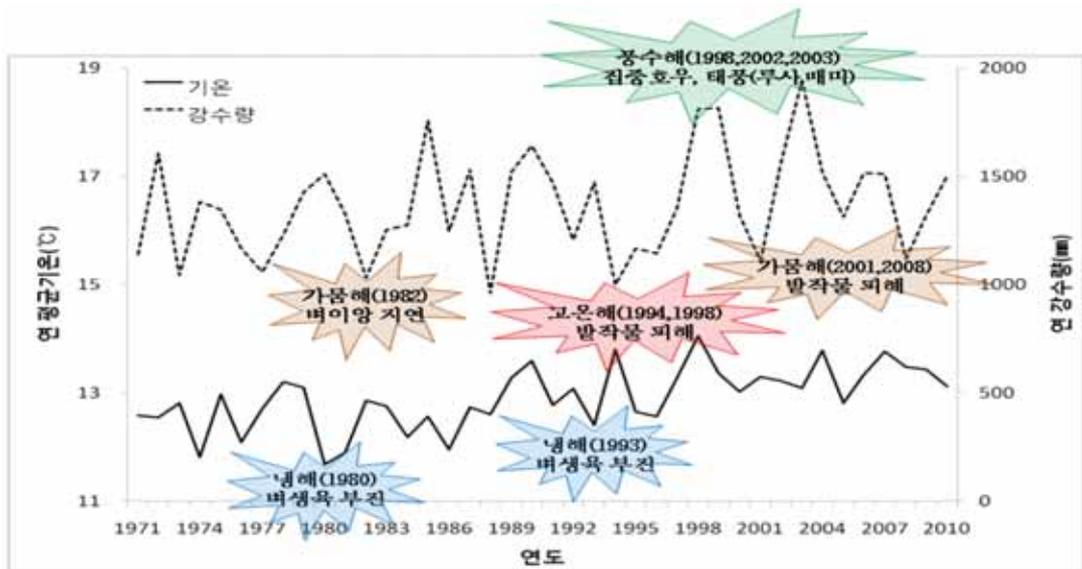
■ 새만금 농업용지와 혁신도시(농업관련 연구기관) 등 농산업의 새로운 기회

- 혁신도시의 실체가 드러나고 정부의 요한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전북으로의 이전은 전북 농산업 발전의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
- 농촌진흥청 및 산하 연구기관은 우리나라 농업 및 생명산업의 메카로 기능하여 주변으로의 1차적 확산과 경제적 파급효과는 대단히 클 것으로 기대

- 특히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현재 구상 인 농업용지 개발계획은 한국 농업의 새로운 전기가 될 것임
- 혁신도시로의 농업관련 연구기관의 이전과 새만금의 첨단농업·농식품 단지 등은 기존의 전북농업의 토대 위에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전북농산업의 발전을 가져올 성장동력으로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과 친환경 농업의 진전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 등으로 농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하고 그에 따른 농축산물의 수급 불균형이 발생하여 단기간의 가격급등 현상이 반복되고 있음
- 지난 10년간 농업기상 재해에 따른 피해 복구비만 연평균 6,705억원으로 집계되는 등 농업부문의 능동적 대응이 요구
- 기상이변에 따른 농업재해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 농업생산기반 시설의 재정비, 각종 질병에 관한 예찰활동 강화, 재해대비 농업경영 대책 확보 등이 요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2012.

〈그림 3-15〉 농업분야 주요 기상재해 발생의 연대기

- 건강과 환경을 시하는 친환경 농식품 소비의 확대는 친환경 농산물의 증가로 이어져 지난 10년간 친환경 농산물은 52배나 증가하는 등 급신장을 보임 (출하량 2000년 22,232t → 2010년 1,161,819t)
-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은 앞으로 갈수록 늘어 2020년에 가면 전체 농산물의 20%를 친환경 농산물이 차지할 것으로 전망

〈표 3-46〉 친환경 농산물의 시장전망 (인증단계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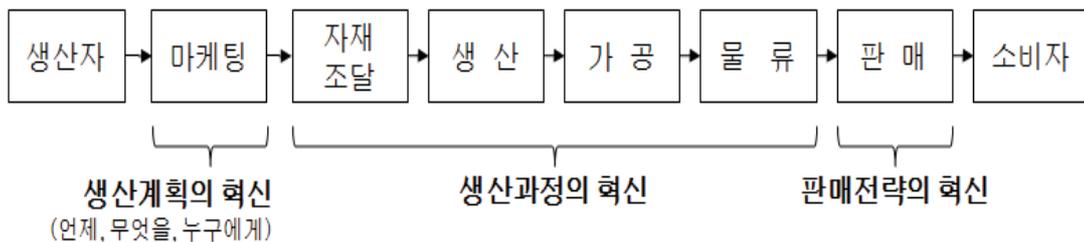
(단위 : 억원)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20년
유기농	2,536	2,426	3,521	4,118	5,782	6,563	7,226	10,306
무농약	9,193	13,178	15,026	18,449	28,026	32,426	39,249	55,976
저농약	20,198	18,514	17,958	17,112	14,814	14,222	폐지	
전 체	31,927	34,117	36,506	39,678	48,622	53,111	46,475	66,284

* 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추정치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전망 2012, 2012

■ 농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다양한 융·복합의 시도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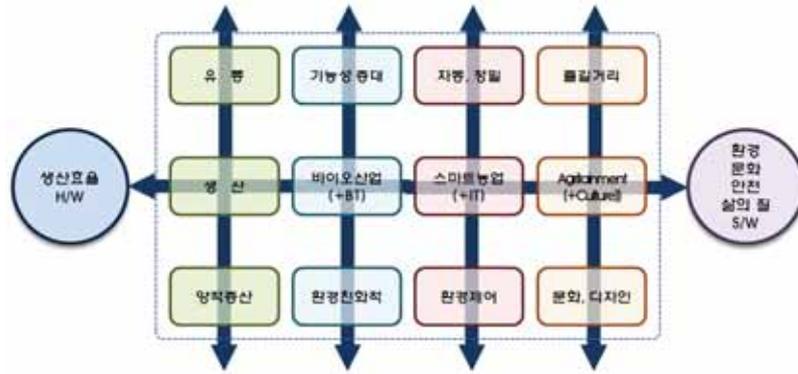
- 농업 생산자가 농식품의 공급사슬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생산자 發 가치사슬 혁신이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 농·공·상 연계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농업 경영의 다각화와 복합화를 위한 수단이며, 농·공·상 연계는 지역의 가공산업, 유통업, 서비스 산업 등과의 결합을 통한 방식으로 농산업의 새로운 발전 전략으로 부각되고 있음



자료 : 農林水産省, 2011

〈그림 3-16〉 농업 6차 산업화를 위한 공급사슬 단계의 혁신과정

- 농업분야의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시도가 IT(정보기술), BT(생명공학기술), ET(환경기술) 등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이뤄지고 있음
- 최근 농업과 의학의 융·복합에 의해 인체의 건강을 치유하고자 하는 기능성 농식품(애그로 메디컬 푸드)에 착안한 새로운 형태의 애그로 메디컬 기반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음



〈그림 3-17〉 농업의 스펙트럼 확장

■ FTA 체결 확산과 어업자원의 감소 등으로 출어환경의 악화

- 어업에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폐지와 FTA체결 확산에 따른 국내 수산업의 경쟁력 제고가 시급
- 어업여건의 변화에 따른 적극적 대처 및 자원회복으로 지속적 어업의 기반 마련이 필요

3. 계획의 기본방향

■ 농산업의 가치사슬 구조의 혁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전략의 수립

- 지금까지와 같은 개별 경영체 단위의 생산증대, 품질개선, 유통혁신 등의 부문별 최적화 방안을 탈피하여 농업경영 전 과정에서의 가치사슬 혁신을 위한 전략구사가 핵심
- 농업생산의 전 단계에 해당되는 농업부문의 주요활동으로서 본원적 활동과 이를 지원하는 조직화, 규모화, 인력관리 등의 지원활동이 체계적으로 결합될 때 농산업 발전을 담보할 수 있음
- 이러한 가치사슬 혁신에 의한 가치창출 요인은 생산원가 우위, 상품의 차별화, 활동의 상호 연계성 강화 등인 바 이에 대한 세밀한 대응전략 마련이 요



〈그림 3-18〉 농업부문(농산물)의 가치사슬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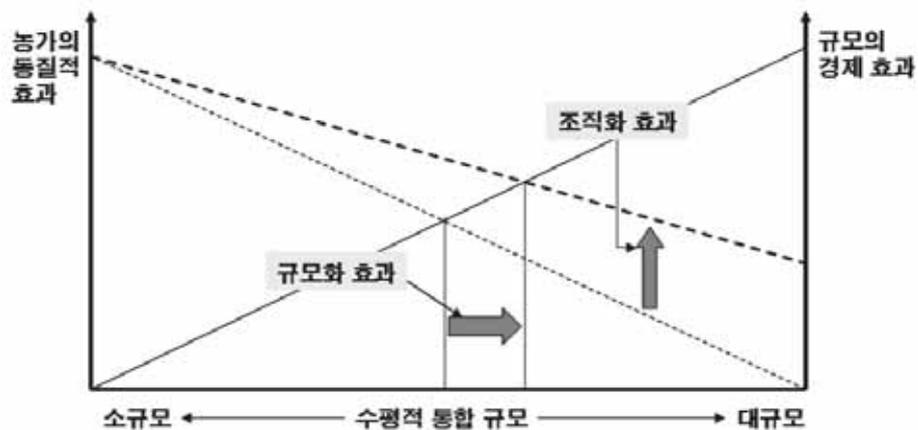
〈표 3-47〉 농산업 부문의 상호 연계성에 의한 가치창출과 원천

구 분	기존활동	상호연계성 강화	관련주체
생산 연계성	동일 원료 사용	자재공유·공동구매	생산자 조직
기술 연계성	개별 경영 단위	생산조직 단위	생산자조직/연구기관
시장 연계성	공동구매자, 공통경로	공동브랜드, 출하처 다변화	생산자 조직
가공 연계성	생산과 가공분리	계약거래로 연계	생산자조직/가공업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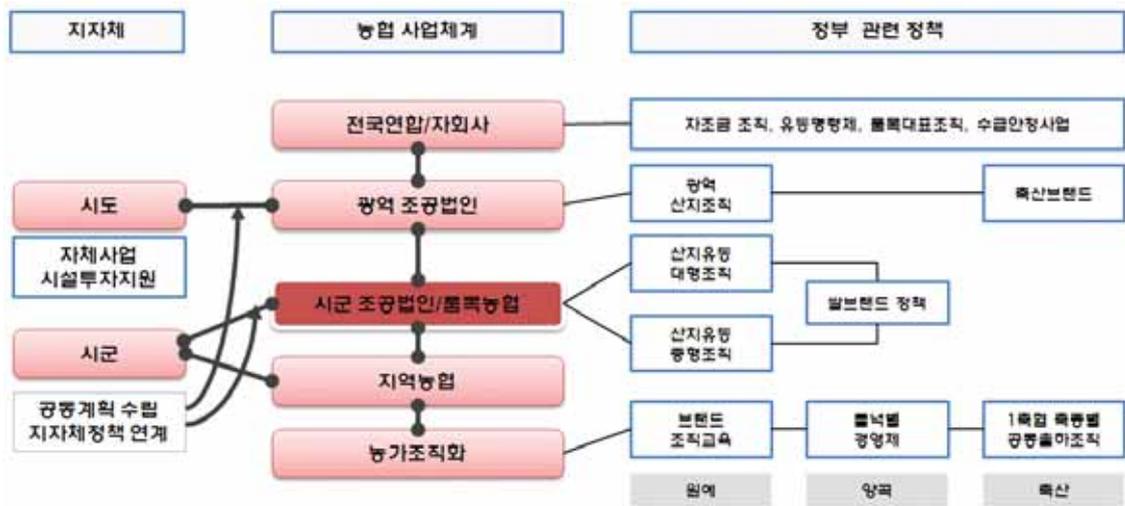
자료 : 김연 외, 주요 농산물의 가치사슬 분석과 성과제고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을 수정

■ FTA에 대응한 경쟁력 있는 농림축산업의 육성

- 시장 대응력의 조건은 ‘조직>품질>규모’이며, 생산자 조직은 ‘생산력과 품질 향상’의 기본 대응단위임
- 품목별 생산기술의 통일(표준 매뉴얼)로 일정수준의 생산력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조직화 가능 품목을 심으로 읍·면을 기본단위로 하여 시·군 단위로 확대 (농가의 수평적 조직화 전략)
- 생산자 조직화를 촉진하고, 조직의 운영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 표준 생산 매뉴얼의 마련 등이 세부실천 과제
- 이와 함께 생산자 조직을 산지유통 주체와 수직적으로 연계된 ‘유통형 생산자 조직’으로 확대 개편 (농가의 수직적 조직화 전략)
- 기존 생산자 조직과 신규 조직을 협동조합의 공선출하회 조직 등 산지유통주체의 계열화 사업방식으로 재편하되, 생산자의 철저한 조직복무(계약재배, 공동선별·공동출하 시스템 등)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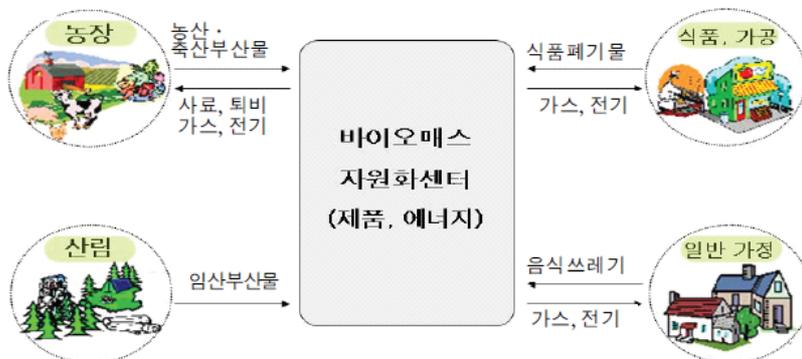
〈그림 3-19〉 규모화와 조직화의 관계



〈그림 3-20〉 산지유통 활성화를 위한 조직화 전략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림수산업의 기반구축

- 전 지구적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지역단위 지속 가능전략으로 지역순환 농업 시스템을 전제로 한 친환경 농업을 전면 확대해 나가야 함
- 가축분뇨, 경종, 임업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화 전략을 핵심으로 일반가정과 식품·가공의 영역까지 포괄하는 지역 전체의 환경을 고려한 물질순환체계 구축
- 지역단위 물질순환체계를 작동시키는 거점은 각종 부산물을 자원화하여 에너지 또는 상품화할 수 있는 ‘바이오매스 자원화센터’ 임
- 이러한 물질순환체계는 친환경 농업을 전제로 이뤄지는 바, 건강과 안전을 생각하는 친환경 농축산업의 단계별 확대와 친환경 농산물 시장대응을 위한 별도의 산지유통 전략 마련



〈그림 3-21〉 자원순환 고려 부산물과 폐기물의 이용체계

- 한편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상의 확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별도로 구축해 나가야 함
- 지역단위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을 통해 세밀한 자료를 구축하고 기상재해에 따른 적응 기술의 개발, 기반시설의 관리강화, 농가단위의 경제적 인센티브를 적극 활용해 나가야 함
- 구체적으로는 품종 전환, 생산기술 개발, 시설기준 강화, 신규시설 설치, 용배수 시설 확충 등의 대책이 요구

■ 고부가가치 식품산업의 육성과 2단계 식품산업 발전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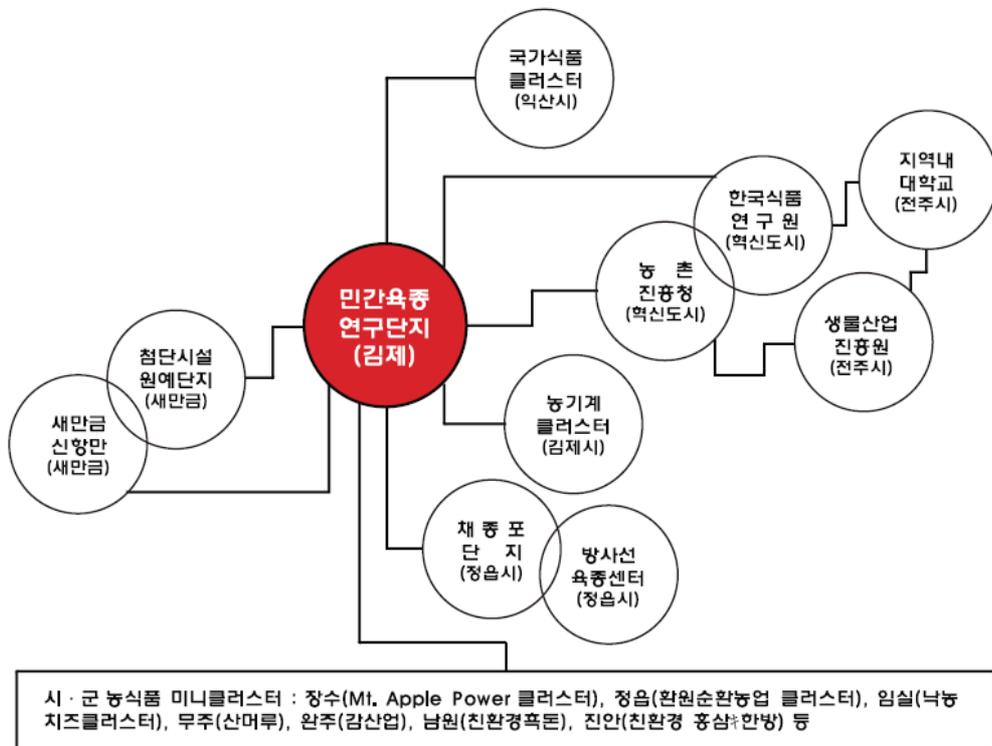
- 국가식품 클러스터(Food Polis)의 작동은 전라북도 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기업의 경제활동으로 이어져 지역농업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
-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지역 농식품(미니) 클러스터는 전북농업의 부가가치 창출과 농업발전을 이끄는 성장동력의 씨줄과 날줄로 위치지우는 전략수립이 필요
- 식품산업 발전의 전제는 생산자와 식품업체(기업)간의 원료 농산물 및 식재료에 대한 계약거래가 핵심이며, 이를 촉진하기 위한 행정·재정적인 인센티브 지원 및 제도를 구축해 나가야 함
- 이와 함께 건강 농식품의 사회적 요구 확대와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조절을 통한 예방의학의 관심은 농업과 의학의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가치로서 ‘에그로 메디컬 산업’의 출현을 예비하고 있음
- 에그로 메디컬 산업은 농식품 공급사슬의 혁신, 정밀농업의 확대, 과학과 결합한 농식품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신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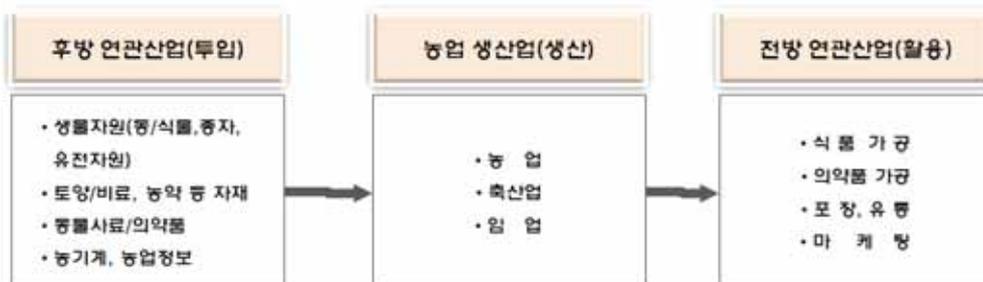
〈그림 3-22〉 농업과 의학의 융합에 의한 에그로 메디컬 산업의 출현

■ 융·복합을 통한 새로운 농산업의 창출과 확장

- 새로운 농산업의 창출과 확장은 농업생산을 심으로 전방과 후방의 긴밀한 연계체계 구축을 통해서 가능하며, 이 과정에서 생산되는 부가가치를 농업에 귀속시키는 노력이요
- 농업부문 생산의 후방 연관산업으로서 농자재, 농기계, 종자산업의 활성화는 전복 농산업은 물론 한국농업의 발전을 선도할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며, 농기계 산업 클러스터와 민간육종연구단지(시드밸리)는 지역 내 연관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핵심적인 농산업의 발전 모델이 될 것임



〈그림 3-23〉 농산업 부문의 가치사슬 구조



〈그림 3-24〉 민간육종연구단지를 심으로 한 산업간 연계 체계

■ **자율관리 어업을 통한 자구노력의 확산과 바다목장의 적극적 육성**

- 수산자원의 이용주체인 어업인이 수산자원을 스스로 조성·관리해 나가기 위해 공동체(어촌계 및 동종어업 단위)를 통한 수산자원관리 및 공동생산의 확대
- 연안해역에 인공어초, 종묘방류 등의 수산자원을 증강시켜 어업인 소득 증대와 대국민 해양관광 활성화에 기여

4. 세부 추진과제

■ **농산업 가치사슬 혁신에 의한 지역농업의 기초체력 강화**

- 변화하는 농어업 환경변화에 강한 지역농업의 기초체력을 키우기 위해 농산업의 가치사슬 혁신에 입각한 적극적 정책 추진
-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각 분야별 전문기술 구축, 농업경영체 경영능력 제고, 안정적인 후계농업인력 확보, 농업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의 실질적 구현
- 농업경영체의 안정적 소득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다양한 직접지불제도의 교차 실행으로 안심하는 농가소득 지원기반 구축

■ **시장에 강한 쌀 산업 및 과수원에의 집적 육성과 특화 품목 육성 전략**

- 전북농업을 대표하는 쌀 산업의 새로운 지평을 열기 위해 과거와 같은 경영체 단위의 쌀 생산 지원정책을 품질 생산을 위한 다양한 경쟁력 제고 사업으로 확대
- 쌀 산업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특화된 미곡종합처리 시설기반을 구축하고, 고부가 가공시설의 대폭 확충
- FTA 등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대응한 과수원에 산업의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생산기반의 구축과 지역단위 특화작목의 적극적 육성

■ **FTA 대응 경쟁력 갖춘 산지유통의 조직화**

- 지역농협 심의 수평적·수직적 산지유통 조직화의 구축을 통해 안정적 출하처 확보
- 광역단위 품목별 유통조직의 결성 및 전문화, 이를 확장한 통합 마케팅 전문조직의 육성으로 전라북도 농산물의 산지유통 능력 극대화
- 품목별, 지역별 거점형 산지유통시설의 구축을 통해 다양한 산지유통주체의 시장 출하능력 강화

- 친환경 농산물의 전문적 산지유통기반 구축, 인터넷 유통 활성화, 신선 농산물의 수출능력 제고
- **기상이변에 대응한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력 강화로 지속가능한 농림업 기반구축**
 - 지구 온난화로 인해 일상화되고 있는 기상이변에 대응한 농업분야 기후변화 적응 능력 강화를 위한 농업생산 기반시설 구축 및 관리강화
 -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농산물의 기반구축을 위한 친환경 유기농업 지구의 적극적 확대 및 친환경 농자재 등 영농기반 구축을 위한 지원 확대
 - 가축분뇨-경종 등을 연계한 지역단위 물질순환체계 구축을 위한 친환경 자원순환 농업의 거점시설 확대
- **식품산업의 안정적 육성과 2단계 식품산업 발전의 기반 구축**
 - 농식품 산업을 선도하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안정적 조기 조성과 한식 세계화를 선도할 국제한식조리학교 및 발효식품 엑스포의 성과 있는 운영
 - 국가식품 클러스터와 연계하여 지역 농식품 산업을 선도할 소규모의 다양한 식품 기업의 육성 지원
 - 차세대 식품산업의 청사진을 제시할 농업과 의학의 융·복합 프로젝트 ‘에그로 메디컬 클러스터’ 구축
 - 전라북도 농산물의 상징인 쌀 산업의 농식품화를 추동할 핵심거점으로서의 쌀 가공식품 종합타운 조성
- **새로운 농산업의 창출과 확장**
 - 농산업 가치사슬 단계에서 후방산업의 적극적 산업화를 통해 새로운 농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
 - 한국 농산업 발전을 선도할 첨단 농기계 클러스터 및 민간육종연구단지를 확대한 골든시드밸리 구축을 통해 지역 내 연관산업과의 연계 시너지 효과 창출
 - 새로운 환황해권의 거점이 될 새만금 신항만의 배후에 조성될 수출농업 단지를 통해 아시아 농산물의 거점 기반 구축
- **가축질병에 안전한 축산업 기반 구축과 고품질 축산물의 경쟁력 강화**
 - 주요 축산물의 축사시설 현대화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을 위한 각종 생산지원을 통해 축산물 경쟁력 강화

- 축산경영을 위협하는 사료의 안정적 공급기반을 확대하여 축산 경영비를 낮추고 축산 분뇨의 자원화 시설 기반 확충
 - 상시화되는 가축질병 발생 조건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일상적 가축질병 방어태세를 구축하여 안전한 축산업의 기반 구축
- **산림자원의 적극적 육성을 통한 산림소득의 증진과 산림휴양 공간 확충**
- 안정적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 조림사업, 보호수 관리, 묘목생산 확대
 -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임업기계장비 및 산림 서비스 분야 인력의 확충과 산림 바이오 매스(에너지)의 거점 구축
 - 산림소득 증진을 위한 전문임업인 경영지원, 산림작물의 생산기반 조성, 임산물 유통지원 확대
 - 산림 병해충 방제 및 임도·사방사업 등 산림 보전관리를 확대하고 치유의 숲, 산림박물관, 수목원 조성 등의 보완을 통해 산림휴양·녹색공간 확충
- **안정적 신성장 수산자원의 확보와 수산물 부가가치 창출 기반 확대**
- 안정적 수산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연안바다목장 조성, 인공어초시설 등을 확대 조성하고 신성장 수산자원 확보를 위한 갯벌어업 육성
 - 수산물의 산지가공 시설을 확충하고 수산물 유통산업의 거점단지 및 관련 작업장 등을 확대하여 수산물의 부가가치 창출기반 확대
 - 수산업 영어의 안정적 조업기반 구축을 위해 지방어항을 확대 조성하고 부잔교를 확대 설치
 - 양식장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영어 경영비를 절감하고, 바다 숲 조성을 통한 바다 녹화사업 확대

제2절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농산어촌의 활력화 기반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농산어촌 지역 과소화의 급격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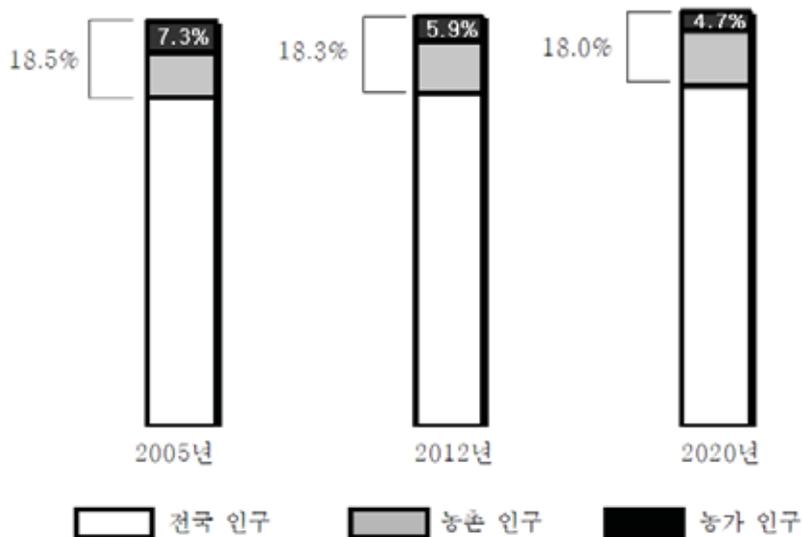
- 경제발전 과정을 거치면서 농산어촌 인구의 도시 유출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지역 내 고령화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감소는 지역 내 인구 과소화 문제는 물론 지역 간 연령 및 성별 구조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농촌지역의 노동력 부족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표 3-48〉 농촌인구 장기 전망 및 65세 이상 인구비율

(단위 : 천호, %)

구 분	농산촌 인구	농산촌 인구비	5년전 대비 변화율	농산촌지역 65세이상 비율
2000년	9,342	19.9	-2.3	14.7
2005년	8,703	18.0	-6.8	18.6
2010년	7,984	16.2	-8.3	22.3
2015년	7,243	14.5	-9.3	25.4
2020년	6,497	13.0	-10.3	2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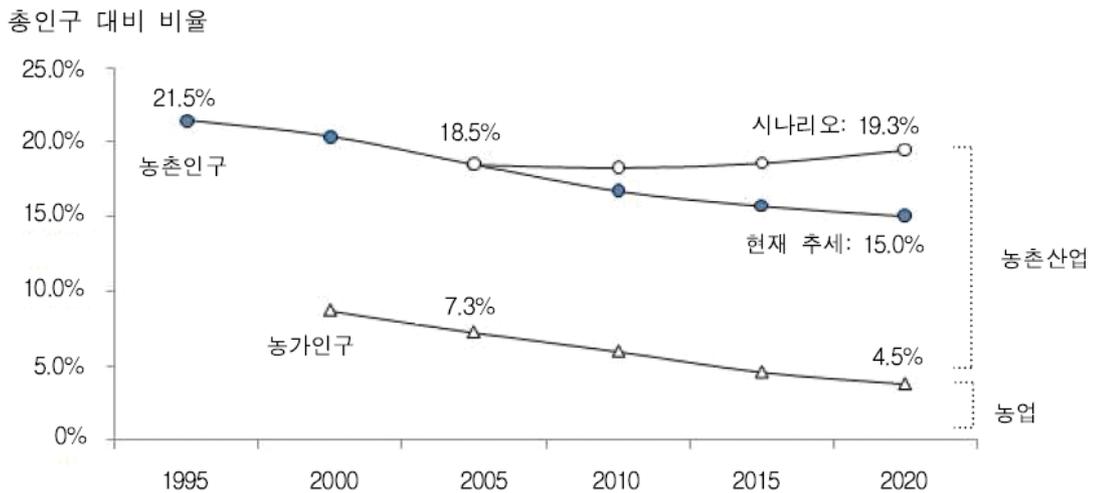
자료 : 김배성·최세현, ‘농촌지역 인구구조 변화의 방향과 성격’, 『한국유기농업학회』, 2007



〈그림 3-25〉 농촌 및 농가인구 비 변화 전망

■ 농산어촌 지역의 경제활동 기회 미흡

- 농산어촌 지역에서 농림수산업 부문은 전체 고용의 30.2%(2005년)를 차지하는 요한 산업이지만, 농어업 소득의 한계를 보상할 다양한 경제활동 기회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농수산물의 시장개방 및 국내·외의 치열한 시장경쟁 등의 가속화로 농가교역조건(=농가판매가격지수/농가구입가격지수)은 1995년 130%에서 2011년 90.4%로 지속적으로 악화
-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입지조건에 처한 농산어촌 지역은 산업적 측면의 일자리 창출 기회를 갖기도 쉽지 않아 농어업 이외의 소득구조를 갖는데 절대적으로 불리



〈그림 3-26〉 농어촌 인구변화 추세와 농촌산업 육성의 관계

〈표 3-49〉 농가소득 구성 및 도·농간 소득격차의 추이

(단위 : 천원, %)

구 분	농가소득	농업소득	농외소득	도농간 소득격차
1995년	21,803	10,469	11,334	130.0
2000년	23,072	10,897	12,175	111.7
2005년	30,503	11,815	9,884	78.2
2010년	32,121	10,098	12,946	76.7

자료 : 통계청, 각 년도

■ 농산어촌 지역의 상대적 낙후성으로 복지, 교육, 문화 등의 열악함이 심화

- 최저 생계비로 생활하는 농촌인구의 비은 18.2%(2008년)로 도시의 8.5%보다 절대적으로 높고, 상대빈곤도 빈곤선이 상향됨에 따라 그 차이는 더욱 벌어지고 있음

〈표 3-50〉 농촌-도시지역의 빈곤층 실태

(단위 : %)

구 분	최저생계비 (=절대)미만	상대빈곤		
		위 40% 미만	위 50% 미만	위 60% 미만
농 어 촌	18.2	27.7	36.8	44.3
도 시	8.5	13.2	18.7	24.4
전 체	9.4	14.6	20.4	26.3

자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복지패널조사’, 2008

- 농산어촌 지역의 학교교육은 학생 수의 절대규모가 줄어들어 소규모 학교가 늘었으며 초등학교의 통·폐합이 진행되는 등 절대적인 교육여건의 악화를 가져옴
- 농산어촌 지역은 학교교육의 절대적 악화와 함께 지역주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는 시설과 기회도 부족한 실정

〈표 3-51〉 농촌-도시지역의 초등학교 수 변화 추이

(단위 : 개교, %)

지역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2011년	학교 수 변화
도시지역	2,576	2,959	3,288	3,332	22.7
농어촌지역	2,691	2,687	2,566	2,550	-5.5
-읍 지 역	539	636	635	659	18.2
-면 지 역	1,676	1,658	1,563	1,556	-7.7
-도서벽지	476	393	368	335	-42.1
전 체	5,267	5,646	5,854	5,882	10.5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 년도

〈표 3-52〉 농어촌-도시의 교육·문화여가 서비스 활성화 실태 비교

(단위 : 점)

교육 및 문화여가 서비스	도시형	도농연계형	농산어촌형	평균
국공립 도서관	4.36	4.00	3.54	3.87
문화예술회관(문화회관, 시·군민회관 등)	4.34	4.00	3.84	4.00
미술관·박물관·전시관	3.65	3.03	2.95	3.15
청소년 관련시설(청소년 수련관 등)	4.11	3.49	3.56	3.68
실내 체육관	4.28	3.91	4.00	4.04
실외체육관	4.54	4.13	4.20	4.26
성인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4.22	4.08	3.53	3.84

* 주 : 5점 리커트 척도 기준에 의한 활성화 정도 평가

자료 : 송미령 외, ‘기초생활권 생활 서비스 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9

■ 지역 활성화의 다양한 정책추진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는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정부는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농수산물의 생산·유통, 농산물 가공, 농촌관광, 서비스 개발 등의 다양한 정책이 추진해 왔으나 일정한 성과로 이어지는데는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음
- 정부정책을 지역발전을 위한 촉매제로 보기보다 단발성 보조금으로 인식, 수요자(주민) 심의 접근 부족, 농어촌 특성을 활용한 지원 시책미비, 지역자원 활용 부가가치화 미흡 등이 원인으로 지적

〈표 3-53〉 농어촌 지역 활성화 정책의 비교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
농수산물 생산·유통	생산기반정비	규모확대 기계화	농업법인	농기계공동이용 마을영농
부업단지 (농산물가공)	농산물 가공	특산단지, 전 통식품	향토산업, 신활력사업, 지역특화품목육성	지역특화산업 (농촌활력증진사업)
(농촌관광)	관광농원	지역축체	도농교류	농촌체험관광
새마을 공장	농공단지	기업유치	-	농공단지
(서비스 개발)	-	-	-	농촌형 사회적 기업

자료 : 이동필, ‘농어촌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0.

■ 농산어촌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지역경제 활동으로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이외로 유출되는 비이 크다는데 있음

- 호남권의 경우 경제활동 성과의 21.8%가 지역 외로 유출되고 있으며, 그 비은 갈수록 커지고 있음
- 수도권으로의 부의 역외 유출은 지역에 뿌리를 둔 경제활동의 주체가 부족하여 지역에서 순환되는 경제활동 구조를 만들지 못한데 기인함

〈표 3-54〉 광역경제권 지역내 총생산 및 지역 총소득 현황 (2010년)

(단위 : 십억원, %)

구 분	지역내총생산 (GRDP)	지역총소득 (GRI)	GRDP대비 지역외 수취소득 비
수 도 권	562,151	680,284	21.0
충 청 권	137,080	102,915	-24.9
호 남 권	115,495	90,346	-21.8

자료 : 통계청(KOSIS)

〈표 3-55〉 광역경제권 GRDP 대비 지역 외 수취소득비 추이

(단위 : %)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수 도 권	14.4	16.1	18.1	17.7	17.5	18.0	18.1	18.2	21.0
총 청 권	-18.1	-18.1	-17.3	-19.0	-19.2	-19.9	-18.1	-22.1	-24.9
호 남 권	-14.9	-15.9	-18.3	-19.9	-18.9	-19.5	-22.0	-18.5	-21.8

자료 : 통계청(KOSIS)

2. 여건변화와 전망

■ 농촌이 가진 잠재력을 새롭게 해석하고 가치화하는 노력 가속화

- 농산어촌 고유의 경관과 생태·문화자원 등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가 정비되어 농산어촌 특성에 맞는 지역개발계획 수립(가이드라인 제시)을 통해 농산어촌 다움(어메니티)이 유지되는 정책 확산
- 바이오 매스, 경관 및 생태자원, 농어촌 소재 유희시설 자원 등을 녹색성장 자원으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화 확산

■ 도시발전의 배후지가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가는 동반자로 농산어촌 인식

- 2020년 국토 전체에 7×9 격자형 고속도로망 구축이 완료되고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일상생활(everyday life) 적용이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어 전국 어디에서나 30분 내에 소도시나 인터체인지에 접근 가능
- 농림어업이 지배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농림어업 생산성 향상에 따른 농림어업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으나, 농어촌의 특산자원과 유·무형자원을 바탕으로 2·3차 산업이 도시와 가까운 농산어촌 지역에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지역간 교통여건은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지만 지역 내 서비스 전달 등을 위한 마을간 교통여건은 개선될 필요성이 있음. 도시민 유입으로 인해 더욱 성장하는 마을이 있는가 하면, 5.6호로 축소하는 마을이나 아예 사라지는 마을 등과 같이 다양한 형태의 마을로의 변천이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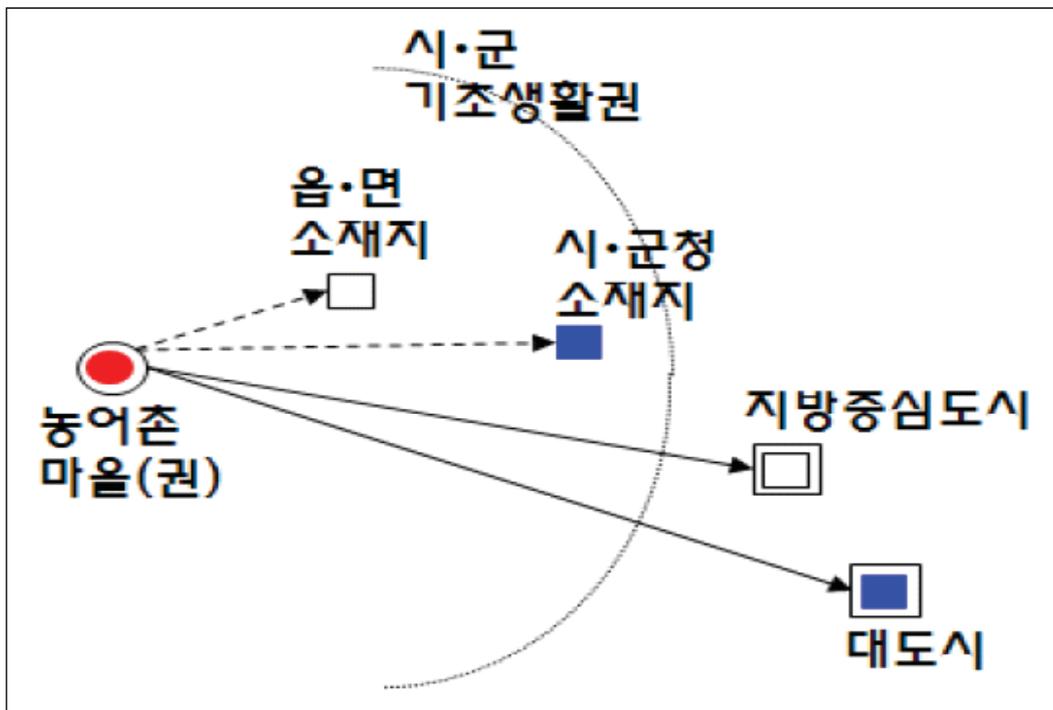
■ 농산어촌 지역에 대한 도시민의 다양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정주의향이 있는 도시민의 귀농·귀촌이 구체화됨에 따라 2020년 농산어촌 인구는 18.0%~19.3%까지 유지되거나 역전될 가능성도 상존함. 이른바 역도시화 현상(Urbanization)이 전망

- 농촌관광 마케터, 복지·문화서비스 전달사, 귀농·귀촌 컨설턴트 등 농업과 비농업 경계에서 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직업군도 등장할 것으로 전망
- 새로운 산업 활성화를 위해 ‘도시민 농촌유입 촉진’ 활동으로 도시-농산어촌을 연결하는 인재 매칭시스템(matching system) 등이 확산되어 은퇴교사, 예술가, 기술자 등 도시민 단체를 농어촌 마을 단체와 연결·개해 주는 정책 확산
- 도농교류 정책의 확산으로 농촌의 가치를 아는 사람들과 농촌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등이 확대될 전망

■ 행정구역 심의 정주생활권 공간구조가 다원화되고 있음

- 도로, 교통, 정보통신, 인터넷 등의 발달로 생활 및 경제활동의 광역화가 진행되어 농산어촌에 거주하면서 도시로 출퇴근하는 인구가 늘어 도시의 흡인력이 확대되어 농어촌의 공동화가 지속될 전망
- 시·군청 소재지 외 읍·면 소재지와 같은 농어촌의 하위 심지 육성을 위한 정책이 감소하여 심지 기능 제공에 거리마찰이 상대적으로 큰 농어촌 정주생활권의 심지가 대도시 및 지방중심도시 심으로 재편되고 있음



〈그림 3-27〉 농어촌 정주생활권 공간구조 변화

〈표 3-56〉 농어촌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구 분		현 재	미 래
정책 수준	철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별 정책방향은 설정되어 있으나, 전체를 아우르는 명확한 철학 취약 ※ 고전적 의미의 경쟁력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다움(Rural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 경쟁력의 재 정의(농촌다움이 경쟁력)
	범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 : 산업(경제), 복지 정책고객 : 농업인 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분야 : 산업(경제), 복지, 농촌(자연) 자원 정책고객 : 농업인, 지역주민, 도시민
	시스템 거버넌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Top-down 방식(폐쇄적 분절형, 권 위주의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Bottom-up 방식(개방적 네트워크형, 민주·자율형)
전략 수준	양정부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위사업까지 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심의 성과지향적 사업추진 가이드라인 제시 평가, 환류 강화
	사업(예산)의 양적·질적구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편(하드웨어, 단기사업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균형(소프트웨어, 장기 지식·통계 인벤토리, 장기적 체질강화)
	제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업과 농촌 혼재(농업>농촌)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부각(농업<농촌)
관리 수준	정책지표 (indicato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구, 소득 등 일부 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촌다움, 지속가능성 등을 포괄하는 다양한 지표개발·활용
	사업추진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별사업 위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특성을 살리는 포트폴리오(사업군) 방식

자료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지역발전정책 변화에 대응한 농어촌 정책 방향 설정 및 농어촌 서비스 기준 도입방안 연구’, 농림수산식품부 연구보고서, 2009.

■ **협동조합 기본법의 시행(2012. 12)을 계기로 지역경제에 뿌리를 둔 경제활동 주체로서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 주체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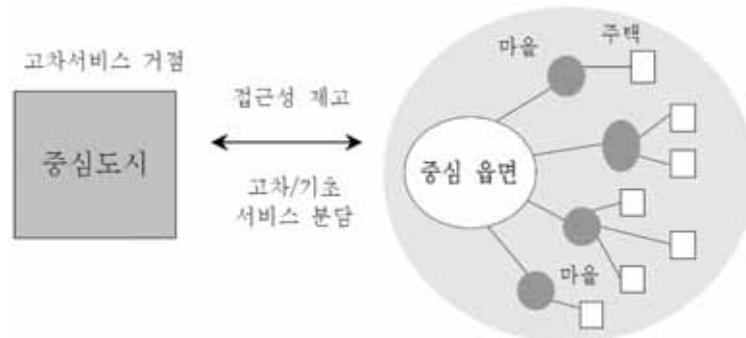
- 협동조합 기본법은 기존 8개 법률에 의해 개별적으로 설립이 허용되던 협동조합 설립 기준을 금융보험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출자금의 규모에 상관없이 5명만 모이면 설립이 가능하도록 그 기준을 대폭 완화하였음
- 특히 조합원의 편의보다 사회적 목적 실현을 우선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와 일자리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의 설립이 가능해져 지역사회의 다양한 공헌활동이 기대되고 있음

3. 계획의 기본방향

■ **도시와 함께 발전하는 삶터, 일터, 쉼터의 기초생활 서비스 확충**

- 기초생활권 간 균형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농산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하여 운영

- 농산어촌 지역에 공통적으로 공급할 공공 서비스 항목과 달성 목표를 설정하여 최소한의 삶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한 서비스 수준 목표(national minimum) 설정
- 지방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농산어촌 서비스 기준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를 정비(광역단체, 기초단체, 주민·단체, 민간기업 등)하여 공공 서비스 공급의 주체 및 이해관계자 간 역할분담 및 협력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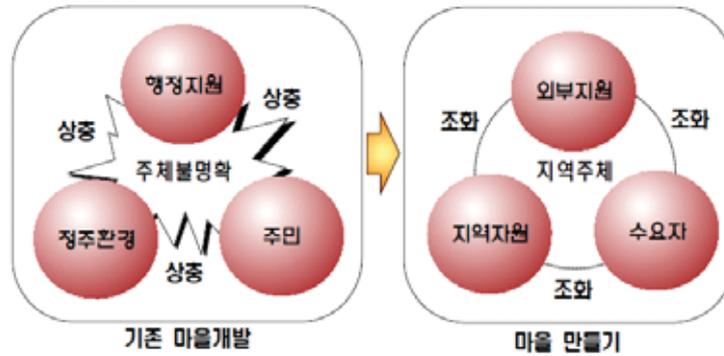
〈그림 3-28〉 효율적인 농산어촌 지역의 서비스 전달체계

〈표 3-57〉 일터, 쉼터, 삶터로서의 농산어촌 공간 구축

구 분	주요내용
일 터	다양한 경제활동 유도, 농산어촌 산업 발굴·육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쉼 터	주택경관 및 자연경관의 개선과 보전, 빈집·노후주택 등 개선 및 재활용
삶 터	교육, 사회·복지, 보건·의료, 문화·여가 등 기초생활 서비스 공급확대

■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활력 있는 농산어촌 지역, 내실 있는 마을 만들기의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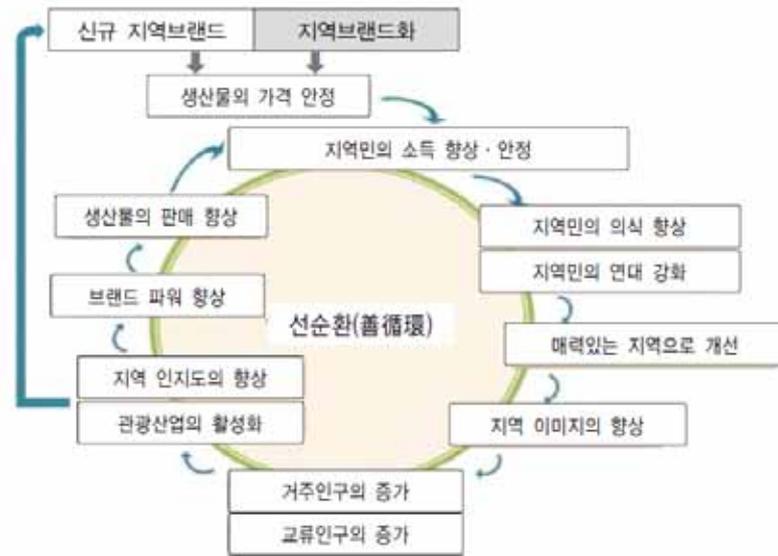
- 농산어촌 지역의 자연과 문화 등 농산어촌 어메니티(농촌성)에 바탕을 둔 ‘소비되지 않는 도농교류, 농촌관광’ 전략 견지
- 외부 자본에 의한 대규모 개발사업보다는 지역 내 자본에 의한 소규모성을 통해 지역경제의 이익이 지역에 유입되어 지역경제의 파급효과 유도
- 지역 만들기 또는 마을 만들기의 실천주체는 지역주민이기 때문에 주민주도 역량 강화를 전제로 소득 증대 및 지역 활성화 활동과 연계되는 활동을 견지. 마을 만들기 사업의 단계별 확대
- 소득개발이나 인프라 구축 이전에 이를 담당할 사회조직을 육성하고 핵심주체를 육성하는 데 점을 두어 추진



〈그림 3-29〉 지역역량을 바탕으로 마을 만들기 실천전략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경제활동 다각화 기반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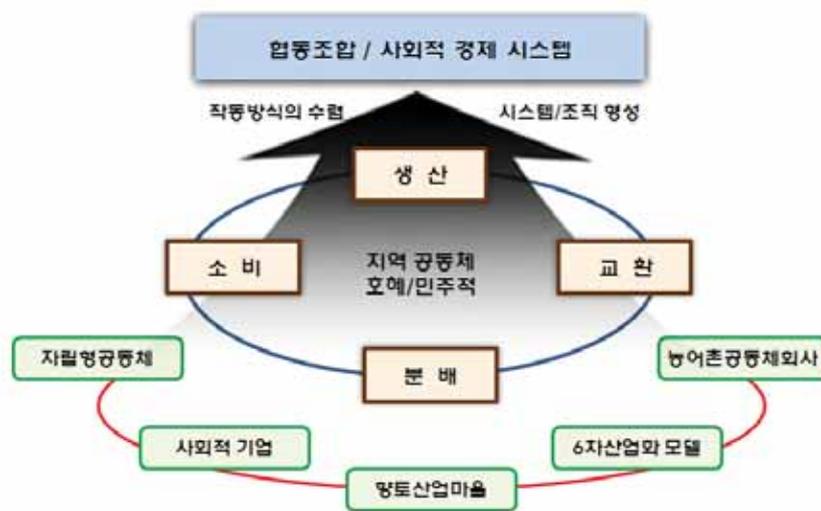
- 지역 내 다양한 경제활동의 체계적인 유도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농산어촌형 산업 발굴·육성



〈그림 3-30〉 지역 브랜드에 의한 지역농업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구조

- 지역의 자원에 기반한 향토산업, 지연산업 등 지역경제 밀착형 경제구조를 바탕으로 관련된 도시자본 및 기업 유치
- 지역특화산업의 부가가치 제고, 특히 농산물의 문화 상품화를 위해서 1차×2차×3차 산업이 융·복합된 6차 산업화를 추진하고 이를 통해 지역 브랜드를 확립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선도

- 협동조합 방식의 경제활동 주체가 심이 된 지역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 협동조합은 공동체의 가치를 기반으로 좋은 일자리와 사회적 서비스를 스스로 만들어 작지만 강한 지역경제를 구축해 나가는 현실적 전략
 - 협동조합이 심이 되거나 협동조합 방식으로 생활 경제상의 필요에 의한 재화/서비스를 생산-교환-분배-소비하는 작동 시스템 구축
 - 사회적 경제와 협동조합의 순기능을 지역사회 각 주체가 합의하고 공감하는 수준으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과 네트워크가 핵심



〈그림 3-31〉 농촌지역 활성화 사례에 기반한 지역순환경제 구상

4. 세부 추진과제

- 농산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및 주민주도 농산어촌의 종합개발 추진
 - 여러 영역에 걸쳐 있는 다양한 농산어촌 기초생활 환경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기본방향 설정을 위해 농산어촌 기초생활 서비스 기준 마련
 - 지역주민의 생활여건에 입각한 개발수요에 입각하여 주민주도의 농산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 추진
 - 구체적으로 마을기반정비, 농산어촌 경관개선, 문화·복지시설 및 환경보전시설의 정비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하고 확충
 - 생활권 및 영농권 등을 고려하여 마을과 마을을 상호 연계하는 소권역 및 지역의 거점이 되는 읍·면단위로 지역범위를 다양하게 설정한 세부 정책 추진

■ **농어업인 복지 확충 및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 각종 복지시설에의 접근성이 낮은 농산어촌 거주 농어업인에 대한 이용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농어업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도모
- 농산어촌 지역 출신의 학생에 대한 교육비 부담 및 경감을 통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농산어촌 영유아 교육 활성화를 위한 보육교사의 안정적인 근무조건 개선
- 도농교류를 매개로 한 농산어촌 체험유학마을을 조성하여 농산어촌 여건에 맞는 독자적인 농산어촌 교육 활성화 모델 구축

■ **농산어촌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정책의 추진 및 확대**

- 주민주도의 농산어촌 공동체가 심어 되어 농산어촌의 복합 산업화를 추진해 나가는 거점으로서의 향토산업마을의 집 육성
- 지역성과 차별성이 있는 다양한 향토자원을 종합화하여 마을단위의 새로운 마을 만들기의 모델 구축
- 새로운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슬로시티 전략을 전라북도의 실정에 맞게 적용한 전북형 슬로시티 구축
- 지역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여건에 맞는 슬로푸드, 슬로산업, 농촌관광, 농촌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구축
- 기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마을-권역-읍·면 등 사업의 단계별 확장 및 체계적 통합, 이를 종합하는 마을 만들기 통합축제 개최

■ **농산어촌의 경제활동 다각화 기반의 구축을 통한 농산어촌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농산어촌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향토자원을 개발하여 1차·2차·3차 산업으로 연계·발전시켜 지역경제 활력 증진 도모
- 시·군 단위의 향토자원을 발굴하는 산업화 전략으로서 ‘농식품 6차산업화-향토 산업육성-지역농식품선도클러스터-광역클러스터’ 등 다양한 다각화 전략 실천
- 이를 위해 산학연관 등 다양한 사업주체가 참여하는 클러스터형 사업 추진체계 구축
- 기존 특산제품의 고급화 및 다양화, 전통 농산어촌 자원을 활용한 상품개발, 향토자원을 활용한 문화상품 개발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제활동 다각화 추진

- 농산어촌 지역시장의 창출을 위한 로컬푸드 시장의 개척 및 확장, 공공급식(학교 급식)과 연계한 안정적 농산물의 소비구조 확충
- **농산어촌 활력화의 새로운 에너지, 귀농·귀촌 활성화의 적극적 추진**
 - 고령화 및 과소화된 농산어촌의 활력화를 위한 귀농·귀촌 활성화 정책의 적극적 추진
 - 농산어촌 사회에 귀농·귀촌자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 인턴십, 농가주택 등 정책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
 - 도시민의 농산어촌 유치를 위한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지원 등으로 수동적인 귀농·귀촌 정책에서 찾아가는 적극적 정책으로 전환
 - 농산어촌의 열악한 정주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농산어촌 귀농타운, 전원마을, 농산어촌 뉴타운 등을 통해 은퇴자 및 젊은 세대의 적극적 귀농·귀촌 유도
- **다양한 협동조합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 지원체계 구축**
 - 협동조합 활동의 이해를 높이고 다양한 영역에서의 실천 가능성을 확산하기 위한 협동조합 교육 및 활동가 육성 강화
 -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거한 신규 협동조합 설립 및 전환 조직의 정착 지원
 - 기존 사회적 경제 단체와의 조화 및 순환성 강화 지원을 통해 전북형 지역순환경제 체제 구축
 - 기존 사회적 경제 단체와 신규 협동조합의 지역 시너지 제고 지원을 통해 전북형 지역순환경제의 혁신 도모

제6장 국제교통물류망 확충과 토지연안이용 효율화

제1절 광역교통망 강화와 첨단교통환경체계 구축

1. 현황과 문제점

■ 지형적 영향으로 인한 동서 지역간 도로망 형성 미흡

- 국도급 이상의 주간선도로망은 남북방향 12개 도로망, 동서방향 8개 도로망으로 구성됨
 - 남북방향의 주간선 도로망은 호남고속국도, 서해안고속국도, 대전-통영간 고속국도와 국도 1호선 등의 8개 국도노선을 포함하여 총 12개의 도로망으로 구성되어 있음
 - 동서방향으로는 88올림픽고속국도, 익산-포항간 고속국도, 고창-장성간 고속국도와 국도 26호선 등의 5개 국도를 포함하여 8개 도로망이 구축되어 있음
 - 최근 2011년 전북 완주군 용진면에서 전남 순천시까지 연결하는 고속국도 27호선(순천-완주간 고속국도)이 개통되어 전주, 남원, 지리산과 남해안 한려수도를 하나의 벨트로 연결함
- 광역 도로망체계에 있어서 전북지역의 동서 지역간 간선도로망 형성은 미흡
 - 동고서저의 지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도권 지향형의 남·북 연계망이 잘 발달되어 있는 반면, 동·서 지역간 지역통합성 제고를 위한 간선도로망 형성은 미흡한 실정임
 - 현재 동서 지역을 연결하는 88올림픽 고속국도가 있으나 지역간 인적·물적 교류의 장애요인을 극복하는데 있어 한계점을 보이고 있으며, 진행 인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가 향후 완공이 된다면 지역간의 교류문제는 일부 극복될 것으로 예상됨
- 국도급 이상의 주간선도로망은 전북지역 내 주요 지방도와 더불어 전북의 심도시인 전주시 집형의 도로망 체계를 형성하고 있음
- 광역도로에서의 교통량은 고속도로의 경우 꾸준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일부 일반국도의 경우 감소율을 보임

〈표 3-58〉 광역 도로망 현황

구 분	고속국도		일반국도	
	구간	노선번호	구간	노선번호
남북 방향	정읍 입암-익산 여산	제25호선 (호남고속국도)	(논산-장성) 익산 여산-정읍 입암	국도1호선
	고창 대산-군산 대야	제15호선 (서해안고속국도)	(금산-곡성) 완주 운주-남원 금지	국도17호선
	장수 장계-무주 부남	제35호선 (대전통영고속국도)	(영동-구례) 무주 무주-남원 주천	국도19호선
	남원 서남원-완주 용진	제27호선 (순천완주고속국도)	(군산-보령) 군산 성산 원대강	국도21호선
			(논산-영광) 익산 용안-고창 대산	국도23호선
			(군산-순창) 군산 성산-순창 풍산	국도27호선
			(부여-장성) 군산 성산-순창 복흥	국도29호선
			(금산-거창) 무주 무풍-무주 무주	국도37호선
			(군산-경주) 군산 구암-군산 구암	국도4호선
			(정읍-함평) 정읍 원표-고창 공읍	국도22호선
동서 방향	순창 금과-남원 아영	제12호선 (88올림픽고속국도)	(담양-함양) 남원 인월-순창 금과	국도24호선
	장수 계남-익산 왕궁	제20호선 (익산포항고속국도)	(정읍-함평) 정읍 원표-고창 공읍	국도22호선
	고창 고수-고창 고수	제253호선 (고창담양고속국도)	(담양-함양) 남원 인월-순창 금과	국도24호선
			(옥구-함양) 군산 옥서-장수 장계	국도26호선
			(부안-금릉) 부안 보안-무주 무풍	국도30호선

〈표 3-59〉 주요 광역도로 교통량 현황

(단위 : 대/일, %)

구 분	구 간	2006년	2008년	2010년	증가율	
고속 국도	호남	전주IC-서전주JC	33,076	34,037	36,820	2.72
	서해안	동군산IC-서김제IC	10348	11851	10698	
	익산-포항간	완주IC-완주JC	-	5,876	10,794	-
	순천-완주간	완주JC-동전주JC	-	-	9,201	-
일반 국도	1호선	전주-삼례읍	39,780	43,430	42,725	1.80
	17호선	전주-봉동읍	20,744	20,248	20,523	-0.27
	21호선	전주-공덕면	39,256	36,175	41,556	1.43
	26호선	전주-진안읍	26,231	22,669	23,227	-2.99
	27호선	갈담리-구이면	9,512	8,972	9,818	0.79

자료 : 한국도로공사 포털홈페이지,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 농어촌지역은 도로연장에 비해 포장률이 낮아 이용효율 저하

- 2010년 기준 전라북도 도로의 총연장은 7,970km이고 도로종별로는 고속도로 413km, 국도 1,421km, 지방도 1,903km, 시·군도 4,233km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국대비 전라북도 도로 점유율은 평균 7.5%를 보이고 있음
-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의 도로연장 연평균 증가율은 0.85%이며, 전라북도의 경우 0.67%로서 전국의 경우보다 약간 낮음
- 전라북도 내 고속도로의 경우 연평균 10.00%의 도로연장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국도, 지방도 및 시·군도의 경우 거의 정체를 보이고 있음

〈표 3-60〉 전라북도 도로연장 증가추이

(단위: km)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 증가율(%)	2010년 전국대비 점유율(%)
전국	102,061	103,019	104,236	104,983	105,565	0.85	-
전라북도	7,761	7,860	7,974	7,864	7,970	0.67	7.5
고속도로	282	348	348	348	413	10.00	-
국도	1,428	1,419	1475	1,402	1,421	-0.12	-
지방도	1,901	1,901	1922	1,903	1,903	0.03	-
시·군도	4,150	4,192	4227	4,218	4,233	0.50	-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전라북도 통계연보

- 2010년 현재 전라북도에는 총 5,651개의 노선에 포장도로는 5,795km로서 72.7%의 포장률을 보이며, 미포장도로 1,207km, 미개통도로 968km가 있음
 - 고속도로, 일반국도, 국가지원 지방도는 각각 100.0%, 97.4%, 96.6%의 높은 포장률을 보이는 반면에, 지방도, 시도, 군도는 77.0%, 66.8%, 51.3%를 보임
- 전라북도 도민의 주요 생활도로인 지방도, 시·군도의 포장률이 낮고, 미포장 및 미개통 연장이 큼으로 향후 생활수준의 향상과 목적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생활도로의 개선이 필요함
- 또한, 전라북도 지방도 및 시·군도의 경우 2차선도로가 대부분이고 농촌·산간 지역에 위치해 있어 교통사고 예방과 효율적인 교통운영을 위해 선형개량과 함께 차선 확폭이 꾸준히 이루어져야함
- 농촌지역 특성상 농기계의 운영과 고령화에 따른 보행자의 안전 등을 고려한 도로계획도 선진화 된 교통문화증진에 필요한 요소임

〈표 3-61〉 전라북도 도로현황(2010년)

(단위 : km,)

등급	노선수	총연장	포장도		미포장도	미개통도
			연장	포장률(%)		
계	5,651	7,970	5,795	72.7	1,207	968
고속도로	6	413	413	100.0	-	-
일반국도	15	1,421	1,384	97.4	-	37
국가지원	5	263	254	96.6	4	5
지방도	56	1,640	1,263	77.0	231	146
시도	5,317	1,993	1,332	66.8	15	646
군도	252	2,240	1,149	51.3	957	134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 2007년 전라북도 시·군별 도로연장은 군산시 974km, 익산시 863km, 전주 시 598km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시·군별 연평균 증가율은 군산시와 전주시가 각각 13.84%, 11.42%로 높게 조사됨
- 특히, 군단위의 낮은 포장률은 잦은 교통사고발생과 안전한 차량운행에 걸림돌이 됨으로 주민의 생활도로인 시·군도의 포장률을 높이고 교통안전시설을 보강하여 교통비용절감과 주민불편을 해소함

〈표 3-62〉 도시별 도시종류별 현황(2009년)

(단위 : km, %)

구분	계		고속국도	국도		지방도		시·군도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연장	포장률
합계	7,863.9	72.1	347.5	1,401.7	96.1	1,902.8	79.7	4,218.4	58.2
전주시	585.3	69.5	5.3	53.7	90.4	15.4	100.0	510.9	65.1
군산시	974.2	73.1	15.1	132.1	70.1	121.2	82.2	705.9	71.6
익산시	873.3	75.0	17.3	75.0	100.0	158.0	72.3	623.1	71.9
정읍시	598.1	76.3	34.3	123.6	100.0	172.9	80.2	267.1	59.8
남원시	665.6	70.4	42.0	106.3	100.0	149.0	93.8	368.3	49.0
김제시	662.8	62.5	30.2	80.9	100.0	189.5	72.8	362.2	45.6
완주군	509.6	65.4	37.8	98.9	99.5	190.2	68.0	189.3	37.0
진안군	500.1	75.0	23.6	106.3	100.0	183.0	90.3	187.4	42.7
무주군	327.5	79.0	28.9	111.2	100.0	75.7	89.5	111.6	45.6
장수군	416.0	74.0	32.1	101.2	100.0	132.0	85.3	150.7	39.2
임실군	488.7	67.0	0.0	102.1	100.0	165.3	73.0	221.3	47.2
순창군	333.5	75.5	17.5	98.0	100.0	84.2	88.8	133.8	46.1
고창군	485.1	79.7	40.9	90.3	100.0	136.2	74.6	217.7	70.6
부안군	444.1	72.5	22.6	122.0	88.8	130.3	79.4	169.2	51.7

■ 도시주변도로의 용량부족 발생

- 교통량이 높게 나타난 주요 국도의 서비스수준을 살펴보면, 교통량이 가장 많은 국도1호선 전주시-삼례읍 구간이 평일 E 수준으로 도로용량의 증대가 필요하며, 기타의 경우 B, C 및 D 수준으로 국도상의 차량소통에는 큰 어려움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역의 경제발전 및 물적·인적교류의 증가를 고려한다면 일부 주요간선도로의 용량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최근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의 지속적인 건설과 재정비로 인해 도로교통량이 분산됨으로서 차량소통의 애로구간이 감소되고 있으나 계절적 요인에 따른 차량집과 주요 도시주변도로의 정체 현상이 일부 발생되고 있음

〈표 3-63〉 주요국도 서비스수준(2010년)

노선번호	구간명	차선수	평 일		주 말	
			V/C	서비스 수준	V/C	서비스 수준
국도 1호선	전주시-삼례읍	4	0.79	E	0.69	D
국도 17호선	관촌면-전주시	4	0.48	C	0.52	C
국도 23호선	익산시-황등면	4	0.44	C	0.40	B

주 : 교통량 정보제공시스템, 국토해양부

■ 동·서 지역간 철도망 부족

- 2010년 전라북도 철도망은 5개 노선 226.0km로서 전국 철도망 총 연장 3,557.3km의 6.35%이며, 호남선 및 전라선은 복선으로 운영되고 있음
- 호남선이 경우 KTX가 일부 구간 개통이 되어 운영되고 있으나, 2014년 호남고속철도가 완공되면 수도권과의 시간은 1시간대로 좁혀질 것으로 예상되며, 전라선의 경우 2011년 복선 전철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여수까지 KTX가 운영되고 있음
- 지역 내 대부분의 철도망이 남·북으로 개설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동·서 지역간을 직접적으로 연계하는 철도망은 전무함

〈표 3-64〉 전라북도 철도시설 현황(2010년)

구 분	총연장(km)	도내통과구간	연장(km)	역수(개소)	선로형태	비고
호남선	223.74	용동-백양사	81.9	7	복선	-
전라선	218.41	익산-금지	100.8	11	복선	-
군산선	20.89	익산-군산	20.9	5	단선	-
북전주선	4.22	동산-북전주	4.2	1	단선	화물전용
옥구선	18.24	군산-옥구	18.2	1	단선	화물전용

자료 : 한국철도공사·규레일공항철도·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통계연보

■ 연계교통 부족에 따른 철도 이용 저조

- 2010년 철도 승차인원은 4,036,819명으로 2006년부터 연평균 1.61% 감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하차인원은 4,037,238명으로 연평균 1.82%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으나,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 및 KTX개통 등으로 증가추이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화물수송의 경우 발송은 2009년 802,418톤으로 2006년부터 연평균 13.91%의 감소율을 도착은 1,074,783톤으로 연평균 2.77%의 감소율을 보임
- 전북지역의 경우 남북축의 철도시설은 양호하게 구축되어 있는 반면에 동·서를 연결하는 철도망이 부족하여 철도운송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또한, 철도는 이동의 완결성이 부족한 교통수단으로 보조교통수단과의 효율적인 연계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함으로 철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철도역까지의 효과적인 이동성을 제공해야 함

〈표 3-65〉 철도수송 현황

(단위 : 명, 톤)

구 분	여 객		화 물	
	승차인원	하차인원	발송톤수	도착톤수
2006년	4,307,868	4,345,964	1,257,668	1,169,255
2007년	4,221,013	4,214,118	1,100,239	1,284,126
2008년	3,906,761	3,913,394	1,047,127	1,382,818
2009년	3,875,077	3,875,456	802,418	1,074,783
2010년	4,036,819	4,037,238	-	-
증가율(%)	-1.61	-1.82	-13.91	-2.77

자료 : 한국철도공사·규레일공항철도·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통계연보,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 인적·물적인 국제교류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항만 부족

- 2010년 현재 군산항 시설현황을 보면 안벽 5,106m, 방파제 길이 3,993m, 잔교 15기, 물양장 1,567m, 접안능력은 30척임
 - 일반창고 15동, 야적장 예선, 순찰선 등이 있으며, 상옥 및 기기선 등은 설치되어 있지 않음
- 군산항에는 국제여객부두 및 연안여객부두를 포함하여 총 8개의 부두가 있으며, 제 4부두는 자동차 부두이며, 기타부두에서는 양곡, 원목, 잡화, 시멘트, 액체화물 등의 화물을 취급하고 있음

〈표 3-66〉 군산항만 시설현황

구 분		규모 및 능력
안벽(m)		5,106
방파제(m)		3,993
잔교(기)		15
물양장(m)		1,567
접안능력(척)		30
일반창고	동수	15
	면적	97,954
	수용능력	386,500
야적장	면적	1,077,557
	수용능력	3,430,103
예선	척수	7
	마력	24,254
순찰선	척수	1
	톤수	38

자료 :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

〈표 3-67〉 군산항 부두 현황

구 분	길이 (m)	접안능력 (DWT*선식)	야적장 (천㎡)	창고 (㎡)	주요 취급화물
합 계	5,316	31척	917	64,960	-
제1부두	525	20,000*1, 10,000*2	140	12,697	양곡, 원목, 잡화
제2부두	551	20,000*2, 5,000*1	53	-	양곡, 원목, 잡화
제3부두	640	20,000*3	151	12,030	시멘트, 양곡, 원목, 액체화물
제4부두(자동차)	300	20,000*1	85	-	자동차
제5부두	1,680	20,000*8	262	28,209	자동차, 컨테이너, 펄프, 잡화
제6부두	450	30,000*1, 20,000*1	180	10,284	양곡, 목재류, 청정화물, 액체화물
	240*2	2,000TEU*2	-	-	컨테이너
국제여객 부두	180	15,000*1	5	-	컨테이너
연안여객 부두	180	300이하	-	-	-
유류돌핀	8기	700-7,500*8	-	-	유류
장항항	330	10,000*2	41	1,740	시멘트 등 잡화

자료 : 군산지방해양항만청, 2008

- 군산항 물동량 처리실적을 살펴보면 2010년 23,992천톤으로 전국대비 1,203,176천톤의 1.9%를 차지하고 있고, 2007년 이후 전국 물동량은 연평균 3.24% 증가하는 반면에 군산항의 경우 연평균 증가율이 10.70%로서 전국 물동량 증가율보다 높게 나타나 전국대비 점유율도 연평균 5.90% 증가추세를 보여 왔음
- 컨테이너 처리실적은 2007년 29천TEU에서 2010년 104천TEU으로서 53.07%의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표 3-68〉 군산항 물동량 처리실적

(단위 : 천톤, %)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전국 물동량	1,093,480	1,139,087	1,076,541	1,203,176	3.24
군산항물동량	17,686	17,563	17,088	23,992	10.70
전국대비 점유율(%)	1.6	1.5	1.6	1.9	5.90
군산항컨테이너처리실적(천TEU)	29	26	68	104	53.07
군산항 항로개설	2개	2개	1개	1개	-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 전라북도 해운수송실적을 살펴보면 여객의 경우 2006년 총 499,230명에서 2009년 568,343명으로 연평균 4.42%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며, 화물의 경우 2006년 총 12,332톤에서 2009년 80,507톤으로 연평균 86.90%의 급격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표 3-69〉 군산항 수송실적

(단위 : 명, 톤, %)

구 분	합 계		연안	외항선	
	여객	화물	여객	여객	화물
2006년	499,230	12,332	438,806	60,424	12,332
2007년	538,746	83,203	476,875	61,871	83,203
2008년	566,159	85,304	478,976	87,183	85,304
2009년	568,343	80,507	432,861	135,482	80,507
연평균증가율	4.42	86.90	-0.45	30.89	86.90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 군산항 선박 입·출항 현황을 보면 2006년 총 8,340척에서 2010년 8,968척으로 연평균 1.83%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연안 입·출항을 제외한 내국선과 외국선 선박 입·출항 현황을 보면 2006년 총 3,892척에서 2010년 8,968척으로 연평균 23.2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외국선보다는 내국선에서 높은 연평균 증가율을 보임

〈표 3-70〉 군산항 선박 입·출항 현황

(단위 : 척, %)

구 분	총계	연안	군산항 선박 입·출항								
			합 계			내 국 선			외 국 선		
			계	입항	출항	계	입항	출항	계	입항	출항
2006년	8,340	4,448	3,892	1,939	1,953	827	411	416	3,065	1,528	1,537
2007년	8,517	4,387	4,130	2,064	2,066	714	355	359	3,416	1,709	1,707
2008년	8,779	4,871	3,908	1,948	1,960	799	396	403	3,109	1,552	1,557
2009년	9,236	5,605	3,631	1,802	1,829	860	422	438	2,771	1,380	1,391
2010년	8,968	5,034	8,968	4,496	4,472	5,034	2,533	2,501	3,934	1,963	1,971
연평균 증가율	1.83	3.14	23.21	23.40	23.01	57.07	57.56	56.57	6.44	6.46	6.41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 인적·물적인 국제교류증가에 대응할 수 있는 거점 공항 부족

- 도내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항은 군산공항 1개소로 국제선 항공노선이 전무한 상태이며 국내선(군산-제주)만이 운행되고 있는 실정임

〈표 3-71〉 군산공항 시설현황(2009년)

구 분		재 원
시설현황	소재지	군산시 옥서면 선연리
	부지(㎡)	94,568
	활주로(m)	2,743x45 2,455x23
	계류장(㎡)	13,758
	여객터미널(㎡)	2,852
	주차장(㎡)	10,421
	항행 안전시설	ILS외 3종
처리능력	운항횟수(년)	140,000
	동시주기(대)	2대 B-737
	여객(만명)	44
	동시주차(대)	387
	운항항공기	B-737
	최저착륙시정(m)	1,200

자료 : 한국공항공사 통계 2010

〈표 3-72〉 군산공항 항공운항 현황

출발지 → 도착지	소요시간	운항시간
군산 → 제주	50분	13:30 ~ 14:20, 15:45 ~ 16:35
제주 → 군산	50분	12:00 ~ 12:50, 14:15 ~ 15:05

- 군산공항의 항공 수송은 2006년 여객의 경우 총 155,207에서 2011년 172,327명으로 연평균 2.1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나, 화물은 연평균 3.43%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새만금 개발에 따른 항공수요 증대, 기업유치, 관광활성화 및 도민의 교통비용절약을 위해 군산공항의 국제선 운행이 필요하며, 국제적 교류증가에 대비한 거점 공항으로 개발해 나가야 함

〈표 3-73〉 군산공항 수송현황

연도별	운항(편수)			여객(명)			화물(kg)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도착	출발	계
2006년	598	596	1,194	80,058	75,149	155,207	928,777	1,015,292	1,944,069
2007년	556	553	1,109	69,865	63,377	133,242	761,357	809,235	1,570,592
2008년	391	391	782	51,942	47,727	99,669	790,793	665,656	1,456,449
2009년	662	662	1,324	79,216	77,186	156,402	736,912	806,501	1,543,413
2010년	693	694	1,387	89,520	85,118	174,638	792,403	817,552	1,609,955
2011년	699	699	1,398	87,826	84,501	172,327	-	-	1,632,800
연평균 증가율(%)	3.17	3.24	3.20	1.87	2.13	2.11			-3.43

자료 :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2. 여건변화와 전망

■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에 따른 교통약자의 증대

- 2009년 현재 전라북도 내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살펴보면, 전주시, 익산시, 군산시가 고령화사회, 완주군이 고령사회, 김제시 및 나머지 군이 초고령사회에 있음
- 농어촌 및 산간지역이 대부분인 전라북도의 경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거주인구 감소는 대교통의 이용객 감소와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에 불리한 상황임
- 또한, 이용객 저하로 인한 손실금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어 교통약자를 위한 편리하고 효율적인 교통환경시스템에 대한 대안을 고려해야할 단계에 있음

■ 국제적인 여객화물 수요증가에 따른 거점공항 및 항만의 필요성 증가

- 새만금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으로서 환황해권 물류거점지역으로 역할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가가 예상됨
- 새만금지역 내 산업시설, 신항만, 주변의 군산공항 및 군산항 등에 주요 거점시설을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광역연계교통체계의 현실화가 이루어져야 함

■ 기후변화에 대응한 녹색교통의 육성 증대

- 산업발전에 따른 화석연료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지구온난화로 인해 20세기 지구 평균기온이 6℃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이상기후 등의 문제는 현대 인류에 있어 가장 요하고도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음
- 교통부문은 연료의 에너지를 대부분 석유류에 의존하고 있으며 교통수요 또한

국민의 사회경제적 활동에 의한 파생수요이기 때문에 여러 에너지 소비부문 에서도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가 가장 어려운 부문으로 알려져 있음

- 최근 에너지소비량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최소화하는 저탄소 교통체계인 녹색교통이 관심을 받고 있음

■ KTX개통에 따른 생활권 변화

- 2011년에 전라선 KTX가 개통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호남고속철도는 2014년 개통을 예정하고 있어 익산-서울간 통행시간이 1시간대로 단축됨
- KTX 개통으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여행시간 단축, 교통분담체계 재편 및 수송능력 확대, 지역개발, 관광 문화활동 증진, 교류증진 및 도시 이미지 개선 등의 파급효과가 예상됨
- 또한, 고속철도 정차도시와 주변지역 경제 활성화 기회증대로 기업활동과 교육, 문화, 관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와 운행시간 절감에 따른 지역간 물류비용의 절감효과도 기대됨
- 우선적으로 KTX 철도 이용 소외지역을 줄이기 위해 철도역까지의 이동여건(시간, 용량)을 개선하고, 더 나아가 정차역이 있는 지자체 밖의 철도역 영향권을 고려하는 환승을 고려한 도시권 내 연계교통계획 수립이 요구됨

3. 계획의 기본방향

■ 광역 경제권 및 지역 내 교통연계체계 확립을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광역경제권 심의 특성화된 발전을 유도하고 차별성을 갖기 위한 광역 연계 교통망을 정비함
- 도로는 지역간 및 지역 내 다양한 교통수요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며, 권역연계 및 장거리 대량 통행수요는 철도로 전환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지역의 통합성을 제고하도록 함
- 전북지역이 광역경제권내에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전략적 거점지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전략산업 및 특화산업, 대규모 국책사업을 지원하고 민간자본의 활발한 유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 사업 지점간 상호 연계하는 통합교통체계를 구축함

-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는 친환경 첨단교통체계 조성**
 -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맞는 교통분야의 요구사항으로서 첨단녹색교통(G-ITS) 구축이 필요하며, 승용차 심에서 대교통 및 자전거 등을 포함하는 다수단 교통연계 및 환승체계로 전환함
 - 도민의 사회적 및 경제적 지표 변화에 효율적으로 부응하는 친환경 첨단교통서비스를 제공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킴
- **국제 교류 기반조성과 물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점기능 강화**
 - 환황해권 물류기반 심지역으로 위치를 확고히 하고 증대되는 국제교류의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항만과 공항을 건설 및 재정비하며, 도로 및 철도 등의 물류 간선네트워크를 구축함
 - 국내·외 물류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對국 교역기지 및 군장국가산업단지 수출입 물동량에 대비한 통합 물류네트워크를 구축함
 - 국제적 물류산업의 허브기능을 담당할 국제물류단지를 새만금지구 내에 도입하고 물류시설과 산업을 연계하는 물류산업복합단지를 건설함
- **고령화 지역 및 대교통 공백지역에 대한 효율적인 대교통서비스 제공**
 - 농어촌지역의 인구감소에 따른 대교통이용자의 감소로 대교통 공백지역 발생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용수요가 부족한 벽·오지 지역 주민의 교통권을 확보함으로써 「교통기본법」의 취지에 부응함
 - 고령화가 가속화됨으로써 교통약자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 첨단교통정보시스템과 접목한 효율적인 대교통서비스를 제공함

4. 세부 추진과제

- **광역 및 지역내 연계교통망 구축**
 - 동서간 연계 간선교통망 구축
 - 영·호남간 덕유산과 육십령 등 백두대간으로 가로막혀 있어 동서를 잇는 교통수단 확충에 소극적이었고 인적교류는 물론 물적교류가 극히 적은 까닭에 국토의 균형발전에 걸림돌이었음
 -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의 지속적인 개발여건을 조성함
 - 현재 1단계로 전주-새만금 구간에 진행 인 새만금-포항간 고속국도를 목표연도 내에 완공되

도록 하기위해 지속적인 개발여건을 조성함

- 내륙횡단도로망을 건설함으로써 광역 연계교통망체계를 구축하고, 전북의 새만금 지역과 군산 산업지대, 전북혁신도시 및 태권도 공원,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을 연결하여 지역간 조화로운 발전과 번영을 도모하는데 기여하도록 함
- 효율적인 수송분담률 제고를 위한 새만금-김천간 철도를 건설함
 - 영·호남의 화합과 교류를 위한 상징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새만금-김천간 철도는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추가검토대상사업으로써 새만금·군산 경제자유구역과 대구·경북 경제자유구역간의 대형화물 운송수단을 확보할 수 있으며 수출입 물동량의 신속한 수송과 공로에 집된 화물 물동량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음
 - 본 사업은 제2차국가철도망계획의 후반기 착수사업으로 되어있는 남부내륙선(김천-진주-거제)과 경부선, 호남선, 전라선 등 철도와의 광역적 상호연계가 가능해져 국가차원의 물류수송에 있어 효율성이 확보됨
- 혁신도시, 국가사업 등과 연계된 국도, 지방도, 국가지원지방도의 시설개량 및 확·포장, 선형개량 등 지역 내 간선교통체계를 재정비함

■ 광역 교통류 처리의 효율성 증진을 위한 고속국도 확장

- 호남고속국도 삼례-서전주IC 구간 확장 검토
 - 익산장수고속도로와 함께 호남지역 교통수요를 분담해 호남권 정체해소와 물동량의 운송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지역관광산업 활성화 기여를 목표로 호남고속국도 논산JCT-삼례 IC구간이 확장(17.1km, 4차선→ 6, 8차선)되어 운영에 있음
 - 향후, 새만금-전주간 고속국도가 호남고속국도 서전주IC에 접속됨으로써 호남고속국도 삼례-서전주 구간의 교통용량의 확대가 필요함
 - 전주권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에코시티, 혁신도시, 만성지구, 김제지평선산업단지, 첨단복합단지 등 전주권 인접 거점지역과의 원활한 접근성을 위한 폭원확장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 새만금 지역의 기능강화를 위한 서해안고속국도 서천-고창 구간 확장 검토
 - 서해안고속도로 또한 서천-공주간 고속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서해안고속도로에 교통량부담이 가중 예상됨
 - 서천-공주간 고속국도가 동서천JC에서 접속됨에 따라 세종시 및 대전권과의 연계가 수월해짐으로써 새만금의 기능강화를 위해 동서천IC-고창IC까지의 확장을 국토해양부와 협의
- 전북이 경우 새만금지역을 중심으로 한 전주, 익산, 군산, 완주, 김제, 부안 등 도시권 안에서 발전계획이 수립되지만, 남원, 고창, 무주, 진안, 장수 등이 타 도시권에 예속되지 않도록 시간적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무주-전주간 국도, 새만금-고창간 도로 등 생활권도로의 확장이나 개설을 추진함

■ 국제 교류기반시설 구축

- 새만금 및 경제자유구역 내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군산공항 확장
 - 군산공항 확장으로 국내·외 기업의 자본유치 등 투자여건을 개선하고 국내·외 관광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활주로 1본 및 여객터미널 등 건설 추진
-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 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항만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으로 새만금 신항만을 새만금 내부개발과 연계하여 국제물류 중심항만으로 조기 건설함
 - 2020년까지 새만금 신항만의 부두 4선석, 방파제 3.1km, 항만부지 524천㎡가 조성되도록 함
- 군산항이 동북아 교역기능을 담당하고 군장산업단지의 지원항으로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부두를 건설하고 항로를 준설했
- 21세기 동북아 및 환황해권 물류중심의 기반을 구축하여 기업하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고, 새만금 신항만과 연계하여 물류유통, 생산, 국제교류 등의 기능을 확충하기 위한 물류단지를 군산, 익산, 김제 등에 개발함
- 서남권 복합물류기지 기반조성 구축으로 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역량을 확보하고 사회적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emand Response Transit) 도입

- 도농통합도시와 농어촌 산간지역이 대부분인 전라북도의 경우 운행 중인 버스는 이용객수가 점점 감소하여 운행효율성이 떨어지며 버스노선을 유지하기 위하여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어 환경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향후 지속가능한 교통체계라 보기 어려움
- 또한,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노인층의 활기찬 가정·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령자를 위한 대중교통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장애인, 노약자 등을 포함하는 교통약자들의 접근권과 이동권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고조됨에 따라 교통부문에서도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이동편의 활성화 정책을 도입함
- 전라북도 도민의 대중교통에 대한 교통권 확보와 이용권제고를 위해 효율적인 대중교통 운영방안으로써 첨단정보시스템과 접목된 친환경교통체계인 수요응답형 교통수단을 도입함

- 급격한 고령화 등으로 교통약자의 꾸준한 증가가 예상됨으로 편의시설의 보강과 사회활동의 참여에 기초가 되는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운전자중심에서 인간중심의 교통체계가 구현되도록 함

■ **첨단녹색교통체계 구축**

- 도시의 확장으로 자가용의 이용이 보편화되어가고 있으며, 자가용의 이용은 대기 오염을 악화시키고 도시 내에서 기후변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도시 내 녹색교통의 중심에 있는 교통수단이 자전거로서 각 지자체별로 자전거를 활성화시키는 사업을 추진함
- 전라북도 전체의 저탄소 그린형 녹색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현재 진행 중인 국도변 자전거도로 사업과 도심권 자전거도로와 연계하여 자전거도로의 효율성을 높임
 - KTX개통에 따른 복합환승센터 및 정차역에 Bike & Ride 등이 가능하도록 자전거이용 정보화 및 서비스 고급화를 추진함
- 또한, 교통약자를 포함한 모든 보행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시권 내에서는 보행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보행우선지구를 지정·관리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 내 노선집중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 대중교통전용지구를 설정함
-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일반차량과는 달리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아 친환경적이며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전기자동차를 실용화함
 - 도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환경개선이 필수적이며 도시 내 교통체계는 향후 전기자동차와 같은 저탄소 무공해차량으로 전환하여 도민의 편익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음
 - 고령자의 증가에 대비하여 교통약자를 위한 단순기능인 자동차의 경우 전기자동차가 적합함
- 관광 및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자기부상열차, 첨단 BRT, 경전철, 바이모달시스템 등 다양한 신교통수단에 대한 장단점을 파악한 후 전북권 내 도입 가능성을 검토함

제2절 스마트 정보인프라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IT 융합을 통한 지역전략산업과의 연계 취약

- 전략산업과 IT(정보기술) 간의 융합 취약
 - 도내 전략산업의 경우 산업의 고유 특성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육성되고 있음. 이에 따라 도내 전략산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규모 및 범위의 IT융합이 취약

■ 정보통신망의 도농간, 계층간 격차 심화

- 정보통신망 활용을 둘러싼 도농간 격차 심화
 -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지역의 정보통신망 활용은 낮은 반면에 상대적으로 도시지역의 정보통신망 활용이 높다는 점에서 도시와 농촌간 정보통신망 격차가 심화됨
- 정보통신망 활용을 둘러싼 계층간 격차 심화
 - 사회경제적 수준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계층간 격차가 증가

■ 새로운 기술수요(스마트워크, SNS, 무선인터넷 등)에 대응한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취약

- 스마트워크(smart work)에 대응한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취약
 - 스마트시대에 맞이하여 정부의 스마트워크 기반구축사업이 주로 대도시에서 실행됨에 따라 이를 대비한 정보통신망이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 SNS 등 소셜네트워크 활성화에 대응한 정보통신망 기반구축 취약
 - 도내 공공기관들의 SNS 등 소셜네트워크의 활성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기반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임

2. 여건변화와 전망

■ 주민들의 삶의 질 관련 정보화기반 구축 수요 증대

- 주민들의 수요 및 삶의 질 관련 정보화기반 구축 수요 증대
 -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등 행정기관 위주의 공급자 중심의 개발에서 주민들의 수요와 삶의 질에 기반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 및 정보화기반 구축 수요 증대
 - 주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콘텐츠들의 개발수요 증대
- 공공기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의 개발에서 주민주도의 프로슈머적 개발로 전환

- 스마트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은 행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반면에, 필요한 콘텐츠는 주민이 직접 개발하여 사용하는 소위 '프로슈머(prosumer)적' 개발이 유행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주민이 개발주체가 되어 자신이 필요한 서비스를 만들어 이용하고, 지역공동체와 상생, 협력·공유할 수 있는 공동체지향의 앱(App: application software) 방식 개발이 등장할 것임

■ 정보격차(도농간, 계층간) 해소를 위한 정보복지 수요 증대

-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 해소 요구 증대
 - 정보기기 스마트화가 젊은층과 고학력층에 집중되고 있음. 특히 농어촌 인구는 젊은층의 역외 유출과 고령화로 인해 장애인, 저소득층, 노인 등 소외계층 중에서도 가장 정보격차가 심각한 계층으로 분류됨. 이에 따라 농촌과 도시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요구가 증대될 것임
-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요구 증대
 - 스마트 사회로 진입하면서 사회계층간 정보격차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정보격차는 사회경제·문화적 불평등 요인과 연계되면서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어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도 전략산업과 IT의 융합을 통한 신동력산업 창출수요 증대

- IT 융합을 통한 지역전략산업의 질적발전 수요 증대
 - 스마트 융합시대를 맞이하여 전통 제조업을 비롯해 농업, 의료, 제약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 IT(정보기술)가 적용되는 등 IT를 기반으로 한 지역전략산업의 질적 발전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기술발전이 가속화되면서 IT(정보기술)는 거의 모든 산업의 기반 기술이자 산업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모바일, LBS, 3D 등의 기술이 타 산업과 결합하여 다양하고 새로운 컨버전스 서비스(융합서비스)로 발전되면서 산업전반에 혁신적 변화를 가져옴
 - 미래 IT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필수요소로써, 새로운 가치와 가능성을 찾기 위한 핵심기반으로 활용될 것임. 즉, IT는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무한한 잠재적 가능성을 강점으로 모든 산업의 혁신성과 창의성을 촉진시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정보화마을 등 기존 IT기반 농산업의 질적 발전에 대한 수요 증대

- 정보화마을 관리자(거버넌스 관리자) 수요 증대
 - 정보화마을 주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령층 학습능력을 고려할 때, 정보화마을 관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밀착형 마을자립 운영 지원을 위해 상시적으로 주민교육 및 마을 홈페이지와 정보센터 관리, 활성화의 구심점 역할 등을 수행할 수 있는 마을별 각 1명씩의 관리자(소위 거버넌스 관리자)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될 것임
- 정보화마을의 운영을 둘러싼 협치(거버넌스) 수요 증대

- 정보화마을운영과 관련하여 장기적인 계획 수립과 실행의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수요 증대

3. 계획의 기본방향

■ IT융합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IT의 네트워크화를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IT는 융합시대의 원천기술로 IT의 네트워크화, 지능화, 내재화의 특성을 통해 기술 및 산업간 융합화를 촉진시키는 역할 수행
 - IT산업과 기존산업의 융·복합화 촉진을 통해 도내 지역전략산업의 산업경쟁력의 지속적 우위 확보 및 신성장동력화 추진

■ 도·농간,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스마트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 도시와 농촌간 정보격차 해소
 - 농민 및 노인층에게 컴퓨터와 인터넷 보급을 적극 시행하고, 이들의 정보기술 활용능력 제고를 위한 각종 홍보 및 교육수요 증대
- 사회계층간 정보격차 해소 수요 증대
 - 장애인, 저소득층, 고령층뿐만 아니라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다문화 가정 등 정보 소외계층들이 스마트사회에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이들을 위한 다양한 정보격차 해소와 관련된 정보복지정책 수요가 증대될 것임

■ IT를 활용한 일자리창출

-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한 IT기반의 새로운 일자리창출
 - IT(정보통신기술)는 인사/회계뿐만 아니라 공급자 및 고객 관리, 제품 개발 및 생산 등 모든 업무 프로세스와 기업 간 협업에 활용됨으로써 스마트워크, 가상조직 등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처리함으로써 조직성과의 향상 등을 기대할 수 있음. 개인의 지식과 IT를 결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의적 1인 기업의 부상
- 공공정보 활용을 통한 새로운 ‘일거리’와 ‘일자리’ 창출
 - 공공정보의 활용을 통해 협의적으로 1인 기업이나 벤처기업과 같은 소규모 조직을 생성할 수 있고, 또한 광의적으로 기업활동을 위한 대규모의 인력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음. 공공정보의 활용은 기존의 대기업 주도의 산업 생태계를 중소기업과 1인 기업 주도로 전환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지속적인 정보화투자 확대를 통한 기업, 공공기관, 지역사회의 생산성 제고 및 고용창출

- IT를 통한 新시장 개척 → 일자리 창출 (정보의 융합화에 초점)
 - 역사적으로 IT는 기존에 없던 新시장을 개척하는 혁신의 출발점. 1980년대에는 게임산업, 1990년대에는 휴대전화산업, 2000년대에는 이러닝산업이 탄생. 최근에는 Social App 구축을 대행하는 개발 컨설턴트와 에이전시 산업 등 완전히 새로운 산업이 탄생. 新산업의 탄생은 직접적으로 신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새로운 생산라인을 도입함으로써 IT기반 일자리를, 간접적으로는 新산업이 창출되면서 연관되는 자본재산업과 중간재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전·후방 산업에서 새로운 인력수요 및 관련 일자리를 창출



자료 : 홍효진(2011), 일자리창출메커니즘과IT의역할, 한국정보화진흥원

- IT를 통한 기존 시장 확대 → 일자리 창출 (산업의 정보화에 초점)
 - IT융합산업은 IT가 기존의 전통산업을 확대시키는데 있어 IT가 新산업에 활용되면서 기존 시장을 확대시키는 플랫폼 역할을 하며, 이는 기업가치 상승과 인력 수요의 증가, 일자리창출로 이어질 수 있음. 세계적인 여행정보공유 SNS인 Tripadvisor와 국내의 여행정보 App인 Wingbus, Playmap 등은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했고, 소셜 게임업체 Zynga는 Facebook에 App을 구축해 큰 인기를 끌면서 2천명의 직원을 고용하였고, 기업가치도 200억달러에 이름
- IT를 통한 중소기업의 시장수요 확대와 일자리 창출의 플랫폼화
 - IT를 개인, 벤처기업, 중소기업이 시장수요 확대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저비용·고효율의 플랫폼으로 활용하는 전략 필요. 즉 IT플랫폼을 통해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시장수요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일자리창출의 플랫폼을 구축해야 함
- 정규교육, 직업훈련 및 평생교육체제를 통한 지속적인 IT 교육기회 제공
 - 노동시장에서 배제되는 사람들이 새로운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내실 있는 IT학습훈련 체계 마련. 산업의 기술혁신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산업구조를 예측하고, 다양한 기술의 융합을 통해 新산업 창출을 주도할 인재양성교육프로그램 마련

4. 세부 추진과제

■ IT융합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 주력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IT융합 신시장 창출
 - 자동차IT, 조선IT, 첨단농기계IT, IT 식품산업
- IT융합을 통해 新성장동력화 창출
 - 인쇄전자+IT, RFT+IT, 조명(LED)IT, 탄소소재IT, 신재생에너지 IT융합분야
- 전략산업 및 첨단산업 클러스터 정보화 지원
 - 전북지역 특화업종이나 21세기형 첨단산업인 부품·소재산업, 식품산업 등을 운영하는 기업이나 종사자들에게 실시간 취업정보망 제공
 - 산업 클러스터 내 기업과 연구인력, 장비 등을 최적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의 정보화 추진



자료: 주윤경(2011), 「경제사회 발전을 이끄는 IT생태계 전략」, 한국정보화진흥원

- IT생태계 구성에 대한 기업의 역할 및 공감대 조성
 - IT가 경제사회 전반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IT기업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 노력을 해야 함. IT기업이 ‘키스톤 플레이어’로 중심 역할을 하고 타 산업 또는 동종 업계를 적극 유인함으로써 이들에게 틈새시장을 공략 및 확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틈새시장 개척자’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게 해야 함
 - IT기업이 주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산업간 장벽을 허물고 상호보완과 협력을 통해 경쟁력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음

※ 키스톤 플레이어(Keystone Player)란, 가치창출과 공유를 촉진하는 촉진자로서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핵심기업을 의미하며, 니치 플레이어(Niche Player)는 독특하고 혁신적인 기술이나 특화된 제품 및 서비스를 확보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하는 기업을 의미

■ **스마트 맞춤형 복지시스템 구축**

-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보급
 - 장애인의 정보접근에 필요한 장애유형별 정보통신보조기기지원
 - 고령자, 언어·청각장애인을 대상으로 통신중계서비스 제공
 - 고령층 친화적 스마트폰 등 IT기기 개발 보급
- 사랑의 그린PC 보급
 - 장애인, 기초생활대상자, 소년소녀가장 등 정보소외계층에게 사랑의 그린PC 무상 보급
- 장애인 정보화교육
 - 도내 정보화교육장(비영리 복지시설)에서 장애인들에게 집합교육 실시
 - 거동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1:1 방문교육 실시
 - IT분야 취업·창업지원을 위해 IT전문교육 실시
-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전문상담사 양성(여성일자리)사업
 - 정보화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인터넷중독예방상담 전문상담사 양성
-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추진
 -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 보급 확산에 따른 모바일 환경에서의 정보격차 해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바일 전문강사 양성, 모바일 콘텐츠 개발·보급
 - 전국 소외계층 정보화교육장에서 소외계층에게 모바일, SNS, 앱 활용 등 모바일 활용교육 실시

■ **지리정보시스템(GIS)을 통한 산업, 기술, 유통 정보인프라 구축**

- 산업정보서비스 포털 구축
 - 산업 전문정보 및 정보유통 서비스(기술 및 지원 등의 유효 산업정보 제공 및 맞춤형 정보 서비스)
 - 기술 및 시장 수요조사 서비스(기술 및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정보서비스)
 - 정책지원 서비스(중앙부처 및 시 등의 주요시책 및 지원사업 정보서비스 및 기업의 애로사항 및 실무기반의 요청수렴)
 - 연구개발 종합관리서비스의 연계(각 산업별 연구센터 시스템 통합 및 산업간 기술개발 연계서비스)
 - 산업인력 양성 통합 서비스의 연계(산업별 인력관리시스템 통합을 통한 산업 인력 활용서비스)
 - E-Marketplace(홍보·마케팅 지원 및 정보제공, 국내·외 시장 진입 지원 서비스)

- 중소기업 및 재래시장 정보화 지원
 - 정보화 추진대상은 전라북도 내 향만물류, 전략산업, 첨단산업 등을 위주로 하여 상대적으로 영세한 중소기업과 재정비되거나 계획이 있는 재래시장 등을 정보화의 대상으로 설정
 - 산업정보서비스포털 구축을 위한 정책 및 ISP수립시, 산업별 특성을 고려한 ERP/MIS/온라인 쇼핑몰 등의 기본설계 지침 수립
 - 재정비된 재래시장을 우선적으로 정보화 지원 홈페이지, 전자상거래 등 특화된 산업단위의 정보화 우선 지원
 - 대상 중소기업 등의 정보화 지원을 통한 산업정보서비스 가입 유도, 정보화 지원 대상 기업들에 대한 산업정보서비스 홍보 및 산업정보 서비스 참여 유도
- 산업단지의 정보인프라 구축으로 첨단 산업단지화
 - 전국 소외향후 조성계획 되어 있는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에 광케이블을 이용한 정보인프라를 단계적으로 구축
 - 기존 산업단지와 신규 산업단지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상호 정보를 교환하거나 공유
 - 동종 및 관련 업종간 정보공유를 위한 인프라를 산업단지 차원에서 구축함으로써 지역산업을 활성화
- 산업별 인력양성 및 인재 Pool 시스템 구축
 - 전국 소외통합 서비스를 통해 유휴인력 통합 관리(산업인력의 산업별·통합 관리를 통해 전체 산업 인력 중 유효 인력 관리)
 - 첨단 유효기술 및 산업별 전문 인력 양성과정 온·오프라인 구축
 - 유관산업으로의 인력 활용, 인력 수요·공급난 해소
- 산업정보서비스 기반의 유통 서비스 구축
 - 전국 소외전문기관 연계 및 시스템 연계를 통한 온·오프라인 지원 체제 구축
 - 해외시장 정보 및 기술추이, 시장흐름 등의 정보제공
 - 산업별, 상품별, 기업별 상품정보 제공 및 전자상거래 서비스
- **농촌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농촌정보화 기반 구축**
 - 정보통신기기보급 및 정보화교육
 - 정보접근성 제고를 위해 사랑의 그린PC 및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
 - 농민·고령자·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의 정보활용능력 향상을 위한 정보화 교육 실시
 - 다문화가정 정보화교육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복지관 등에서 결혼이민자들에게 집합교육 실시
 - 새로운 정보소외계층으로 대두된 결혼이민자의 국내 조기 정착과 균등한 기회제공을 위해 지자체와 공동으로 다문화가족센터 등 도내 정보화교육장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정보화교육 실시

- 결혼이주자들을 「IT 방문지도사」로 양성하여 동일국 출신 가정을 방문 정보화교육 및 국내 정착 컨설팅 제공

■ 행정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한 행정정보화 기반 구축

• 행정정보 접근성 제고

-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성 후원자」 양성, 장애인 이용도가 높은 복지시설 웹 사이트 접근성 개선
- 도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접근성 실태조사 실시
- 정보접근성이 높은 우수웹사이트에 품질마크 부여

■ IT를 활용한 일자리창출

• 취약계층의 고용 증대를 위한 IT 기반의 다양한 근무형태의 일자리창출

- 스마트워크 및 재택근무 확대 등 가족 친화적인 고용정책을 통해 여성인력의 활용 촉진.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게 사이버 교육을 통한 직무 교육을 활성화하고 유연근무제를 통한 고용확대 방안을 모색
- IT기반의 유연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55세 이전에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할 것을 요구받는 고령근로자들의 '계속' 고용을 촉진

※ 고령층의 고용안정과 유연근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령층의 정보격차 해소, 정보화 교육장과 원격워크센터를 함께 운영하여 고령층을 위한 평생교육서비스를 제공

- 여성인력 활용 극대화를 위한 여성 취업의 가장 큰 고민이 되는 아동보육과의 균형을 위해 스마트워크 혹은 재택근무를 통해서 여성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를 활성화

※ 여성의 사회참여와 자녀양육을 양립시키기 위해 보육 및 아동 관련 다양한 정보서비스 제공, u-Learning을 통한 자녀양육 부담 경감 등의 정책 병행

- 일상생활에 시·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사이버 교육을 통한 직무교육을 활성화하고 맞춤형 직무와 업무형태를 지원하는 제도 마련 필요

• 스마트워크 활성화, 1인 기업 육성 등 유연한 노동환경 조성

- 유연한 노동환경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및 세제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사용자 및 노동자의 인식 전환을 위한 교육·홍보, 민관 협력을 통한 스마트워크센터 구축과 1인 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DB 개방 및 소셜 네트워크 기술적 기반 마련

-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현장근무 모바일근무, 문서공유시스템, 도청-시·군간의 협업 등 스마트워크 추진.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재택근무 추진으로 별도의 사무 공간 불필요, 출퇴근 시간 및 교통비 부담 감소

* 모바일오피스 :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업무 수행, 대면업무 및 이동이 많은 근무환경에 유리

- * 스마트워크센터 : 자택 인근 원격사무실에 출근하여 업무 수행, 본사와 유사한 수준의 사무 환경 제공 가능, 근무관리 용이, 보안성 확보 용이, 직접적인 가사 및 육아에서 벗어나 업무 집중도 향상 가능
- 각 시·군별 지역주민자치센터의 유휴공간에 스마트워크센터를 구축하고 출장시에 활용하고, SNS를 통한 협업 및 소통체계 구축

제3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토지이용과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 도시계획 현황

- 2010년 현재 전라북도 도시지역의 면적은 891.3km², 비도시지역은 7,237.09km²임
 - 도시지역 내 용도지역의 분포를 살펴보면, 주거지역이 122.41km²(13.74%), 상업지역이 16.05km²(1.80%), 공업지역이 59.59km²(6.69%), 녹지지역이 603.11km²(67.67%), 미지정 89.97km²(10.10%)로 녹지지역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비도시지역은 관리지역이 2,409.98km²(33.30%), 미세분지역이 42.08km²(0.58%), 농림지역이 4,068.85km²(56.22%), 자연환경보전지역 716.21km²(9.90%)를 차지함

〈표 3-74〉 도시계획 지정현황(2010년)

구분		면적(km ²)	비율(%)		
용도지역	도시지역	합계	891.3		
		주거지역	소계	122.41	13.74
			전용주거지역	0.49	
			일반주거지역	118.27	
			준주거지역	3.65	
		상업지역	소계	16.06	1.80
			중심상업	0.61	
			일반상업	15.08	
			근린상업	0.12	
		공업지역	소계	59.59	6.69
			전용공업	24.52	
			일반공업	29.36	
			준공업	5.71	
		녹지지역	소계	603.11	67.67
	보전녹지		115.97		
	생산녹지		132.04		
	자연녹지		355.10		
	미지정		89.97	10.10	
	비도시지역	합계	7,237.09		
		관리지역	소계	2,409.98	33.30
계획관리지역			876.32		
생산관리지역			669.47		
보전관리지역			864.19		
미세분지역		42.08	0.58		
농림지역		4,068.85	56.22		
자연환경보전지역		716.21	9.90		

자료 : 전북통계연보, 2011

- 2005년과 2010년의 용도지역별 변화를 살펴보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비율이 증가
 - 택지조성과 산업단지조성 등으로 인하여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비율은 점점 높아지고, 녹지지역의 비율은 감소하고 있으며, 특히 공업지역의 면적 증가가 매우 컸음
-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용도지역별 변화를 살펴보면 미지정을 제외한 나머지 용도지역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특히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의 비율이 큰폭으로 감소
 - 같은 기간 동안 전국에 비해 택지조성 및 산업단지조성 등이 적음을 나타냄
- 전국대비 전라북도의 도시계획구역 면적은 5.11%에 비해 상업지역과 공업지역의 비중이 높았으며,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비중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3-75) 도시계획 지정현황(2010년)

(단위 : km², %)

구분		도시계획 구역면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미지정	
전국	2005년	17,039.77 (100.0)	2,121.85 (12.45)	264.04 (1.55)	793.11 (4.65)	12,607.49 (73.99)	1,253.29 (7.36)	
	2010년	17,420.23 (100.0)	2,402.37 (13.79)	299.47 (1.72)	963.94 (5.53)	12,621.06 (72.45)	1,133.38 (6.51)	
전북	2005년		871.1 (100.0)	115.0 (13.20)	14.69 (1.69)	48.93 (5.62)	609.54 (69.97)	82.93 (9.52)
		전국대비	5.11	5.42	5.56	6.17	4.83	6.62
	2010년		891.3 (100.0)	122.41 (13.74)	16.05 (1.80)	59.59 (6.69)	603.11 (67.67)	89.97 (10.10)
		전국대비	5.11	5.03	5.36	5.75	4.80	8.17

자료 : 전북통계연보, 통계청, 한국통계연감, 2011

■ 토지이용 현황

- 2010년 현재 전라북도의 지목별 토지이용실태를 보면, 도시용토지가 547.37km² (6.79%), 농업용토지가 2,252.00km²(27.92%), 임야가 4,534.03km²(56.21%), 기타용지가 733.36km²(9.09%)로 임야의 비중이 가장 높음
- 도시용 토지의 비율은 전주시(24.25%), 군산시(16.67%), 익산시(12.57%)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중추도시권을 중심으로 택지개발 및 산업단지의 개발이 많은 것으로 보임
- 농업용토지의 비율은 익산시(52.47%), 김제시(52.39%), 부안군(41.0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임야의 비율은 무주군(81.73%), 진안군(77.63%), 장수(75.75%)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동고서저의 지형적 특성에 의해 내륙과 서해안을 중심으로 평야지대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동쪽의 백두대간권을 중심으로 임야가 높은 비율을 차지함

〈표 3-76〉 지목별 토지이용현황(2010년)

(단위 : km², %)

구분	도시용토지	농업용토지	임야	기타	소계
전라북도	547.37 (6.79)	2,252.00(27.92)	4,534.03(56.21)	733.36(9.09)	8,066.76
전주시	49.96 (24.25)	62.36(30.27)	70.83(34.38)	22.86(11.10)	206.01
군산시	65.83 (16.67)	159.10(40.29)	81.30(20.59)	88.71(22.46)	394.94
익산시	63.69 (12.57)	265.81(52.47)	116.90(23.07)	60.23(11.89)	506.63
정읍시	48.96 (7.07)	256.95(37.10)	324.43(46.84)	62.31(9.00)	692.66
남원시	41.61 (5.53)	178.15(23.67)	481.29(63.94)	51.64(6.86)	752.69
김제시	45.34 (8.32)	285.47(52.39)	120.59(22.13)	93.49(17.16)	544.90
완주군	42.59 (5.19)	133.56(16.28)	593.84(72.37)	50.57(6.16)	820.56
진안군	22.50 (2.85)	91.75(11.63)	612.59(77.63)	62.32(7.90)	789.16
무주군	18.49 (2.93)	70.84(11.21)	516.43(81.73)	26.11(4.13)	631.87
장수군	21.23 (3.98)	85.01(15.93)	404.13(75.75)	23.14(4.34)	533.51
임실군	23.79 (3.98)	107.92(18.07)	415.06(69.50)	50.44(8.45)	597.21
순창군	23.16 (4.67)	113.09(22.81)	328.20(66.19)	31.42(6.34)	495.86
고창군	46.04 (7.58)	239.47(39.40)	266.85(43.91)	55.37(9.11)	607.74
부안군	34.18 (6.93)	202.52(41.08)	201.58(40.89)	54.75(11.11)	493.03

자료 : 전북통계, 2011

주 : 도시용 토지 : 대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주 : 농업용 토지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 2005년과 2010년의 지목별 토지이용변화를 살펴보면 도시용 토지는 증가한 반면 농업용토지와 임야는 감소하였음
 - 도시용토지의 공급을 위해 농업용토지와 임야 등의 전용으로 인해 농업용토지와 임야가 감소
-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전국의 도시용토지는 708.58km²(11.72%)가 증가하였으며, 전라북도의 도시용토지는 54.67km²(11.10)가 증가하여 비슷한 증가율을 보임
 - 택지조성과 산업단지조성을 위해 대지와 공장용지의 추가 조성으로 도시용토지가 증가
- 전라북도의 면적은 전국의 8.06%임에도 불구하고 농업용토지는 10.86%로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3-77〉 전국과 전북의 토지이용현황(2010년)

(단위 : km², %)

구분		계	농업용토지	임야	도시용토지	기타
전국	2005년(면적)	99,646.16 (100.0)	21,216.13 (21.29)	64,804.87 (65.04)	6,041.90 (6.06)	7,583.25 (7.61)
	2010년(면적)	100,033.08 (100.0)	20,744.61 (20.74)	64,504.38 (64.48)	6,750.48 (6.75)	8,033.61 (8.03)
전북	2005년	8,054.62 (100.0)	2,305.32 (28.62)	4,572.75 (56.77)	492.70 (6.12)	683.85 (8.49)
	전국대비	8.08	10.87	7.06	8.15	9.02
	2010년	8,066.76 (100.0)	2,252.00 (27.92)	4,534.03 (56.21)	547.37 (6.79)	733.36 (9.09)
	전국대비	8.06	10.86	7.03	8.11	9.13

자료 : 전북통계연보,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누리(2011), 행정구역별, 지목별 국토이용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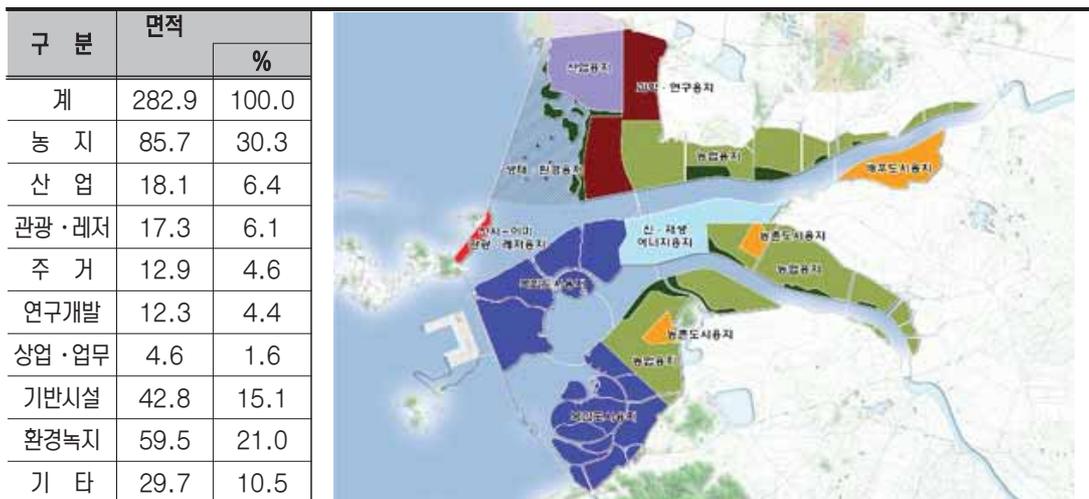
■ 신규 개발지 현황

• 새만금개발

- 새만금 개발 사업은 군산과 부안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의 축조와 간척토지 28,300ha, 호소 11,800ha를 조성하고, 경제와 산업, 관광을 아우르는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비상할 녹색성장과 청정생태환경의 글로벌 명품 새만금을 건설하는 국책사업임
- 새만금지구 282.9km²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중 농지면적이 85.7km²(30.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환경녹지가 59.5km²(21.0%), 기반시설 42.8km²(15.1%) 순임
- 산업, 관광·레저, 주거 등 적극적 개발 용도면적은 총 65.2km²로 전체면적의 약 23.0%를 차지하며, 세부적으로는 산업 18.1km², 관광·레저 17.3km², 연구개발 12.3km², 주거 12.9km², 상업·업무 4.6km²로 구성

〈표 3-78〉 새만금 토지이용계획

(단위 : km²,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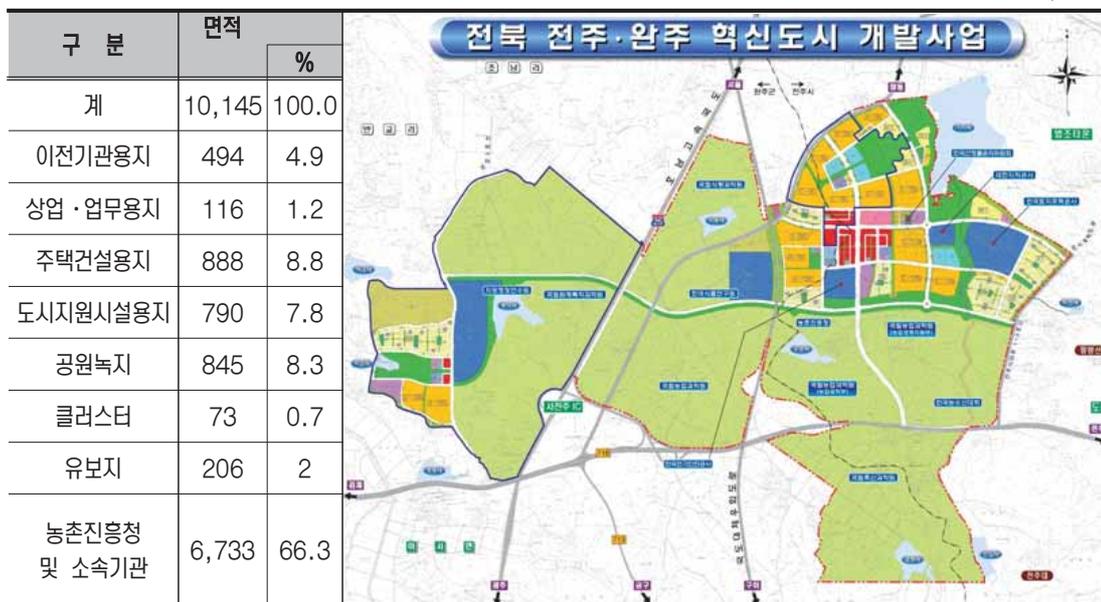


• 혁신도시

- 전주·완주 혁신도시에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등을 포함한 12개의 공공기관을 2012년 이전을 목표로 조성 중에 있음
- 공원결절부에 생태연못과 상징분수를 통한 친수공간과 도심순환형 실개천 조성과 기존의 하천, 저수지, 보존수림대를 최대한 살려 도시의 열섬 현상을 방지하며, 자연과 하나되는 환경친화적인 공간으로 조성
- 혁신도시의 전체면적 10,145천㎡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중 농촌진흥청 및 소속기관 면적이 6,733천㎡(66.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주택건설용지가 888천㎡(8.8%), 공원녹지 845천㎡(8.3%), 도시지원시설용지 790천㎡(7.8%), 이전기관용지가 494천㎡(4.9%)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79〉 혁신도시 토지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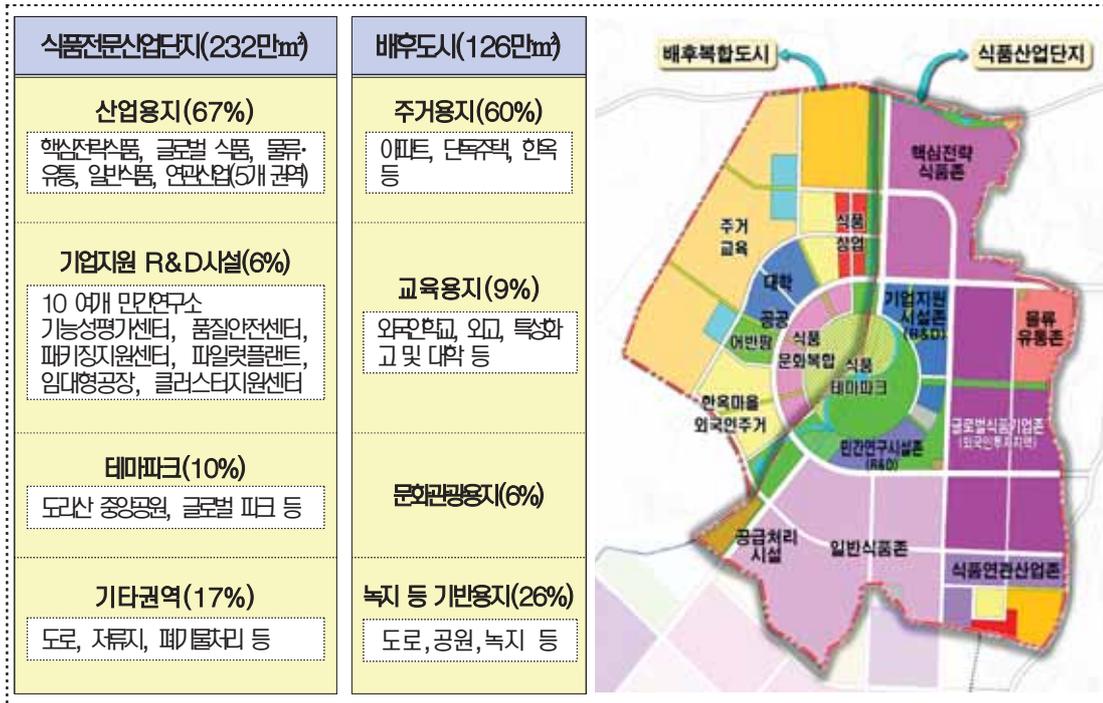
(단위 : 천㎡, %)



• 국가식품클러스터

- 국가식품클러스터는 기업·연구소와 관련기관을 집적화하여 상호간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우리나라 식품산업의 대표적인 인프라 구축사업이자 아시아 최초의 한국형 푸드밸리 조성 사업
- ‘글로벌 식품시장의 신 중심으로 도약’을 발전비전으로 설정하고 R&D-산업단지 및 주거기능을 집적화한 고부가수출지향적 식품산업문화도시로 조성 중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전체면적 358만㎡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은 식품전문산업단지가 232만㎡(64.8%), 배후복합도시가 126만㎡(35.2%)로 나타남

〈표 3-80〉 국가식품클러스터 토지이용계획



■ 전라북도 토지이용 특성

- 혁신도시, 산업단지 확장, KTX 역사·고속도로 IC 주변의 도시적 토지이용 수요 증가
 - 혁신도시 건설을 비롯하여 전주권 및 군산지역의 산업단지의 확장 등으로 인해 도시권을 중심으로 토지이용 수요의 지속적 증가
 - 익산-장수간 및 전주-순천간 고속도로의 개통과 정읍·익산의 KTX 역사 신축 등과 연계하여 연결 지역의 개발 기대수요 증가
- 도시지역의 인구집중과 신규 개발로 도심쇠퇴와 난개발 현상 발생
 - 전주·군산 등의 도시지역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도시의 외연적 확산에 따르는 도심 쇠퇴의 장기화와 함께 난개발 등 도시문제 발생
- 비도시지역은 단위사업 위주의 비계획적인 개발사업 추진
 - 농어촌 지역은 정부 지원에 따른 다양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으나 장기적·종합적인 계획이 없이 산발적인 단기사업 위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 관광수요 증가에 따른 비도시지역 관광지의 난개발 양상 심화
 - 새만금 방조제 개통 이후 관광수요가 증가하면서 서부 해안권의 비도시지역에 대한 관광시설들이 무계획적으로 입지하면서 난개발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2. 여건변화와 전망

■ 대규모 개발사업에 의한 토지이용 변화

- 혁신도시의 건설과 35사단 이전부지, 군산미장지구, 완주 신청사 주변의 개발사업 추진 등의 도시개발로 대규모의 택지 공급이 전망됨
- 새만금 산업용지와 지평선산업단지, 완주제2산업단지, 전주첨단산업단지 등이 용지조성과 함께 일부 시설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새만금 접경지역이 내부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사업지구 내부의 용도와 연계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상됨
- 환황해권 신산업 물류중심지역으로서 역할 수행을 위해 도로, 항만, 공항 등 SOC시설의 구축이 추진될 예정
- 택지와 산업단지의 공급, 기반시설의 구축으로 인해 전라북도 토지이용 체계의 큰 변화에 의해 개발지역 인근 또는 간선도로망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됨

■ 광역 교통망 확충으로 지역 내 토지이용 수요 증가

- KTX의 개통과 새만금-포항간 고속도로 등 신규 고속도로의 개통은 전국은 물론 도내 주요지역간의 접근성을 크게 개선시켜 줄 것임
- 광역 및 지역 내 접근성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KTX 역사 주변 등 교통 결절점을 중심으로 한 도시지역의 토지이용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농지 및 산지의 관리제도 변화

- FTA체결로 경쟁력을 잃은 농촌의 농지나 산지의 매물증가와 가격하락이 예상됨에 따라 농지 및 산지의 토지이용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됨
- 토지이용규제의 완화로 도시인근의 농지 및 산지는 개발 기대감에 따른 수요 증대와 이로 인한 부동산 투기가 예상되며, 공장이나 창고 등의 무분별한 입지로 인한 난개발이 나타날 수 있음

3. 계획의 기본방향

■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한 광역적 차원의 토지이용 관리

-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토지이용 수급체계 전망을 통해 지역의 미래상을 구체화 하고,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개선
 - 공정하고 투명한 토지이용 관리체계 구축을 통해 예측된 토지수급 전망에 따라 지역의 청사진을 구체화하고 실현하면서 동시에 여건변화에 합리적으로 대응하는 토지이용 관리
 - 녹지관리시스템 및 생태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자연과 함께 어우러지는 지역환경을 조성하도록 환경친화적 개발을 유도하고 관리
 - 용도지역·지구제의 행위제한 등을 지역특성에 맞추어 운용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관리의 지역적합성을 제고
- 광역적 차원의 통합적인 토지이용 관리
 - 광역적 차원의 공간구조 개편에 대응하여 거점도시의 기능을 강화하고 각 시·군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을 발전·연계시킴으로서 장기적 발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을 관리
 - 도시간 기능적 연계성 강화와 상충기능의 상호보완을 통해 지역의 통합성 증진을 유도하는 광역적 토지이용 관리
 - 시·군간 협치를 통한 대규모 시설의 합리적 배치 및 공동이용 촉진으로 규모의 경제를 확보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정립
 - 토지이용 실태와 환경분석을 통해 환경·교통·경관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및 토지이용 관리 추진
 - 토지적정성 평가와 개발허가제를 토대로 관리지역 개발밀도와 토지이용에 대한 규제 강화
 - 신규개발에 의존하는 토지수급 정책에서 벗어나 도심부 나대지 활용, 재생·재개발·재건축 등 신규 토지수요 억제·절감할 수 있는 토지수요 관리정책의 추진

■ 계획적 토지이용을 통한 효율적 토지이용 및 난개발 방지

- 지역특성에 맞는 토지이용계획으로 효율적 토지이용 도모
 - 시·군의 도시관리계획을 통해 해당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인구규모와 성장추이를 고려한 적절한 개발밀도가 되도록 계획
 - 중장기적인 토지수요 전망에 기초한 토지공급 추진
 - 토지자원의 보전과 개발 및 계획 수립을 위한 토지조사와 토지정보의 수치지도화 추진
 - 토지, 건축, 주택 및 도시정보를 연계하여 토지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

-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
 -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인구 및 경제성장 전망, 기반시설의 설치 용이성 등을 고려한 성장관리계획수립 및 단계적 개발 추진
 - 난개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장치로써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도시계획적 수단 강구
 - 산업입지의 계획입지 비율을 상향조정하고 무분별한 개별입지를 억제
 - 난개발로 훼손된 지역의 관리를 통해 국토 회복 추진

■ 토지이용의 공익성 강화

- 토지의 공익성을 강화하고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 부동산의 투기적 거래를 방지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토지거래질서 확립으로 부동산시장 건실화
 - 지역차원에서 수행 가능한 개발이익 환수장치 마련
 - 지가 안정과 토지이용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부동산 정보체계의 정비와 제도적 장치 마련

■ 농지 및 산지의 계획적 관리

- 기후변화, 탄소배출권거래제도, 식량무기화 등에 대응하여 농지 및 산지의 보전·이용의 계획적 관리
 - 안정적 식량공급, 녹색경관 보전 등을 위한 일정면적 이상의 농지·산지의 확보
 - 농업 및 임업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전대상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계획적 이용규제체계 강화
 - 도시용지, 농지, 산지를 계획적으로 포괄하는 통합적 토지관리체계를 구축

4. 세부 추진과제

■ 지속가능한 토지이용을 위한 토지이용체계 확립

- 토지이용 수요·공급의 적정화
 - 다양한 용도의 토지수요를 예측하여 용도 간 상호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토지공급 및 이용
- 토지수요 절감 및 수요관리
 - 주택 및 산업단지 리모델링, 직주 균형개발, 도심 나대지 이용 및 재개발·재건축 등을 통해 신규공급을 억제하고 토지수요를 절감할 수 있는 수요관리정책 추진
- 친환경적 토지개발기법 도입 확대

- 시·군별 토지이용 실태조사와 환경분석을 통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
- 대중교통체계와 연계한 토지이용계획 등 에너지 사용 저감을 위한 효율적인 토지이용 및 공간구조 도모
- 신시가지, 산업단지 등 신규 토지개발에 저영향개발기법(LID) 적용 추진

■ **계획적 토지이용 관리체계 구축**

- 토지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적 토지이용정보체계 구축
 - 계획적 토지이용을 위한 기반으로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 이용 시스템 구축 등 토지관련 정보체계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공정한 토지이용·관리 추진
 - 토지, 지적, 건축, 주택 등을 비롯하여 각종 도시정보의 전산화를 완료하고 온라인 서비스와 연계시킴으로써 정보의 질을 향상시키고 관련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광역도시권 성장관리 및 난개발 관리체계 구축
 - 광역도시계획 수립 및 이와 연계한 전주·새만금 광역중추도시권 공동관리시스템 구축으로 광역단위의 성장관리 및 난개발 관리
 - 부문별 토지이용계획을 통합한 합리적 토지이용 관리체계 구축으로 토지이용과 보존의 효율성 제고
 - 산업단지, 신시가지, 대규모 시설의 광역차원의 공급계획 수립 및 공동이용으로 광역단위의 토지이용 효율화
- 신성장거점 주변지역 토지이용관리방안 마련
 - 새만금, 혁신도시, KTX 역세권, 35사단 이전부지, 국가식품클러스터 등 신성장거점 주변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토지이용 효율화

■ **토지이용 규제장치 마련**

- 토지이용의 공익성 강화를 위한 토지시장 관리체계 구축
 - 부동산 정보체계구축
 - 지가 안정과 토지이용 공익성 강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개발이익 환수제도 마련
- 난개발 방지를 위한 토지 관리
 - 도로, 학교, 상·하수도 등 공공기반시설에 대한 설치기준을 강화하여 난개발 방지
 - 계획입지 중심의 산업입지 공급 및 도시계획수단을 통한 무분별한 개별입지 억제
 - 국립공원 해제지역을 비롯하여 토지규제의 완화에 따르는 급격한 토지이용의 변화가 예측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획적인 토지관리 시스템 구축

■ 농지 및 산지 관리

- 보전대상 농지 및 산지에 대한 계획적 관리체계 강화
 - 토지적성에 맞는 농지관리를 위해 농업진흥지역과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에 대한 평가 실시를 통해 농지구분의 기초정보 구축
 - 산지에 대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산지전용에 따른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보전산지 관리에 활용
- 농어촌지역에 대한 장기적·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
 - 도내 토지이용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공간계획 수립

제4절 효율적인 연안이용과 관리체계 정착

1. 현황 및 문제점

■ 새만금 사업 및 양식장 개발로 갯벌면적 크게 감소

- 해안선 조사측량 결과 곶소만 내측의 양식장 등이 갯벌에서 제외되고 새만금 방조제 주변 도서갯벌의 침식 등으로 2003년에 비해 14.7km²이 감소
- 전북의 갯벌은 새만금 사업으로 1987년 321.6km²에서 2008년 현재 117.7km²로 대폭 감소하여 전국적인 점유비율이 4.7%에 불과

〈표 3-81〉 시도별 갯벌 현황

구분	1987년		1998년		2003년		2008년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면적	비율
총계	3,203.6	100.0	2,398.0	100.0	2,550.2	100.0	2,489.4	100
인천	-	-	685.0	28.6	737.1	28.9	703.9	28.3
경기	1,179.6	36.8	153.5	6.4	177.8	7	168.8	6.8
충남	434.2	13.6	304.2	12.7	367.3	14.4	358.8	14.4
전북	321.6	10.0	113.6	4.7	132	5.2	117.7	4.7
전남	1,179.1	36.8	1,054.1	44.0	1017.4	39.9	1036.9	41.7
경남	89.1	2.8	59.0	2.5	91.4	3.6	79.1	3.2
부산	-	-	23.6	1	27.2	1.1	24.2	1

자료 : 국토해양통계누리

■ 연안의 이용 및 개발 등으로 자연해안 훼손 심각

- 전북 연안은 대규모 공유수면매립 및 개발로 인해 타 지역에 비해 연안의 자연성이 크게 훼손되어 자연해안의 복원 및 보전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필요함
- 바닷가의 경우, 전체 바닷가의 면적 대비 자연바닷가의 비율이 19.4%이지만 전북의 경우 0.5%에 지나지 않음
- 또한 해안선의 경우는 전국적으로 전체해안선길이 대비 자연해안선 비율이 50.6%에 이르지만 전북의 경우 29.1%에 지나지 않아 전국 최하위

〈표 3-82〉 시도별 자연해안 현황

구분	바닷가(단위:km)			해안선(단위:km)		
	자연	인공	자연바닷가 비율(%)	자연	인공	자연해안선 비율(%)
계	46.5	193.8	19.4	3,806.4	3,721.8	50.6
인천	4.1	8.3	33.2	139.0	215.6	39.2
경기	0.3	30.2	0.8	65.1	148.5	30.5
충남	4.2	25.7	14.1	370.0	366.1	50.3
전남	11.4	47.1	19.5	1,410.1	1,170.3	54.6
전북	0.3	56.4	0.5	65.5	159.4	29.1
경남	4.8	8.3	36.3	811.4	890.8	47.7
부산	1.5	9.8	13.3	121.3	186.7	39.4
울산	0.9	2.1	30.1	49.4	111.2	30.8
경북	6.5	2.8	69.7	262.8	188.2	58.3
강원	8.4	0.8	90.9	256.9	119.9	68.2
제주	4.2	2.2	64.9	254.8	165.2	60.7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

■ 새만금 방조제 주변 연안의 조류흐름 변화 및 해빈유실

- 새만금 방조제 완공이후 연안해역의 조류변화로 인해 방조제 남측에 위치한 해안에서 침식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해양생태계의 파괴와 생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민원발생
- 특히, 변산해수욕장의 해빈유실은 해수욕객의 감소로 이어져 관광숙박업에 종사하는 주민들이 생업에 큰 지장을 받고 있으며 지역사회의 불평이 고조되고 있어 향후 방조제건설과 침식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연구 및 대책마련이 필요함

■ 난개발에 따른 연안경관 훼손 심각

- 격포인근과 곰소만 해안은 변산반도국립공원과 인접하고 있어 산과 바다로 이어지는 해양경관이 우수한 지역으로서 최근 새만금 방조제 개통과 함께 음식숙박업이 성업 중에 있으나 이로 인해 자연해안으로 형성된 연안경관의 훼손 초래
- 특히, 공항과 모항 등 천혜의 해양경관이 우수한 지역 인근 해안은 펜션과 음식점점들이 해안가 바로 앞까지 잠식하여 국민의 해안선 접근권을 침해하고 있음
- 또한, 곰소만 지역의 고창군측 해안선의 경우에는 해안선을 따라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여 자연해안선이 대부분 사라지고 방호벽과 콘크리트 포장도로로 구성된 인공해안선이 점유하고 있어 자연해안경관이 크게 훼손

■ 개발수준에 비해 연안의 오염도 심각

- 전북연안은 전국 66개 단위해역 중에서 연안오염도 순위가 군산연안 전국 3위, 고창연안 전국 7위, 전주포연안 전국 12위로 오염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남
- 군산연안만이 배후에 산업단지가 많고 나머지 연안은 산업계오염원이 많지 않지만 유역내 축사나 주거지로부터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영향이 큼
- 현재와 같은 오염상태에서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화 되고 향후 새만금호가 담수 호로 완전 전환할 경우 전주포 연안의 오염도가 급격히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육상기인 오염원의 차단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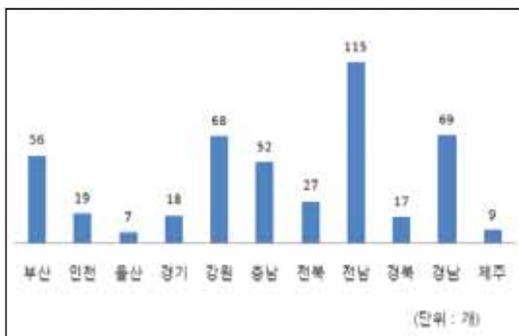
〈표 3-83〉 전북연안 오염우심해역 현황

구분	평균(mg/L) 및 전국 순위(오염 상위)					
	COD	TN	TP	오염도순위	가축사유수순위	하수처리율 (%)
군산연안 (서천 포함)	1.74 (7위)	0.796 (4위)	0.086 (5위)	전국 3위	전국 5위	29.6
고창연안	1.60 (9위)	0.564 (12위)	0.096 (4위)	전국 7위	전국 4위	77.2
전주포 연안	1.40 (21위)	0.527 (15위)	0.078 (6위)	전국 12위	전국 2위	27.3 (유역면적 2위)

자료 : 국토해양부(2009), 육상기인오염원 관리대책 수립연구.

■ 새만금 사업 관련 연안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

- 2010년 실시한 연안이용 및 수요조사결과⁵⁾ 전북연안의 이용·개발(관광, 항만, 어항, 교통, 산단 등)수요가 27건으로 나타남
- 해안선 1km 당 이용개발 건수로 환산했을 경우 강원(0.206), 부산(0.168), 경기(0.071) 다음으로 전북(0.055)이 높게 나타남



〈그림 3-32〉 시도별 이용·개발건수



〈그림 3-33〉 시도별 이용·개발건수/km

5) 제2차연안통합관리계획(2011)

■ 새만금 지역과 외해역에 대한 지자체간의 관할권 분쟁

- 2010년 말 일부지역에 대한 행정구역결정에 대하여 김제와 부안이 불복하면서 현재 대법원에 소송이 진행 중
- 군산시의 경우 현재의 해상경계선을 적용하여 군산 285.25km²(71.1%), 김제 62.85km²(15.7%), 부안 52.9km²(13.2%)의 관할을 주장
- 김제시의 경우 일제의 강압적 해양경계선은 현재적 시점에서 불합리하며 고군산군도는 과거 오랜 기간 김제관할이었다는 점을 들어 김제시가 147.75km²(36.3%)의 관할을 주장
- 부안군의 경우 동진강 수계영역으로 생성된 토지의 부안군 편입 및 1914년 행정구역 개편이전 비안도가 부안군 관할이었다는 점을 근거로 139.85km²(34.9%)의 관할을 주장

2. 여건변화와 전망

■ 연안관리법 전면개정으로 신연안관리 제도 도입

- 2010년 3월 연안관리법 전면 개정을 통해 연안관리정책 변화 및 연안용도해역제, 자연해안관리목표제 등 신연안관리제도 도입으로 연안해역에 대한 과학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향후 연안의 지속적인 이용 및 개발, 보존을 위한 연안용도해역을 설정하여 연안관리의 새로운 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후속적인 조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 신연안관리제도를 적용한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2011년 11월 확정·고시되었으며 연안에 접해있는 광역지자체 또는 기초지자체는 통합관리계획의 내용을 반영하고 연안용도해역제와 자연해안관리목표제를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2013년까지 수립하도록 권고

■ 새만금 담수화에 따른 방조제 내·외부의 수질변화

- 새만금 내부개발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방조제 담수화가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방조제 내·외부의 수질변화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관심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

- 또한 방조제 내·외부의 수질변화로 인해 해양생태계의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며 이로 인한 이해당사자들 간의 새만금 담수화에 대한 찬반의견이 엇갈리고 수질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

■ 새만금 연안 산업·관광부문의 개발 및 이용수요 증가

-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거점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정책에 따라 새만금의 관문인 새만금 연안해역에 대한 다양한 개발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이런 프로젝트의 성과가 점차적으로 가시화될 경우 새만금 연안은 전국적으로 가장 고밀도의 연안이용지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새만금 사업과 연계된 새만금 신항건설과 고군산관광단지 조성사업은 향후 새만금 연안해역의 해양환경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특히, 새만금 신항의 선박항로 확보와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에 따른 연안해역의 이용간 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큼

■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상승 및 연안재해 발생 위험 증가

- 우리나라 서해안의 50년 후 해수면 상승치는 6.5cm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해수면상승으로 인한 연안지역의 침수피해가 증가하고 해안 침식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
-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태풍의 강도가 더욱 강력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폭풍해일 등으로 인한 항만과 배후도시권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방파제 및 항만시설의 구조적 보강이 필요할 것임

■ 연안권역별 이용 환경 및 여건의 뚜렷한 변화 발생

- 새만금 사업의 직접적인 영향권인 군산 및 전주포 연안해역은 향후 다양한 개발사업이 추진될 계획이며 이에 따라 연안관리방향은 주로 이용과 개발에 초점이 맞추어질 것으로 전망됨
- 방조제 남측의 부안연안은 변산반도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연안해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고 뛰어난 자연경관으로 인해 보전적 측면의 연안관리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
- 고창연안의 경우는 갯벌체험이나 생태관광 등 이용적 측면의 연안관리 정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전망

3. 계획의 기본방향

- 신연안관리제도 조속 시행으로 先계획 後이용의 체계적인 연안이용 질서 부여**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2011-2020)의 전북연안 관련 주요 내용 적극 반영
 -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연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향을 설정하고 先계획 後이용의 연안이용질서 부여
 - 전라북도 자연해안관리 목표설정(안)을 바탕으로 시·군의 자연해안관리목표 설정을 위한 해안 이용실태, 이용계획, 보전전략, 이용수요 등에 대한 현황조사를 조속히 실시

- 자연해안 및 갯벌 습지의 자연성 보전**
 - 과거에 실시한 연안침수방지나 소규모 간척사업으로 자연성이 크게 훼손된 인공 해안이나 갯벌매립지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통해 복원이 가능한 지역을 선정하고 친환경적이고 자연성이 있는 방식의 복원사업 추진
 - 갯벌 생태계의 보고인 곰소만의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지정면적을 확대하여 갯벌생태계를 보전하고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 생활공간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연안경관 형성**
 - 난개발로 인한 바닷가 주변의 숙박·음식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불법적인 건축물이나 해안선을 점거한 사유시설에 대한 철거방안을 모색하고 합법적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물 미관을 개선하도록 적극 홍보 및 지원
 - 2011년 제정된 해양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해양경관을 보전하고 친환경적으로 조성

- 새만금 개발에 대응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공간 조성**
 - 새만금 개발로 발생할 수 있는 연안해역의 오염이나 환경파괴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개발을 활발하게 전개하고 이와 관련된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추진
 - 항만과 배후 저지대 권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아라미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연안재해에 대비
 - 해안선 침식 및 해빈 유실 원인 규명 및 항구적인 방지 대책 마련

■ 연안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해소 및 협력적 연안거버넌스 정착

- 연안지역의 개발과 이용활동에 따른 이해관계자 간의 소통을 강화
- 고군산군도개발, 곰소만 습지보호지역관리, 새만금방조제관리, 새만금 지역의 행정구역분할 등에 대한 현안을 조정하고 상생을 모색하기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4. 세부 추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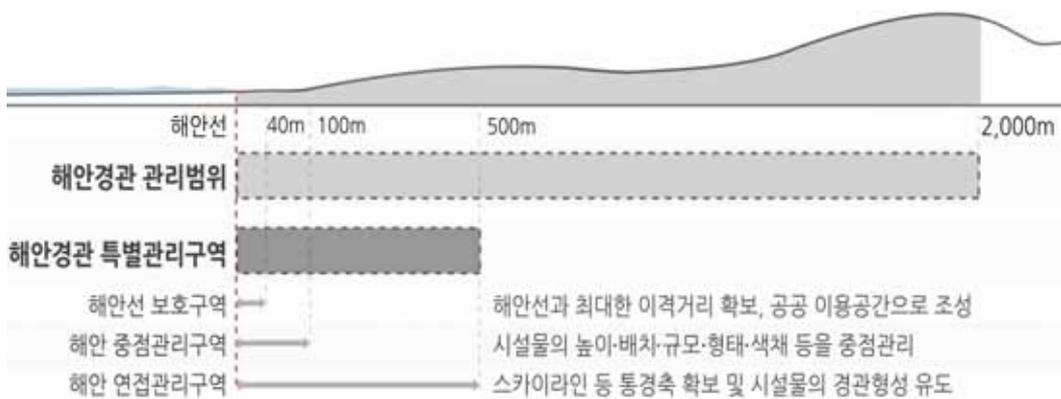
■ 신 연안관리제도 정착 및 연안해역 공간정보 구축

- 지역별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에 대한 이용실태, 이용계획 등 자연해안관리 목표설정을 위한 정밀한 현황조사 및 자료구축
 - 해안선에 대한 지역차원의 정밀한 조사사업을 통해 자연해안과 인공해안에 대한 지형 및 환경 등 특성조사를 실시하여 해안선에 대한 자료 확보
 - 해안선, 바닷가, 조간대 등에 대해 위치와 면적을 비롯한 지형정보와 다양한 주제도를 공간정보로 구축하여 자연해안관리목표제의 시행계획 및 유지관리에 적극 활용
- 연안용도해역제 및 연안해역적성평가를 위한 전북연안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공간정보형태로 구축하는 연안주제도 구축 사업 추진
 - 해양과 관련된 공공기관에서 구축한 다양한 연안관련 자료를 수집하거나 직접조사 및 측량을 통해 작성하여 공간정보형태로 DB구축
 - 연안해역적성평가를 통해 합리적으로 연안용도해역을 설정하는데 있어 공간자료 형태의 연안주제도가 반드시 필요함
- 제2차 연안통합관리계획이 확정고시(2011. 11)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향후 10년간 전북연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관련 정책방향을 결정하고 추진사업을 제시하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조기수립
 - 정부는 연안을 관할하고 있는 전북 기초지자체는 2013년까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확정·고시하도록 권고하고 이를 이행하는 지자체에게는 연안정비사업을 통해 국고지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할 계획임
 - 전북 지자체는 제1차연안통합관리계획(2000)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이 지연됨에 따라 군산시를 제외하고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하여 확정·고시된 바가 없음
- 전북 연안에 대한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은 연안용도해역제에 대한 설정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연안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큼

- 타도의 연안과 접경지역에서의 용도해역간의 상충을 방지하고 조화로운 용도해역설정이 필요한 만큼 해역의 용도설정에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는 인접지역보다 먼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 갯벌복원 및 연안 경관관리 기본계획 수립

- 곰소만 습지보호지역 관리체계 강화 및 고창 연안 염전지역 갯벌 복원사업 확대
 - 부안과 고창 연안에 지정된 줄포만 갯벌과 고창갯벌의 습지보호구역을 곰소만 전역으로 확대
 - 갯벌에 대한 생태를 면밀하게 조사하여 갯벌생태현황도를 작성 및 보급
 -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고창 심원갯벌 복원사업의 권역 확대
 - 염전복원 사업을 활용한 생태교육 및 활용 프로그램 확대
- 전북 연안의 해안경관관리 기본계획수립
 - 지역별 연안경관 실태 조사 및 문제점 진단을 통한 연안경관 복원 계획 마련
 - 연안경관가이드라인에 따른 해안경관관리 구역 설정



자료 : 국토해양부 보도자료(2011. 5. 11)

■ 새만금 권역 연안오염방지 및 해안침식 대책 마련

- 새만금 권역 연안오염방지대책 마련
 - 군산 및 전주포 연안 축산 오염물질 배출 관리대책 마련
 -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오염부하량 관리계획 수립
 - 새만금 외해역 개발에 따른 연안환경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체계 구축
 - 이용 및 개발에 따른 수질오염원 배출기준 강화
 - 연안해역 직접배출 육상기인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 및 하수처리율 제고
- 해안선 침식 및 해수욕장의 해빈 유실에 대한 관리대책 마련
 - 새만금 외해역의 해저지형변화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외해역 준설 및 해류에 의한 해안지형변화를 정밀관측하여 해안선 침식 대책 마련
- 선유도, 변산해수욕장, 격포해수욕장 등 해빈 유실의 원인조사 및 방지대책 마련
- 주민, 학계 등이 이해당사자로 참여하는 공동조사위원회 구성 검토

■ 기후변화 대비 해수면상승 적응 대책 추진 및 연안관련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기후변화 대비 해수면상승 취약성평가 및 적응대책 마련
 - 슈퍼태풍에 따른 풍랑 및 해일로 인한 연안지역별 재해취약성 평가체계 구축
 - 해수면상승에 취약한 해안가 매립지역의 침수시뮬레이션 및 해안침수예상도 작성
 - 해수면상승에 따른 주민 대피로 및 대피장소 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는 비상대처계획도 작성 추진
- 전북 연안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 개발 및 이용압력이 가중되고 있는 고군산군도에 대한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이해당사자간의 협의체구성
 - 곰소만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공동관리 및 갈등 해소를 위한 부안군과 고창군의 민관학이 참여하는 협력기구구성

제7장 생활복지와 농촌복지로 지속가능한 복지사회 구현

제1절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농촌복지 인프라 확충

1. 현황 및 문제점

■ 사회복지수요의 증가와 복지재원의 부족

- 지역간 소득 불평등을 보여주는 불평등 지수인 변이계수로 전북의 14개 시·군의 복지격차를 분석한 결과 시·군별 복지격차 증가
 - 변이계수(CV) 2008년 0.20→2011년 0.22로 확대
- 복지분야의 시·군비 부담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재정 부담 가속화
 - 전북도 14개 시·군 복지예산의 시·군비 지원 비율은 2008년 26.67%에서 2010년 28.36%로 증가
 - 복지예산의 시·군비 부담비율의 증가에 따라, 전체 시·군비 지원액에서 복지분야 시·군비 지원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2008년 7.35%에서 2010년 9.54%로 크게 증가

(표 3-84) 지역별 복지수요 및 1인당 복지예산

구분	전체 인구수	보육 아동수(a)	노인 인구수(b)	기초생활 수급자(c)	장애인수 (d)	전체수요자 (a+b+c+d)	재정 자립도	복지예산 (백만원)	1인당 복지예산 (만원)
전주시	635,007	22,514	57,404	26,271	29,336	135,525	33.5	302,057	48
군산시	266,922	7,649	31,476	15,786	16,276	71,187	27.4	158,848	60
익산시	306,669	8,849	37,573	19,113	19,122	84,657	24.4	200,092	65
정읍시	121,545	3,827	24,279	10,975	9,766	48,847	12.5	113,694	94
남원시	87,675	3,253	17,791	8,231	7,329	36,604	9.3	88,923	101
김제시	94,770	2,321	21,634	10,191	8,632	42,778	16.0	95,318	101
완주군	83,885	2,980	14,943	6,202	7,138	31,263	23.5	76,275	91
진안군	27,558	451	7,296	2,095	2,510	12,352	11.3	29,908	109
무주군	25,811	426	6,655	1,807	2,268	11,156	12.6	25,919	100
장수군	23,478	484	6,284	1,982	2,143	10,893	11.0	25,145	107
임실군	30,703	546	8,759	2,387	2,963	14,655	11.5	35,197	115
순창군	30,179	613	8,484	1,910	2,680	13,687	12.2	28,243	93
고창군	60,102	1,201	15,617	4,478	5,199	26,495	9.6	55,882	93
부안군	60,204	1,069	14,391	5,061	5,119	25,640	16.7	50,943	85

자료: 전체 인구수와 재정자립도는 전북도정통계(2010), 보육, 노인, 기초수급자, 장애인수는 전북통계연보(2009), 복지예산은 재정고(2010).

- 전북의 복지예산 중 국비는 17,135억원으로 전체 복지예산의 43.35%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도비와 시·군비로 각각 4,632억원, 3,649억원으로 구성됨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예산 중 지방비 부담은 전체 복지예산의 34.25%를 차지하고 있어 높은 복지수요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큰 상황임

〈표 3-85〉 지역별 자원별 복지예산 현황

구분	사회복지				전체예산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전체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서울	2,228,043(81.03)	3,987,336(19.51)	799,824(13.59)	7,015,203	2,749,579	20,433,871	5,884,424
부산	2,195,834(66.56)	1,016,098(16.75)	68,444(5.20)	3,280,376	3,299,014	6,065,563	1,316,920
대구	1,517,757(69.14)	549,448(13.65)	87,097(8.98)	2,154,302	2,195,087	4,023,913	970,164
인천	1,092,393(53.35)	591,482(9.50)	156,160(10.49)	1,840,035	2,047,778	6,224,584	1,488,565
광주	994,926(76.12)	402,888(18.17)	38,390(9.41)	1,436,204	1,306,971	2,217,686	407,754
대전	773,818(72.88)	376,916(16.71)	37,490(7.97)	1,188,224	1,061,704	2,256,202	470,451
울산	410,818(57.11)	230,764(12.63)	64,141(9.71)	705,723	719,397	1,826,638	660,524
경기	3,894,485(53.79)	1,450,391(13.82)	1,522,531(9.54)	6,867,407	7,240,042	10,492,231	15,966,060
강원	1,066,779(32.32)	247,985(13.78)	367,616(9.87)	1,682,380	3,300,526	1,799,238	3,723,414
충북	877,869(35.11)	469,230(25.68)	274,619(9.41)	1,621,718	2,500,246	1,827,200	2,917,106
충남	1,359,739(35.96)	341,494(15.53)	412,870(8.95)	2,121,798	3,781,769	2,198,332	4,611,353
전북	1,713,552(43.35)	463,210(24.71)	364,894(9.54)	2,541,656	3,952,663	1,874,437	3,824,294
전남	1,881,903(31.51)	517,866(22.26)	360,024(7.78)	2,759,793	5,973,069	2,326,173	4,630,256
경북	2,081,014(39.94)	510,083(17.70)	560,671(8.46)	3,151,768	5,210,676	2,882,195	6,630,343
경남	2,037,443(40.55)	599,326(17.07)	610,322(9.23)	3,247,091	5,023,963	3,511,041	6,613,163

주: ()은 전체 예산 자원별 구성비를 의미함.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개요(2010)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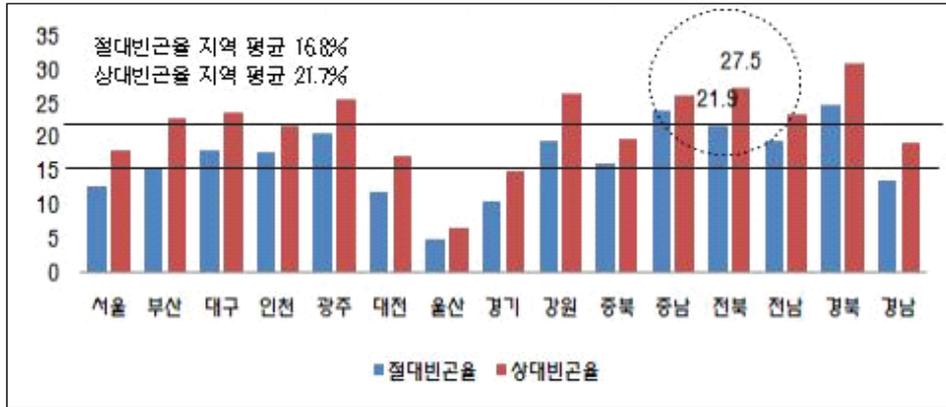
■ 빈곤인구의 증가와 사회양극화의 확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전라북도가 전체인구의 6.1% , 가구소득 기준 최저생계비 미만의 절대빈곤율은 21.9%로 매우 높은 수준임

〈표 3-86〉 지역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기초생활 수급자 비율	2.1	4.1	4.3	2.7	4.6	3.3	1.7	1.9	4.4	3.8	3.7	6.1	5.8	4.7	3.3
절대빈곤율	12.9	15.4	18.1	18.0	20.8	12.1	5.1	10.6	19.5	16.2	24.0	21.9	19.6	24.9	13.7
상대빈곤율	18.1	23.0	23.8	21.7	25.6	17.4	6.8	15.1	26.7	19.8	26.3	27.5	23.6	31.0	19.4

주1 : 절대빈곤율은 가구 총소득을 당해연도 가구당 최저생계비 이하로 산출
 주2 : 상대빈곤율은 가구균등화소득 보정 후 중위소득 50%이하로 산출



〈그림 3-34〉 지역별 절대빈곤율과 상대빈곤율 추정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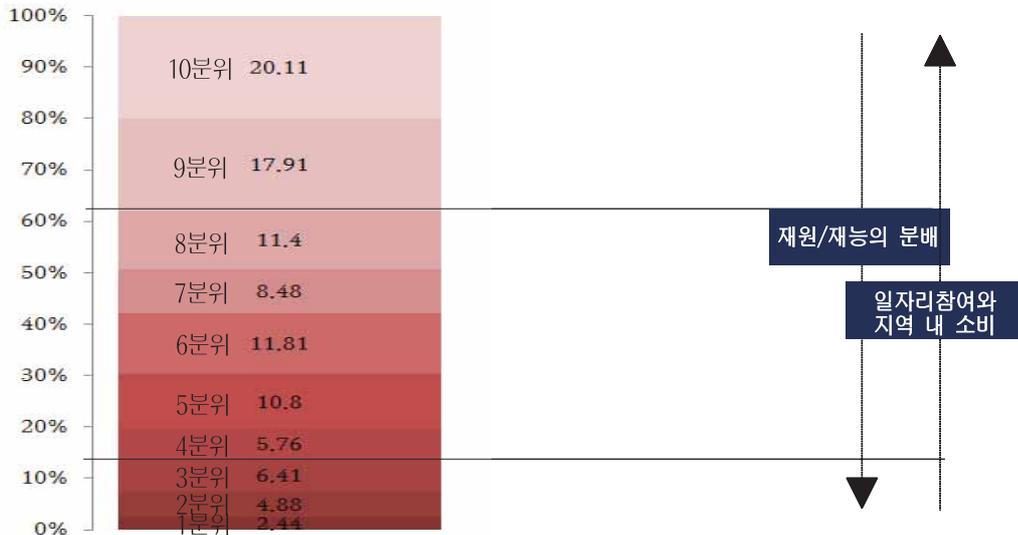
- 최근 3년 사이(2006년-2008년) 중산층은 48.5%에서 52.2%로 증가하였고, 저소득층은 28.2%에서 2008년 27.8%로 감소함

〈표 3-87〉 지역별 소득계층별 현황

구분	저소득층 (중위소득 50%미만)			중산층 (중위소득 50%~150%미만)			고소득층 (중위소득 150%이상)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6년	2007년	2008년
서울	17.9	18.0	18.5	49.5	49.4	52.6	32.5	32.7	28.9
부산	25.7	21.5	23.2	53.0	53.8	54.3	21.4	24.8	22.5
대구	22.9	20.2	24.1	59.6	59.9	57.0	17.5	19.9	18.9
대전	15.1	18.8	17.4	51.3	49.3	55.0	33.6	31.9	27.5
인천	17.3	23.6	22.1	58.5	52.2	58.8	24.2	24.3	19.0
광주	21.9	18.5	25.8	47.7	56.3	45.8	30.3	25.2	28.4
울산	12.7	6.7	6.8	50.0	48.7	50.8	37.3	44.5	42.4
경기	17.1	16.2	15.3	54.3	53.9	55.3	28.6	29.9	29.4
강원	29.1	24.2	27.6	55.6	57.8	51.2	15.4	18.0	21.3
충북	19.3	21.5	20.0	62.2	64.5	63.1	18.5	14.0	16.9
충남	28.7	29.5	26.9	54.5	50.9	54.3	16.8	19.7	18.9
전북	28.2	29.6	27.8	48.5	42.3	52.2	23.3	28.2	20.1
전남	19.0	25.5	23.6	50.0	46.2	50.7	31.0	28.3	25.7
경북	30.7	30.7	31.1	51.9	54.2	57.5	17.4	15.2	11.4
경남	17.3	19.9	19.5	57.2	54.7	50.9	25.5	25.4	29.6
전국	20.4	20.3	20.5	53.2	52.6	54.1	26.4	27.1	25.4
전국-전북	+7.8%	+9.3%	+7.3%	-4.7%	-10.3%	-1.9%	-3.1%	+1.1%	-5.3%

* 소득범주는 OECD기준 가구균등화소득 보정이후($Y^* = Y_i / \sqrt{S_i}$) 중위소득 기준으로 분석($Y_i = i$ 의 가구소득, $S_i =$ 가구의 가구원수 그리고 $Y^* = i$ 가구의 균등화된 소득).

- 전라북도 최상위 9분위와 10분위의 소득점유율은 38.02%이지만 1분위와 2분위의 소득점유율은 7.32%에 불과함



자료 : 한국노동패널 11차 원자료 분석
 <그림 3-35> 전라북도 소득분위별 소득점유율 구성

■ 농어촌 복지인프라의 부족

- 전라북도의 농어촌지역은 복지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기본적인 복지인프라가 매우 취약한 상황임

<표 3-88>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현황

구분	복지법인 수	평균 기본재산	총계	노인	장애인	아동	한부모	청소년	부랑인	결핵한센	지역자활	사회복지관	기타
전주시	26	2,958.19	70	35	9	15	1	0	0	0	1	2	7
군산시	12	1,582.67	19	8	3	4	2	0	0	0	0	0	36
익산시	16	6,337.00	142	72	29	19	1	1	0	0	1	12	5
정읍시	8	1,154.63	11	4	1	6	0	0	0	0	0	0	22
남원시	10	988.4	12	9	0	2	0	0	0	0	0	0	1
김제시	6	1,735.17	11	6	1	1	0	0	0	0	0	2	1
완주군	11	2,063.40	17	10	0	5	1	0	0	0	0	0	31
진안군	1	200	3	2		1							
무주군	1	440	1		1								
장수군	2	132.5	5	0	0	1	0	0	0	0	2	1	1
임실군	3	621	4	1	1	0	0	0	0	0	0	0	2
순창군	2	103	2	1	1	0	0	0	0	0	0	0	4
고창군	3	237,428.66	4	0	1	3	0	0	0	0	0	0	8

자료 : 보건복지부(2010). 2010년 12월 31일 기준.
 주 : 영유아 보육사업 목적 법인은 제외

- 완주를 제외한 군단위의 사회복지법인은 최소 1개소에서 최대 3개소에 불과하고, 임실, 순창, 고창 등은 지역사회복지관이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도 지역별 편차가 매우 심한 상황으로 전주의 경우 인구 천명당 보육시설이 6.32개소이지만 진안은 34.02개소임

〈표 3-89〉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운영현황(인구천명 기준)

구분	시설유형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전주시	사회복지시설	3.86	5.63	6.72	6.89	7.76	-	-
	보육시설	-	7.39	7.44	6.83	6.96	6.59	6.32
	노인여가시설	13.06	15.62	16.55	16.72	22.18	22.92	23.1
군산시	사회복지시설	7.17	8.36	9.2	11.13	10.99	-	-
	보육시설	-	9.54	9.58	9.9	9.9	9.85	9.47
	노인여가시설	11.16	16.76	13.22	13.61	13.61	13.57	13.23
익산시	사회복지시설	6.2	7.22	9.52	11.48	15.52	-	-
	보육시설	-	10.88	11.9	11.3	11.85	11.93	11.75
	노인여가시설	12.31	12.35	15.95	17.21	17.77	18.96	19.56
정읍시	사회복지시설	3.78	6.2	11.88	15.29	19.54	-	-
	보육시설	-	20.15	20.56	19.69	20.28	20.84	20.66
	노인여가시설	11.45	14.56	18.32	20.52	22.01	23.73	24.03
남원시	사회복지시설	6.23	6.41	7.67	12.33	16.98	-	-
	보육시설	-	20.88	20.9	20.77	20.64	20.44	20.2
	노인여가시설	10.71	14.42	17.82	18.39	18.95	20.55	22.64
김제시	사회복지시설	3.8	4.87	7.98	9.22	17.74	-	-
	보육시설	-	19.24	20.2	20.51	20.81	21.11	20.64
	노인여가시설	9.13	11.06	13.4	16.17	17.8	20.02	20.96
완주군	사회복지시설	13.34	14.35	31.25	33.75	34.62	-	-
	보육시설	-	20.99	21.76	21.57	21.31	20.73	20.43
	노인여가시설	9.13	11.04	11.84	12.2	13.36	13.26	13.76
진안군	사회복지시설	0	3.45	14.75	13.22	25.71	-	-
	보육시설	-	30.23	31.43	31.18	33.61	34.22	34.02
	노인여가시설	4.95	7.14	8.88	6.41	7.27	7.17	6.78
무주군	사회복지시설	0	3.86	7.87	7.59	7.69	-	-
	보육시설	-	28.41	28.41	28.56	30.11	30.54	30.88
	노인여가시설	5.87	6.4	6.69	6.8	7.74	10.7	11.22
장수군	사회복지시설	3.73	12.12	16.52	14.99	20.95	-	-
	보육시설	-	34.3	35.15	34.88	35.15	34.82	34.74
	노인여가시설	5.87	9.38	9.33	5.59	7.91	8.46	5.92
임실군	사회복지시설	6.06	9.23	12.51	15.65	19.27	-	-
	보육시설	-	28.16	28.53	28.81	29.65	29.62	29.91
	노인여가시설	9.73	12.16	13.84	11.4	10.24	11.03	9.79
순창군	사회복지시설	6.29	6.25	9.24	9.36	12.94	-	-
	보육시설	-	30.29	30.71	31.42	32.14	33.84	33.94
	노인여가시설	8.93	8.37	7.96	8.2	10.21	12.77	13
고창군	사회복지시설	7.67	10.99	11.28	14.76	16.58	-	-
	보육시설	-	24.78	25.35	27.54	25.8	25.9	26.53
	노인여가시설	9.44	12.59	13.58	14.28	14.63	14.71	14.07
부안군	사회복지시설	1.5	3.08	6.32	4.85	4.93	-	-
	보육시설	-	19.3	20.06	21.09	22.9	23.37	23.73
	노인여가시설	9.73	10.95	13.41	13.99	14.12	15.73	15.95

자료 : 통계청(2011). 사회복지시설 현황

- 전라북도의 시·군별로 의료병상수도 편차가 커 의료 인프라가 취약한 군부의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함
 - 지역별로 보면, 2009년 현재 진안과 장수, 무주, 임실 등은 인구 천명당 의료병상수가 10개 미만으로 전주 등 시부와 큰 격차를 보임
 - 특히, 이들 지역은 2003년 이후 의료기관 병상수의 증가가 거의 없어 지역주민들의 의료접근성에 많은 제약이 있음

〈표 3-90〉 지역별 의료기관 병상수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전주시	10.45	9.89	10.4	11.63	12.93	13.88	14.96
군산시	6.81	6.54	8.26	9.15	9.54	9.95	10.84
익산시	8.39	8.48	9.4	10.61	10.43	11.11	11.25
정읍시	5.74	8.41	8	8.45	10.14	11.57	13.72
남원시	14	9.91	11.5	11.8	14.35	15.56	17.3
김제시	7.46	9.19	15.21	18.42	21.72	21.54	25.2
완주군	11	13.53	14.99	14.11	12.17	18.04	19.4
진안군	6.1	6.05	5	6.6	5.92	6.57	6.5
무주군	3.52	3.67	1.78	1.81	1.75	4.27	4.84
장수군	1.49	1.64	2.18	2.23	1.5	1.68	1.7
임실군	3.21	3.33	3.38	3.94	5.66	7.77	5.5
순창군	6.32	5.47	5.44	12.56	12.7	13.16	13.29
고창군	5.59	6.17	9.83	11.12	10.66	9.13	10.13
부안군	7.38	7.37	7.57	11.45	16.98	13.93	14.68

자료 : 통계청, 2010

■ 복지전달체계의 비효율성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정책은 주로 중앙정부의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복지사업이 수혜자에게 중복수혜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정책은 16개 부처 총 289개 사업이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어 복지사업의 간소화와 효율화가 무엇보다도 시급함
- 아울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전달체계는 주로 간접경비인 사회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달체계의 비효율성이 큼
 - 2011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시설에 지출한 예산은 2,413억원으로 전체 사회복지예산인 12,402억원의 19.46%에 이룸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으로 약 335억원을 지출하였고,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으로 267억원을 지출하여 노인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 지출한 예산만 602억원에 이릅니다

〈표 3-91〉 전북 사회복지시설지원 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지역 복지	저소득 복지 정책	장애인 복지	여성 복지	보육 정책	청소년 복지	아동 복지	노인 복지	저출산	기타 (행정 경비)	전체
전체	16,644	627,226	77,138	23,733	172,568	10,095	29,904	253,571	289	29,000	1,240,168
복지 시설 예산	740 (4.44)	10,931 (1.74)	26,720 (34.63)	13,145 (55.38)	131,990 (76.48)	8,488 (84.08)	15,554 (52.01)	33,466 (13.20)	250 (86.50)	-	241,284 (19.46)

자료 : 전라북도(2011) 세입세출예산서 본예산기준 재분석

- 또한, 전라북도 2011년 본예산 기준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비로 지원되고 있는 기능보강 예산만 올해 90억에 이릅니다
 - 전라북도가 2011년 기능보강비로 지출한 예산은 전라북도 총 예산의 0.72%였고, 이 중 보육 시설과 노인시설 기능보강비가 전체 기능보강 예산에서 각각 41%와 38%를 차지하고 있음

2. 여건변화와 전망

■ 사회복지수요의 폭증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도민의 욕구 증가

- 보편적 복지에 대한 주민여론의 확대에 따른 도민들의 복지욕구 확대
 - 성장보다는 분배에 동의하는 국민의 비율이 60% 상회
- 도민의 복지욕구 증가에 대응한 지역의 복지수요와 재정여건에 맞는 복지정책 발굴 필요

■ 중앙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확대

- 2012년 정부예산 중 복지예산규모는 총예산 326.1조원 중 28.2%인 92조로 편성되어 2011년 예산대비 6.4%p 증가함
- 국고보조사업이 전북복지재정의 85%를 차지하고 있어 중앙정부의 복지사업확대는 전북재정의 부담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예상됨
- 정부의 복지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 마련 필요(복지사업 간소화와 효율화 병행 추진 방안 마련)

〈표 3-92〉 2012년 보건복지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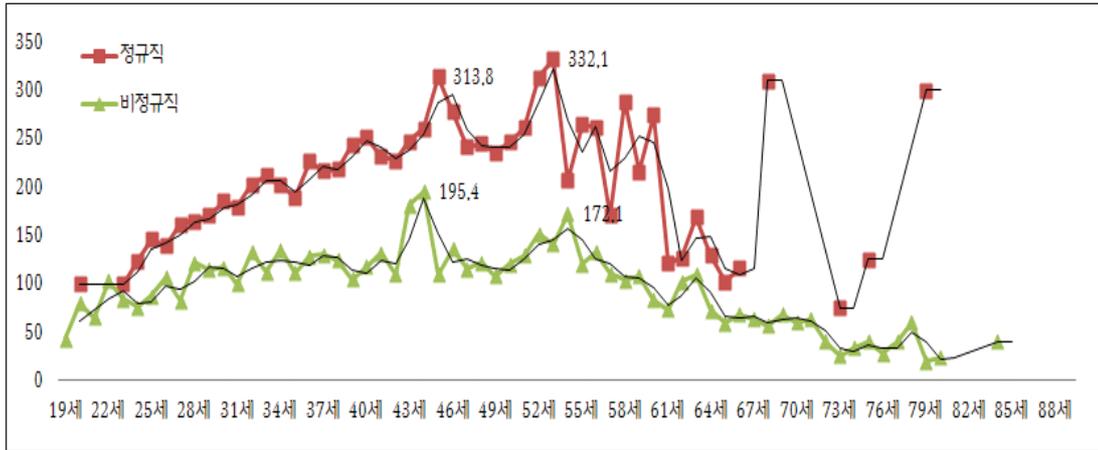
(단위: 억원)

구 분	2011년(A)	2012년		정부안대비		금년 대비		
		정부안(B)	국회최종(C)	C-B	%	C-A	%	
총 지 출	335,694	363,454	366,928	3,474	1.0	31,234	9.3	
회 계 별	【예 산】	206,922	217,375	221,815	4,440	14,893	7.2	
	○ 일반회계	204,951	215,305	219,745	4,440	14,794	7.2	
	○ 특별회계	1,971	2,070	2,070	-	99	5.0	
	【기 금】	128,772	146,079	145,113	△966	△0.7	16,341	12.7
	○ 건강증진기금	17,960	18,643	18,719	76	0.4	759	4.2
	○ 국민연금기금	109,102	125,446	124,404	△1,042	△0.8	15,302	14.0
	○ 응급의료기금	1,710	1,990	1,990	-	-	280	16.4
편 야 별	【사회복지】	262,993	287,917	290,973	3,056	27,980	10.6	
	○ 기초생활보장	75,168	79,023	79,028	5	3,860	5.1	
	○ 취약계층지원	10,505	11,819	11,879	60	1,374	13.1	
	○ 공적연금	109,106	125,456	124,414	△1,042	△0.8	15,308	14.0
	○ 보육	25,600	27,241	30,999	3,758	5,399	21.1	
	○ 노인	37,313	38,648	39,040	392	1,727	4.6	
	○ 사회복지일반	5,301	5,730	5,612	△118	△2.1	311	5.9
	【보 건】	72,701	75,537	75,955	418	0.6	3,254	4.5
	○ 보건의료	15,599	15,429	15,842	413	2.6	243	1.6
	○ 건강보험	57,102	60,108	60,113	5	0.0	3,011	5.3

자료 : 보건복지부(2012). 업무보고 자료.

■ 양극화 심화, 비정규직 증가 등에 따른 분배정책 요구 확대

- 통계청 기준 2010년 전라북도의 비정규직은 21.8만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 47.9만명의 45.51%를 차지하고 있음.
- 한국고용정보원의 OES(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패널로 분석한 결과 전라북도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 근로자의 13.3%정도임.
- 전북의 연령별 평균임금을 산출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비교해 보면, 정규직의 경우 40대와 50대를 정점으로 평균소득이 크게 증가하지만 비정규직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평균소득이 완만한 형태로 진행
- 비정규직의 임금격차와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방치는 향후 복지정책의 중요한 사회적 의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자료 : OES(2009) 원자료 분석

〈그림 3-36〉 전북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욕구 증가

- 여성의 고학력화에도 불구하고 임신 및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로 인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저조,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일가정 양립정책 강화 필요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는 저출산 정책과 연동하여 향후 여성정책의 중요한 방향이 될 전망

3. 계획의 기본방향

■ 저소득 빈곤계층 사회 안전망 확대와 복지사각 지대 해소

- 저소득 빈곤가구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북 복지기본선 구축
- 자활사업 활성화를 통한 저소득 빈곤가구의 빈곤탈출 경로 확대
- 무상급식 확대를 통한 교육비 부담 완화
- 예방접종 지원을 통한 의료비 부담 완화
-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개선 등 주거복지정책 확대
- 장애인 자립능력 향상과 인권증진을 위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 노인 적합 일자리 확대와 사회참여 활성화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에 대응한 신노인복지정책 수립

■ 농어촌 의료접근성 확대

- 도·농간 보건·의료 인프라의 불균형 해소와 농촌 지역의 의료접근성 확대

- 농어촌 긴급의료체계 구축을 통한 의료보장정책 강화
- 치매노인의 사회적 돌봄 체계 수립과 부양가족의 양육부담 완화
- **복지전달체계의 효율적 개편**
 -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을 통한 복지사업 간소화
 - 지역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수립
 - 사회복지시설 지원예산의 효율성 재고와 직접 지원 사업 중심의 복지사업 확대
 - 농산어촌지역 복지 인프라 확대
 - 사회적 기부의 활성화를 통한 시민사회 내 자발적 기부문화 형성
 - 다문화 아동 통합교육 지원체계 마련
- **전북형 일가정 양립정책 강화**
 -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따른 보육정책의 확대와 영유아 돌봄 정책의 개선
 - 취학 후 아동에 대한 방과 후 안전 돌봄 체계 수립
 - 여성의 인적자원에 맞는 지역 맞춤형 여성일자리 창출

4. 세부 추진과제

- **전북 최저 복지 기본선 구축과 그들망 복지체계 수립**
 - 전라북도의 복지수요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의료, 복지, 교육 등의 분야에서 도민들이 최저한도로 누려야 할 복지기본선을 구축
 - 사회복지수요 대상자별 복지욕구에 따른 복지기본선을 구축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
 - 지역주민센터를 활용한 복지대상자 발굴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자활사업단 광역화 추진, 자활사업의 시장경쟁력 제고를 통한 빈곤탈출정책 강화
 - 광역자활센터의 물류유통체계수립 및 농촌형 자활상품 개발 및 판로 촉진
 - 농어촌 은퇴자 마을 조성
 - 결혼이주여성 직업교육·취업교육 확대 및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강화
 - 다문화 아동 통합교육 프로그램 확대

■ **사회복지서비스의 효율화와 체계화**

- 사회복지시설 평가지표 개발 및 평가인증제도 도입
- 농촌 지역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 개발 및 복지사업 확대
- 1동 1마을도서관 설치 및 방과후 교육 정책 강화
- 장애인 통합복지지원센터 설치를 통한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과 인권보호 강화
-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전북형 무장애(BF) 인증제도 운영
- 농어촌 보건기관 현대화 사업 추진(농어촌 보건기관 증개축, 의료장비와 보건사업용 차량 보강)
- 농어촌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응급의료 협약의료기관 지정 및 응급의료 네트워크 구축)

■ **여성친화 복지체제 수립**

- 행정기관 및 위탁기관 여성고용 우수기간 인센티브 부여
- 일가정 양립 우수기관 인증제 실시
- 시간외 보육시설 확대 운영
- 농어촌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설치 확대 및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운영

■ **의료사각지대 해소**

- 농산어촌 공공보건시설 확충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설치 운영
- 의료취약계층 건강검진 및 감염병 예방사업 확대
- 필수예방접종 본인부담비 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 기능 강화

제2절 체육시설 확대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도민여가 수준 제고

1. 현황 및 문제점

■ 선호도가 높은 종목의 체육시설은 부족한 상태

- 도내 전체 체육시설 보유수는 1,763개소이며, 이 중 학교시설이 904 개소로 가장 높은 비중(51%)을 차지하고 있음
 - 공공 316개소(18%), 학교 904개소(51%), 동네간이 543개소(31%)
 - 공공체육시설 보유면적은 도민 1인당 4.20㎡로 전국 2.36㎡ 대비 5위임(울산, 제주, 전남, 강원, 전북, 경남 순)
- 도민들의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비교적 높으나,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도민 수요 충족에 부족
 - 도내 체육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66.0%로 대체로 만족하는 편
 - 주로 이용하는 곳은 상업스포츠시설(23.2%), 집주변시설(22.4%), 공공체육시설 (16.8%), 학교체육시설(10.8%) 순임
 - 상업스포츠시설을 많이 이용하는 것은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도민들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로 보임

체육시설 확충 추진상황

- 국민 체육진흥 기금사업 : 연간 15개소 정도(신설 5, 잔디구장 10), 국민체육센터(1), 운동장 잔디구장(10), 학교체육관(3), 농촌체육시설(1)
- 광특 회계사업(국비 30%, 지방비 70%) : 년 8개소정도, 체육관(3), 생활체육공원(5) 등 기금지원 대상 외 사업
- 노후화된 경기장 개보수 지원(시설비용의 30%) : 년 1~2개소, 전문체육시설로서 준공된 지 20년 이상 경과한 시설 개수·보수사업

• 공공체육시설 이용의 문제점

- 체육시설은 야구, 축구와 같이 선호도가 높은 종목의 시설이 부족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학교 체육시설의 미개방(개방률 58.4%), 접근성이 좋은 체육시설 이용 집중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음
- 학교체육시설의 경우 초·중등교육법에 의거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개방되어,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동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수업지장, 이용 동호인의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의무 불이행과 같은 이유로 개방을 하지 않거나, 공공체육시설에 비해 이용료가 비싸 동호인들이 이용 시 어려움 발생

■ **생활체육 참여율 저조**

- 전라북도의 생활체육참여율은 1회 30분 이상의 운동을 기준으로 주3회 이상 운동하는 비율은 30.0%로 전국평균 32%에 다소 부족한 상황임
- 정기적인 생활체육 참여율 및 동호인 수, 클럽 수 조사 시스템 구축 미약

■ **장애인체육시설 및 행정지원체계 미비**

- 2009년 현재 전라북도 장애인 체육 참가자는 장애인 인구의 5.8%에 불과함
- 대부분의 공공체육시설은 장애인의 접근성 및 활용성에 문제가 있어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미약한 상황임
- 장애인체육행정 지원체계, 장애인지도자배치, 시·군지부 설립 등의 인프라가 미약
- 장애인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에 대한 가치비중의 혼선으로 인해 행정적 낭비 초래

■ **체육행정시스템의 개선 필요**

- 짧은 순환보직 기간에 따른 전문성 결여 및 비효율성 발생함. 시·군의 경우 과 단위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 체육유관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성 부족에 따른 비효율성 발생
-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체육의 상호 단절로 평생체육 이행곤란

2. 여건변화와 전망

■ **생활체육 활성화에 따른 체육시설 확충 요구 증가**

-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풍요는 건전하고 생산적인 여가활동으로써의 생활체육 참여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있음
 - 인간의 행복지수가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높다는 주장에 근거하여 생활체육 참여율을 높이는 것은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체육복지의 근본임
- 체육시설은 체육참여가 이루어지는 물리적 기본토대로써 도민들의 체육에 대한 수요가 증가될수록 체육시설에 대한 요구도 증가할 것임
 - 도민들은 체육참여율 제고를 위해 체육시설 및 장소의 확충 및 개방이 가장 중요하다(53.8%)고 인식

■ 학교체육활동의 강화

- 글로벌 지식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는 창의성과 인성, 체력을 갖춘 인재 양성의 필요성이 높아짐
- 체육활동 강화를 통한 건강 체력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은 전 세계적 추세임

■ 장애인 체육복지 향상 요구 증대

- 장애인 체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부정적 인식을 줄여 인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장 유용한 수단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장애인 체육복지 수요가 확대될 전망
-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고용 확대로 사회참여 촉진 대책이 중요

■ 체육행정시스템의 전문화 및 선진화 요구 증대

- 도민들의 체육참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체육행정시스템 구축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 담당공무원의 체육에 대한 전문성과 현장위주 행정의 필요성이 더욱 요구됨

3. 계획의 기본방향

■ 체육시설 부족 현상 해소

- 학교체육시설 개방을 제고를 통해 체육시설부족 현상을 해소
- 접근성이 좋고 소규모 예산으로 시설이 가능한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부족 현상을 해소

■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체육교육과정 운영 충실 및 재미있는 체육수업 전개함. 창의·인성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체육수업모델을 보급·적용
-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관심이 두드러지고 생활체육의 참여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높음
- 도민들의 생활체육의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 생활체육 활성화의 핵심이며, 생활체육 참여율을 강구

■ **장애인체육활동 활성화**

- 장애인들의 체육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 조성
- 장애인 체육 프로그램 및 지도자 지원체계 구축

■ **체육행정시스템의 선진화**

- 체육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현장위주의 행정 강화
- 체육조직의 자율성제고 및 시스템화를 통해 행정시스템의 선진화 마련

4. 세부 추진과제

■ **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도 제고**

- 동네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시설부족 현상 해소
 - 접근성이 좋고 소규모 예산으로 시설이 가능한 동네체육시설 확충
 - 동네체육시설은 공공체육시설과 달리 전액 시·군비로만 확충 및 관리·감독되고 있는 상황에서 도비 투입을 통한 확충 및 정비 도모
- 학교체육시설 개방율 제고
 - 교육청과 협의하여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학교체육시설 개방율 제고
 - 2011년 현재 58.4%에 불과한 개방율을 70%까지 확대
 - 배구종목의 경우 학교 다목적체육관 신설시 우선적으로 전용구장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교육청과 협의

■ **학교체육의 체계화와 활성화**

- 교과 활동에서의 체육교육 강화
 - 체육교과의 기준 수업시수 준수 지도강화, 체육교육 선도학교 지정 방안 도입
 - 스포츠강사 지원 확대, 체육교사 전문성 강화 등
- 학교스포츠클럽 확대 및 스포츠리그 활성화
 - 학교스포츠클럽 등록 대상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확대하고 등록률은 2015년까지 50%까지 제고
 - 다 계층이 함께하는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활성화하며, 종목간 클럽간 교류기회 제공
 - 학교스포츠클럽 지도에 자원봉사 확대 (대학생 자원봉사제 등과 연계)

- 학생 체육활동 인프라 구축
 - 건강체력교실 확충, 야간조명등 설치지원, 지자체, 체육단체 담당자들로 구성된 학교체육 활성화 지원체계 구축
- 학생 체육활동 참여 동기부여
 - 1인 1운동 즐기기, 1교 1기 운동 실천 강화
 - 학교별 교기 육성종목 학교 홈페이지 공개, 외부강사 초빙을 통한 스포츠강습 활성화
 - 스포츠바우처 확대, 전통종목 보급 확산, 체육활동 우수교, 우수학생 포상 확대

■ 생활체육 활성화

-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 및 동호인조직 확대
 - 동호인주말리그 활성화, 종목별 생활체육교실 운영, 시·군단위 동호인 행사 지원
- 생활체육 지도자 확충 및 동기부여
 - 읍면동 단위까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추진
 - 지도자 동기부여를 위한 휴일대체근무 정례화, 교통비 추가지급, 수업용품구입, 근무년수에 따른 차등화 방안 추진
- 생활체육 참여프로그램 다양화
 - 성인위주의 프로그램을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개발보급
 - 주5일 수업에 따른 청소년대상 주말리그 및 학생무예대회, 가족 참여형 프로그램 추진
- 생활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 자매결연도시 위주의 국제교류, 격년제 상호 교차방문교류, 종목의 년차적 확대
- 생활체육 정보서비스 및 홍보강화
 - 생활체육 정보 DB구축 서비스 제공
 - 생활체육 정보센터 운영 (생활체육 시설, 프로그램, 클럽현황 등 검색기능 제공)
 - 체력관리 온라인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장애인체육 활성화

- 장애인 체육행정 협력 지원체계 구축
 - 시·군지부 장애인체육회 설립, 장애인 체육행정 지원, 장애인 체육지도자 배치
- 체육을 즐길 수 있는 환경조성
 - 시·군 장애인 다목적 체육관 건립, 다양한 종목을 배울 수 있는 교실형 프로그램 확대

- 종목별 경기대회 신설 및 대회 위상 제고, 장애인 체육활동 홍보강화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 현재 5.8%에 불과한 참여율을 2020년까지 15%까지 확대
- 장애인 전문체육 활성화
 - 장애인 전문체육선수 발굴 및 육성, 과학적 훈련기반을 통한 경기력 향상
 - 장애인 전문 체육지도자 충원, 장애인 실업팀 창단

■ **체육행정시스템 효율성 제고**

- 체육담당 공무원들의 전문성강화를 위한 순환보직 기간 연장
- 14개 시·군 체육전담 부서 설치(과단위 지원)
- 국내·외 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전담기구 설치
- 체육 유관기관간 유기적 연계 필요

제3절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미래 융합형 인재양성

1. 현황 및 문제점

■ 직업교육체제의 연계성 미흡

- 노동시장과 직접적 연계를 이루는 교육은 고등교육을 통한 전공교육과 졸업 후 직업훈련, 실업교육 등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 전라북도의 실업률은 전국 평균 3%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1.24%로 나타남. 인구의 노령화 등을 고려하였을 때 지역경제 발전에 기반이 되는 분야의 취업 연계 교육이 필요함
- 특히 인구가 집중되는 전주지역은 실업률이 3.1%로 가장 높으며, 이는 전국평균보다 높은 수치임. 농산어촌지역에 비해 도심지역인 전주-군산-익산 지역의 고용률은 전국평균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났음

〈표 3-93〉 전북의 행정구역별 고용현황

(단위 : 천명/%)

구분	15세이상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비경제활동인구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전국평균	2,565	1,600	1,547	53	965	63	61	3
전주시	510.6	286.0	277.0	9.0	224.7	56.0	54.2	3.1
군산시	220.1	122.3	120.9	1.4	97.8	55.6	54.9	1.2
익산시	227.3	130.9	127.8	3.0	96.4	57.6	56.2	2.3
정읍시	88.2	54.4	53.1	1.2	33.8	61.6	60.2	2.2
남원시	66.7	42.4	42.1	0.3	24.3	63.6	63.1	0.7
김제시	69.7	43.2	42.8	0.5	26.5	62.0	61.3	1.1
완주군	63.2	39.9	39.1	0.8	23.3	63.1	61.8	2.1
진안군	20.0	14.7	14.6	0.0	5.3	73.6	73.3	0.3
무주군	19.0	13.7	13.6	0.2	5.2	72.4	71.6	1.1
장수군	17.1	13.1	13.1	0.0	4.0	76.7	76.5	0.4
임실군	22.1	14.9	14.8	0.1	7.2	67.5	67.1	0.6
순창군	21.8	15.2	15.2	0.1	6.6	69.9	69.7	0.3
고창군	45.8	31.8	31.4	0.4	14.0	69.3	68.5	1.2
부안군	44.0	28.8	28.6	0.2	15.2	65.4	64.9	0.7
전북평균	102.54	60.81	59.58	1.23	41.74	65.31	64.52	1.24

자료 : 통계청(2011. 2/4)

〈표 3-94〉 전북의 고용현황

(단위 : 명)

구분	합계	개별			계획					
		소계	일반	창업	소계	국가	지방	농공	자유	외국인
계	103,244	30,625	27,741	2,884	72,241	20,740	36,467	12,214	2,777	43
남	74,622	19,292	17,426	1,866	55,330	17,092	29,192	7,658	1,347	41
여	23,889	9,754	8,974	780	14,135	3,324	6,380	3,929	500	2
외국남	1,436	235	194	41	1,201	260	585	277	79	0
외국여	153,1	10	9	1	143	35	31	77	0	0
구코드-남	790	915	750	165	875	23	210	213	429	0
구코드-여	951	419	388	31	532	6	54	50	422	0
구코드-외국남	25	0	0	0	25	0	15	10	0	0
구코드-외국여	0	0	0	0	0	0	0	0	0	0

자료 : FEMIS(2011.12)

- 도민의 지역 실업 정도에 대한 인식을 살펴본 결과 61.9%가 심각하다고 체감하고 있음. 시 지역의 경우 남자가 상대적으로 실업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연령 및 학력이 높아질수록 실업에 대한 체감이 높음.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실업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현상은 고학력화에 따른 피고용인들의 연령이 높아 지는데 반해 고용자들은 고학력자들에 대한 임금, 동료직원 간의 유대 등을 이유로 기피하는 현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취업상태에 따른 전북의 지역실업 정도에서 사무종사자가 가장 높은 67.4%가 실업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음. 이는 인문계열 졸업자들의 취업문제와 연계되어 생각할 수 있음
- 고등교육수료자들의 교육기관의 인력 공급 대비 노동시장의 인력 수요를 살펴본 결과 평균 1.66%의 초과 공급률로 나타남

〈표 3-95〉 전문대이상 학력별 신규인력수급차 전망(전연령층)

(단위 : 천명, %)

구분	신규수요			신규공급			신규인력 수급차 (G=F-C)	연평균 총수요 (H)	초과 공급률 (I=G/H)
	성장수요 (A)	대체수요 (B)	신규수요 (C=A+B)	신규배출 (D)	재진입 (E)	신규공급 (F=D+E)			
전문대	57	454	511	167	459	626	115	3,041	3.78%
대학	113	572	685	179	582	761	75	5,765	1.30%
대학원	91	84	175	87	86	174	-1	1,242	-0.09%
평균	87	370	457	144	376	520	63	3,349	1.66%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08-2018」(2011)

〈표 3-96〉 전북의 지역실업 정도

(단위 : %)

구분		매우심각	다소심각	보통	심각하지 않다
계		18.1	43.8	35.4	2.7
시·군	시부	18.5	44.4	34.7	2.4
	군부	16.3	40.9	38.7	4.0
성별	남자	20.2	44.2	33.0	2.6
	여자	16.2	43.5	37.5	2.8
연령그룹	15-19	10.1	40.8	46.0	3.1
	20-29	17.9	46.6	34.4	1.1
	30-39	13.9	47.0	37.4	1.7
	40-49	16.6	46.3	34.9	2.2
	50-59	22.2	44.6	30.8	2.4
	60세이상	19.9	40.0	35.9	4.1
학력	무학	14.7	37.9	42.6	4.7
	초등학교	19.6	38.1	37.5	4.7
	중학교	21.9	43.0	32.4	2.7
	고등학교	17.9	43.2	36.5	2.4
	전문대	15.9	47.9	34.7	1.6
	대학교	17.3	49.8	31.6	1.3
취업상태	대학원	19.7	53.0	26.1	1.2
	관리/전문가	17.0	46.4	34.9	1.6
	사무종사자	14.4	53.0	31.8	0.8
	판매종사자	18.3	47.0	32.4	2.3
	기능/기타	19.6	41.5	34.4	4.5
	비경제활동인구	18.0	42.1	37.4	2.4

자료 : 2010 전라북도 사회조사 보고서

- 또한, 전라북도의 전공과 직업 일치도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훈련기관과 노동시장의 연계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전체적으로 전공과 관계없는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47.5%에 달하고 있음
 - 특히 남성의 경우 여성에 비해 전공과 무관한 직종에 종사하는 비중이 6.6% 높아 성별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공을 활용할 수 있는 대학교육의 변혁, 고용률은 증가시키고 실업률을 감시시킬 수 있도록 직업교육과 노동시장간의 연계 방안을 강구해야 함

〈표 3-97〉 전북의 전공과 직업 일치도

(단위 : %)

구분		계	매우일치	일치	보통	관계없음	매우관계없음
전국평균		100	14.6	21.7	23.9	25.1	14.6
계		100	12.7	20.0	19.9	34.0	13.5
성별	남자	100	10.8	19.8	19.2	36.6	13.6
13	여자	100	15.4	20.2	20.8	30.2	13.4

자료 : 통계청(2010)

- 직업훈련은 주로 20~39세의 경제 인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정규직의 증가 등을 감안할 때, 취업 적령기에 직업훈련 교육의 활성화가 필요

〈표 3-98〉 전북의 실업자 직업훈련 실시인원

(단위 : 천명, %)

구분	전직실업자	신규실업자	우선적성직종	여성가장 훈련	지역실업자 훈련	자활직업 훈련	영세자영업자 훈련	새터민훈련	전체
20세미만	40	165	105	0	10	2	0	0	322
21-29	1,228	480	644	5	72	1	10	10	2,450
30-39	1,764	371	832	38	48	10	22	15	3,100
40-49	914	424	477	53	34	6	38	2	1,948
50-59	314	161	295	18	17	1	27	1	834
60세이상	99	56	166	3	1	0	9	0	334
계	4,359	1,657	2,519	117	182	20	106	28	8,988

자료 : 한국고용정보원(2010)

■ 교육복지 수요 증가에 따른 지원체계 필요

-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교육 대상, 교육 범위, 교육 내용, 학습방법 등이 다양해지고 있음

〈표 3-99〉 교육시설 현황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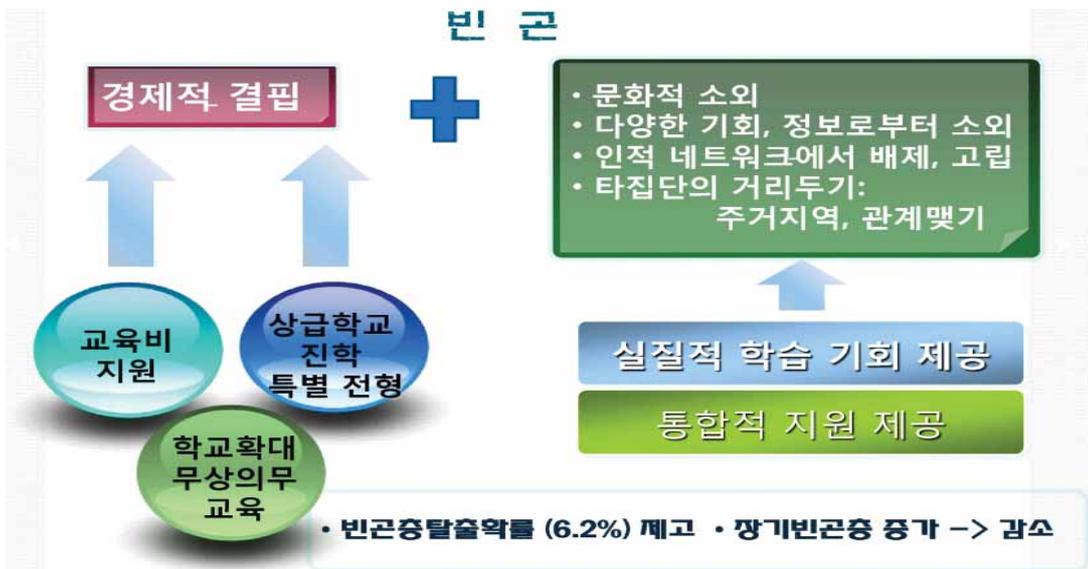
구분	학교수	학급(과)수	학생수	교원수	사무직원수	교원1인당 학생수	사무직원 1인당 학생수
계	1,287	11,846	292,840	20,633	3,264	14	99
유치원	516	1,328	21,057	1,748	166	12	127
초등학교	414	5,370	119,592	8,053	1,414	15	85
중학교	208	2,426	74,593	4,830	724	15	103
고등학교	132	2,506	75,599	5,658	851	13	89
특수학교	11	189	1,288	316	105	4	12
기타	6	27	711	28	4	25	178

- 교육복지는 장애학생, 저소득층 자녀, 다문화 가정, 학업 중단학생, 저학력 성인 등이 신체적 요인이나 사회·경제적 및 제도적 요인으로 인하여 교육기회를 보장받지 못함을 방지하여 모든 국민이 국민기초교육수준에 달성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일자리가 감소하고 실업률·미취업률이 증가하면서 사회 구성원들의 빈곤화가 가속되었음. 외환위기 이후 중산층이 급격히 감소하였고, 감소추세는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9), 규방란, 「한국사회의 교육복지 교육복지의 미래」(2011) 재인용
 <그림 3-37> 사회계층 구조의 변화

- 2003년 이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 사업(이하 ‘교복투사업’)이 행해지고 있고 학교급식, 장애인 학생 지원 사업, 농어촌 전원학교 사업, 다문화 가정 지원 등이 이뤄지고 있음. 그러나 해당 사업에 대한 인식 부족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부족하며 예산확보에 있어 일반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 연계가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교육복지 사업 일부에 예산이 편중되고 전시성 정책에 그치고 있음
- 저출산,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속도로 인하여 복지수요 자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따라서 교육복지 대상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유연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정립을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 필요



자료 : 규방란, 「한국사회의 교육복지의 미래」(2011)
 <그림 3-38> 사회변화와 교육복지 요구

■ 평생학습지원 기반 부족

- 국가-광역-기초 수준 사업의 연계적 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중·장기적인 평생학습사업의 발굴보다는 단기적 평생학습사업 시행에 머무르고 있음
- 일반 행정기관과 교육행정기관간, 공공기관과 민간기관간 의사소통 체제가 구축되지 않음에 따라 상호협력이 미흡하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협력체계를 이루지 못하고 단독으로 시행됨에 따라 평생학습 관련 인력풀, 프로그램, 예산 등에서 문제점 발생
- 평생학습 프로그램에서 51.9%가 문화예술에 편중되어 있음. 이러한 편중현상은 사업장부설기관이 88.9%, 평생학습관이 62.7%로 심각함. 지역사회 평생학습 발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강화 필요

〈표 3-100〉 평생학습 주제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 개/%)

구분	프로그램 주제						
	학력보완	성인기초/ 문해해독	직업능력향상	인문교양	문화예술	시민참여	계
대학(원) 부설	460	-	310	122	305	2	1,199
	(38.3)	-	(25.9)	(10.2)	(25.4)	(0.2)	(100)
사업장부설	-	-	12	77	670	-	759
	-	-	(1.6)	(10.1)	(88.9)	-	(100)
평생학습관	7	18	25	92	244	3	389
	(1.8)	(4.6)	(6.4)	(23.7)	(62.7)	(0.8)	(100)
계	467	18	347	291	1219	5	2347
	(19.9)	(0.8)	(14.8)	(12.4)	(51.9)	(0.2)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0)

〈표 3-101〉 교육기간별 프로그램 현황

(단위 : 명/%)

구분	교육기간(1개월 이상 프로그램만 해당)													연간	계
	1개월 미만6)	1개월	2개월	3개월	4-6개월	7-9개월	10-12개월	13-15개월	16-18개월	19-22개월	22-25개월	25개월 이상			
대학(원) 부설	8	9	149	94	937	2	-	-	-	-	-	-	-	-	1,199
	(0.7)	(0.8)	(12.4)	(7.8)	(78.1)	(0.2)	-	-	-	-	-	-	-	-	(100)
사업장부설	-	124	118	28,691	-	-	-	-	-	-	-	-	-	-	28,933
	-	(0.4)	(0.4)	(99.2)	-	-	-	-	-	-	-	-	-	-	(100)
평생학습관	815	1,142	875	3,221	4,674	224	2,436	-	-	-	-	-	-	289	13,676
	(6.0)	(8.4)	(6.4)	(23.6)	(34.2)	(1.6)	(17.8)	-	-	-	-	-	-	(2.1)	(100)
계	823	1275	1142	32,006	5611	226	2436	-	-	-	-	-	-	289	43,808
	(1.9)	(2.9)	(2.6)	(73.1)	(12.8)	(0.5)	(5.6)	-	-	-	-	-	-	(0.7)	(100)

자료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2010)

2. 여건변화와 전망

■ 혁신도시 및 새만금 개발에 따른 교육기반 구축 필요

- 혁신도시 및 새만금 개발에 따른 새로운 교육환경 구축 및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 시설, 교육지원시스템 등 교육기반을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됨
- 혁신도시는 지방공공기관의 이전에 따라 자립형 거점도시로 성장하여 농업생명의 허브로 기반을 형성할 것임. 이에 따라 관련 공공기관의 입주에 따라 학교 설립 등 교육기반을 구축하여 양호한 교육환경 조성이 요구되고 있음
- 혁신도시 내 설립된 교육기반 구축은 새로운 학교모형을 창출하고 종합적인 발전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교육청 및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함
- 새만금은 전라북도의 미래 산업을 견인하고 명품 도시로서 성장 가능성이 있으며 지속적인 예산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어 교육 중심도시로 발전하기 위하여 도시 성장과 발전에 따라 전략적으로 교육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창의성과 인성을 갖춘 글로벌 융합형 인재육성 및 유학생 유치 기반 조성 필요

- 사회전반에 걸친 글로벌화로 사회경제 전반적인 경쟁체제가 변화되고 있고, 사회·문화·경제 등의 분야에서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가와 지역의 경쟁이 동시에 이루어짐
- 국외 경쟁, 국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 강화가 중요함. 이는 기존의 틀에 얽매이지 않고 사고의 전환을 가능하게 하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 및 수학 등을 중심으로 한 융합형(STEAM) 인재교육이 중요시되고 있음

* STEAM :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Arts & Mathematics

- 도내 유학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유학생 수가 다른 국가 유학생보다 많음에 따라 유학생 유치 및 관리 등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정립이 필요함

■ 맞춤형 교육 강화를 통한 교육복지 및 직업교육 중요성 부각

-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증가하는 복지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되, 이 방안은 지속적인 재정 확보가 뒷받침 되어야 함
- 교육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계층과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에게 교육기회를

6) 1개월 이상 프로그램 조사대상 중 교육기간이 1개월 미만이지만 교육시수 8시간 이상인 프로그램을 의미

보장하는 정책·사업 시행에 앞서 공급자 중심의 추진이 아닌 수요자 중심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물적 지원만이 아니라 수요자 스스로 경제 인구로서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여야 함

- 평생학습의 기본 개념인 ‘태어나서부터 생명을 마칠 때까지 끊임없이 배우는 과정과 활동’에 주목하여 단순한 취미여가활동으로써 평생학습만이 아닌 ‘능동적인 수요자의 자기개발 프로그램’으로써 기능할 수 있도록 그 영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프로그램만의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확대가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학습자를 유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고등학교 학령인구가 감소되고, 이는 대학 신입생 유치 경쟁구도로 연계됨. 각 대학은 제반적 여건 및 강점을 활용하여 특색을 살린 직업교육의 실시로 대학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이러한 맞춤형 복지를 통한 소외계층들의 교육기회 보장, 평생학습을 통한 자기개발은 대학의 전공교육과 더불어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교육으로 정착되어야 함

■ 대학개혁의 지속화 및 경쟁력 강화

- 중앙정부 주도의 대학개혁만이 아니라 대학 스스로 역할 재구조화 노력이 시급함. 대학 입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등교육 역시 경쟁체제 내에 있음.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대학은 신입생을 유치하지 못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 및 외부의 자금 확보가 어렵게 됨에 따라 대학해체의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임
- 대학은 수만크이나 그 형태 및 수준, 특징이 다양하므로 성공대학의 우수사례를 여과 없이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부작용의 위험성이 큼. 또한 대학 간의 공동연구, 산학연계 프로그램, 계열간의 통합 과정, 대학원 연계과정 등 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다양한 정책들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은 집중도와 전문성을 떨어뜨리게 됨
- 따라서 각 대학은 한시적 성과가 아닌 중·장기적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여 대학의 비전을 구축하고 적은 비용으로 고효율을 달성하는 대학 특성화전략을 강구해야 함. 또한 성공대학의 우수사례를 무조건적으로 벤치마킹하거나 다양한 사업들을 모두 육성·지원하려는 태도를 버리고 각 대학의 상황에 적합한 분야를 발굴하여 특성화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구축해야 함

3. 계획의 기본방향

■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융합형 창의 인재양성 및 직업교육지원체제 확립

- 미래의 교육도시로 성장하기 위해 혁신도시 및 새만금 교육기반을 구축하는 동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고 과학, 기술 공학, 예술과 수학이 연계된 창의적 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기반을 구축하며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취업, 창업교육과 기업과의 연계강화를 추진
- 창의적 인재육성을 위해 지역적 자원 활용 및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융합형 교육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학습을 지원하도록 함

■ 교육복지 실현 및 인성이 증시되는 교육문화 형성을 위한 교육협력체계 구축

-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배려 대상에 대한 교육기회 참여를 확대하고, 무상급식 및 친환경농산물 사용 활성화 추진을 위한 교육협력체계를 공고히 함
- 사교육비를 경감하고 우수한 인재양성을 지속적으로 추진,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청과 지자체간 교육협력 관계를 강화하고, 수준 높은 사회자원을 활용하여 교육기부 활성화를 추진하도록 함
- 학교폭력이 예방되고 인권과 인성이 증시되는 학교문화를 형성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역사회가 주5일제에 대비한 방과 후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함

■ 학습과 일자리를 연계한 교육기반 확립 및 스마트 교육환경 구축

-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취미 중심의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100세에 대비한 인생이모작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습과 일자리 연계하는 평생교육기반을 확립
-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른 교육 학습자의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농촌과 도시의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함

4. 세부 추진과제

■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한 취업·창업 지원 체계 구축

- 전라북도의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명장인력육성사업을 추

진하고, 질적으로 향상된 교육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인력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함. 교육환경 개선 및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산업수요가 반영된 산학협력을 통한 취업 역량 강화 기반 구축 및 맞춤형 기술 인력 교육지원 등 산·학·관 커플링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여 산학협력선도 고등학교 및 대학 등을 육성함

- 전라북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수한 인재양성에 관심을 집중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청년창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희망 청년 창업 활성화 기반을 구축함. 또한 창업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대학 및 기업과 창업협력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창업교육센터 설치 및 창업포럼 운영 등 다양한 창업을 활성화하도록 유도함
- 고졸 취업 문화 조성 및 직업 전문화를 추진하기 위해 교육청, 전라북도, 지자체, 기업 등과 취업연계시스템을 구축하여 취업채용을 확대하고, 취업 중심으로 특성화고를 집중 육성하기 위해 전라북도 신 성장동력산업과 연계한 취업계약학과를 운영하며 지속적인 취업모니터링을 추진함. 또한 글로벌 역량과 해외 취업 역량을 배양할 수 있도록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함

■ 교육도시 조성을 위한 글로벌 인재양성 기반 조성

- 혁신도시 및 새만금 개발 등이 전라북도의 새로운 성장기반으로 구축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도시를 조성함. 이를 위해 새만금 군산경제자유구역 내 국제교육거점 개발 및 대학교 분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새만금 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도록 함
- 교육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글로벌인재양성 해외연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중국과의 교류 확대를 통한 인재양성을 위해 아시아캠퍼스 사업과 연계한 한·중 국제교육특구를 조성함. 또한 외국의 우수한 인적 자원을 유치·관리지원 하기 위해 외국인 유치를 지원하도록 함
- 혁신도시의 양호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 우수한 교육 기반을 구축하며, 이를 위해 국제학교 설립 및 초·중·고등학교 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글로벌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원어민 영어교사 배치 지원 사업을 추진함

■ 함께하는 교육복지 실현을 위한 교육지원 내실화

- 도시와 농촌의 교육격차 및 교육환경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사회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교육복지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이를 위해 지역뜨임인 재육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하고, 농어촌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농어촌형 기숙형 고교 및 장학숙 지원을 통해 우수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 또한 학교 무상급식 확대를 통한 교육복지를 실현하고 동시에 친환경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녹색 식생활 확산과 전통 식생활 실천을 통한 학생 건강 증진 및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함
- 농산어촌 등 교육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 교육 및 재능기부 모델을 창출하고 체험학습 및 방과 후 학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여 학부모 및 지역사회 참여와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전라북도, 지자체, 교육청이 참여하는 교육협력지원체계를 구축하여 타 지역보다 우수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도록 함. 그리고 우수한 인재양성을 위한 창의성 및 잠재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입학사정관제를 대비한 컨설팅 사업을 추진
- 저소득층, 장애학생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 사업을 집중하고, 도내 거주하고 있는 다문화학생들에게 필요한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 맞춤형 교육지원 사업 및 이중언어 영재육성사업을 추진함

■ **인성 교육문화 조성 및 주5일에 대비한 방과 후 프로그램 정착화**

- 도내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나눔과 배려가 체화된 인재 육성을 위해 시·군구에 지역사회 구성원이 참여하는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함. 또한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의 건전한 학교생활 및 사회 참여 활성화를 위해 폭력피해 학생 치유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보건소에 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을 확대하도록 하며 교육청과 협력하여 인성교육모델을 구축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도록 함
- 주5일 수업제 전면 자율 시행으로 인하여 창의적인 미래 인재 육성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프로그램 등을 발굴·지원하도록 하며, 전라북도-교육청-지자체-대학-학교 간 유기적인 교육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방과 후 프로그램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농어촌,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 등 나홀로 학생의 수요를 파악하여 토요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지원하도록 하며, 주5일제 전면 자율시행에 따른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 관련 사회적 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여 연구개발 및 사업 운영을 추진하도록 함. 또한 예술과 체육 교육 지원을 통해 문화예술, 체육부문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전북의 별 육성 사업을 추진함

■ 학습과 일자리 연계한 평생학습 및 스마트 교육 환경 구축

-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 및 100세 시대의 도래에 대비한 학습과 일자리가 연계한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며, 취미와 직업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평생학습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인생이모작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함
- 평생학습 기반 구축 및 인문학 대중화 촉진을 위해 평생교육원 설치, 시민인문강좌사업을 추진하며, 취약계층의 평생학습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성인평생학습바우처 운영 모형을 구축하여 성인 학습 동아리 발굴 및 지원을 하며,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하도록 함. 또한 지역사회 재능 나눔을 위한 평생교육서포터즈를 구성하여 자발적인 기부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발굴 및 지원함
- 스마트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학습자의 맞춤형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스마트교육 선도 교사를 지원하고, 특히 상대적으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농어촌 학교를 중심으로 스마트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우수 학교를 선정하여 지원함

제8장 기후변화에 대응한 스마트 녹색 안전도시 조성

제1절 주거선진화 및 주거안정확보

1. 현황 및 문제점

■ 양적 주택공급의 한계

- 2010년 현재 전라북도 지역의 주택수는 전체 가구수 660천가구의 96.0%에 해당되는 633천가구로 전국의 주택수 대비 총가구수 비율인 84.6%를 크게 상회하고 있음
- 주택수 대비 일반가구수의 비율인 주택보급률은 전국이 2010년에 접어들면서 100%를 상회하는 101.9%이며, 전라북도는 현재 107.4%에 달함
 - 1995년 이후 15년간 전국과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을 비교하면 주택공급 증가율이 전국 수준보다 낮았음
 - 2005년 이후 5년간의 주택보급률을 비교해 보면 주택공급 증가율이 전국 수준보다 높음. 이는 상주인구의 감소현상에 따라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증가되어 주택의 양적공급 수준은 향상되고 있음을 보여줌

〈표 3-102〉 전국과 전라북도의 주택보급률 추이

구 분		단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연평균증가율(%) (1995~2010)
전국	인구수	천명	44,608,726	46,136,101	47,041,434	47,990,761	0.51
	보통가구수	천가구	11,132,785	11,928,143	12,490,507	12,994,994	1.12
	(일반가구수)	(천가구)	12,958,181	14,311,807	15,887,128	17,339,422	2.25
	주택수	호	9,204,929	10,959,342	13,222,641	14,677,419	3.96
	주택수(신)	천호			15,622.6	17,672.1	2.62
	주택보급률	%	82.7	91.9	105.9	112.9	2.43
	주택보급률(신)				98.3	101.9	0.73
전라 북도	인구수	천명	1,902,044	1,890,669	1,778,879	1,766,044	-0.48
	보통가구수	천가구	471,211	490,928	476,560	478,891	0.11
	(일반가구수)	(가구수)	556,985	601,965	619,958	659,946	1.23
	주택수	호	473,435	536,492	598,153	633,477	2.25
	주택수(신)	천호			638.4	709.1	2.21
	주택보급률	%	100.5	109.3	125.5	132.3	2.11
	주택보급률(신)				103.0	107.4	0.85

- 사군별로는 군부의 주택보급률이 시부보다 약 3.5%p 이상 높음
 - 주택보급률이 시부는 106.8%, 군부는 110.3% 수준
 - 전라북도내 시·군지역 가운데 전주시의 주택보급률이 104.7%로 가장 낮은 상황이며, 군산시, 진안군, 장수군, 임실군, 순창군이 주택보급률 110%를 초과하고 있음
- 전라북도 대부분의 시·군지역이 주택수가 일반가구수를 상회하는 수준에 있어 양적 주택부족 문제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주택공급

- 전라북도 주택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에 있는 유형은 단독주택이며, 아파트, 연립주택 순을 이루고 있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비중은 각각 50% 정도를 점유하고 있음
 - 시지역과 군지역의 주택유형별 비중이 상이하여 시부는 아파트, 군부는 단독주택 구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음
- 시부와 군부 모두에서 아파트의 비중이 점차 증대되는 추세로 주택건설은 주로 아파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표 3-103〉 시·군별 주택보급 및 주택유형 실태

지역	일반가구 (천가구)	가구당 인구(명)	주택보급률 (%)	주택유형(호, %)					
				계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659,946	2.6	107.4	709,091	371,621 (52.41)	320,469 (45.19)	14,163 (2.00)	2,838 (0.40)	
전북 (%)	시부	537,558	2.6	106.8	574,091	261,879 (45.62)	298,110 (51.93)	11,846 (2.06)	2,256 (0.39)
	군부	122,388	2.3	110.3	135,000	109,742 (81.29)	22,359 (16.56)	2,317 (1.72)	582 (0.43)
전주시	224,883	2.8	104.7	235,543	90,036	140,798	3,898	811	
군산시	94,944	2.6	110.3	104,693	40,260	60,372	3,706	355	
익산시	109,391	2.6	107.0	117,035	51,608	61,914	2,684	829	
정읍시	43,716	2.4	106.9	46,751	29,410	16,539	724	78	
남원시	31,329	2.4	107.6	33,715	23,939	9,432	263	81	
김제시	33,295	2.4	109.2	36,354	26,626	9,055	571	102	
완주군	29,493	2.6	108.7	32,064	20,928	10,825	236	75	
진안군	9,153	2.2	112.0	10,251	9,002	927	322	0	
무주군	9,476	2.2	109.1	10,338	8,971	1,040	221	106	
장수군	8,300	2.3	110.0	9,128	8,223	417	439	49	
임실군	10,693	2.2	116.6	12,466	11,092	1,195	144	35	
순창군	10,891	2.2	111.1	12,103	10,893	1,065	39	106	
고창군	22,782	2.2	109.4	24,923	21,021	3,160	607	135	
부안군	21,600	2.3	109.8	23,727	19,612	3,730	309	76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주: 단독주택은 다가구주택 개별호수를 포함 함

- 시·군별 주택유형은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
 - 특히 전주시의 아파트 비중은 일반가구수 대비 59.8%에 달하며, 단독주택은 38.2%에 불과
 - 군지역 가운데 단독주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임실군은 단독주택 비중이 89.0%인 것에 비해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9.6%에 불과
- 전라북도는 소형주택의 비중이 높음
 - 전국의 주택규모 중 중소규모(85㎡이하)의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7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라북도는 76.0%를 차지하고 있음
 - 소형주택(60㎡이하)이 차지하는 비중은 40.7%로서 전국의 38.5%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소형주택 비중은 시부가 41.8%, 군부가 36.4%로서 시부지역에서 소형주택의 비율이 높음

■ 노후주택 증가 및 도심공동화

- 전라북도의 노후주택 비중은 전국에 비해 높은 수준
 - 전국의 노후(16년 이상)주택 비율은 45.6%를 차지하고 있으나, 전라북도는 그보다 높은 50.5%를 차지하고 있어 전국 평균에 비하여 주택의 노후도가 높게 나타남

〈표 3-104〉 시·군별 노후주택 비율(15년 이상 주택)

지 역	총 주택수 (호)	주택유형(호, %)				노후주택 (1994년이전)	
		2005~2010	1995~2004	1980~1994	1979년이전		
전 국	13,883,571	2,174,160 (15.7)	5,383,734 (38.8)	4,976,596 (35.8)	1,349,081 (9.7)	6,325,677 (45.6)	
전 북 (%)	588,951	76,526 (13.0)	214,879 (36.5)	202,478 (34.4)	95,068 (16.1)	297,546 (50.5)	
	시부	471,750	59,183 (12.5)	176,743 (37.5)	172,535 (36.6)	63,289 (13.4)	235,824 (50.0)
	군부	117,201	17,343 (14.8)	38,136 (32.5)	29,943 (25.5)	31,779 (27.1)	61,722 (52.7)
전 주 시	184,379	28,270	77,610	63,302	15,197	78,499	
군 산 시	87,595	13,284	29,634	33,444	11,233	44,677	
익 산 시	96,273	8,562	33,527	42,083	12,101	54,184	
정 읍 시	42,023	4,383	14,637	12,695	10,308	23,003	
남 원 시	28,907	2,131	11,029	9,166	6,581	15,747	
김 제 시	32,573	2,553	10,306	11,845	7,869	19,714	
완 주 군	27,560	5,587	11,142	5,666	5,165	10,831	
진 안 군	8,947	1,249	3,257	1,924	2,517	4,441	
무 주 군	8,940	1,297	2,876	2,252	2,515	4,767	
장 수 군	8,037	1,344	2,741	2,318	1,634	3,952	
임 실 군	10,417	1,505	2,716	2,847	3,349	6,196	
순 창 군	10,560	1,371	3,504	2,709	2,976	5,685	
고 창 군	21,879	2,502	5,494	5,633	8,250	13,883	
부 안 군	20,861	2,488	6,406	6,594	5,373	11,96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10

- 시부에 비해 군부의 노후주택 비율이 높음
 - 군부의 노후주택 비율은 52.7%로서 시부의 50.0%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어 시부지역보다 군부지역의 주택개량이 필요한 상황

2. 여건변화와 전망

■ 주거복지 욕구의 선진화

- 소득 증가와 가치관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
 - 주택보급률이 100%를 크게 상회하고 있으며, 인구성장이 작은 상황에서 양적인 주택공급과 함께 주택의 질적인 개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될 전망
 - 소득 증가와 삶의 질을 중시하는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주거환경에 대한 요구 증가
- 지역주민은 환경과 전통, 문화를 중시하는 의식구조로의 전환이 이루어짐에 따라 살기 좋은 지역 만들기와 같이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전통과 문화, 생태환경자원을 기반으로 한 주거환경의 정비, 고유의 다양한 주택양식에 대한 욕구 등이 표출될 것으로 전망됨
 - 질적 측면에서 거주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제고, 주거복지의 분배와 적정성 확보를 위해 정부가 소득 및 주거비부담 능력 등을 기준으로 한 적절한 지원책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

■ 1~2인 가구의 증가에 따른 주택수요의 다양화

- 지속적으로 1~2인 가구의 증가로 인하여 그에 따른 주택수요의 다양화 예상
 - 핵가족화의 심화로 가구당 가족구성원수가 1995년 3.4명에서 2010년 2.6명으로 감소
- 1~2인 가구 중 노령층의 증가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주택의 다변화 예상

〈표 3-105〉 전라북도 연령별 1~2인 가구 현황

(단위: 가구)

구분	2000년	2005년	2010년
합 계	246,064	279,621	361,217
20세 미만	3,780	1,287	3,028
20 ~ 29세	29,880	16,273	33,786
30 ~ 39세	23,013	35,951	35,541
40 ~ 49세	23,736	45,277	39,946
50 ~ 64세	73,058	98,109	102,899
65세 이상	92,577	82,724	146,017

자료: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각년도

■ 사회적 약자의 주거환경 개선

- 1인 가구 및 노인가구의 증대 등과 같은 가구구성의 변화는 제공되어야 할 주택의 규모, 내부구조, 시설수준 및 주거환경 등에 있어 큰 변화를 요구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 총 인구대비 근로연령 인구비율의 상승, 노인 단독가구, 노인부부가구 등의 증가로 순수 공급량의 증가 외에 의료지원기능과 취업 창출과 연계된 실버산업 단지기능을 갖춘 노인주택단지 공급 증가도 예상됨
- 노후·불량주택 밀집지역의 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환경개선으로 재정착률 제고를 위한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지속적 추진과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택개량사업 확대가 예상됨
- 획일적인 공동주택 공급에서 탈피된 전원주택, 노인주택, 지능형주택, 직주근접의 원룸, 독신자주택, 장애인편의주택, 오피스텔 등 다양한 형태의 주택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전망됨

3. 계획의 기본방향

■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 지역주민의 수요증대에 따라 요구되는 주택의 양적 확충과 병행하여 주거환경의 질적 향상 기반 구축
- 공동주택 유지관리 효율화 추진
- 주택 정보 시스템 구축

■ 다양한 계층의 주거복지 요구에 부응하는 주거환경 제공

- 저소득층 및 노령층의 주거복지 확대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최소화
- 1~2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형주택 주거환경 개선

■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 환경친화적 주택보급 확대
-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통한 주민중심의 주거공동체 활성화 도모

4. 세부 추진과제

■ 다양한 계층의 주거복지 욕구 충족

- 고령화에 따른 노인가구, 장애가구 등의 주거여건 개선
- 저소득층의 노후 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 고쳐주기 등 주택개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
- 도시의 일상생활에서 사회적 약자가 장애를 느끼지 않고(barrier free) 도시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공공 편의시설을 정비함
- 저소득층의 주거복지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의 다양화와 공공임대주택의 효율적 배분 및 저소득층 주거안정 확보
- 노후 불량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기반시설정비 등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주민의 높은 재정착률을 유도함
-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한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
-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소형주택, 전원주택, 단지형 단독주택, 타운하우스 등 수요맞춤형 주택공급 확대
- 주택공급의 획일화를 지양하고 다양한 주택공급

■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 조성

-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확충하여 주거공동체 기반 조성
- 주민이 중심이 되는 마을 만들기 주거환경정비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주거공동체의 활성화 도모
- 주거단지 공간을 개방하여 공공공간과 통합 추진
- 커뮤니티 단위의 공공시설을 현재보다 확충하여 주거공동체 기반을 조성하고 담장 없는 마을 만들기 등 살고 싶은 지역 만들기 적극 추진

■ 환경친화적 주택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 확대

- 녹색주택(그린홈) 보급 확대 및 건축물의 신재생에너지 활용 지원
- 환경친화적 단지조성(물순환체계, 탄소저감 등)
- 지속가능하고 친환경적인 도시 관리와 주거환경 개선, 주택수명의 연장을 위하여 리모델링 및 주택의 개·보수 지원강화
- LCC(Life Cycle Cost)를 통한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제2절 효율적이고 안전한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1. 현황 및 문제점

■ 상·하수도 보급률이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지역간 격차가 큼

• 상수도

- 2010년 기준 전라북도의 상수도보급률은 92.1%(전국평균 95.3%)이고, 미급수대상 마을상수도는 1.8%(전국평균 1.2%), 우물 및 샘을 이용하는 기타가 2.4%(전국평균 1.8%)를 차지하고 있어 상수도 보급수준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하나 격차는 점차 줄어드는 추세임
- 김제시, 남원시를 제외한 시지역이 90.0% 이상의 보급률을 보이며 평균 95.3%의 보급현황을 보이고 있으나, 군지역 중 무주와 부안댐으로 상수공급을 받는 고창군, 부안군을 제외한 지역이 57.9~72.3%의 낮은 보급률을 보여 지역간 격차가 있음

〈표 3-106〉 사군별 상수도 보급현황

구분	총인구 (명)	상수도보급률 (%)	미급수인구			
			마을상수도 인구*(%)	소규모급수 시설인구(%)	전용상수도 인구(%)	기타인구 (우물, 샘, %)
전국	51,434,583	95.3	1.2	1.2	0.4	1.8
전북	1,889,115	92.1	1.8	3.0	0.7	2.4
시부	1,541,106	95.3	0.9	2.0	0.2	1.6
전주시	646,535	99.6	-	0.1	-	0.3
군산시	276,166	92.6	-	7.4	-	-
익산시	310,773	98.0	0.1	0.3	-	1.6
정읍시	123,512	90.2	2.8	3.3	-	3.7
남원시	88,563	77.0	11.2	3.9	3.9	3.9
김제시	95,557	89.0	-	0.7	-	10.3
군부	348,009	77.7	5.8	7.8	2.9	5.9
완주군	87,329	58.0	12.1	9.1	11.5	9.3
진안군	27,817	57.9	19.2	20.1	-	2.8
무주군	25,764	99.1	-	-	0.0	0.9
장수군	23,651	72.3	-	13.1	-	14.6
임실군	30,941	65.0	10.6	13.5	-	10.9
순창군	30,503	71.8	-	14.3	-	14.0
고창군	61,407	96.3	1.6	2.0	-	0.1
부안군	60,597	98.8	-	1.1	-	0.1

* 상수도보급률 산정기준에 부적합한 마을상수도

자료 : 환경부, 2010상수도통계연보, 2011

• 하수도

- 2009년 기준 전라북도의 하수도 보급률은 평균 79.3%로 전국평균 89.4%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특히 군지역의 경우 50% 수준에 머물고 있어 저조한 보급률을 보이고 있음
- 고도처리보급의 경우 평균 56.7%로 전국평균 50.2%를 상회하나, 시지역이 65.3%, 군지역이 18.5%로 지역간 격차가 있음

〈표 3-107〉 시·군별 하수도 보급률

구분	하수도보급률 (%)	고도처리인구 보급률(%)	합계 (명)	하수처리구역 내		하수처리구역 외	
				공공하수 처리인구(명)	폐수처리인구 (명)	시가지역 (명)	비시가지역 (명)
전국	89.4	50.2	50,643,781	44,972,114	292,078	920,534	4,459,055
전북	79.3	56.7	1,874,427	1,484,427	1,865	10,129	378,006
시부	85.9	65.3	1,527,877	1,311,253	1,865	4,561	210,198
전주시	96.0	96.0	639,922	614,483	-	-	25,439
군산시	88.6	-	270,329	238,675	868	-	30,786
익산시	84.2	83.0	310,255	261,188	200	-	48,867
정읍시	66.2	61.1	122,935	81,327	-	3,944	37,664
남원시	79.2	8.7	88,496	70,071	-	-	18,425
김제시	48.3	44.9	95,940	45,509	797	617	49,017
군부	50.0	18.5	346,550	173,174	-	5,568	167,808
완주군	48.5	34.3	86,076	41,773	-	-	44,303
진안군	55.0	53.6	27,828	15,300	-	-	12,528
무주군	62.2	-	25,979	16,152	-	452	9,375
장수군	53.8	21.7	23,740	12,769	-	361	10,610
임실군	61.5	-	31,127	19,141	-	-	11,986
순창군	41.7	-	30,471	12,712	-	-	17,759
고창군	44.6	14.4	60,668	27,065	-	1,545	32,058
부안군	46.6	9.4	60,661	28,262	-	3,210	29,189

자료 : 환경부, 2009하수도 통계, 2010

• 노후수도관

- 도수관, 송수관, 배수관, 급수관 등 총 15,230km의 수도관이 설치되어 있으며 16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은 5,445km로 총연장 중 35.7%에 해당하여 전국평균 41.7%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도민의 건강과 유수율 증가를 위해 16년 이상된 노후수도관에 대한 교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표 3-108〉 수도권 연도별 설치현황

(단위 : %)

구분	총연장(m)	21년이상 (90년 이전)	16~20년 이내 (91~95)	11~15년 이내 (96~00)	6~10년 이내 (01~05)	5년 이내 (06~10)
전국	160,913,040	24.6	17.1	16.1	18.2	23.9
전북	15,230,153	22.0	13.7	9.7	16.4	38.1
도수관	68,949	42.1	36.0	14.2	1.7	6.0
송수관	439,805	33.3	11.4	14.4	15.9	25.1
배수관	7,931,528	14.4	15.0	11.1	21.2	38.2
급수관	6,789,872	29.9	12.2	7.7	11.0	39.1

자료 : 환경부, 2010상수도통계연보, 2011.

• 하수관거 보급실태

- 전북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관거의 총연장은 6,482km로 보급률 69.0%로 전국(75.4%)대 비 하수관거 보급률이 낮음
- 이 중 합류식이 2,233km로 34.4%, 오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분류식이 4,249km로 65.6%를 차지함
- 하수관거는 시지역의 보급률이 70.4%(총연장 5,002km)인 반면, 군지역의 보급률이 64.7% (총연장 1,480km)인 것으로 나타났음

〈표 3-109〉 시·군별 하수관거 설치현황

(단위:km, %)

구분	계획연장 (km)	시설연장 (km)	보급 률 (%)	합류식(km)			분류식(km)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 률(%)	오수관거			우수관거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 률(%)	계획 연장	시설 연장	보급 률(%)
전 국	142,967	107,843	75.4	42,833	49,386	115.3	55,470	33,584	60.5	44,664	24,873	55.7
전 북	9,390	6,482	69.0	2,402	2,233	93.0	4,388	2,742	62.5	2,600	1,507	58.0
시 부	7,102	5,002	70.4	2,026	1,917	94.6	2,830	1,810	64.0	2,247	1,275	56.7
전주시	2,393	1,674	70.0	566	566	100.0	902	646	71.6	925	462	49.9
군산시	1,353	1,048	77.4	482	472	97.9	414	307	74.2	458	269	58.7
익산시	1,413	1,094	77.4	451	451	100.0	598	335	56.0	363	308	84.8
정읍시	565	453	80.1	275	174	63.1	203	201	99.1	87	77	89.6
남원시	563	393	69.9	85	88	103.7	305	218	71.4	174	88	50.6
김제시	814	340	41.7	166	166	100.0	407	103	25.3	241	71	29.3
군 부	2,288	1,480	64.7	377	316	83.9	1,558	932	59.8	353	232	65.8
완주군	658	340	51.7	25	25	100.0	512	272	53.1	121	43	35.8
진안군	181	97	53.7	65	65	100.0	82	30	36.3	34	2	7.0
무주군	165	87	52.7	15	15	100.0	103	58	56.9	47	14	29.1
장수군	107	72	66.8	-	8	-	69	40	57.2	38	24	63.5
임실군	179	155	86.5	68	66	97.7	89	76	86.3	23	12	54.1
순창군	205	118	57.8	68	63	91.6	136	43	31.3	-	13	-
고창군	426	269	63.2	113	54	48.0	222	154	69.2	90	61	67.5
부안군	367	342	93.1	23	20	89.9	345	259	75.2	-	63	-

자료 : 환경부, 2009하수도 통계, 2010

■ 1인당 상수도 사용량이 높음 (435 ℓ /인, 전국 3위)

- 전라북도 총급수량은 2010년 기준 272,904천m³으로 자체생산 22.9%, 정수수입 77.1%로 정수수입에 의한 비중이 전국평균 25.5%에 비해 높음
- 급수인구 1인당 1일 435ℓ의 상수를 공급하여 전국에서 강원도(454ℓ), 경상북도(436ℓ) 다음으로 높은 수돗물 사용량을 보이고 있음

■ 전국대비 유수율이 낮고 누수율이 높음

- 유수율과 누수율의 경우 각각 69.5%와 20.5%로 전국 평균치 83.2%, 10.8%보다 유수율은 낮고, 누수율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어, 누수율을 줄이고 유수율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함

〈표 3-110〉 전라북도 수도운영 관리현황

구분	총급수량 (천m ³ /년)	자체생산량 (천m ³ /년)	정수수입량 (천m ³ /년)	유수율 (%)	누수율 (%)	1일1인당 급수량(ℓ)	현실화율 (%)
전국	5,909,784	4,400,586	1,509,197	83.2	10.8	332.8	78.5
전북	272,904	62,507	210,397	69.5	20.5	434.8	82.1
시부	237,443	52,782	184,662	72.4	16.8	408.2	79.2
전주시	92,458	12,803	79,656	62.8	32.1	393.9	121.7
군산시	65,156	-	65,156	82.1	13.4	698.1	92.2
익산시	51,657	34,150	17,508	68.8	13.8	464.8	91.4
정읍시	11,560	-	11,560	80.2	12.0	284.3	68.9
남원시	8,668	5,829	2,839	67.0	15.0	348.1	52.1
김제시	7,944	-	7,944	73.7	14.3	260.0	49.1
군부	35,460	9,726	25,735	60.4	17.9	388.9	39.2
완주군	6,378	23	6,355	66.3	32.6	345.2	81.5
진안군	2,021	2,021	-	52.3	9.9	344.0	17.7
무주군	3,792	3,792	-	47.6	25.5	586.2	46.5
장수군	1,941	-	1,941	51.3	19.5	409.0	24.4
임실군	2,720	2,071	649	62.0	21.1	370.6	29.6
순창군	1,676	1,676	-	77.2	10.5	272.8	32.5
고창군	8,602	-	8,602	53.8	14.7	398.6	45.6
부안군	8,330	142	8,188	72.3	9.8	384.7	35.7

자료 : 환경부, 2010상수도통계연보, 2011

■ 녹색성장을 위한 녹색 인프라에 대한 관심이 높음

• 급수이용 현황

- 2009년 기준 전라북도의 유수수량(유효수량 중 요금으로 징수할 수 있는 수량)은 180.6백만 m³/년으로 전라북도의 상수도 생산량 208.7백만m³/년의 86.6%에 해당함. 이 중 가정용은 55.4%인 100.1백만m³/년이며, 전용공업용은 17.2%인 31.1백만m³/년인 것으로 조사됨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의 주요 용수공급원은 금강, 섬진강으로 용수의 대부분을 의존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만경강, 동진강, 기타 소규모 수계와 동남부 남단의 낙동강이 차지하고 있음

〈표 3-111〉 전라북도 업종별 급수사용 현황

(단위 : m³/년)

구분	합계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목욕탕용		전용 공업용	기타
					1종	2종		
전라북도	180,617,096	100,143,450	23,644,928	22,413,738	1,754,096	1,281	31,062,734	1,596,869
전주시	57,331,544	40,892,327	14,993,058	-	902,094	-	-	544,065
군산시	49,467,405	15,526,852	-	7,815,087	431,486	-	25,693,980	-
익산시	32,672,188	17,476,096	2,884,126	6,820,705	122,507	-	5,368,754	-
정읍시	8,767,734	6,109,173	1,503,003	1,061,966	93,592	-	-	-
남원시	5,575,448	3,711,163	-	1,546,825	65,031	-	-	252,429
김제시	5,356,594	4,134,474	-	750,234	12,792	-	-	459,094
완주군	4,782,097	2,008,592	2,770,760	-	2,745	-	-	-
진안군	1,005,052	639,378	156,686	208,250	738	-	-	-
무주군	1,599,888	825,036	-	704,353	8,974	-	-	61,525
장수군	973,264	672,857	272,930	25,206	1,943	-	-	328
임실군	1,563,387	878,377	322,962	345,063	15,704	1,281	-	-
순창군	1,179,150	636,022	203,589	337,311	2,228	-	-	-
고창군	4,400,402	2,836,827	537,814	699,715	46,618	-	-	279,428
부안군	5,942,943	3,796,276	-	2,099,023	47,644	-	-	-

자료 : 전북통계연보(2010)

• 광역상수도 공급 현황

- 전라북도 내 광역상수도는 전주권, 섬진강, 부안, 동화댐 등 4개 광역상수도가 있으며, 이들은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 김제 등 6개시와 완주군, 장수, 임실, 고창, 부안 등 5개군에 상수를 공급하고 있음
- 전체시설용량은 884천톤/일이며, 공급량은 501천톤/일로 56.7%의 공급률을 보이며 대부분의 광역상수도는 전주, 익산, 군산, 완주의 전주권에 집중 공급하고 있음

〈표 3-112〉 전라북도 광역상수도 시설현황

(단위 : 천톤/일)

지역	계(시설용량)		섬진강(90)		전주권(700)		부안댐(87)		동화댐(52)	
	시설용량	공급량	시설용량	공급량	시설용량	공급량	시설용량	공급량	시설용량	공급량
전주시	267	218	-	-	267	218	-	-	-	-
군산시	182	103	-	-	182	103	-	-	-	-
익산시	105	48	-	-	105	48	-	-	-	-
정읍시	84	32	84	32	-	-	-	-	-	-
남원시	34	8	-	-	-	-	-	-	34	8
김제시	42	22	-	22	42	-	-	-	-	-
완주군	69	17	-	-	69	17	-	-	-	-
장수군	6	5	-	-	-	-	-	-	6	5
임실군	6	2	-	-	-	-	-	-	6	2
고창군	42	24	6	-	-	-	36	24	-	-
부안군	47	22	-	-	-	-	47	22	-	-
계	884	501	90	54	665	386	83	46	46	15

자료 : 전라북도청 물환경관리과 내부자료(2011. 1. 1기준)

2. 여건변화와 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 증가로 홍수 및 가뭄 위험성 증대

- 기후변화에 따라 전라북도 지역의 평균기온 및 강수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상기후 증가로 홍수 및 가뭄의 위험성이 증가
- 특히, 집중호우의 증가는 상수원수의 탁수와 하수처리시설 용량초과로 인한 내수 침수 등을 유발하므로 상·하수도 시스템의 효율적인 대응 필요

■ 국가 물산업 육성계획에 따른 상·하수도 관련 투자 확대

- 물산업은 21세기 Blue Gold산업으로 2025년 세계시장은 1,038조원으로 추정되며 이 중 상·하수도 분야가 가장 큰 비중(74%)을 차지
- 선진국의 관망노후화 교체사업과 개도국의 상·하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며 정부는 해외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기술개발 및 관련 기업 육성을 위한 투자 계획

- 상·하수도의 효율성과 안전성이 강조되고 관련 기술개발 가속
 - 상수도 분야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행정구역을 넘어 수원, 급수인구규모, 지역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역단위, 권역별로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
 -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하수도 서비스 공급을 위해 통합운영관리 확대, IT 연계 상·하수도 기술개발 등이 가속화될 전망
- 새만금 사업 등과 연계한 상·하수도 정비사업의 중요성 증대
 - 정부는 전국수도종합계획, 수도정비기본계획 등의 상·하수도 관련 계획을 수립하여 다방면으로 물관리 정책을 통해 상·하수도 관리체계 구축
 - 새만금 사업 등의 국책사업의 기초환경 인프라 조성을 위해 상류지역의 상·하수도 정비사업이 지속적으로 필요

3. 계획의 기본방향

- 기후변화 대비 안정적인 물관리를 위한 상·하수도 시설의 확충
 - 기후변화 대응과 기초 환경 인프라 구축을 위해 지속적인 상·하수도 보급사업 추진
 - 중수도 도입, 빗물 이용, 하수처리수 재이용과 같은 물순환 사업을 추진
- 녹색성장 기반조성을 위한 상·하수도 정비사업의 확대
 - 노후화된 상·하수도 관거 교체를 통한 유역별 수질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가능한 녹색성장 사업 연계로 도민의 삶의 질 제고
- 상수도 통합 추진에 따른 상수도 공급의 효율성 제고
 - 지역간 상수도 공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상수도 보급을 위해 유역단위, 권역별 지방상수도 통합 추진

4. 세부 추진과제

■ 농어촌 생활용수 및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아 소규모 수도시설 등을 이용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 및 도서지역에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 가축 매몰 후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 오염 우려로 상수도 미 보급지역 지방상수도를 확충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 농촌지역/도서지역 주민들의 건강증진 및 생활수준을 향상을 통한 삶의 질 제고

■ 수도시설 개량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

- 시설노후 및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소규모 수도시설을 개량
- 하수처리구역 내 노후 하수관거 정비 및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 자연마을 단위에서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초기단계부터 차단하여 공공수역 수질개선 도모

■ 상수관망 블록시스템 구축을 통한 최적관리시스템 도입

- 지방상수도 통합운영 참여 지자체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수도사업의 적자 해소와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확보 촉진
- 국가 물산업 육성 사업과 연계한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도입을 통한 상수도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전라북도 물산업 기반 구축

제3절 녹색성장에 대응한 지역 자원의 개발과 관리

1. 현황 및 문제점

가. 수자원

■ 전통 농업지역으로 수자원 기반시설이 풍부 (전체 물수요에서 농업용수 비중 82%)

• 수자원 부족량

- 전라북도의 강수총량은 102.9억^{m³}이며, 이 중 61.1억^{m³}이 유출되고 손실량(증발산 및 차단)은 41.8억^{m³}임
- 강수총량은 섬진강이 2,898백만^{m³}, 금강 2,302백만^{m³} 순으로 높으며, 행정구역별 수자원 부족량은 남원시, 진안군, 완주군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됨

〈표 3-113〉 전라북도 행정구역별 수자원 부족량

행정구역	면적 (km ²)	연평균유출량(백만 ^{m³})		
		홍수기	비홍수기	계
전라북도	7,942.9	4,397.2	1,714.9	6,112.1
전주시	205.3	105.1	46.1	151.1
군산시	331.6	172.5	69.6	242.1
익산시	509.0	260.6	109.8	370.4
정읍시	696.1	335.5	159.6	495.1
남원시	749.2	478.4	156.6	634.9
김제시	509.4	245.9	116.2	362.1
완주군	822.0	423.7	183.8	607.4
진안군	790.3	457.7	163.4	621.2
무주군	629.7	336.6	109.7	446.3
장수군	531.3	313.1	109.4	422.5
임실군	598.8	363.4	131.3	494.7
순창군	499.0	297.6	110.3	407.9
고창군	608.3	359.7	144.6	504.3
부안군	462.7	247.5	104.6	352.1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011~2025), 2011

〈표 3-114〉 전라북도 수계별 수자원 부족량

유역	유역면적 (km ²)	연평균 강수량 (mm)	강수총량 (백만m ³)	연평균유출량(백만m ³)			손실량 (백만m ³)
				홍수기	비홍수기	계	
전라북도	7,942.9	1,295.4	10,289	4,397 (42.7%)	1,715 (16.7%)	6,112 (59.4%)	4,177 (40.6%)
만경강	1,592.6	1,271.8	2,025	816 (40.3%)	357 (17.6%)	1,173 (57.9%)	853 (43.0%)
동진강	1,155.8	1,227.4	1,419	543 (38.3%)	266 (18.7%)	809 (57.0%)	610 (43.0%)
섬진강	2,135.9	1,357.0	2,898	1,288 (44.4%)	466 (16.1%)	1,753 (60.5%)	1,145 (39.5%)
금 강	1,839.7	1,251.4	2,302	1,010 (43.9%)	355 (15.4%)	1,365 (59.3%)	937 (40.7%)
낙동강	243.6	1,492.6	364	172 (47.2%)	49 (13.4%)	220 (60.6%)	143 (39.4)
기타수계	975.3	1,313.2	1,281	569 (44.4%)	223 (17.4%)	792 (61.8%)	489 (38.2%)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011~2025), 2011

• 물 이용량 현황

- 2008년 기준 전라북도 물 이용량은 2,526.6백만m³으로 농업용수가 전체수요의 82.2%로 가장 많으며, 생활용수 12.5%, 공업용수 4.3%의 비중을 차지함
- 행정구역별로는 익산시가 전라북도 전체 용수이용량의 13.6%를 사용하여 물 이용량이 가장 높았으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이용량은 전주시가 가장 높았으며, 농업용수는 김제시가 가장 많음
- 권역별 기준은 만경강과 동진강이 각각 28.3%, 26.0%로 높은 이용률을 보임

〈표 3-115〉 권역별 용수이용 현황(2008년)

(단위: 백만m³/년)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비고(비율)
계	2,526.6	314.6	109.0	2,076.0	100.0%
금강본류	350.2	20.9	4.3	324.6	13.9%
금강서해	117.2	19.6	6.6	90.7	4.6%
만 경 강	714.8	191.3	69.5	454.0	28.3%
동 진 강	656.8	43.0	21.8	591.4	26.0%
직 소 천	90.3	4.6	0.7	85.5	3.6%
섬 진 강	353.4	44.0	4.4	305.7	14.0%
영 산 강	187.3	13.7	1.6	172.5	7.4%
낙 동 강	56.8	4.6	0.2	51.7	2.2%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011~2025), 2011

〈표 3-116〉 행정구역별 용수이용 현황(2008년)

(단위: 백만m³/년)

구분	계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비고(비율)
전라북도	2,526.6	341.6	109.0	2,076.0	100.0%
전주시	202.5	105.3	36.2	61.0	8.0%
군산시	240.3	32.8	25.4	182.1	9.5%
익산시	343.2	56.7	11.7	274.8	13.6%
정읍시	238.6	20.3	4.0	214.3	9.4%
남원시	194.1	34.0	0.7	159.4	7.7%
김제시	329.5	21.0	4.6	303.9	13.0%
완주군	154.1	18.1	19.3	116.7	6.1%
진안군	91.7	6.6	0.6	84.5	3.6%
무주군	53.1	4.3	0.3	48.5	2.1%
장수군	68	7.1	0.3	60.6	2.7%
임실군	84.6	5.0	2.4	77.2	3.3%
순창군	98.2	5.2	1.0	92.0	3.9%
고창군	204.7	12.7	1.4	190.6	8.1%
부안군	223.9	12.4	1.1	210.4	8.8%
새만금(아리울)	-	-	-	0.0	-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011~2025), 2011

■ 2025년 기준 연간 약 122백만m³의 물이 부족 (최대 용수 수요량 기준)

• 물 수요량 전망

- 전라북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011~2025)에 따르면 2008년 물 사용량은 2,526.6백만m³에서 2025년 12.2% 증가한 2,835.2백만m³으로 전망됨
- 새만금 사업과 용수공급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용도별 물 수요량은 생활, 공업, 농업용수가 각각 2008년 대비 2025년 33.6%p, 113.7%p, 3.4%p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됨

〈표 3-117〉 물수요량 전망

(단위: 백만m³/년, %p)

구분	2008년	2015년	2020년	2025년	'08년대비 25년	
					증가량	증가율
계	2,526.6	2,574.0	2,855.6	2,934.5	407.9	16.1
		2,505.0	2,761.3	2,835.2	308.6	12.2
		2,457.0	2,642.5	2,698.1	171.5	6.8
생활용수	314.6	320.1	386.7	472.7	131.1	38.4
		303.8	370.1	456.3	114.7	33.6
		303.1	328.3	400.5	58.9	17.2
공업용수	109.0	136.9	206.3	248.8	139.8	128.3
		132.6	197.0	232.9	123.9	113.7
		128.2	188.2	218.5	109.5	100.5
농업용수	2,076.0	2,117.0	2,262.6	2,213.0	137.0	6.6
		2,068.6	2,194.2	2,146.0	70.0	3.4
		2,025.7	2,126.0	2,079.1	3.1	0.1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011~2025), 2011

- 물 수급 전망
 - 목표연도 2025년에 대한 분석결과 최대 용수 수요량은 연간 3,078.2백만^m이며 용수공급가능량은 연간 2,956.0백만^m으로 전라북도는 연간 약 122.2백만^m의 물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됨
 - 용도별로는 농업용수가 연간 82.9백만^m으로 가장 부족하였으며, 다음으로 하천유지용수가 38.6백만^m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유역별로는 동진강이 연간 64.7백만^m으로 물부족인 가장 많은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섬진강, 만경강, 금강 순으로 물부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됨

〈표 3-118〉 물수급 전망

(단위: 백만^m/년)

구분 \ 권역	전라북도	만경강	동진강	금강	섬진강	기타
용수수요량	3,078.2	860.0	674.7	334.3	402.4	806.8
- 생활용수	456.9	150.8	35.0	17.4	39.6	214.1
- 공업용수	232.8	137.8	15.0	6.1	6.2	67.7
- 농업용수	2,146.1	444.6	565.1	310.8	300.6	525.0
- 하천유지용수	242.4	126.8	59.6	0.0	56.0	0.0
용수공급가능량	2,956.0	847.1	610.0	323.5	368.6	806.8
부 족 량	122.2	12.9	64.7	10.8	33.8	0.0
- 생·공용수	0.7	0.7	0.0	0.0	0.0	0.0
- 농업용수	82.9	2.8	49.5	10.8	19.8	0.0
- 하천유지용수	38.6	9.4	15.2	0.0	14.0	0.0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011~2025), 2011

■ 전라북도의 하천기본계획 수립률과 하천 개수율은 전국평균에 미치지 못함

- 2009년 기준 전라북도의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69.5%)은 전국 하천정비기본계획 수립률(74.5%) 수준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음
- 2009년 기준 전라북도의 하천 개수율은 76.0%이고 전국의 하천 개수율은 79.9%를 나타내고 있음

나. 에너지

■ 석탄, 석유의 소비량은 감소하는 반면, 도시가스, 전력의 소비량은 증가함

- 전라북도의 에너지 이용량(2009년)은 2008년 대비 4.3%p 감소하였고 부문별

에너지 소비현황을 살펴보면 전라북도의 경우 국가와 마찬가지로 산업부문이 가장 큰 비중을 보이며, 수송과 건물 부문이 27.3%과 27.2%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원별비중은 석유가 51.2%로 가장 높으나 점차 비중이 줄어들고 있으며, 30.8%를 차지하는 전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임

〈표 3-119〉 분야별·원별 에너지 사용량 현황

(단위 : 천TOE)

구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비율(%)	
부문별 에너지 소비량	가정상업	1,236	1,231	1,215	1,247	1,269	27.2
	수송	1,268	1,311	1,257	1,279	1,272	27.3
	산업	2,063	2,398	2,152	1,944	1,948	41.8
	공공기타	140	136	179	179	174	3.7
원별 에너지 소비량	석탄	36	278	34	37	32	0.7
	석유	2,989	2,927	2,709	2,460	2,386	51.2
	도시가스	419	493	570	603	618	13.3
	전력	1,169	1,239	1,304	1,370	1,435	30.8
	열에너지	-	-	-	-	-	-
	기타	95	138	186	179	191	4.1
총에너지소비량	4,708	5,075	4,803	4,649	4,662	100	

자료 :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6~2010

■ 전국대비 전력자립도는 전국 12위이나, 1인당 전력소비량은 7위로 높음

- 전라북도 에너지 소비량(2009년)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2위이고 1인당 최종에너지 소비량 8위, 지역 내 총생산당 최종에너지소비량 8위, 1인당 석유소비량 8위, 1인당 전력소비량 7위, 전력자립도 11위를 나타내고 있음
 - 외부에서 주로 전기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현실이나 다른 지역에 비해 1인당 전력소비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전국 8위 규모로 지속적인 보급사업이 필요함

-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2006년 209,953 TOE에서 2009년 252,895 TOE로 증가경향을 보이나 전국비중 4.1%로 광역지자체 중 8위에 머무르고 있음
- 2009년 신재생에너지 이용현황을 보면, 공공부문의 폐기물(56.8%), 바이오(17.1%) 에너지를 주로 이용하며, 태양광 이용이 2009년 19,975 TOE로 2006년 357 TOE 대비 56배 증가하였음

〈표 3-120〉 전라북도 신재생에너지 이용 현황

구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TOE	비율(%)	TOE	비율(%)	TOE	비율(%)	TOE	비율(%)
태양열	2,024	1.0	1,802	1.0	1,699	0.7	1,751	0.7
태양광	357	0.2	871	0.3	8,770	3.5	19,975	7.9
바이오	39,413	18.8	48,507	18.8	41,573	16.6	43,176	17.1
풍력	1,520	0.7	1,713	0.7	2,103	0.8	2,258	0.9
수력	68,924	32.8	66,903	26.0	59,163	23.6	34,838	13.8
연료전지	-	-	-	-	1,277	0.5	5,760	2.3
폐기물	97,367	46.4	136,627	53.1	134,255	53.7	143,614	56.8
지열	346	0.2	954	0.4	1,347	0.5	1,523	0.6
합계	209,953	100	257,371	100	250,188	100	252,895	100

자료: 지식경제부·에너지경제연구원, 「지역에너지통계연보」, 2007~2010

다. 지하자원

■ 지하자원의 개발이 제한적이며 광산물 생산량이 전국대비 매우 저조함

• 광산물 생산실적

- 최근 5년간 전라북도에서 생산되는 법정광물(금속광 36종, 비금속광 30종)은 금, 활석, 장석, 고령토, 석회석, 규석, 사문석, 운모가 생산되는 것으로 나타남
- 2010년 기준 전국대비 전라북도 광산물 생산량은 규석이 2.6%로 도내에서는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광물은 2.0%미만의 낮은 생산비중을 보임

〈표 3-121〉 전라북도 광산물 생산현황

(단위 : 금, 은, 유화철, 수정 : kg, 기타 : 톤)

광종	규격	2010년 전국합계 (전라북도 비중, %)	전라북도 생산량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금	Au99.9%	54,540 (0.0)	-	9	2	4	-
활석	각급	5,729 (0.0)	200	-	-	20	-
장석	각급	496,511(0.6)	3,810	820	3,305	260	2,993
고령토	각급	2,139,525(1.8)	14,433	27,920	36,480	34,554	39,544
석회석	각급	83,666,870(0.1)	55,027	38,304	144,303	116,750	71,966
규석	각급	3,602,603(2.6)	85,209	205,900	55,256	88,446	93,774
사문석	각급	303,205(0.0)	1,890	850	1,080	26	-
운모	각급	36,486(0.0)	-	-	78	15	-

자료: 한국지질자원연구원-광물자원경제연구실 통계서비스 (<http://rik.kigam.re.kr>)

2. 여건변화와 전망

- **수자원 사용량의 지속적 증가와 기후변화에 따른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 증대**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각종 용수의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의 증가로 홍수와 가뭄에 대한 영향이 동시에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수자원 관리의 어려움이 예상됨
- **통합 수자원 관리를 위한 기술 및 정책 개발요구 증대**
 - 수자원 다변화, 수질, 수생태, 수변공간 활용 등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강화 및 수자원 관련 정책의 변화
 - 지하수, 하천수, 우수, 중수 등에 대한 수자원 활용 체계를 IT기반으로 최적화하여 다양한 종류의 물공급이 가능하도록 구축된 생산, 저장, 수송, 소비단계의 네트워크(Smart Water Grid) 개발·적용
-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기존 자원의 효율성 강화**
 -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태양광, 풍력, 조력, 파력, 수력, 바이오 등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증대
 - 녹색성장 관련 융합기술개발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녹색성장 추구
-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다양한 정책 프로그램 시행**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에너지 자립사업이 활성화되며 이를 위한 지원 지속
 -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건물에너지 효율개선, 저탄소 녹색 공간 활용과 관련한 정책 프로그램 강화

3. 계획의 기본방향

- 미래 물수요 및 기후변화 등 용수공급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수자원 관리 계획 수립
 - 수요처별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수자원 관리 체계 구축
 - 기후변화에 의한 집중호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하천재해방지 기반구축
- 새만금 수자원 인프라와 연계한 물산업 육성 기반 마련
 - IT기반의 지능형물관리 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물관리와 국가 물산업의 중심지 조성을 위한 새만금 유역 물산업 기반 조성
-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그린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및 보급 확대
 - 경제와 환경이 조화로운 녹색성장 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전략산업 육성 및 지속적인 신재생에너지, 지능형 전력망 보급 사업 확대
 - 기존 에너지 자원의 균등한 분배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보제공
- 녹색생활 확대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및 지역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 탄소포인트제와 같은 녹색생활 유도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공공 및 지역 커뮤니티 중심의 에너지 자립 기반 조성

4. 세부 추진과제

- 기후변화 대응 용수확보를 위한 기반정비 사업
 - 가뭄 상습지역 대상으로 저수지, 양수장 등 소규모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안정적인 용수 공급 (생활용수는 상·하수도에 포함)
 - 기 용수를 확보한 지역은 생산기반의 확장 및 개선을 병행하면서 기존 저수지와 양수장 등을 확장하거나 보강
- 물산업 육성을 위한 수자원 순환체계 구축 및 스마트 워터 그리드 사업
 - 빗물이용시설, 중수도,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등 물재이용시설의 설치의무 대상 확대로 물순환 체계 구축
 - IT기반의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 연구개발 참여 및 실증단지 조성을 통한 물산업 기반 확보

■ 에너지 공급안정 및 지역에너지 개발

- 정부의 RPS제도 도입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연계 및 대규모 그린에너지 발전단지 사업 추진을 통한 지역 에너지 자립률 제고
-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 사업, 하수처리장 소화조 개선을 통한 에너지 회수 사업, 스마트 그리드 거점도시 조성 등 지역에 적합한 사업 추진을 통한 녹색성장 달성

■ 주민주도형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및 녹색생활 확산

- 자발적 주민중심의 저탄소 녹색마을을 조성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 및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 비전 실현
-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양성, 홍보리플릿 제작 등을 통한 녹색생활 교육·홍보 강화

제4절 실효성 있는 환경자산의 보전과 활용

1. 현황 및 문제점

가. 생태환경

- 백두대간, 국립공원 등 우수한 녹색자원이 있으나 활용도가 낮음
 - 2001~2008년의 환경부 전국자연환경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어류 85종, 양서 파충류 33종, 조류 171종, 포유류 29종,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363종, 곤충류 1,153종, 식물 1,093종으로 총 2,927종이 조사됨
 - 환경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역·지구지정 현황을 보면, 자연공원은 국립공원 4개소 503.57km², 도립공원 4개소 144.59km², 군립공원 2개소 22.09km²이 지정되어 있으며, 백두대간 보호구역으로 178.87km², 상수원 보호구역 70km²가 지정되어 있음
 - 우수한 녹색자원은 풍부하나 활용도가 낮아 생태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표 3-122〉 환경보전을 위한 지역·지구 지정현황

(단위 : 개소, km²)

구 분	대상지역	지정면적	근거법령
계	102	1,173.3	-
자연공원	10	670.24	자연공원법
상수원보호구역	14	70	수도법
수변구역	1	161.25	-
야생동식물보호구역	61	90.07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백두대간보호지역	3	178.87	
특정도서	8	1.03	
산림유전자보호림	5	1.84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보 2009

나. 대기질

- 지속적인 개발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및 대기질 악화 우려
 - 전라북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7년 기준 20,343.3 천tCO₂으로 2003~2006년까지 지속적인 증가경향을 보이다 2007년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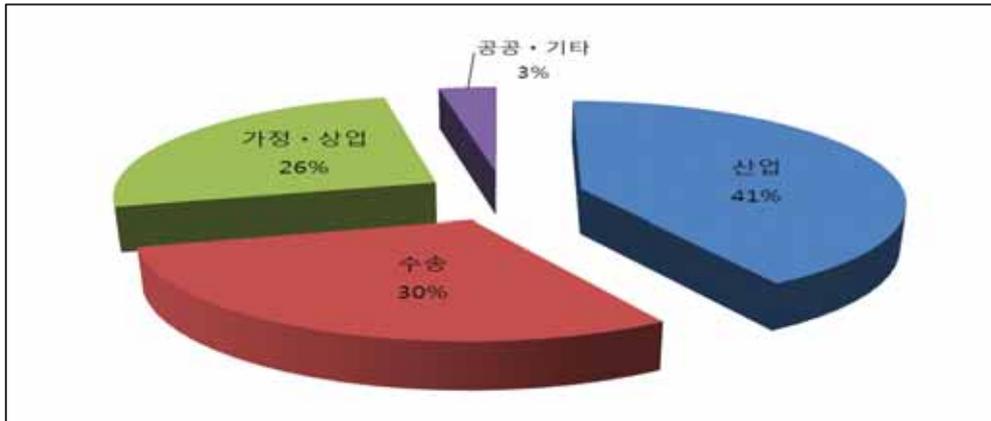
- 2007년 기준 부문별 비중을 보면 에너지 부문이 82.9%, 농축산 및 임업부문 11.3%, 산업공정 4.2%, 폐기물 부문 1.6%로 나타남
- 온실가스 배출량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에너지 부문의 경우 2007년 기준 산업부문 41%, 수송 30%, 가정상업 26%, 공공기타 3%의 비중을 나타내었음

〈표 3-123〉 전라북도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 천tCO₂/yr, %)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에너지	16,358.0 (88.2)	16,171.5 (89.4)	16,352.4 (86.8)	16,569.2 (86.8)	17,596.5 (86.2)	16,872.6 (82.9)
산업공정	602.1 (3.2)	696.8 (3.9)	759.1 (4.0)	796.0 (4.2)	1,005.2 (5.0)	856.2 (4.2)
농/축산 및 임업 부분	1,372.2 (7.4)	963.2 (5.3)	1,468.2 (7.8)	1,448.8 (7.6)	1,519.0 (7.4)	2,302.4 (11.3)
폐기물	220.9 (1.2)	250.9 (1.4)	257.8 (1.4)	269.2 (1.4)	302.2 (1.6)	312.1 (1.6)
총배출량	18,553.2 (100.0)	18,082.4 (100.0)	18,837.5 (100.0)	19,083.1 (100.0)	20,422.9 (100.0)	20,343.3 (100.0)

자료 : 전라북도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2010)



〈그림 3-39〉 전라북도 에너지 부문별 온실가스 배출량(2007년)

- 산지와 농경지가 대부분인 전라북도의 경우 대기질은 전반적으로 우수한 편임. 대기질 현황을 서울과 비교했을 때 아황산가스는 전주와 서울이 비슷하고, 오존은 군산, 전주, 익산에서 각각 서울시의 평균치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지역개발과 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계획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전망되어 대기질에 대한 악화가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요구됨

〈표 3-124〉 대기질 현황

구 분	서울		전주		군산		익산		비교 (대기환경기준)
	평균	최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평균	최고	
아황산가스 (SO ₂)	0.005	0.015	0.005	0.01	0.004	0.017	0.003	0.01	·연간평균치 0.02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5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
미세먼지 (PM10)	54	169	52	128	51	140	24	135	·연간평균치 70 μ g/m ³ ·24시간평균치 150 μ g/m ³
일산화탄소 (CO)	0.6	2.5	0.6	1.8	0.5	2.0	0.3	1.7	·8시간평균치 9ppm이하 ·1시간평균치 25ppm이하
이산화질소 (NO ₂)	0.035	0.203	0.019	0.106	0.016	0.091	0.014	0.075	·연간평균치 0.05ppm이하 ·24시간평균치 0.08ppm이하 ·1시간평균치 0.15ppm이하
오존(O ₃)	0.021	0.164	0.023	0.108	0.026	0.127	0.023	0.095	·8시간평균치 0.06ppm이하 ·1시간평균치 0.1ppm이하

자료 : 환경부, 환경통계연보 2009

- 전라북도의 대기오염 배출량은 총 103,885톤/일로 전국의 3.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해서 배출되는 양은 45,614톤/일로 전라북도 대기오염배출량의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자동차 보유대수가 1998년 415,273대에서 2009년 683,103대로 증가하였으나, 2001년 기준으로 증가율은 2001년 7.0%에서 2009년 4.1%로 감소하고 있어 도로이동오염원에 의한 영향 또한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반면, 대기오염배출시설이 2001년 1,349개소에서 2009년 1,695개소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1~3종 중대형 배출업소가 16.9%이고 83.0%가 소형 배출업소들인 것으로 조사됨

〈표 3-125〉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단위: 톤/일, %)

구분	대기 오염 물질	계 (전국대비)	에너지 산업연소	비산업 연소	제조업 연소	생산공정	도로이동 오염원	비도로이동 오염원	폐기물 처리
전국	SO ₂	418,008	96,670	60,845	104,529	82,720	690	69,663	2,891
	NO ₂	1,045,803	163,678	82,584	155,535	44,820	428,204	154,784	16,018
	CO	703,706	39,878	86,387	13,025	18,377	483,446	52,396	2,666
	VOC	859,798	5,751	2,860	2,754	120,087	91,089	13,290	46,843
	TSP	171,617	4,912	2,711	125,616	10,764	17,937	8,688	485
	합계	3,198,932	310,889	235,387	401,459	276,768	1,021,366	298,821	68,903
전북 (전국 대비)	SO ₂	9,299(2.2)	643	2,239	3,146	1,842	29	1,310	90
	NO ₂	36,591(3.5)	787	2,855	2,987	1,348	21,477	5,837	1,293
	CO	25,832(3.7)	98	2,994	404	82	19,619	2,208	119
	VOC	30,501(3.5)	12	86	87	950	3,495	596	6,596
	TSP	1,662(1.0)	14	149	66	37	994	346	35
	합계	103,885(3.2)	1,554	8,323	6,690	4,259	45,614	10,297	8,133

다. 수질

■ 하천수질 개선을 위한 공감대가 높음

- 새만금 사업 성공의 중요한 변수인 새만금호 수질개선을 위해 구조적·비구조적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만경강과 동진강의 수질개선에 대한 의지가 매우 높음
- 만경강 본류의 수질은 상류에서 하류로 유하하면서 수질상태가 악화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지류의 수질 상태는 지점 주변의 오염원 분포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표 3-126〉 주요하천의 수질현황

구분	측정소	pH	BOD (mg/l)	COD (mg/l)	T-N (mg/l)	T-P (mg/l)	등급
만경강	대아지1	7.6	0.6	2.7	1.437	0.013	lb
	경천지1	7.7	1.2	4.1	1.873	0.022	III
	고산	7.9	0.6	2.9	2.155	0.025	la
	소양천1	8.0	1.2	2.2	3.743	0.017	lb
	전주	7.7	1.5	4.2	3.887	0.063	lb
	전주천1	7.8	0.7	1.6	3.164	0.019	la
	삼천1	7.5	2.0	3.9	2.689	0.043	lb
	전주공단	7.3	26.0	22.2	8.396	0.986	VI
	삼례	7.6	3.9	8.6	4.908	0.253	II
	익산천	7.6	46.3	43.0	28.754	3.200	VI
	유천	7.3	4.6	11.6	9.467	0.847	II
김제	7.6	5.9	12.7	7.466	0.511	III	
동진강	동진강1	7.9	0.8	3.3	2.214	0.035	la
	정읍천1	7.6	1.2	2.5	2.114	0.017	lb
	동진강2	7.7	1.6	5.0	2.676	0.085	lb
	고부천1	8.1	4.3	8.7	3.676	0.131	III
	동진강3	7.5	2.8	7.1	5.120	0.172	II
섬진강	옥정호1	7.3	1.5	3.2	1.508	0.019	II
	오수천	7.8	1.6	4.5	1.895	0.049	lb
	남원	8.2	1.1	4.3	1.793	0.047	lb
	요천	8.1	1.4	4.2	2.570	0.143	lb
금강	용담댐1	7.5	0.8	3.6	1.748	0.023	la
	용포	7.9	0.9	3.5	1.626	0.015	la
	무주남대천	7.8	0.7	2.7	2.288	0.017	la

주1: 수질측정망 측정지점별 측정치

주2: 등급은 호소의 경우 COD, 하천의 경우 BOD기준으로 등급설정함

- 동진강 본류의 수질도 하류로 유하하면서 단계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본류에 유입되는 제1지류에 있어서는 정읍천, 원평천 그리고 고부천 순으로 수질이 악화된 상태를 보이고 있음
- 섬진강과 금강의 최상류 지역 수질은 BOD 0.7~1.5mg/l (1b등급 2mg/l 이하)로 비교적 양호하게 유지하고 있음
- 새만금의 성공적인 개발을 위한 상류지역 수질개선 대책은 환경부를 중심으로 관련 유관부처와 전라북도가 협조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추진중임

■ 새만금 2단계 수질개선 세부시행계획

- 총사업비 : 2조 9,502억원(상류 25,866, 호내 3,634, 해양 2)
 - 대책별: 점오염 11,725(39.7%), 비점오염 8,326(28.2%), 축산분뇨관리 2,130(7.2%), 하천유지용수 확보 3,685(12.5%), 호내 3,634(12.3%), 해양 2(0.1%)
- 추진과제 : 45개(상류 24, 호내 19, 해양 2)
- (부처별 예산) 농식품부 1,130억원(농식품부 사업비의 30.8%), 환경부 14,599억원(환경부 사업비의 78.1%), 국토부 3,589억원(국토부 사업비의 50.3%)
- (사업지역별 예산) 상류 17,913억원, 호내 1,403억원, 해양 2억원
 - ※ 만경강 13,389억원(총사업비의 45%), 동진강 5,927억원(총사업비의 20%), 해양 2억원
- (재원별) 국비 13,217억원(총 국비 21,456억원의 61.6%), 지방비 4,526억원(총 지방비 6,439억원의 70.3%), 민자 등 1,575억원 (총 민자 등 1,607억원의 98.0%)

〈표 3-127〉 새만금 제2단계 수질개선 대책 세부과제

연번	세부 과제	사업비 (억원)	사업기간	주관(협조)기관
총 계		29,502		
1	총인처리시설 설치	659	'11~' 13	전북도(환경부)
2	마을하수도 설치	3,396	'11~' 20	전북도(환경부)
3	공공하수도처리시설 설치	536	'11~' 15	전북도(환경부)
4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897	'11~' 15	전북도(환경부)
5	하수관거 확충 및 정비	6,236	'11~' 20	전북도(환경부)
6	비점오염원관리지역 지정 관리	-	'15~	환경부(전북도)
7	CSOs(합류식 하수도 초기월류수) 시설 설치	1,440	'11~' 20	전북도(환경부)
8	도시계획시 LID(저영향개발)기법 적용	-	'12~	전북도(국토부)

제 3 편 부문별 추진계획

연번	세부 과제	사업비 (억원)	사 업 기 간	주관(협조)기관
9	제외경작지 조치 및 셋강형 수로 조성	2,028	‘11~’ 20	국토부(전북도)
10	강변저류지 조성사업	617	‘15~’ 20	국토부(전북도)
11	생태하천복원 사업	3,511	‘11~’ 19	전북도(환경부/국토부)
12	농업비점오염원 관리·거버넌스 구축	730	‘11~’ 20	환경부/농식품부(전북도)
13	공공축산분뇨처리장 보강 및 증설	349	‘11~’ 14	전북도(환경부)
14	축산단지 바이오순환림 조성(용지)	106	‘12~’ 16	전북도(환경부)
15	축사시설 현대화(용지)	416	‘12~’ 15	전북도(농식품부)
16	개별처리 및 자원화 시설 지원	275	‘11~’ 20	전북도(농식품부)
17	왕궁 환경개선대책(축사매입 등)	733	‘11~’ 15	환경부/전북도
18	소류지 및 생태하천 복원(왕궁)	251	‘11~’ 15	전북도(환경부)
19	하수처리수 재이용	293	‘13~’ 15	전북도(환경부)
20	저수지 증고 사업	405	‘11~’ 15	농식품부
21	하천 퇴적토 준설 등	2,943	‘11~’ 20	국토부(전북도)
22	도시지역 용수량 저감시설 설치	-	-	전북도(환경부/국토부)
23	어우보 운영개선	44	‘14~’ 15	국토부(농식품부/전북도)
24	총인총량제 실시	-	-	환경부(전북도)
25	침전지 시설 설치	330	‘12~’ 16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26	유입수 인처리시설 설치	1,050	‘12~’ 16	환경부(국토부/농식품부)
27	생태환경용지내 인공·호안습지 조성	-	-	환경부/농식품부
28	금강호 희석수 도입	1,940	‘16~’ 20	농식품부(환경부)
29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대책	-	-	농식품부/전북도
30	적조·녹조대책	-	-	환경부(농식품부/전북도)
31	오염우심지역 준설 및 심층폭기시설 설치	-	‘15~	환경부(농식품부)
32	총인처리시설 설치	-	-	용지개발부처(환경부)
33	하폐수처리수 호내 유입 방지 대책	-	-	용지개발부처(환경부)
34	LID(저영향개발)기법 적용	-	-	용지개발부처(환경부)
35	용지별 저류지·습지 조성	-	-	용지개발부처(환경부)
36	농업용지 BMPS 적용 사업	-	-	농식품부(환경부)
37	농업용지 시비량 30% 감축	-	-	농식품부(환경부)
38	중수·빗물이용시설 설치	-	-	용지개발부처(환경부)
39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	-	용지개발부처(환경부)
40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	-	-	용지개발부처(환경부)
41	매립토 용출방지대책	-	-	용지개발부처(환경부)
42	방수제 공사시 환경관리대책 추진	-	‘11~	용지개발부처(환경부)
43	환경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연구	315	‘11~	환경부
44	해양수질 및 해양환경변화 모니터링	-	‘11~	국토부
45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R&D)	2	‘11	국토부

자료 : 전라북도 물환경관리과

라. 폐기물

■ 폐기물 감량 및 자원순환에 대한 의지가 높음

- 생태산업단지(EIP) 추진 등을 통해 사업장폐기물의 재활용 네트워크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폐기물 자원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전라북도의 가정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은 <표3-127>과 같으며 2009년 기준 총 발생량은 1644.9톤/일로 이 중 가연성은 493.4톤/일, 불연성이 156.0톤/일, 분리배출(재활용품)이 1,047톤/일, 음식물류폐기물이 603.1톤/일로 조사됨
- 가정생활폐기물의 처리현황을 살펴보면 재활용(63.7%; 전국평균 60.4%)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매립(21.8%), 소각(14.6%) 순으로 조사됨
- 완주군을 제외한 7개 군지역에서는 가정생활폐기물을 매립에 의존하고 있어 폐기물 최적화 계획(광역화, 집적화)을 통해 에너지화 또는 재활용 시설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표 3-128> 생활폐기물 발생현황 및 처리현황

구분	발생현황(톤/일)					처리현황					
	총계 (100%)	종량봉투 (39.5%)		분리 배출 (23.9)	음식물 류폐기 물 (36.7)	재활용 (63.7%)		소각 (14.6%)		매립 (21.8%)	
		가연성 (30.0)	불연성 (9.5)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양 (톤/일)	비율 (%)
소계	1,644.9	493.4	156.0	392.8	603.1	1,047.0	63.7	239.9	14.6	358.0	21.8
전주시	621.4	118.5	36.5	212.1	254.3	466.4	75.1	118.2	19.0	36.8	5.9
군산시	252.2	114.8	26.8	4.7	105.9	135.4	53.7	5.9	2.3	110.9	44.0
익산시	293.3	75.1	47.9	55.5	114.8	192.5	65.6	50.9	17.4	49.9	17.0
정읍시	78.3	34.0	6.9	8.3	29.1	37.4	47.8	32.5	41.5	8.4	10.7
남원시	95.5	32.1	11.2	29.8	22.4	52.2	54.7	0.0	0.0	43.3	45.3
김제시	60.7	18.1	5.3	17.4	19.9	37.3	61.4	18.4	30.3	5.0	8.2
완주군	44.4	15.8	1.5	10.6	16.5	27.1	61.0	14.0	31.5	3.3	7.4
진안군	27.3	16.5	4.7	4.2	1.9	8.9	32.6	0.0	0.0	18.4	67.4
무주군	22.5	10.7	4.0	4.0	3.8	9.1	40.4	0.0	0.0	13.4	59.6
장수군	18.6	12.0	1.2	2.6	2.8	5.4	29.0	0.0	0.0	13.2	71.0
임실군	20.5	6.7	1.6	11.2	1.0	12.2	59.5	0.0	0.0	8.3	40.5
순창군	21.4	9.9	0.4	8.2	2.9	11.1	51.9	0.0	0.0	10.3	48.1
고창군	47.9	9.5	5.7	17.7	15.0	32.7	68.3	0.0	0.0	15.2	31.7
부안군	40.9	19.3	2.3	6.5	12.8	19.3	47.2	0.0	0.0	21.6	52.8

자료 :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2010, 환경부

2. 여건변화와 전망

- **환경규제 강화(오염총량제 등)로 환경기초시설의 개선 및 확충 요구 증대**
 - 강화되는 환경규제에 대응하고 개발에 의한 발생부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첨단 기술개발 및 시설도입 필요성 증대
 - 물, 폐기물, 에너지 순환을 통한 환경부하 최소화 관련 기술개발 수요 및 의무화를 위한 정책지원 증대
-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 확산**
 - 국가 차원의 노력이 중심이었던 녹색성장의 개념이 지역단위로 전파됨에 따라 지역 커뮤니티 단위의 다양한 녹색성장 사업이 추진될 전망
 - 기후변화의 위기에 대처하면서 생태관광, 지역에너지자원 활용 등의 녹색자원을 신성장동력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거버넌스를 통한 환경문제 공감대 형성 및 환경문제 해결**
 -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거버넌스 구축 및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공감대 형성
 - 교육과 홍보를 통한 녹색생활 및 환경보전의식 제고로 기후변화, 수질개선, 자원순환 등의 환경이슈 해결
- **기후변화에 따른 생물다양성의 감소와 생물자원의 중요성 부각**
 - 기후변화의 위협은 생물다양성 감소, 재난재해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여 지역차원의 적극적인 적응대책 수립 필요
 - 지역의 가치 있는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생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 및 관련 산업육성 필요

3. 계획의 기본방향

- **수질 : 강화된 환경기준 달성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지원**
 - 환경기준의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하수처리고도시설, 축산분뇨자원화시설 등의 환경기초시설 확충

- 도민이 참여하는 환경 거버넌스 구축으로 수질문제 해결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보급
- 대기질 : 지역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대책 모색
 - 녹색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녹색성장 사업추진으로 효율적인 온실가스 감축
 - 생태계, 건강, 농업, 재난재해, 해양/수산업, 산림 등 분야별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를 통한 기후변화 적응 방안 모색
- 폐기물 : 폐자원을 이용한 경제적 + 환경적 수익 창출모델 확립
 - 효율적인 폐자원 재활용·에너지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및 지역간 폐기물 처리 시설 최적화 방안 모색
 -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을 위한 지역네트워크 구축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개발
- 생태환경 : 녹색자원 보전 및 활용을 위한 기반 구축
 - 생물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체계적인 생물자원 관리를 위한 기초조사 및 보전·활용 계획 수립
 - 생태환경의 보전 및 활용을 통한 도민의 삶의 질 제고 및 생물자원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모색
 - 도시지역의 산지보전, 산지전용 제한, 수변녹화, 공공기관 담장녹화 등 녹지조성을 통해 각 시·군별 도시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도시민 1인당 WHO 최저권고기준인 9㎡이상이 되도록 계획

4. 세부 추진과제

- 수질 : 전라북도 4대강(금강, 섬진강, 만경강, 동진강) 수질확보를 위한 수질개선 사업 지속 추진
 - 도시화 및 산업화로 증가된 생활하수를 처리하기 위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를 통해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 생활환경 향상 기여
 - 방류수 수질기준(질소, 인) 강화에 따른 기존 하수처리장 시설 보완으로 법적기준 준수 및 공공수역의 수질개선

- 광역상수원 및 새만금 수질개선을 위한 주민참여형 물사랑 운동을 통한 비점오염 원 저감
- **대기질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녹색성장 거버넌스 구축**
 -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도민들의 인식 향상 및 다양한 이벤트와 지역행사·캠페인 전개로 녹색생활실천 붐 조성
 -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의식개선 및 기후변화 적응 거버넌스 구축
- **폐기물 : 공공 재활용 기반시설 보급 및 생태산업단지 추진**
 - 생활폐기물, 음식물, 영농폐기물 등 폐기물 재활용을 제고를 위한 공공시설 기반 시설 건설 및 매립지 정비 사업 추진
 - 하수슬러지 해양배출 규제강화에 따른 육상처리시설 완비 및 슬러지 관리 대책 마련
 - 기업의 부산물을 원료로 사용함으로써 경제적·환경적 수익을 도모하는 생태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자원순환사회 기반 구축
- **생태환경 : 생태계 보전·복원·이용 및 생물자원 산업화를 위한 기반구축**
 - 생태축 복원과 하천정화 등을 통해 생물서식처 확보, 하천의 자정능력 및 친수기능을 제고하여 생태환경 건강성 증진
 - 생태적·자연적 가치가 큰 지역의 자연환경보전 활동을 위한 시설 설치로 생태탐방 및 자연학습 기회 제공
 - 도시 근교 자연공원의 생태환경 보전과 도민의 건강 및 휴식 공간 확대
 - 생태계 기초조사를 통한 생태관광자원 개발 및 생물자원 DB구축을 통한 생물자원 산업화 기반구축

제5절 자연환경과 역사, 생활이 조화된 전북경관 창조

1. 현황 및 문제점

■ 수려한 자연환경과 역사·문화자원 등 풍부한 경관자원 보유

- 수려한 산악경관자원과 함께 해양과 섬, 해안과 하천 등 다양한 수변경관을 보유
 - 전라북도 지역은 산지가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전체 산림면적은 4,465km²로 전라북도 총면적의 55.4%가 임야로써 동고서저의 지형흐름을 보임
 - 산경표상의 백두대간, 금남호남정맥, 금남정맥, 호남정맥이 가로지르고 있으며, 독립산지로 둘러싸인 특성을 보임
 - 백두대간보호구역은 3개 시·군의 12개 읍·면에 걸쳐 17,887ha가 지정되어 있으며, 그 중 14,398ha가 국유림임

〈표 3-129〉 백두대간보호지역

시·군	읍면동	보호지역 면적(ha)			비고
		소 계	핵심구역	완충구역	
남원시	운봉읍, 이백면, 아영면, 산동면, 산내면, 주천면	7,309	5,854	1,455	
무주군	안성면, 설천면, 무풍면	6,900	6,158	742	
장수군	장계면, 변암면, 계북면	3,678	2,317	1,361	
소 계		17,887	14,329(80%)	3,558(20%)	국유림 14,398(80%)

자료 : 산림청, 2010

- 내장산, 덕유산, 지리산, 변산반도 등의 보전상태가 우수한 자연경관이 산재
 - 자연공원은 4개의 국립공원과 4개의 도립공원, 2개의 군립공원이 4개 시·7개 군에 걸쳐 697,705천m²가 지정되어 있음

〈표 3-130〉 자연공원

구 분	자연공원			
	소 계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총 계	6	4	4	2
명 칭	-	내장산, 덕유산, 지리산, 변산반도	대둔산, 마이산, 모악산, 선운산	강천산, 장안산
행정구역	-	정읍시, 순창군, 무주군, 장수군, 부안군, 남원시	완주군, 진안군, 전주시, 김제시, 고창군	순창군, 장수군

자료 : 관광통계 www.tour.co.kr, 2011

- 야생동식물보호구역은 14개 시·군에 걸쳐 90.064km²가 지정되어 있음

〈표 3-131〉 야생동식물보호구역

구 분	소 계	지정면적(km ²)	주요 서식 야생동식물
개소	61	90.064	쇠오리, 청둥오리, 원앙, 홍머리오리, 흰뺨검둥오리, 해오라기, 멧비둘기, 꿩, 다람쥐, 부엉이, 어치, 박새, 왜가리,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 삥 등

자료 : 산림청, 2010

- 금강, 만경강, 동진강을 중심으로 서해로 유입하는 수계 보유
 - 동부 산악지형과 어우러진 산곡형 수계와 서부 평야지대를 배경으로 한 평지형 수계 경관
 - 경관이 수려한 섬진강을 비롯한 국가하천이 전북전역의 수계를 형성하고 하천경관을 이루고 있음

〈표 3-132〉 수계

구 분	소 계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	금 강	낙동강	기타수계
유역면적(km ²)	7,942.9	1,592.6	1,155.8	2,135.9	1,839.7	243.6	975.3

자료 : 전라북도, 전라북도 수자원장기종합개발계획(2011~2025), 2011

- 서해연안은 암호해안, 사구해안, 방조제해안 등 다양한 경관특성을 지니고 있음
 - 서해 낙조와 어우러진 양질의 조망성 보유
 - 고군산 군도의 각 도서별 특징 경관형성
 - 새만금방조제와 연계된 특화경관 형성

〈표 3-133〉 해안선 및 도서

(단위 : km, 개소, 명)

구 분	해안선(도서포함)	도서현황			
		계	유인도	무인도	인구
군산시	262.5	63	16	47	4,392
고창군	78.6	5	2	3	65
부안군	149.6	35	7	28	1,362

자료 : 전북통계연보, 2010

- 고대에서 조선시대를 거쳐 근대에 이르기까지 중첩적인 역사문화자원을 보유

〈표 3-134〉 전라북도 역사·문화 경관자원

구 분	역사·문화 경관자원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풍남문, 경기전, 전동성당, 향교, 객사, 한벽루, 오목대, 이목대, 전주부성
군산시	군산진, 근대역사문화경관, 옥구읍성, 임피향교, 이영춘가옥
익산시	미륵사지, 왕궁유적지, 익산쌍릉, 여산동헌, 원불교총부, 나바위성당과 마을, 송림사, 입점리교분군, 함라한옥마을, 제석사지, 용안향교, 춘포역
정읍시	김동수가옥, 황토현, 신태인근대문화경관, 태인읍성, 고부읍성, 입암산성, 정읍사, 무성서원, 피향정, 정춘현, 태인향교, 내장사
남원시	광안루, 실상사, 남원북문지와 읍성, 남원향교와 만인의총, 만복사지, 교룡산성, 춘향테마파크, 혼불문학관, 옥모정, 운봉향교
김제시	금산사, 귀신사, 금산교회, 김제성산과 김제동헌/내아, 향교 일대, 벽골제, 만경향교, 상하마을 수류천 주교회, 쌍룡사, 증산법종교본부, 학성강당, 죽산면 죽산리 하시모토 농장사무실(등록문화재), 망해사 낙서전, 성모암, 청운사, 흥복사, 남강정사, 아리랑문화관광벨트
완주군	천호성지, 불명산 화암사, 위봉산 위봉사, 위봉폭포, 위봉산성, 비비정, 종남산 송광사, 모악산 대원사
고산면	고산향교, 구이면 전북도립미술관
진안군	진안향교, 섬진강 수선루, 마이산 탐사, 그림사
무주군	금강과 나제통문, 무주향교, 한풍루, 적상산성, 안국사, 적상산사고지, 무주리조트, 태권도공원
장수군	장수향교, 논개사당과 의암공원, 논개생가 한옥마을
임실군	필봉농약전시관, 임실향교, 임실오수망루, 사선대
순창군	낙덕정, 순창향교, 순창객사와 순창군청, 귀례정, 강천사, 어은정
고창군	모양성, 고창향교, 고인돌 유적지, 무장읍성과 무장향교
부안군	개암사와 우금산성, 부안향교, 반계선생유적지, 수성당, 내소사

■ 주변지역과 조화되지 않는 도로경관

- 전라북도 대부분의 지역은 평야지대로 도로망이 발달되어 있으나 도로별 특화된 이미지 형성이 부족
- 고속화도로의 개발로 인해 기존도로의 기능이 약화
- 차량위주의 도로개발로 인해 소음과 안전 등의 문제가 있으며, 보행활동과 가로경관, 조망 등에 대한 고려 부족

〈표 3-135〉 도로경관자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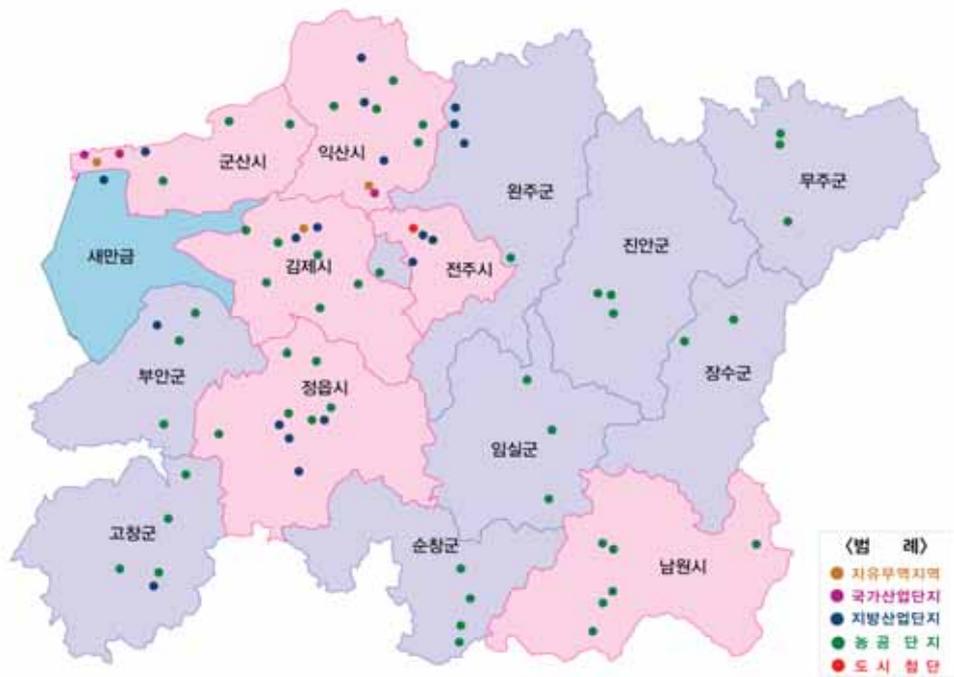
(단위 : km)

구 분	소 계	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시·군도
연 장	7,864	347	1,401	1,902	4,214

자료 : 전북통계연보, 2010

■ **공업지역, 대규모 기간시설물 등 부정적 경관요소 산재**

- 대규모 공단 등 공업지역 면적이 증가하고 있으나 기능위주의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역의 전반적인 경관 형성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국가산업단지 5개소, 지방산업단지 11개소, 농공단지 46개소가 분포
- 디자인적인 고려가 부족한 대규모 기간시설물로 인해 삭막하고 단절된 경관 형성



자료 : 전북 도정통계,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현황, 2011
 <그림 3-40> 전라북도 산업단지 분포도

■ **지역별 고유 경관자원에 대한 관리체계 부족**

- 각 시·군이 보유한 경관자원의 이미지화 결여로 지역발전과의 연계 어려움
- 전라북도를 대표하는 경관자원의 체계화 부족으로 전라북도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이미지 보유

■ **경관자원의 네트워크화 전략 결여**

-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개별적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경관 이미지 변질
- 하천, 산림 등 공유 경관자원의 관리·정비체계가 지차단체단위로 이루어지면서 연계·협력에 의한 조화로운 경관 창출 어려움

2. 여건변화와 전망

-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라 지역 내 신규 랜드마크 출현
 -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조성, 태권도공원 조성 등 대규모 개발사업의 추진으로 관련 지역을 중심으로 한 도내 경관 구도의 변화 예상
 - 새만금방조제, 군장대교 등 대규모 토목사업에 의해 조성된 신규 시설물들이 전라북도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인식되고 있음
- 삶의 질 개선을 위한 구성 요소로서 경관에 대한 인식 증대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관심과 요구의 증가에 따라 정주환경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경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증가
 - 경관의 수준은 지역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로 인식되는 경향 확산
- 신·구 개발지역간의 경관 양극화 심화
 - 구도심 쇠퇴의 지속과 함께 신규 개발지역으로 지역의 역량이 집중되면서 신·구 개발지역간의 경관 수준의 차이가 심화되고 있음
 - 경제적 논리에 따른 선택과 집중으로 인해 신·구 개발지역간 경관 양극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에 대한 관광산업화 경향 증가
 - 각 지역이 보유한 역사·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고자 하는 노력이 차단체마다 경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한옥마을 조성과 같은 전통경관 조성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정책 증가 예상

3. 계획의 기본방향

-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경관권역 설정과 권역별 특성화된 경관 관리
 -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경관권역 설정 및 특성화된 권역별 경관계획의 목표 설정
 - 구체적 장소를 기반으로 한 가이드라인을 수립하여 시·군 경관관리의 기본적인 방향 제시

■ 도와 시·군의 상호 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경관관리

- 합리적이고 실효성 있는 도 경관계획의 수립을 통해 시·군 경관계획의 수립 원칙 및 방향 제시
- 도 차원의 행정 및 지원체계 마련을 통해 시·군 경관의 바람직한 경관형성 유도

■ 선적 경관에 대한 통합적인 경관 관리체계 수립

- 전라북도 경관의 골격을 형성하는 주요 선적 경관자원에 대한 경관축 설정
- 축의 지역적 특성을 기반으로 한 세부 전략 및 구체적인 경관관리 방향 설정

4. 세부 추진과제

■ 상호협력적 관계 형성을 통한 경관관리 체계 구축

- 기 수립된 전라북도 경관계획의 시·군 경관계획 수립시 지침적 역할 수행을 통한 실천성 강화
- 효율적인 경관관리를 위해 전문인력확충 및 전라북도와 시·군의 관련부서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 지역 및 권역별 특성화할 수 있는 경관구조 구축

- 지역 및 권역의 특성을 고려한 경관계획 수립 및 경관조례, 경관지침 작성
- 경관관리구역 및 경관·미관지구 지정을 통한 경관의 보호 및 관리
 - 개발압력이 증가하거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한 경관관리구역의 지정 및 지침 제시
 - 산지·구릉지의 지형 및 녹지와 하천·호소의 생태습지 등 자연환경이 우수한 지역과 역사문화자원의 보호, 양질의 조망권 확보를 위한 시각통로, 조망대상 등의 종합적인 경관관리를 위한 경관관리구역 지정
 - 도로나 도로의 연결부지, 옥외광고물 등을 포함한 일체적 경관관리구역 지정
- 정체성 있는 특화경관 형성
 - 아름다운 순례길 정비 등을 통한 종교문화경관네트워크 형성
 - 전주전통문화도시, 군산근대역사지구 등 시가지 역사문화경관 정비
 - 지역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성
- 신·구개발지의 거점경관 형성
 - 새만금 개발, 혁신도시 조성, 태권도공원 조성 등 신규 개발지의 거점 경관 관리

- 도심부에 상징거리 조성 및 야간경관사업을 통한 활력 있는 거점 경관 형성
- 신개발지의 및 기성시가지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공공건축물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경관 개선
- 농어촌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경관 개선
 -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농어촌빈집정비사업 등을 통해 빈집과 노후화된 건축물, 진입도로 등 정주환경의 정비를 통한 농어촌의 경관 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선적경관의 경관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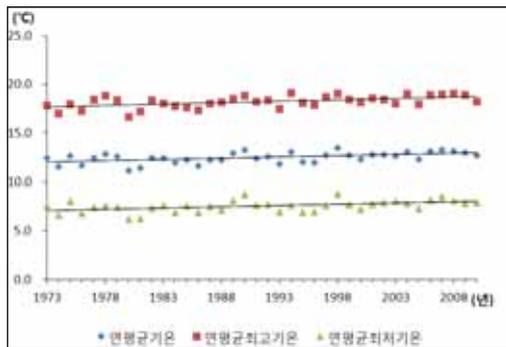
- 자연생태경관체계 구축
 - 금강, 만경강, 동진강, 섬진강을 중심으로 한 수변경관 정비
 - 백두대간 및 금남호남정맥의 복원을 통한 자연생태경관 형성
 - 산지 및 하천주변의 경관관리를 통한 조망권 확보
- 경관도로체계 구축
 - 전라북도의 진출입도로와 순환도로축의 통합경관 형성
 - 주요 진출입관문과 교차부의 경관형성 및 인지성 강화를 위한 랜드마크 요소의 도입
 - 은행로, 근대역사문화 탐방로 등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상징거리 조성
 - 새만금 연결도로의 특화경관 형성

제6절 선제적·입체적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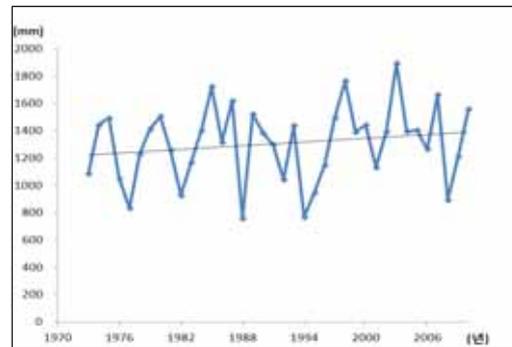
1. 현황 및 문제점

■ 기후온난화 현상 진행

- 기상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최근 30년(1981~2010)간 전라북도의 기온현황을 살펴보면 연평균기온과 연평균 최고·최저기온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전라북도의 30년간 연평균기온은 12.6°C이며 연평균 최고·최저기온은 각 18.4°C, 7.7°C로 나타남
 - 전라북도의 최근 30년간 연평균 기온현황을 10년별로 나누어 비교하면 1980년대(1980~1990)의 평균기온 0.7°C, 1990년대(1981~1990) 평균기온 0.5°C, 2000년대(2001~2010) 평균기온 0.3°C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 전라북도의 연강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 1973년~2010년간 매년 3.8mm씩 증가
 - 최근 10년(2001~2010년) 전라북도 연강수량은 과거 평균값(1981~2000년)인 1271.2mm에서 1360.5mm로 7.0%p 증가



<연평균기온>



<연강수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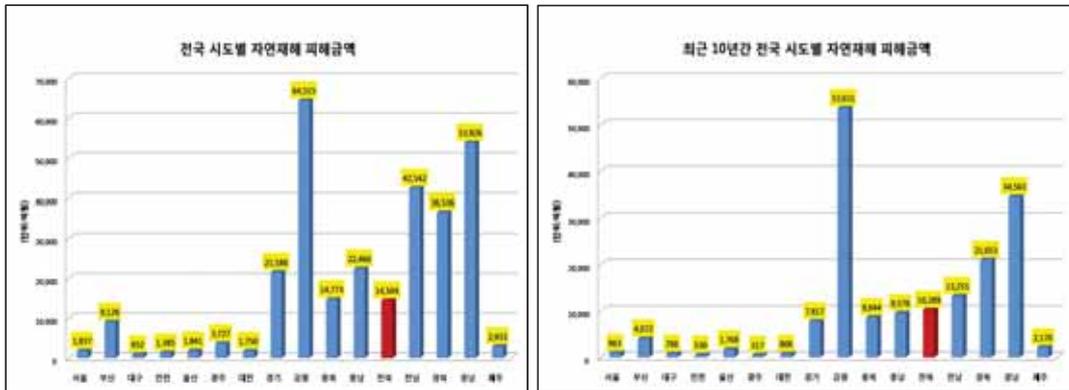
자료: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2012

<그림 3-41> 전라북도의 기온 및 강수량 변화

■ 자연재해의 발생 빈도 증가 및 대형화

- 전라북도는 25년간(1986~2010) 자연재해로 인한 총 피해액이 약 14,504억으로 전국 총 피해액 294,379억원 중 약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 단위 광역 지자체 중에서 제주를 제외하고 피해액이 가장 낮음
- 그러나 2001년 이후 최근 10년간 총 피해액은 10,289억으로 10년간 전국 총 피해액 170,441억 원의 약 6.0%를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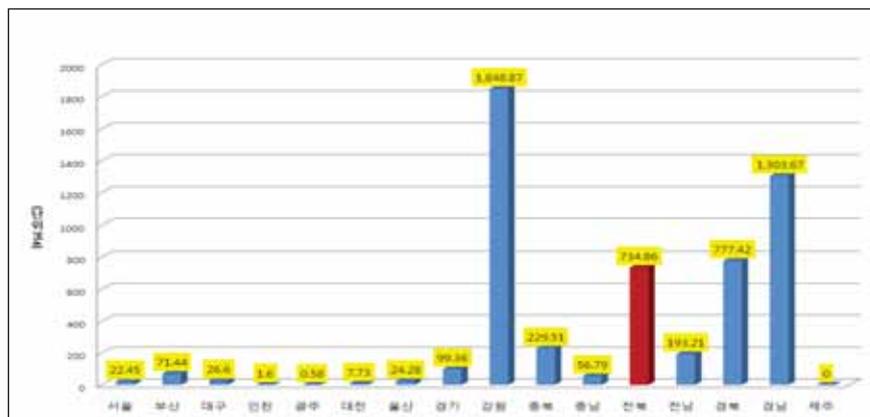
- 도 단위 광역지자체 중에서 강원, 경남, 경북, 전남 다음으로 다섯 번째로 높게 집계됨에 따라 최근 들어 전북지역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반영



〈그림 3-42〉 전국 시도별 자연재해 피해현황

■ 기습적인 침수 및 산사태 피해 급증

- 지난 25년간(1986~2010)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피해 면적은 총 161,400ha이며, 최근 5년간(2006~2010) 침수 피해면적은 433ha로 전체 피해면적의 0.3%를 차지
- 최근 10년간 전라북도의 산사태 총 피해규모는 734.86ha로 강원도(1,848.87ha), 경남(1,303.67ha), 경북(777.42ha) 다음으로 많은 피해를 입음
 - 연도별로는 2005년에 383.05ha로 피해규모가 가장 크고, 2002년 171.95ha, 2010년 139.52ha 순으로 나타남



〈그림 3-43〉 광역지자체별 산사태 피해현황

■ 지역 및 도시계획적 방재정책 소홀

- 기후변화 영향으로 인구와 기반시설이 집중된 도시에서 재해가 점차 대형화·다양화되는 추세에 있으나 국토 및 도시계획분야에서 방재계획의 위상과 역할 미비
- 인구변화, 시설의 입지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방재여건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는 등 계획의 논리성과 연계성이 결여되었으며 독립된 영역으로서 방재도시계획에 대한 인식 부족

■ 방범용 CCTV 설치로 인한 범죄건수 전국 크게 감소, 전북은 미미함

- 2010년 현재 전국 방범 CCTV 설치 대수는 2008년(8,761대) 대비 300% 이상 증가한 3만 5,107대이며, 같은 기간 동안 전국 범죄발생건수는 206만 3,737건에서 178만 4,953건으로 약 14%p 감소

〈표 3-136〉 CCTV설치 및 범죄발생현황

(단위 : 대, 건, %)

구분		2008년(A)	2009년	2010년(B)	증감비율 (B-A/A)
전국	CCTV설치대수	8,761	20,822	35,107	301
	범죄발생건수	2,063,737	2,020,209	1,784,953	-14
전북	CCTV설치대수	277	527	1078	289
	범죄발생건수	60895	62911	61757	1

자료 : 경찰청

- 전북의 경우 방범 CCTV 설치 대수는 2008년 277대에서 2010년 1,078대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CCTV 설치에 따라 범죄건수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 범죄발생 건수는 2010년 61,757건으로 CCTV 설치대수가 작은 2008년의 60,895건과 비교해서는 약 1.0%p 증가하였으나, CCTV 설치대수가 크게 증가한 2009년에 비해서는 0.02%p 감소하였음

■ 전국 타 지역에 비해 도로교통사고 건수 및 인명피해 지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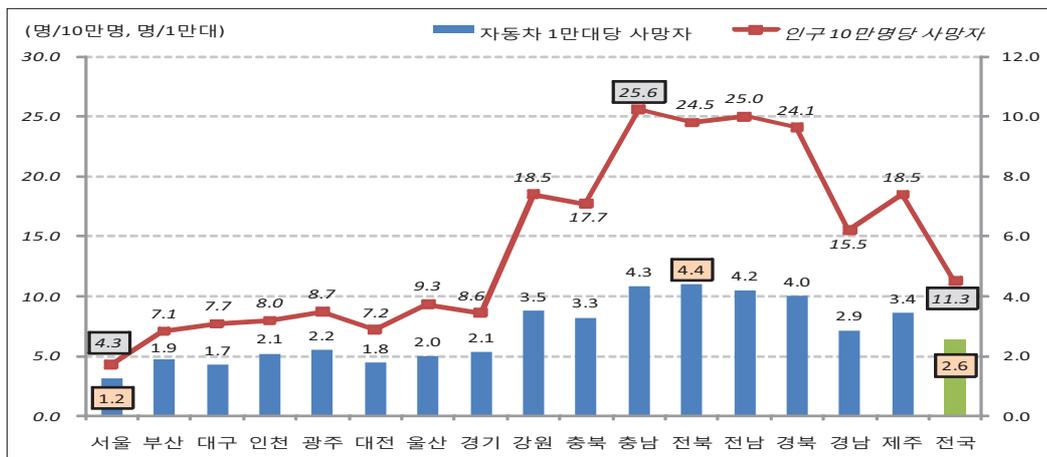
- 최근 3년간 인적재난 총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의 경우에는 2010년을 기준으로 총 재난발생건수는 1.2%p 증가, 전북의 경우에는는 12.0%p 감소함
- 인적재난 유형 중에서 중요유형인 화재, 산불, 도로교통사고 등을 살펴보면, 화재는 전국적으로 15.7%p 감소한데 비해 전북의 경우에는 13.4%p가 감소하여 전국 평균에 비해 화재발생건수가 감소

〈표 3-137〉 최근 3년간 인적재난 발생현황

구분	재난유형(건)	2008년(A)	2009년	2010년(B)	증감비율 (B-A/A)
전국	재난발생총계	277,303	292,286	280,607	1.2
	화재발생	49,631	47,318	41,863	-15.7
	산불발생	389	570	282	-27.5
	도로교통사고	215,822	231,990	226,878	5.1
전북	재난발생총계	14,530	13,093	12,784	-12.0
	화재발생	1,916	1,650	1,660	-13.4
	산불발생	36	52	7	-80.6
	도로교통사고	9,782	10,721	10,523	7.6

자료 : 재난연감(소방방재청)

- 산불의 경우에는 전국에서 27.5%p 감소하였으나 전북의 경우에는 80.6%p 감소하여 전국에 비해 크게 감소, 그러나 2008년에 비해 2009년은 크게 증가하였고 2010년은 다시 크게 감소하는 등 증감이 불규칙한 경향을 보임
- 도로교통사고 발생건수는 전국의 경우에 5.1%p 증가한 것에 비해 전북은 7.6%p가 증가하여 전국 증가율을 크게 초과
- 특히, 2010년도 전국 교통사고 사망자는 5,505명으로 전년도 보다 5.7%p 감소한 가운데, 광역지자체 중 제주, 인천, 전북, 광주지역만 증가하였고 전북은 4.0%p 증가
- 광역지자체의 경우, 2010년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수는 전북이 4.4명으로 가장 많았고,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수는 충남 25.6명, 전남 25.0명에 이어 전북 24.5명으로 3위



자료 : 도로교통공단, 「2010 지역별 교통사고통계」

〈그림 3-44〉 광역지자체별 인구 10만명당,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 현황

2. 여건변화와 전망

■ 기후온난화에 따른 재해발생 증가 전망

- 국립환경과학원의 기후 예측모델에 따르면 2020년경에 전라북도 전 지역에서 기온이 현재보다 상승하는 것으로 전망⁷⁾
- 강수량은 건기(봄, 겨울)에는 증가하고 우기(여름, 가을)에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강수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여 집중호우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⁸⁾
 - 연강수량은 서해안지역 및 북부지역에서 증가, 남부 및 내륙지역 감소
 - 연강수일수는 전반적으로 감소, 특히 내륙에서 크게 감소
 - ⇒ 강수일수 감소는 1년 중 강수가 단기간에 집중될 가능성이 커지는 것으로 극치강수량 증가로 작용
 - 일평균강수량(연강수량/연강수일수) 및 연최대일강수량(일강수량 중 최대값)이 전반적으로 증가
 - ⇒ 연최대일강수량은 수공구조물설계에서 빈도해석을 위한 기본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기후인자임

■ 이상기후 및 사회적 인식변화에 따른 방재 패러다임 전환

-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를 통한 사전예방 및 대응 정책 추진
- 재난발생에 따른 상황 대응에서 인명·재산피해 원천적 저감대책 강화
- 정부 주도의 재난관리에서 국민이 함께하는 참여형 재해예방 및 대응체계 실현
- 자료집계 및 단순 상황관리에서 통합방재 및 능동적 현장대응체계 확립

■ 재해예방 중심의 방재도시계획의 중요성 부각

- 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평가를 시행하고 토지이용, 기반시설계획 등 각 부문별 계획에 반영하도록 관련제도 개정 예정
- 산지전용허가 등 32개 개발계획에 대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에 추가 예정
- 지역별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의 수립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하고 관련 도시계획에 반영을 의무화함
- 재해취약지역 내 모든 건축물의 구조안전 확인을 위한 허가제 전환
 - 재해취약지역 : 방재지구(국토계획법), 급경사재해예방붕괴위험지역(급경사지재해예방에관한 법률), 기타 조례로 정하는 지역

7) 전라북도, 전라북도 기후변화 적응 세부시행계획 2012

8) 전라북도, 기후변화 대비 전라북도 홍수대책 선진화 방안 2010

■ 새로운 양상의 재난발생 가능성 증가 : 지진, 방사능, 전염병

- 전 세계적으로 지진발생 및 규모가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피해는 국가 전 반을 마비시키는 양상으로 변하고 있으며 동 일본 대지진은 지진과 쓰나미 피해 뿐만 아니라 지진으로 야기된 방사능 누출이라는 최악의 재앙이 현실로 나타남
- 따라서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으로부터 안전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따라 향후 건물이나 기반시설 등 구조물의 내진성능 향상 및 대책을 마련하고 방사능 누출이나 신종전염병과 같은 잠재적 재난에 대해서도 점진적으로 대비해야할 필요가 있음
 - 전북지역(해역 포함)에서 지난 1978년 지진관측 이래 2011년까지 총 49회(규모 2.0이상) 발생했으며 2000년 이후 발생한 지진만 29건으로 절반이상 차지 (기상청)

■ 신속·정확한 재해재난 예·경보체계 필요성 증대

- 태풍 및 집중호우 등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기상현상에 대한 예보능력을 강화하여 미연에 재해 발생을 예방하고 철저하게 대비하는 선제적인 방재체계구축에 대한 필요성 증가
- 홍수나 산사태 등을 유발하는 집중호우의 강수량 및 연속강수자료를 자동으로 수집·분석하여 재해의 발생시점이나 공간적 범위를 정확하게 예측하고 신속하게 예·경보하는 새로운 유형의 첨단방재시스템 구축이 등장하고 사전에 재해피해를 최대한 저감하고자 하는 통합적 재난대응체계구축 필요성 증대

■ 첨단 IT 기술 기반 재난관리 체계 및 사회안전망 출현

- 방법,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재난재해 감시, 시설관리와 학교주변·학교 내에 설치된 어린이보호 등 다양한 목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CCTV 관제 기능을 하나로 통합연계하여 각종 범죄예방과 치안유지, 생활안전 업무 등에 필요한 모든 상황조치를 합동으로 대응하는 CCTV 통합관제센터 등과 같은 첨단 IT 기술기반 사회안전망 출현
- CCTV통합관제센터는 다목적으로 설치된 CCTV가 어린이, 부녀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 예방과 사건해결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는 등 국민들의 안전지킴이로서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구축 필요성 증가
- 도시계획이나 건축물 설계에 범죄에 대응한 공간설계 기법으로 최근 범죄예방환경설계(CPTED :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에

대한 도입이 중요하게 부상됨

〈 CCTV 통합관제센터 주요기능〉

- ① 방법, 교통·주차단속,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산불감시, 재난재해 감시, 어린이 안전, 시설관리 등을 위해 설치된 모든 CCTV 통합관제
- ② 경찰, 주차단속, 방법 등 CCTV 관제요원 합동근무
- ③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 합동대처
- ④ CCTV 관련 장비의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통합

- 언제, 어디서나 예고 없이 찾아오는 재난은 기존의 유선 PC 기반으로는 사전 감시와 대응에 한계가 있어 스마트폰, 소셜네트워킹 등 최신 모바일 환경에 맞게 ‘언제(내 손안의 PC), 어디서나(이동성), 즉시(빠른 전파력)’ 라는 특성을 가진 스마트 재난관리체계 등장

3. 계획의 기본 방향

■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재해에 강한 도시공간구조 형성

- 도시 내 방재시설물 성능향상뿐만이 아닌 도시의 공간구조를 재해에 강한 형태로 개선하기 위한 방재지향형 도시계획 추진
- 도시의 지역 및 지형적 특성을 반영한 재해취약성 평가체계 도입 및 방재지구 지정 확대
- 재해취약지역 내에서 도시계획시설의 설계기준 및 개발행위 기준 강화 방안 마련
- 도시 내 지하공간, 옹벽, 절도사면 등 재해취약시설의 안전관리 강화
- 건축물, 기반시설 등에 대한 침수방지 및 내진설계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추진

■ 신개념·신기술기반 방재 및 안전대책 적극 도입

- 신시가지 또는 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불투수층 증가로 발생하는 우수유출량을 저감시키는 저영향개발(LID)기법 적극 도입
- 도시개발 계획단계부터 자연재해, 도로교통안전, 범죄예방 등 최적의 안전과 방재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u-City 계획의 수립 및 구축 적극 추진
- 특히, 범죄예방 및 각종 공중질서 단속에 효과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를 설치하여 안전지킴이로 적극 활용

■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지역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수해, 풍해 등 자연재해에 대한 지역차원의 종합적인 방재계획인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을 통해 풍수해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제시하고 위험지역을 원천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관련 정비사업 적극추진

■ 기후변화 대비 도시 내 배수 및 저류시설 확충 방안 강구

- 침수우려가 큰 재해위험지구의 통수능력강화를 위한 하수관거 정비 및 확충
- 침투유출시 하수관거의 용량부족으로 내수침수가 발생하는 지역에 대해서 우수저류시설 설치 확대
-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빗물저류시설건설을 위한 추진조직 강화 및 예산확보
- 중장기적으로 도시공원형태의 저류시설을 확충하여 빗물저장면적확대 및 빗물유출 조절기능 강화
- 민간부문의 빗물저류조 및 빗물이용시설설치 유도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 도시하천의 홍수예방을 위한 홍수방어 대책 적극 추진

- 도시하천에 대한 종합적인 유역단위 치수계획 수립 추진
 - 유역단위 홍수위험분석을 통해 유역 내 댐, 제방, 저류지, 하수도 등 홍수방어시설별 홍수분담 목표설정을 통한 치수계획 수립
- 도시하천 홍수 예방을 위한 홍수방어시설 성능보강 및 추가 건설
- 방재선진국에서 도입하고 있는 적극적인 홍수방어대책 검토
 - 슈퍼태풍이나 국지적인 돌발성 호우로 인한 초대형 홍수에 대비하기 위해 슈퍼제방이나 도심 지하하천 등을 적극 검토
- 내수침수에 취약한 지역을 선정하여 집중호우에 의한 내수침수위험도 시범제작

■ 자연재해 예측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첨단 예·경보시스템 확대 구축

- 태풍이나 국지성 호우 등 기상관측자료를 스마트폰이나 모바일 기기에 전송하는 실시간 기상정보 공유 및 전달체계 구축
- 홍수나 산사태에 대해 기상정보를 바탕으로 발생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신속하게 위험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첨단 예·경보시스템 구축

■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재난대비 방재역량 강화

- 재해재난분야의 지역정책 개발을 위한 관학연간의 연구협력기반 강화
- 재난대비 인력 및 물자의 원활한 공급체계 강화
- 재난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반 활동 강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 종합대책 수립
- 지역의 재난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평가, 개선 등 선순환적 내부환류시스템 구축
- 재해재난관련 도입시스템에 대한 지속적 유지관리 및 고도화 방안 마련
- 화재 진압 및 인명구조 강화를 위한 소방인력 증원 및 첨단 소방 장비 도입
- 119 응급구조 체계의 최적화 및 고도화

4. 세부 추진과제

■ 저영향개발 방식의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 강우유출 발생지로부터 침투, 저류를 통해 도시화에 따른 수문현상과 수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여 개발이전 상태에 가깝게 개발을 진행하는 저영향개발 방식을 향후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에 적극 도입
- 신도시 및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저영향개발방식을 채택한 개발사업 시범추진
- 도시계획 수립시 저영향개발 방식을 고려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의 기본방향설정 및 관련 조례를 제정

■ 선제적 첨단 재해 예·경보체계 구축

- 전라북도 주요 도심하천의 홍수 예·경보시스템 구축 및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 유역의 수문기상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 유역확률강우량 및 강우유출분석을 기반으로 실시간 하천수위예측
 - 내수 및 외수침수에 따른 침수시물레이션을 통한 침수범위 예측
 - 유역별 홍수재해취약성 분석 및 홍수범람 시나리오 작성
 - 가상 홍수범람 시나리오별 홍수방재성능 및 홍수범람 분석
 - 전주천, 삼천, 정읍천 등 시지역 및 군청소재지가 위치한 주민밀집지역에 대해 도입추진하고 시범적으로 전주천을 우선 도입

- 폭설 대비 지방도 적설감시체계 구축
 - 최근 폭설 자료를 바탕으로 폭설에 취약한 지방도 구간조사·선정
- **취약 도로 구간대상 적설 감시용 CCTV설치**
 - 시·군 CCTV 통합관계 센터와 연계한 실시간 감시체계 구축
 - 이상 폭설 대비 제설장비 확충 및 첨단 제설시스템 구축
 - 주요 지방도 취약구간 원격 자동 염수살포기 도입
 - 다목적 첨단 제설차량 도입
 - 재해지도 공간정보기반 및 재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시·군에서 제작한 재해지도(침수흔적도, 침수예상도, 재해정보지도)에 대한 GIS DB화 및 이를 기반으로 전라북도 재해정보종합관리시스템 구축
 - 지역별 자연재해 피해이력정보를 바탕으로 각종 개발에 따른 개발대상지역의 재해안전성에 따른 인허가 여부 판단
 - 자연재해에 대한 피해정보를 종합한 지역별 자연재해 취약성 평가의 기반자료로 활용
- **극한기상 대비 지역별 맞춤형 재해예방사업 추진**
 -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 침수·붕괴 위험 자연재해위험지구 정비
 -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 국지성 집중호우에 의한 침수예방 및 재해취약요인 해소, 지하저류·지상공공시설 설치를 통한 토지이용극대화
 - 급경사지정비사업
 - 대형태풍과 돌발성 집중호우 증가에 대비한 급경사지 붕괴피해예방사업 추진
 -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 재난사각지대 서민밀집 지역주변 위험요소정비
 -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 전북도 및 14개 시·군의 풍수해 저감을 위한 시·군단위 종합계획 수립
 - 다목적 저류지 조성사업
 -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홍수에 대비하고 하천의 유지용수를 확보하여 수질을 유지하기 위한 저류시설 확충
 - 완주군 신촌, 신흥, 상관 저수지 증고 사업 추진

■ 스마트 재난안전관리 체계 구축

- 범죄 안전도시 조성 및 재해재난 감시를 위한 시·군별 CCTV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 전라북도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범죄에 안전한 도시조성 및 각종 재해재난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CCTV 통합관제시스템 조기 도입
- 전라북도 시·군 및 119시스템과 연계·통합한 전라북도 CCTV 통합 119관제 시스템 구축
 - 전라북도 CCTV 통합관제시스템을 119 상황실과 연결하여 범죄 및 재해재난에 대한 실시간 상황관리 및 종합적인 대응체계 구축

■ 화재, 안전사고 등 각종 인적재난에 신속 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 추진

- 재난상황 신속 대응을 위한 첨단 119 구급체계 구축 지원 사업
- 119 구조장비 확충 및 소방시설 유지관리
- 도민의 안전의식 고취 및 소방관련 인식전환을 위한 안전체험센터 신축사업
- 산간, 도서 등 소방취약지역 해소와 소방력 강화를 위한 소방관서 신설 및 현대화 사업
- 산불방지 및 신속한 진화를 위한 인력과 첨단 진화장비 확충사업 추진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계획의 집행과 관리

4

제1장 행·재정계획

제2장 재정투자계획



제1장 행 · 재정계획

1. 행정계획

1) 행정여건 및 전망

■ 도정계획에 있어 삶의 질 수요 증가에 따른 도정 정책패러다임 변화

- 삶의 질을 중심으로 한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하여 새로운 정책개발 및 조직 운영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삶의 질 정책은 지역경제의 양적 확대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균형된 생활 유지 및 주민 복리 증진이 필요한 시점에 중요한 관심 대상이 되고 있음
- 특히, 의사소통의 다변화가 이루어지고 행정 의사결정과정에서 참여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행정의 정책 결정 구조 및 과정에서 있어 도민 참여가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속의 자율적인 조정과 통합으로 인한 합리적인 정책대안의 창출이 필요해지고 있음
- 삶의 질 정책 추진을 위해 제도적인 근거 마련과 더불어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며 현장 중심 행정의 착근을 통한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과정에서 전라북도의 경우 삶의 질 관련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직 운영 및 정책 사업 추진은 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

〈표 4-1〉 전라북도 행정조직 구성

(단위 : 개소)

구 분	행정조직
도본청	1실 7국 2본부 2담당관 40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기술원 1, 교육원1, 보건환경연구원1 등 17개 기관
도의회	1실 2담당관
시·군행정조직	14개 시·군구청

자료: 전라북도 홈페이지 행정조직(2011) 참조

〈표 4-2〉 직종별 지방행정 공무원수

(단위 : 명, %)

구 분	계	직종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소방직
전 북 계	16,002 (100.0)	15 (0.1)	359 (2.2)	11,437 (71.5)	2,220 (13.9)	1,971 (12.3)
도 본 청	1,103 (100.0)	1 (0.1)	21 (1.9)	861 (78.1)	142 (12.9)	78 (7.1)
도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720 (100.0)	0 0.0	14 (1.9)	523 (72.6)	183 (25.4)	0 0.0
시·군청, 동읍면	14,179 (100.0)	14 (0.1)	324 (2.3)	10,053 (70.9)	1,895 (13.4)	1,893 (13.4)

주 : 고위공무원 제외, 일반직 공무원은 연구관, 연구사, 지도관, 지도사 포함
 자료: 전라북도, 2011 통계로 본 전북의 모습.

- 전북의 공무원수는 16,002명이며, 이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116.80명임. 시·군 행정인력은 현재 총 12,286명으로 공무원 1인당 인구수는 152명임. 전주시는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350명으로 가장 높고, 진안·장수·임실 지역은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각각 50, 51, 52명으로 낮게 나타남

〈표 4-3〉 시·도별 공무원수 현황 비교

(단위: 명)

구 분	인구	면적(km)	공무원수	공무원1인당 인구수	공무원당 1인당 면적(km/명)
전 국	50,515,666	100,033	280,967	179.79	0.36
서 울	10,312,545	605	46,528	221.64	0.01
부 산	3,567,910	767	16,325	218.55	0.05
대 구	2,511,676	884	10,999	228.35	0.08
인 천	2,758,296	1,029	13,054	211.30	0.08
광 주	1,454,636	501	6,669	218.12	0.08
대 전	1,503,664	540	6,838	219.90	0.08
울 산	1,126,298	1,059	5,265	213.92	0.20
도 계	23,235,025	5,386	105,678	219.87	0.05
경 기	11,786,622	10,167	43,435	271.36	0.23
강 원	1,529,818	16,693	16,303	93.84	1.04
충 북	1,549,528	7,433	12,119	127.86	0.61
충 남	2,075,514	8,630	16,728	124.07	0.52
전 북	1,868,963	8,067	16,002	116.80	0.50
전 남	1,918,485	12,247	19,911	96.35	0.62
경 북	2,689,920	19,028	23,783	113.10	0.80
경 남	3,290,536	10,533	22,229	148.03	0.47
제 주	571,255	1,849	4,979	114.73	0.37
평균	3,157,229.13	6,252.07	17,560.44	179.79	0.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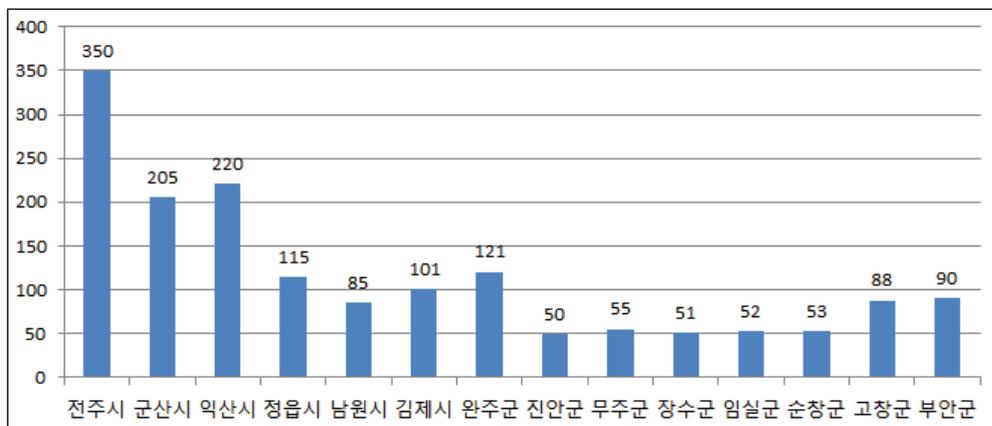
주) * : 시·군·구 = 계-(도+도의회 및 사업소)
 자료: 전국 16개 광역 시·도, 통계자료, 2011.

〈표 4-4〉 시·군별 행정인력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계					공무원1인당 인구수
		정무직	별정직	일반직	기능직	
전라북도	12,286	14	324	10,053	1,895	152
전주시	1,835	1	20	1,466	348	350
군산시	1,330	1	41	1,090	198	205
익산시	1,395	1	36	1,133	225	220
정읍시	1,064	1	31	882	150	115
남원시	1,031	1	25	842	163	85
김제시	935	1	33	779	122	101
완주군	706	1	22	579	104	121
진안군	553	1	16	449	87	50
무주군	462	1	11	376	74	55
장수군	460	1	12	379	68	51
임실군	586	1	21	490	74	52
순창군	570	1	21	466	82	53
고창군	691	1	21	573	96	88
부안군	668	1	14	549	104	90

주 : 읍·면·동공무원은 포함(소방공무원 제외).
 자료: 전라북도, 2011 통계로 본 전복의 모습



〈그림 4-1〉 시·군별 공무원 1인당 인구수

- 도내 정책 및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행정관서는 읍면동 241개소, 직속기관 35개소, 사업소 59개소가 있으며, 경찰·소방관서의 경우 경찰청 및 경찰서는 16개소, 소방본부 및 소방서는 11개소, 119안전센터는 49개소가 있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관서는 주로 군부지역보다는 시부지역에 상대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음

〈표 4-5〉 지방행정관서 분포현황

(단위 : 개소, %)

구분	계	지방행정관서						경찰·소방관서				법원·검찰관서				기타 중앙 관련 기관	신문, 방송, 전화 국	협동 조합
		도청	시· 군 구청	읍면 동	직속 기관	출장 소	사업 소	경찰 청·경 찰서	지구 대,파 출소	소방 본부, 소방서	119 안전 센터	법원 (지원)	등기 소	검찰 (지청)	교도 소			
전라북도	1,881	1	16	241	35	1	59	16	163	11	49	13	10	4	3	387	49	378
전주시	396	1	4	33	9	-	11	3	22	3	8	1	1	1	2	87	27	67
군산시	188	-	1	27	2	-	3	1	21	1	8	1	-	1	1	37	1	46
익산시	219	-	1	29	3	1	10	1	19	1	7	1	1	-	-	47	4	43
정읍시	152	-	1	23	2	-	3	1	13	1	4	1	-	1	-	34	1	32
남원시	126	-	1	23	3	-	5	1	10	1	3	1	-	1	-	32	1	10
김제시	138	-	1	19	2	-	2	1	12	1	3	1	1	-	-	30	1	33
완주군	95	-	-	13	-	-	8	1	13	-	3	-	-	-	-	17	-	18
진안군	80	-	1	11	2	-	1	1	11	-	2	1	1	-	-	16	1	15
무주군	63	-	1	6	2	-	3	1	7	-	1	1	1	-	-	11	1	16
장수군	60	-	1	7	2	-	1	1	4	-	2	1	1	-	-	8	1	18
임실군	81	-	1	12	2	-	2	1	5	1	1	1	1	-	-	16	1	21
순창군	77	-	1	11	2	-	4	1	8	-	1	1	1	-	-	13	1	19
고창군	104	-	1	14	2	-	4	1	6	1	4	1	1	-	-	17	4	28
부안군	102	-	1	13	2	-	2	1	12	1	2	1	1	-	-	22	5	12

자료: 전라북도, 전북통계연보, 2010.

■ 對중국 교류 확대 및 한류 문화권 중심으로 부상하기 위한 거버넌스 체계 정비 필요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산업의 성장기반 강화 및 對중국 교류 전초기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선택과 집중이 가능한 사업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산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창출 등의 직·간접적인 영향 관계를 설정하고 있는 만큼 신산업 발굴 시스템 구축과 예비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상시적으로 구축·운영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고 있는 전라북도의 한류 문화 중심지로의 역할과 위상 확보는 대형 국가예산 사업 발굴 및 예산 연계 등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사업 완성도를 위해 전문가 및 현장가 등을 중심으로 한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지향하고 있는 환황해경제권의 선도 지역으로 부상하기 위해서는 對중국 교류 확대 및 중국과의 전초기지로서의 위상 확보가 매우 중요할 것임. 또한 새만금의 완성도를 높이고 대규모 자본이 유치되기 위해서는 중국

과의 지속적인 관계 설정 및 전략적인 선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업 발굴 및 운영이 중요함. 따라서 이를 지원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행정지원체계의 운영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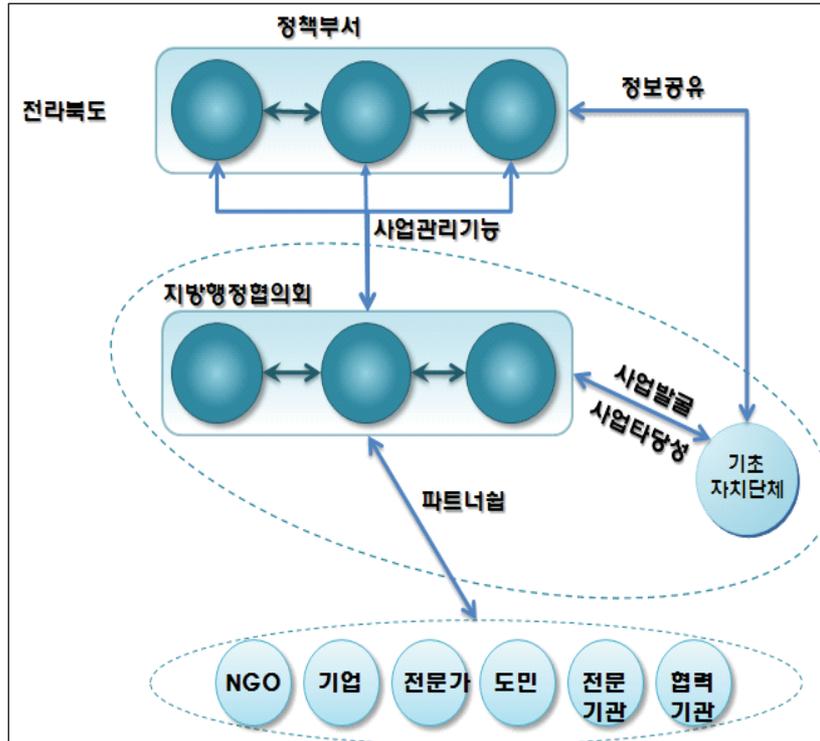
■ 지방재정의 건전성 요구 증대에 따른 행정자원의 효율적 통합 및 활용

- 다양한 정책 사업 및 복지수요 등의 증가에 비해 열악한 지방재정 구조로 인하여 실질적 대응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또한 정부의 감세정책 및 새로운 복지정책 개발·적용 등으로 인하여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에 대한 효율적 운영 및 건전성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이나 자원 등 방만하게 운영되어 재정낭비를 초래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사업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통합적 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해 지고 있음. 또한 행정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과감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한 건전 재정을 유지해야 함

2) 계획의 기본방향 및 세부추진과제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완성도 제고를 위한 지역 협력체제 구축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방향 및 전략, 세부추진과제 등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확보 및 사업 타당성 확보 등의 제반 사항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책사업 유치 및 국가예산사업 확보 등을 위해 지역간 협력체제 구축이 더욱 중요시 될 것임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지향하는 비전과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 추진될 경우 전라북도 공간구조 변화 및 광역교통망의 확산으로 경제활동과 물류공간의 광대역화가 급진전될 것임. 또한 생활·생산·통행·여가공간이 행정구역을 초월하여 확장되고, 지역간 교류가 공간적으로 광역화되면서 지역간 생산요소의 공동 활용에 대한 수요 증가 등에 대응한 행정 대응 전략이 필요해지고 지역간 거버넌스 체제 구축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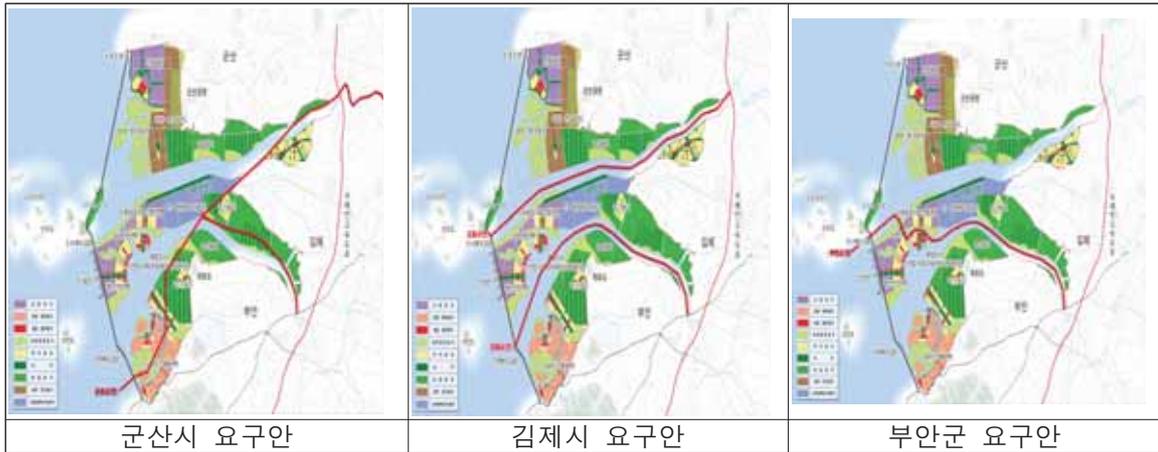
〈그림 4-2〉 전라북도 종합계획 추진을 위한 지역협력체계 구축

■ 새만금 내부개발 촉진을 위한 행정지원체제 구축

- 현재 새만금사업은 국무총리실 새만금사업추진기획단에서 심의·기획하고 용도별로 권역을 나눠 부처별로 각각 개발하도록 되어 있어 매립토 확보, 부지매입, 부지조성, 기반시설 구축 등 구체적 집행단계에서 각 부처간 합의 도출이 어렵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음
- 새만금사업은 대형국책사업으로 복합개발로 인한 집행단계 및 사업 완료 후 관리단계에서도 항상 부처간 이해관계 상충이 내재되어 있어 이를 통합·조정하고 장기 개발 사업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확보(새만금특별회계 설치 등)를 이루기 위해서 효율적인 행정체계 확립과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함. 따라서 본격적인 내부개발사업에 접어든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새만금개발청 설치가 필요함
- 또한 새만금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행정구역의 합리적인 조정 등을 통해 행정구역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 개발과 더불어 지역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과 방향 마련이 요구됨

〈표 4-6〉 새만금 개발에 관련된 부처별 주요 기능과 업무

기관별	주요 기능(정부조직법)	현행 업무
전라북도		- 경제자유구역 개발
국무총리실	- 대통령의 명을 받아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감독 - 대통령이 특별히 지정하는 사무 또는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국무총리가 특히 지정하는 사무를 수행(특임장관) - 각 중앙행정기관의 행정의 지휘·감독, 사회위험·갈등의 관리, 심사평가 및 규제개혁에 관하여 국무총리 보좌	- 새만금사업 관련 정책의 조정 및 지원
국토해양부	- 국토종합계획의 수립·조정 -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 및 개발 -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 관장	- 산업(FDI) 용지 개발 - 기반시설 확충, 매립토 확보
농림수산식품부	- 농산·수산·축산 - 식량·농지·수리 - 식품산업진흥 - 농어촌개발 및 농수산물 유통에 관한 사무 관장	- 농업관련 용지 개발 - 유보용지 관리
지식경제부	- 상업·무역·공업 - 외국인 투자 - 정보통신산업 - 산업기술 연구개발정책 - 에너지·지하자원 - 우편·우편환 및 우편대체에 관한 사무 관장	- 신재생에너지 개발 - 경제자유구역 개발 지원
환경부	-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보전 -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관장	- 생태환경용지개발 - 새만금수질환경대책 수립
교육과학기술부	- 인적자원개발정책, 학교교육·평생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 - 기초과학 정책·연구개발, 원자력, 과학기술인력양성 -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사무관장	- 과학연구용지 개발
행정안전부	- 국무회의의 사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 정부조직과 정원,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 상훈 -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및 정보보호 -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 국민투표, 안전관리정책 및 비상대비·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무관장	- 새만금사업 관련 추진조직 및 행정구역 검토



〈그림 4-3〉 인근지역의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요구안

■ 삶의 질 향상 및 도민 수요자 공감형 행정기반 조성

- 전라북도에서는 새만금, 산업 육성, 일자리 창출, 민생 안정화와 더불어 삶의 질이 중요한 정책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음. 삶의 질 문제는 경제성장과 동반하여 성장·발전하는 패턴을 형성하고 있어 건강하고 안정된 삶을 영유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및 사업 추진이 필요함
- 이를 위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조직 체계의 정비와 더불어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근거 마련, 추진동력 확보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등의 행정기반 조성이 요구됨. 특히 지역간 삶의 질에 대한 격차를 해소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행정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책순환체계를 정립하여야 할 것임
- 이와 더불어 도민이 정책에 참여할 수 있는 도정 참여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정책의 기획 및 집행, 모니터링 등에 있어 도정의 이해 촉진 및 정책 발굴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를 형성하여야 함

■ 전라북도 종합계획 연계를 통한 광역화 및 특성화 전략 체계 정립

-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추진방향과 세부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도출된 인프라 구축 및 전략산업 육성 추진, 문화관광권역 설정 등 다양한 사업의 특성화를 통해 거점 도시권을 육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 추진 체계 구축
- 또한 국토종합계획과의 정합성을 유지하고 지역별 특성화 및 차별화를 위한 세부추진체계를 수립하여 지역발전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미래 발전 전략체계를 정립하도록 함

■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 전라북도 종합계획 수립 및 집행을 위해서는 전라북도청 실국 및 시·군 지자체, 민간 전문가 등과 지속적인 토론과 논의를 통해 사업의 발굴 및 실현화를 도모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행정지원체제를 구축함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실질적 참여 및 지원을 위해 각 분야별 전문연구진과 실무 추진단을 구성하고 사업 발굴 및 사업 추진방향 등을 정립하여 추진하도록 함

■ 재정건전성 강화를 통한 행정역량 강화

- 지방 중심의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방분권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및 예산 활용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함으로써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재정관리가 필요

2. 재정계획

1) 현황

■ 전라북도 예산규모

- 전라북도 전체 총예산 규모는 10조 2,937억원임. 이 가운데 도예산은 4조 47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3조 4,498억원 특별회계 5,981억원이고, 시·군예산은 6조 2,458억원으로 일반회계 5조 4,643억원, 특별회계가 7,815억원임

〈표 4-7〉 시·도별 예산규모(2011년도 기준)

(단위: 백만원)

시도별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국	185,466,979	149,596,498	21,004,469	14,866,012
서울	28,434,815	21,739,797	5,851,518	843,500
광역시계	38,673,894	29,792,997	5,384,903	3,495,994
부산	10,531,181	8,361,027	1,577,709	592,445
대구	7,421,293	5,662,400	1,268,393	490,500
인천	9,334,368	6,522,063	1,480,422	1,331,883
광주	4,231,471	3,518,571	353,707	359,193
대전	3,952,673	3,196,025	403,211	353,437
울산	3,202,908	2,532,911	301,461	368,536
도계	118,358,270	98,063,704	9,768,048	10,526,518
경기	33,830,113	26,198,627	2,759,426	4,872,060
강원	9,070,950	7,677,164	757,994	635,792
충북	7,604,637	6,421,044	586,086	597,507
충남	10,964,032	9,035,253	1,058,603	870,176
전북	10,293,728	8,914,065	721,283	658,380
전남	12,961,543	11,514,136	831,976	615,431
경북	15,422,255	13,002,773	1,452,938	966,544
경남	15,357,835	12,989,248	1,226,928	1,141,659
제주	2,853,177	2,311,394	372,814	168,969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표 4-8〉 전라북도 시·군 단체별 예산규모(2011년 기준)

(단위: 백만원)

단체별	합 계	일반회계	기타특별	공기업특별	비고
전라북도	10,293,728	8,914,065	721,283	658,380	
도	4,047,941	3,449,806	351,645	246,490	
시·군계	6,245,787	5,464,259	369,638	411,890	
시 계	3,928,378	3,349,075	205,385	373,918	
전주시	1,017,350	814,585	101,039	101,726	
군산시	711,951	623,235	48,322	40,394	
익산시	782,547	599,252	9,303	173,992	
정읍시	496,865	447,168	12,057	37,640	
남원시	451,182	421,989	17,791	11,402	
김제시	468,483	442,846	16,873	8,764	
군 계	2,317,409	2,115,184	164,253	37,972	
완주군	445,884	408,842	18,826	18,216	
진안군	241,060	210,828	30,232		
무주군	222,406	205,366	17,040		
장수군	200,420	177,216	23,204		
임실군	274,981	244,320	30,661		
순창군	227,000	212,070	14,930		
고창군	379,787	362,263	7,865	9,659	
부안군	325,871	294,279	21,495	10,097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 세입·세출 예산 구조

- 전라북도 본청의 총세입은 3조 4,498억원임. 자체수입은 7,353억원으로 지방세 6,560억원, 세외수입 793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중앙의존재원은 2조 7,145억원으로 보조금 2조 640억원과 지방교부세 6,505억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자체수입과 중앙의존재원 구성 비율은 21.3% : 78.7%로 중앙의존재원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의존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출예산은 사회복지가 9,399억원(27.24%)으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농림분야가 6,956억원(20.16%)으로 나타남. 건설교통이 3,865억원(11.20%), 수질환경 2,862억원(8.30%), 일반공공행정 2,779억원(8.06%)으로 세출 구조가 형성되어 있음
- 세입예산은 3조 4,498억원임. 국고보조금 등 중앙으로부터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어 교부되는 예산이 2조 640억운(59.8%)이며, 이 재원은 도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그 용도에 맞게 세출예산에 반영이 필요

- 재원의 용도가 지정되지 않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이 1조 3,858억원(40.2%)이지만, 법정·의무적 경비 7,162억원, 중앙보조사업에 대한 도비부담분 3,504억원을 제외하면, 자체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재원은 3,192억원 수준에 그침

〈표 4-9〉 전라북도 본청 세입·세출 예산구성

(단위: 억원, %)

구 분	2011년		2010년		비 교 증 감		비 고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구성비	예산액	증감율	
세 입	전라북도	34,498	100.00	32,159	100.00	2,339	7.27
	지방세수입	6,560	19.02	5,885	18.30	675	11.47
	세외수입	793	2.30	546	1.70	247	45.18
	지방교부세	6,505	18.86	6,555	20.38	-50	△0.76
	보조금	20,640	59.83	19,173	59.62	1,467	7.65
세 출 ^ 성 질 별 ▽	전라북도	34,498	100.00	32,159	100.00	2,339	7.27
	일반공공행정	2,779	8.06	2,761	8.59	18	0.66
	공공질서및안전	737	2.14	693	2.16	43	6.25
	교 육	1,718	4.98	1,553	4.83	166	10.69
	문화및관광	1,524	4.42	1,317	4.10	207	15.69
	환경보호	2,862	8.30	1,917	5.96	945	49.30
	사회복지	9,399	27.24	9,379	29.16	20	0.21
	보 건	539	1.56	461	1.43	78	16.95
	농림해양수산	6,956	20.16	6,560	20.40	396	6.04
	산업·중소기업	1,294	3.75	1,169	3.63	125	10.66
	수송및교통	1,563	4.53	1,465	4.56	98	6.72
	국토및지역개발	2,302	6.67	2,289	7.12	13	0.57
	과학기술	87	0.25	46	0.14	41	88.69
	예 비 비	408	1.18	382	1.19	26	6.68
기 타	2,330	6.75	2,166	6.74	163	7.54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

■ 전라북도 단체별 재정자립도 및 재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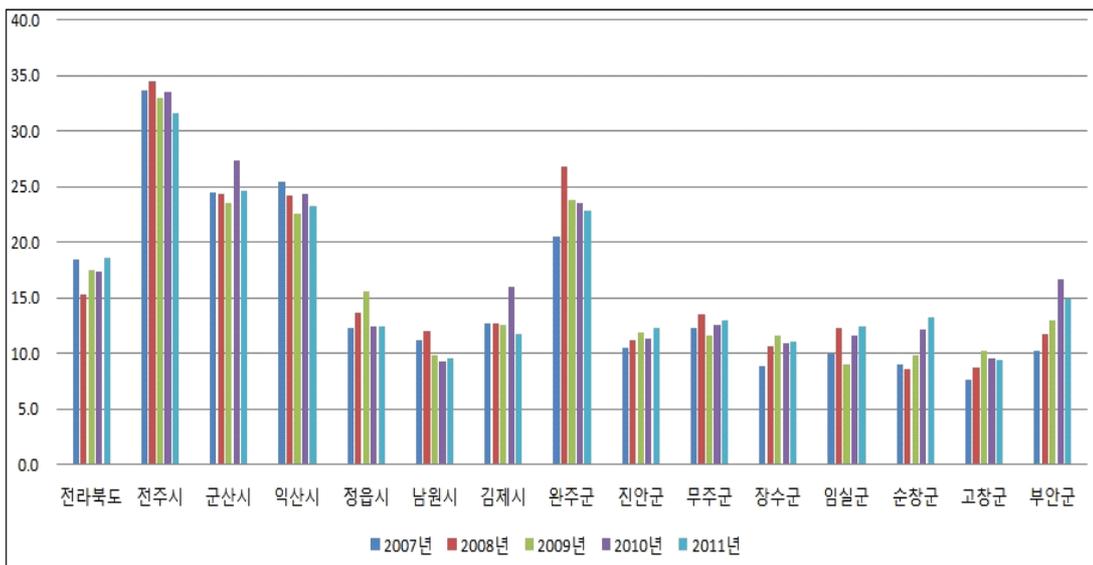
- 전라북도 전체 재정자립도 평균은 24.5%로 전국의 51.9%보다 매우 낮은 수준임
- 2011년 기준 도 본청의 재정자립도는 18.6%, 시 평균은 20.9%, 군 평균은 14.3%로 도 본청의 경우 시 평균보다 재정자립도가 낮음

〈표 4-10〉 전라북도 단체별 재정자립도 추이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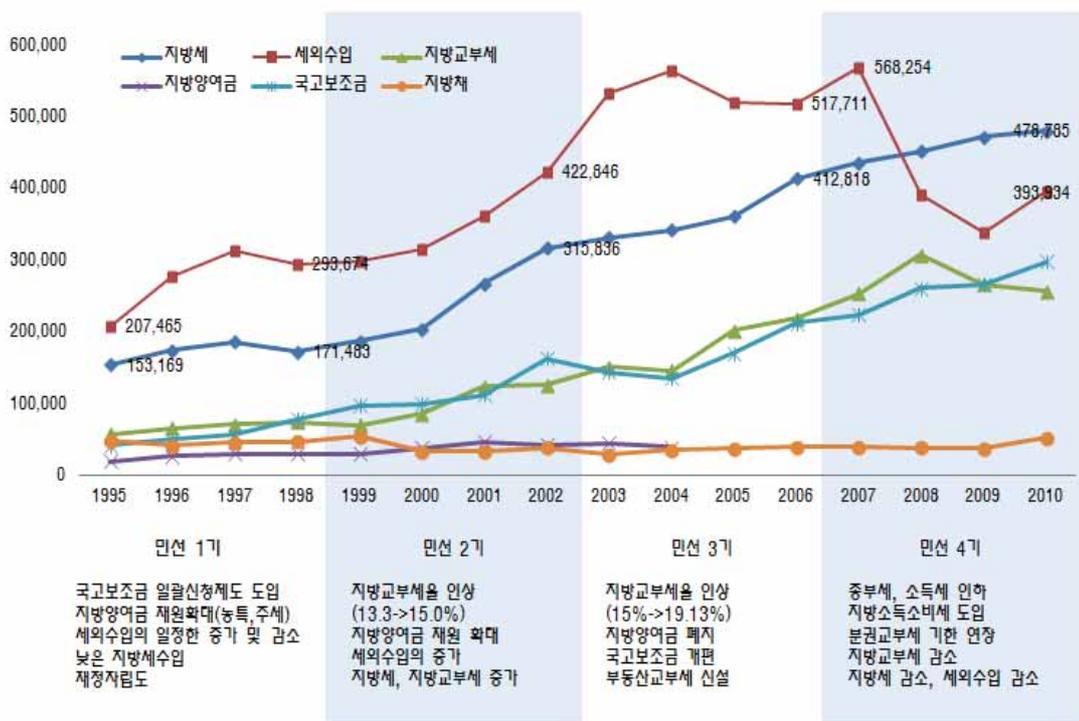
구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전국평균(순계)	53.6	53.9	53.6	52.2	51.9
도평균(순계)	23.5	22.6	23.6	24.6	24.5
도 분청	18.4	15.3	17.5	17.3	18.6
시·군평균(순계)	17.9	18.9	18.4	19.3	18.3
시평균(순계)	22.2	22.5	21.6	22.6	20.9
전주시	33.7	34.6	33.0	33.5	31.6
군산시	24.6	24.3	23.5	27.4	24.7
익산시	25.4	24.2	22.6	24.4	23.3
정읍시	12.3	13.6	15.5	12.5	12.5
남원시	11.2	12.0	9.9	9.3	9.6
김제시	12.8	12.7	12.6	16.0	11.7
군평균(순계)	11.2	13.3	13.3	14.3	14.3
완주군	20.5	26.8	23.7	23.5	22.9
진안군	10.5	11.2	11.8	11.3	12.3
무주군	12.3	13.5	11.6	12.6	13.0
장수군	8.8	10.7	11.6	11.0	11.1
임실군	9.9	12.2	9.0	11.5	12.5
순창군	9.0	8.7	9.8	12.2	13.2
고창군	7.7	8.8	10.2	9.6	9.4
부안군	10.3	11.7	13.0	16.7	14.9

자료: 재정고



〈그림 4-4〉 전라북도 단체별 재정자립도 추이

- 민선시기별 지방재정의 추이를 보면 2000년에는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율이 13.3%에서 15.0%로 인상되었음. 또한 국고보조사업 149개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분권교부세를 신설하였음
- 국고보조사업의 지속적인 증가로 인하여 경직성 예산도 동반상승하여 지방재정이 더욱 악화되었으며, 국고보조사업 비중은 1995년 7.8%에서 2008년 13.7%로 6.1%p 증가한 반면, 자주재원인 지방세 수입은 같은 기간 41.8%에서도 34.2%로, 세외수입은 24.6%에서 22.6%로 감소하였음



자료 : 이종섭·이동기(2011).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와 재정분권 강화방안
 <그림 4-5> 민선시기별 지방재정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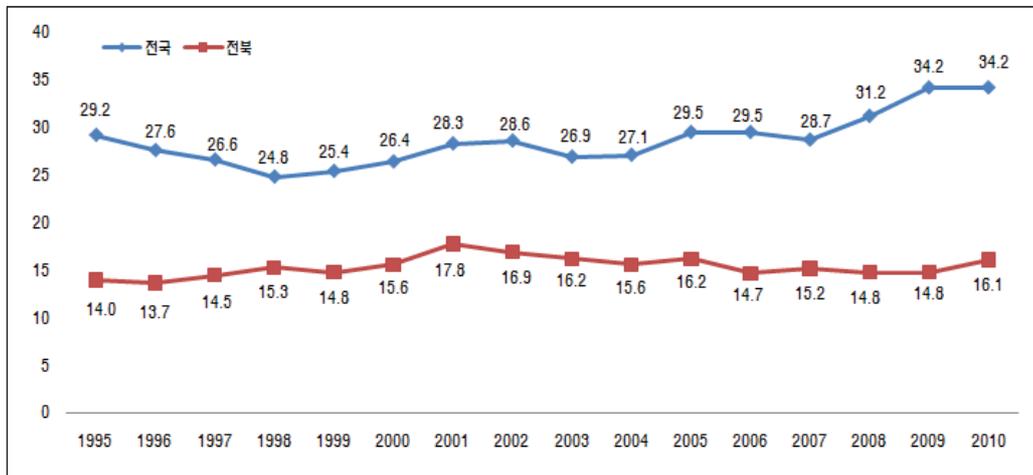
2) 여건변화와 전망

■ 대외적인 불확실성 확대로 세수감소 및 의무적 지출경비 대폭 증가

- 국내·외 재정위기 및 복지수요 확대 등으로 인하여 부동산 거래 위축 및 내국세 징수 불안으로 교부세 감소 등 전반적인 세입 감소가 예상되고 있음
- 인건비(소방공무원 충원 등) 등 법정경비가 증가하고 시·군 및 교육청 교부금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어 실질적 지방세 가용 재원 활용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됨

- 중앙정부의 보육 정책 추진 등 복지수요 증가로 인하여 복지재원으로 인한 재정 압박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기존 시책과 더불어 무상급식, 삶의 질 향상 정책 추진, 전략산업의 완성도 제고 등으로 인하여 재정압박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 특히, 전라북도는 자주재원인 지방세의 규모가 작고, 낮은 지방세 신장률로 인해 정채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가속화되고 있음
 - 전북의 지방세 수입 비율은 전체 세입의 16.1%로 전국 평균 비율인 34.2%보다 18.1%p 낮음



〈그림 4-6〉 지방세 비율 추이

■ 지방이양사업 및 복지수요 증가 등 복지분야 재정부담 가중

- 전라북도 복지예산은 2010년도에 1조 2,550억원, 2011년 복지예산 규모는 1조 2,950억원이며 복지 예산 비중은 전체 예산규모 4조 479억원의 32.1%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06년 복지예산 규모 7,713억원 대비 67.7%p 증가한 규모임
- 전라북도 복지분야 도비지원액은 전북도 자주재원의 48.6%, 가용재원의 21.9%를 차지하고 있어 복지분야의 도비 지출 부담이 증가하고 있음

〈표 4-11〉 지역별 자주자원 및 가용자원 대비 복지재정 비율

(단위: 십억원,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자주 자원(a)	11,930	2,819	1,804	2,703	889	994	923	5,241	578	593	762	538	498	914	1,523
가용 자원(b)	12,050	3,552	2,359	2,963	1,343	1,291	1,087	5,429	1,086	9,98	1,327	1,194	1,308	1,733	1,900
복지 도비(c)	3,174	632	327	331	244	224	139	803	145	326	196	262	313	309	334
c/a	26.6	22.4	18.1	12.2	27.4	22.5	15.1	15.3	25.1	54.9	25.7	48.6	62.8	33.8	21.9
c/b	26.3	17.8	13.9	11.2	18.2	17.4	12.8	14.8	13.4	32.6	14.7	21.9	23.9	17.8	17.6

- 특히 정부는 2004년에 국고보조사업을 정비하여 149개 사업을 지방에 이양하였으며 지방이양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전하기 위해 분권교부세 제도를 도입하여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임
- 분권교부세 사업 중 복지분야 사업이 2010년 기준 52개 사업으로 복지분야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러나 복지분야의 세출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분권교부세 부족분을 지방비로 충당하고 있어 지방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국고보조금으로 환원 등의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상황임

〈표 4-12〉 분야별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분야	분권교부세 대상사업
보건복지	경로당 운영, 장애인 복지관 운영, 아동시설 운영 등 52개 사업
건설교통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벽지노선손실보상 등 9개 사업
문화관광	공공도서관 운영, 문화의 집 조성 등 24개 사업
농림	농업인자녀 학자금, 농업전문인력 양성 등 24개 사업
환경	재활용시설 이차보전, 하수처리장 이차보전 등 5개 사업
해양수산	토산어종치어방류, 마을어장 개발 등 16개 사업
기타	여성인력개발센터 운영, 자전거도로 정비, 공공근로사업, 현충 시설 등 19개 사업

■ 감세 정책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격감

- 정부의 내국세와 종합부동산 감세로 인한 주민세와 부동산 교부세 감소가 이루어져 지방재정여건이 악화됨. 감세정책으로 인한 감세규모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약 33.9조원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연도별로는 2008년 6.2조원, 2009년 10.2조원, 2010년 13.2조원, 2011년 3.9조원, 2012년 0.4조원임
- 국회예산정책처(2010년)에 의하면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국내 세수는 2010년 3.8조

- 원, 2011년 4.4조원, 2012년 4.3조원의 지방재정의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 2009년 내국세 수입액은 130.4조원으로 2008년도에 비해 11.4조원이 감소하였고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세도 당초 24조 9,425억원에서 22조 9,347억원으로 2조 78억원이 감소되었음
 - 전라북도의 지방교부세도 당초 2조 7,423억원에서 2조 5,137억으로 2,286억원이 감소되었으며, 2011년도에 정부가 주택거래 대책 일환으로 취득세를 50%인하함에 따라 전라북도는 378억원의 세수가 감소

〈표 4-13〉 세제개편과 지방소비세 도입에 의한 지방재정 세입 순변동 현황

(단위: 억원, %)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08년 세제개편	지방소득세	-2,744	-8,055	-17,141	-17,541	-17,304	-62,784
	지방교부세	-5,920	-18,529	-36,418	-37,692	-37,473	-136,032
	부동산교부세	-4,935	-20,680	-25,770	-25,770	-25,770	-102,925
	소계(A)	-13,599	-47,264	-79,329	-81,003	-80,547	-301,741
2009년 세제개편	지방소득세			7,175	5,549	5,569	18,293
	지방교부세			15,036	12,652	12,836	40,525
	소계(B)			22,212	18,201	18,404	588,817
2010년 지방소비세 도입	지방소비세			24,709	24,709	24,709	74,127
	지방교부세			-5,851	-5,851	-5,851	-17,553
	소계(C)			18,858	18,858	18,858	56,574
지방재정 수입순변동(A+B+C)		-13,599	-47,264	-38,259	-43,944	-43,285	-186,350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2010)

3) 계획의 기본방향

■ 지방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 강화

- 국내·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지방세수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으나 반대로 복지 수요로 인한 복지비용 지출 증가, 국고보조금 대응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 필요에 의한 재정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이로 인한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 또한 중앙정부의 감세 정책으로 인하여 지방세수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자체적인 지방재정 건전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재정관리시스템 구축 등의 제도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함

■ 세출 부담 완화를 통한 재정구조의 안정화 구축

- 지방소비세의 세율인 부가가치세의 5%를 10%로 상향 조정하도록 추진하며, 국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과도한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 축소 등을 중앙정부

상대로 정책적으로 추진함. 또한 복지분야의 국고보조사업 증가로 인하여 대응 지방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하여 세출 부담을 완화하도록 추진함

- 또한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투입되고 있는 세출 예산의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예산 사업의 선택과 집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재정운용을 변경하여 안정화된 재정구조를 유지함

4) 세부 추진과제

■ 한정된 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한 상시예산편성 및 관리 시스템 확립

- 도비 부담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 등을 통한 재정 사업의 사전 타당성 검토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 투자의 실효성을 높이고, 예산 편성 시 국고보조사업 신청 심사를 강화하여 지방비 의무부담으로 인한 재정의 경직성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함
-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사전 원가심사를 지속적으로 강화하여 불필요하게 투입될 수 있는 예산 항목을 조정하여 예산 운용의 적절성을 도모하도록 함. 또한 민간 재정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하고 그 결과의 세출 구조 반영 정도를 확대하여 사업 운영의 실효성 및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추진하도록 함

■ 지속적인 기업유치 및 미납 지방세 징수 강화를 통한 중장기적 세수기반 확충

- 자체 세수기반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중앙공공기관의 이전 및 기업 유치 등이 필요함. 이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음
- 또한 미납된 지방세 징수를 위한 제도적인 지원과 프로그램 운용에 집중하여 중장기적인 세수기반을 확충하도록 함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내실화 및 재정네트워크 등을 통한 예산 투명성 강화

- 예산의 선심성·낭비성 편성과 집행에 대한 실질적 관리를 위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의무화됨에 따라 실질적으로 운영의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정기적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함
- 또한 전라북도에 발생하는 재정 상황에 대한 진단 및 분석, 중앙정부의 재정 정책 변화 등에 대한 대응력 확보 등을 위해 민간 전문가 및 지자체 예산 관련 공무원들과 정기적인 네트워크를 강화하도록 함

제2장 재정투자계획

1. 재정투자의 방향

■ 중장기적 시계에 의한 전라북도 지방재정의 계획적인 운용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정책 및 사업 방향 하에 전라북도 재정운영현황 및 사업 특성에 부합하는 정책·사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운영함. 정부는 균형재정 달성을 통해 재정건전성을 조기 복원할 계획임
- 중앙정부의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계획의 연평균 증가율은 R&D가 5.3%, 농림수산식품은 1.0%, 보건·복지·노동은 5.8%, 교육은 8.0%, 일반공공행정은 6.0% 등으로 예측하고 있음
- 행정수요 및 정부환경 등의 변화를 고려하여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정책을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며 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성 확대
- 전라북도 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5년 단위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담보하고 전략적 자원 배분 기능을 강화하여 재정을 계획적으로 운용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용하기 위하여 매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계획수립절차 등에 의하여 당해 중기지방재정계획이 관계 법령에 의한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매년 종합적인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⑤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둔다.

⑥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표 4-14〉 국가 주요 분야별 자원배분계획

(단위: 조원)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연평균 증가율
1. R&D	14.9	16.0	16.9	17.8	18.3	5.3
2.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5.2	15.2	15.3	15.5	15.8	1.0
3. SOC	24.4	22.6	22.8	22.8	22.8	△1.7
4. 농림수산식품	17.6	18.1	18.3	18.3	18.4	1.0
5. 보건·복지·노동	86.4	92.0	97.3	102.8	108.3	5.8
6. 교 육	41.2	45.1	48.8	52.2	56.0	8.0
7. 문화·체육·관광	4.2	4.4	4.6	4.7	4.7	2.7
8. 환 경	5.8	6.1	6.2	6.2	6.3	2.4
9. 국방(일반회계)	31.4	33.2	34.8	36.3	37.9	4.8
10. 외교·통일	3.7	3.9	4.2	4.5	4.7	6.6
11. 공공질서·안전	13.7	14.5	15.3	15.7	16.2	4.4
12. 일반공공행정	52.4	56.6	59.2	62.5	66.1	6.0
총 지 출	309.1	326.1	341.9	357.5	373.1	4.8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2)

■ 대내외 경제여건에 대응한 적극적 재정운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 대내외적인 경제 환경 등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전라북도 종합계획 상에 추진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재정 운용 계획을 추진하도록 함
-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2020년의 경제 사회 변동성이 증폭되고 제반위험요인(기후변화, 주택가격 버블, 대량살상 무기, 식량 및 원자재 수요 급증에 따른 인플레이션 상승 등)이 빠르게 국내 경제로 전이되어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의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 세계경제는 2020년 이후 미국에서 중국으로 경제파워의 이동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으며, 중국은 미국을 능가하는 세계 최대소비시장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음. 이로 인해 중국 소비시장의 양적 확대 및 질적 변화, 경제의 서비스화 진전이 가속화되어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對중국 전략 수립 및 투자 유치 등을 위한 예산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전 세계적인 경제위기 확대로 세수감소와 서민생활 및 금융시장 안정, 경기 부양 도모를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 실시로 선진국에 대규모 재정적자가 발생하고 높은 실업률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이를 위해 선진국은 재정구조 개혁을 실시할 것이며 지출삭감, 세제개혁, 세수증대 추진 등의 불가피한 선택을 하게 될 것으

로 전망됨. 이로 인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출 구조 조정 및 지방 재정 건전화에 위한 정책 실현화가 가시화될 것임

- 국내 2012년 경제성장률 전망은 3.5%로 유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 2015년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가 예상되고 있으며 2012~2016년까지 경제성장률이 3.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

〈표 4-15〉 2012~2016년 국내경제 전망

(단위: %, 억달러, 원/달러, 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국내총생산	6.3	3.6	3.5	3.9	4.2	3.5	3.3
민간소비	4.4	2.3	2.4	3.1	3.4	2.8	2.5
설비투자	25.7	3.7	4.8	6.0	6.5	4.7	3.1
건설투자	-1.4	-5.0	1.3	1.5	1.5	1.2	2.0
총수출	14.7	9.5	5.5	6.9	8.6	7.7	6.9
총수입	17.3	6.5	5.1	6.4	7.6	7.4	6.5
경상수지(억달러)	293.9	265.1	204.0	189.2	243.9	268.3	312.7
상품수출(통관)	28.3	19.0	6.7	9.4	13.3	10.9	9.5
상품수입(통관)	31.6	23.3	7.7	9.3	13.4	11.8	8.9
GDP디플레이터	3.6	1.7	2.4	2.5	2.5	2.4	2.2
소비자물가	3.0	4.0	2.7	2.7	2.8	2.7	2.5
실업률	3.7	3.4	3.5	3.5	3.4	3.4	3.6
원/달러 환율(기준환율)	1,156	1,108	1,151	1,109	1,060	1,077	1,111
국고채수익률(3년만기)	3.7	3.6	3.5	4.0	4.7	4.2	3.9
경상국내총생산	10.2	5.4	6.0	6.5	6.8	6.0	5.6

주: 1) 실업률은 구직기간 4주 기준임

2) 환율, 국고채수익률은 연평균

3) 2010, 2011년은 실적치

자료: 국회예산정책처(2012). 2012년 수정경제전망 및 재정분석

■ 지속가능한 재정위험 관리 및 세출구조 조정 강화

- 정부는 대내·외 경제, 재정 여건 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를 중시하여 재정준칙 등의 새로운 제도 도입을 통해 균형재정을 추진하고 비과세·감면 축소 및 폐지 등 세입기반 확충을 추진하고 있음. 도 차원에서 중앙정부의 재정정책방향에 맞는 재정관리의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함
- 따라서 SOC 투자, 복지지출, R&D 및 교육 등 재정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해 점증주의적 접근에서 탈피하여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고,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재정사업 심층 평가, 국가보조사업의 준치 평가 등을 강화하여 상시적인 재정투입사업에 대한 세출 구조 조정을 강화

■ 새만금 조기 개발 및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둔 재정투자방향 설정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지향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2020년까지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해 재정투자를 하여야 할 것임. 새만금 사업은 미래의 전라북도 발전의 핵심 발전축을 담당하기 때문에 새만금 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또한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분야별 사업들은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민생 안정화로 도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전라북도는 설문조사를 통해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농어촌 활력, 새만금 사업 등을 중심으로 한 재정투자 우선순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

〈표 4-16〉 재정중점투자 분야 우선순위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구 분	가장 중점을 두고 투자하기를 희망하는 시책(사업) 선호도 (%)	
중점 재정 투자 분야	① 일자리 창출(49.5%)	② 민생안정(13.4%)
	③ 농어촌 활력 창출(10.5%)	④ 새만금사업(9.8%)
	⑤ 미래인재양성(7.4%)	⑥ 삶의 질 향상(5.5%)
	⑦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3.9%)	

자료: 전라북도 내부자료(2012)

2. 재정투자 계획

■ 재정전망

- 전라북도 일반회계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연평균 9.7% 증가했으며, 지방세는 10.5%, 보조금은 12.3% 증가함. 2011년 일반회계는 3조 6,854억원으로 이 중 보조금이 2조 1,881억원, 교부세는 7,102억원으로 나타남
- 그러나 2011년~2015년 기간 동안 전라북도 일반회계는 국내·외 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라 연평균 3.3%~3.7%까지 범위 내에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전라북도 중기 지방재정계획(2011~2015년) 기간 중 세입규모는 23조 4,196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세는 3조 8,661억원(16.51%), 세외수입은 2조원(8.54%), 의존재원은 17조 5,534억원(74.95%)으로 추계되었음
- 전라북도 2016~2020년까지 세입규모는 30조 8,058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제 4 편 계획의 집행과 관리

지방세는 5조 2,038억원(16.9%), 세외수입 2조 4,775억원(8.0%), 의존재원은 23조 1,244억원(75.1%)으로 나타남

- 전라북도 종합계획 기간(2011~2020년) 중 총 세입전망은 54조 2,254억원으로 추계되었으며, 지방세는 9조 699억원, 세외수입은 4조 4,775억원, 의존재원은 40조 6,779억원으로 추정되었음

〈표 4-17〉 전라북도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증감율

(단위 :억원,%)

구 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연평균 증감율
합 계	25,449	29,387	34,137	35,103	36,854	9.7
지 방 세	4,396	4,320	4,780	6,350	6,560	10.5
세외수입	1,243	917	1,972	1,209	1,311	1.3
교 부 세	5,592	7,360	6,571	6,620	7,102	6.2
보 조 금	14,218	16,790	20,814	20,924	21,881	12.3

〈표 4-18〉 전라북도의 2011~2015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합 계	4,263,981	4,427,910	4,650,836	4,906,175	5,170,690	23,419,592	
자체재원	1,095,404	1,105,532	1,153,339	1,222,581	1,289,296	5,866,152	25.05
지방세	656,004	734,319	778,020	824,344	873,448	3,866,135	16.51
세외수입	439,400	371,213	375,319	398,237	415,848	2,000,017	8.54
경상적	39,765	45,024	47,695	50,120	51,468	234,072	1.00
임시적	399,635	326,189	327,624	348,117	364,380	1,765,945	7.54
의존재원	3,168,577	3,322,378	3,497,497	3,683,594	3,881,394	17,553,440	74.95
지방교부세	710,167	738,373	779,904	823,884	870,462	3,922,790	16.75
보 통	627,213	661,522	697,707	735,872	776,124	3,498,438	14.94
분 권	55,970	60,884	66,230	72,045	78,371	333,500	1.42
특 별	26,984	15,967	15,967	15,967	15,967	90,852	0.39
국고보조금	1,819,856	1,931,312	2,049,766	2,175,663	2,309,480	10,286,077	43.92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108,086	118,300	129,479	141,715	155,107	652,687	2.79
광특보조금	530,468	534,393	538,348	542,332	546,345	2,691,886	11.49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자료: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2012)

〈표 4-19〉 전라북도의 2016~2020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재 정 계 획					합 계	비 중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5,475,761	5,798,831	6,140,962	6,503,278	6,886,972	30,805,803	
자체재원	1,365,364	1,445,921	1,531,230	1,621,573	1,717,246	7,681,334	24.9
지방세	924,981	979,555	1,037,349	1,098,553	1,163,367	5,203,806	16.9
세외수입	440,383	466,366	493,881	523,020	553,878	2,477,528	8.0
경상적	54,505	57,720	61,126	64,732	68,552	306,635	1.0
임시적	385,878	408,645	432,755	458,288	485,327	2,170,894	7.0
의존재원	4,110,396	4,352,910	4,609,731	4,881,705	5,169,726	23,124,469	75.1
지방교부세	921,819	976,207	1,033,803	1,094,797	1,159,390	5,186,016	16.8
보 통	821,915	870,408	921,762	976,146	1,033,739	4,623,971	15.0
분 권	82,995	87,892	93,077	98,569	104,384	466,917	1.5
특 별	16,909	17,907	18,963	20,082	21,267	95,128	0.3
국고보조금	2,445,739	2,590,038	2,742,850	2,904,678	3,076,054	13,759,360	44.7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164,258	173,950	184,213	195,081	206,591	924,092	3.0
광특보조금	578,579	612,716	648,866	687,149	727,691	3,255,000	10.6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 5년간(16~20) 평균 세입 증가율은 글로벌 재정위기가 실물경제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5.9%로 안정적으로 추계
 * 11~15년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은 4.94%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국외예산정책처는 국내 성장전망을 3.7%로 추정. 전라북도는 12년 기준 5년간 평균 세입 증가율은 8.52%임

〈표 4-20〉 2011~2020년 세입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2011~2015년	2016~2020년	총계
합 계	23,419,592	30,805,803	54,225,395
자체재원	5,866,152	7,681,334	13,547,486
지방세	3,866,135	5,203,806	9,069,941
세외수입	2,000,017	2,477,528	4,477,545
경상적	234,072	306,635	540,707
임시적	1,765,945	2,170,894	3,936,839
의존재원	17,553,440	23,124,469	40,677,909
지방교부세	3,922,790	5,186,016	9,108,806
보 통	3,498,438	4,623,971	8,122,409
분 권	333,500	466,917	800,417
특 별	90,852	95,128	185,980
국고보조금	10,286,077	13,759,360	24,045,437
도비보조금			
기금보조금	652,687	924,092	1,576,779
광특보조금	2,691,886	3,255,000	5,946,886
재정보전금			
조정교부금			

■ 재정투자 전망

- 계획기간(2012~2020년) 중 총 투자액은 122조 9,154억원으로 전망되며 이 중 기 투자는 사업기간 이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는 사업으로 22조 599억원임
- 연도별 사업투자비는 2011~2015년에 45조 5,001억원이 투자될 것으로 전망되며, 2016~2020년까지 55조 3,554억원의 재정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추정됨

〈표 4-21〉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연도별 총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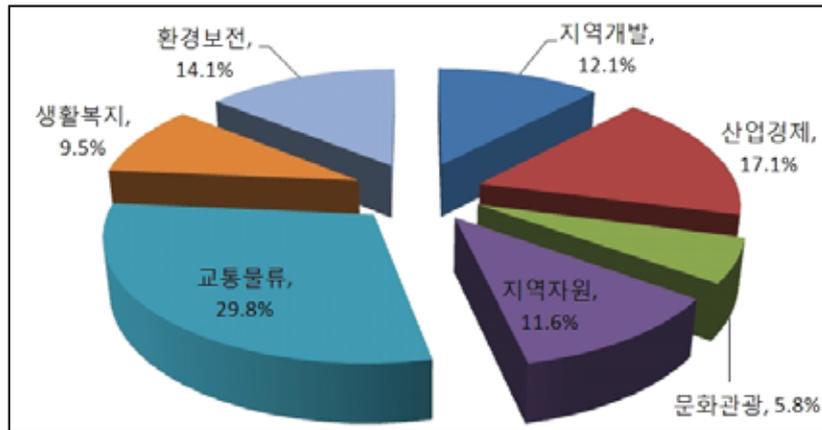
구 분	건 수	총사업비	연도		
			기투자	2011~2015	2016~2020
총계	651	1,229,154	220,599	455,001	553,554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 있어 가장 많은 재정투자가 필요한 부문은 교통물류로 32조 6,69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산업경제 부문으로 20조 5,527억원으로 나타났음. 환경보전 부문의 경우 18조 5,264억원으로 지역자원 15조 2,408억원보다 다소 높은 재정투자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표 4-22〉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부문별/연도별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분	건수	총사업비	연도별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계	651	1,229,154	220,599	455,001	553,554
지역개발	16	158,359	11,420	70,113	76,826
산업경제	46	205,527	12,637	49,810	143,079
문화관광	74	76,786	5,349	26,651	44,786
지역자원	196	152,408	44,672	65,155	42,581
교통물류	67	326,693	70,443	110,962	145,287
생활복지	117	124,117	18,450	68,055	37,611
환경보전	135	185,264	57,627	64,255	63,383



〈그림 4-7〉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분야별 재정 투자 비중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주체별 분담내역을 보면 국비가 66조 3,618억원으로 총 재정투자비용의 54.0%를 차지하고 있으며, 도비 10조 5,298억원(8.6%), 시·군비 13조 7,906억원(11.2%), 민자 27조 7,342억원(22.6%) 등으로 나타남

〈표 4-23〉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부문별/자원별 재정투자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자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1,229,154	663,618	105,298	137,906	277,342	44,990
지역개발	158,359	80,461	7,970	1,030	53,626	15,271
산업경제	205,527	25,369	5,179	15,366	159,331	283
문화관광	76,786	25,271	7,037	20,521	23,155	803
지역자원	152,408	87,682	14,065	23,574	23,157	3,929
교통물류	326,693	254,045	34,796	14,093	12,647	11,112
생활복지	124,117	82,464	19,386	20,153	1,544	570
환경보전	185,264	108,327	16,865	43,169	3,882	13,022

■ 사업규모별 재정투자 계획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국비규모별로 보면 100억~1,000억 미만 사업건수가 214건으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100억 미만 사업이 204건, 1,000억~5,000억의 사업이 76건으로 나타남. 1조 이상 사업이 14건이나 총사업비가 34조 8,149억원으로 가장 높으며 국비 부담의 경우도 29조 9370억원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4-24〉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국비규모별/연도별 재정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사업수 (건)	총사업비	연도별		
			기투자	2011~2015	2016~2020
합 계	651	1,229,154	220,599	455,001	553,554
1조 이상	14	348,149	68,074	145,821	134,253
5,000억~1조	17	136,529	30,834	24,533	81,162
1,000억~5,000억	76	316,250	55,284	119,746	141,219
100억~1,000억	214	275,710	22,780	101,583	151,347
100억 미만	204	32,038	3,589	16,678	11,771
순지방비+민자	126	120,478	40,037	46,639	33,801

〈표 4-25〉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년) 국비규모별/재원별 재정계획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재원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합 계	1,229,154	663,619	105,298	137,905	277,342	44,990
1조 이상	348,149	299,370	18,480	24,037	6,174	88
5,000억~1조	136,529	117,810	3,915	7,532	4,965	2,307
1,000억~5,000억	316,250	169,801	17,291	56,555	71,616	986
100억~1,000억	275,710	68,190	12,399	35,130	145,742	14,249
100억 미만	32,038	8,423	6,464	6,533	9,625	993
순지방비+민자	120,478	25	46,750	8,117	39,218	26,367

3. 재원조달 계획

1) 재원조달 기본 방향

- 전라북도의 중기지방재정계획(2011~2015년)을 근거로 하여 2차년도 중기지방 재정계획(2016~2020년)을 수립하여 재원배분 방향 및 재정운영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전라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재정운영 목표:2011~2015년〉

- 일반 행정 : 「소통과 공감」의 생산적 도정 운영
- 일 자 리 : 더 많은 더 좋은 일자리 창출
- 민 생 : 다함께 행복한 사회 조성
- 새 만 금 : 동북아 경제중심도시 새만금 건설
- 삶 의 질 : 슬로시티 구축과 문화·체육복지를 통한 삶의 질 향상
- 전략산업 : 미래의 먹거리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농 업 : 농가소득이 높은 살기 좋은 농촌 건설
- 문화체육관광 : 문화·체육복지 확대 및 관광활성화
- 녹색·환경 : 자연과 사람이 어우러지는 생태환경 조성
- 건설교통 : 새만금 중심 글로벌 SOC 구축
- 동부권개발 : 식품·관광으로 동부권 특화 개발

- 대규모 하드웨어 구축 사업 및 SOC 추진에 필요한 예산은 국가예산 확보를 통해 재원조달을 추진하도록 하며, 개발사업 중에 있어 민자 유치 가능한 사업 등을 집중 관리하여 민간자본 유치 등을 통해 사업의 완성 및 재원 조달 방향 모색
- 삶의 질 정책 및 농업농촌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있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경우 민간자본 유치 방향을 고려하고 중앙정부의 공모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 사업 활성화를 통해 재원조달 방안 마련

2) 재원조달방안

■ 중앙정부의 의존자원 확보

- 예산사업의 타당성 조사 기능 강화를 통해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 및 실현성 등을 반영하여 국비지원의 근거 및 타당성 확보
- 중앙정부의 국가 재정운용계획 및 부처별 사업 계획 등을 사전에 분석하고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의 연계성 확보 및 논리성을 담보하여 국가예산의 적극적인 유치
- 국고보조금 사업의 적극적인 유치와 더불어 지방이양사업 중에서 지방비 부담이 높은 사업 등을 선별하여 국가 부담 비율을 확대하도록 요구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사업 추진의 선택과 집중이 가능하도록 함

■ 외부재원의 전략적 동원과 사업 타당성을 통한 국비 확보

-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선정된 사업의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간유치 대상 사업 추진시 사업수익성 검증과 투자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투자자로 하여금 자본 투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전라북도의 경우 새만금 및 SOC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문이 많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높일 수 있도록 철저한 타당성 조사 과정을 거쳐 국비 확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도내 연구기관 및 관련 부서, 전문기관 등과 충분한 사전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함
- 도비가 포함된 총사업비 100억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 투·융자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예산 투자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정사업 사전 타당성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예산 투입의 효과성을 높여야 함

■ **신성장 동력산업 및 신규사업 자원 확보를 위해 광특재원의 적극적 활용**

- 신규 사업 및 전략적인 성장 동력 산업 등을 추진하는데 있어 광특회계 보조사업을 발굴·신청하여 도비 부담의 대체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광특회계를 통해 지역발전 전략과 연계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 **강력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한 재정투자 가용자원 확보**

- 신규자원 확보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유사 중복 사업이나 소모성·행사성 사업, 관행적인 장기 계속사업 등에 대한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투자 가용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함
- 국비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범위 및 사업 물량 확대 등으로 인하여 유사·중복된 자체사업을 과감하게 통·폐합하고, 보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민간지원 예산을 재검토하여 지원을 축소하거나 민간 자부담을 확대하도록 유도함. 또한 행·재정적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장기사업, 정책목표가 불명확하고 성과가 없는 사업 등에 대한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재정 구조의 안정화를 도모함
- 예산 투입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등을 강화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검증하고 사업의 지속성 여부 등을 평가하여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을 실시하여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재투자하도록 함
- 사업추진의 예산 확보를 위해 신세원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도내에서 체납된 지방세에 대한 적극적인 징수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함으로써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 행사성·축제성 사업 및 민간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예산평가 및 민간기준보조율제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운영함으로써 사업의 실효성 및 효과성 등을 도모하도록 함

■ **재정투자사업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한정된 자원의 전략적 배분**

- 전라북도 종합계획 상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및 중요도를 분석하여 재정투자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예산 수립시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천력을 확보하도록 함
-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방식 및 운영방식, 사업내용, 예산과의 연계성 등을 담보함으로써 투자 효율성을 도모하도록 함

- 중앙정부 및 전라북도, 시·군과의 공동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상호 협력 방안을 모색하도록 함
- 세계경제 변화 및 중앙정부의 정책 변화 등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종합계획의 수정이 즉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사업의 변경 및 내용 보완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의 기능 및 역할을 강화하도록 함
- 연도별 전라북도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사업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도별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의 신뢰성 및 예산과의 연계성을 추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전담부서의 역할 확대 추진하도록 함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시·군 발전방향

5

제1장 전라북도 시지역

제2장 전라북도 군지역



제1장 전라북도 시지역

제1절 전주시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적 : 206.01km²(전국의 0.21%, 전북의 2.6%)
- 세대 및 인구 : 234,415세대, 641,525명(전북의 34.3%)
 - 세대당 2.74명
- 행정구역 : 1시 2구 33동
- 행정정원 : 1,835명(읍면동 369명)
 - 시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349.6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Strength)
 - 전북의 도청소재지로서 행정·교육·문화 등의 중심지임
 - 전통문화·예술에 대한 우수한 자원과 콘텐츠 보유 및 접근성이 탁월함
 - 저탄소·녹색성장정책, 아트폴리스 및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응이 활성화됨
 - 비교적 환경오염이 적고 시가지 주변에 쾌적하고 양호한 환경과 경관이 조성됨
 - 기계 및 부품산업 등 신산업의 급성장함
 - 우수한 교육도시로서 양질의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향후 혁신도시건설 등 지식산업도시로의 발전에 필요한 인적 기반이 구축됨
 - 국내 최초 탄소섬유 양산체계 구축으로 우수 연구기반 및 인적자원을 보유함
- 약점(Weakness)
 - 광역권 중추로서 지역의 협소성
 - 산업구조 취약으로 지역경제 기반 불안정, 낮은 재정력, 일자리 부족, 인재 유출 등 악순환 구조임
 -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성장동력이 미약하여 특별한 인구유인이 부족함으로써 인구성장이 정체됨

- 풍부한 전통문화자원과 산업진흥이 연계되지 못하여 관광 및 문화산업 등에서 부가가치와 일 자리 창출이 미흡함
- 관광객 유치에 필요한 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부족함
- 외곽지역의 산발적인 도시개발과 도심 쇠퇴로 도시개발의 불균형 공간구조임
- 기회(Opportunities)
 - 환황해권 시대의 새만금 배후도시이며 국토계획상 전주·군장 광역권의 중심도시로서 위상과 역할이 부여됨
 - 정부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활성화법 제정, 기금 및 연계사업제도 도입 추진함
 - 전주·완주 혁신도시의 건설에 따른 배후거점도시로서의 기능과 역할 증대됨
 - 서부신시가지 개발, 혁신도시 건설, 35사단 개발, 새만금 개발 등 내외적으로 전주시의 발전 잠재력이 증대됨
 - 문화·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여가수요의 증대로 전통문화예술·관광에 대한 가치가 증대됨
- 위협(Threats)
 -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적 자원의 취약과 도시 활력 감소 초래
 - 광역경제권 확대에 인한 중심도시로서의 역할기능 약화
 - 유사한 위상, 자원, 전략을 가진 지자체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도시경쟁력 확보에 어려움
 - 완주군과의 시·군 통합이 지연됨에 따라 광역거점도시로의 발전과 광역적 도시 관리에 장애 요인으로 작용함
 - 산업의 첨단화, 관광 활성화 등의 추세로 인해 전통과 고유문화에 기초한 도시정체성이 모호해짐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청소재지로서 각종 기능의 중심지 ■ 전통문화예술의 풍부한 자원과 높은 접근성 ■ 기계·부품산업 등 신산업의 급성장 ■ 저탄소 녹색성장정책, 아토피리스 및 도시재생사업 등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대응이 활성화 ■ 양호한 환경과 경관 보유 ■ 양질의 인적 자원 및 교육기반 보유 ■ 국내 최초 탄소섬유 양산체계 구축으로 우수 연구기반 및 인적자원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 기반 취약 ■ 성장동력이 미약하여 인구규모 정체 ■ 전통문화예술자원과 산업의 연계 활용 부족 ■ 숙박시설, 국제회의시설 등 부족 ■ 도시의 비계획적 개발과 도시의 쇠퇴 ■ 개인주의와 보수주의 성향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한 도시활성화법 제정, 기금 및 연계사업제도 도입 추진 ■ 새만금과 혁신도시의 배후거점으로서 대규모 국책사업 등 발전 잠재력 증대 ■ 전주가 지닌 문화, 예술, 생태자원의 가치 증가 ■ 환경 및 문화에 대한 가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인적자원 및 도시 활력 감소 ■ 유사한 위상, 자원, 전략을 가진 지자체 간의 경쟁이 심화 ■ 시·군 통합 지연으로 광역적 도시발전에 장애 ■ 전통과 첨단은 공존으로 문화적 정체성이 모호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도시활력으로 행복한 창조적 문화도시

■ 기본목표

- 도시공간 재창조, 천년전주 문화육성, 새만금배후 선도도시

■ 추진전략

- 탄소산업 중심의 생산도시 구축
- 신성장거점지역간 광역연계체계가 구축된 21세기 연담도시 중심축 구현
- 누구나 잘 사는 활기찬 경제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 도시 육성
- 깨끗하고 쾌적한 세계적인 녹색 청정도시 조성 및 복지도시 실현

다. 발전방향 및 전략

■ 신성장거점지역간 광역연계체계가 구축된 21세기 연담도시 중심축 구현

- 국토중서부 거점지역으로서 중심성 강화를 위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 건설, 전주-새만금간 고속화도로, 전주-김천간 동서횡단철도 건설 등 광역연계 교통인프라를 구축함
- 전북지역의 중추중심 도시로서 중추기능 강화를 위한 도로, 철도, 신교통수단 등에 의한 시·군 연계 방사형 고속도로망 구축과 전주-익산-군산간 지역내 연계 교통망을 확충함
- 혁신도시 건설을 통해 전북발전의 신성장 거점지역으로 조성하기 위한 선진국형 교육타운, 아시아거점 농산물유통단지 등을 조성하여 혁신도시에 의한 산학연관 클러스터 구축 및 효과를 구현함

■ 누구나 잘 사는 활기찬 경제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로의 육성

- (단지 조성으로 전북의 백년대계를 구축하며, 멀티미디어산업의 지역거점도시로의 육성으로 영상산업 및 지식산업수도의 기반을 구축함

- 도시형 첨단산업 집적화단지 조성으로 환황해권 첨단부품·소재산업 허브도시로 육성함
- 농업생명 중심의 전북 혁신도시 입주 농생명 연구기관과 연계한 농식품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함
- 전통문화중심도시 선도사업추진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육성함
- 전통문화교육원, 한민족 문화교육 및 체험네트워크, 전통문화테마파크 조성 등 전통문화 체험의 메카로 육성하고 한지·한옥·한식·한복 등 한브랜드 허브도시로 육성함
- 청소년 거리, 문화광장 및 영화의 거리 조성 등으로 문화영상이 살아 숨쉬는 도시로 육성하여, 국제적·국내적 전주문화 관련 축제 등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함

■ **깨끗하고 쾌적한 세계적인 녹색 청정도시 조성**과 복지도시 실현

- 천년전주 푸른도시 가꾸기사업 추진으로 전통문화와 녹색환경이 어우러진 세계적인 친환경도시 조성
- 친환경 버스 증대, 도시내 친환경 교통수단 도입으로 친환경 도시교통체계 도입
- 권역별 복지센터 건립과 직장보육제도 활성화 지원으로 복지공동체 실현
- 주민복지문화센터, 사회복지 시민평가제, 한우물 공동체사업 등 시민참여형 복지시행으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제2절 군산시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적 : 394.94km²(전국의 0.39%, 전북의 4.9%)
- 세대 및 인구 : 106,405세대, 272,601명(전북의 14.6%)
 - 세대당 2.56명
- 행정구역 : 1읍, 10면, 16동
- 행정정원 : 1,330명(읍면동 299명)
 - 시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205.0명당 1명

■ SWOT분석

- 기회요인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 환황해 경제권의 대두
 - 對중국 교역증대
 - 중장기 국책개발사업의 가시화
 - 새만금 개발사업의 적극 추진
 - 서해안골드벨트의 개발과 파급효과
 - 산업기반의 조기 완료와 그린 에너지산업의 부각
 - 자동차관련 산업의 클러스터화
 - 기업유치 활성화 분위기 확산
 - 풍력, 핵융합, 연료전지 등 에너지 관련 산업의 중요성 확대
 - 문화 및 역사의 가치 인식
 - 문화환경자원의 가치 증대
 - 역사와 문화에 대한 중요성 인식
 - 삶의 질 향상에 대한 문화예술적 욕구증대
- 위협요인
 - 국책사업의 위협요인
 - 국책사업에 의한 지역의 전통성 상실 우려
 - 새 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정책

- 새만금개발사업의 개발계획 미확정으로 토지이용계획의 가변성 내재
- 지자체간 경쟁격화
 - 평택 신항만 및 물류단지 활성화로 항만간 경쟁 격화
 - 도시의 균형발전을 위한 차별화 미흡
 - 새만금 해상경계에 따른 지자체간 갈등
 - 금강권 해수유통에 따른 개발과 환경보존 논란
- 환경 훼손 우려
 - 산업도시개발 확대로 환경의 훼손
 - 새만금 간척으로 인한 해양생태계 변화 우려
- 지역상권의 붕괴로 지속적 경기 침체(지역경제 투자비율의 저조)
- **강점요인**
 -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의 보유
 - 천혜의 수려한 해양관광자원(고군산군도 등) 보유, 근대 역사문화자원과 생태자원 풍부
 - 새만금 국책사업의 거점지역
 - 환황해권 시장진출의 지정학적 요충지
 - 새로운 국가발전축의 교차점(환황해축과 남부 내륙축)
 -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종합보세구역 지정
 - 산업기반의 확보
 - 해상·육상·항공물류시설 기반 확보, 대규모 국가공단 보유
 - 자동차·조선·기계·상용차 산업의 급성장
 - 신재생, 풍력, 태양광 에너지 등 녹색산업 클러스트화
 - 전략적 기업활동 지원
 - 위그선, 플라즈마산업 등 첨단산업 전략육성
 - 산학융합지구, 비즈니스센터 등 투자환경 조성
- **약점요인**
 - 정주여건의 취약
 -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시설 취약, 지역간 불균형 개발
 - 산업 경쟁력 취약
 - 군산항 퇴적 등 경쟁력 약화
 - 개발기대치에 의한 토지가격의 상승
 - 산업폐수 방출 및 폐기물 재활용도 취약
 - 지방재정의 빈약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아 경제권의 부상 ■ 중장기 국책개발사업의 가시화 ■ 산업기반의 조기 완료와 그린 에너지산업의 부각 ■ 문화 및 역사의 가치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책사업의 위협요인 ■ 지자체간 경쟁격화 ■ 환경 훼손 우려 ■ 지역상권의 붕괴로 지속적 경기 침체(지역경제 투자비율의 저조)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풍부한 관광·문화자원의 보유 ■ 새만금 국책사업의 거점지역 ■ 산업기반의 확보 ■ 전략적 기업활동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시설 등 정주여건의 취약 ■ 문화 콘텐츠의 부족 ■ 산업 경쟁력 취약 ■ 지방재정의 빈약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50만 국제관광 기업도시 군산 건설

■ 목 표

- 풍요(豊), 융화(和), 품격(格)을 갖춘 새만금 명품 도시, 群山

■ 추진전략

- 새만금 중심, 명품 국제 관광 기업 도시
 - 江·山·海가 어우러져 관광하기 좋은 가보고 싶은 도시
 - 기업유치와 지역특화산업 발굴을 통한 일자리가 많은 도시
 - 지역에서 자급할 수 있는 미래형 인재양성 도시
- 풍요롭고 화합하는 살기 좋은 도시
 - 교육, 의료, 문화, 복지 등 생활편익시설의 확충
 - 젊은이와 유능한 인재가 머물고 싶은 도시
 - 농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 도시의 균형개발
- 정보기술과 환경생태 기술이 융합된 품격 있는 첨단 친환경 도시(U-Eco City)
 - 환경생태의 보전
 - 환경자원의 관광자원화
- 협력과 화합의 지자체간 거버넌스 구축
 - 지자체간 갈등의 해결 및 조정 체계구축
 - 자원 및 시설의 공동활용 및 개발

다. 발전방향 및 전략

■ 문화·관광·체육부문

- 새만금관광권과 연계하여 국제해양관광지를 관광성장동력으로 추진하고 근대 문화유적을 이용한 문화도시 추진
- 고군산군도, 새만금, 금강호 등을 활용한 수변관광, 해양관광 활성화 및 근대문화 유산의 관광자원화를 추진
- 고군산 국제해양관광지, 새만금 방조제, 새만금 관광용지 등을 활용한 새만금의 관광거점화 추진
- 관광자원의 규모화를 위해 군산시 근대문화, 익산시의 백제문화, 전주시의 전통문화를 중심으로 광역화 추진
- 품격 있는 전통문화, 예술행사 추진
- 시민과 함께하는 시립예술단 운영 및 청소년 문화·예술 지원
- 스포츠 인프라 확충 및 활성화
-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로 선진 스포츠 도시 도약

■ 농림·수산부문

-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소득 작물의 개발 및 보급 추진
- 농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촌관광의 활성화
- 친환경 농업의 육성
- 농어촌 정주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새만금방조제 개통 대비 어촌관광을 통한 어업 외 소득 창출
- 농수산 전문 인력 양성으로 부가가치 창출
- 향토 산업 및 특화품목 육성과 시설현대화
- 물류 및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소득증대

■ 산업·경제부문

- 제조업과 신성장 산업의 특화 발전계획 추진
- 군산시의 특화분야 사업(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조선, 풍력 등)에 대한 지원

- 도의 전략산업인 조선 산업 및 신재생 에너지분야에서 연계·발전 계획추진
-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용지와 부안군의 신재생에너지 테마파크의 중복투자를 피하기 위한 차별화계획 추진
- 지역산업의 특화 및 클러스터화와 특화산업을 위한 인력양성
- 산업기반시설의 개선과 2차 산업의 고도화

■ 보건·복지·교육부문

-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문화공간과 복지시설 확충 및 청소년교육
- 문화공간과 복지시설의 확충 및 콘텐츠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청소년 교육 활성화를 통한 지역인재양성
-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환경 개선
-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글로벌 인재양성
- 평생학습도시 조성
- 앞서가는 교육도시 인프라 확충
- 다양한 학력증진 사업으로 글로벌 리더 육성
- 지역공동체 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지원 사업 확대
- 열려있는 교육기회 평생학습 구현
-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
- 활력 넘치는 건강도시 기반 구축
- 시민 만족을 위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 환경부문

- 인구증가에 대비한 상수도 시설 확충과 누수율 감소
- 상수도 수질 개선 및 시설 확충
- 상·하수도 누수율 감소
- 친환경 생태도시의 구축
- 상·하수도 운영의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폐기물의 재활용과 안정적 처리

-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 추진
- 아름답고 푸른 녹지공간 조성
- 저탄소 녹색생활환경 조성으로 Green City 조성
- 생태환경 보전을 중시하는 eco시스템 구축

■ **자원·교통부문**

- 도로망 확충 및 개선을 통한 물류시설 기반 확보
- 연안 해변의 보존
- 광역교통체제구축과 물류시설 확보
- 연안 해변의 보존
- 국제 경쟁력을 갖춘 물류거점도시 기반 구축
- 종합 물류정보망 구축과 정보화 추진
- 지역간 연계 광역교통망 구축
- 새만금과 고군산 연계 관광수요에 대처한 교통망 확충

■ **기초생활기반 확충부문**

- 주거환경 개선과 쾌적한 생활기반 확충 및 특수상황 지역의 균형개발을 통한 삶의 질 향상
- 주거환경 개선
- 특수지역 정주환경 개선
- 군산시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경관계획의 수립
- 정주환경의 개선을 통한 주거여건 향상
- 쾌적한 생활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
- 특수상황지역의 개발 사업을 통한 섬주민의 삶의 질 향상

제3절 익산시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적 : 506.62km²(전국의 0.51%, 전북의 6.3%)
- 세대 및 인구 : 118,174세대, 307,289명(전북의 16.4%)
 - 세대당 2.60명
- 행정구역 : 1읍 14면 14동
- 행정정원 : 1,395명(읍면동 364명)
 - 시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220.3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요인
 - 지연산업의 특화 잠재력 보유
 - LED산업 분야의 선두주자 위치 선점
 - 개발사업에 유리한 자연환경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우수한 자연경관 보유
 - 수리시설의 발달, 경작지 풍부
 -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등 정책개발
 -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기반 우수
- 약점요인
 - 지연산업의 침체 및 기존산업단지의 노후화
 - 도심내 녹지공간, 수변공간 부족
 - 숙박시설, 홍보/안내 등의 관광인프라 부족
 - 소규모 분산형 농업구조의 저효율성
 - 다문화가정 등 교육/복지에 대한 다각적 지원사업 부재
 - 자연/역사환경의 보존과 개발사업간 상충
 - 새만금/전주 등과 연계되는 동서축 개발 약세

- 기회요인
 - 시대적·국가적 트렌드에 부합한 산업육성 정책
 - 왕궁수질개선 국가사업
 -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추진
 - 친환경농산물·신선채소 수요 증가
 - 여성친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국가사업에 의한 도시개발 추진
- 위협요인
 -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및 道내·외적 경쟁 심화
 -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적/물적 유출 우려
 - 새만금으로의 개발사업 집중
 - 부여, 군산, 전주 등 인접도시의 관광개발사업 확대
 - 농촌사회의 공동화 및 고령화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감소
 - 인접 시·군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미약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산업의 특화 잠재력 보유 ■ LED산업 분야의 선두주자 위치 선점 ■ 개발사업에 유리한 자연환경 ■ 다양한 역사문화자원, 우수한 자연경관 보유 ■ 수리시설의 발달, 경작지 풍부 ■ 여성친화도시, 평생학습도시 등 정책개발 ■ 고속철도, 고속도로 등 교통기반 우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산업의 침체 및 기존산업단지의 노후화 ■ 도심내 녹지공간, 수변공간 부족 ■ 숙박시설, 홍보/안내 등의 관광인프라 부족 ■ 소규모 분산형 농업구조의 저효율성 ■ 다문화가정 등 교육/복지에 대한 다각적 지원사업 부재 ■ 자연/역사환경의 보존과 개발사업간 상충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대적·국가적 트렌드에 부합한 산업육성 정책 ■ 왕궁수질개선 국가사업 ■ 백제문화권종합개발사업 추진 ■ 친환경농산물·신선채소 수요 증가 ■ 여성친화가 사회적 이슈로 대두 ■ 국가사업에 의한 도시개발 추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책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및 道내·외적 경쟁 심화 ■ 인접지역의 대규모 개발로 인적/물적 유출 우려 ■ 새만금으로의 개발사업 집중 ■ 부여, 군산, 전주 등 인접도시의 관광개발사업 확대 ■ 농촌사회의 공동화 및 고령화 ■ 중앙정부의 재정지원 감소 ■ 인접 시·군과의 유기적인 연계성 미약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역사문화와 첨단산업이 공존하는 살기 좋은 도시

■ 추진전략

- 전략적 경제기반 강화
 - 농축산업 및 식품산업의 고도화
 - 융·복합을 통한 첨단산업 네트워크 구축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상공업유통체계 개선
- 품격 있는 도시공간 정비
 - 고도(古都)의 역사적 정취 보전
 - 균형 있는 개발로 도·농의 상호보완적 발전 도모
 - 생활과 자연이 어우러진 쾌적한 환경 조성
 -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 따뜻한 커뮤니티 형성
 - 글로벌 인재육성을 위한 창조교육도시 조성
 - 여성친화정책을 바탕으로 한 선진복지 구현
 -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노후생활 지원

다. 발전방향 및 전략

■ 국가식품클러스터의 연계·확대 강화와 LED 기반 BIT 융합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이트 랩 구축 등을 통한 전략적 경제기반 강화

- 식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관련산업의 동반성장 촉진
 - 국가식품 클러스터의 연계산업 확대
 - 전통식품의 기능적·문화적 가치를 활용한 고부가가치산업화
 - LED식물공장 및 SPF동물산업과 연계한 기능성 식품 개발
 - 국제식품규격에 부합한 가공기술 및 디자인(패키지) 개발
- LED 기반 BIT 융합 과학비즈니스벨트 사이트 랩 구축

- LED-BT 융합 산업화 기술 지원 인프라 조성
- LED 식물공장 맞춤형 생명 식물소재 대량생산 기술 개발
- 폐쇄형 식물공장 및 스마트 분자농업을 이용한 생·의약품 생산
- 의료-IT 융합 첨단의료산업 육성 및 의료관광 서비스 개발
-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산업 발전을 위한 R&D 기반 조성
- **종자생명산업의 육성 기반 확충, 농업의 6차 산업화(생산, 가공, 관광), 귀농귀촌 활성화 및 전문농업인력 육성**
 - 우수 축산유전자원 확보를 통한 산업동물 R&D 센터 조성
 - 가축질병대응 강화를 위한 백신/사료 업체 유치
 - 생물생명과학 분야의 기본요소인 임상실험 시장 선점
 - 친환경농업의 육성으로 품질경쟁력 강화
 - 농특산물의 명품브랜드화
 - 농산물 가공 및 판매 시스템 구축
 - 전문농업기술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정주권 개발을 통한 귀농귀촌 전원생활환경 조성
 - 농촌 다문화가정 지원 및 농업인 복지 증진
 - 지역리더 육성 및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
- **환경친화적 산업생태계 구축과 노후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및 산업구조 개편**
 - 도시광산산업단지 조성을 통한 자원순환형 산업생태계 구축
 - 자원재활용 및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한 탄소 저감 실현
 - 체계적 재생계획의 수립 및 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기업유치여건 개선
 - 저탄소녹색성장을 위한 첨단산업으로의 업종 전환 유도
 - 노후산업단지 및 주변지역을 연계한 통합적 정비 및 복합용도 개발로 지역 활성화 도모
- **중심 및 지역상권의 활력 증진과 유통시스템 개선**
 - 역세권을 중심으로 한 중추적 상업·업무 복합지구 조성 및 주변지역과의 연계 개발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기반시설 확충
 - 보행친화적 특화거리 조성 및 축제이벤트를 통한 마케팅 전략 강화
 - 지역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건설 지원 및 중소유통 물류 기반 조성

- 고도(古鄣)의 역사적 정취 보전, 도시재생과 아름다운 농촌 조성 등 도·농의 상호보완적 발전을 도모하여 품격 있는 도시공간 정비
 - 역사문화환경의 광역적 보전관리 체계 마련과 전통마을/역사마을의 재생
 - 백제문화권 관광네트워크 형성, 문화재유적지 및 역사도시형태의 복원·관리, 역사문화환경의 보전을 위한 불량경관 정비
 - 미래형 한옥주거단지 조성(금마, 함라) 및 한옥테마 관광벨트 조성(전주-금마-함라), 농촌취락에 대한 전원형 관리
 - 테마형 관광컨텐츠 개발과 아름다운 농촌 조성
 - 종교관련 문화재 복원 및 성지순례 관광 활성화(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불교), 보석, 한방/의료, 농업 등 지역 전통산업과 연계한 관광서비스
 - 금강/만경강 수변공간 활용 및 수상레포츠 개발
 - 근대역사(춘포)+농경문화(만경)
 - 관광숙박 및 수변관광 인프라 확충을 위한 선도사업 시행
 - 백제고도 자전거역사탐방로 개설, 읍면소재지 경관 개선,
 -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도농교류 확대 및 농촌관광상품 개발, 경관작물 재배
 - 왕궁특수지역 환경 정비
 - 지속가능한 녹색도시재생방안 마련
 - 원도심권역 녹색재생사업, 금마시까지 시범사업
 - 주민주도형 커뮤니티 디자인
 - 탄소저감형 녹색재생기술 도입
 - 도시디자인 향상과 오픈스페이스 확보 및 수목네트워크 형성
 -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공공디자인 사업의 전개
 - 주요 진출입도로의 관문경관 형성 및 경관거점 정비
 - 원도심권역의 공원 확충 및 선형 녹지공간 확보
 - 도시친수공간 조성
 - 양대강과 지류살리기를 통한 환경 친화적 도시 조성
 - 하천환경정비 및 바이오 순환림 조성을 통한 새만금수질 개선
 - 비점오염원 해소 및 악취저감방안 마련
 - 신교통 시스템을 도입한 녹색광역 교통체계 구축
 - 지역간 협력을 통한 전주~완주~익산~군산 광역 개발축 강화로 새만금배후도시 광역연계교통망 구축
 - 탄소저감형 녹색교통수단 도입

- 글로벌 교육특화도시, 가족친화적 선진복지서비스, 다문화가정 지원 등 여성친화정책을 바탕으로 따뜻한 커뮤니티 형성**
-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교육특화도시 조성
 - 이중언어 영재학교 설립
 - 글로벌교육서비스 프로그램 개발
 - 아시아 국제교류센터 설립
 - 지역산업연계 전문교육 특화 및 시민평생학습 여건 강화
 - LED기반 BIT융합과학 마이스터 고등학교 유치 및 교육·연구기능 강화
 - 보석, 석재산업 R&D센터 유치 및 전문인력 육성
 - 유아 교육 및 청소년 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충
 - 취약계층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취업교육 강화
 - 가족친화적 선진복지서비스 시행과 다문화가정 지원의 내실화
 - 출산장려 및 생애주기별 자녀 양육 지원
 - 여성 창업활동 지원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 공공시설 및 대형시설의 여성친화적 개선
 - 복합다문화센터 운영을 통한 종합적 복지서비스 체계마련
 - 결혼이주여성 초기 적응 및 생활정보 제공 확대
 - 자녀양육 및 언어발달 지원 강화
 - 맞춤형 노인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시니어센터 조성
 -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은퇴 전문인력의 재능기부활동 촉진
 - 자력갱생을 위한 경제활동기회 제공과 희망근로사업과 연계한 사회적 기업 육성

제4절 정읍시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적 : 692.66km²(전국의 0.69%, 전북의 8.6%)
- 세대 및 인구 : 51,812세대, 122,000명(전북의 6.5%)
 - 세대당 2.35명
- 행정구역 : 1읍, 14개면, 8개동
- 행정정원 : 1,064명(읍면동 337명)
 - 시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114.7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Strength)
 - 내장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생태환경 보유
 - 동학, 정읍사, 우도농악 등 전통문화자원 보유
 - 우수한 농업자원과 활성화된 농민조직
 - 지연산업 기반의 향토자원 풍부
 - 3대 국책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기반 보유
 - KTX 등 광역 교통인프라 우수
 - 서남부권 중심지역 위치
- 약점(Weakness)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각
 - 영세한 농업생산규모와 친환경농업기반 취약
 - 산업기반 취약
 - 경쟁력 있는 관광이미지 부재
 - 도시 중심성 취약
 - 축산오염 중 환경오염 증가
 - 지방재정 및 자본 인프라 취약

- 기회(Opportunity)
 - 친환경 농산물, 농촌관광 등 농업·농촌수요 증가
 - 전북지역 농식품연구기관 입지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 첨단과학산업단지 완공
 - 내장산리조트 등 관광기반 확충
 - 새만금 연계·발전 가능성 증대
 - KTX 개통 및 역세권 개발
 - 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로 관광수요 증가
- 위협(Threats)
 - DDA/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 우수 인재 육성기반 취약 및 유출로 지역 발전동력 약화
 - 복지수요 증가와 지역개발 재정 취약 심화
 -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개발정책과 지역 간 개발경쟁 심화
 - 교통 접근성 개선에 따른 대도시권 예측화 심화 가능성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제약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장산 등 수려한 자연경관과 청정생태환경 보유 ■ 동학, 정읍사, 우도농악 등 전통문화자원 보유 ■ 우수한 농업자원과 활성화된 농민조직 ■ 자연산업 기반의 향토자원 풍부 ■ 3대 국책연구기관 등 과학기술기반 보유 ■ KTX 등 광역 교통인프라 우수 ■ 서남부권 중심지역 위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및 고령화 심각 ■ 영세한 농업생산규모와 친환경농업기반 취약 ■ 산업기반 취약 ■ 경쟁력 있는 관광이미지 부재 ■ 도시 중심성 취약 ■ 축산오염 중 환경오염 증가 ■ 지방재정 및 자본 인프라 취약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친환경 농산물, 농촌관광 등 농업·농촌수요 증가 ■ 전북지역 농식품연구기관 입지 및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 ■ 첨단과학산업단지 완공 ■ 내장산리조트 등 관광기반 확충 ■ 새만금 연계·발전 가능성 증대 ■ KTX 개통 및 역세권 개발 ■ 소득 및 여가시간 증대로 관광수요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DA/FTA 등 농축산물 수입개방 확대 ■ 우수 인재 육성기반 취약 및 유출로 지역 발전동력 약화 ■ 복지수요 증가와 지역개발 재정 취약 심화 ■ 거점도시 중심의 지역개발정책과 지역 간 개발경쟁 심화 ■ 교통 접근성 개선에 따른 대도시권 예측화 심화 가능성 ■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개발사업 추진 제약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비전

- 생명이 살아 숨쉬는 친환경 창조도시

■ 기본목표

- 산업육성을 통한 지역경제발전
- 서남권 광역 거점도시 육성
- 시민이 행복한 미래형 창조도시 건설

■ 추진전략

- 친환경 고부가 농식품산업의 선도창출지역 육성
- 활력이 샘솟는 창조적 농촌 구현
- 과학과 경제, 생명이 융합된 첨단과학 신거점 육성
- 사계절 역동하는 체험관광 정읍
- 도시기능 강화를 통한 서남권 광역 거점도시 육성
- 나누고 함께하여 다 같이 잘 사는 선진교육복지 실현
- 첨단과 전통이 잘 어우러진 녹색도시

다. 발전방향

■ 친환경 고부가 농식품산업의 선도창출지역 육성

- 청정자연을 바탕으로 친환경 농업기반의 지속적인 구축으로 친환경·고품질 농축 산물을 생산하여 정읍시민과 도시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친환경 고품질 농업으로 육성함
- 우리지역의 우수한 R&D 시설과 전북지역의 농식품 R&D 기관을 연계하여 정읍 농업을 고부가가치 농식품산업으로 도약함
- 농업 고부가가치를 위한 선도사업의 지속 발굴 및 확산을 위한 네트워크형 조직 구성으로 지역농업인재 육성

■ 활력이 샘솟는 창조적 농촌 구현

- 무조건적인 도시 따라잡기가 아닌, 도시지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정읍 농촌지역만의 잠재력을 극대화시켜 창조적인 특화 발전모델 구축

- 이를 통해 외생적 수요(도시의 자본과 사람)를 유입시켜 농촌지역민의 소득증대로 지역민이 떠나지 않고 활력이 넘치는 선순환 구조 구현

■ 과학과 경제, 생명이 융합된 첨단과학 신거점 육성

- 우리시의 방사선융합 기술산업을 특화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정읍시를 RFT산업의 글로벌 메카로 육성
- 첨단방사선연구소,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바이오소재연구소,
- 안전성평가연구소 전북영장류시험본부 등 국책연구소의 특성화 발전과 함께 이들 3개 국책연구소 간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개발의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고 RT·BT 융합형 신기술산업을 창출·육성
- RFT산업과 BT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 RFT산업 및 농식품산업을 육성하여 동북아의 융·복합 첨단과학산업 신거점으로 육성

■ 사계절 역동하는 체험관광 정읍

- 정읍이 가진 관광자원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수요자 중심의 관광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관광객을 유치하고, 주민의 소득증대로 지역경제 발전
-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부응하여 웰빙관광, 역사문화관광, 체험관광을 중심으로 관광기반 구축,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사계절 역동하는 체험관광 도시로 구축

■ 도시가능 강화를 통한 서남권 광역 거점도시 육성

- 광역 교통체계의 획기적 개선과 전남·북 접경지역에 위치한 입지적 특성을 활용하여 품격 있는 도시경관 조성 및 주거·상업·교육 서비스 기반 조성을 통한 도시가능 강화로 행정구역 개편에 대비한 서남권의 광역 거점도시 육성

■ 나누고 함께하여 다 같이 잘 사는 선진교육복지 실현

- 교육격차 해소 및 창의성 개발과 학력신장을 도모하여 개인의 행복과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차별화된 교육 실현
- 민관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다 같이 잘사는 복지사회를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만족도를 높이는 살기 좋은 정읍 구현

■ 첨단과 전통이 잘 어우러진 녹색도시

- 첨단과학산업과 녹색·문화자원과의 조화를 통해 정읍시 환경의 2020년 미래상 제시
- 이를 위해 첨단과학산업과 연계한 녹색환경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과 경제가 상생하는 녹색성장 달성

제5절 남원시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 적 : 752.69km²(전국의 0.75%, 전북의 9.3%)
- 인 구 : 36,425세대 87,775명(전북의 4.7%)
- 행정구역 : 1읍 15면 7동
- 행정정원 : 1,031명(읍면동 : 305명)
 - 시민대비 공무원수 : 85.1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Strength)
 - 지리산권중심의 청정 자연환경보존
 - 자연환경보존상태가 양호하며 산악형, 내륙형의 쾌적한 자연환경 보유
 -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보유
 - 천년고도의 문화예술과 춘향전, 흥부전 문학의 배경지, 국악의 고장
 - 친환경 녹색 명품도시 조성분위기 정착
 - 최상급 수질의 수돗물 공급
- 약점(Weakness)
 - 지속적인 인구감소 및 인구고령화
 - 지역경제 기반 취약
 - 1차산업 비중이 높은 반면 2차산업이 비중이 낮아 경제기반이 취약함
 - 관광자원의 체계적인 연계 미흡
 - 관광지, 유적지, 문화자원간의 연계부족으로 경유형 관광형태를 보이며 참여형, 체류형 관광 형태가 미흡
 - 지역내 대형유통체계 부재
- 기회(Opportunity)
 -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강화(88고속도로 확장, 전주~광양 고속도로 개통, 전라선 KTX 개통 등)
 - 삶의 질 향상과 웰빙여가시간 확산으로 역사와 문화관광에 대한 욕구 증대
 - 지형특성(고랭지, 평야지)을 살린 특화전략작목 개발

- 전국제일의 청정 환경보존으로 친환경 산업입지 잠재력 보유
-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부응
- 위협(Threat)
 - 전라북도 개발방향 지역적 편중
 - 한미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로 농업에 대한 피해 우려
 -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농업진흥구역 등이 많아 개발에 한계
 - 민간참여의 개발투자유치 어려움

강 점(Strength)	약 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산권중심의 청정 자연환경 ■ 풍부한 역사문화 관광자원 보유 ■ 인근 자치단체의 생활권 중심 ■ 테마가 확실한 사랑의 도시 ■ 친환경 녹색 명품도시 조성분위기 정착 ■ 최상수질의 수돗물 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 취약한 제조업 기반 ■ 명문교육의 미흡 ■ 관광기반시설 미흡(숙박, 편의시설) ■ 지역자원의 연계성 부족 ■ 각종규제(국립공원, 문화재보호 등)에 따른 개발제한
기 회(Opportunity)	위 험(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확충에 따른 접근성 강화 ■ 지역간 협력사업 선도 ■ 지형특성(고랭지, 평야지)을 살린 전략작목 개발 ■ 여가시간의 증대에 따른 관광수요 증대 ■ 정부의 녹색성장정책 부응 ■ 지형특성을 살린 특화전략작목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라북도 개발방향 지역적 편중 ■ 한미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로 농업에 대한 피해 우려 ■ 국립공원, 문화재구역, 농업진흥 구역 등이 많아 개발에 한계 ■ 경기침체로 기업 등의 관광개발 투자 위축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사랑의 도시 건강한 남원
- **기본목표**
 - 지리산권 중심의 문화·관광·전원도시
- **추진전략**
 - 신성장동력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활성화
 -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중심 도시 조성
 - 앞서가는 농업, 부강한 농촌 건설

- 교육기반구축 및 웰빙 복지사회 구현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생태도시 조성

다. 발전방향 및 전략

■ 신성장동력사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 침체되어 있는 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남원 미래비전에 걸맞은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하여 친환경 코스메틱(화장품) 클러스터를 구축함
- 목공예 산업의 옛 명성을 되찾기 위하여 산학협력단 연계를 통해 친환경 신소재를 개발하여 고부가 율치산업으로 육성함
- 복합물류기지와 SOC 국가기간망 구축계획 등을 중장기적으로 국가 계획에 반영하여 지역개발 토대를 만들어 나감
- 지역의 특성화 사업을 적극 발굴·추진하여 2차 산업 비중확대 등 산업의 고도화로 지역경제 체질개선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음
- 지역공동체 일자리와 청년취업 등 더 많은 일자리를 마련하고 사회적 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해 나가며,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대책을 적극 강구해 나감

■ 스토리가 있는 문화관광중심 도시 조성

- 도심권 관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한루원주변 관광타운을 조성하고 섬진강 소리문화 체험마을을 조성하여 남원 농악의 대중화와 판소리 고장으로로서 위상을 높여 나감
- 다시 찾고 싶은 둘레길을 만들기 위하여 주변마을 신화, 민담 등에 대한 스토리텔링 발굴과 체험마을 확대, 로컬푸드 등 농특산물 판매 및 특화상품을 개발하여 소득과 연계한 지리산 둘레길을 관광자원화함
- 상설 국악(창극)공연으로 남원의 국악을 널리 알리고 맞춤형 볼거리, 즐길거리를 관광상품화 하고, 남원읍성의 가치를 재조명하여 역사탐방의 장으로 활용함
- 문화관광자원을 스토리텔링화하고 초·중·고 수학여행단 유치를 위한 관광자원 패키지 상품을 개발하여 육성해 나감

- 지리산 허브밸리 등 자연과 함께하는 관광자원을 육성하고 백두대간 생태문화공원 등 생태 체험 및 휴양서비스의 문화공원을 조성하여 체류형 관광지를 구축함

■ **앞서가는 농업 부강한 농촌건설**

- DDA협상, FTA체결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국제 농업환경 대응과 농산물 판매·유통 등 최신의 유통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창구를 일원화하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
- 남원농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농업의 방향설정과 모델 제시를 위해 「남원농업 2030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대표 특화품목 육성과 브랜드를 단일화하여 경쟁력을 제고함
- 도시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연계하여 귀농·귀촌인의 정착을 위한 기반조성과 창업자금 지원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슬로푸드, 슬로산업 등 슬로시티 연계 상품을 적극 개발하여 『삶의 질 향상』의 최적의 장소로 조성함
- 친환경 고품질 축산물 생산기반 확충 및 축사시설 현대화, 축산환경 개선으로 FTA에 대응한 고부가 축산업을 육성함
- 1216 농업 CEO와 농업전문인력 육성으로 지역농업을 선도해나감

■ **교육기반구축 및 웰빙 복지사회 구현**

-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건강권 확보를 위하여 학교의 무상급식 지원을 확대하고 영유아 간식비를 지원하여 교육복지를 실현함
- 교육인구 유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우수인재 장학금 확대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학교별 특성화고 지원을 통해 인재를 육성함
- 공공기관내 여성 친화공간 조성, 골목길 CC-TV 설치 확대, 여성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여 살기 좋은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함
-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사회 일원으로 적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지원 체계 강화와 일자리 지원을 통해 함께하는 복지사회를 조성함
- 소외받는 어르신이 없도록 일자리 제공과 방문보건을 통하여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유토록 함

- 시민의 건전한 여가 생활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국제대회, 전국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 등 스포츠 마케팅을 강화하여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음

■ 쾌적하고 살기 좋은 녹색 생태도시 조성

- 생동하는 녹색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사업 추진과 요천생태습지 공원을 조성하고,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의 생활화와 함께 생활폐기물 가스자원화와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가동으로 쾌적한 도시 환경을 조성함
- 맑은 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광역상수도 마을권 급수, 노후 수도관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추진함
- 쾌적하고 깨끗한 도시기반 확충을 위해 신역사 대로 등 도시가로망 사업을 확충하고 공영주차장 조성 및 혼불의 배경지 등 개발촉진지구 도로개설을 추진해 나감

제6절 김제시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 적 : 544.90km²(전국의 0.54%, 전북의 6.8%)
- 인 구 : 41,481세대 94,346명(전북의 5.0%)
 - 세대당 2.27명
- 행정구역 : 1읍 14면 4동
- 행정정원 : 935명(읍면동 : 264명)
 - 시민대비 공무원수 : 100.9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
 - 전북권(전주-군산-익산-김제-정읍) T자형 개발축의 중심
 - 청정의 자연환경과 세계축제(김제지평선축제) 보유
 -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교통 물류 중심지
 - 개발 가능한 저렴하고 풍부한 부지 보유
- 약점
 - 지속적 감소추세의 인구여건
 -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비중이 높고 유통기반이 취약함
 - 문화시설 미비와 관광자원의 체계적 연계 미흡
 - 우수한 의료·교육·아동시설 부족
- 기회
 - 호남고속철도 건설, 혁신도시의 배후도시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최적
 -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규모화 및 첨단화 기회 도래
 -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농촌 어메니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 위협
 - 농업 중심도시로서 FTA 협정에 따른 지역경제(농업)의 리스크 증대
 -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로 농업 생산성 저하

- 인접지역(전주, 익산, 군산) 우수 교육시설로 인재유출
- 지역자본의 인접지역 유출로 지역경제 위축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북권 T자형 개발축의 중심 ■ 청정 자연환경과 세계축제(김제지평선축제) 보유 ■ 광역교통망을 보유한 교통 물류 중심지 ■ 개발 가능한 저렴하고 풍부한 부지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 감소추세의 인구여건 ■ 소규모 영세업자의 비중이 높고 유통기반 취약 ■ 문화시설 미비와 관광자원의 체계적 연계 미흡 ■ 우수한 의료·교육·아동시설 부족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호남고속철도 건설, 혁신도시의 배후도시로 국가 균형발전 실현에 최적 ■ 새만금 내부개발 본격 추진에 따른 지역경제 규모화 및 첨단화 기회 도래 ■ 중앙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 ■ 농촌여케니티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 중심도시로서 FTA 협정에 따른 리스크 증대 ■ 지속적인 인구 고령화로 농업 생산성 저하 ■ 인접지역 우수 교육시설로 인재유출 ■ 지역자본의 인접지역 유출로 지역경제 위축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꿈과 희망이 넘치는 Golden city 김제 건설

■ 기본 목표

- 새로운 김제, 지속 가능한 비전 창출
- 김제발전 희망 프로젝트 내실 추진
- 시민 감동의 행복한 자치시정 구현

■ 추진전략

- 「김제 새만금시대」를 열어가는 신성장동력 창출
- 경쟁력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 기획·과학영농으로 「행복한 부지농촌」 건설
- 시민 모두가 활짝 웃는 「보편적 복지」 구현
- 세계인이 함께하는 「생태·문화·관광축제도시」 건설
-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육성
- 「시정 참여와 소통행정」으로 시민 행복지수 제고

다. 발전방향 및 전략

■ 「김제 새만금시대」를 열어가는 신성장동력 창출

- 새만금 내부개발 5공구 조성 및 대규모 농어업회사 착공 등 새만금 내부개발 확정사업을 조기에 착공하고, 바이오 센트럴 파크 조성 등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국가정책 사업에 반영
- 시드밸리 2단계 사업지구 지정 및 일류 농식품기업 투자유치 등
- 지속적인 투자사업을 정책에 반영시키고 인프라구축에 노력
- 새만금 지역의 합리적 행정경계 설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여 새만금 제2호 방조제 내측구간을 확보하는 등 시민 역량 결집을 통한 바닷길 확보로 미래 성장기반을 마련

■ 경쟁력을 갖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육성

- 전략적 투자기업 유치와 경제성장 기반 구축
 - 뿌리산업 녹색시범단지 등 지평선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국내·외 핵심기업 투자·유치를 통해 중국, 동남아 등을 겨냥한 수출 전략기지로 육성
- 미래 지향적인 도시 디자인과 균형개발
 - 노후건축물, 도로변 환경, 빈집 정비 등 새만금시대 품격 있는 도시미관을 정비하고 개발촉진지구 개발사업, 김제 4대저수지주변개발, 모악산 벚꽃 명품길 조성 등 도시의 균형개발을 추진
 - 김제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미래 지향적인 도시기반 구축
- 명품 시드밸리 조성으로 종자산업도시 메카 육성
 - 국립 민간육종연구단지 유치에 따른 우량기업을 유치하고 시드밸리주변 전후방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전략사업 지속 발굴
 - 골든시드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명품 시드밸리 조성 추진

■ 기획·과학영농으로 「행복한 부자농촌」 건설

-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특화사업 지원·육성
 - 역대소득 2000농가 육성, 권역별 특화품목 육성, 고소득 작목 육성 및 생산시설 지원으로 농가소득 향상 제고
-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과 안정적 공급체계 구축
 - 고품질 쌀 생산지원 및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등 생산기반을 구축

- 농업유통회사 설립, 지평선 공동브랜드 명품화사업 추진, 농·특산물 마케팅 지원체계 구축, 지평선 황금보리 명품화사업 등 향토 산업 체계적 육성 추진
-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한우산업 명품화 추진
 - 가축분뇨 개별시설 지원 등 자연순환농업 기반을 구축하고 축사시설 현대화사업 등을 통해 축산 밀집지역 환경개선을 추진
 - 가축 방역대책 강화로 구제역, AI 등 전염병을 사전에 차단하고, 지평선한우 명품화 사업을 통해 브랜드 인지도 강화
- 농촌기반 확충과 차별화된 농촌 관광자원 개발
 - 지평선, 심포, 조수골, 벽골제 등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농촌자원을 활용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추진
 - 자원순환형 녹색시범마을 운영, 체험마을 통합시스템 구축으로 차별화된 농촌관광 자원 개발

■ 시민 모두가 활짝 웃는 「보편적 복지」 구현

-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자활근로사업 추진, 장애인 생활안정·재활 지원, 복지 증진 사업으로 365일 복지 지원체계 확립과 자립기반 구축
- 노후가 편안한 선진 노인복지 서비스 제공
 - 전국적인 선진 모델로 평가받은 『그룹-홈』을 지속 확대하고 IT와 접목한 독거노인 응급 돌보미 사업 등 어르신들이 행복한 도시 창출
 - 시니어클럽, 지평선 실버자치경찰대 운영, 사회적 기업 육성으로 노인 일자리 창출 및 여가 활동 확대 추진
- 여성이 안전하고 행복한 「여성 친화도시」 육성
 - 여성 친화적인 도시 공간 조성 등 6개 분야 38개 사업으로 여성 친화도시 기반 구축
 -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사회참여 활성화, 아이돌보미 사업, 다문화가정 정착을 위한 지원을 확대 추진
- 아동·청소년 건전 육성 및 「청소년 친화도시」 조성
 - 보육시설 운영, 친환경 쌀 급식 제공 등 실질적 보육정책 추진
 - 지평선 프로미 순찰대와 패트롤 맘 운영 등 선도·보호활동을 강화하고 국립김제청소년수련원 연계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 친화도시 육성

■ 세계인이 함께하는 「생태·문화·관광축제도시」 건설

- 세계축제도시 글로벌 마케팅으로 명품관광 육성
 - 8년 연속 최우수축제로 선정된 지평선축제를 명품화하고 서부권 경관축제 활성화를 통해 명품 축제도시 육성

- 벽골제 복원과 소설 『아리랑』 기행벨트 조성 등 농업을 테마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집적화하여 사계절 특화된 관광자원으로 활용
- 테마가 있는 체류형 문화·관광자원 개발
 - 벽골제 세계문화유산 등재, 김제군 관아와 향교 주변정비, 공쥐팔쥐테마공원 등을 조성하여 특색 있고 테마 있는 관광도시 육성

■ 미래를 준비하는 「글로벌 명품 교육도시」 육성

- 지평선 학당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 파격적인 장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여 믿고 자녀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창출
- 김제 장학숙 건립, 학교 무상급식, 종합지원센터 운영 등 대도시 수준의 교육 환경을 조성
- 지역 특성에 적합한 경쟁력 있는 교육 완성도 제고
 - 평생학습관 설치, 테마형 지평선아카데미 운영, 평생학습 한마당 등 시민 공감형 평생학습도시 육성

■ 「시민 참여와 소통행정」으로 시민 행복지수 제고

- 시민중심 생활공감형 자치행정 역량 강화
 - 찾아가는 현장민원 「로드-체크제」, 찾아가는 행정서비스의 날 운영, 현장행정 강화 추진
 - 범시민 5대 실천운동으로 친절, 안전, 나눔, 칭찬, 청결 운동적극 전개로 시민과 함께하는 참여행정 추진
- 찾아가는 시책설명회, 시민 정책패널, 시민신문고, 시정 파수꾼, 예산학교 운영으로 시민 눈높이 소통과 정책참여 활성화
- 시정 종합·조정(Control Tower) 기능 강화
 - 지역발전 재정력 확충을 위해 정부 예산순기에 맞춰 입체적 전략마련으로 국가예산 확보, 국가 공모사업 선제적 대응 적극 추진
 - 현안조정회의, 시책토론회, 시민 의견수렴 창구 다양화를 통해 시정 현안에 대한 합리적, 효율적 조정기능을 강화
- 친절봉사를 생활화하고, 유기한민원 단축처리제, 후속민원처리제, 도로명주소 홍보 우편함 설치사업 등 시민 무한감동, 지성감민(至誠感民) 시정을 구현

제2장 전라북도 군지역

제1절 완주군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 적 : 820.56km²(전국의 0.82%, 전북의 10.2%)
- 인 구 : 35,099세대 85,119명(전북의 4.6%)
 - 세대당 2.43명
- 행정구역 : 2개 읍, 11개 면
- 행정정원 : 706명(읍면 : 182명)
 - 군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120.6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
 - 대도시권의 근접지로서 지리적 여건이 매우 양호
 - 주변에서 접근하는 광역고속 교통망의 구축으로 접근성 양호
 - 내륙 최적의 자동차 부품 물류여건 구비
 - 풍부한 산악·수변의 관광자원 보유
 - 건실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의 강력한 의지 및 수요
 - 하천 상류지역으로 수질이 우수하며, 광역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보유
- 약점
 - 동일 성장권역으로서 상존하는 경제적 흡수 가능성
 - 간선도로망의 체계적인 연계구축망 미흡
 -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의 취약 및 핵심 기술인력의 부재
 -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의 부족 및 보유자원에 대한 개발의 어려움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부담의 가중화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환경오염의 가능성 증가

- 기회
 - 인접 전주시로부터 개발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기대
 - 외곽 고속국도망의 구축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향상
 - 산업집적화시 경쟁우위 확보가 용이하여 새로운 발전 잠재력 보유
 - 5도2촌 시대와 부촌자도(父村子都)시대 도래
 - 친환경적 가치와 새로운 트렌드 형성으로 복지 정책 변화의 요구 증가
 - 환경오염처리를 위한 연구 및 투자액의 지속적인 증가
- 약점
 - 자생력이 약한 전주권의 침상도시화 가능성
 -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교통인프라 불편
 - 생산기반기술 확보 곤란 및 기술경쟁력 약화
 - 저 소비형 관광 상품 형성 및 타 지자체와 관광산업 경쟁 치열
 - 교육 수요의 질적 요구 증대와 교육환경의 고급화 요구
 -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하천수질 등급강화 등 각종 환경규제 강화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시권의 근접지로서 지리적 여건이 매우 양호 ■ 주변에서 접근하는 광역고속 교통망의 구축으로 접근성 양호 ■ 내륙 최적의 자동차 부품 물류여건 구비 ■ 풍부한 산악·수변의 관광자원 보유 ■ 건실한 지역복지 실현을 위한 지역의 강력한 의지 및 수요 ■ 하천 상류지역으로 수질이 우수하며, 광역쓰레기소각장 및 매립장 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성장권역으로서 상존하는 경제적 흡수 가능성 ■ 간선도로망의 체계적인 연계구축망 미흡 ■ 고부가가치 기술집약 산업의 취약 및 핵심 기술인력의 부재 ■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의 부족 및 보유자원에 대한 개발의 어려움 ■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복지비용 부담의 가중화 ■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의 지속적인 증가로 환경오염의 가능성 증가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접 전주시로부터 개발수요 확대에 따른 성장기대 ■ 외곽 고속국도망의 구축에 따른 지역간 접근성 향상 ■ 산업집적화시 경쟁우위 확보가 용이하여 새로운 발전 잠재력 보유 ■ 5도2촌 시대와 부촌자도(父村子都)시대 도래 ■ 친환경적 가치와 새로운 트렌드 형성으로 복지 정책 변화의 요구 증가 ■ 환경오염처리를 위한 연구 및 투자액의 지속적인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생력이 약한 전주권의 침상도시화 가능성 ■ 행정구역의 불합리로 교통인프라 불편 ■ 생산기반기술 확보 곤란 및 기술경쟁력 약화 ■ 저 소비형 관광상품 형성 및 타 지자체와 관광산업 경쟁 치열 ■ 교육수요의 질적 요구 증대와 교육환경의 고급화요구 ■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하천수질 등급강화 등 각종 환경규제 강화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위대한 도약 미래 창조도시, 완주

■ 기본목표

- 앞선 행정, 열린 자치정책 미래 창조도시
- 따뜻한 세상, 복지정책 평생복지 행복도시
- 활기찬 완주, 경제정책 경제중심 명품도시
- 향상된 소득, 농업정책 첨단 농생명 허브도시
- 창의적 인재, 교육정책 교육인재 지식도시
- 역사와 전통, 예술정책 녹색문화 관광도시

■ 추진전략

- 완주군 미래100년 성장동력 기틀 마련
- 잘사는 농업농촌 실현
- 지역 경제 활성화
- 녹색성장 생태문화관광 기반조성
- 지역간 연계·협력체계 구축

나. 발전방향 및 전략

■ 완주군 미래 100년 성장동력 기틀 마련

- 미래형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섬유 복합소재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고온플라즈마 응용연구센터 조성 등)
- 테크노밸리, 탄소밸리 구축 등 신성장 산업 기반조성을 통한 탄소산업의 메카로 육성하여 글로벌 소재강국 실현

■ 잘 사는 농업농촌 실현

- 총체적 위기에 직면한 지역농업활성화를 위한 5대 정책과제 선정(생산혁신, 유통

혁신, 경영회생, 활력증진, 복지혁신) 농업농촌 약속프로젝트 추진

- 마을기업, 향토산업마을, 파워빌리지 참살기 마을, 멋있는 마을 등 마을공동체회사 100개소 육성을 통한 지역공동체 및 농촌경제 활성화
- 고부가가치 향토산업, 농식품산업 전략 육성을 통한 농촌활력 증진

■ 지역경제 활성화

-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역 향토자원과 연계한 특화형 전문시장, 특화거리 조성
- 공익성+일자리창출+지역경제 선순환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취약계층 경제활동 기회 제공
- 중소기업지원, 투자유치 계획 등 최적의 기업환경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재정수익 확충

■ 녹색성장 생태문화관광 기반조성

- 만경강 상류·고산자연 휴양림 일원 생태관광 전략육성을 통한 휴식과 체험학습공간 조성
- 지역주민과 도시민이 함께 어울려 생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만경강 에코밸리 조성
- 모든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지역축제의 새 지평을 연 완주와일드푸드축제 개최

■ 지역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 문화관광, 환경 등 지역간 연계·협력 촉진으로 규모·범위의 경제화

제2절 진안군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적 : 789.16km²(전국의 0.79%, 전북의 9.8%)
- 세대 및 인구 : 12,463세대, 27,543명(전북의 1.5%)
 - 세대당 2.21명
- 행정구역 : 1읍 10면
- 행정정원 : 553명(읍면 : 146명)
 - 군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49.8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요인
 - 청정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홍삼 한방약재 중심의 도시 브랜드 구축
- 약점요인
 - 초고령사회 도달과 부족한 개발지, 지역 인적자원의 취약성 노출
- 기회요인
 - 수변 및 산악자원의 조화와 교통여건의 개선
- 위협요인
 - 주변지역의 시장팽창으로 경쟁 심화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정 자연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홍삼 한방약재 중심의 도시 브랜드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고령사회 도달과 부족한 개발지, 지역 인적자원의 취약성 노출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변 및 산악자원의 조화와 교통여건의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변지역의 시장팽창으로 경쟁 심화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대한민국 제1의 생태·건강도시(생태·건강 중심도시 진안)

■ 기본목표

- 활력있는 자치행정
- 생산적인 소득증대
- 함께하는 사회복지
- 아름다운 문화관광
- 꿈이있는 교육환경
- 생태
 -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고 환경적으로 건전한 도시 지향
 - 진안의 환경가치를 중시하고 앞으로 지향할 가치 표방
- 건강
 - 유해환경으로부터 자유로운 자연친화적 환경조성으로 개인은 물론 지역사회 전체가 건강한 삶 추구
 - 최고의 먹거리 생산과 자연친화적 환경조성

■ 추진전략

- 3대 중장기 전략사업 보완
 - 유기농벨리 식품클러스터
 - 마이산 로하스레저타운
 - 진안고원 에코토피아
- 7대 역점과제 집중
 - 핵심전략사업 집중투자
 - 소통과 공감의 열린 군정
 - 서민생활 지원과 지역개발
 - 맞춤형 포괄적 복지
 - 지역 농산업 특화
 - 녹색환경 조성
 - 문화관광 및 스포츠 마케팅

다. 발전방향 및 전략

■ 발전방향

- 진안 비전 구현을 위해 최적화, 융·복합, 이미징의 3대 전략축 설정
 - 최적화(공생/조화) : 생태건강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초 인프라 구축 및 결집
 - 융·복합(성장/확산) : 생태건강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각 부문과 자원을 결합
 - 이미징(품격/문화) : 지역 가치의 대중화

■ 발전전략

- 농산업분야 : 관행농업중심의 산업구조를 탈피, 청정환경에 기반을 둔 고부가가치형 생태건강 농식품 융·복합산업의 기반구축
- 문화관광분야 : 정주공간에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 지역사회 중심의 관광기반 구축
- 환경분야 : 환경가치의 증대 및 자원 마케팅
- 산림분야 : 산림자원의 계획적 보전 및 다각적 이용기반 구축
- 도시분야 : 미래형 중심지 공간구조 건설을 통한 지역의 신성장 공간구조를 창출
- 교통환경분야 : 쾌적하고 균형적인 교통환경 구축
- 농지분야 : 농지의 계획적 보전과 고도이용에 의한 지속적 농업생산기반 구축
- 교육복지분야 : 교육복지체계의 전략적 통합과 입체화를 통한 성장동력 지원과 주민 삶의질 향상

제3절 무주군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적 : 631.87km²(전국의 0.63%, 전북의 7.8%)
- 세대 및 인구 : 11,402세대, 25,578명(전북의 1.4%)
 - 세대당 2.24명
- 행정구역 : 1읍 5면
- 행정정원 : 462명(읍면 96명)
 - 군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55.4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
 - 국내 대표적 청정환경 지역
 -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접경지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라 내륙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
 - 구천동, 무주리조트 등 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Land Mark)에 기반한 높은 지역 인지도
 - 지역 내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 공공시설물의 미관적 우수성
- 약점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 취약한 산업 기반과 대표 상품의 부재
 - 지역의 대표 관광 거점인 무주리조트의 지역 파급효과가 미흡
 - 입지적 특성에 따른 각종 개발 규제
 - 개발과 보존에 대한 지역 구성원간 갈등이 상존
- 기회
 -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인접 시장의 성장
 -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 고조
 - 관광과 휴양·레저에 대한 내수 시장의 성장

- 동북아 관광 수요의 증대
- 국토의 동-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내륙지역의 접근성 개선
- 위협
 - 한미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
 - 접근성 개선에 따른 지역 자원의 외부 유출 위험 증대
 - 내국인의 해외 관광 선호도 증대
 -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동부 산악권의 상대적 소외
 - 지구온난화에 따른 레저산업 환경의 변화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대표적 청정환경 지역 ■ 국토의 중앙에 위치한 접경지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라 내륙 교통의 중심지로 부상 ■ 구천동, 무주리조트 등 지역의 대표적 랜드마크(Land Mark)에 기반한 높은 지역 인지도 ■ 지역 내 대형 국책사업 유치를 통한 성장 잠재력 확보 ■ 공공시설물의 미관적 우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감소 및 고령화의 심화 ■ 취약한 산업 기반과 대표 상품의 부재 ■ 지역의 대표 관광 거점인 무주리조트의 지역 파급효과 미흡 ■ 입지적 특성에 따른 각종 개발 규제 ■ 개발과 보존에 대한 지역 구성원간 갈등이 상존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복도시 건설에 따른 인접 시장의 성장 ■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 고조 ■ 관광과 휴양·레저에 대한 내수 시장의 성장 ■ 동북아 관광 수요의 증대 ■ 국토의 동-서 교통 인프라 확충에 따른 내륙지역의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미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 ■ 접근성 개선에 따른 지역 자원의 외부 유출 위험 증대 ■ 내국인의 해외 관광 선호도 증대 ■ 새만금 개발에 따른 동부 산악권의 상대적 소외 ■ 지구온난화에 따른 레저산업 환경의 변화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글로벌 휴양 커뮤니티, 무주

■ 추진전략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은 ‘융·복합’, ‘허브&스포크’, ‘마케팅’ 등 3가지로 설정하여 향후 사업 발굴 및 추진 전반에 걸쳐 적용

다. 발전방향

■ 관광·휴양산업의 발전기반 구축

- 관광·휴양산업을 지역의 핵심 성장산업으로 설정하고 산업, 문화, 환경, 복지 등 관련분야를 융·복합한 새로운 지역전략의 축으로 '관광'을 설정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산악형 휴양관광지로 동북아 관광시장을 유치
- 경쟁력 있는 지역관광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의 토대 마련
- 풍부한 자연생태자원을 기반으로 생태관광과 문화관광을 새로운 콘텐츠로 개발

■ 지역산업의 기반강화 및 활성화

- 핵심성장동력으로서 지역산업의 경쟁력 확보
-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역산업육성으로 실질적인 주민고용 및 소득창출에 기여
- 산업간 융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농산물 유통시스템과 브랜드의 혁신

■ 환경가치의 증대 및 자원개발

- 양호한 지역의 자연환경 자원의 보전과 효과적인 관리
- 산림, 동·식물 등 환경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경제적 가치 창출
- 기 정착된 '반딧불이=무주' 등 청정환경을 간직한 지역이미지를 브랜드화
- 태권도공원 등 개발사업 추진 시 환경친화적인 개발 추진

■ 문화를 통한 지역 활성화

- 경제부문이나 개인생활에서도 창조가 핵심가치로 등장함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 증대
- 작지만 영향을 가진 문화거점과 문화명소를 마련
- 문화를 관광, 도시정비, 지역마케팅 등과 접목하여 부가가치 창출
-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지역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
- 문화소외지역 및 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 정주와 관광의 통합공간 조성

- 인구감소와 고령화에 대비한 정주공간 정비
- 수변구역 등 각종 제도적 규제로 개발을 제한받고 있는 지역의 합리적인 개발방안 모색
-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거점 및 스포크 개발
- 정주와 관광의 통합공간구조 및 생활환경 조성

■ 지역 밀착형 선진 방재시스템 구축

- 향후 예상되는 기상이변 등 재해발생 가능성에 대비한 방재시스템 구축
- 사후복구가 아닌 사전 예방중심의 방재전략
- 주민중심의 자조적(自助的)인 재난 예방 및 관리 방안
- 산악휴양지역의 특성을 살려 응급구조시스템 구축

■ 복지기반의 구축

- 농산촌지역의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다양한 복지프로그램 개발
- 고령화에 따른 보건·의료 수요가 급증함에 따른 복지시스템 구축
- 여성, 결혼이민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강화
- 무주군 지역교육 경쟁력 강화방안
- 주민 평생교육, 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제4절 장수군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 적 : 533.51km²(전국의 0.53%, 전라북도의 6.6%)
- 인 구 : 10,464세대, 23,386명(전북의 1.3%)
 - 세대당 2.23명
- 행정구역 : 1읍, 6면
- 행정조직 : 460명(읍면 : 97명)
 - 군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50.8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
 -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군정의지
 -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악자원 보유
 - 내륙교통의 중심지
 - 우수한 지역브랜드
 -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군민의 높은 만족도
- 약점
 -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
 - 취약한 산업기반과 농산물 가공산업 미발달
 - 개발가능지역부족
 - 교육·문화·체육·관광자원 부족
 - 산악지형으로 읍면간 생활권 구분
 - 높은 농업소득 의존도
- 기회
 - 관광 및 레저 수요 증가
 - 친환경 및 웰빙에 대한 관심증대
 - 지리산권 개발 사업과 인근 시·군의 상생협력의지
 - 신발전지대개발 가능성 및 전북의 동부권 개발 의지
 - 교통망개선으로 접근성 양호

- 위협
 - 농산물시장개방 가속화
 - 지역정책에서 소외 가능성
 - 지구온난화로 농업환경변화
 - 접근성 개선으로 자원의 역외 유출 가능성 증대
 -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필요인력 부족

강점	약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균정의지 ■ 청정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산악자원 보유 ■ 내륙교통의 중심지 ■ 우수한 지역브랜드 ■ 사회적 자본에 대한 군민의 높은 만족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감소 및 초고령사회로 진입 ■ 취약한 산업기반과 농산물 가공산업 미발달 ■ 개발가능지역부족 ■ 교육·문화·체육·관광자원 부족 ■ 산악지형으로 읍면간생활권 구분 ■ 높은 농업소득 의존도
기회	위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 및 레저 수요 증가 ■ 친환경 및 웰빙에 대한 관심증대 ■ 지리산권 개발 사업과 인근 시·군의 상생협력의지 ■ 신발전시대개발 가능성 및 전북의 동부권 개발 의지 ■ 교통망개선으로 접근성 양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산물시장개발 가속화 ■ 지역정책에서 소외 가능성 ■ 지구온난화로 농업환경변화 ■ 접근성개선으로 자원의 역외 유출 가능성 증대 ■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필요인력 부족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안락하고 풍요로운 농업·건강도시, 장수

■ 기본목표

- 풍요로운 농축산 기반도시
- 청정자연과 함께하는 문화·휴양 관광도시
- 고품격의 삶의 질이 보장된 권역 중심도시

■ 추진전략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환경 조성
- 자연·역사 문화자원의 성장동력화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수건설

다. 발전방향 및 전략

■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환경 조성

- 농촌마을의 경관개선, 생활환경정비 및 주민소득기반확충 등을 통해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농촌 정주공간 조성
- 지방도로 확충으로 지역간 균형개발 및 교통소통 불편 해소
- 맞춤형·기획 농정 추진 및 친환경 농산물 생산 체계 구축으로 안정된 농산물 생산
- 농외소득원 개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로 농촌공동화 및 이농현상 예방

■ 자연·역사 문화 자원의 성장동력화

- 역사문화공간인 논개생가와 주촌민속마을을 중심으로 주변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인프라 확대 및 체류형 생태문화 공간 조성
- 지역에 산재한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속적으로 보존 정비함으로써 원형훼손을 최소화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문화유산 후대 계승
- 기 조성된 체육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체육인프라 구축 및 생활체육 활성화
-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악경관과 수변경관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휴양공간 조성, 기존관광지 시설 보강, 지리산권 관광개발 등 지역내 관광인프라 확충

■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의료취약지역·계층에 보건의료 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및 의료 인프라 구축
-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종합 복지 서비스 체계 구축 및 초고령 시대에 대비한 노인복지 향상 도모
-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 및 여성 능력 향상 기회 제공
- 교육환경 개선을 통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 및 향토인재 육성 초석 마련
- 특성화 대학 유치로 “교육여건에 따른 인구유출” 방지 및 전문적인 고급인력 양산

■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장수 건설

- 자연과 어우러지는 생태관광 인프라 구축
- 기후변화 대응과 청명한 대기질 유지
- 자원과 인간이 공존하는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 교통 취약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중교통 수단 공급 및 교통 서비스 질 개선
- 도로 및 교통시설 개선으로 교통약자 보호

제5절 임실군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적 : 597.21km²(전국의 0.60%, 전북의 7.4%)
- 세대 및 인구 : 13,876세대, 30,593명(전북의 1.6%)
 - 세대당 2.20명
- 행정구역 : 1읍 11면
- 행정정원 : 586명(읍면 160명)
 - 군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52.2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
 - 옥정호반의 수려한 자연경관과 섬진강 상류의 청정 수자원 보유
 - 전형적인 농산촌형으로 농촌관광의 인프라 확보
 - 필봉농악, 애견문화, 충효문화 등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예술 산재
 - 대전, 광주, 대구, 전주권 등 대도시권의 근접지로서 지리적 여건 양호
 - 경쟁력 있는 전통발효식품 산업의 발달
- 약점
 - 1차산업 중심의 영세성으로 지역경제 기반 취약
 - 전문 인력, 자주재원 부족 등 자립적 지역발전 역량 부족
 - 임실, 오수, 관촌의 생활권 분할로 통합적 중심거점 기능 미약
 - 경쟁력 있는 문화관광 자원의 부족 및 관광마케팅 부족
 - 인구의 고령화로 복지비용 부담의 가중화
 - 옥정호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섬진강자원의 효율적 활용 어려움

- 기회
 - 광역 교통체계 구축으로 대도시권으로부터 접근성 개선
 - 신활력사업, 소도읍 육성사업 등 지역 개발 사업 수혜로 지역 활성화
 - 민선 5기 출범으로 자립적 지역발전 역량 강화 기대
 - 주 5일 근무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촌관광, 휴양·레저 활성화 기대
 - 체험 문화, 관광, 교육 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신농정 혁신을 위한 지속적 재원의 확보 노력
- 위협
 - 교통체계의 발달로 대도시(전주권)로의 인구 집중 심화 예상
 - FTA 확산 등 농산물 수입 확대로 지역 소득기반 약화
 - 오염총량제 실시에 따른 하천수질 등급 강화로 지역 개발사업 타격
 - 인구의 지속적 감소로 지역 생산활동 기반의 붕괴 우려
 - 지자체간의 관광산업 육성 경쟁 심화 우려
 - 전주 중심의 광역권 개발 계획으로 지역간 발전 불균형 심화 우려
 - 군사도시화에 따른 도시 이미지 훼손과 환경문제발생 우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옥정호, 섬진강 등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 치즈마을, 치즈테마파크, 농촌 체험장 등 농촌 체험관광 인프라 구축 ■ 필봉농악, 충효, 오수의견 등 전통문화예술산재 ■ 대도시 근접지로 지리적 여건 양호 ■ 치즈, 장류 등 발효식품 산업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산업 중심의 영세적 지역경제 기반 ■ 인력, 자원 등 자립적 지역발전역량 부족 ■ 임실, 오수, 관촌의 3개 권역으로 생활권 분화 ■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관광자원의 효율적 활용 어려움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광역 교통체계 구축으로 대도시권 접근성 강화 ■ 주 5일 근무 및 소득수준 향상으로 농촌관광 활성화 ■ 체험문화, 관광, 교육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 경쟁력 강화 ■ 민선 5기 출범으로 신농정 혁신을 위한 역량강화 및 자원 확보 노력 ■ FTA 등으로 청정자연을 활용한 친환경 농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체계발달로 인근 대도시로의 지속적인 인구 유출 ■ FTA등으로 지역 소득기반 약화 ■ 오염총량제 실시에따른 하천수질 등급 강화로 지역 개발사업 타격 ■ 전주 중심의 광역권 개발계획으로 지역간 불균형 심화 ■ 군사도시화에 따른 이미지 훼손과 환경문제 발생 우려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섬진강 청정지역 체험도시, 임실

■ 기본목표

- 특화품목 및 향토자원의 고부가가치화로 농촌 재창조

■ 추진전략

- 문화·문학·자연이 하나된 체험·관광도시 임실 건설
- 식품산업 육성 및 발효식품 메카 조성
- 주민 역량강화 및 의식개혁을 통한 상생하는 임실 건설
- 선진 교육·복지 도시 구현

다. 발전방향 및 전략

■ 문화·문학·자연이 하나된 체험·관광 임실 건설

- 필봉농악 등의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후손들에게 전통문화의 소중함을 일깨워 줄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활동 실시
- 섬진강 시인 김용택의 문학 강연과 산촌유학생 학습활동 등을 통한 자연을 활용한 문학체험 환경 조성
- 섬진강변 김용택 시인의 시를 스토리텔링하여 문학과 자연이 하나되는 체험 임실
- 임실에 치즈를 전파한 지정환 신부의 정신을 농촌공동체 건설 실천의 장이었던 치즈마을에서 직접 체험함으로써 주민과 임실을 찾는 관광객의 농촌마을 문화 체험
- 임실의 구석구석을 작은 목초지화 하여 낙농과 자연을 체험할 수 있도록 조성
- 부대이전에 따른 폐해를 극복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M-City(재향군인 자급자족도시)조성을 통해 군사 문화·안보의식·서바이벌 체험 등을 활용하여 지역 인 구유입과 체험 활성화

■ 식품산업 육성 및 발효식품 메카 조성

- 목장형 유가공공장 육성을 통해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의 고급화 전략 마련으로 대규모 공장 상품과 차별화
- 목장형 유가공공장을 활용한 농촌체험 활동과 연계하여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치즈, 요구르트 등 유제품과 더불어 장류 산업 육성으로 임실지역생산 농산물을 자체 소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농산물의 부가가치 극대화

■ 주민역량강화 및 의식개혁을 통한 상생하는 임실 건설

- 자본주의에 물들어 돈벌기 위한 농업에 빠져있는 농촌에서 주민의 의식개혁과 지역공동체 건설로 살아있는 농촌 만들기를 통해 즐겁게 일하며 점차 풍족해져 가는 농촌 건설
- 주민 자체 학습조직 강화와 지역리더 육성으로 마을 공동체 강화와 더불어 더 나아가 임실군 전체의 상생의 발판으로 활용
- 주민 스스로 새로운 아이템 발굴 및 적극적인 정책개발 활동 참여로 거버넌스 형태의 군정 운영 방안 마련

■ 선진 교육·복지 도시 건설

- 치즈학교, 시인학교 등 지역의 특성을 살린 산촌유학마을 조성을 통해 농촌학교의 특성화를 도모하고 인성과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학교 육성으로 귀농·귀촌 유도 및 신개념 교육의 중심지로 부상
- 영어교육의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시대 외국어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영어체험학습센터를 운영하여 자연과 함께하는 살아있는 영어 체험 교육 실시
- 부대 이전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향군인 자급자족마을 조성으로 생업에서 은퇴한 재향군인의 노후 복지를 위해 임실군으로 이주를 유도하여 군사·안보 체험에 활용함으로써 고령사회 인구유치 도모
- 농촌 체험 활성화를 통해 노인 및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 등으로 서민 복지 향상

제6절 순창군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적 : 495.86km²(전국의 0.50%, 전북의 6.1%)
- 세대 및 인구수 : 13,197세대, 30,209명(전북의 1.6%)
 - 세대당 2.29명
- 행정구역 : 1읍 10면
- 행정정원 : 570명(읍면 139명)
 - 군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53.0명당 1명

■ SWOT 분석

- 강점
 - 전국 제1호 장류특구 지정과 장류 브랜드 전국 최고
 - 장수관련 최초 건강장수과학특구 지정과 대한민국 대표 고령친화 모델지역
 - 100세 이상 초장수인이 많은 제1의 장수고을 이미지 선점
 - 강천산, 섬진강 등 청정한 생태관광자원 보유
 - 인구 140만의 광주 배후도시로 접근성 용이
- 약점
 - 장류제품의 원료 의존 심화와 위생관리 어려움
 - 2001년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동인구 감소 및 복지비용 증가
 - 숙박, 레저 등 관광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경유형 관광지
 - 도로, 철도 등 사회 기반시설의 미흡으로 대도시 접근성 취약
 - 생업중심의 소규모 미작위주 농가와 기업형 농업전략 부재
- 기회
 - 발효식품의 세계 5대 장수식품 선정과 고추장의 국제식품규격 획득
 -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정책으로 노인복지 정책 확대
 - 강천산 온천 개발과 휴양단지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
 - 88올림픽고속국도 확장, 전주-순창간 국도확장, 완주-순천 고속국도 개통
 - 강, 길, 마을 등을 따라 걷는 생태여행 활성화

- 위협
 - 중국산 값싼 원료(콩, 고추) 수입 증가
 - 임실, 남원, 담양, 곡성 등 인접 시·군과의 관광경쟁 심화
 -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의 지원 축소와 세입의 감소
 - 현대인의 서구화된 음식문화 및 외식증가에 따른 장류소비 감소
 - FTA와 곡물가격 인상에 따른 축산, 농업 경쟁력 약화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류의 다차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와 관광객 유치 ■ 건강장수 관련 기업의 유지로 장수정책의 산업화 ■ 장수촌 중심의 실버타운과 전원마을 조성 ■ 수요자 중심의 생태체험관광 등 다양한 상품 개발 ■ 개설되는 88고속도로 휴게소와 순창장류와의 연계 ■ 특화된 소수품목 집중 육성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ACCP인증 등 전통장류의 품질규격화로 위생문제 해결 ■ 교육문제 해결을 통한 인구유출 방지와 기업유치 ■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자립환경과 사회적 참여분위기 조성 ■ 가족 체류형 휴양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와 연계 ■ 성장축진지역을 활용한 도로망 개선 ■ 집단화, 기계화, 규모화를 통한 기업형 농가육성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식품기업과의 협력으로 장류시장 저변확대 ■ 장수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로 고령정책 선점 ■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촌마을종합개발 ■ 관광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으로 민자유치 ■ 도시민 대상 군 인지도 향상 홍보와 관광 마케팅 추진 ■ 친환경 농산물 인증확대와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인의 입맛에 맞는 신제품 개발과 마케팅 강화 ■ 식품기업과의 협약으로 대중적 활용법 모색 ■ 특화된 관광개발로 민자유치 추진 ■ 자치단체간 협력과 연계로 관광의 시너지효과 창출 ■ 차별화된 국비사업 발굴과 확보총력 ■ 농산물의 광역브랜드화와 공동가공·유통시설 건설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발효로 만드는 건강장수도시 삶의 쉽표, 순창

■ 기본목표

- 세계적인 장류산업의 메카
- 은퇴 후 살고 싶은 국내 제1의 건강장수고을
- 가족과 함께 오고 싶은 녹색생태관광 농촌

■ 추진전략

- 기초생활 기반 구축으로 살기 좋은 정주공간 조성
 - 주민 공감형 기초생활 인프라 정비로 주민생활 불편해소
 - 기초생활 공동체 활성화로 인정 넘치는 공간조성
- 돈버는 농업농촌 실현으로 살맛나는 농촌구현
 - 농업기반 인프라정비로 농가 소득증대

-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과 고소득 작목 육성
- 지역역량강화로 경쟁력 있는 리더육성
- 우대받는 건강장수 고을육성
 - 장수 인프라구축과 장수노인 우대시책 추진
 - 제3기 인생교육으로 날마다 즐거운 여생
 - 복지서비스 강화로 소외계층 보호와 의료서비스 개선
- 장류와 장수의 6차 산업화로 세계로 뻗어가는 순창
 - 장류와 장수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산업 기반 견인
 - 장류와 장수가 결합된 기능성 식품개발로 수출산업 선도

다. 발전방향

■ 쾌적한 생활환경속에 언제나 살고 싶은 건강장수도시

- 녹지 공간 확충, 스토리가 있는 테마가로 조성 등 생활환경 정비를 통해 발효 이미지와 조화를 이루는 아름다운 도시경관형성
- 소공원, 산책로, 운동 및 문화공간의 확충을 통해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있는 쾌적하고 여유로운 지역문화 구축

■ 발효산업의 세계화와 농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발효를 기반으로 하는 식품가공, 관광 등 2,3차 산업의 육성과 원료 농산물 생산유통기반 구축으로 경제성장효과 극대화
- 고추, 복분자 등 각 권역별 지리적, 문화적 특성에 맞는 농산업 육성으로 지역농업의 발전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

■ 자연 속에서 조화로운 삶을 이루는 명품마을 육성

- 농촌 어메니티를 느낄 수 있는 생활공간 가꾸기와 권역단위 정비사업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마을환경 조성
- 도시와 농촌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인구증대와 활력 있는 마을육성

■ 삶의 여유가 넘치는 건강장수 고을 육성

- 건강장수연구소를 중심으로 장수인프라를 조성
- 활기찬 여생을 누릴 수 있는 교육과 일터 마련
- 장수식단개발과 장수기능성 식품개발로 활력 넘치는 지역경제 활성화 견인 및 수출산업 실현으로 지역 경쟁력 확보

제7절 고창군

가. 일반현황 및 SWOT 분석

■ 일반현황

- 면 적 : 607.74km²(전국의 0.61%, 전북의 7.5%)
- 인 구 : 27,814세대 60,861명(전북의 3.3%)
 - 세대당 2.19명
- 행정구역 : 1읍 13면
- 행정정원 : 691명(읍면 213명)
 - 군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88.1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
 - 선운산, 명사십리 등 산, 바다, 들을 모두 갖춘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 복분자, 수박, 장어, 천일염 등 농·특산물의 전국적 브랜드화
 - 골프장, 온천, 실버타운 등 관광투자여건이 양호하여 관광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추진 중
 - 고인돌 세계문화유산, 선운사, 읍성 등 역사유적과 판소리, 민속자료, 인물 등 문화자원이 매우 풍부
 - 서해안 고속도로, 담양~고창 고속도로 등 주요 대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 약점
 - 1차 산업에 편중된 산업구조로 산업경쟁력 취약
 - 지역특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및 전략적 마케팅 부족
 - 산업, 관광, 생태, 문화, 자원 등의 연계화 및 융·복합화
 - 인구정체 및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으로 지역발전의 역동성과 활력이 저하
 - 취약한 재정자립도 등 지역개발 투자여력에 한계

- 기회
 - 서해안 초광역개발권 구상, 새만금 개발계획 등 서해안시대 도래에 따른 지역발전여건 성숙
 - 성장촉진지역 지정 등 기초생활권 낙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쾌적한 농촌에 대한 가족중심의 체험관광수요 및 도시 귀농·은퇴자 수요 증대
 - 소득증대, 주 5일근무제 등으로 서해안 해양관광레저 관광수요의 증대
 - 고창~대구간 연결노선 개설로 전남·광주 및 영남권 교류 증대
- 위협
 - 서해안 개발구상의 대형프로젝트의 직접적 대상지역에서 제외
 - 전주, 정읍, 광주 등 도시권과 근접하고 있어 독자적 지역생활권 형성 애로
 - 유사한 자원과 특성을 보유한 자치단체간 경쟁의 심화
 - 지방행정체제 개편 및 시·군간 통합 논의에 따른 주변지역과의 주도권 경쟁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혜의 수려한 자연경관 보유 ■ 농특산물의 전국적 브랜드화 ■ 관광투자여건 양호 ■ 역사유적과 역사문화자원 풍부 ■ 고속도로 개통 등 주요 대도시와의 접근성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산업 중심의 취약한 산업구조 ■ 지역특산물의 전략적 마케팅 부족 ■ 부문간 연계 및 융·복합화 미흡 ■ 인구 정체 및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 ■ 취약한 재정 및 지역개발 투자여력의 한계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개발의 본격적 추진 ■ 성장촉진지역에 대한 정부지원 확대 ■ 서해안 해양관광레저수요의 증대 ■ 농촌환경에 대한 도시수요 증대 ■ 광주, 전남 및 영남간 교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해안개발 대형프로젝트에서 제외 ■ 독자적 지역생활권형성 애로 ■ 유사 지자체간 지역발전 경쟁의 심화 ■ 행정체제개편 및 시·군 통합 논의 가속화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살기 좋고 풍요로운 녹색미래도시, 고창

■ 기본목표

- 지속가능하고 삶의 질이 높은 명품도시 창조
- 신산업육성을 통한 경제적으로 소득 높은 가치창출
- 자연의 보존과 개발의 조화로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푸른도시 조성

■ 추진전략

- 삶의 질을 갖춘 정주생활도시 창조
- 푸르고 아름다운 생태전원도시 조성
- 지역특화형 녹색산업도시 육성
- 서해안권의 문화관광 허브도시 조성
- 협력과 화합의 선진커뮤니티 구축

다. 발전방향

■ 삶의 질을 구비한 정주도시 창조

- 군산~광주~목포를 연결하는 교통의 중심지 강화를 위한 서해안고속도로 6차선 확장 및 서해안철도 건설 등 교통·물류 거점으로 육성
- 특성화된 권역별 종합개발사업 및 소재지 정비사업 등 친환경적인 도시 재개발을 통한 살기 좋고 쾌적한 정주기반 구축
- 새만금권역 배후도시로서 도시기반시설은 물론 주거, 교육, 문화, 복지 등 풍요로운 삶의 질을 구비하여 정주인구 7만명 달성
- 아동복지타운 및 장애인 복지회관 건립 등 군민 복지시설 확충 등 복지서비스 강화

■ 푸르고 아름다운 생태전원도시 조성

- 산, 해안, 갯벌, 온천, 전원 등 수려한 환경생태자원을 보전·관리하고 환경친화적으로 개발 전국 제1의 생태수도도시로 육성
- 환경생태자원을 활용한 친환경적 해안개발, 실버클러스터, 골프위락단지 조성 등을 통해 서해안권 중심 생태휴양도시로 육성
- 고창갯벌, 운곡습지, 동림철새도래지, 선운산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이용한 생태계 복원 사업 추진으로 세계적인 에코누리 도시 조성

■ 지역특화형 녹색산업도시 육성

- 새만금 개발과 연계하여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전략에 부응하는 녹색산업, 식품산업, 신재생에너지사업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산업 육성

- 전국적으로 알려진 복분자, 수박, 고추, 바지락, 장어 등 농특산물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가공, 유통의 현대화 및 2차, 3차 산업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고부가가치화 실현
- 친환경 고창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신소재, 기계·장비, 건축소재산업 중심도시로 육성
- 복분자클러스터, 청보리광역클러스터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통한 특화된 농특산물의 클러스터 구축
- 인삼 등 약용작물 재배 단지 조성 및 IT산업을 응용한 신소득 작물 확대재배로 신 고부가가치 농업 육성

■ 서해안권의 문화관광 허브도시 조성

- 전북지역 서해안권 해양관광활성화를 위한 구시포 국가어항 인프라구축 및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지구 조성 등을 통한 서해안권의 관광위락 중심지로 도약
- 선사시대부터 근대에 이르는 풍부한 유·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계승·발전시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중심도시로 육성
- 판소리, 농악, 동학농민혁명 등 전통적인 유무형의 역사문화유적을 발굴·복원하여 한국적인 지역브랜드를 개발하여 지역이미지를 창출 및 세계화 추진
- 석정온천관광지 휴양 관광지 명소화 및 방장산 일원을 레저스포츠 허브도시로 육성
- 스포츠 타운 조성으로 국내·국제 스포츠 대회 성공적 개최와 사계절 문화·지역축제 개최로 활력 있는 도시로 육성

■ 협력과 화합의 선지커뮤니티 구축

- 군민 화합과 열린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으로 고품격 행정복지 구현
- 문화, 교육, 복지 등 전 분야에 걸쳐 지역발전에 대한 군민의 정책 참여 확대로 지역 공동체 활성화
- 고창 미래포럼 및 평생학습교육 추진으로 군민 마인드 향상 및 지역정체성 확립

제8절 부안군

가. 일반현황 및 SWOT분석

■ 일반현황

- 면 적 : 493.03km²(전국의 0.49%, 전북의 6.1%)
- 세대 및 인구 : 27,623세대, 60,138명(전북의 3.2%)
 - 세대당 2.18명
- 행정구역 : 1읍 12면
- 행정정원 : 668명(읍면 207명)
 - 군민대비 공무원수 : 인구 90.0명당 1명

■ SWOT분석

- 강점
 - 내륙과 해양자원이 공존하는 다양한 자연환경과 농수산 자원이 풍부
 - 변산반도 국립공원 내에 대명콘도가 건설되어 관광개발의 거점을 확보
- 약점
 - 젊은 층 인구 감소 및 고령화 심화
 - 제조업 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관광기반 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자원의 연계성도 부족하여 전체적인 산업기반이 매우 미흡
 - 부안을 대표할 만한 이미지가 취약하고, 변화에 둔감
 - 각종규제(국립공원·상수원 보호 등)에 따른 개발제약이 심하고, 대도시와의 접근성도 취약
- 기회
 - 본격적인 새만금 내부개발과 신재생에너지단지 준공 등으로 성장잠재력이 큼
 - 친환경,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광과 휴양·레저에 대한 내수 시장이 성장
- 위협
 - 지구온난화, 해양환경 변화 등에 따른 수산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 등이 예상
 - 한미 FTA 체결 및 시장 개방 가속화로 농업에 대한 피해가 우려
 - 글로벌 금융위기와 새만금 개발에 따른 부작용 우려 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지연될 가능성이 큼
 - 서해안 지역의 관광 개발 경쟁이 심화되고 문화적 기호 변화 등으로 관광개발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

강 점	약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륙·해양 자연환경과 풍부한 농수산자원 ■ 변산반도 국립공원 ■ 지역특화상품(오디)의 성장가능성 ■ 대명 리조트의 유지 등 개발의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젊은 층 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심화 ■ 취약한 제조업 기반 ■ 부안의 이미지 부재 낮은 지명도 ■ 고등교육기관의 부재 ■ 관광기반시설 미흡(숙박, 편의시설) ■ 주민 통합의 어려움 ■ 지역자원의 연계성 부족(산, 들, 바다) ■ 각종규제(국립공원·상수원 보호 등)에 따른 개발 제약 ■ 대도시로부터의 접근성 취약
기 회	위 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만금 내부개발 ■ 국립공원 규제완화 ■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확대 ■ 새로운 관광수요의 증가(체험, 슬로우 라이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난화 ■ 해양환경의 변화(수산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 산업개발 가능성 약화(금융위기, 새만금개발) ■ 관광개발 경쟁 심화 ■ FTA 체결에 따른 농수산업 경쟁력 약화 ■ 문화적 기호와 취향의 서구화

나. 미래비전 및 추진전략

■ 미래비전

- 농수산업과 관광, 신산업이 공존·발전하는 『서해안 최고 성장거점 도시』

■ 기본목표

- 농수산업, 관광, 신산업 융·복합화를 통한 서해안 최고의 잘사는 부안 실현

■ 추진전략

- 사계절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
- 농수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신성장동력 기반구축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여건개선으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다. 발전방향

■ 사계절 머물고 싶은 관광지 조성

- 새만금개발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기존의 관광자원에 편의시설 확충 및 보수
- 볼거리, 먹거리, 체험시설, 숙박 등 관광인프라 구축 및 확대

■ 수산업의 융·복합화를 통한 고부가가치화

- 농어업 특화·발전을 통한 경쟁력 향상
- 고소득 대체작목 발굴 육성, 농수산물 가공·유통 산업 개발
- 소득증대를 위한 농어업 기반시설 확충

■ 신성장동력 기반구축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 신재생에너지 등 녹색산업과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육성
- 식품 및 신재생 전용 농공단지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 생태관광 및 기능성과 안전성을 갖춘 전통발효식품 개발

■ 문화, 복지, 교육 등의 여건개선으로 살기 좋은 정주환경 조성

- 문화체육시설확충, 참여 문화프로그램 개발 및 생활스포츠 활성화
- 소비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교육여건 개선으로 내고장 학교보내기
- 체계적인 도시기반 구축 및 쾌적한 환경보전·관리를 통한 푸른 생태 도시 조성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부

록

투자사업목록

- 투자계획 총괄
- 지역개발
- 산업경제
- 문화관광
- 지역자원
- 교통물류
- 생활복지
- 환경보전



▣ 투자계획 총괄

(단위 : 억원)

구 분	사업수	총사업비	연도별			재원별					비 고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계	651	1,229,154	220,599	455,001	553,554	663,618	105,298	137,906	277,342	44,990	
지역개발	16	158,359	11,420	70,113	76,826	80,461	7,970	1,030	53,626	15,271	
산업경제	46	205,527	12,637	49,810	143,079	25,369	5,179	15,366	159,331	283	
문화관광	74	76,786	5,349	26,651	44,786	25,271	7,037	20,521	23,155	803	
지역자원	196	152,408	44,672	65,155	42,581	87,682	14,065	23,574	23,157	3,929	
교통물류	67	326,693	70,443	110,962	145,287	254,045	34,796	14,093	12,647	11,112	
생활복지	117	124,117	18,450	68,055	37,611	82,464	19,386	20,153	1,544	570	
환경보전	135	185,264	57,627	64,255	63,383	108,327	16,865	43,169	3,882	13,022	

■ 지역개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합계		16개사업	158,358.9	11,420.0	70,112.8	76,826.1	80,461.1	7,970.3	1,030.3	53,626.3	15,271.0
새만금명품복합도시용지조성(1단계)	2011~2020	명품복합도시용지조성(1단계)	18,300.0		9,150.0	9,150.0				18,300.0	
새만금농업용지조성(1단계)	2011~2020	농업용지조성(1단계)	26,000.0		13,000.0	13,000.0	26,000.0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산업용지조성	2011~2018	산업용지조성	15,000.0		9,375.0	5,625.0				15,000.0	
새만금신재생에너지용지조성(1단계)	2011~2020	신재생에너지용지조성(1단계)	3,400.0		1,700.0	1,700.0	500.0			2,900.0	
새만금생태환경용지조성(1단계)	2011~2020	생태환경용지조성(1단계)	1,900.0		950.0	950.0	1,900.0				
새만금도시용지조성(1단계)	2011~2020	도시용지조성(1단계)	500.0		250.0	250.0	500.0				
새만금다기능부지명소화	2011~2020	다기능부지명소화	1,000.0		500.0	500.0	1,000.0				
새만금생공업용수공급	2011~2020	생공업용수공급기반시설설치	3,400.0		1,700.0	1,700.0	3,400.0				
새만금수질개선	2011~2020	상류유역및새만금호내수질개선	28,900.0		14,450.0	14,450.0	20,800.0	6,500.0		1,600.0	
새만금개발기타사업(1단계)	2011~2020	폐기물처리시설, 공동구등설치(1단계)	9,000.0		4,500.0	4,500.0	600.0			8,400.0	
역신도시건설	2007~2012	역신도시부지조성(9.9km ²)	15,229.0	8,840.0	6,389.0						15,229.0
전북권연구개발특구구성	2013~2026	전주, 익산, 정읍, 완주 등 4개 시·군 일원 6개 지구(72km ²)	4,260.0		1,600.0	2,660.0	2,130.0	425.0	425.0	1,280.0	
새만금~포항간고속국도건설 (1단계새만금~전주간우선추진)	2010~2020 (1단계)	새만금~전주54.3km	16,458.0		458.0	16,000.0	16,458.0				
동부권발전사업지원	2010~2020	동부권6개시·군발전사업지원	3,825.9	0.0	2,129.8	1,696.1	2,470.1	1,045.3	236.3	74.3	
KTX역세권개발	2012~2020	복합환승센터등(익산시185천m ² , 정읍시863천m ²)	6,256.0	30.0	2,354.0	3,872.0	52.0		90.0	6,072.0	42.0
개발촉진지구조성사업	1997~2019	기반시설정비사업39개소	4,930.0	2,550.0	1,607.0	773.0	4,651.0		279.0		

■ 산업경제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합계		46개 사업	205,527.0	12,637.3	49,810.3	143,079.0	25,369.0	5,178.7	15,366.0	159,330.5	282.9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품연구개발	2012~2016	친환경고효율그린기술과지능형고안전기술기반상용차부품개발	1,736.0		1,470.0	266.0	1,117.0	177.0	177.0	265.0	
IT융합차세대농기계종합기술지원사업	2009~2014	IT융합농기계종합기술지원센터건립과시설구축, R&D 및 신뢰성시험평가장비구축, 기술개발	499.0	125.0	374.0		396.0	27.0	45.0	31.0	
탄소밸리구축사업	2011~2015	탄소소재연구소와기업체를집적화, 28만㎡	1,991.0		1,991.0		1,087.0	39.0	39.0	826.0	
KIST 복합소재기술연구소건립운영	2008~2012	KIST전북분원복합소재기술연구소건립및복합소재원천기술개발지원	1,639.0	538.0	1,101.0		1,363	135	141		
초고강도섬유복합재개발사업	2014~2018	항공우주산업용 고성능탄소섬유국산화기술개발	3,000.0		600.0	2,400.0	1,500.0	75.0	75.0	1,350.0	
탄소섬유기반해양스포츠투레저장비개발	2011~2013	광역경제권연계·협력사업	228.0		228.0		105.0	34.7		60.0	28.4
스포츠급경항공기개발사업	2010~2014	경항공기기체제작에필요한탄소섬유국산화및상용화	265.0		265.0		196.0	3.0	2.0	64.0	
OLED사업화기술개발	2010~2012	OLED양산화지원기술개발	243.0	121.0	122.0		109.0	14.0	6.0	114.0	
터치용·복합기술개발사업	2011~2013	호남광역권연계·협력사업	278.0		278.0		135.0	17.0	51.0	75.0	
LED농생명융합기술개발및산업활성화지원	2011~2015	식품공장및농생명LED조명개발	325.0		325.0		250.0	15.0	15.0	45.0	
그린건설기계종합기술지원사업	2010~2014	연구동5,754㎡, 실증단지66,000㎡	420.5	44.3	376.2		260.0	29.5	129.5	1.5	
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사업	2010~2014	방사선발생, 계측기기핵심원천기술개발기반구축	255.0	42.0	213.0			7.0	16.0	15.0	217.0
바이오화학산업육성	2013~2017	바이오화학산업실증단지조성	3,185.0		1,950.0	1,235.0	1,912.0	200.0		1,073.0	
미생물융합과학기술원설립	2015~2020	미생물기반용·복합기술연구시설및인력양성기관설립	4,000		450	3,550	3,600	400			
나노융합상용화플랫폼촉진및활용사업	2010~2015	나노융합상용화플랫폼촉진및활용지원	93.0	18.0	75.0		43.0	25.0	25.0		
eco~인쇄전자사업화촉진지원	2010~2013	인쇄전자제품제조지원및Signboard제작용프린팅공정개발	117.0	39.0	78.0		63.0	12.0		24.0	18.0
귀금속보석산업고도화육성	2012~2016	아파트영공장, 디자인센터	305.0		235.0	70.0	220.0		85.0		
새만금에너지저장시스템기술개발및실증사업	2015~2020	100MW규모ESS, ESS인증기관설립, ESS기술개발사업	4,000.0		105.0	3,895.0	1,300.0	100.0		2,600.0	
서남해 해상풍력발전단지개발	2011~2019	2,500MW규모의해상풍력단지	109,074		4,380	104,694	290			108,784	
한국화학연구원전북지역조직설립	2013~2015	화학연구원전북지역설립	280.0		280.0		200.0	40.0	40.0		
산단, 농공단지조성	2011~2020	41,137천㎡	52,871.0	8,390.0	22,949.0	21,532.0	1,471.0	174.0	11,651.0	39,575.0	
익산부품소재단지조성사업	2009~2012	익산제3공단내33만㎡규모	394.0	39.0	355.0		296.0	39.0	59.0		
LED협동화단지조성및비즈니스센터건립	2011~2015	LED공동R&D및브랜드개발	3,100.0		3,100.0		160.0	60.0	630.0	2,250.0	
녹색제조공정PilotPlant구축사업	2011~2016	부리산업관련연구동및시험생산동구축	172.0		130.0	42.0	80.0	40.0	52.0		
김제자유무역지역표준공장건립	2012~2013	기업의니즈(Needs)충족을위한고효율아파트형표준공장신축	337.0		337.0		219.0	59.0	59.0		
군산새만금산학융합지구조성사업	2011~2015	강의동, 기업연구원, 편의시설구축	489.0		489.0		246.0	56.0	56.0	131.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자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신재생에너지단지 확대조성	2013~2018	330만㎡	2,800.0		1,196.0	1,604.0	2,300.0	400.0	100.0		
지역특성화산업 전문인력양성사업	2012~2013	지역특성화산업 일자리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53.0		53.0		20.0	14.0	6.0	13.0	
미생물가치평가센터 구축	2012~2014	1식(3층, 7,270㎡)	280.0		280.0		250.0	15.0	15.0		
새만금풍력산업클러스터 조성	2010~2014	국산풍력산업육성을 위해 새만금지역에 풍력산업단지, 국산풍력발전시험단지, 인력양성센터구축	3,595	20	807	2,768	1,499	695		1,401	
태양광테스트베드 구축사업	2012~2014	태양광기술 및 제품사업화를 위한 실증 및 검증 인프라구축	116.0		116.0		46.0	35.0	8.0	27.0	
방사선연구기반 확충사업	2011~2014	방사선기기핵심기술개발 및 상용화	250.0		250.0		170.0	40.0	40.0		
RIBiomics센터 설립	2009~2012	신약 등의 효능, 기능, 안전성종합분석 및 평가검증	180.0	75.0	105.0		126.0	27.0	27.0		
고온플라즈마응용연구센터 구축사업	2009~2014	고온플라즈마발생장치 구축	393.0	157.0	236.0			30.0	47.0	316.0	
플라즈마응용 융·복합기술개발사업	2009~2013	기초응용플라즈마연구 및 상용화연구	369.0	158.0	211.0			24.0	106.0	239.0	
태양광리사이클링 R&D 및 시스템 구축	2014~2016	파일럿플랜트 3,000㎡, 실증플랜트40,000㎡, 시스템인프라구축	1,500		500	1,000	1,200		300		
로스알라모스·전북대공동연구소 설립	2011~2017	공동연구소신축 및 복합재분야 기술개발	114.0		98.0	16.0	36.0	36.0		42.0	
신재생에너지원천기술연구센터	2010~2014	풍력원천기술R&D	20.0	4.0	16.0		20.0				
그린쉽기자재시험인증센터	2012~2015	장비구축 9대 시험동, 연구동건립	300.0		300.0		220.0	24.0	56.0		
신성장동력 친환경코스메틱 클러스터 조성	2012~2022	20개 업체(324,000㎡)	73.5		66.5	7.0	27.0	13.5	13.5		19.5
김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	2009~2012	지평선산업단지 내 99만㎡(30만평)규모	705.0	65.0	640.0		529.0	88.0	88.0		
도내 이전 및 투자기업 지원	계속사업	전북에 투자하는 수도권, 비수도권 및 중남부지역에 대해 투자선터미널	2,400.0	794.0	1,606.0		626.0	1,774.0			
소상공인 창업경영개선	2011~2015	소상공인희망센터운영 및 창업경영개선교육	44.0		44.0			44.0			
햇살론 융자지원	2011~2015	저소득자영업자 등 서민대출	115.0		115.0			115.0			
전통시장 환경개선사업	2007~2015	문화관광형시장 등18개 사업	2,839.0	1,978.0	861.0		1,641.0	21.0	1,177.0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육성지원	2010~2012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건립	84.0	30.0	54.0		41.0	5.0	29.0	9.0	

■ 문화관광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합계		74개 사업	76,786	5,349	26,651	44,786	25,271	7,037	20,521	23,155	803
시·군 대표축제 육성	계속사업	14개시·군 대표축제 지원	44.0		44.0			44.0			
한국음식관광축제	2010~2014	한국음식관광축제 지원	50.0	10.0	40.0			25.0			25.0
문화관광해설사육성 및 활용사업	계속사업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지원	62.0		62.0			9.0	29.0		24.0
국제식품엑스포 개최	2015~2017	2016 전북 국제식품 엑스포, 전북 익산시 국가식품 클러스터 조성지 일대	100.0		4.0	96.0	30.0	20.0	20.0		30.0
관광자원개발	1992~2018	군산새만금해남이명소화 사업 등	7,547.0	2,094.0	5,401.0	52.0	2,209.0	1,000.0	2,270.0	2,068.0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	2007~2012	아리랑 기행벨트, 고창읍성 체험거리, 자연생태공원	506.0	32.0	390.0	84.0	242.0	8.0	246.0	10.0	
전주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2014~2016	전주 전시 컨벤션 센터 건립	600.0		400.0	200.0	300.0		300.0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	2009~2017	지리산 허브밸리 조성, 지리산관광개발연계	387.0	35.0	289.0	63.0	227.0		160.0		
광한루원 주변 관광타운 조성	2010~2014	전통문화체험단지, 한옥쉼터, 전통한옥체험관, 남원한국의 집	237.0		237.0		58.0	39.0	100.0	40.0	
강변문화관광권개발 선도사업	계속사업	금강 바이오 관광지대, 섬진강 소리문화체험	353.0		353.0		176.5		176.5		
관광특구사업	계속사업	정읍, 무주 관광특구 지원	148.0	53.0	95.0		63.0	13.0	72.0		
특정지역 도로건설	2010~2019	특정지역 도로건설 지원	833.0		77.0	756.0	654.0		179.0		
국민여가 캠퍼장조성	계속사업	군산시	85.0		85.0				45.0		40.0
중저가숙박 및 대형음식점 시설개선사업지원	계속사업	관광호텔 및 굿스테이	196.0		196.0			49.0	49.0		98.0
한옥체험업시설 개보수 및 체험프로그램운영	계속사업	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개·보수	80.0	15.0	65.0				24.0	16.0	40.0
미륵사지 석탑보수정비	1998~2014	미륵사지 석탑보수정비 지원	140.0	97.0	43.0		98.0	42.0			
지덕권 휴양·힐링 거점조성	2013~2020	아시아 힐링 콤플렉스 조성, 테마별 치유거점 조성 등	9,000.0		1,800.0	7,200.0	5,400.0		1,800.0	1,800.0	
한류원형문화권 조성사업	2013~2020	음식, 종교, 소리, 태권도 연계사업	6,000.0		1,800.0	4,200.0	1,800.0	600.0	600.0	3,000.0	
장수가야문화권 개발사업	2012~2015	고분 발굴 및 정비, 장수가야 박물관 건립	453.5		203.5	250.0	315.0	67.5	71.0		
치명자산 종교명소화 사업	2012~2016	순례길 관광자원화, 종교테마파크	60.0		50.0	10.0			60.0		
백제가요 정읍사 관광지 조성	2011~2017	재현마을 등	250.0		187.0	63.0	97.0		153.0		
함파우 유원지 개발	2009~2018	479,855㎡	686.1	23.7	345.3	317.2	263.5	0.0	422.6		0.0
라제통문 공원과 및 역사관 조성사업	2012~2014	문화전시마당1식, 역사테마공원 1식	80.0	0.0	80.0	0.0	40.0	16.0	24.0	0.0	0.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장수말산업 클러스터조성	2002~2022	말산업 특구지정	3,250.0	1,480.0	69.0	1,701.0	203.0	179.0	241.0	2,627.0	
바이오센트럴파크 조성	2013~2020	농문화테마원, 애그리아울렛, 바이오센트럴타워 등	1,600.0		300.0	1,300.0	500.0			1,100.0	
고군산마리나항 조성	2013~2017	200,000㎡, 200척	794.0		10.0	784.0	10.0	0.0	0.0	784.0	0.0
구도심을활용한 창조관광거점 개발사업	2010~2016	재래시장과 연계 구도심을 창조관광 거점 조성	800.0		672.0	128.0	290.0		290.0	220.0	
마리나조성및새만금해양레저스포츠단지조성사업	2012~2017	바다낚시 교육 체험공간, 해양레저 보트 교육공간 등	620.0		475.0	145.0	210.0		210.0	200.0	
남원연수관광지	2007~2023	공공편익시설, 숙박시설, 휴양문화시설지구 등	5,057.0		1,457.0	3,600.0	245.0		675.0	4,137.0	
만경농재 생태관광지	2007~2019	농어촌관광휴양단지, 테마공원 조성	285.0		189.0	96.0	70.0		115.0	100.0	
금강레포츠 테마관광지	2010~2018	생태체험지구, 조경녹지, 편익시설	285.0		202.0	83.0	140.0		145.0		
강천산관광휴양단지	2012~2015	도시친화형 테마콘도, 건강치유형 스파아쿠아	607.0		607.0		144.0		163.0	300.0	
명사십리 해양관광벨트 조성	2014~2023	15,000㎡, 해양레저센터 등	1,300.0	0.0	110.0	1,190.0	500.0	200.0	300.0	300.0	0.0
부안 공항마리나시설 조성사업	2012~2016	93,907㎡	400.0	0.0	333.0	67.0	225.0	25.0	25.0	125.0	0.0
한방 휴양촌 조성	2013~2017	한방 휴양촌	300.0		150.0	150.0	210.0	60.0	30.0		
섬진강 문학기행벨트 조성사업	2012~2013	섬진강 시인마을, 테마로드 조성, 섬진강생태문학교육관 설립	46.0		46.0		23.0		23.0		
세계프리미엄갯벌생태관광지구 조성사업	2012~2017	갯벌생태 환경연구소, 갯벌생태 전시관, 생태공원 조성	276.0		118.0	158.0	138.0		138.0		
새만금 간척사 박물관 건립	2012~2016	간척사 박물관, 종합전시관 등	600.0		525.0	75.0	200.0		200.0	200.0	
고창북분자테마유원지 조성사업	2008~2013	북분자 전시관, 향토전시장, 조각원 등	325.0		325.0		114.0		211.0		
운곡관광지	2010~2019	습지생태체험, 생태체험, 원형보전	695.0		345.0	350.0	279.0		280.0	136.0	
구천동 33경 탐방로 조성사업	2012~2014	L=18km, B=1.2m	36.0		36.0	0.0	15.0	0.0	21.0	0.0	0.0
적상권역 관광종합개발사업(산악레포츠단지조성 등)	2012~2020	산악레포츠단지조성 등	277.0		90.0	187.0	135.0	42.0	100.0	0.0	0.0
마이산 로하스 레저타운 조성	2011~2020	산악조타운 등 6개사업	733.0		613.0	120.0	106.0	90.0	89.0	448.0	0.0
국제템플 명상센터 조성	2014~2018	15,000㎡, 템플명상센터 1식	127.0	7.0	40.0	80.0	50.0	0.0	50.0	27.0	0.0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사업	2006~2026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문화적 경관조성사업 등	17,109.0	355.0	800.0	15,954.0	4,112.0	1,495.0	7,938.0	3,564.0	
스마트공간문화기술공동연구센터 구축운영	2010~2015	문화콘텐츠분야 연구개발, 산업화 지원	101.0	20.2	80.8		50.0	25.0	2.5	23.5	
전주국제영화제 지원	계속사업	영화상영, 행사이벤트, 세미나 등	589.0	280.0	154.0	155.0	96.0	24.0	185.0		284.0
천년한지문화산업권 조성사업	2011~2015	전주, 완주, 임실 연계·협력사업	52.0		52.0		26.0		26.0		
고도역산르네상스 사업	2013~2021	역사체험 기반조성, 고도생활기반 조성, 고도탐방 네트워크 조성	3,600.0		600.0	3,000.0	1,300.0	300.0	300.0	1,700.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계속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발굴 복원 등	1,239.0		1,239.0		893.0	173.0	173.0		
도지정문화재 보수정비	계속사업	문화재 보수 정비, 발굴 복원 등	332.0		332.0			166.0	166.0		
전통사찰 보수정비사업	계속사업	사찰 보수 정비	135.0		135.0		53.0	26.0	26.0		30.0
국가지정문화재 안전경비인력배치	계속사업	중요 목조문화재 안전경비인력 배치	49.0		49.0		32.0	8.0	8.0		1.0
지명자산성지 등 카탈릭 성지문화 조성사업	2014~2020	자원발굴 및 스토리 및 홍보마케팅, 숙박공간1식	180.0	0.0	80.0	100.0	90.0	50.0	0.0	40.0	0.0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2013~2015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공동묘역 등	672.0		672.0		672.0				
고사부리성 복원 정비	2010~2015	문지보수정비 3개소 등	150.0		150.0		105.0	23.0	22.0		
문화예술의 거리조성 지원	2012~2016	문화거리조성지원	200.0		160.0	40.0		100.0	100.0		
전라북도문화콘텐츠산업 육성지원	2012~2021	문화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한 창조적 생태계조성, 신시장 창출을 위한 기반사업, 문화복지사업 등	1,254		550	704	324	623	212	95	
새만금방조제 상설공연	2011~	상설공연 운영	117.0		97.0	20.0	57.0	60.0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지원	계속사업	문화바우처 지원	140.0	4.0	136.0			13.0	30.0		97.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사업	계속사업	국악 강사 지원	108.0		108.0		20.0	20.0			68.0
문화예술단체사업 지원	계속사업	도 단위 예술행사 개최 지원	74.0		74.0			74.0			
공연예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	계속사업	공연예술 청년일자리 지원	47.3	2.3	22.5	22.5		47.3			
전주세계소리축제	계속사업	공연진행비, 홍보마케팅비, 사무실운영비	492.0	247.0	120.0	125.0	52.0	346.0		94.0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011~2020	공공도서관 건축비 지원	1,198.0	194.0	504.0	500.0	477.0	24.0	697.0		
작은 도서관 조성 지원	2011~2020	작은도서관 조성 지원	200.0	66.0	84.0	50.0	55.0	60.0	82.0		3.0
작은 도서관 운영 지원	2011~2020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00.7	10.0	70.0	120.7		60.2	140.5		
작은 영화관 시설 지원	2013~2020	시,군단위 영화관 설치 지원	80		40	40		40	40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2012~2015	마음훈련원 건립 지원	252.0		252.0		126.0	19.0	44.0		63.0
임실군민속체험 박물관건립	2012~2014	민속체험 박물관 건립 지원	50.0		50.0		20.0		30.0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민간위탁운영	2011~2012	민간위탁 운영비 지원	681.9	323.9	179.0	179.0		681.9			
민자사업정부지급금	2011~2020	공공도서관 건축비 지원	220.0		65.0	155.0	78.0		142.0		
국립무형유산원 건립	2006~2013	공연센터, 아카이브센터, 복합전승센터, 교육연수센터, 기획연구센터, 시민체험센터, 아태 무형유산센터 등	753.0		753.0		753.0				
고창 마한역사 박물관 건립	2014~2016	6,000m ² , 박물관 1식 등	200.0	0.0	84.0	116.0	100.0	50.0	50.0	0.0	0.0

■ 지역자원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합계		196개 사업	152,407.5	44,671.8	65,154.9	42,580.9	87,682.1	14,065.3	23,573.8	23,157.1	3,929.4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지원	2011~2015	지역농업 특성화기술컨설팅 등 지원	184.9		184.9		115.0		69.9		
소득작물분야 기술시범	2011~2015	소득작목 기술시범단지지원	57.6		57.6			17.3	30.3	10.0	
식량작물분야 기술시범	2011~2015	식량작목 기술시범단지지원	52.3		52.3			15.7	28.2	8.4	
과학영농 현장기술지원	2011~2015	과학영농을 위한 현장단위 기술지도확대	78.2		78.2		39.1		39.1		
신기술 보급사업	2011~2015	신기술보급을 위한 지원사업	286.5		286.5		143.3		143.2		
고품질종자 생산기반조성 및 환경개선	2011~2015	고품질종자확보를 위한 생산기반 및 환경시설지원	55.4		55.4		27.7	27.7			
전북농업마이스터대학과정 운영	2011~2015	농업인마이스터대학교육 운영지원	49.5		49.5		24.8	24.7			
후계농업경영인 교육	2011~2020	후계농업경영인 교육사업지원	9.9	1.6	8.3		5.1	3.8		1.0	
농업경영컨설팅 지원	2011~2020	농업경영체 경영컨설팅지원	174.5	19.5	109.6	45.4	54.5	15.9	18.8		85.3
농촌지도기반조성	2011~2015	농촌지도기관 농업인 지도사업확대지원	257.0		257.0		128.5		128.5		
지역전략작목 산·학·연 협력사업	2011~2012	전략작목 산·학 협력컨설팅지원	110.0	80.3	29.7		110.0				
선도농가 경영육성	2011~2015	선도농가 농업경영능력 향상지원	78.2		78.2		31.6		31.6	15.0	
농업농촌 정보지 보급	2011~2020	농업농촌 관련 신문 등 구독료지원	66.1	7.7	48.2	10.1		13.2	51.3	1.5	
후계인력 및 농업인력확보 기본계획수립	2012~2012	후계인력 및 농업인력확보 기본계획수립	1.0		1.0			1.0			
농축산식품 글로벌교육센터 조성	2013~2016	익산시일원	50.0		30.0	20.0	30.0	10.0	10.0		
농기계 임대사업	2011~2015	농기계 보관창조신축, 관리시설 장비구입 등	508.0	208.0	150.0	150.0	254.0	0.0	254.0		
발작물브랜드 육성지원	2011~2015	발작물 생산가공유통 위한 우수브랜드경영체 육성지원	140.0	30.0	60.0	50.0	42.0	21.0	49.0	28.0	
고품질쌀 최적경영체 육성지원	2011~2015	쌀품질향상 경영비절감 컨설팅 등	44.3	13.3	15.5	15.5	22.2	5.3	12.4	4.4	
농작물병해충방제 지원	2011~2015	병해충 사전방제 지원	262.3	35.8	126.5	100.0	104.9	26.2	78.7	52.5	
병해충방제	2011~2014	병해충방제 공동지원	440.0	100.8	169.2	170.0	176.0	44.0	132.0	88.0	
시설원예에너지 이용효율화	2011~2015	시설원예 에너지효율화 시설지원	1,954.6	313.8	890.8	750.0	488.7	175.9	410.5		879.5
논에 타 작물재배로 식품원료 생산인프라 구축	2011~2015	논 타 작물재배 단지조성, 유통가공업체 원료인프라 구축지원	400.0		200.0	200.0	200.0		80.0	120.0	0.0
논소득기반 다양화사업	2011~2015	논 타 작물재배시 ha당 300만원 지원	552.0		276.0	276.0	552.0				
경관보전직불제 지원사업	2011~2013	경관보전조건 갖춘 농가지원	108.8		108.8		81.2	11.6	16.0		
밭직불금 지원사업	2011~2015	영세밭작물경작자 일부소득보전	328.8		328.8			328.8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11~2015	생산 및 정주여건불리 농촌지역지원	98.0		98.0		69.3	10.1		18.6	
쌀농가 직접직불금	2011~2014	쌀농가 도비 직불금지급	500.0	100.0	400.0			500.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쌀소득 등 보전직접지불제	2011~2015	쌀소득 보전직불금 지급	4,959.7	995.3	3,964.4		4,959.7					
특산물쌀경영체 육성사업	2011~2015	특산물쌀경영체 조직화육성	106.1	13.3	92.8		53.1	12.7			40.3	
쌀 경쟁력 제고사업	2011~2015	벼저온창고, 친환경쌀기공라인, 광역병폐기, 공동육묘장, 우량재종포 등	2,235.8	710.9	1,524.9			710.4	765.8		759.6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2011~2015	미곡종합처리장시설 개·보수	815.0	407.0	258.0	150.0	338.8	47.7	71.3		357.2	
쌀가공산업 육성사업	2011~2013	쌀브랜드경영체 및 브랜드 육성	95.0		55.0	40.0	47.5		19.0		28.5	
웰빙양곡 조정시설지원	2011~2011	양곡가공시설 및 양곡부산물 자원화사업지원	72.0	48.0	24.0		36.0			28.8	7.2	
장수군 첨단시설수출원예단지 조성	2013~2014	벤로영 유리온실8ha/부지14ha	269.8	0.0	269.8	0.0	89.2	43.3	28.8			108.5
원예브랜드 육성지원사업	2011~2015	브랜드경영체조직운영 및 마케팅, 종합처리장신축 등	1,166.5	175.3	991.2		319.7	173.2	232.4		441.2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2011~2015	유리온실 증·개축, 양액재배시설 등	1,662.0	296.5	1,365.5		337.8	167.6	627.1		529.5	
FTA 과실생산시설 현대화	2011~2020	5개 권역 과수산업육성, 과원지원 등	1,510	510	500	500	302	136	317			755
지역특화품목 비닐하우스 설치	2011~2015	지동화하우스설치 지원	1,828.8	100.0	1,728.8		914.4				914.4	
FTA 과실 생산기반정비	2011~2020	5개 권역과 수산업 육성, 용·배수로, 경작로 등	551.0	69.0	232.0	250.0	200.0	301.0	50.0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	2011~2015	지역특화작목 생산 및 경영지원	186.2		186.2				186.2			
농수산분야 FTA 대책사업	2011~2012	FTA 피해예상품목 대책사업	164.5		164.5			32.0	67.3		65.2	
시·군 특화품목 육성사업	2011~2015	시·군 특화품목 육성지원	212.3	94.2	118.1		105.9		60.7		45.7	
참봉프로젝트 육성	2011~2014	부안군 참봉프로젝트 육성	592.0		592.0		261.0	118.0	63.0			150.0
노을감자단지 육성	10~2015	40ha	94.8	56.8	38.0	0.0	29.5		29.5		35.8	
친환경농산물 신뢰유통기반구축	2011~2015	친환경농산물 유통기반시설지원	425.0		425.0		235.0		114.0		76.0	
신선농산물수출 물류비지원	2011~2015	과수원예농산물 수출비지원	116.0		116.0			35.0	81.0			
광역유통주체 육성사업	2011~2020	시·군 유통회사 조직경영지원	113.0	6.0	54.0	53.0	80.0				33.0	
통합마케팅전문조직 육성사업	2011~2020	통합마케팅전문조직운영경비, 컨설팅, 마케팅, 공선비지원	235.0		135.0	100.0		71.0			164.0	
농특산물인터넷판매 활성화사업	2011~2020	JBPlaza쇼핑몰입점 운영관리	192.0		107.0	85.0		57.0			135.0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건립	2013~2014	농산물산지유통센터	80.0		80.0		24.0	9.0	29.0		18.0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2011~2020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874.0	474.0	315.0	85.0	286.0	38.0	291.0		259.0	
우수농산물(GAP)시설 보완지원	2011~2015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기능조직위생시설장비지원	187.0	18.0	85.0	84.0	59.0	15.0	30.0		83.0	
시·군 유통회사 육성사업	2011~2020	시·군 유통회사 설립지원	70.6	6.6	64.0		70.6					
다목적저온창고 건립	2011~2014	다목적저온창고 건립	332.0	72.0	260.0		190.0		142.0			
농산물 홍수출하조절용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011~2016	홍수출하방지저온/ 예냉시설구축	540.0	120.0	370.0	50.0	270.0		108.0		162.0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	2011~2014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지원	317.8	153.6	164.2			46.7	130.5		140.6	
배수 개선사업	2011~2015	경작지배수개선을 위한 용·배수 시설확충	6,585.0	5,308.0	1,074.0	203.0	6,585.0					
수리시설수해 복구사업	2011~2020	수해로 인한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1,812.2	114.4	1,097.8	600.0	1,300.7	258.5	253.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한밭대비용수개발	2011~2021	가뭄대비용수 확보지원	200.0		100.0	100.0	160.0		40.0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	2011~2020	농촌지역생활용수확보를 위한 관정 등 지원	316.0	114.0	108.0	94.0	222.0		94.0			
수리시설유지관리	2011~20205	수리시설유지를 위한 관리비지원	100.0		50.0	50.0		100.0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2011~2013	노후수리시설 개·보수	4,063.0	1,154.0	2,409.0	500.0	4,063.0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2011~2020	논대구획 경지정리사업	10,902.0	8,067.0	1,425.0	1,410.0	8,722.0	1,090.0	1,090.0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2011~2020	경지 내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5,643.2	3,251.8	926.2	1,465.2	4,514.6	564.3	564.3			
논에 발작물재배 기반지원	2011~2020	논에 발작물재배 가능하도록 용·배수로정비	90.0		40.0	50.0	72.0	9.0	9.0			
발기반 정비사업	2011~2015	발용배수, 경작로 등 기반정비사업	3,567.2	1,538.3	307.7	1,721.2	2,853.8	356.7	356.7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2011-2015	친환경농자재생산, 시설장비, 농축산순환자원화시설 등	979.1	501.4	477.7		407.4	168.5	255.2	148.0		
친환경농업지구조성	2011-2015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241.3	181.9	59.4		88.1	44.9	59.8	48.5		
유기농업단지조성사업	2011-2015	유기농업단지 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61.0		61.0		30.5		17.0	13.5		
친환경학교급식전용단지조성사업	2013~2015	친환경학교급식 전용생산단지조성	50.0		50.0			25.0		25.0		
유기농밸리100조성사업	2011~2020	진안군 유기농밸리 조성	120.0		81.0	39.0	60.0		36.0	24.0		
친환경농산물인증확대지원	2011-2020	친환경농산물인증농가에 인증단계별로 차등하여 경영비일부지원	214.0	66.0	148.0			110.4	103.6			
친환경농산물공동이용시설지원	2011-2015	친환경농자재 및 친환경농산물 생산시설, 장비	125.9	49.3	76.6			37.6	50.1	38.2		
토양개량제지원	2011-2020	토양개량을 위한 규산 및 석회 공급	2,370.0	1,008.1	771.9	590.0	1,659.0	237.0	474.0			
녹비작물종자대지원	2011-2020	토양유기물함량증대를 통한 지력증진 및 농업환경유지보전	350.8	260.0	90.8		166.6		184.2			
유기질비료지원	2011-2020	유기질비료 농가구입비 일부지원	1,491.7		915.7	576.0	932.0		559.7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2011~2015	친환경농업실천농업인 기소득감소분 및 생산비차이 보조지원	119.1		119.1		119.1					
국가식품 클러스터조성사업	2010~2020	국가식품 클러스터 기반조성	5,535.0	65.0	5,470.0		1,616.0	191.0	443.0	3,119.0	166.0	
식품기업 육성	2008~2018	중소규모식품기업 300개 육성지원	1,807.0	817.0	490.0	500.0	903.0		181.0	723.0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	2011~2013	국제한식조리학교 설립운영	120.0		120.0		60.0	31.0	7.0	22.0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사업추진	2011~2015	전주국제발효식품엑스포 개최	266.0	102.0	79.0	85.0	15.0	167.0	12.0			72.0
애그로메디컬클러스터 조성	2014~2020	애그로메디컬클러스터 기반조성	10,325.0		300.0	10,025.0	4,825.0	500.0		5,000.0		
쌀가공식품종합타운 조성사업	2012~2016	쌀가공식품종합타운 조성사업	207.0		156.0	51.0	104.0	62.0	41.0			
지역전략식품산업육성(북분자식품산업육성)	2011~2013	사업단 운영지원 등	50.3		50.3		23.9	7.5		18.9		
첨단농기계클러스터 조성사업	2008~2012	농기계클러스터 기반구축	434.0	195.0	239.0		250.0	67.0	66.0	51.0		
민간육종연구단지 조성사업	2011~2020	김제민간육종연구단지 기반조성	270		270		270					
골든시드프로젝트 추진	2012~2020	13개 수출전략종자개발(R/D비)	1,000		200	800	800					200
새만금수출농업단지 조성	2015~2020	대규모농어업회사육성	3,533.0			3,533.0				3,533.0		
축사시설현대화 사업	2011~2020	축사시설개축 및 시설 개·보수	1,875.0	449.3	1,192.4	233.3	555.3	3.2	7.6	1,308.9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한우복합산업 육성사업	2011~2020	한우경쟁력제고를 위한 인력양성, 교육, 유전자뱅크구축 등	58.8		52.8	6.0	29.4		20.9	8.5	
고품질축산물생산 지원사업	2011~2020	고품질축산물생산을 위한 시설확충지원	69.6	10.0	49.6	10.0		13.9	20.9	34.8	
지역특화사업	2011~2020	축산농가 소득증대(축산법3조)	359.9	109.9	190.0	60.0	179.9		57.1	122.9	
송아지생산안정	2011~2020	생산안정사업가입 암소송아지가격하락분 보전	100.3		88.3	12.0		15.0	35.1	50.2	
쇠고기이력제	2011~2020	소이력관리 및 귀표부착비 지원	86.1	12.9	61.2	12.0	45.3	13.9	26.9		
친환경(무항생제)축산물 생산지원	2011~2020	친환경축산물 생산지원	105.1		84.1	21.0		15.8	36.8	52.5	
프리덤푸드축산 기반구축	2012~2017	친환경동물복지축산단지	150.0		110.0	40.0	75.0	22.0	22.0	31.0	
초우량한우맞춤한우 생산기지구축	2012~2015	RFID활용암소핵군유정정보 시스템구축	300.0		300.0		150.0	90.0	60.0		
지열냉난방시설 설치지원사업	2011~2020	한우생산시설 경영비절감지원	472.6		384.2	88.4	284.4	28.0	66.8	93.4	
풀사료수확체조비	2011~2020	가축전염병 검진비용	182.3	80.2	44.4	57.7	104.5	77.8			
풀사료경영체 운반장비	2011~2020	풀사료 수확을 위한 운반장비지원	1,000.9	207.5	658.4	135.0	241.3	105.5	205.1	449.0	
풀사료 재배 및 부존자원활용	2011~2020	양질풀사료생산 위한 종자구입, 곤포용랩비닐지원	472.7	71.6	335.1	66.0	143.7			329.0	
풀사료생산장려금 지원사업	2011~2020	풀사료 생산확대 장려금(kg당10원)	370.0	70.0	250.0	50.0		120.0	250.0		
조사료가공시설 지원사업	2011~2020	국산조사료가공 및 제조시설지원	212.7	36.7	146.0	30.0	63.8	20.6	43.2	85.1	
가축재해보험농업인부담금 지원	2011~2020	영세축산농가 재해보험 가입일부지원	240.0		200.0	40.0		45.0	75.0	120.0	
액비살포비 지원	2011~2020	액비살포 유통업체 지원	128.1	32.2	80.3	15.6	64.1	25.6	38.4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개별, 공동)	2011~2020	퇴액비시설, 정화시설, 발효시설 등 지원	949.9	308.2	530.0	111.7	327.1	129.6	190.6	302.6	
도축부산물활용 의약품원료 지원	2013~2014	동물성단백질 및 헤파린추출시설지원	100.0		100.0		60.0	10.0	10.0		20.0
가축방역약품	2011~2020	주요가축전염병 방역품구입지원	1,187.5	79.2	917.5	190.8	501.6	115.8	227.2	342.9	
소브루셀라채열비	2011~2020	브루셀라채열요원 비용지원	88.4	13.6	62.3	12.5	26.5	17.7	44.2		
일제소독공동방재단 운영비	2011~2020	소규모 농가소독 공동방재단 운영비지원	100.0	19.2	80.8		50.0	15.0	35.0		
가축방역본부방역요원 임금	2011~2020	가축방역요원 인건비지원	72.6	8.0	54.7	9.9	37.6	35.0			
가축전염병근절 방역사업	2011~2020	전염병방지 위한 살처분비용지원	56.3	1.0	48.0	7.3		20.6	32.7	3.0	
살처분 보상금	2011~2020	살처분가축 보상금	450.0		375.0	75.0	375.0	22.5	52.5		
가축전염병 검진	2011~2015	가축전염병 검진활동비지원	124.6	80.2	44.4		71.6	53.0			
축산시험장 이전	2011~2015	축산시험장 이전	168.0		168.0		43.5	124.5			
슈가꾸기 사업	2011~2020	큰나무가꾸기, 어린나무가꾸기, 풀베기 등 7개 사업	4,858.2	2,000.4	1,714.7	1,143.1	2,522.1	651.7	1,298.2		386.2
조림사업	2011~2020	경제림, 큰나무, 유유토지조성 등 3종	1,794.6	738.9	633.4	422.3	1,145.3	184.0	345.1		120.2
보호수관리	2011~2020	외과수술 및 주변장비	409.7	13.8	237.5	158.4	110.7	86.0	213.0		
묘목생산	2011~2020	묘포지토양개량 등 기반조성	57.3	23.6	20.2	13.5	23.8	29.2	1.6		2.7
임업기계장비	2011~2020	트랙터집재기, 우드그랩, 원치등산물수집기계화장비	125.6	51.7	44.3	29.6	62.8	23.4	39.4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산림서비스분야 인력경비	2011~2020	산불방지, 산림피해단속 등 산림보호 업무보조	30.6	12.6	10.8	7.2	30.6					
산림바이오에너지타운 조성	2013~2015	산림바이오에너지타운 전시, 홍보, 체험관 등	104.0		104.0		83.2	6.2	14.6			
산림바이오매스 확충	2011~2020	펠릿보일러 보급 및 친환경목재자원 수집	231.2	95.2	81.6	54.4	72.7	28.0	65.4		65.1	
전문임업인 맞춤형경영 지원	2011~2020	전문임업인 임업기계장비 지원 및 소득기반 조성	51.0	21.0	18.0	12.0	25.5	3.1	7.1		15.3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2011~2020	표고, 감 등 임산물 생산기반조성 등 6개 사업	1,158.9	477.2	409.0	272.7	460.8	82.5	168.0		447.6	
임산물유통지원	2011~2020	임산물상품화지원, 임산물명품브랜드화 등 6개 사업	465.1	191.5	164.2	109.4	160.8	27.9	65.0		211.4	
산림조합특화사업	2011~2020	산림조합자립경영기반 구축지원	170.0	70.0	60.0	40.0	85.0	10.2	23.8		51.0	
산림병해충방제	2011~2020	소나무재선충병, 각지벌레, 흰불나방 등 병해충 방제	634.8	261.4	224.0	149.4	396.4	89.6	148.8			
임도사업	2011~2020	임도신설, 작업임도, 구조개량, 임도보수, 임도관리원 등	1,836.8	756.3	648.3	432.2	1,285.8	49.5	501.5			
사방사업	2011~2020	사방댐, 계류보전,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산림유역 등 8종	3,849.7	1,585.2	1,358.7	905.8	2,694.8	1,154.9				
치유이숲 조성	2011~2013	힐링지우센터, 숙박단지 등 조성	60.0		60.0		30.0		30.0			
산림박물관 보완	2011~2020	전시시설물 및 시설물 보완	51.0	21.0	18.0	12.0	25.5	25.5				
수목원조성 보완	2011~2020	산림식물유전자원의 수집보전	423.0	174.0	150.0	99.0	211.5	211.5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2011~2020	목재문화체험장, 목공전시장, 목재문화센터 등	104.0		104.0		83.0		21.0			
녹색자금 지원사업	2011~2020	사회복지시설 내 사회적 약자층이 이용할 수 있는 숲 조성	215.0	50.0	100.0	65.0	215.0					
산악자전거전용코스 조성	2013~	산악자전거전용 코스조성 및 트레이닝센터	27.0		27.0		13.5	4.0	9.5			
산림서비스증진	2011~2020	숲해설가, 숲생태관리인, 숲길안내인 등 8개 사업	266.1	109.6	93.9	62.6	159.7	43.2	63.2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2011~2015	숙박시설, 체험·교육시설 등 복합휴양단지 조성	286.0		286.0		143.0	80.0	63.0			
자생식물원 조성	2011~2020	자생식물전시원, 체험관, 습지식물원 및 편익시설 등	100.0		60.0	40.0	50.0	15.0	35.0			
신시도 산림생태학습장 조성	2013~2014	신시도국유림일원에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생태체험교육장 조성	50.0		50.0		50.0					
새만금 간척지내 시범녹지 조성	2013	새만금 산업단지 내 공원녹지 조성	10.0		10.0		10.0					
생물다양성 관리계약	2011~2020	보리재배계약 및 벗짚존지	83.0	63.0	12.0	8.0	24.9	16.4	41.7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지원	2011~2020	야생동물구조, 치료	115.4	25.4	54.0	36.0	34.6	80.8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2011~2020	전기목책기, 방조망, 경음기, 헬스 등	76.4	40.1	21.8	14.5	23.0	11.5	11.5		30.4	
야생동물피해 보상사업	2011~2020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농가 보상	47.7	28.0	11.8	7.9		4.8	42.9			
연안바다목장 조성	2012~2016	인공어초투하, 수산종묘방류	50.0		40.0	10.0	25.0	10.0	15.0			
인공어초시설	1973~계속사업	어초제작, 해상시설 및 수로조사	1,500.0	609.0	641.0	250.0	1,200.0	300.0				
신성장동력 갯벌어업 육성	2013~2017	해삼, 전복양식단지 조성	200.0		120.0	80.0	100.0	30.0	70.0			
지방어항 건설	계속사업	지방어항 12개항	1,056.0	480.0	305.0	271.0	845.0	60.9	150.1			
부잔교 설치	2011~2014	부잔교 12대	96.0		96.0		76.8		19.2			
연근어어업 구조조정	1997~2015	연근어어업 감축	1,000.0	792.0	70.0	138.0	800.0	100.0	100.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수산물유통산업 거점단지조성	2009~2012	식품관, 전시홍보관, 물류기반관	99.0	50.0	49.0		49.5	11.9	37.6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	2002~2020	공동작업장, 어업용창고, 냉동냉장시설 등	174.8	94.8	50.0	30.0	84.7	17.5	55.1	17.5	
수산물산지가공시설	1993~2020	수산물산지가공시설 확충	360.2	160.2	100.0	100.0	108.0		108.0		144.2
풍천장이 웰빙식품센터 건립	2010~2014	웰빙식품센터 및 첨단생시설 등	150.0	5.0	145.0		75.0		75.0		
양식장에너지절감장치 지원사업	2011~2014	히트펌프~열교환기시설	96.0	16.0	80.0		58.0	6.0	13.0		19.0
바다숲조성	2011~계속	잘피숲 및 해조숲 조성·관리	320.0	160.0	70.0	90.0	308.0	12.0	0.0		
수산물연구가공 거점단지조성	2012~2014	연구시설, 가공시설, 수산물유통판장	195.0		195.0		98.0		97.0		
승마장 조성사업	2011~2020	승마장 조성사업	149.5	19.5	105.0	25.0	33.8	25.0	33.8	56.9	
학교유급식	2011~2020	기초생활가정 무료유급식	334.3	67.1	229.5	37.7	207.6	68.9	57.8		
농어촌생활환경 정비사업	2005~2020	농어촌생활 환경정비 및 개선지원	5,922.0	1,752.0	1,960.0	2,210.0	4,145.0		1,777.0		
농촌생활 활력화	2011~2015	농촌생활 환경개선 및 활성화지원	109.7	0.0	109.7	0.0	0.0	32.9	56.0	20.8	
농산어촌 기초생활서비스 기준마련	2012~2013	농산어촌 기초생활서비스 기준마련(권역별)	2.0	0.0	2.0	0.0	1.0	1.0			
읍·면 종합정비사업(소도읍)	2011~2015	읍·면소재지 정비 및 활성화사업	1,065.0	127.0	938.0	0.0	681.5	169.3	214.3	0.0	0.0
거점면중심마을 개발사업	2011~2013	거점면중심마을 개선	57.3	19.3	38.0		38.5	8.3	10.5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2004~2020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	7,700.0	1,003.0	2,591.0	4,106.0	5,433.0	547.0	1,720.0		
도서 종합개발	2008~2017	20개 도서(유인도서-3차 계획)	600.0	144.0	264.0	192.0	413.0	93.0	94.0		
어촌 종합개발	2013~2015	어촌 종합개발사업	50.0	0.0	50.0	0.0	35.0		15.0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2011~2020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지원	2,130.0	79.0	879.0	1,172.0	940.0		1,034.0	156.0	
섬진강타운벨트 사업	2011~2015	시·군 협력사업, 섬진강연계	104.5	0.0	104.5	0.0	73.2	15.7	15.7		
녹색농촌체험마을 조성	2011~2015	녹색농촌체험마을 지정지원	60.4	0.0	60.4		43.2		17.2		
산촌생태마을 조성	2011~2020	산촌생태마을 지정 및 조성지원	1,537.8	633.2	542.8	361.8	1,076.4	230.7	230.7		
농업인복지 및 경영안정 지원	2011~2020	농업인자녀학자금, 영농도우미, 건강보험료지원 등	2,403.5	1,282.1	800.0	321.4	1,295.0	245.5	627.9	235.0	0.0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2011~2020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	109.0	0.0	109.0	0.0	52.3	28.3	28.3	0.0	0.0
농어촌체험유학마을 조성	2012~2020	농촌유학마을 조성	140.0	0.0	100.0	40.0	70.0	20.0	50.0		
향토산업마을 조성사업(농촌공동체활성화)	2011~2015	향토산업마을 188개 육성지원	485.0	75.0	410.0		242.5	10.0	232.5		
슬로시티건축 시범사업	2012~2013	3개소 슬로시티시범지구 조성	90.0	0.0	90.0			36.0		54.0	
마을만들기 통합촉진	2012~2015	시·군단위 마을만들기사업의 종합박람회장	8.0		8.0		2.0	2.0	4.0		
농식품 6차산업화	2012~2015	14개소	420.0		420.0		210.0		126.0	84.0	
향토산업 육성사업	2007~2015	향토산업발굴 및 산업화지원	798.0	247.0	551.0		393.0	19.0	257.0	129.0	
지역전략식품산업 육성사업*	2011~2013	광역클러스터(참예우, 청보리, 비빔밥, 복분자) 산업화지원	527.0	64.0	383.0	80.0	224.0	82.0	154.0	67.0	
지역식품선도클러스터*	2010~2018	14개시·군별 미니식품클러스터 구축	955.0	80.0	875.0		456.0	185.0	167.0	147.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농산촌대체의학교실 클러스터 구축	2013~2018	전북 덕유산권(무진장)	280.0	0.0	150.0	130.0	100.0	60.0	40.0	80.0	0.0
아토피클러스터	2013~2017	227,460㎡	654.0	0.0	393.0	261.0	327.0	105.0	144.0	78.0	0.0
시·군 공동제조가공시설	2011~2015	공동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지원	115.2		115.2		57.6		57.6		
로컬푸드사업체 육성	2012~2015	14개소	150.0		150.0		45.0	23.0	37.0	45.0	
로컬푸드빌리지 조성	2012~2014	3개소	15.0	0.0	15.0	0.0	0.0	4.5	4.5	6.0	0.0
로컬푸드스테이션 조성	2013~2017	로컬푸드꾸러미사업의 거점조성	200.0	0.0	150.0	50.0	100.0	30.0	50.0	20.0	0.0
친환경 로컬푸드단지 육성	2012~2013	5개소	5.0	0.0	5.0	0.0	0.0	1.5	1.5	2.0	0.0
학교급식공급센터 구축	2012~2012	학교급식공급센터 구축 및 운영	100.0		100.0			50.0	0.0	50.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사업	2011~2015	친환경농산물 구입식재료비 지원	78.2		78.2			19.6	0.0	58.6	
도시민농촌유치프로그램 지원	2011~2020	도시민유치 소프트웨어프로그램 지원	162.1	75.5	61.8	24.8	63.1	14.1	49.1	35.7	
귀농귀촌활성화	2011~2020	귀농귀촌유치일자리, 인턴십, 농가주택 등 지원	102.9	13.1	70.8	19.0	5.1	37.7	57.2	3.0	
농산촌형귀농타운 조성	2012~2021	마을기반정비	165.0	10.0	45.5	109.5	115.5	0.0	49.5		0.0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	2011~2012	농어촌뉴타운조성사업	2,252.0	184.0	552.0	1,516.0	509.0		672.0	1,071.0	
전원마을 조성사업	2011~2015	전원마을 조성	99.2		99.2		70.4		28.9		

*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시 반영

▣ 교통물류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합계		67개 사업	326,692.6	70,443.5	110,961.7	145,287.5	254,044.7	34,796.4	14,092.9	12,646.9	11,111.8
군산공항 확장건설*	2016~2020	활주로 1본 및 여객터미널	6,000.0			6,000.0	6,000.0				
김제경비행장	2014~2016	활주로 600m 등 경비행장건설	187.0		74.0	113.0	74.0			113.0	
새만금 신항만(1단계)	2012~2020	부두4선석, 방파제3.1km	10,548.0	40.0	2,920.0	7,588.0	7,986.0			2,562.0	
군산항 컨테이너화물 유치지원	2015	컨테이너 선사와 물류기업에 재정 지원	131.4		131.4			65.7	65.7		
새만금신항만배후물류산업복합단지조성(1단계)	2016~2020	물류산업단지 1.0km ² (30만평)	900.0			900.0	900.0				
군산항 부두확충 및 활성화사업	2011~2016	부두건설 32선석	18,345.0	14,644.0	1,758.0	1,943.0	13,771.0			4,574.0	
화물공영차고지 조성	2011~2020	2개소(60,000m ²)	200.0	0.0	46.0	154.0	180.0		20.0		
서남권중심축복합물류기지기반구축	2012~2021	복합물류기지 조성(60만m ²)	4,000.0		2.1	3,997.9	1,600.0		2.1	2,397.9	
새만금~김천간 동서횡단철도(1단계)**	2016~2025	새만금~대야 45.4km	11,183.0			11,183.0	11,183.0				
호남고속철도(전북구간 78.4km)	2006~2014	오송~목포간 230.9km(전북구간 78.4km)	37,288.0	6,836.0	30,452.0		37,288.0				
군장산업단지인입철도(대야~군장산단29.94km)	2005~2018	대야~군장산단 29.94km	5,430.0	146.0	2,365.0	2,919.0	5,430.0				
익산~대야복선전철(익산~대야14.34km)	2005~2018	익산~대야 14.34km	5,143.0	106.0	2,521.0	2,516.0	5,143.0				
고속도로 건설 및 확장사업	2006~2021	2개 사업 84.9km	12,637.0	3,891.0	6,289.0	2,457.0	12,637.0				
국도 확·포장사업	2002~2023	57개 지구 565.8km	55,271.0	12,774.0	21,011.0	21,486.0	55,271.0				
새만금 내부 간선도로사업	2013~2020	4개 사업 96.8km	24,246.0		3,104.0	21,142.0	24,246.0				
국가지원지방도사업	계속사업	32개 지구 262km	15,852.0	6,498.6	2,492.1	6,861.3	14,347.0	1,505.0			
지방도 확포장사업 105개지구 422km	계속사업	105개 지구 422km	30,759.0	21,182.0	3,210.0	6,367.0		30,759.0			
신항만~신재생에너지구간 해안도로건설	2012~2020	10.34km	3,000.0		440.0	2,560.0	3,000.0				
국도30호선 줄포IC~격포간 확포장사업	2013~2018	30km B=20m	3,465.0		1,610.0	1,855.0	3,465.0				
동부내륙권 국도건설	2016~2020	L=64km, B=22.0m(국도 52km, 지방도 12km)	6,400.0			6,400.0	5,376.0	1,024.0			
부안~고창간(부창대교) 국도 건설	2010~2020	부안급소~고창해리 15km	4,666.0	40.0		4,626.0	4,666.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대산-남원역간 도로개설공사	2014~2020	L=3.5km 4차로	250.0		70.0	180.0	250.0					
태인~강진간(국도30호선) 도로 확포장	2013~2020	L=23.5km	3,530.0		630.0	2,900.0	3,530.0					
정읍 국도대체 우회도로 개설	2013~2017	L=2.5km	500.0		220.0	280.0	500.0					
내장산IC~선운산IC 연결도로 확장	2013~2017	L=9km	2,600.0		620.0	1,980.0	2,600.0					
새만금~부안~정읍~순창간 교통망 확충	2013~2020	L=73km	7,708.0		620.0	7,088.0	7,708.0					
남원 산동~장수 번암 국도 확포장	2016~	도로확장 L=9.6km, B=2차로	500.0	0.0	6.0	494.0	500.0	0.0	0.0			0.0
지방도 792호 강천산 우회도로 개설사업	2013~2015	총 길이 7.4km, 폭 10~15m	283.0	0.0	283.0	0.0	283.0	0.0	0.0	0.0	0.0	0.0
국도 30호 무주~철천 도로 확포장사업	2013~2016	도로확포장 15.40km(4차선)	2,800.0	0.0	1,620.0	1,180.0	2,800.0	0.0	0.0	0.0	0.0	0.0
국도 19호 적상~안성 도로 확포장사업	2013~2016	도로확포장 4.0km(4차선)	400.0	0.0	300.0	100.0	400.0	0.0	0.0	0.0	0.0	0.0
김제육교재가설사업	2012~2014	과선교량 설치	267.0	0.0	267.0	0.0	200.0	33.0	34.0	0.0	0.0	0.0
위도 연도교 조성사업	2013~2017	L=2.53km, B=12m (2차선)	750.0	0.0	450.0	300.0	750.0	0.0	0.0	0.0	0.0	0.0
국도 30호선 4차선 확장공사	2013~2017	L=5.1km	408.0	0.0	210.0	198.0	408.0	0.0	0.0	0.0	0.0	0.0
국도17호선 선형개량사업	2013~2017	L=17.9km/B=20	1,284.0	0.0	872.0	412.0	1,284.0	0.0	0.0	0.0	0.0	0.0
완주~금산간국도 17호선 확포장	2012~2015	26km	3,380.0	0.0	3,380.0	0.0	3,380.0	0.0	0.0	0.0	0.0	0.0
고창~내장IC간 지방도 확포장	2013~2020	L=13.14km, B=19.5m	1,200.0	0.0	150.0	1,050.0	840.0	360.0	0.0	0.0	0.0	0.0
고창읍~백양IC간 국지도 15호 확포장	2013~2020	L=8.8km, B=18.5m	1,200.0	0.0	100.0	1,100.0	1,200.0	0.0	0.0	0.0	0.0	0.0
남고창IC~석정온천간 도로확포장	2013~2018	L=4.2km, B=25m	150.0	0.0	20.0	130.0	75.0	0.0	75.0	0.0	0.0	0.0
자전거거점도시육성	2010~2012	군산시 1식	75.0	25.0	50.0		30.0	8.0	37.0			
국가자전거도로구축	2010~2019	자전거 도로 신설연장 93.4km	437.0	62.0	281.0	94.0	218.0	66.0	153.0	0.0	0.0	0.0
수요응답형교통체계	2011~2016	농어촌지역실정에적합한교통체계	10.0		10.0		10.0					
저상버스 도입	2012~	저상버스 도입 259대	237.9		181.6	56.3	118.9	59.5	59.5			
어린이보호구역개선	계속사업	어린이보호구역개선 191개소	632.6		632.6		316.3		316.3			
교통혼잡개선사업	2013~2020	35개 지구	4,461.0	0.0	1,500.0	2,961.0	2,231.0		2,230.0			
위험도로 개선사업	2009~2020	234개소, 193km	2,109.0	937.0	843.0	329.0	1,055.0	314.0	705.0			35.0
교통사고잦은곳 개선	2004~2020	329개소(시설개선 116, 회전교차로 213)	1,330.0	74.0	135.0	1,121.0	665.0	25.0	640.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안전한보행환경조성	2009~2020	564개소, 2,646km	5,779.0	191.0	918.0	4,670.0	2,890.0	106.0	2,783.0		
행정정보화기반구축	2011~2020	행정정보 접근성 제고	88.6	6.6	41.0	41.0		41.0	47.6		
스마트행정 시스템구축	2012~2014	노트북을 이용한 현장근무 시스템, 실시간 대화시스템 구축 등	47.4		47.4		47.4				
IT를 활용한 일자리창출	2011~2020	스마트워크 활성화, 1인 기업 육성	143.0	69.0	37.0	37.0	50.5	50.5	35.2		6.8
IT융합을 통한 지역전략산업 육성	2011~2020	주력제조업과 IT 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화 및 IT산업의 신시장창출	300.0		150.0	150.0	150.0	150.0			
스마트 맞춤형복지정보통신망 구축	2011~2020	정보통신보조기 개발, 보급, 장애인 정보교육, 모바일 정보역자 해소 추진	300.0		150.0	150.0	300.0				
도로명주소DB갱신	2012~2013	도로명 주소 기본도 정밀도 개선 및 DB 갱신	11.5		11.5		5.8	1.7	4.0		
국토공간계획지원체계도입	2013~2020	서버 등 SW/HW 도입 및 DB 구축	40.0		20.0	20.0		20.0	20.0		
도로와지하시설물 공동구축	2002~2015	도로, 상·하수도 관망 전산화 및지하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659.0	470.0	189.0		339.0		320.0		
도시정보정보인프라구축(정보통신망회선료+농어촌광대역가입자망국축)	2011~2020	정보통신기초보급 및 정보화교육	248.0	28.0	110.0	110.0		118.0	92.0		38.0
군산해상매립지 친수공간 조성	2010~2020	진입교량 2기, 운동장, 생태공원 등	4,609.0		315.0	4,294.0	4,609.0				
도시,택지개발조성	2005~2018	8,838천㎡	20,007.0	2,050.0	15,962.0	1,995.0	250.0	80.0	5,645.0	3,000.0	11,032.0
주한미군 공여구역	2008~2017	14지구 39.8km	1,364	280	824	260	682		682		
연안관리지역계획 수립	2012~2014	군산, 부안, 고창 연안관리지역계획수립, 연안해역적성평가	6.0		6.0				6.0		
전북해안선현황조사및연안GISDB및관리시스템구축	2012~2014	자연 및 인공해안선 현황조사, 연안관련 GIS 주제도 구축, 전라북도 연안해역관리시스템 구축	20.0		10.0	10.0		10.0	10.0		
갯벌 생태계 복원	2010~2014	염습지, 염생식물지(기수습지), 해양숲 등 조성, 고창군(1.03km)	71.0	7.0	64.0		50.0		21.0		
해양보호구역관리	2007~2014	갈대탐방로, 수변데크, 생태학습관등, (고창 10.4km, 부안 4.9km)	159.0	40.0	119.0		111.3		47.7		
해안마을 경관형성사업	2010~2013	경관형시범주택, 해안산책로, 삼지조망공원정비등	45.0	2.0	43.0		22.5		22.5		
유류피해지역환경개선사업	2010~2019	조업여장환경개선, 마을여장환경개선, 종패발생환경개선(군산, 부안)	130.0	13.0	52.0	65.0	130.0				
연안정비사업	2010~2015	해안도로확장, 호안침식방지등-군산시옥도면선유도일원	47.3	31.3	16.0		28.0		19.3		
군산항및배후도심권방호벽설치(국토부아라미르프로젝트)	2015~2020	폭풍해일대비방호벽설치(7,292m)-군산항및인근배후도시권	464.0			464.0	464.0				

* 중앙부처와 추후협의 대상사업

** 추가검토대상사업

■ 생활복지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합계		117개사업	124,116.7	18,449.9	68,055.4	37,611.4	82,463.8	19,386.1	20,153.0	1,544.0	569.8
마을목욕탕 시설 지원	2013~2020	읍·면단위 소규모목욕탕시설 설치 지원	460		230	230		230	230		
노인일자리사업	계속사업	14개 시·군	3,211.0	855.0	1,251.0	1,105.0	1,433.0	663.0	1,115.0		
기초노령연금	계속사업	14개 시·군	32,114.0	5,744.0	12,560.0	13,810.0	25,917.0	1,237.0	4,960.0		
노인돌봄서비스	계속사업	14개 시·군	1,747.0	387.0	655.0	705.0	1,219.0	203.0	325.0	0.0	0.0
장애인 공공일자리 지원	계속사업	3개사업 660명	454.6	30.5	195.6	228.5	224.0	113.0	117.6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	계속사업	3개사업 2,207명	513.6	34.4	221.2	258.0	359.0	62.0	92.6		
장애인생활안정지원사업	계속사업	8개사업 57,084명	5,551.0	362.0	2,307.0	2,882.0	3,900.0	597.0	1,054.0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계속사업	106,000명	15,580.0	1,897.0	10,857.0	2,826.0	13,102.0	1,371.0	1,107.0		
기초생활수급자주거급여	계속사업	101,000명	3,317.0	397.0	2,386.0	534.0	2,789.0	292.0	236.0		
기초생활수급자교육급여	계속사업	14,240명	736.0	104.0	525.0	107.0	619.0	65.0	52.0		
기초수급자양곡할인	계속사업	241,531포	379.0	55.0	269.0	55.0	379.0				
자활근로사업	계속사업	5,500명	3,057.0	395.0	2,192.0	470.0	2,507.0	275.0	275.0		
가사방문도우미	계속사업	268명	155.0	20.0	111.0	24.0	118.0	11.0	26.0		
희망리본프로젝트	계속사업	600명	116.0	16.0	82.0	18.0	93.0	23.0			
근로수급자 탈수급지원	계속사업	1,460명	278.0	28.0	201.0	49.0	222.0	56.0			
전라북도 복지기본선 구축	2013~2014	복지최저선 개발	2.0		2.0			2.0			
농촌 지역맞춤형 자활유통체계 수립	2013~2015	농촌자활사업통합	10.0		5.0	5.0	2.5	5.0	2.5		
사회복지시설 평가제도 운영	2012~2020	평가위원교육, 컨설팅	20.0		10.0	10.0		20.0			
노인복지시설기능보강사업	계속사업	14개 시·군	2,380.0	1,691.0	364.0	325.0	1,144.0	185.0	927.0	124.0	
장애인 실비입소료 지원	계속사업	2개소	22.5	1.9	10.1	10.5	16.5	3.0	3.0		
지적장애인자립센터 운영	계속사업	2개소	24.7	1.9	10.8	12.0		16.0	8.7		
장애인생활시설지원	계속사업	44개소	3,238.0	249.0	1,378.0	1,611.0	13.0	2,129.0	1,096.0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	계속사업	18개소	461.0	22.0	198.0	241.0	47.0	149.0	265.0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지원	계속사업	84개소	1,976.0	148.0	852.0	976.0	0.0	773.0	1,203.0		
정신요양시설 운영	계속사업	4개소	396.0	52.0	284.0	60.0	237.0	79.0	80.0		
부랑인시설 운영	계속사업	3개소	103.0		84.0	19.0	72.0	31.0			
기초푸드뱅크 운영	계속사업	14개소	20.0	2.0	14.0	4.0		6.0	14.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사회복지심부름센터운영	계속사업	9개소	41.0	5.0	29.0	7.0		12.0	29.0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계속사업	67개사업(복지부1,도1, 시·군 65)	730.0	102.0	521.0	107.0	548.0	80.0	102.0		
정신요양시설 소방시설 보완사업	2012~	4개소	22.0		22.0	0.0	11.0	6.0	5.0		
장애인전용체육관 건립	2012~2014	1500㎡	26.0	1.0	25.0	0.0	8.0	9.0	9.0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	'12~' 14	초중생 194,137명	58.5	0.0	58.5	0.0	0.0	14.6	14.6		29.3
국립 청소년수련원 조성	2009~2013	생활관 2동, 체험관, 전망대, 운영본부 등	260.0	4.0	256.0		6.0				254.0
항등도서관 건립	2012~2014	도서관건립	9.0		9.0		7.2		1.8		
장애인복지관건립	2013~2015	1개소	38.0		38.0		19.0	6.0	13.0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2012~2015	1,800㎡	27.6		27.6		10.5		17.1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2012~2013	1,421㎡	13.0		13.0		11.4		1.6		
아이낳기 좋은 전북만들기 지원	2006~2020	2,997명	33.3	2.7	13.6	17.0	4.1	22.9	6.3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	2006~2020	2,997명	191.4	17.4	87.0	87.0	154.0	18.7	18.7		
난임부부지원	2006~2020	2,028명	224.4	17.4	92.0	115.0	130.0	38.1	56.3		
결혼이민자 직업교육 및 취업확대	2011~2015	맞춤형직업교육 200명	187.0		187.0		113.0	27.0	47.0		
다문화자녀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2011~2015	자녀언어발달지원, 예비학부모교육	134.0		134.0		74.0	23.0	37.0		
다문화가정갈등예방및이주여성권익증진	2011~2015	이주여성보호시설 3개소, 다문화상담사 14명 배치	44.0		44.0		17.0	14.0	13.0		
육아종합지원센터	2012~2015	익산 1,650㎡, 고창 1,665㎡	56.0		56.0		20.0	15.0	21.0		
구강보건사업	2011~2020	14개 시·군	254.8		128.8	126.0	127.4	38.2	89.2		
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	2011~2020	14개 시·군	300.0		150.0	150.0	150.0	30.0	120.0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	2012~2020	14개 시·군	20.0		16.0	4.0	15.0	2.5	2.5		
감염병예방	2011~2020	도 및 14개 시·군	626.0		296.0	330.0	269.0	113.0	244.0		
암조기검진사업	2011~2020	14개 시·군	240.0		120.0	120.0	120.0	24.2	95.8		
응급의료체계구축	2011~2020	21개소	150.0		75.0	75.0	120.0	30.0			
의료기기 임상시험센터	2009~2013	1개소(전북대)	54.0	21.0	33.0		49.0	2.0			3.0
암전문연구센터 사업비 지원	2009~2014	1개소(전북대)	54.0	30.0	24.0		27.0	9.0			18.0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	1994~2014	13개 시·군	1,626.8	1,233.7	393.1		1,105.5	93.4	427.9		
지역거점공공병원기능강화	2005~2020	3개소(군산, 남원, 진안)	647.0	296.0	201.0	150.0	324.0	239.0	84.0		
한센사업	2011~2020	6개시·군	360.0		180.0	180.0	160.0	110.0	90.0		
방문건강관리	2006~2020	85,000가구	361.5	32.7	164.4	164.4	176.0	9.5	176.0		
만성질환관리	2006~2020	5종	15.0	5.0	5.0	5.0	7.5	7.5	0.0		
한방공공보건	2006~2020	2종	120.0	40.0	40.0	40.0	60.0	15.0	45.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금연지원서비스	2006~2020	15,000명	70.0	20.0	25.0	25.0	35.0	5.0	30.0		
건강생활실천	2006~2020	4종	140.0	30.0	60.0	50.0	70.0	14.0	56.0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설치	12~20	2개 센터	34.3		14.3	20.0	17.2	5.1	12.0		
의료수급자 진료비 예탁금	계속사업	111,000명	25,957.0	3,077.0	18,467.0	4,413.0	20,765.0	3,115.0	2,077.0		
의료수급자건강생활유지비	계속사업	28,000명	140.0	20.0	100.0	20.0	112.0	21.0	7.0		
의료수급자현금급여사업	계속사업	4개	231.0	33.0	165.0	33.0	185.0	35.0	11.0		
의료급여관리사인건비	계속사업	42명	77.0	11.0	55.0	11.0	62.0	11.0	4.0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2011~2020	7개 군	75.0		37.5	37.5		37.5	37.5		
서남권 광역 공설화장실 건설	2013~2013	공설화장로 3기	88.0		88.0		26.0	5.0	57.0		
태권도공원조성사업	계속사업	태권도 공원 조성 지원	3,427.0	133.0	2,052.0	1,242.0	2,044.0	70.5	70.5	1,066.0	176.0
종합사격장 운영	계속사업	운영비 지원	60.0	31.0	29.0			60.0			
세계태권도 문화엑스포개최	계속사업	문화엑스포 지원	110.7	37.3	35.9	37.5	25.0	31.4	36.8		17.5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계속사업	도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140.0		140.0			140.0			
시·군직장운동경기부 육성지원	계속사업	시·군 직장인운동경기부 지원	374.0		374.0			86.0	288.0		
국제전국규모주요체육대회지원	계속사업	체육대회 참가 지원	73.0		73.0		0.0	73.0	0.0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계속사업	생활프로그램 지원	223.0		223.0			73.0	141.0		9.0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지원)	계속사업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53.0		53.0						53.0
스포츠 바우처사업	계속사업	스포츠 바우처 사업	55.0		55.0			7.0	10.0		38.0
시·군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계속사업	지자체 체육 활성화 지원	79.0		79.0			28.0	51.0		
생활체육대회 지원	계속사업	생활체육대회 지원	113.0		113.0			83.0	26.0		4.0
도장애인체육회 운영지원	계속사업	장애인 체육회 지원	75.0		75.0			75.0			
체육시설조성	계속사업	체육시설조성 지원	403.0	122.0	281.0			242.0	101.0		60.0
체육진흥시설 지원	계속사업	체육진흥시설 지원	1,238.0	635.0	603.0		357.0	26.0	855.0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계속사업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241.0		241.0				103.0		138.0
테니스공원조성	2011~2013	테니스장 15면 등	95.0	0.0	95.0	0.0	15.0	0.0	80.0	0.0	0.0
공설운동장 리모델링 사업	2012~2013	13,683㎡ (2층/1동)	46.0	0.0	46.0	0.0	14.0	0.0	32.0	0.0	0.0
복합 스포츠타운 조성	2013~2015	140,925㎡	390.0	0.0	390.0	0.0	190.0	80.0	120.0	0.0	0.0
스포츠타운 조성	2013~2016	139,520㎡, 스포츠타운 1식	140.0	0.0	94.0	46.0	20.0	7.0	113.0	0.0	0.0
도 체육회 운영	계속사업	도 체육회 운영지원	630.0		630.0			606.0			24.0
산·학·관 커플링사업	2011~2020	산학관 연계사업	746.0		373.0	373.0		746.0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2011~2020	기술인력 교육지원사업	414.0		207.0	207.0		186.0	228.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전략산업 명장인력육성 사업	2011~2020	전략산업 명장인력양성지원	41.0		19.0	22.0		41.0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사업	2013~2020	특성화고 글로벌 역량강화	16.0		6.0	10.0		10.0	6.0			
글로벌 인재육성 해외연수사업	2011~2020	글로벌 해외연수	360.0		180.0	180.0		210.0	150.0			
기업하기 좋은 교육환경개선사업	2011~2020	스마트 교육기반 구축	165.0		82.0	83.0		165.0				
한중국제교육클러스터 조성	2015~2020	중국인전용복합기술인력양성센터건립, 중국전문기양성기관 설립아시아캠퍼스, 중국유학생진흥원 설립	240.0		20.0	220.0	40.0	200.0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내국제교육거점개발	2015~2020	외국대학 유치 및 지원	250.0			250.0	100.0	50.0			100.0	
새만금군산경제자유구역내전북대학교분교설립	2015~2020	국내대학 분교 설립	80.0		20.0	60.0	70.0	10.0				
원어민영어교사 배치 지원 사업	2011~2020	원어민 교사 배치 지원	79.0		39.0	40.0		79.0				
외국인유학생 유치 지원	2011~2020	외국인 유학생 유치 및 지원	20.0		10.0	10.0		20.0				
지역 으뜸인재육성사업	2011~2020	지역별 우수인재양성	382.0		182.0	200.0		113.0	269.0			
농어촌형 기숙형 고교 지원	2011~2020	기숙형고교 지원	159.0		79.0	80.0		47.0	112.0			
장학숙 운영	2011~2020	서울 등 장학숙 운영	282.0		141.0	141.0		282.0				
친환경쌀 학교급식 지원	2011~2020	친환경쌀 급식지원	250.0		120.0	130.0		250.0				
학교무상급식 지원	2011~2020	무상급식 지원	2,142.0		1,021.0	1,121.0		2,142.0				
입학사정관제 대비 컨설팅 사업	2011~2020	입학사정관대비 박람회 등	8.0		4.0	4.0		8.0				
이중언어영재육성사업	2013~2020	이중언어 영재육성지원	100.0		20.0	80.0	50.0	10.0	40.0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운영사업	2012~2020	학교폭력예방및지역청소년육성운영	9.0		4.0	5.0		9.0				
학교폭력예방·치유청소년정신건강증진사업	2013~2020	학교폭력대책 지원	60.0		20.0	40.0	10.0	30.0	20.0			
방과후학교맞춤형교육프로그램지원사업	2011~2020	학교폭력치유프로그램 운영 등	118.0		54.0	64.0		118.0				
토요 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2013~2020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지원	16.0		6.0	10.0		6.0	10.0			
방과후 프로그램 사회적 기업 육성	2013~2020	토요방과후 프로그램 지원	8.0		3.0	5.0		8.0				
전북의 별 육성 사업	2011~2020	사회적 기업 육성 지원	19.0		8.0	11.0		19.0				
평생교육진흥원 설치 운영	2014~2020	평생교육원 설치 및 운영	55.0		25.0	30.0		55.0				
인생이모작 지원 프로그램 운영	2013~2020	예술, 체육 부문 인재양성	16.0		6.0	10.0		10.0	6.0			
성인평생학습바우처	2013~2020	퇴직자 평생교육프로그램	17.0		6.0	11.0		6.0	11.0			
성인학습동아리 발굴 및 지원사업	2013~2020	바우처 운영	19.0		7.0	12.0		6.0	13.0			
스마트교육환경 우수학교 지원사업	2013~2020	평생동아리 활동 지원	8.0		3.0	5.0		4.0	4.0			
재능기부 평생학습서포터즈단 운영	2013~2020	교육환경개선	13.0		3.0	10.0		4.0	9.0			

■ 환경보전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합계		135개사업	185,264.5	57,627.2	64,254.8	63,382.5	108,326.7	16,864.9	43,168.7	3,882.3	13,021.8
농어촌주택개량사업	1976~2020	노후 불량주택 개량으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동당55만 원자)	14,119.0	6,916.0	3,602.0	3,601.0		3,226.0	809.0		10,084.0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2005~2013	12개 시·군(53개소)	2,272.0	1,188.0	1,084.0		1,136.0		1,136.0		
도시 재정비사업	2013~2020	도시활력증진, 노후 주거지, 구도심 재생 등	1,000.0		300.0	700.0	500.0		500.0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2010~2014	저소득층의임대보증금지원(1000호)	200.0	22.0	178.0			80.0	120.0		
나눔과 희망의 집 고쳐주기	2006~2014	저소득계층 노후주택 개·보수	245.1	97.1	148.0	0.0		122.8	122.3		
농어촌빈집정비사업	1976~	농어촌빈집정비	172.4	105.4	67.0	0.0	36.4	44.3	91.6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	2010~2014	농촌지역 불량주택 개량	200.0	122.0	78.0		45.0		155.0		
슬레이트 처리지원	2011~2021	노후슬레이트철거처리비용지원(동당2백만원내)	1,128.3	0.0	1,128.3		562.9		565.4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2009~2015	그린홈 보급사업	390.8	138.8	252.0		390.8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1994~2015	관로 2,276km, 배수지 42개소, 가압장 23개소	3,620.2	2,518.9	1,101.4		2,377.3	356.0	886.9		
도시지역 식수원 개발	1997~2014	3개군, 수원지 6개소, 관로 49km, 해수담수화 7개소, 취정배수시설 9개소	398.0	194.7	203.2		275.7		122.2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1996~2016	관정547공, 관로보수1,320km, 물탱크 1,095개소	1,392.9	939.4	378.2	75.3	491.8	12.6	888.5		
유수율제고민자유치시험사업 (정읍)	2004~2024	관로교체 215km, 계량기교체 36,710전, 밸브류교체 856개, GIS / Block system 등 관망 및 유수율관리 시스템 구축	512.0	400.0		112.0	100.0			412.0	
농어촌 마을 하수도정비사업	2003~2020	575개소 50,480m/일	4,494.0	2,214.9	1,452.6	826.6	3,154.0		1,340.0		
하수관거정비	1992~2020	하수처리구역내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 8,753km	32,221.0	12,712.9	7,635.0	11,873.1	19,625.0	276.0	12,231.8		88.2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2010~2012	(임실)고도정수처리(막여과)시설 7,000톤/일	76.0		76.0		53.2		22.8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 구축	2011~2014	상수관망 블록시스템구축 및 노후수도관 교체 675km	655.0		655.0		197.0		458.0		
하천정비기본계획수립	1988~2018	지방하천 461개소 2,906km	795.7	271.3	211.8	312.7		561.9	233.8		
하천유지관리	1998~계속	지방하천461개소2,906km	1,122.9	54.0	86.3	982.6	2.3	1,072.3	48.3		
소하천정비	2011~2015	소하천 2,499지구 5,195km (전체)	8,639.0	2,823.0	2,414.0	3,402.0	4,319.0		4,320.0		
지방하천정비	2009~2018	하천의아·치수기능보강 및 자연친화적하천정비	20,343.0		6,392.0	13,951.0	12,206.0	4,476.0	3,661.0		
댐주변지역정비	2006~2013	부안댐 3개사업 87건	510.0	154.0	356.0		121.0		51.0		338.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섬진강댐 수물민 이주대책	2001~2012	임실군 운암면 등 섬진강댐 일원	912.0	475.0	437.0		678.0	234.0			
일반용수개발(지표수보강)	1995~2020	농업용수 추가 확보로 상습 가뭄지역 해소	1,970.0	957.5	457.0	555.5	1,685.0		285.0		
일반용수개발(소규모)	1995~2015	수혜면적 50ha 미만의 가뭄상습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 소규모 수리시설을 설치	745.0	487.0	110.0	148.0	426.0	125.0	194.0		
저수지특높이기사업	2010~2015	저수지 특 높임을 통한 농업용수 및 환경용수 확보	3,251.0	546.0	2,705.0		3,251.0				
다목적용수개발사업	2010~2020	수혜면적 50ha 이상의 지역에 저수지, 양수장 등을 설치 다목적 용수 확보	5,536.0	2,536.0	1,500.0	1,500.0	5,536.0				
빗물재이용및수자원순환체계구축시범사업	2013~2015	빗물 재이용 및 LID 시범사업	50.0	0.0	50.0		25.0	12.5	12.5		
워터 그리드 지능화 사업	2012~2015	물산업 관련기술개발 참여	270.0		270.0		228.0			42.0	
워터그리드 지능화 실증단지 조성	2014~2020	새만금 스마트워터그리드 실증단지 조성	3,000		500	2,500	2,000	150	150	700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지원	2012~2015	에너지진단 지원, 20개 업체	69.9		69.9		55.8	4.2	9.9		
지역에너지 개발사업	2011~2015	에너지절약 가로등 원격제어시스템 교체 등	94.0		94.0		49.7			44.3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 사업	2009~2015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 확대보급 및 민간투자 유도	1,224.1	912.1	312.1		725.6	132.2	300.0	66.3	
전주 유기성폐기물 에너지화사업	2009~2013	음식물류 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가스 생산 (300톤/일)	670.5	3.0	667.5		171.7	98.3	400.5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화 사업	2011~2012	소화조개선3,993m ² ×6, 폐열회수설비1식	51.3		51.3		35.9		15.4		
스마트 그리드 거점도시 사업	2014~2020	IT기반 전력공급 거점도시 조성사업	1,500.0		200.0	1,300.0	750.0	125.0	125.0	500.0	
임실군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2013~	신재생에너지 시설 설치 4,585m ² , 458kw	32.9		32.9		16.4		16.4		
농촌형에너지자립녹색마을 조성사업	2011~2012	에너지 시설을 위한 주택기둥정비, 태양열 및 태양광시설, 녹색마을센터 등	43.3		43.3		21.6	16.2	5.5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지원	2011~2020	에너지 자립마을 시설비 및 프로그램 지원	400.0		200.0	200.0	200.0	50.0	50.0	100.0	
탄소포인트제 운영	2009~2013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	12.2	3.2	9.0		6.1	2.4	3.7		
에코에듀센터 설립	2009~2012	아토피케어수련시설, 환경보건교육센터	127.0	66.0	61.0		50.0	15.0	62.0		
천연가스자동차 보급	2000~2014	자동차 보급	281.9	208.2	73.7		141.0	41.9	99.0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2010~2013	전주외 4개시·군	39.0	7.0	32.0		28.0	5.0	6.0		
기후변화대응 사업	2011~2014	육상녹화 등 기후변화사업	41.3		41.3		32.8	8.4			
기후친화 네트워크 시범마을 사업	2013~2016	기후변화 적응 네트워크 구축	17.0		10.0	7.0	7.0	7.0	3.0		
그린스타트 운동	2010~2020	온실가스 감축 지역 네트워크 지원	20.0	2.0	9.0	9.0	10.0	3.6	6.4		
지역 기후변화 감시 및 지역기후 서비스사업	2012~2016	수요자 맞춤형 기후변화 정보제공	30.0		20.0	10.0	15.0	7.0	8.0		
2014 아토피프리 세계엑스포 개최	2014	부지 373,500m ² 전시 150개기업 500부스	32.0		32.0		16.0	6.0	10.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전주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사업	2009~2014	90톤/일	196.9	6.9	190.0		58.8		32.8	105.3	
무주 전처리시설 설치	2009~2012	80톤/일	120.0	12.0	108.0		60.0	9.0	51.0		
익산 공공재활용 기반시설 확충	2012~2013	50톤/일	50.0		50.0		15.0		35.0		
군산 비위생매립장 정비사업	2010~2015	55천m ²	246.0		246.0		123.0		123.0		
농어촌종합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2011~2013	무주(10천톤), 순창(5.9천m ²)	48.0		48.0		30.0		18.0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지원	2010~2014	20,000톤/년	60.0	10.0	50.0			5.4	54.6		
하천하구부유 쓰레기 수거사업	2009~2013	하천490톤/년, 하구420톤/년, 섬진강정화사업지원(4개시·군)	99.0	15.0	84.0		68.0	5.0	26.0		
고창군 광역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2013~2015	50톤/일	182.0		182.0		91.0			91.0	
전북 광역 TIF사업	2010~2014	5개 산업단지	65.0		65.0			3.9	9.1		52.0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2006~2013	9개소 585톤/일	1,257.1	235.9	1,021.2		1,257.1				
해양쓰레기 선상집하장	2011~2020	(군산)항·포구에 평부선(바지) 형태의 선상집하장 설치	9.5		4.5	5.0	4.8	1.4	3.3		
해양폐기물정화	2011~2020	조업중 인양한 해양쓰레기 구매	74.0	30.0	22.0	22.0	45.0	7.0	22.0		
방치폐선처리	2011~2020	(군산, 부안)항포구 및 연안해역에 방치되어 있는 폐선처리	9.4	5.4	2.0	2.0	4.7	1.9	2.8		
도시광산산업단지 조성사업	2013~2020	익산시일원	1,100.0	0.0	50.0	1,050.0	20.0		80.0	1,000.0	0.0
광역 상수원 지킴이	계속사업	지킴이 113명 (용담호58, 옥정호25, 동화댐15, 부안댐15)	47.2	10.1	30.8	6.3		34.6	12.6		
새만금 물사랑 운동	2010~2014	새만금 수질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19.0	1.0	18.0			11.0	8.0		
하수처리장 설치	1990~2021	70개소 1,133천톤/일	13,335.3	11,037.5	966.5	1,331.3	6,528.2	1,254.2	2,642.9	603.5	2,306.6
기존하수처리장개량(고도처리)	2002~2013	45개소 1,503.3천m ³ /일	2,258.7	1,607.7	651.0		1,263.6	343.6	447.7	100.8	103.0
합류식 하수도 유통수처리(CSOs)	2010~2013	4개소 139천m ³ /일	1,140.0	26.6	1,113.4		702.0	67.2	370.8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선	2008~2015	노후화된 가축분뇨처리시설 개선 및 신규사업(증설) 설치	1,268.0	444.6	823.4		1,004.7		166.1	97.1	
비점오염원저감시설 설치	2011~2020	14개 시·군 20개소	465.0		465.0		232.5		232.5		
왕궁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2010~2015	공공처리장700m ³ /일, 마을하수도490m ³ /일, 간이양로시설211동	1,159.0		1,159.0		706.0	186.0	267.0		
용지정착농원 환경개선사업	2011~2017	공공처리장300m ³ /일, 마을하수도180m ³ /일, 바이오순환림조성103천m ² 등	680.0		680.0		440.0	16.0	224.0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2011~2020	3개하천	293.0		175.8	117.2	146.0	147.0			
침전지 시설 설치	2011~2020	2개소	330.0		198.0	132.0	330.0				
인처리 시설 설치	2011~2020	2개소	1,050.0		630.0	420.0	1,050.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환경모니터링 및 수질개선 연구	2011~2020	환경부자체 모니터링 사업	315.0		189.0	126.0	315.0					
생태하천 복원 사업	계속사업	64개 하천 307km	6,485.0	1,751.0	1,490.0	3,244.0	4,325.0	65.0	2,095.0			
제외경작지 초지 조성 등	2011~2020	제외지 경작방지	2,208.0		1,324.8	883.2	2,208.0					
강변저류지 조성	2011~2020	3개소	617.0		370.2	246.8	617.0					
하천 퇴적토 준설	2011~2020	퇴적토 관리	2,943.0		1,765.8	1,177.2	2,943.0					
어우보 운영개선	2011~2020	어우보 운영	44.0		26.4	17.6	44.0					
해양환경보전대책 수립(R&D)	2011~2020	대책수립	2.0		1.2	0.8	2.0					
농업비점오염원관리-거버넌스 구축	2011~2020	비점시설 및 거버넌스 프로그램	630.0		378.0	252.0	360.0	270.0				
개별처리시설 및 자원화 지원	2011~2020	처리시설 지원	275.0		165.0	110.0	130.0	68.0	77.0			
금강호 희석수 도입	2011~2020	금강 유량확보	1,940.0		1,164.0	776.0	1,940.0					
생태공원조성	2009~2013	완주,임실,고창	181.0		181.0		91.0		90.0			
도립공원 생태계 복원 및 정비사업	계속사업	4개도립공원, 141.241km(모악산,대둔산,마이산,선운산)	106.0		106.0		40.0	26.0	40.0			
도민참여 생물지표 모니터링 시범사업	2013~2016	생태계 조사 및 DB구축	26.0		20.0	6.0	13.0	9.0	4.0			
4대강 핵심 생태축 조성 프로젝트	2013~2024	금강, 섬진강 수변 생태 복원/보전/이용 프로그램	2,500.0		1,000.0	1,500.0	1,750.0		750.0			
습지 현황조사 및 보전활용방안 수립	2012~2016	습지현황 기본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10.0		8.0	2.0	3.0	5.0	2.0			
자연환경연수원 시설확충	계속사업	시설확충	20.0	2.0	15.0	3.0	20.0					
멸종위기종복원사업	2011~2015	(장수)멸종위기종복원센터,방문자숙소정비,인공증식시설 등	290.0		115.8	174.2	145.0	58.0	87.0			
동림저수지 자연생태공간 조성	2013~2015	1식	60.0		60.0	0.0	30.0		30.0			
군산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	2009~2013	집중화권역조성사업 5,920㎡,탐방로조성사업2.29km	140.0	83.0	57.0		70.0	21.0	49.0			
국립산림테라피단지 조성	2013~2017	호남권 산림테라피단지 조성	300.0		300.0		300.0					
덕유산 문화숲길 조성	2013~2015	무주군 무풍면~경남 함양 155km	60.0		60.0		42.0	18.0				
백두대간 단절구간 복원사업	2013~2017	남원 주천 고기리~덕치리 노치마을 백두대간 마루금 단절 구간복원	773.0		773.0		773.0					
백두대간 삼도봉권역 산림휴양복합단지조성	2013~2017	백두대간 등산학교, 무인탐방지원센터, 산림문화 센터 등 10개 사업	590.0		590.0		295.0	88.5	206.5			
국립 숲채원 조성	2013~2015	지리산 일원에 국립 숲채원 1개소 신규사업조성(680ha)	300.0		300.0		300.0					
백두대간생태문화공원조성	2010~2013	백두대간의 녹색자원을 활용한 휴양 및 생태체험공간 조성	400.0	30.0	370.0		200.0	40.0	160.0			
자연휴양림조성	2011~2020	자연휴양림 신규사업조성 및 시설물보완	952.0	392.0	336.0	224.0	476.0		476.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도시숲조성사업	2011~2020	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2,263.0	931.8	798.7	532.5	1,131.5		1,131.5		
생활림조성관리	2011~2020	학교숲, 전통마을숲 조성	156.4	64.4	55.2	36.8	78.2	23.8	54.4		
숲길조성관리	2011~2020	생활권 등산로 조성 및 관리	404.0	166.0	143.0	95.0	202.0		202.0		
생태숲조성	2011~2020	생태탐방로, 전문전시원, 야생화전문원 조성 등	195.0	80.0	69.0	46.0	97.5		97.5		
아름다운 금강변 포구마을 가꾸기	2009~2012		47.0	13.5	33.5		22.8		24.3		
벽골제 발골 및 세계문화유산 등재	2008~2017	303,843㎡	1,031.0		186.0	845.0	721.0	155.0	155.0		
벽골제농경문화역사정비	2012~2019	186,600㎡	368.0		225.0	143.0	244.0	52.0	52.0	20.0	
새만금 생태숲조성 유지관리	계속사업	생태숲 616ha(왕벚 등 43종 222천본)	78.9	37.5	18.6	22.7		12.6	66.3		
새만금 국립수목원 및 방재림 조성	2011~2020	국립 수목원 및 탄소중립숲, 녹지축, 방재림 조성	5,000.0		340.0	4,660.0	5,000.0				
새만금 수변에너지림 조성	2013~2020	포플러류 등 속성수를 활용한 1,000ha의 에너지림 조성	160.0		160.0		160.0				
민관 재난예경보 네트워크 구축	2012~2016	14개시·군 시스템 및 서버구축	50.0		40.0	10.0					50.0
재해지도전산화	2012~2013	재해지도종합전산망구축	15.0		15.0		15.0				
지방하천 전문가 모니터링 사업	2013~2016	주요도심하천수문자료구축, (전주천시범사업)	10.0		7.5	2.5	5.0	2.0	3.0		
폭설대비 지방도 적설대응체계구축	2013~2016	적설감시용CCTV설치 및 통합감시체계구축,첨단제설차량도입등	60.0		55.0	5.0	30.0	30.0			
주요지방하천홍수예경보시스템구축	2013~2015	도시하천대상(전주천 시범사업)	30.0		20.0	10.0		15.0	15.0		
산림재해모니터링	2011~2020	소나무재선충병 감시조소운영	24.6	10.1	8.7	5.8	14.7	2.9	7.0		
시·군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2010~2015	지역내CCTV 효율적관제 및 운영	136.2	11.6	84.4	40.2	68.1		68.1		
전라북도 CCTV 통합 119 관제센터구축	2011~2015	전라북도 전지역 통합 구축	20.0		20.0		10.0	10.0			
재해위험지구 정비	1998 ~ 2016	224개소	6,921.0	2,624.0	3,307.0	990.0	4,153.0	1,372.0	1,396.0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	2009 ~ 2020	15개소	1,193.0		593.0	600.0	694.0	150.0	349.0		
급경사지정비사업	2012 ~ 2021	붕괴위험지구 C, D등급 25개소 연차별 정비	518.0		180.0	338.0	259.0	130.0	129.0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사업	2012 ~ 2014	25개소	152.0		152.0		76.0		76.0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용역	2012 ~ 2014	도 및 14시·군	137.0	73.0	64.0			20.0	117.0		
다목적 저류지 조성	2014~2020	L=460m(신촌, 신흥, 상관)	1,000.0	0.0	300.0	700.0	1,000.0	0.0	0.0	0.0	0.0
국가관리방조제	계속사업	해안지역	62.0	0.0	62.0	0.0	62.0	0.0	0.0	0.0	0.0
지방관리방조제(직접)	계속사업	해안지역	90.0	0.0	60.0	30.0	42.0	48.0	0.0	0.0	0.0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내용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억원)			재원별(억원)				
				기투자	2011~2015	2016~2020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기타
해안방재림 연구센터 설립	2013~2014	새만금 동북부 농업용지 묘목장 부지에 국립 연구센터 설립	275.0		275.0		275.0				
노후소방차량 현대화 사업	2012~2016	차량 187대 교체	253.0		205.0	48.0		253.0			
소방관서 신설 및 청사현대화 사업	2012~2016	소방서 1, 센터 5, 지역대 4	167.6		153.8	13.8		167.6			
소방안전지킴이	2010~2014	9,000세대	2.7		2.7			2.7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2012	3,746가구	2.2		2.2		1.1	0.6	0.5		
119 안전체험센터 건립	2009~2012	체험센터 1개소	221.5	60.5	161.0		110.0	111.5			
산불방지대책	2011~2020	도 및 14시·군	1,218.6	501.8	430.1	286.7	487.4	222.4	508.8		
산불진화용헬기임차	2011~2020	산불진화용 헬기임차 (130일)	40.0		24.0	16.0		12.0	28.0		
산불감시원및예방진화장비	2011~2020	도 및 14시·군	305.2	277.1	16.9	11.2		38.5	266.7		

참여연구진

연구수행기관

전북발전연구원
원장 : 김경섭

연구진

총괄연구책임	김진석 (전북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구진	김보국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김이수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재구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형오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동기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중섭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창우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임승현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장남정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장성화 (전북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황영모 (전북발전연구원 부연구위원)
	김민경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김경민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유수영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유태우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신동훈 (전북발전연구원 위촉연구원)

자문위원

- 강대호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강동희 (군산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김동원 (전북대학교 산업정보시스템공학과 교수)
김득수 (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김승운 (전북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김현숙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노재현 (우석대학교 조경도시디자인학과 교수)
문창호 (군산대학교 건축공학과 교수)
박상우 (서남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박영기 (전북대학교 사회기반시스템학과 교수)
백종만 (전북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서승원 (군산대학교 해양건설공학과 교수)
송춘호 (전북대학교 생명자원유통경제학과 교수)
송해안 (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심상욱 (전주대학교 문화관광학부 교수)
안국찬 (전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양재 (원광대학교 도시공학부 교수)
임광현 (원광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정철모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기성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조재성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채병선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최영기 (전주대학교 관광학부 교수)
홍성훈 (전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국토계획평가 자문위원

강동희 (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박종현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균형발전 담당)

변무섭 (전북대학교 조경학과 교수)

송해안 (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이용우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원)

장태연 (전북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정권 (원광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철모 (전주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

조기성 (전북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전라북도 종합계획(2012-2020)

발행일 : 2013년 2월

인쇄일 : 2013년 2월

발행인 : 전라북도지사

발행처 : 전라북도 정책기획관실
